HOMER · THE ILIAD

일리아스

호메로스

전24권

A. T. Murray의 1924년 영어판을 경유한 중역입니다.
주 AI가 수록된 전체 구간을 영어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전문 번역가의 교열을 거친 것은 아니며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24권 전체 본문 수록.

차례

1. 제1권 · 역병과 아킬레우스의 분노 4
2. 제2권 · 아가멤논의 꿈과 함선 목록 43
3. 제3권 · 메넬라오스와 파리스의 결투 98
4. 제4권 · 맹약이 깨지다 127
5. 제5권 · 디오메데스의 무훈 162
6. 제6권 ·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221
7. 제7권 ·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 254
8. 제8권 · 중단된 전투 285
9. 제9권 · 아킬레우스에게 간 사절 322
10. 제10권 · 돌론과 밤의 정탐 366
11. 제11권 · 아가멤논의 무훈 400
12. 제12권 · 방벽을 둘러싼 싸움 452
13. 제13권 · 함선 곁의 싸움 479
14. 제14권 · 제우스를 속인 헤라 531
15. 제15권 · 함선까지 밀린 아카이아인 563
16. 제16권 · 파트로클로스의 출전과 죽음 609
17. 제17권 ·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둘러싼 싸움 661
18. 제18권 · 아킬레우스의 방패 710

19. 제19권 · 분노를 거두는 아킬레우스 748
20. 제20권 · 신들의 싸움..... 774
21. 제21권 · 강가의 싸움..... 806
22. 제22권 · 헥토르의 죽음..... 844
23. 제23권 ·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 876
24. 제24권 · 헥토르의 몸값.....931

제1권

역병과 아킬레우스의 분노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 그 파멸의 분노는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수많은 영웅의 굳센 혼을 하데스에게
보냈으며, 그들의 몸은 개와 온갖 새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빛나는 아킬레우스가 처음 다투고
갈라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들 가운데 누가 이 두 사람을 맞붙어 다투게
했습니까?

레토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그가 왕에게 노하여 온 군대에
몹쓸 역병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죽어 가기 시작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사제 크리세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크리세스는 딸을 되찾으려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의 손에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관이 황금 지팡이에 걸려 있었다.

그는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그중에서도 백성을 이끄는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여,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다른 아카이아인들이여.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께서 그대들이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을 풀어 주고 이 몸값을 받아 주십시오. 제우스의 아들, 멀리 쏘는 아폴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사제를 공경하여 그 훌륭한 몸값을 받자고 소리 높여 찬성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크리세스를 거칠게 내쫓으며 엄한 말을 던졌다.

"늙은이여, 지금 머뭇거리든 나중에 다시 오든, 속이 빈 배들 곁에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대의 지팡이도 신의 화관도 그대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풀어 주지 않겠다.

그 아이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아르고스, 우리 집에서 베틀 앞을 오가며 내 잠자리를 시중들다가 늙어 갈 것이다.

그러니 가라.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야 더 무사히 돌아갈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말을 따랐다.

노인은 말없이 크게 울리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자, 머리칼이 고운 레토가 낳은 아폴론 왕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 말을 들으소서, 은빛 활의 신이시여. 크리세와 신성한 킬라를 지키시고 테네도스를 힘차게 다스리시는 스민테우스 신이시여. 제가 일찍이 당신 마음에 들도록 신전의 지붕을 이어 드린 적이 있거나, 황소와 염소의 기름진 넓적다리를 태워 바친 적이 있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당신의 화살로 다나오스인들이 제 눈물의 값을 치르게 하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 소리를 들었다.

아폴론은 마음에 노여움을 품고 활과 뚜껑 덮인 화살통을 어깨에 멘 채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성큼성큼 내려왔다. 성난 신이 움직일 때마다 어깨 위에서 화살들이 덜걱거렸고, 그가 다가오는 모습은 밤과 같았다.

그는 배들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화살을 날렸다. 은빛 활이 울리는 소리는 무시무시했다.

그는 먼저 노새들과 날랜 개들을 쏘았고, 이어서 사람들에게도 날카로운 화살을 날려 맞혔다. 시신을 태우는 장작불이 쉴 새 없이 빽빽하게 타올랐다.

아흐레 동안 신의 화살이 군대 사이를 휩쓸었다. 열흘째 되는 날, 아킬레우스가 백성을 집회로 불러 모았다. 흰 팔의 헤라 여신이 다나오스인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 그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전쟁과 역병이 한꺼번에 아카이아인들을 쓰러뜨린다면, 우리는 죽음을 면한다 해도 결국 쫓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소.”

"자, 예언자나 사제, 아니면 꿈을 풀이하는 자에게
물어봅시다. 꿈 또한 제우스가 보내는 것이니 말이오.
포이보스 아폴론이 왜 이토록 노했는지, 지키지 않은
서약이나 백 마리 소의 제물 때문에 탓하는 것인지 그가 말해
줄 것이오. 어쩌면 아폴론이 어린양과 흠 없는 염소를 태우는
향기를 받고, 우리에게서 역병을 거두어 줄지도 모르오."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자, 테스토르의 아들
칼카스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는 새점을 치는 예언자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고,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과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았다. 또 포이보스 아폴론이 내려
준 예언의 힘으로 아카이아인들의 배를 일리오스까지 이끌어
온 사람이었다.

그는 호의를 품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제우스께서 아끼시는 아킬레우스여, 멀리 쏘는 신 아폴론
왕의 노여움을 밝히라고 제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잘 생각하시고,
말로도 완력으로도 기꺼이 저를 지켜 주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아르고스인 모두를 힘으로 다스리고
아카이아인들이 따르는 분을 노엽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랫사람에게 노하면 왕이 더 강한 법입니다. 그날은 노여움을 삼킨다 해도, 나중까지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다가 끝내 갚고야 맙니다. 그러니 저를 지켜 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대답했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아는 신탁을 무엇이든 말하시오. 칼카스여, 그대가 다나오스인들에게 신탁을 전할 때 기도하는, 제우스에게 사랑받는 아폴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속이 빈 배들 곁에서 그대에게 무거운 손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오.

다나오스인 전체 군대 중 그 누구도 말이오. 지금 아카이아인들 중 단연 최고라고 자처하는 아가멤논의 이름을 대더라도 말이오."

그러자 흠 없는 예언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신께서 탓하시는 것은 서약 때문도 아니고, 백 마리 소의 제물 때문도 아닙니다. 아가멤논이 모욕한 사제 때문입니다. 아가멤논은 그의 딸을 풀어 주지도 않았고 몸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쏘는 신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빛나는 그 처녀를 값도 받지 않고 몸값도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신성한 백 마리 소의 제물을 크리세로 이끌고 가기 전에는, 신께서 다나오스인들에게서 이 끔찍한 역병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가 신을 달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자, 그들 사이에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일어났다.

그의 검은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칼카스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의 눈빛은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불길한 예언자여, 그대는 단 한 번도 내게 즐거운 말을 한 적이 없구나. 그대는 예언할 때마다 늘 악한 것만을 즐거워할 뿐, 선한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그것을 이루어낸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 그대는 다나오스인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세스의 딸인 그 소녀를 내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는 이유로 그 영광스러운 몸값을 받지 않았기에,
멀리 쏘는 신께서 이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고
예언하는구나."

"사실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더
아낀다. 생김새로 보나 몸매로 보나, 지혜로 보나 솜씨로 보나
그 아이는 아내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편이 낫다면 돌려보내겠다. 백성이 죽어 가는
것보다 무사한 편이 낫다.

다만 곧바로 내 몫의 전리품을 마련해 주어라. 아르고스인
가운데 나만 전리품이 없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
너희 모두가 보다시피 내 전리품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발 빠른 빛나는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누구보다
탐욕스러운 이여. 마음이 드높은 아카이아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전리품을 줄 수 있겠소? 우리는 공동 창고에 쌓아둔
재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오. 다만 우리가
도시들로부터 약탈하여 얻은 것들은 이미 배분되었으니,
군대에서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소.

하지만 그 소녀를 신에게 돌려보내시오. 만약 제우스께서
우리에게 성벽이 튼튼한 트로이아 도시를 함락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그대에게 세 배, 네 배로
보답하겠소.”

아가멤논 왕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잔꾀로
나를 속이려 하지 마시오. 그대는 나를 앞지르지도,
설득하지도 못할 것이오.

그대는 그대의 전리품을 지키면서, 나에게는 그 여자를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나만 빈손으로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이오? 아니오. 마음이 드높은 아카이아인들이 내 마음에
들게 그만한 값어치의 전리품을 내준다면 모르겠으나,
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대의 전리품이나
아이아스의 것, 아니면 오디세우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오.”

“내가 찾아가는 자는 누구든 노하겠지. 하지만 이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이제 검은 배 한 척을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어 알맞은
노잡이들을 서둘러 모으고, 백 마리 소의 제물을 싣고, 뺨이
고운 크리세스의 딸을 태웁시다.

지휘는 신중한 사람 하나가 맡게 합시다. 아이아스나
이도메네우스, 빛나는 오디세우스, 아니면 누구보다 사나운
펠레우스의 아들 그대가 맡아도 좋소.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해 제물을 바쳐 멀리 쏘는 신을 달래 주시오.”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눈썹 밑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 몰염치를 옷처럼 두르고 이득만 꾀하는 자여! 그러고도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대의 말을 따라
원정길에 나서거나 적과 힘껏 싸우겠소?

내가 이곳에 싸우러 온 것은 트로이아의 창병들 때문이 아니오. 그들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들은 내 소나 말을 몰아간 적도 없고, 사람을 길러 내는 기름진 프티아에서 곡식을 망친 적도 없소. 우리 사이에는 그늘진 산들과 울부짖는 바다, 많은 것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오."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를 따라왔소, 이 파렴치한 자여. 개 낯짝을 한 그대와 메넬라오스를 위해 트로이아인들에게서 보상을 받아 내어 그대를 기쁘게 하려고 말이오. 그대는 그것을 아랑곳하지도, 마음에 두지도 않는구려.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그토록 애써 얻었고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내게 준 전리품을 몸소 빼앗아 가겠다고 을러대는구려. 아카이아인들이 사람이 많이 사는 트로이아인의 성채를 함락할 때마다, 나는 그대만 한 전리품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소."

"치열한 싸움의 고된 몫은 늘 내 손이 떠맡소. 그런데 막상 전리품을 나눌 때가 오면 그대의 몫이 훨씬 크고, 나는 싸우다 지칠 대로 지친 뒤에 작지만 소중한 몫을 배로 가져갈 뿐이오.

이제 나는 프티아로 돌아가겠소. 부리 모양 이물을 단 내 배들을 타고 집으로 가는 편이 훨씬 낫소. 여기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대를 위해 재물과 부를 쌓아 줄 생각은 없소."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마음이 시키거든 도망치시오. 나를 위해 남아 달라고 애원하지는 않겠소. 내 곁에는 나를 받들어 줄 다른 이들이 있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계시오.

제우스께서 기르시는 왕들 가운데 그대가 내게 가장 밉살스럽소. 그대는 늘 다툼과 전쟁과 싸움을 좋아하니 말이오. 그대가 그토록 강하다면, 내 생각에 그것도 신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오."

"그대의 배들과 동료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미르미돈인들을 마음껏 다스리시오. 나는 그대에게 관심이 없으며, 그대의 분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소.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경고하겠소. 포이보스 아폴론이 내게서 크리세스의 딸을 데려가듯, 나도 그녀를 내 배와 동료들과 함께 돌려보내겠소. 하지만 나는 직접 그대의 막사로 가서 그대의 전리품인 뺨이 아름다운 브리세이스를 빼앗을 것이오. 그리하여 내가 그대보다 얼마나 더 강한지 깨닫게 하겠소. 그러면 다른 이들도 내 앞에서 감히 나를 자신과 동등하다고 말하거나 나에게 비견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슬픔이 밀려왔다. 그의 거친 가슴 속에서 마음이 갈라졌다. 허벅지 옆에 찬 날카로운 칼을 뽑아 집회를 깨뜨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죽여야 할지,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가 마음과 정신으로 이를 숙고하며 칼집에서 커다란 칼을 뽑으려 할 때, 아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그녀를 보낸 것이었다. 헤라는 마음속으로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그의 뒤에 서서 펠레우스의 아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킬레우스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몸을 돌렸고, 즉시 팔라스 아테나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이시여, 어찌하여 지금 오셨습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오만함을 보러 오신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눈이 빛나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네 노여움을 가라앉히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흰 팔의 여신 헤라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은 너희 두 사람을 똑같이 아끼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자, 다툼을 그치고 칼에서 손을 떼라. 대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로 들려주며 그를 꾸짖어라. 내가 이렇게 말하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오만한 짓 때문에 훗날 너는 지금의 세 배나 되는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참고 우리 말을 따라라."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신이여,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두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신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은색 손잡이를 쥐었던 무거운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커다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으며, 아테나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신들의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궁전이 있는 올림포스로 돌아갔다.

그러나 펠레우스의 아들은 노여움을 조금도 거두지 않고, 다시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술에 찌든 자여, 개의 낯짝에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 그대는 백성과 함께 무장하고 싸움에 나서거나, 아카이아인의 장수들과 함께 매복하러 나갈 용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소. 그대에게는 그것이 죽음처럼 보이는 모양이구려. 차라리 넓은 아카이아인 진영을 돌아다니며 그대에게 맞서는 자의 전리품이나 빼앗는 편이 훨씬 낫겠지."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여,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것이 그대의 마지막 무례함이 되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그리고 이에 대해 강력한 맹세를 하겠소. 이 지팡이에 대고 맹세하오. 이 지팡이는 산속의 밑동을 떠난 이래로 다시는 잎이나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푸르게 자라지 못할 것이오. 청동이 지팡이의 사방에서 잎과 껍질을 모두 벗겨 버렸기 때문이오. 이제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 즉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법규를 수호하는 자들이 재판관 노릇을 할 때 이 지팡이를 손에 들 것이오. 이 맹세는 그대에게 강력한 맹세가 될 것이오.”

“분명 언젠가 아카이아인의 아들들 모두에게 아킬레우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것이오. 그날이 오면 그대가 아무리 슬퍼한들 그들을 전혀 도울 수 없을 것이오. 많은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 앞에서 죽어가며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오.

그때 그대는 아카이아인 중 가장 뛰어난 자를 예우하지 않았다는 분노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괴로워할 것이오.”

펠레우스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황금 못이 박힌 지팡이를 땅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자리에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서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때 그들 사이에서 달콤한 말을 하는 필로스인들의 명쾌한 목소리를 가진 웅변가 네스토르가 일어났다. 그의 혀에서는 꿀보다 더 달콤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생애 동안, 예전에 신성한 필로스에서 그와 함께 태어나 자랐던 필멸의 인간 두 세대가 지나갔고, 그는 세 번째 세대 사이에서 왕으로 있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동료들이여, 아카이아의 땅에 커다란 슬픔이 닥쳤소.
다나오스인들 중에서 모략에 있어 으뜸이고 전쟁에서 으뜸인
그대들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다면,
프리아모스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은 진정 기뻐할 것이며
나머지 트로이아인들도 마음속으로 매우 즐거워할 것이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둘 다 나보다 젊소. 예전 시절에
나는 그대들보다 더 호전적인 사람들 사이를 누볐으나,
그들은 결코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소."

"그 뒤로 나는 페이리토오스와 백성의 목자 드리아스,
카이네우스와 엑사디오스, 신과 같은 폴리페모스, 그리고
불사신 같은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만 한 전사들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오.

그들은 땅 위에서 자란 사람 가운데 가장 강했소. 가장 강한 그들이 가장 강한 적, 산에 사는 켄타우로스들과 싸워 그들을 처참하게 무찔렀소.

나는 멀고 먼 땅 필로스에서 그들에게 가서 함께 어울렸소. 그들이 직접 나를 불렀기 때문이오. 나는 내 힘으로 싸웠소. 지금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렇소, 그들은 나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나의 말을 따랐소. 그러니 그대들도 따라야 하오.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길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소녀를 빼앗지 마시오.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처음에 전리품으로서 그녀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녀를 그대로 두시오. 또한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힘과 힘이 맞붙는 식으로 왕과 다투려 하지 마시오. 제우스께서 영광을 주시는, 홀을 든 왕의 몫은 결코 평범한 영예가 아니기 때문이오."

"그대가 더 강한 전사이고 여신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는 더 많은 이를 다스리는 왕이기에 더 강력한 사람이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의 분노를 억누르시오.

진정으로 간청하건대, 아킬레우스를 향한 그대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오. 그는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있어 험난한 전쟁 중의 강력한 방벽이오."

그 말에 아가멤논 왕이 대답했다.

"노인이여, 그대의 말은 모두 옳소. 하지만 이자는 누구보다 위에 서려 하오. 모든 이를 다스리고, 모든 이의 왕이 되고, 모두에게 명령하려 하오. 그러나 내 생각에 여기에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있소. 영원한 신들이 그를 창잡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욕을 퍼부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오?"

빛나는 아킬레우스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대답했다.

"그대가 하는 말마다 내가 굽힌다면, 나는 겁쟁이요 쓸모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오."

"그런 명령은 다른 자들에게나 내리시오. 내게는 명령하지 마시오. 나는 더는 그대를 따르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테니 마음에 새겨 두시오. 그대들이 준 것을 도로 빼앗아 가는 것이니, 나는 그 여자 때문에 그대와도, 다른 누구와도 내 손으로 싸우지 않겠소.

하지만 나의 날랜 검은 배 곁에 있는 다른 것은 무엇 하나도 내 뜻을 거슬러 가져가지 못할 것이오. 자, 어디 한번 해 보시오. 여기 있는 자들도 알게 될 것이오. 그대의 검은 피가 당장 내 창 둘레로 쏟아지리라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이 격렬한 말로 다투기를 마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카이아인들의 배 옆에 모여 있던 집회를 해산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막사와 균형 잡힌 배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바다에 날랜 배 한 척을 띄우고, 그 배에 탈 노를 저을 사람 스무 명을 뽑았다. 그는 신에게 바칠 백 마리 소의 제물을 배에 실었고, 뺨이 아름다운 크리세스의 딸을 데려와 배에 태웠다. 그리고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지휘를 맡기 위해 배에 올라탔다.

그렇게 그들은 배에 올라 물길을 따라 항해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부정함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황량한 바다의 해안가에서 아폴론에게 완벽한 황소와 염소 백 마리의 제물을 바쳤다. 제물의 향기가 연기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진영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처음 위협했던 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령이자 준비된 시종인 탈티비오스와 에우리바테스를 불렀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가서, 뺨이 아름다운 브리세이스의 손을 잡고 이리로 데려오너라. 만약 그가 그녀를 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서 그녀를 데려오겠다. 그것은 그에게 훨씬 더 나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아가멤논은 그들을 보내며 엄한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황량한 바다의 해안을 따라 걸어 미르미돈인들의 막사와 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막사와 검은 배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킬레우스는 그들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왕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힌 두 전령은 서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반갑소, 제우스와 사람들의 전령들이여. 가까이 오시오."

"내 눈에 죄가 있는 것은 그대들이 아니라, 저 소녀
브리세이스를 위해 그대들을 보낸 아가멤논이오. 하지만
오시오, 제우스의 후손인 파트로클로스여. 소녀를 데리고
나와 저들에게 넘겨주어 데려가게 하시오.

다만, 훗날 군대에서 수치스러운 파멸을 막기 위해 내가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이 두 사람이 복된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 그리고 저 무자비한 왕 앞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오.

참으로 그는 해로운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으며,
아카이아인들이 배 옆에서 안전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앞뒤를 살필 줄을 전혀 모르고 있구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그의 소중한 동료의
말에 순종했다. 파트로클로스는 막사에서 뺨이 고운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나와 그들이 데려갈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카이아인들의 배 옆으로 돌아갔고, 그 여인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갔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회색 바다의 해변에 앉아, 포도주빛의 깊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두 손을 뻗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 비록 제 삶이 이토록 짧을지라도,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제 손에 반드시 영광을 안겨 주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저를 조금도 영광스럽게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가 오만한 행동으로 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인 노인 곁에 바다 깊은 곳에 앉아 있다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안개처럼 회색 바다에서 빠르게 나타나, 울고 있는 아킬레우스 앞에 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그를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러 말을 건넸다.

“내 아이야, 왜 우느냐? 무엇이 네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숨기지 말고 말해 보아라. 우리 둘 다 알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무겁게 신음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어머니께 제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에에티온의 성스러운 도시인 테베로 나아가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전리품을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은 전리품을 자신들 사이에 적절히 나누어 가졌으나,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위해서는 뺨이 고운 크리세스의 딸을 골라 가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쏘는 아폴론의 사제인 크리세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으로 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황금 지팡이에 멀리 쏘는 아폴론의 화관을 들고서, 모든 아카이아인에게, 특히 백성을 이끄는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모든 아카이아인이 사제를 공경하고
영광스러운 몸값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아가멤논의 마음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제를 거칠게 돌려보내며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분노하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폴론은
그를 매우 아꼈기에 그의 기도를 들었고, 아르고스인들을
향해 재앙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화살은 아카이아인들의 넓은 진영 곳곳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지식을 가진 예언자가 우리에게 멀리 쏘는
신의 신탁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앞장서서 신을 달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노여움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나
을러대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빠른 아카이아인들은 그 처녀를 날랜 배에 태워
크리세로 데려가며 신께 바칠 선물을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령들이 제 막사에서 다른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제게 준 브리세우스의 딸 말입니다.”

“어머니, 하실 수 있다면 아들을 지켜 주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제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 적이 있다면, 올림포스로 가서 제우스께 간청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궁전에서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른 올림포스 신들, 곧 헤라와 포세이돈과 팔라스 아테나가 검은 구름의 주인 크로노스의 아들을 묶으려 하던 날, 불사의 신들 가운데 어머니 홀로 그분을 치욕스러운 파멸에서 구해 냈다고 하셨습니다.”

“여신이신 어머니는 그곳에 가서 그분을 결박에서 풀어 드렸습니다. 신들은 브리아레오스라 부르고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이온이라 부르는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를 서둘러 높은 올림포스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보다도 힘이 셉니다.

그가 자기 영광을 뽐내며 크로노스의 아들 곁에 앉자, 복된 신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제우스를 묶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무릎을 붙잡으십시오. 혹시라도 그가 트로이아인들을 돕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른 이들인 아카이아인들을 그들의 배 뒷부분과 바다 사이에 가두어 죽게 함으로써, 그들이 모두 그들의 왕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하십시오. 또한 널리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 예우를 다하지 않은 자신의 눈먼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자 테티스가 울며 그에게 대답했다.

"아, 내 아이야, 불운하게 너를 낳은 내가 어찌하여 너를 길렀단 말이냐?"

"네 수명이 짧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눈물도 슬픔도 없이 네 배들 곁에 머무는 것이 네 운명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너는 빠른 죽음을 맞이할 운명에 처했고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을 짊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우리 궁전에서 너를 불행한 운명으로 낳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개를 즐기시는 제우스께 네 말을 전하기 위해 내가 직접 눈 덮인 올림포스로 가겠다. 그분이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니 너는 바다를 누비는 날랜 배들 곁에 머물며
아카이아인들에게 노여움을 품고, 싸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있거라. 제우스는 어제 잔치에 가려고 오케아노스의 흠
없는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갔고, 신들도 모두 그를 따라갔다.
열이틀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내가 청동 문턱이 있는 제우스의 집으로 가서 그의
무릎을 잡고 간청하겠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길을 떠나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허리띠를 아름답게 두른 여인 때문에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그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빼앗긴 사람이었다.

그러는 동안 오디세우스가 백 마리 소의 제물을 가지고
크리세에 도착했다.

그들이 깊은 항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돛을 접어 검은
배 안에 실었다. 그리고 돛대를 앞돛줄로 내려서 재빨리
거치대로 옮긴 뒤, 노를 저어 정박지로 배를 몰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류석을 던져 고정하고 선미 밧줄들을
단단히 묶은 뒤, 자신들은 바닷가로 나갔다.

그들은 멀리 쏘는 아폴론을 위해 백 마리 소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며, 크리세스의 딸 또한 항해하는 배에서 내렸다.

그때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제단으로 이끌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며 말했다.

"크리세스여,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께서 그대에게 딸을 데려다주고, 다나오스인들을 대신해 포이보스께 신성한 백 마리 소의 제물을 바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아르고스인들에게 비통한 슬픔을 내리신 아폴론 신을 이 제물로 달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오디세우스는 그녀를 크리세스의 품에 안겨 주었고, 크리세스는 기쁘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들은 잘 만들어진 제단 주위에 신을 위한 거룩한 백 마리 소의 제물을 서둘러 차려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손을 씻고 보리 알갱이를 집어 들었다.

그러자 크리세스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위해 크게 기도했다.

“은빛 활의 신이시여, 크리세와 거룩한 킬라를 굽어살피시며
테네도스를 강력하게 다스리시는 신이시여, 제 목소리를
들어 주소서. 제가 기도했을 때 제 말을 들어 주셨던 것처럼,
제게 영광을 주시고 아카이아인들의 군대를 강력하게 치셨던
것처럼, 이제 저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다나오스인들에게서 이 끔찍한 역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보리를 뿌린 뒤, 먼저 제물의 머리를
뒤로 젖혀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넓적다리를 잘라
내어 기름으로 두 겹을 싸고 그 위에 날고기를 얹었다.

노인은 그것을 장작 위에서 태우며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었다. 그 곁에서 젊은이들은 다섯 갈래 꼬챙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허벅지 살이 완전히 타버리고 내장을 맛본 뒤에, 그들은
나머지 고기를 잘라 꼬챙이에 꿰어 정성껏 구운 다음
꼬챙이를 모두 뽑아냈다.

노동을 마치고 식사를 준비하자 그들은 잔치를 벌였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잔치에 부족함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젊은이들은 사발에 음료를 가득 채워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먼저 잔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술을 몇 방울 따랐다.

그렇게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온종일 아름다운 파이안(아폴론 찬가)을 부르며 멀리서 일을 이루는 신을 기리고 노래로 신을 달랬다. 신은 그 노래를 듣고 마음이 흐뭇해졌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그들은 배의 고물 밧줄 곁에 누워 쉬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 아카이아인의 넓은 진영을 향해 뱃길에 올랐다.

멀리서 일을 이루는 아폴론이 순풍을 보내 주었다. 그들은 돛대를 세우고 흰 돛을 펼쳤다.

그리하여 바람이 돛의 배를 채웠고, 배가 나아가며 검은 파도는 배의 이물에서 크게 노래했다. 배는 파도 위를 질주하며 길을 나아갔다.

그들이 아카이아인들의 넓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검은 배를 해안가 모래사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배 아래에 긴 받침대들을 줄지어 세운 뒤, 자신들은 막사와 배들 사이로 흩어졌다.

그러나 펠레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혈통인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찬 채로, 빠르게 항해하는 자신의 배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집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전쟁터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는 전쟁의 함성과 전투를 갈망했다.

그로부터 열두 번째 아침이 밝았을 때, 영원한 신들이 모두 한 무리가 되어 올림포스로 올라왔고, 제우스가 앞장섰다.

테티스는 아들의 부탁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바다의 파도 속에서 일어나 이른 아침에 거대한 하늘과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멀리 보는 크로노스의 아들이 여러 능선이 있는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다른 이들과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테티스는 제우스 앞에 앉아 왼손으로는 그의 무릎을 감싸 안았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턱 밑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왕에게 기도로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만약 제가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도운 적이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앞서 죽을 운명에 처한 제 아들을 명예롭게 해 주소서. 그런데 지금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이 오만한 행동으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니, 제 아들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제우스여, 지혜의 주인이시여, 제 아들을 명예롭게 해 주소서. 그리고 아카이아인들이 제 아들에게 명예를 돌려주고 보상으로 그를 높여 줄 때까지, 트로이아인들에게 힘을 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으나,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테티스는 그의 무릎을 붙잡은 채 그대로 그에게 밀착하여 매달렸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다.

“제게 틀림없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거절하십시오. 당신께서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모든 신들 중에서 얼마나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소서.”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는 몹시 괴로워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로 하여금 헤라와 다투게 만들려 하니, 참으로
괴로운 일이 되겠구나. 헤라가 조롱하는 말로 나를 화나게 할
때면 말이다. 그녀는 지금도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항상 나를
꾸짖으며, 내가 전투에서 트로이아인들을 돕고 있다고
선언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헤라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시 물러가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생각해보겠다.”

“오너라, 내가 그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리니 그대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내가 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 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으며, 거짓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법도 없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말하며 동의의 뜻으로 검은 이마를
숙였다. 왕의 불멸하는 머리에서 신성한 머리카락이
휘날렸고, 그는 거대한 올림포스를 뒤흔들었다.

두 신은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헤어졌다. 테티스는 빛나는
올림포스에서 곧장 깊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제우스는 자기
궁전으로 갔다.

신들은 모두 아버지를 맞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앉은 채 기다릴 엄두를 내는 신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그의 앞에서 일어섰다. 제우스는 그곳 왕좌에 앉았다.

하지만 헤라는 바다 노인의 딸, 은빛 발의 테티스가 그와 의논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조롱 섞인 말로 말했다.

“교활한 분이시여, 신들 중에 누가 지금 다시 당신과 의논을 마쳤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저를 멀리하고, 홀로 은밀히 숙고한 판결을 내리기를 즐기십니다. 당신이 꾸미는 일을 저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밝히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헤라여, 나의 모든 말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의 아내일지라도, 그 말들은 당신에게 고될 것이오.”

“그대가 들어야 마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신의 일이든 인간의 일이든 그 누구도 그대보다 먼저 알 수는 없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신들을 제외하고 따로 꾸미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캐묻거나 묻지 마시오.”

소 같은 큰 눈의 위엄 있는 헤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서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당신께 캐묻거나 여쭌 적이 없고, 당신은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마음 편히 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몹시 두렵습니다. 바다 노인의 딸, 은빛 발의 테티스가 당신을 꾀어낸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녀가 이른 새벽에 당신 곁에 앉아 무릎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여 틀림없는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를 높여 주고, 아카이아인들의 배 곁에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상한 여인이여, 그대는 늘 의심하니 나는 그대를 피할 수가 없구려. 하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 더 멀어질 뿐이오. 그러면 그대에게 더 나쁠 것이오. 일이 그대 말대로라면, 그것이 내 뜻인 게지.

그러니 잠자코 앉아 내 말을 따르시오. 내가 이 막을 수 없는 손을 그대에게 뻗치며 다가가면, 올림포스의 신들이 모두 나서도 그대를 돕지 못할 것이오."

그가 말을 마치자, 소 같은 큰 눈의 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앉았다.

그러자 제우스의 궁전 전체에 하늘의 신들이 동요하였다. 그들 중 명성 높은 장인인 헤파이스토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인 흰 팔의 헤라를 기쁘게 해 드리고자 말했다.

"두 분께서 필멸의 인간들을 위해 이토록 다투시며 신들을 소란스럽게 만드신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슬픈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쁜 일들이 만연하니, 훌륭한 잔치에서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지혜로우시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제우스의
마음에 드시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다시 어머니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잔치를 어지럽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번개의 주인이신 올림포스의 신께서
우리를 자리에서 내동댕이치려 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분이 훨씬 강하십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말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올림포스의 신께서 곧 우리에게
너그러워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헤파이스토스는 벌떡 일어나 손잡이가 둘
달린 잔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에 쥐여 드리고 말했다.

“어머니, 인내하시고 모든 슬픔을 견뎌내십시오. 어머니께서
저에게 소중한 분이신데, 제 눈으로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제가 아무리 슬퍼한다
해도 결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올림포스의
신과 다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를 구하려 애쓰고 있을 때, 그분께서 제
발을 붙잡고 천상의 문턱에서 내던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거꾸로 떨어졌고, 해가 질 무렵 렘노스에
떨어졌을 때는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곳 신티아 사람들이 떨어진 저를 서둘러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흰 팔의 여신 헤라가 빙그레 웃으며
아들의 손에서 잔을 받았다.

헤파이스토스는 섞음 동이에서 달콤한 넥타르를 떠서 다른
모든 신에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따라 주었다.
헤파이스토스가 궁전 안을 헐떡이며 바삐 오가는 것을 보고
복된 신들 사이에서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잔치도, 아폴론이 들고 있는
아름다운 리라도, 달콤한 목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뮤사들도 부족함이 없었다.

밝은 햇빛이 지자 신들은 저마다 쉬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절름발이 신, 이름 높은 헤파이스토스가 솜씨를 다해
신들마다 궁전을 지어 두었던 것이다.

번개의 주인인 올림포스의 제우스도 달콤한 잠이 찾아올
때면 예부터 쉬던 자기 침상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올라
잠들었고, 그 곁에는 황금 왕좌의 헤라가 누웠다.

제2권

아가멤논의 꿈과 함선 목록

그동안 다른 모든 신들과 전차를 모는 영웅들은 밤새도록 잠들었으나, 제우스는 달콤한 잠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카이아인들의 배 곁에서 많은 이를 쓰러뜨릴 수 있을지 숙고하고 있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재앙을 불러올 꿈을 보내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가장 좋은 계획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말하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명령했다.

“일어나라, 가라, 재앙을 불러올 꿈아.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로 가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에 도착하면, 내가 명한 대로 나의 모든 말을 그에게 진실하게 전하라.

그에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에게 속히 무장을 갖추라고 일러라. 이제 그가 넓은 길을 가진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함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포스에 사는 불멸의 신들은 더 이상 의견이 나뉘지
않는다. 헤라가 간청을 통해 모든 이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재앙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꿈은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꿈은 곧장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로 갔다. 아가멤논은
막사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위로 신성한 잠이 쏟아져 있었다.

꿈은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의 모습을 하고 그의
머리맡에 섰다. 네스토르는 아가멤논이 원로들 가운데
누구보다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하늘에서 온 꿈은 그렇게
네스토르의 모습을 하고 말했다.

"지혜로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말을 길들이는 자여, 그대는
잠들어 있구려."

"밤새도록 잠만 자는 것은 군대를 맡아 관리하며 수많은
근심을 짊어진 조언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오.

하지만 이제 내 말을 즉시 들으시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대를 지극히 아끼고 가엽게 여기는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전령이오.

제우스께서는 그대가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에게 즉시 무장을 시키라고 명령하셨소. 이제 그대는 넓은 길을 가진 트로이아인의 도시를 함락할 수 있기 때문이오."

"올림포스에 사는 불멸의 신들은 더 이상 의견이 갈리지 않소. 헤라의 간청이 모든 신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이오. 또한 제우스의 뜻에 따라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재앙이 닥쳐 있소.

그러니 꿀처럼 달콤한 잠이 그대를 찾아올 때,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망각이 그대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오."

꿈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며 그를 그곳에 남겨 두었다. 아가멤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바로 그날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함락하리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자였다! 제우스가 어떤 일을 꾀하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제우스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트로이아인과 다나오스인 모두에게 고통과 신음을 안겨 줄 참이었다.

이윽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신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곱고 빛나는 부드러운 튜닉을 입고, 그 위에 커다란 망토를 걸쳤다. 그리고 빛나는 발에는 고운 샌들을 묶고, 어깨에는 은으로 장식된 칼을 멨다.

그는 결코 썩지 않는 조상들의 홀을 손에 쥐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배를 따라 길을 나섰다.

여신 새벽이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에게 빛을 알리러 높은 올림포스로 올라갈 때, 아가멤논은 목소리가 맑은 전령들에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집회로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다. 전령들이 소집을 알리자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모여들었다.

그러나 왕은 먼저 필로스에서 태어난 왕 네스토르의 배 곁에 기개 높은 원로들의 회의를 열었다.

원로들을 불러 모으자 그는 교묘한 계책을 짜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들으시오. 신성한 밤에 잠든 내게 하늘에서 꿈이 찾아왔소. 생김새로 보나 키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훌륭한 네스토르와 꼭 닮은 꿈이었소.

그 꿈이 내 머리맡에 서서 이렇게 말했소. '지혜로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말을 길들이는 자여, 그대는 잠들어 있구려.'"

“‘밤새도록 잠만 자는 것은 군대를 맡고 수많은 근심을
짊어진 조언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즉시 들으시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대를 지극히
아끼고 가엾게 여기는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전령이오. 제우스께서는 그대가 이제 트로이아인의 넓은
길을 가진 도시를 함락시킬 수 있으니,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에게 즉시 무기를 갖추라고 명령하셨소.’”

“‘올림포스에 사는 불멸의 신들은 이제 더 이상 의견이
갈리지 않소. 헤라의 간청이 모든 신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제우스의 뜻에 따라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닥쳐 있소.
그러니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꿈은
날아가 버렸고, 달콤한 잠이 나를 놓아주었소.”

“자, 할 수만 있다면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무장시킵시다.
하지만 먼저 마땅히 그래야 하듯 내가 말로 그들을 떠보겠소.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를 타고 달아나라고 해 보겠소. 그러면
그대들은 이쪽저쪽에서 말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오.”

그렇게 말하고 아가멤논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모래 많은
필로스의 왕 네스토르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는 호의를 품고 모인 이들 앞에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이여. 이 꿈을 말한 사람이 다른 아카이아인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 여기고 더욱 멀리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 꿈을 본 사람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단연 가장 강하다고 스스로 말하는 분이오. 그러니 자, 할 수만 있다면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무장시킵시다.”

그가 말을 마치고 회의장에서 앞장서서 나가자, 홀을 든 다른 왕들도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백성의 목자를 따랐다. 그동안 사람들은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떼를 지어 다니는 벌들이 어떤 움푹 팬 바위에서 끊임없이 새로 나와서, 여기저기 무리 지어 봄꽃 위를 날아다니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낮은 해변 앞의 배들과 막사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무리를 지어 집회 자리로 행진해 나갔다.

그들 가운데 제우스의 전령인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 그들을 재촉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집회 장소는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그 아래에서 땅이 신음했고, 시끄러운 소리가 일었다.

아홉 명의 전령이 소리쳐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소란을 멈추고 제우스가 기르는 왕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야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제자리를 지키며 떠들기를 멈추었다.

그러자 아가멤논 왕이 헤파이스토스가 공들여 만든 홀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헤파이스토스는 그 홀을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왕에게 주었고, 제우스는 전령 아르게이폰테스에게 주었다.

헤르메스 신은 그것을 말을 모는 펠롭스에게 주었고, 펠롭스는 다시 백성의 목자 아트레우스에게 주었다.

아트레우스는 죽으면서 양 떼가 많은 티에스테스에게 그것을 남겼고, 티에스테스는 다시 아가멤논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아가멤논은 그 홀을 들고 수많은 섬과 아르고스 온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그 홀에 몸을 기대고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을 했다.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인 전사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크로노스의 아들 위대한 제우스가 나를 혹독한 미망에
빠뜨렸소. 잔인한 신이오! 그는 예전에 내가 성벽이 튼튼한
일리오스를 함락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고 고개를 끄덕였소.

그런데 이제는 잔인한 속임수를 꾸며, 많은 백성을 잃은 내게
영광도 없이 아르고스로 돌아가라고 명하는구려.

많은 도시의 성채를 허물었고 앞으로도 허물, 누구보다 힘센
제우스의 뜻이 그러한 모양이오. 그의 힘은 모든 것 위에
있으니 말이오."

"이것은 훗날 태어날 사람들이 듣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오.
이토록 훌륭하고 이토록 많은 아카이아인의 군대가 헛되이
쓸모없는 전쟁을 벌이며 자기보다 수가 적은 자들과
싸웠는데,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니 말이오."

"만약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이 함께 제물을 바치며
엄숙히 맹세하고 서로 수를 세어 본다고 합시다.

트로이아인은 성안에 사는 자들을 모두 모으고, 우리
아카이아인은 열 명씩 무리를 지어 무리마다 트로이아인
하나씩을 골라 술을 따르게 한다면,

많은 열 명 무리가 술 따를 사람 없이 남을 것이오. 내 생각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성안에 사는 트로이아인보다 그만큼 더 많소."

"하지만 많은 도시에서 온 창을 휘두르는 동맹군들이 나를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소. 그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일리오스의 성채를 함락하지 못하고 있구려.

이미 위대한 제우스의 아홉 해가 흘러갔고, 보시오, 우리 배의 목재들은 썩어 문드러졌으며 밧줄들은 풀려버렸소. 내 생각에 우리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은 우리를 기다리며 집안에 앉아 있을 것이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인 우리의 과업은 여전히 전혀 완수되지 않았소."

"아니오, 자, 오시오.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 복종합시다. 우리의 날랜 배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국으로 도망칩시다. 넓은 길을 낸 트로이아를 함락할 희망은 이제 더 이상 없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회의 내용을 듣지 못한 수많은 군중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일깨웠다.

그 모임은 마치 동풍이나 남풍이 아버지 제우스의
구름으로부터 몰아쳐 내려와 일으킨 이카리아 바다의 긴
파도처럼 요동쳤다.

서풍이 불어올 때 그 격렬한 돌풍이 깊은 곡식밭을 뒤흔들어
이삭들이 그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들의 모임
전체가 요동쳤다.

그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배들을 향해 달려갔고, 그들의
발밑에서는 먼지가 높이 솟아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불러 배를 붙잡아 빛나는 바다로 끌어내라고
외쳤다. 또한 배를 띄울 길을 치우는 데 전념하였는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그들의 함성은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들은 배 밑에 받쳐둔 지지대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 헤라가 아테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아르고스인들은 운명을 거슬러 귀향을 이루었을 것이다.
헤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 지칠 줄 모르는 자여! 정말로 아르고스인들이 넓은 바다를 건너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달아나게 두겠느냐? 그러면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자랑거리로 남겨 주게 된다. 그 여인 때문에 수많은 아카이아인이 그리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에서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지금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의 군대 사이로 가서, 부드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라. 굽은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지 못하게 하라."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는 그 말을 따랐다.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쏜살같이 내려와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략이 제우스에 버금가는 오디세우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오디세우스는 노 젓는 자리가 있는 자신의 검은 배에 손도 대지 않았다. 슬픔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덮쳤기 때문이다.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이요 라에르테스의 아들인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정말로 너희가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에 몸을
던져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달아나려 하느냐? 그러면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자랑거리로 남겨 주게 된다. 그 여인 때문에 수많은
아카이아인이 그리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에서
죽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지금 아카이아인의 군대 사이로 가거라.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굽은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지 못하게 하라."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오디세우스는 말하는 이가 여신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달리기 시작하며 망토를 벗어 던졌고, 그를
시중들던 이타카의 전령 에우리바테스가 망토를 주워
들었다.

오디세우스는 곧장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가서,
대대로 내려온 결코 썩지 않는 홀을 그의 손에서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 홀을 들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배를
따라 걸어갔다.

그는 지도자나 저명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 그 곁으로
다가가 부드러운 말로 그를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훌륭한 분이여, 그대를 겁쟁이처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소. 하지만 그대는 몸소 자리에 앉고, 그대의 백성도 앉히시오.

그대는 아직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속마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오. 지금은 그저 떠보는 것일 뿐, 곧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혼낼 것이오.

회의에서 그가 한 말을 우리 모두 듣지 않았소? 그가 노하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제우스가 기른 왕들의 마음은 드높소. 그들의 영예는 제우스에게서 오고, 지혜로운 제우스가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이오.”

그러나 평범한 병사가 떠드는 것을 보면 그는 홀로 그를 내리치고 이렇게 꾸짖었다.

“이봐라, 가만히 앉아서 너보다 나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너는 싸울 줄도 모르는 약골이라, 전쟁에서도 회의에서도 셈에 들지 못한다. 우리 아카이아인이 모두 여기서 왕이 될 수는 없다.

주인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주인은 하나, 왕은 하나여야 한다. 꾀 많은 크로노스의 아들이 홀과 판결의 권한을 내려 주어 백성을 위해 뜻을 정하게 한 그 왕 말이다."

그는 이처럼 위엄 있게 군대를 훑으며 지나갔다.

그 소란에 사람들은 배와 막사에서 집회 자리로 서둘러 돌아왔다. 그것은 마치 크게 울리는 바다의 파도가 긴 해변에 천둥처럼 몰아치고 깊은 바다가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

다른 이들은 자리에 앉아 머물렀으나, 테르시테스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끝도 없는 말을 떠들어 대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질서한 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왕들을 향해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리오스에 온 사람 가운데 가장 못생긴 자였다. 안짱다리에 한쪽 발을 절었고, 둥글게 굽은 두 어깨가 가슴 쪽으로 오그라들어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머리는 뾰족하게 비뚤었고, 성긴 털이 드문드문 나 있었다.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그를 누구보다 미워했다. 그가 늘 그 두 사람을 헐뜯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훌륭한 아가멤논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에게 몹시 화가 나 마음속으로 분개했다.

하지만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아가멤논을 꾸짖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다시 불만스러운 것이오,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오? 그대의 막사에는 청동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채를 점령할 때마다 아카이아인으로서 그대에게 가장 먼저 바치는 전리품인 수많은 여인도 그대의 막사에 가득하지 않소. 아니면 혹시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 중 누군가가 아들을 위한 몸값으로 일리오스에서 가져올 금까지도 여전히 원하는 것이오? 내가 혹시 그 아들을 붙잡아 끌고 갔거나, 아니면 다른 아카이아인이 데려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그것도 아니라면 그대가 사랑을 나누며 홀로 간직할 어린 소녀라도 원하는 것이오?”

“백성을 이끄는 자가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옳지 않소. 이 겁쟁이들아! 부끄러운 것들아, 사내도 아닌 아카이아의 계집들아! 우리는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자는 여기 트로이아 땅에 남겨 두어 전리품이나 실컷 삭이게 하자. 그래야 우리가 그에게 쓸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아킬레우스를 모욕했소.
오만하게도 그의 전리품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조금도 없소. 아예 개의치 않는 것이오. 그렇지 않았다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번 오만이 그대의 마지막이 되었을 것이오.”

테르시테스는 이렇게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을 헐뜯었다.

그러자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와 눈썹 밑으로 노려보며 거친 말로 꾸짖었다.

“함부로 지껄이는 테르시테스야, 목청은 좋다만 입 다물어라. 혼자서 왕들에게 맞서려 하지 마라.”

“내 생각에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일리오스에 온 자들 가운데 너보다 못난 인간은 없다.

그러니 떠들어 대며 왕들의 이름을 입에 올려 그들을 비난하고 귀향할 날만 노리지 마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것이 잘된 일일지 못된 일일지 우리는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다나오스의 전사들이 아가멤논에게 수많은 선물을 준다는 이유로, 백성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에게 분명히 말해 두마.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가 지금처럼 다시 어리석게 구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런데도 내가 너를 붙잡아 옷을, 네 맨몸을 가린 망토와 튜닉을 벗겨 버리고, 창피스러운 매질로 집회에서 쫓아내 울부짖으며 날랜 배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오디세우스의 머리가 더는 어깨 위에 붙어 있지 않아도 좋고, 내가 더는 텔레마코스의 아버지라 불리지 않아도 좋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말하며 지팡이로 테르시테스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다. 테르시테스는 몸을 움츠렸고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으며, 황금 지팡이에 맞은 그의 등에는 피멍이 올라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그는 속수무책인 표정으로 통증에 찔리며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던 아카이아인들은 그를 보고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이웃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세상에!"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훌륭한 조언자이자 군대의 전투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선행을 베풀어 왔다. 하지만 그가 이 상스러운 수다쟁이의 떠벌림을 멈추게 했으니, 이번에 행한 일은 그가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해온 일들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저 오만한 자의 기세는 이제 다시는 왕들을 모욕하는 말로 비난하는 데 나서지 못할 것이다."

군중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도시를 무너뜨리는 자 오디세우스가 손에 홀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곁에는 전령의 모습으로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서 있었다.

아테나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자와 가장 멀리 있는 자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군대가 침묵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호의를 품고 모인 이들 앞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왕이여, 이제 아카이아인들은 그대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업신여김받는 자로 만들려 하오.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그대에게 한 약속, 성벽이 튼튼한 일리오스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는구려.

그들은 어린아이나 과부처럼 집에 가고 싶다며 서로에게 울며불며 하소연하고 있소. 하긴 낙심해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고생이 많기는 하오."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에서 아내와 떨어져 단 한 달만 지내도 마음이 괴로운 법이오. 겨울 폭풍과 거친 바다에 발이 묶인 사람도 그러하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머문 지 벌써 아홉 해째를 맞았소. 그러니 아카이아인들이 부리 모양 이물을 단 배 곁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탓하지 않소.

그래도 이토록 오래 머물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오. 친구들이여, 참고 조금만 더 머뭅시다. 칼카스의 예언이 참인지 아닌지 알게 될 때까지 말이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소. 죽음의 운명에 휩쓸려 가지 않은 그대들 모두가 그 증인이오."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이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 닥칠 재앙을 가득 실은 채 아울리스에 모여들었던 것이 불과 어제나 그저께 일 같구려.

우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백 마리 소의 제물을 신성한 제단에 바치며 불사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소. 그때 커다란 징조가 나타났소.

등이 핏빛처럼 붉고 무시무시한 뱀 한 마리가 제단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나타나 플라타너스 나무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는 올림포스의 신께서 직접 빛 속으로 내보내신 것이었소."

"그때 나무 꼭대기 가지 위, 잎사귀 아래에 여덟 마리의 어린
참새 새끼들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을 낳은
어미가 아홉 번째였소.

그러자 뱀이 가련하게 지저귀는 새끼들을 잡아먹었으며,
어미는 사랑하는 새끼들을 위해 울부짖으며 그들 주변을
파닥거렸소. 하지만 뱀은 몸을 똬리 틀었다가, 어미가 뱀
주변에서 비명을 지를 때 어미의 날개를 낚아챘소."

"그 뱀이 참새 새끼들과 어미까지 잡아먹자, 뱀을 세상에
보낸 신이 그것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소. 꾀 많은 크로노스의
아들이 뱀을 돌로 바꾸어 버린 것이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난 일을 놀라워하며 바라보았소.

이 무서운 징조가 신들께 바치는 제물 사이에 나타나자,
칼카스가 곧바로 예언하며 모인 우리에게 말했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여, 어찌하여 말이 없소?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우리에게 이 큰 징조를 보여 주셨소.
늦게 나타나 늦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이 뱀이 참새 새끼 여덟 마리와 그 새끼들을 낳은 아홉째인
어미까지 잡아먹었듯이, 우리도 그만큼의 해 동안 그곳에서
싸우다가 열째 해에 넓은 길이 난 도시를 함락할 것이오.'
칼카스는 이렇게 말했고, 이제 그 모든 일이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소. 자,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여, 우리가 프리아모스의 큰 도시를 함락할
때까지 모두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인들이 크게 소리쳤다.

아카이아인들이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말을 찬양하며
외치자, 그들 주변의 모든 배가 그 함성 아래 경이롭게 울려
퍼졌다.

그때 그들 사이에서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말했다.

"자, 보시오. 그대들은 정말로 전쟁의 업적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어리석은 소년들처럼 모여 있구려. 그렇다면
우리의 약속과 맹세의 끝은 무엇이 되겠소?

아니, 전사들의 모든 의논과 계획, 순수한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제물,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담아 나누었던
악수까지도 모두 불속에 던져 버립시다. 우리가 여기서
이토록 오래 머물러 보았자, 말로만 다투는 것은 헛된 일이며
아무런 방책도 찾아낼 수 없구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예전처럼 흔들림 없는 뜻을 지키며 치열한 싸움에서 아르고스인들을 이끄시오. 몰래 따로 모의하는 아카이아인 한두 명은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기도 전에 아르고스로 먼저 떠나려는 자들 말이오.”

“분명히 말하건대, 힘이 가장 센 크로노스의 아들은 아르고스인들이 트로이아인에게 죽음과 운명을 안기러 날랜 배에 오르던 그날 고개를 끄덕여 약속했소. 우리 오른쪽에서 번개를 쳐 좋은 징조를 보여 주었으니 말이오.

그러니 저마다 트로이아인의 아내를 차지하여 헬레네 때문에 치른 고생과 신음의 대가를 받기 전에는, 누구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몹시 갈망한다면, 노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자기의 검은 배에 손을 얹게 하시오. 그리하여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죽음과 운명을 맞이하게 하시오.

그대, 왕이여, 그대 자신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시오.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가볍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오. 아가멤논이여, 그대의 부하들을 부족별로, 씨족별로 나누시오. 그리하여 씨족이 씨족을 돕고, 부족이 부족을 돕게 하시오."

"그대가 이와 같이 행하고 아카이아인들이 그대에게 복종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지휘관들 중 누가 겁쟁이인지, 그대의 부하들 중 누가 겁쟁이인지, 그리고 누가 용감한지를 알게 될 것이오. 그들은 각 씨족을 위해 스스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하면 그대는 그대가 도시를 함락하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뜻 때문인지, 아니면 그대 백성들의 겁 많음과 전쟁에서의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알게 될 것이오."

그러자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인이여, 그대는 이번에도 말솜씨로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모두 앞서는구려.

오, 아버지 제우스여, 아테나여, 아폴론이여! 내게 이런 조언자가 열 명만 있다면,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는 곧 우리 손에 함락되어 무너질 것이오.

하지만 아이기스를 지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내게 슬픔을 안겨 주었소. 나를 쓸데없는 다툼과 말싸움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으니 말이오."

"참으로 나와 아킬레우스는 한 소녀를 두고 격렬한 말로 싸웠고, 내가 먼저 화를 냈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조언에 있어 하나가 된다면,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미치는 일을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그만 가서 식사를 하시오. 우리가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말이오."

"모든 사람은 창을 잘 갈고 방패를 잘 갖추시오. 발 빠른 말들에게 먹이를 잘 주고, 전차의 사방을 잘 살펴 전투를 생각하시오. 그래야 온종일 우리가 증오스러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오.

밤이 찾아와 전사들의 분노를 갈라놓을 때까지, 휴식 따위는 조금도 없을 것이오."

"많은 이의 가슴에서 몸을 지키는 방패의 멜빵이 땀에 젖고, 창을 쥔 손은 지칠 것이오. 반들거리는 전차를 끄는 말들도 땀에 흠뻑 젖을 것이오.

그러나 싸움을 피해 부리 모양 이물을 단 배 곁에 머물려는 자를 내가 보게 된다면, 그는 그 뒤로 개와 새를 피할 희망이 없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르고스인들은 크게 함성을 질렀다. 남풍이 불어와 높은 곶에 부딪쳐 부풀어 오르는 파도 같았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떠날 날이 없는 툭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 같았다.

그들은 일어나 서둘러 배들 사이로 흩어졌고, 막사에 불을 피워 식사를 했다.

그리고 죽음과 전쟁의 고통을 피하게 해 달라고 빌며 저마다 영원한 신들 가운데 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나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권능이 지고한 크로노스의 아들에게 다섯 살 된 살진 황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는 아카이아 군대의 지도자인 원로들을 불렀다. 가장 먼저 네스토르를 불렀고, 그다음에는 이도메네우스 왕을, 그 뒤로는 두 아이아스와 티데우스의 아들을 불렀으며, 여섯 번째로는 지략에 있어 제우스와 맞먹는 오디세우스를 불렀다.

전투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에, 부르지 않아도 그에게 왔다.

그들은 황소 주위에 서서 보리알을 집어 들었고, 아가멤논 왕은 그들 사이에서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시며, 하늘에 거하시는 검은 구름의 주인이신 제우스여. 내가 연기에 검게 그을린 프리아모스의 전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문들을 집어삼키는 불로 태워 버리며, 청동에 찢긴 헥토르의 튜닉을 그의 가슴팍까지 갈라 놓을 때까지, 해가 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의 전우들이 무리 지어 그 주변에서 먼지 속으로 쓰러져 땅을 물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은 아직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 제물은 받았으나 고난은 끝없이 더 키워 놓았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보리를 뿌린 뒤, 먼저 제물의 머리를 뒤로 젖혀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겼다. 넓적다리를 잘라 내어 기름으로 두 겹을 싸고 그 위에 날고기를 얹었다.

그것을 잎을 떼어 낸 장작 위에서 태우고, 내장은 꼬챙이에 꿰어 헤파이스토스의 불 위에 들고 구웠다.

허벅지 살이 완전히 타고 내장들을 맛본 뒤에, 그들은 나머지 고기를 잘라 꼬챙이에 꿰어 정성껏 구운 다음 꼬챙이를 모두 뽑았다.

일을 마치고 식사를 준비하자 그들은 잔치를 벌였으며, 똑같이 나눈 잔치에 누구의 마음도 모자람이 없었다.

하지만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그들 중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이여, 이제 더는 이곳에 모여 있지 말고, 신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자, 어서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전령들이 선포하게 하여 모든 배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불러 모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카이아인들의 넓은 진영을 가로질러 한 덩어리로 나아가, 더욱 빠르게 격렬한 전투를 일으킵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도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곧바로 그는 목소리가 맑은 전령들에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전투로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전령들이 소집을 알리자 군대는 매우 빠르게 모여들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곁에 있던 제우스가 기른 왕들이 군대를 정렬하며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 사이에는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있었다. 아테나는 나이도 죽음도 알지 못하는 값진 아이기스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아이기스에는 정교하게 짜인 백 개의 황금 술이 달려 있었고, 술 하나하나의 가치는 소 백 마리의 값과 맞먹었다.

아테나는 그것을 들고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사이를 번뜩이며 누비며 그들이 나아가도록 재촉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를 위한 힘을 일깨웠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곧 전쟁이 속이 빈 배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해졌다.

마치 집어삼키는 불길이 끝없는 숲을 태워 산봉우리까지 불꽃을 일으키고 그 번뜩임이 멀리서도 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행군하며 내뿜는 셀 수 없이 많은 청동의 광채가 하늘을 향해 눈부시게 솟구쳐 올라 천상에 닿았다.

카이스트리오스 강가의 아시아 초원에서 날개 달린 새들의 수많은 무리, 즉 야생 거위나 두루미나 목이 긴 백조들이 날개 힘을 뽐내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큰 소리로 울어대며 끊임없이 초원을 울리며 날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수많은 무리도 배와 막사에서 나와 스카만드로스 평원으로 쏟아져 나왔고, 사람과 말의 발걸음 아래 땅은 경이롭게 울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절을 맞은 잎사귀와 꽃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스카만드로스의 꽃 핀 초원에 자리를 잡았다.

봄철에 우유가 양동이에 넘쳐흐를 때, 목동의 농장 곳곳을 이리저리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수많은 파리 떼처럼,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도 트로이아인들에 맞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는 기세로 평원 위에 그토록 많이 서 있었다.

염소치기들이 목초지에서 뒤섞인 염소 떼를 쉽게 갈라놓듯, 그들의 지도자들도 전투에 임하도록 이쪽저쪽으로 군대를 배치했다.

그들 중에는 아가멤논 왕이 있었는데, 그의 눈과 머리는 번개를 내리치는 제우스와 같았고, 허리는 아레스와 같았으며, 가슴은 포세이돈과 같았다.

무리 가운데 있는 소들 중 가장 뛰어난 소가 무리에서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제우스는 그날 아가멤논을 수많은 이들 가운데 돋보이게 하고 전사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했다.

올림포스에 거처하시는 뮤사들이여, 이제 내게 말해 주소서. 그대들은 여신으로서 가까이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우리는 그저 소문만 들을 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나오스인의 지휘관들과 그들의 군주들이 누구였는지 말해 주소서.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내가 다 말할 수도, 이름을 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내게 열 개의 혀와 열 개의 입, 그리고 지치지 않는 목소리가 있고 내 마음이 청동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들인 올림포스의 뮤사들이 일리오스 아래로 모여든 이들을 모두 내 기억 속에 떠올려 주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이제 함선을 이끈 지휘관들과 그 함선들을 차례로 말하겠습니다.

보이오티아인 중에서는 페넬레오스와 레이토스가 지휘관이었고, 아르케실라오스와 프로토에노르, 그리고 클로니오스가 지휘관이었다.

이들은 히리아와 바위투성이 아울리스, 스코이노스,
스콜로스, 그리고 능선이 많은 에테오노스, 테스페이아,
그라이아, 그리고 넓은 미칼레소스에 살던 이들이었다.

또한 하르마와 에일레시온, 에리트라이 근처에 살던
이들이었으며, 엘레온과 힐레, 페테온, 오칼레아, 그리고 잘
지어진 성채인 메데온, 코파이, 에우트레시스, 그리고
비둘기들이 모여 사는 티스베를 차지했던 이들이었다.

코로네이아와 풀이 무성한 할리아르토스에 살던
이들이었으며, 플라타이아를 차지하고 글리사스에 살던
이들이었다.

또한 잘 지어진 성채 히포테바이와 포세이돈의 빛나는 숲인
신성한 온케스토스를 차지했던 이들이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풍부한 아르네와 미데이아, 신성한 니사,
그리고 해안가의 안테돈을 차지했던 이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쉰 척의 배가 왔으며, 각 배에는 백스무 명의
젊은 보이오티아인들이 타고 있었다.

아스플레돈과 미니아인들의 오르코메노스에 사는 이들은
아레스의 아들들인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가 이끌었다.

아제우스의 아들 악토르의 궁전에서, 존경받는 처녀 아스티오케는 위층 방으로 들어갔을 때 위대한 아레스와 관계를 맺어 그들을 잉태했다. 아레스가 그녀와 몰래 함께 누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서른 척의 속이 빈 배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포키스인들 중에서는 나우볼로스의 아들인, 마음 넓은 이피토스의 아들들인 스케디오스와 에피스트로포스가 지휘관이었다.

이들은 키파리소스와 바위투성이 피토, 신성한 크리사와 다울리스, 그리고 파노페우스를 다스렸으며, 아네모레이아와 히암폴리스 주변에 살고, 아름다운 케피소스 강가에 거주하며, 케피소스 샘 근처의 릴라이아를 다스렸다.

이들과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들이 뒤따랐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포키스인들의 대열을 분주히 정비하며, 왼편에 있는 보이오티아인들 바로 옆에서 전투를 준비했다.

로크리스인들의 지도자는 오일레우스의 날랜 아들, 작은 아이아스였다. 그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만큼 크지는 않았고 훨씬 작았다.

그는 체구가 작고 아마포 갑옷을 입었으나, 창술만큼은 헬라스인과 아카이아인 전체 군대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들은 보아그리오스 강줄기 주변의 키노스, 오푸스, 칼리아로스, 베사, 스카르페, 아름다운 아우게이아이, 타르페, 트로니온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신성한 에우보이아 맞은편에 사는 로크리스인들의 검은 배 마흔 척이 아이아스를 따라 뒤따랐다.

분노를 내뿜는 아반테스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포도나무가 풍성한 에우보이아와 칼키스, 에레트리아, 히스티아이아, 그리고 바다 근처의 케린토스와 디오스의 가파른 성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카리스토스를 다스리고 스티라에 거주했다. 이들 모두의 지도자는 아레스의 후손이자 칼코돈의 아들이며, 대담한 아반테스인의 대장인 엘레페노르였다.

그와 함께 날랜 아반테스인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뒷머리가 길었고, 적의 가슴 갑옷을 찢어버리기 위해 물푸레나무 창을 길게 내민 채 전투에 열망을 품은 창병들이었다.

그와 함께 검은 배 마흔 척이 뒤따랐다.

잘 지어진 성채 아테나이를 차지한 이들도 있었다. 그곳은 곡물을 주는 대지가 그를 낳았을 때, 옛날에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길러 주었던 마음이 드높은 에레크테우스의 땅이었다. 아테나는 그가 아테나이에 있는 자신의 풍요로운 성소에 머물게 하였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아테나이의 청년들은 황소와 숫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의 은총을 얻으려 노력했다. 이들의 지도자는 페테오스의 아들 메네스테우스였다.

전차와 방패를 든 전사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지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네스토르만이 그와 겨룰 수 있었으니, 그가 더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쉰 척의 검은 배들이 뒤따랐다.

아이아스는 살라미스에서 열두 척의 배를 이끌고 아테나이인 부대가 서 있는 곳에 배치했다.

아르고스와 성벽으로 유명한 티린스, 깊은 만을 둘러싼
헤르미오네와 아시네, 트로이젠과 에이오나이, 그리고
포도덩굴로 뒤덮인 에피다우로스를 차지한 이들과
아이기나와 마세스를 차지한 아카이아인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의 지도자는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와 영광스러운
카파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들 스테넬로스였다.

그들과 함께 세 번째 인물인 메키스테우스 왕의 아들이자
탈라오스의 아들인, 신과 같은 전사 에우리알로스가 왔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지도자는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였다.

이들과 함께 여든 척의 검은 배들이 뒤따랐다.

잘 지어진 요새인 미케네와 부유한 코린토스, 잘 지어진
클레오나이, 그리고 오르네이아와 아름다운 아라이티레아,
그리고 처음에 아드라스토스가 왕이었던 시키온에 사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히페레시아와 가파른 고노에사, 펠레네를 차지한
이들과 아이기온 주변 및 아이기알로스 전역, 그리고 넓은
헬리케 주변에 사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 중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아가멤논 왕이 백 척의 배를 이끄는 대장이었다.

그와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뒤따랐다.

그들 중에서도 모든 영광을 누리는 왕인 아가멤논 자신은 번쩍이는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모든 전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다. 그는 가장 고귀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의 백성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협곡이 있는 라케다이몬의 움푹 팬 땅을 차지한 이들과 파리스, 스파르타, 그리고 비둘기들이 모여 사는 메세의 사람들이 있었다.

또한 브리세이아이와 아름다운 아우게이아이의 주민들, 아미클라이와 바다 근처의 요새인 헬로스를 차지한 이들, 라아스를 차지한 이들과 오이틸로스 주변에 사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가멤논의 형제이자 함성 소리에 능한 메넬라오스가 예순 척의 배를 이끌고 있었으며, 그들은 따로 진영을 갖추었다.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열정에 자신감을 느끼며 부하들에게 전투를 독려하며 그들 사이를 움직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은 헬레네를 위해 애쓰고 신음하며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필로스와 아름다운 아레네, 그리고 알페이오스의 여울 트리온, 그리고 터를 잘 잡은 아이피의 주민들이 있었다.

또한 키파리세이스와 암피게네이아, 프텔레오스, 헬로스, 그리고 도리온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었다. 도리온은 뮤사들이 트라키아의 타미리스를 만나 그가 노래를 끝마치게 한 곳이었다. 그는 오이칼리아의 에우리토스의 집에서 출발하여 여행하던 중이었다. 그는 설령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들인 뮤사들이 자신에게 맞서 노래한다 해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뽐내며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뮤사들은 분노하여 그를 불구가 되게 했고, 그의 경이로운 노래를 앗아갔으며, 그가 가객으로서의 재주를 잊게 만들었다.

이 모든 백성 역시 기사 네스토르가 이끌고 있었다. 그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르였다.

그와 함께 아흔 척의 속이 빈 배들이 정렬해 있었다.

가파른 킬레네 산 아래, 아이피토스의 무덤 곁에 있는 아르카디아의 주민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근접 전투를 벌이는 전사들이 있었다. 또한 페네오스와 오르코메노스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축이 풍부했다. 그리고 리페와 스트라티아, 바람이 몰아치는 에니스페의 주민들도 있었다.

테게아와 아름다운 만티네이아를 다스리는 이들, 그리고 스팀팔로스를 다스리며 파라시아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모든 이들은 안카이오스의 아들인 아가페노르 왕이 예순 척의 배를 이끌고 있었다. 각 배에는 전투에 능숙한 아르카디아 전사들이 아주 많이 타고 있었다.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 곧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들에게 포도주빛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들을 직접 주었으니, 그들은 항해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부프라시온과 훌륭한 엘리스에 사는 사람들, 곧 해안가의 히르미네와 미르시노스, 그리고 올렌의 바위와 알레시온이 그들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네 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각 지도자마다 열 척의 날랜 배들이 뒤따랐으며, 많은 에페이오스인이 그 배들에 올라탔다.

이들 중 일부는 악토르의 혈통인 암피마코스와 탈피오스가 이끌었는데, 한 명은 크테아토스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에우리토스의 아들이었다. 일부는 아마린케우스의 아들인 강력한 디오레스가 지휘관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리는 아우게이아스의 아들이자 아가스테네스 왕의 아들인 신과 같은 폴릭세이노스가 지휘관이었다.

엘리스 맞은편 바다 건너에 있는 신성한 섬들, 둘리키온과 에키나이에서 온 이들은 아레스와 맞먹는 메게스가 이끌었다. 메게스는 제우스가 아끼는 기사 필레우스의 아들이었다. 필레우스는 옛날 아버지에게 노하여 둘리키온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이다.

메게스와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가 뒤따랐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와 물결치는 숲으로 뒤덮인 네리톤을 차지하고, 크로킬레이아와 험준한 아이길립스에 사는 마음이 큰 케팔레니아인들을 이끌었다.

또한 자킨토스를 차지한 이들과 사모스 주변에 사는 이들, 그리고 본토를 차지하고 섬 맞은편 해안에 사는 이들도 이끌었다. 이들 중에서 오디세우스가 지략에 있어 제우스와 맞먹는 지도자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홍빛 뱃머리를 한 열두 척의 배가 뒤따랐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가 이끌었는데, 이들은 바다 근처의 플레우론과 올레노스, 필레네, 칼키스, 그리고 바위투성이 칼리돈에 사는 이들이었다.

마음이 드높은 오이네우스의 아들들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고, 그 자신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 또한 아이톨리아인들 사이에서 전권을 행사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머리칼이 고운 멜레아그로스도 죽었다.

토아스와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가 뒤따랐다.

크레타인들은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가 이끌었는데, 이들은 크노소스와 성벽으로 이름난 고르티스, 릭토스와 밀레토스, 하얀 분필 땅 리카스토스, 그리고 인구가 많은 도시인 파이스토스와 리티온을 차지한 이들이었다. 또한 백 개의 도시가 있는 크레타에 사는 모든 이들도 그와 함께했다.

이들 모두 중에서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가 대장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에니알리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메리오네스가 뒤를 이었다.

이들과 함께 여든 척의 검은 배가 뒤따랐다.

헤라클레스의 아들이자 용맹하고 키가 큰 틀레폴레모스는 로도스에서 아홉 척의 배를 이끌고 왔는데, 이들은 로도스에 살며 린도스, 이알리소스, 그리고 분필로 하얗게 빛나는 카메이로스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사는 고귀한 로도스인들이었다.

창으로 이름난 틀레폴레모스가 이들을 이끌었다. 그는 강한 헤라클레스와 아스티오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전사들의 도시들을 여러 곳 황폐화했을 때 셀레이스 강이 흐르는 에피레에서 그들을 이끌고 나왔다.

그러나 틀레폴레모스가 견고한 궁전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그는 아레스의 후손이자 당시 노쇠해가던 자기 아버지의 사랑하는 숙부 리킴니오스를 죽였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를 위한 배들을 건조했고, 많은 사람을 모은 뒤 바다를 건너 도망쳤다. 강한 헤라클레스의 다른 아들과 손자들이 그를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방랑하며 고난을 겪다가 로도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은 부족별로 세 구역으로 나뉘어 정착했으며,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왕인 제우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들에게 경이로운 부를 내려 주었다.

또한 니레우스가 시메에서 모양이 잘 빠진 배 세 척을 이끌었다. 니레우스는 아글라이아와 왕 카롭스의 아들이었으며, 펠레우스의 두려움 없는 아들 다음으로 일리오스에 온 다나오스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내였다. 하지만 그는 약한 자였기에 그를 따르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니시루스, 크라파투스, 카수스, 에우리필로스의 도시인 코스, 그리고 칼리돈 섬들을 차지한 이들은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왕 테살루스의 두 아들, 페이디포스와 안티포스가 이끌었다. 그들과 함께 서른 척의 속이 빈 배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편 펠라스기아의 아르고스에 살며 알로스, 알로페, 트라키스에 거주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땅인 헬라스와 프티아를 차지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미르미돈인, 헬라스인, 그리고 아카이아인이라 불렸는데, 이들 중 쉰 척의 배를 아킬레우스가 지휘했다.

하지만 그들을 전열로 이끌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은
고통스러운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발 빠르고 고귀한 아킬레우스는 머리칼이 고운 소녀
브리세이스 때문에 분노하여 배들 사이에 빈둥거리며 누워
있었다. 그는 리르네소스를 약탈하고 테베의 성벽을 허물며,
셀레피오스의 아들 에우에노스 왕의 아들들이자 창을
휘두르며 날뛰던 전사들인 미네스와 에피스트로포스를
쓰러뜨린 뒤, 고된 전투 끝에 리르네소스에서 그녀를
데려왔었다.

아킬레우스는 그녀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빈둥거리고
있었으나, 머지않아 그는 다시 일어날 것이었다.

필라케와 데메테르의 성소인 꽃이 만발한 피라소스, 그리고
양 떼의 어머니인 이톤과 바다 근처의 안트론, 풀밭에 누운
프텔레오스를 차지한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지도자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용맹한 프로테실라오스였다.
하지만 이제 검은 대지는 그를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통곡하며 두 뺨이 짓무른 채 필라케에 남겨졌고
그의 집은 반쯤 지어진 채로 남았다. 한편 프로테실라오스
자신은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르다니아의 전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지도자를 그리워했지만 지도자가 없지는 않았다.
아레스의 후손 포다르케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는 양 떼가 많은 필라코스의 아들 이피클로스의 아들로,
마음 넓은 프로테실라오스의 친동생이었다. 나이가 더 많고
더 뛰어난 쪽은 용맹한 전사 프로테실라오스였다.

그리하여 군대는 고귀한 이를 잃고 그리워했지만 지도자가
없지는 않았다. 그를 따라 마흔 척의 검은 배가 왔다.

보이베이스 호숫가의 페라이와 보이베, 글라피라이, 그리고
잘 지어진 이올코스에 사는 이들은 아드메토스의 사랑하는
아들 에우멜로스가 열한 척의 배를 이끌었다. 여인들 중
여왕처럼 고귀한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에게 낳아 준
아들이었으니, 그녀는 펠리아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이였다.

메토네와 타우마키아에 사는 이들, 그리고 멜리보이아와
험준한 올리존을 차지한 이들은 활쏘기에 능숙한
필록테테스가 일곱 척의 배를 이끌었다. 각 배에는 활로
힘차게 싸우는 데 능숙한 노잡이 쉰 명씩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필록테테스는 신성한 렘노스라는 섬에서 심한 고통을 겪으며 누워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이 치명적인 물뱀에게 물린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를 그곳에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고통 속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르고스인들은 자신들의 배 옆에서 필록테테스 왕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없이 헤매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그들이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을지라도 말이다. 대신 오일레우스의 서자인 메돈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는 도시를 함락하는 오일레우스와 레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그리고 험준한 바위산의 트리카와 이토메, 그리고 에우리토스의 도시인 오이칼리아를 차지한 이들은 다시 아스클레피오스의 두 아들인 숙련된 의원 포달레이리오스와 마카온이 이끌었다.

이들과 함께 서른 척의 속이 빈 배들이 대열을 이루었다.

오르메니온과 히페레이아 샘을 차지한 이들, 아스테리온과 티타노스의 하얀 봉우리를 차지한 이들은 에우아이몬의 영광스러운 아들 에우리필로스가 이끌었다. 그와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가 뒤따랐다.

아르기사를 차지한 이들과 기르토네, 오르테, 엘로네, 하얀 성 올로오손에 사는 이들은 폴리포이테스가 이끌었다. 그는 싸움에 굳건한 페이리토오스의 아들이었고, 페이리토오스는 불사의 제우스가 낳은 아들이었다.

영광스러운 히포다메이아가 페이리토오스의 아이로 그를 잉태한 것은, 페이리토오스가 털 많은 켄타우로스들에게 앙갚음하여 그들을 펠리온에서 몰아내 아이티케스인들에게로 쫓아 버린 바로 그날이었다.

그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이 드높은 카이네우스의 아들 코로노스의 자손이자 아레스의 후손인 레온테우스도 그와 함께였다.

그들과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들이 뒤따랐다.

고네우스는 키포스에서 스물두 척의 배를 이끌었고, 그와 함께 에니에네스인들과 페라이보이인들이 뒤따랐다. 전투에 용맹한 그들은 겨울의 도도나 주변에 거처를 정하고, 아름다운 티타레소스 주변의 경작지에 살았다.

티타레소스는 페네이오스 강으로 아름답게 흐르는 물줄기를 쏟아붓지만, 그 물이 페네이오스의 은빛 소용돌이와 섞이지는 않는다. 대신 올리브 기름처럼 그 물 위를 흘러간다. 그것은 티타레소스가 맹세의 무서운 강인 스틱스의 물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이기 때문이다.

마그네테스인들의 대장은 텐트레돈의 아들 프로토오스였다. 이들은 물결치는 숲으로 뒤덮인 페네이오스와 펠리온 주변에 살던 이들이었다.

이들 중 날랜 프로토오스가 대장이었으며, 그와 함께 마흔 척의 검은 배들이 뒤따랐다. 이들이 다나오스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군주들이었다.

뮤사여, 그들 가운데 누가 단연 으뜸이었는지 말해 주소서. 아트레우스의 아들들과 함께 온 전사들 중에서도, 그리고 말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였던 자가 누구였는지를 말이다.

말들 중에서는 페레스의 아들이 가진 암말들이 단연 최고였다. 에우멜로스가 몰던 그 말들은 새처럼 빨랐고, 털빛과 나이가 모두 같았으며, 등은 평평하게 그은 선처럼 고르고 곧았다.

은빛 활의 아폴론이 페레이아에서 이 암말들을 길렀는데, 둘 다 암말이었고 전쟁의 공포를 몰고 다녔다.

전사들 가운데서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단연
으뜸이었다. 아킬레우스가 노여움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아킬레우스야말로 누구보다 강했고,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을 태우는 말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극심한 분노를 품은 채 자신의 이물 모양
배들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의 백성들은 해안가를 따라 원반 던지기와 투창, 그리고
활쏘기를 하며 즐거움을 누렸다. 그들의 말들은 각자의 전차
곁에서 늪지의 연꽃과 파슬리를 먹으며 쉬고 있었고,
전차들은 주인들의 막사 안에 잘 덮인 채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아레스가 아끼는 그들의 대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진영 여기저기서 진영 이곳저곳을 서성일 뿐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온 땅을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듯 행진했다. 그 발걸음
아래에서 땅이 신음했다. 번개를 즐기는 제우스가 노하여
아리모이인의 땅, 티포에우스의 잠자리라고들 하는 곳에서
티포에우스를 둘러싼 땅을 내리칠 때처럼.

그렇게 그들이 나아갈 때 발밑에서 땅이 크게 신음했고,
그들은 재빨리 평원을 가로질렀다.

그때 바람처럼 빠른 발의 이리스가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전령이 되어 슬픈 소식을 안고 트로이아인들에게
갔다.

이들은 프리아모스의 성문에서 모두 한데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발 빠른 이리스가 그들 곁에 서서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폴리테스의 목소리처럼 만들었다.

폴리테스는 프리아모스의 아들로,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늙은 아이시에테스의 언덕 꼭대기에 파수꾼으로 앉아
아카이아인들이 배에서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곤 했다.

발 빠른 이리스는 폴리테스의 모습을 하고 프리아모스에게
말했다.

"어르신, 평화로울 때처럼 지금도 끝없는 말씀만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전사들의 싸움에 여러 번 나가 보았지만, 이토록
훌륭하고 이토록 큰 군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이나 모래알처럼 많은 수로 평원을 건너와 도시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헥토르여, 누구보다 그대에게 당부하니 내 말대로 하시오."

"프리아모스의 큰 도시에는 동맹군이 아주 많은데, 멀리서 모여든 사람들이라 말도 저마다 다르오. 그러니 각 장수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하고, 자기 고장 사람들을 정렬시켜 이끌고 나가게 하시오."

이리스가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그것이 여신의 목소리임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집회를 해산했다. 사람들은 무기를 들러 달려갔다.

성문이 모두 활짝 열렸고, 보병과 전차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큰 소란이 일었다.

이제 도시 앞 평원 멀리에는 가파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양옆으로는 탁 트인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진실로 이곳을 바티에이아라고 부르지만, 발걸음이 가벼운 불사신들은 날쌘 미리네의 무덤이라 부른다.

이날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동맹군들은 그곳에서 부대를 나누었다.

트로이아인들은 투구가 번쩍이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위대한 헥토르가 이끌었으며, 그와 함께 창을 휘두르며 사납게 날뛰는, 단연 가장 크고 훌륭한 군대들이 소집되었다.

다르다니아인은 앙키세스의 용맹한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이끌었다.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다 산 비탈에서 필멸의 인간 앙키세스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었다.

그 혼자가 아니었다. 안테노르의 두 아들 아르켈로코스와 아카마스가 그와 함께했는데, 둘 다 온갖 싸움에 능했다.

이다 산 맨 아래 기슭 젤레이아에 살며 아이세포스 강의 검은 물을 마시는 부유한 트로이아인들은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 판다로스가 이끌었다. 아폴론이 몸소 그에게 활을 주었다.

아드라스테이아와 아파이소스의 땅을 차지한 이들과, 피티에이아와 테레이아의 가파른 산을 차지한 이들은 아드라스토스와 암피오스가 이끌었다. 그들은 아마포 갑옷을 입었으며, 예언에 있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으나 자신의 아들들이 인간의 파멸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페르코테의 메로포스의 두 아들이었다.

하지만 두 아들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검은 죽음의 운명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르코테와 프락티오스 주변에 사는 이들과, 세스토스와 아비도스, 그리고 아름다운 아리스베를 차지한 이들은 다시 히르타코스의 아들이자 사람들의 지도자인 아시오스가 이끌었다. 아시오스는 히르타코스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황갈색의 키 큰 말들이 아리스베의 셀레이스 강으로부터 그를 실어 왔다.

히포토오스는 창을 휘두르며 날뛰는 펠라스고이 부족들을 이끌었는데, 이들은 비옥한 토양의 라리사에 사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히포토오스와 아레스의 후손인 필라이오스, 곧 테우타모스의 아들인 펠라스고이인 레토스의 두 아들이 이끌었다.

트라키아인들은 아카마스와 전사인 페이로스가 이끌었으니, 헬레스폰토스의 강한 물줄기가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었다.

에우페모스는 키코니아 창병들의 대장이었는데, 그는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은 케아스의 아들 트로이제노스의 아들이었다.

파이오니아인들은 피라이크메스가 이끌었다. 그는 굽은 활을 들고 멀리서, 넓게 흐르는 악시오스 강이 있는 아미돈으로부터 왔다. 악시오스는 그 물줄기가 대지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흐르는 강이었다.

파플라고니아인들은 거친 마음을 가진 필라이메네스가 에네토이인의 땅으로부터 이끌었는데, 그곳은 야생 암나귀들이 사는 곳이었다. 이들은 키토로스를 차지하고 세사몬 주변에 살았으며, 파르테니오스 강과 크롬나, 아이기알로스, 그리고 높은 에리티노이 주변에 그 유명한 거처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할리조네인들 중에서는 오디오스와 에피스트로포스가 멀리서 온 대장이었는데, 그들은 은이 태어나는 곳인 알리베 출신이었다.

미시아인들 중에서는 크로미스와 점술가 엔노모스가 대장이었다. 하지만 엔노모스는 자신의 점술로도 검은 운명을 막아내지 못했고,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인들과 다른 이들을 도륙하고 있던 강가에서 발이 빠른 아이아코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포르키스와 신과 같은 아스카니오스가
아스카니아로부터 멀리서 프리기아인들을 이끌고 왔으며,
그들은 격렬한 전투 속에서 싸우기를 갈망했다.

마이오니아인들에게는 두 명의 대장이 있었으니,
탈라이메네스의 두 아들인 메스틀레스와 안티포스였다.
그들의 어머니는 기가이아 호수의 님프였다. 그들은
트몰로스 산 아래에서 태어난 마이오니아인들을 이끌었다.

나스테스는 또한 밀레토스와 잎이 무성한 프티레스 산,
마이안드로스 강, 그리고 미칼레의 가파른 봉우리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투가 거친 카리아인들을 이끌었다.

이들은 두 명의 대장, 암피마코스와 나스테스에 의해
이끌렸다. 바로 노미온의 영광스러운 자식들인 나스테스와
암피마코스였다.

그는 어리석게도 마치 소녀처럼 온통 황금으로 치장하고
전쟁터에 왔으나, 그의 황금이 비극적인 파멸을 막아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발이 빠른 아이아코스의 아들의 손에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마음이 영리한 아킬레우스가 그 황금을
가져갔다.

사르페돈과 비길 데 없는 글라우코스는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 강이 있는 리키아로부터 멀리서 온 리키아인들의
대장이었다.

제3권

메넬라오스와 파리스의 결투

각 부대와 그 지휘관들이 정렬되었을 때, 트로이아인들이 새들의 울음소리 같은 소란과 외침을 내지르며 몰려왔다.

그 소란은 마치 겨울 폭풍과 끝없는 비를 피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루미 떼의 소란과 같았다. 그들은 피그미인들에게 살육과 죽음을 몰고 가며 오케아노스의 강물을 향해 날아갔고, 이른 새벽에 흉악한 전투를 벌였다.

반면 아카이아인들은 분노를 뿜어내며 침묵 속에 몰려왔다. 그들은 각자 동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임했다.

남풍이 산봉우리 위에 안개를 뿌릴 때와 같았다. 목자는 그 안개를 좋아하지 않으나, 강도에게는 밤보다 더 나은 안개였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까지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안개 말이다.

그들이 나아갈 때 발밑에서 자욱한 먼지 구름이 그와 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평원을 가로질러 매우 빠르게 질주했다.

이제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 서로를 향해 진군할 때,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용사로
우뚝 섰다.

그는 어깨에 표범 가죽을 걸치고 굽은 활과 칼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청동 날을 단 두 자루의 창을 휘두르며, 아르고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모두 자신과 마주하여 두려운 전투를
벌이도록 도전했다.

하지만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가, 긴 보폭으로 무리
앞에 나타난 알렉산드로스를 발견했을 때였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뿔 달린 사슴이나 야생 염소를 발견하고
커다란 사체를 마주했을 때 기뻐하는 것과 같았다.
사냥개들과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 달려들지라도 사자는
그것을 탐욕스럽게 먹어 치우곤 했다.

메넬라오스도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를 눈으로 보았을 때
그처럼 기뻐했다. 그는 죄를 지은 자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즉시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 위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용사들 사이에서
메넬라오스를 발견했을 때,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운명을 피하고자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마치 산속 빈터에서 뱀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몸을 떨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과 같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도 그와 같이 고귀한 트로이아인들의 무리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헥토르가 그를 보고 모욕적인 말로 꾸짖었다.

"못난 파리스야, 생김새만 훤하고 여자에 미친 놈, 꼬드기는
데만 능한 놈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장가들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정말 그러기를 바란다.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느니 그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크게
비웃겠구나. 생김새가 잘났다고 왕자를 우리 편 대표 전사로
내세웠는데, 마음에는 힘도 용기도 없다고 말이다."

“그런 꼴로 너는 바다를 누비는 배를 타고 믿을 만한
동료들을 모아 바다를 건너갔느냐? 낯선 백성에게 가서 먼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을 휘두르는 전사들의 며느리를
데려왔느냐? 그 여인은 네 아버지와 도시와 온 백성에게는 큰
재앙이요, 원수들에게는 기쁨이요, 너 자신에게는 고개를
떨굴 수치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에게 맞서지 않겠다는
것이냐? 맞서 보면 네가 차지한 고운 아내의 남편이 어떤
전사인지 알게 될 텐데.”

“네가 먼지 속에 쓰러지면 네 리라도, 아프로디테의 선물인
그 머릿결과 생김새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트로이아인들이 참으로 겁쟁이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너는 벌써 돌팔매를 맞아 돌무덤
옷을 입었을 것이다.”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헥토르여, 그대가 나를 마땅히 꾸짖고 있으며 그 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굽힘이 없구려. 마치 배의 목재를 능숙하게 다듬는 사람이 도끼로 들보를 내리칠 때 그 타격의 힘을 더하는 것과 같소. 그대의 가슴 속 마음 또한 그와 같이 굴하지 않는구려. 그러니 황금빛 아프로디테가 준 아름다운 선물들을 들먹이며 나를 탓하지 마시오.”

“신들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들은 함부로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신들께서는 스스로 그 선물들을 주시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그것들을 얻을 수는 없소.

하지만 만약 그대가 내가 전쟁을 치르고 싸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트로이아인들과 모든 아카이아인을 앉혀 두시오. 그리고 나를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와 함께 가운데에 세워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소유물을 두고 싸우게 합시다.

우리 둘 중 누가 승리하여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든, 승리한 자가 마땅히 모든 재물과 여인을 차지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제물을 바치며 우정과 신의의 맹세를 하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비옥한 트로이아 땅에 머물 수 있을 것이고, 저들은 말들의 초원인 아르고스로,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땅인 아카이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헥토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헥토르는 중앙으로 나아가 창의 중간 부분을 움켜쥐고 트로이아인들의 부대를 막아 세웠으며,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동안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그에게 화살을 겨누고, 그를 치며, 돌을 던지려 했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크게 외쳤다.
“아르고스인들이여, 멈추시오! 아카이아의 청년들이여, 더 이상 쏘지 마시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보이니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싸움을 멈추고 곧바로 조용해졌다.

헥토르가 두 군대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이여,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여, 내게서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들으시오. 이 다툼은 그 때문에 일어났소.

그는 다른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이 모두 훌륭한 무구를 풍요로운 땅 위에 내려놓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 자신과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 둘이서만 가운데에서 헬레네와 그녀의 재물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오."

"둘 중 어느 쪽이 이겨서 더 뛰어난 사람임을 증명하든, 그가 마땅히 모든 재물과 여인을 차지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우리 다른 이들은 제물을 바치며 우정과 신의의 맹세를 합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침묵 속에 잠겼다.

그들 가운데서 함성 지르기에 능한 메넬라오스가 말했다.

"그대들도 이제 나의 말을 들으시오. 다른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는 슬픔이 찾아왔소. 나의 다툼과 알렉산드로스가 일으킨 그 일 때문에 그대들이 많은 재앙을 겪었으니, 이제 아르고스인과 트로이아인이 갈라지기를 바라오. 우리 둘 중 누구에게 죽음과 운명이 정해져 있든, 그는 죽으면 그만이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지체 없이 갈라지시오."

"흰 숫양 한 마리와 검은 암양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대지와 태양을 위하여, 그리고 제우스를 위하여 또 다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오. 그리고 위대한 프리아모스를 이곳으로 불러오시오. 그의 아들들이 오만하고 신의가 없으니, 프리아모스 자신이 직접 제물을 바치며 맹세하게 해야 하오. 누군가 주제넘은 행동으로 제우스의 맹세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말이오. 젊은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정한 법이나, 노인이 참여하는 일에는 앞뒤를 모두 살피는 법이니, 양측 모두에게 결과가 최선이 되도록 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카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은 비통한 전쟁으로부터 휴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전열에 전차를 멈춰 세우고 직접 걸어 나와 전투 장비를 벗었다. 그들은 장비를 땅 위에 하나씩 나란히 내려놓았는데, 장비들 사이의 간격은 아주 좁았다.

헥토르는 양들을 가져오고 프리아모스를 불러오도록 전령 두 명을 도시로 급히 보냈다. 탈티비오스는 아가멤논 왕의 명을 받아 속이 빈 배들로 가서 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수행했으며, 그는 훌륭한 아가멤논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리스는 남편의 누이와 같은 모습으로 흰 팔의 헬레네에게 전령으로 갔다. 그녀는 안테노르의 아들인 헬리카온 왕자이 아내로 맞이했던, 프리아모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다운 라오디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리스는 헬레네가 홀에서 커다란 보랏빛 이중 직물을 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헬레네는 그 직물 위에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이 자신을 위해 아레스의 손아귀에서 견뎌낸 수많은 전투를 수놓고 있었다.

발이 빠른 이리스가 헬레네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리로 오십시오, 귀한 여인이여.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이 행하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평원에서 서로를 향해 눈물겨운 전쟁을 치르며 죽을 듯이 싸우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침묵 속에 머물며 전투를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방패에 몸을 기대고 있으며, 그 곁에는 긴 창들이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레스가 아끼는 알렉산드로스와 메넬라오스가 그대를 위해 긴 창을 들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의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그대는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신은 그렇게 말하며 헬레네의 마음속에 예전의 남편과 도시,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달콤한 그리움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헬레네는 즉시 빛나는 아마포 너울로 몸을 가리고 방에서 나갔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갔는데, 혼자가 아니라 피테우스의 딸 아이트라와 소 같은 큰 눈의 클리메네라는 두 하녀가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재빨리 스카이아이 성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프리아모스와 판토오스, 티모이테스, 람포스, 클리티오스, 아레스의 후손 히케타온, 그리고 둘 다 사려 깊은 우칼레곤과 안테노르가 백성의 원로로서 스카이아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늙어서 이제 싸움에서는 물러났지만 말솜씨는 뛰어났다. 숲속 나무에 앉아 백합처럼 고운 소리를 쏟아 내는 매미 같았다. 트로이아의 원로들은 그렇게 성벽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성벽 위로 헬레네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날개 돋친 말을 부드럽게 속삭였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 저런 여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것도 큰 잘못은 아니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멸의 여신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녀를 배를 타고 떠나게 해야 하오. 우리와 우리 뒤를 이을 자식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이곳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오."

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프리아모스가 입을 열어 헬레네를 불러 말했다.

"이리로 오너라, 사랑하는 아이야. 내 앞에 앉거라. 그러면 네 전남편과 친척들, 그리고 네 백성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는 네 잘못이 전혀 없구나. 내 생각에는 아카이아인들의 눈물겨운 전쟁을 나를 상대로 일으킨 신들의 잘못인 듯싶다.

그리고 저토록 용맹하고 키가 큰 아카이아의 사내, 저 거대한 전사가 누구인지 내게 말해다오."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자들도 있다만, 저토록 잘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저토록 위엄 있는 사람도 처음이다. 정말 왕다운 풍모로구나."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헬레네가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시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공경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아드님을 따라 이곳에 오며 신방과 일가친척과 사랑하는 딸과 어린 시절의 다정한 벗들을 떠나왔을 때, 차라리 비참한 죽음을 택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저는 울며 야위어 갑니다."

"하지만 물으시는 것에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입니다. 훌륭한 왕이자 용맹한 창잡이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저의 시아주버니였습니다. 그런 때가 정말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아, 복 받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운이 좋은 자, 신들의 축복을 받은 자여! 이제 보니 수많은 아카이아인 젊은이들이 그대를 따르는구나."

"나도 예전에 포도나무가 무성한 프리기아 땅에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날랜 말을 부리는 프리기아 전사들을 수없이 보았지. 오트레우스와 신과 같은 미그돈의 백성들로, 그때 상가리오스 강가를 따라 진을 치고 있었다.

나도 그들의 동맹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 남자들과 맞먹는 아마조네스가 쳐들어온 날이었지. 그래도 그들조차 눈이 빛나는 아카이아인들만큼 많지는 않았다."

이어 노인은 오디세우스를 보고 물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저 남자가 누구인지 내게도 말해다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보다 키는 머리 하나만큼 작지만, 보기에 어깨와 가슴은 더 넓구나. 그의 전투 장비는 풍요로운 대지 위에 놓여 있으나, 그는 전사들의 대열 사이를 마치 양 떼의 우두머리 숫양처럼 오가는구나. 내 눈에는 마치 흰 암양 떼 사이를 거니는 털이 빽빽한 숫양처럼 보이는구나."

제우스의 딸 헬레네가 그에게 대답했다.

"이 사람은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는 비록 험준하지만 이타카 땅에서 자랐으며, 온갖 종류의 기교와 교묘한 책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명한 안테노르가 그녀에게 다시 대답했다.

“부인, 그대가 한 말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와 함께 그대를 위한 사절단으로 이곳에 왔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궁전에서 대접하고 환영했기에, 나는 두 사람의 모습과 체격, 그리고 그들의 교묘한 책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트로이아인들 사이에 섞여 모였을 때, 메넬라오스가 넓은 어깨로 그보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앉았을 때는 오디세우스가 훨씬 더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이 말과 조언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을 때, 메넬라오스는 참으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더 어렸으나, 말을 길게 늘어놓거나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적은 말로도 매우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일어서면, 그는 선 채로 눈을 땅에 박고 내려다보며 지팡이를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보셨다면 부인께서도 그를 무뚝뚝한 사람이요 바보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가슴에서 우렁찬 목소리를 내어 겨울날
눈송이처럼 말을 쏟아 내자, 그 어떤 사람도 오디세우스와
겨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겉모습을 보고 더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노인은 아이아스를 보고 물었다.

"그렇다면 저 용맹하고 키가 커서, 머리와 넓은 어깨로
아르고스인들 위로 우뚝 솟아 있는 다른 아카이아의 전사는
누구인가?"

그러자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긴 옷을 입은 헬레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저분은 아카이아인의 방벽인 거대한 아이아스입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타인들 사이에서
신처럼 서 있고, 그 주변에는 크레타의 장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는 이도메네우스가
크레타에서 올 때마다 자주 우리 집에서 그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제 눈이 빛나는 다른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보입니다.
그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들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이끄는 두 명의 지휘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 말을 길들이는
카스토르와 훌륭한 권투 선수 폴리데우케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에서 군대를 따라오지 않았거나,
설령 항해하는 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더라도, 저 때문에 듣게
될 부끄러운 말과 숱한 비난이 두려워 이제는 전사들의
전투에 참여할 용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생명을 주는 대지가 이미
그들의 그리운 고향 라케다이몬에서 그들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전령들은 신들의 거룩한 맹세를 위한 제물인 어린 양
두 마리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지의 열매인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담아 도시 안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전령 이다이오스는 빛나는 사발과 황금 잔들을 들고 늙은
왕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라오메돈의 아드님이시여.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의 장수들이
평원으로 내려와 제물을 바치며 굳은 맹세를 하시라고
청합니다.

아레스가 아끼는 알렉산드로스와 메넬라오스가 그 여인을 두고 긴 창으로 싸울 것입니다. 둘 가운데 이긴 사람이 여인과 재물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제물을 바치며 우정과 신의의 맹세를 하고 기름진 트로이아에 머물며, 저들은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와 아름다운 여인들의 땅 아카이아로 떠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몸을 떨었으나, 동료들에게 말을 전차에 메우라고 명령했다. 동료들은 즉시 그 명령에 따랐다.

그러자 프리아모스가 전차에 올라 고삐를 잡아당겼고, 그의 곁에서 안테노르가 아름다운 전차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날랜 말들을 몰아 스카이아이 성문을 지나 평원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에게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풍요로운 대지 위 전차에서 내려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자 즉시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과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일어났다.

품위 있는 전령들은 신들을 위한 거룩한 맹세를 위한 제물을 모아 왔고, 그릇에 포도주를 섞었으며, 왕들의 손에 물을 부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자신의 커다란 칼집 옆에 항상 매달려 있던 칼을 손으로 꺼내어, 어린 양들의 머리에서 털을 깎았다.

그러자 전령들이 그 털을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의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아가멤논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다 산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아버지 제우스여,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으시는 태양이여, 강들과 대지여, 그리고 저승에서 생을 마친 자들 가운데 거짓 맹세를 한 자를 벌하시는 분들이여, 증인이 되시어 이 굳은 맹세를 지켜 주소서.

알렉산드로스가 메넬라오스를 죽인다면 그가 헬레네와 그녀의 재물을 모두 차지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바다를 누비는 배를 타고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가 알렉산드로스를 죽인다면, 트로이아인들은 헬레네와 그녀의 모든 보물을 돌려주고, 아르고스인들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을 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쓰러졌을 때 프리아모스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이 내게 보상을 줄 마음이 없다면, 나는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그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무자비한 청동으로 어린 양들의 목을 베었다. 청동이 양들의 힘을 앗아갔기에, 양들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갔고 땅 위에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대접에 담긴 포도주를 잔에 따라 부으며, 영원한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제우스여, 그리고 다른 불멸의 신들이여. 두 무리 중 어느 쪽이든 맹세를 어기고 먼저 해를 끼치는 쪽이 있다면, 이 포도주처럼 그들과 그 자식들의 뇌수가 땅 위에 쏟아지게 하소서. 또한 그들의 아내들이 다른 이들의 노예가 되게 하소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크로노스의 아들이 아직 그들에게 응답하여 들어주지는 않았다.

그때 다르다노스의 아들 프리아모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하였다.

"트로이아인들이여,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와 싸우는 모습을 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기에, 진정으로 바람 부는 일리오스로 돌아가려 하오. 하지만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께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죽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소."

신과 같은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차에 어린 양들을 태운 뒤 직접 올라타 고삐를 당겼다. 안테노르가 그의 곁에서 아름다운 전차에 올라탔고, 두 사람은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한편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용맹한 오디세우스가 먼저 일정한 거리를 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 안에 제비뽑기용 조각들을 넣고 흔들어서,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청동 창을 던질지 결정했다.

사람들은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며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이다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여. 이 두 민족 모두에게 이러한 재앙을 가져온 자가 이들 중 누구이든, 그가 죽어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정과 신의의 맹세가 찾아오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뒤를 돌아보며 투구를 흔들었고, 곧바로 파리스의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자의 잘 달리는 말들과 장식된 갑옷이 놓인 곳으로 돌아가 줄을 지어 앉았다.

하지만 머리칼이 고운 헬레네의 남편인 알렉산드로스도 아름다운 갑옷을 어깨에 걸쳤다.

그는 먼저 정강이받이를 다리에 찼다. 그것들은 은으로 발목 장식이 되어 있어 아름다웠다. 그다음에는 형제 리카온의 흉갑을 가슴에 걸치고 몸에 맞게 조절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은으로 장식된 청동 검을 메고, 그다음에는 크고 튼튼한 방패를 멨다. 또한 그의 거대한 머리에는 말갈기 장식이 달린 잘 만들어진 투구를 썼는데, 그 깃털 장식이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거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에 꼭 맞는 튼튼한 창을 집어 들었다.

전투에 나서는 메넬라오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전투 장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들이 군중의 양편에서 무장을 마치자, 무시무시한 눈빛을 번뜩이며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사이의 공간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 모두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두 사람은 정해진 공간 근처에 서로 가까이 서서, 분노에 차 서로를 향해 창을 휘둘렀다.

먼저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길게 그림자 지는 창을 내던져, 사방이 잘 균형 잡힌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방패를 내리쳤다. 그러나 청동은 뚫고 나가지 못하고, 창끝이 튼튼한 방패에 막혀 구부러졌다.

다음으로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창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아버지 제우스에게 기도했다.

“우리의 왕이신 제우스여, 나에게 먼저 잘못을 저지른 저 훌륭한 알렉산드로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를 내 손 아래 굴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환대해 준 주인에게 악행을 저지르기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는 말을 마치고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졌다. 창은 사방으로 균형이 잘 잡힌 프리아모스의 아들의 방패를 강타했다.

강력한 창은 빛나는 방패를 뚫고 들어갔고, 화려하게 장식된 흉갑까지 뚫고 나아갔다. 창은 그의 옆구리 바로 옆에서 튜닉을 찢으며 지나갔으나, 그는 몸을 옆으로 비틀어 검은 운명을 피했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은으로 장식된 칼을 뽑아 들고, 몸을 높이 일으켜 상대의 투구 뿔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의 칼은 투구 위에서 세 조각, 아니 네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넓은 하늘을 한 번 바라보며 쓰라린 비명을 내질렀다.

"제우스 아버지여, 당신보다 더 불길한 신은 없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의 악행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칼은 손안에서 부러졌고 제 창은 손아귀를 벗어나 헛되이 날아갔으며 그를 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파리스에게 달려들어 말갈기가 두껍게 달린 투구를 움켜쥐었다. 그는 파리스를 빙빙 돌리며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향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파리스는 투구를 고정하기 위해 부드러운 목 아래 턱 밑으로 팽팽하게 조여진, 화려하게 수놓아진 끈에 의해 숨이 막혔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재빨리 알아차리지 않았더라면, 메넬라오스는 그를 끌고 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을 것이다. 아프로디테가 도살한 황소 가죽으로 만든 그 끈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메넬라오스의 억센 손에는 빈 투구만 남았다.

메넬라오스는 투구를 휘둘러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 쪽으로 던졌고, 믿음직한 동료들이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리고 그는 청동 창으로 적을 죽이려고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여신이 그러하듯 아주 쉽게 그를
낚아채 짙은 안개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를 향기롭고 아치형으로 된 그의 방에 내려놓은 뒤,
아프로디테 자신은 헬레네를 부르러 갔다.

아프로디테는 높은 성벽 위에 있는 헬레네를 발견했는데,
헬레네의 주변에는 트로이아의 여인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그러자 여신은 손으로 헬레네의 향기로운 옷을 붙잡아
잡아당겼다.

그리고 헬레네가 라케다이몬에 살 때, 헬레네가 무척 아꼈던
양털 빗질하는 노파의 모습으로 변하여 헬레네에게 말을
걸었다. 그 노파는 예전에 헬레네를 위해 고운 양털을
빗질해주곤 했던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는 그 노파의 모습으로 헬레네에게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알렉산드로스 님이 집으로 오시랍니다.
그분은 방 안 상감 장식 침상에 앉아 계신데, 아름다움과 고운
옷차림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다
돌아오셨다고는 생각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춤추러
가시는 길이거나 방금 춤을 마치고 쉬시는 분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신은 헬레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헬레네가 여신의 아름다운 목과 사랑스러운 가슴, 그리고
번뜩이는 눈을 바라보았을 때 경이로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헬레네가 말하며 여신에게 말을 건넸다.

"이상한 여신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속이려 하십니까?
메넬라오스가 훌륭한 알렉산드로스를 이겼고, 미운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으니, 만약 프리기아나
아름다운 마이오니아의 인구 많은 도시들 중에도 여신께서
아끼는 필멸의 인간이 있다면, 여신은 분명 나를 그곳까지 더
멀리 이끌고 가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꾀를 품고 오셨습니까? 차라리 가서 그
사람 곁에나 앉으십시오. 신들의 길은 버리시고, 다시는
올림포스로 발걸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아내로, 아니면 노예로라도 삼을 때까지 늘 그 사람 때문에
애태우며 그를 지키십시오.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잠자리를 펴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트로이아의 여인들이 모두 훗날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끝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분노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경솔한 여인이여,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내가 화가 나서
지금은 그대를 놀랍도록 사랑하고 있으나, 그대를 버리고
미워하게 될까 두렵구나. 또한 내가 트로이아인과
다나오스인 양쪽 모두 사이에 지독한 증오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대는 악한 운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제우스의 딸 헬레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헬레네는 빛나고 눈부신 겉옷으로 몸을 감싼 채 침묵하며
떠나갔다. 트로이아 여인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여신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그들이 알렉산드로스의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자, 하녀들은
즉시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는
지붕이 높은 방으로 들어갔다.

웃음을 사랑하는 여신 아프로디테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알렉산드로스의 맞은편에 놓았다.

그러자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헬레네가 눈을
곁눈질하며 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남편을 꾸짖으며
말했다.

"싸움터에서 돌아왔구려. 차라리 내 전남편이었던 용맹한
사내에게 져서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대는 예전에 자신의 손아귀 힘과 창의 위력으로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보다 더 나은 사내라고 뽐내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가서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에게 다시 한번 사내 대 사내로 맞붙자고 도전하시오. 아니, 내 스스로 그대에게 권하건대,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에게 무모하게 덤비거나 그와 싸우지 마시오. 혹시라도 그대가 곧 그의 창에 패할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러자 파리스가 대답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모진 말로 내 마음을 꾸짖지 마시오."

"지금은 메넬라오스가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나를 이겼으나, 다른 때에는 내가 그를 이길 것이오. 우리 편에도 신들이 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우리 함께 누워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합시다. 내 영혼을 이토록 사로잡은 욕망은 전에는 없었소. 내가 처음 그대를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에서 가로채어 나의 항해용 배들을 타고 떠났을 때도, 그리고 크라나이 섬에서 사랑의 침상에 그대와 몸을 섞었을 때도 지금처럼 그대를 사랑하거나 달콤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는 않았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침상으로 앞장서 갔으며, 그의 아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밧줄로 엮은 침상에 누웠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들짐승처럼 무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어디서든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이나 그들의 유명한 동맹군 중 누구도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에게 알렉산드로스를 찾아내 줄
수 없었다. 만약 누군가 그를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를 숨겨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검은 죽음처럼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때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 그리고 동맹군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가 이긴 것이 이제 분명하오.
그러니 아르고스의 헬레네와 그녀가 가져간 보물들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남을 만큼 합당한 보상을 갚으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모든 아카이아인이
환호하며 동의했다.

제4권

맹약이 깨지다

제우스의 곁에 앉은 신들은 황금 바닥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위엄 있는 헤베가 신들에게 넥타르를 따랐고, 신들은 트로이아인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황금 잔으로 서로 축배를 들었다.

그러자 크로노스의 아들이 조롱하는 말로 헤라를 화나게 하려고 시도하며 악의를 담아 말했다.

“메넬라오스에게는 두 여신이 조력자로 있구나. 아르고스의 헤라와 알랄코메네의 아테나 말이다.”

“하지만 저 여신들은 정말로 따로 떨어져 앉아 구경하며 즐거워하고 있구나. 반면에 저 다른 웃음이 넘치는 아프로디테는 언제나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닥칠 운명을 막아주고 있으며, 방금 그가 죽을 것 같았을 때도 그를 구해주었다.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에게는 분명 승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다시 악한 전쟁과 두려운 전투의 소음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양쪽 군대 사이에 화친을 맺게 할 것인지 말이다."

"만약 이것이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는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고, 메넬라오스는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란히 앉아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을 꾸미고 있던 아테나와 헤라가 투덜거렸다.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격분하여 맹렬한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라는 가슴속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제우스에게 말을 건넸다.

"무서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찌 제 수고를 헛되게 하시렵니까? 프리아모스와 그 아들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군대를 모으느라 제가 흘린 땀과, 지쳐 버린 제 두 마리 말은 어찌 되는 겁니까?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신들이 모두 그 뜻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뜨거운 분노에 휩싸여
헤라에게 말했다.

"이상한 여왕이여, 프리아모스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이
그대에게 대체 무슨 해를 끼쳤기에, 그토록 끊임없이
분노하며 잘 지어진 일리오스의 성채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오?

그대가 성문과 높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 프리아모스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트로이아인을 산
채로 잡아먹는다면, 어쩌면 그대의 분노가 풀릴지도
모르겠구려.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다만 이 다툼이 훗날 그대와 나 사이의
비통한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시오."

"그리고 그대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터이니, 이를 마음 깊이
새겨 두시오.

내가 어떤 도시를 파괴하고 싶어 몹시 열망하여, 그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결코 나의 분노를 막으려 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 또한 내 의지로 그대에게 양보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원치 않았음을 기억하시오."

"해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들이 사는 모든 도시 가운데, 신성한 일리오스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곳이었소.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백성도 그러했소.

그곳에서는 내 제단에 마땅한 잔치와 술 제물과 제물 타는 향기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소."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위엄 있는 헤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도시가 셋 있습니다. 아르고스와 스파르타와 길이 넓은 미케네입니다. 그 도시들이 당신 마음에 거슬리거든 언제든 무너뜨리십시오.

저는 그 도시들을 지키겠다고 나서지도, 그들을 지나치게 아끼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워하며 막으려 한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훨씬 강하시니 말입니다."

"그래도 제 수고가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신이고, 당신과 같은 혈통에서 났습니다. 꾀 많은 크로노스는 저를 두 가지로 가장 존귀한 딸로 낳았습니다. 저는 맏딸이고, 또 모든 불사신들의 왕인 당신의 아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서는 서로 양보합시다. 제가 당신께, 당신이 제게 양보하면 다른 불사신들도 모두 따를 것입니다. 지금 곧 아테나에게 명하시어,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의 무시무시한 싸움터로 가서 트로이아인들이 먼저 맹세를 어기고 승리에 들뜬 아카이아인들을 해치게 하도록 꾀하라고 하십시오."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그 말을 따랐다. 그는 곧바로 아테나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어서 군대로,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한가운데로 가거라. 그리고 트로이아인들이 먼저 맹세를 어기고 승리에 들뜬 아카이아인들을 해치도록 꾀하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이미 열의에 찬 아테나를 부추겼고,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번개처럼 내려갔다.

굽은 계책을 쓰는 크로노스의 아들이 선원들이나 광대한 전사들의 무리를 위해 징조로서 빛나는 별을 보내고 그로부터 불꽃이 빽빽하게 튀는 것과 같이, 팔라스 아테나도 땅으로 번개처럼 내려와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경악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보며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우리는 다시 끔찍한 전쟁과 두려운 전투의 소란을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에게 전투를 나누어 주는 제우스께서 군대 사이에 우애를 세워 주실 것인가.”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한편 아테나는 안테노르의 아들, 용맹한 창잡이 라오도코스의 모습을 하고 트로이아인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 신과 같은 판다로스를 찾았다.

그녀는 비길 데 없이 굳센 리카온의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주위에는 아이세포스 강가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방패 든 굳센 군사들이 늘어서 있었다.

아테나가 그에게 다가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지혜로운 리카온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어 보겠소?”

“그렇다면 메넬라오스에게 날랜 화살을 한번 쏘아 보시오. 그러면 모든 트로이아인에게서, 무엇보다 알렉산드로스 왕에게서 큰 고마움과 명성을 얻을 것이오.

싸움을 좋아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그대의
화살에 쓰러져 슬픈 장작더미에 오르는 것을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누구보다 먼저 그대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줄 것이오."

"자,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에게 화살을 쏘시오. 그리고 활로
이름난 리키아 태생의 신 아폴론에게, 신성한 젤레이아 고향
성으로 돌아가면 처음 난 어린양들로 훌륭한 제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시오."

아테나는 이렇게 말하여 어리석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즉시 야생 아이벡스의 뿔로 만든 매끄러운 활을 꺼냈다.
예전에 그는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벡스를 치기 위해
매복해 있다가, 놈의 가슴을 쏘아 바위 틈으로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었다.

그 뿔은 머리 부분에서 열여섯 손바닥 길이만큼 자라 있었다.
뿔을 다루는 장인이 이 뿔들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서로
맞추고 정성스럽게 매끄럽게 다듬은 뒤, 그 끝에 황금 장식을
달아 놓았다.

그는 활을 땅에 기대어 시위를 걸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훌륭한 동료들이 그의 앞에서 방패를 들어 가려 주었다. 싸움을 좋아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화살을 맞기 전에 아카이아인의 전사 아들들이 벌떡 일어날까 봐서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화살통의 덮개를 열고 화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검은 고통을 가득 실은, 한 번도 쏘인 적 없는 깃 달린 화살이었다.

그는 즉시 그 쓰디쓴 화살을 시위에 끼웠다. 그리고 활로 이름난 리키아 태생의 신 아폴론에게 맹세했다. 자신이 신성한 젤레이아 시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첫 새끼 양들로 영광스러운 훌륭한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말이다.

그는 홈이 파인 화살과 황소 힘줄로 만든 시위를 한꺼번에 움켜쥐고 활을 당겼다. 그는 시위를 가슴까지 끌어당겼고, 쇠 화살촉은 활대까지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가 커다란 활을 둥글게 당기자, 활이 팅 하고 울리며 시위가 크게 노래하듯 소리를 냈고, 날카로운 화살은 무리 사이로 날아가기를 갈망하며 튀어 나갔다.

그러자 오, 메넬라오스여, 복된 신들, 즉 불멸의 신들이 그대를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제우스의 딸, 전리품을 이끄는 여신이 그대 앞에 나타나 날카로운 화살을 막아 주었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달콤한 잠에 빠진 아이에게서 파리를 쫓아내듯, 화살이 살을 비껴가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화살이 허리띠의 황금 장식이 달린 곳과 흉갑이 겹쳐진 곳으로 향하도록 직접 인도했다.

쓰라린 화살은 장식된 허리띠에 맞았고, 화려하게 꾸며진 허리띠를 뚫고 들어갔다.

화살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흉갑을 완전히 관통했으며, 그가 몸을 보호하고 화살을 막기 위해 입었던, 그의 가장 강력한 방어구인 허리 가리개까지 뚫고 들어갔다. 하지만 화살은 그것마저 뚫고 나아갔다.

그리하여 화살은 전사의 가장 바깥쪽 살을 스치고 지나갔고, 곧바로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마치 마이오니아나 카리아의 어떤 여인이 말의 뺨 가리개를 만들기 위해 상아를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보물 창고에 놓여 있었고, 많은 기병이 그것을 차기를 원하며 기도했으나, 그것은 왕의 보물로서 그 말의 장식이자 말 몰이꾼의 영광이 되기 위해 그곳에 놓여 있었다.

메넬라오스여, 그대의 허벅지가 피로 물든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그대의 매끈한 허벅지와 다리, 그리고 그 아래의 고운 발목까지도 그러했다.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몸을 떨었고, 아레스가 사랑하는 메넬라오스 자신 또한 몸을 떨었다.

하지만 화살촉을 묶은 힘줄과 미늘이 살 밖에 있는 것을 보자, 메넬라오스는 다시 기운을 차렸다.

아가멤논 왕은 메넬라오스의 손을 잡고 그들 사이에서 무겁게 신음하며 말했다. 그의 동료들도 신음했다.

"사랑하는 아우여, 트로이아인들이 이토록 그대를 쳤고 신의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짓밟는 것을 보니, 내가 제물을 바치며 맹세한 것이 그대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나 보오. 아카이아인들 앞에서 그대 혼자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내보낸 것이 말이오. 하지만 결코 맹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어린 양의 피와 섞지 않은 포도주를 부어 바친 제물과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손을 맞잡는 행위 또한 헛된 것이 아니오."

"설령 올림포스의 신께서 지금 당장은 맹세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결국에는 늦게라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아내와 자식들로써 아주 큰 대가를 치르며 속죄하게 될 것이오.

나는 이것을 마음과 영혼에 분명히 알고 있소. 신성한 일리오스가,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백성이 쓰러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러면 하늘에 거하며 높은 곳에 왕좌를 둔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이 기만행위에 분노하여 그들 모두 위로 자신의 검은 아이기스를 흔드실 것이오."

"이 일들은 참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하지만 메넬라오스여, 만약 그대가 죽어 그대의 삶을 다 채우게 된다면, 나는 그대 때문에 끔찍한 슬픔을 겪게 될 것이오.

또한 나는 가장 멸시받는 자가 되어 목마른 아르고스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 아카이아인들이 즉시 자신들의 고향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우리는 아르고스의 헬레네마저 프리아모스와 트로이아인들에게 그들의 자랑거리로 남겨주게 될 것이오."

"그대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채 트로이아 땅에 누워 있을 때, 대지는 그대의 뼈를 썩게 할 것이오. 그리하여 오만한 트로이아인들 중 많은 이가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무덤 위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말하겠지. '아가멤논이 자신의 분노를 다 풀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이와 같기를! 그는 지금 아무런 소득 없이 아카이아인 군대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으나, 보라! 그는 빈 배를 타고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곳에 고귀한 메넬라오스를 남겨두었구나.'

훗날 누군가가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니, 그날에 넓은 대지가 나를 삼켜 버리기를!"

그러나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가 말하며 그를 격려했다.

"기운을 내시오. 어떤 경우에도 아카이아인 군대를 겁먹게 하지 마시오. 화살이 치명적인 곳에 박힌 것이 아니오. 나의 번쩍이는 허리띠와 그 아래의 치마, 그리고 대장장이들이 만든 허리 가리개가 화살을 막아주었소."

그러자 아가멤논 왕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메넬라오스여. 하지만 의원이 상처를 살피고 그 위에 약초를 놓아 그대가 어두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오.”

그러고 나서 그는 신과 같은 전령 탈티비오스에게 말했다.

“탈티비오스야, 어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비길 데 없는 의원 마카온을 불러오너라. 싸움을 좋아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를 보아야 한다. 활 솜씨 좋은 어떤 트로이아인이나 리키아인이 화살로 그를 맞혔다. 그자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슬픔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전령은 그 말을 듣고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군대 사이를 지나가며 전사 마카온을 찾으려 이리저리 눈을 돌렸다.

그는 마카온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카온의 주변에는 말들의 목초지인 트리카에서 그를 따르는 방패를 든 용맹한 군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는 마카온에게 다가가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여, 일어나시오. 아가멤논 왕께서 아카이아인의 대장인 싸움 좋아하는 메넬라오스를 보러 오라고 부르시오. 활 솜씨 좋은 어떤 트로이아인이나 리키아인이 화살로 그를 맞혔소. 그자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슬픔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여 마카온의 마음을 움직였고, 두 사람은 넓게 펼쳐진 아카이아인 군대 사이를 헤치며 걸어갔다.

그들이 부상을 입은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주변에는 모든 지도자가 원을 그리며 모여 있었다.

신과 같은 영웅이 다가와 그들 가운데 섰고, 곧바로 꽉 조여진 허리띠에서 화살을 뽑아냈다. 화살을 뽑아내자 날카로운 미늘이 뒤로 부러져 나갔다.

그는 번쩍이는 허리띠와 그 아래의 치마, 그리고 대장장이들이 만든 허리 가리개를 풀어냈다.

하지만 그는 쓰라린 화살이 박힌 상처를 보자, 그곳의 피를 빨아내고는 확실한 지식으로 그 위에 진정시키는 약초를 펴 발랐다. 그 약초는 옛날에 케이론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그들이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를 돌보느라 분주한 사이, 방패를 든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이 다가왔다.

아카이아인들은 다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전쟁을 준비했다.

그때의 아가멤논은 잠들어 있거나, 움츠러들어 있거나, 싸울 의지가 없는 모습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전장에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는 청동으로 장식된 자신의 말들과 전차를 그대로 두었고, 페이레우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인 에우리메돈이 콧김을 내뿜는 말들을 따로 떨어져 있게 돌보았다.

아가멤논은 온 군대를 돌며 명령을 내리다가 팔다리가 지치면 곧 탈 수 있도록 말들을 가까이 두라고 에우리메돈에게 단단히 일렀다. 하지만 아가멤논 자신은 전사들의 대열 사이를 직접 걸어 다녔다.

그는 날랜 말들을 타고 의욕에 찬 다나오스인을 누구든 발견하면 그들에게 다가가 간절히 격려하며 말했다.

"아르고스인들이여, 그대들의 맹렬한 용기를 조금도 늦추지 마시오. 아버지 제우스께서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조력자가 되지 않으실 것이오. 오히려 맹세를 어기고 먼저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분명 독수리들에게 그 연한 살점을 먹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성채를 함락할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우리 배에 싣고 떠나게 될 것이오."

그는 다시 혐오스러운 전쟁을 피하려는 자들을 발견하면, 분노 섞인 말로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활을 쏘며 분노하는 아르고스인들이여, 명예롭지 못한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수치심도 없느냐? 어찌하여 그대들은 넓은 평원을 달리다 지쳐서 가만히 서 있는 새끼 사슴들처럼, 마음속에 용기가 전혀 없는 채로 멍하니 서 있는 것이냐? 그대들도 그 사슴들처럼 멍하니 서서 싸우지 않고 있구나."

"그대들은 크로노스의 아들이 혹시 그대들 위로 팔을 뻗어 줄지 아닐지를 알기 위해, 회색 바다의 해안에 위엄 있는 선미를 가진 배들을 정박시켜 둔 곳까지 트로이아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그는 이와 같이 전사들의 대열을 따라 명령을 내리며 나아갔다.

그는 사람들의 무리 사이를 지나가며 크레타인들에게 다가갔다. 크레타인들은 지혜로운 이도메네우스 주변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도메네우스는 용맹한 멧돼지처럼 최전방의 전사들 사이에 서 있었고, 메리오네스는 맨 뒤의 부대들을 재촉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기뻐하며, 즉시 이도메네우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했다.

"이도메네우스여, 나는 전쟁에서나 다른 일에서나, 그리고 아르고스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원로들에게만 내는 빛나는 포도주를 잔에 섞는 연회에서나, 날랜 말을 탄 그 어떤 다나오스인보다도 그대를 존중하오.

다른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정해진 몫을 마시지만, 그대의 잔은 그대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언제든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가득 차 있소."

"자, 이제 전투를 위해 일어나시오. 그대가 예전에 스스로를 그렇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처럼 말이오."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인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내가 처음에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그대에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 주겠소. 하지만 그대는 다른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독려하여 우리가 신속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시오. 트로이아인들이 우리의 맹세를 무시하고 아무런 효력도 없게 만들었으니 말이오.

그들이 맹세를 어기고 먼저 폭력을 휘둘렀으므로, 앞으로 그들에게는 죽음과 재앙이 닥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마음이 기뻐서 길을 떠났다.

그는 전사들의 무리를 지나며 두 아이아스에게로 갔다. 전사들은 전투를 위해 무장을 하고 있었고, 보병들의 구름이 그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전망대에서 염소 치는 목자가 서풍의 돌풍에 밀려 깊은 바다 위로 몰려오는 구름을 보는 것과 같았다. 멀리서 그 구름이 바다 위를 지나갈 때 타르보다 더 검게 보이고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면, 목자는 그 광경을 보고 몸서리치며 자신의 양 떼를 동굴 아래로 몰아넣는다.

제우스가 기른 젊은이들의 두터운 대열이 두 아이아스의 곁에서 격렬한 전쟁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도 이와 같았다. 방패와 창을 세운 검은 대열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아가멤논 왕은 기뻐하며, 날개 돋친 말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청동 갑옷을 입은 아르고스인의 지도자 두 아이아스여, 그대들에게는 재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니 아무 지시도 하지 않겠소. 그대들은 스스로 백성에게 힘껏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으니 말이오. 오, 아버지 제우스여, 아테나여, 아폴론이여! 모든 이의 가슴에 이런 기개가 있다면,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는 곧 우리 손에 함락되어 무너질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아가멤논은 그들을 그곳에 남겨 둔 채 다른 이들에게로 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필로스인의 명쾌한 목소리를 가진 웅변가 네스토르를 찾아냈다. 네스토르는 강력한 펠라곤과 알라스토르, 크로미오스, 그리고 하이몬 왕과 백성의 목자인 비아스 주변에서 전우들을 정렬시키며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그는 먼저 전차 몰이꾼들을 그들의 말과 전차에 맞춰 배치했고, 그 뒤에는 전투의 방벽이 될 수 있도록 용맹하고 많은 보병들을 배치했다. 그러나 겁쟁이들은 무리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아무리 싫더라도 각자가 반드시 싸워야만 하게 만들었다.

그는 먼저 전차 몰이꾼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말들을 잘 통제하고 무리 속에서 소란스럽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일렀다.

"아무도 말 다루는 솜씨와 용맹을 믿고 혼자 앞으로 나가 트로이아인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약해질 뿐이오. 그러나 자기 전차에 탄 채 적의 전차에 닿을 수 있는 자는 창을 내지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소. 옛사람들도 가슴에 이런 생각과 기개를 품고 도시와 성벽을 무너뜨렸소."

노인은 옛 싸움의 경험을 살려 그렇게 그들을 독려했다.

그를 보고 아가멤논 왕은 기뻐하며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노인이여, 그대 가슴의 기개만큼 무릎도 말을 듣고 힘도 굳건하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모진 노년이 그대를 짓누르는구려. 다른 전사가 그대의 나이를 대신 지고, 그대는 젊은이들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진실로 나 자신도 훌륭한 에레우탈리온을 죽였던 그날처럼 되고 싶구려. 하지만 신들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허락하지는 않는 법이오. 내가 그때 청년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노년이 나를 따르고 있소.

그럼에도 나는 전차병들 사이에 머물며 조언과 말로 그들을 독려할 것이오. 그것이 노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오. 나보다 더 젊고 자신의 힘을 믿는 청년들이 창을 휘두를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페테오스의 아들이자 말들을 모는 메네스테우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주변에는 함성을 지르는 데 능숙한 아테나이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도 그 근처에 서 있었고, 약하지 않은 민족인 케팔레니아인들의 대열도 그와 함께 가만히 서 있었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의 부대와 아카이아인들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았기에, 그들의 군대는 아직 함성을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서, 아카이아인의 다른 밀집 부대들이 전진하여 트로이아인들을 공격하고 전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 광경을 보고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을 꾸짖으며 날개 돋친 말로 그들에게 말했다.

"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인 페테오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사악한 꾀에 능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그대여, 어찌하여 떨며 따로 떨어져 서서 다른 이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오?

그대들 두 사람이 맨 앞줄에 서서 격렬한 전투에 맞서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원로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할 때면, 그대들이 가장 먼저 나의 잔치 부름을 듣지 않았소?"

"잔치 때는 구운 고기를 먹고 꿀처럼 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기를 좋아하더니, 지금은 아카이아인 부대 열이 그대들 앞에서 무자비한 청동을 휘두르며 싸운대도 기꺼이 구경만 하겠구려."

그러자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그에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 이의 울타리 밖으로 무슨 말이 새어 나온 것이오!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을 상대로 격렬한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전투에서 게으르다고 어찌 말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그대가 원하고 그 사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텔레마코스의 아버지가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의 선봉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대가 하는 말은 헛된 바람과 같소."

아가멤논 왕은 오디세우스가 화난 것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거두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나는 그대를 지나치게 꾸짖지도, 재촉하지도 않겠소. 그대 가슴속 마음이 다정한 생각을 품고 있고, 그대가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오.

자, 지금 거친 말이 오갔다면 나중에 바로잡읍시다. 신들께서 그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 주시기를 비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 둔 채 다른
이들에게로 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디가 있는 전차에 서 있는 티데우스의
아들, 마음 높은 디오메데스를 찾아냈다. 그의 곁에는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가 서 있었다.

그를 보자 아가멤논 왕은 그를 꾸짖으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아아, 마음 넓은 티데우스의 아들이자 말을 길들이는 자여,
어찌하여 움츠러들어 있느냐? 어찌하여 전투의 제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전쟁의 고통 속에서 그를 보았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티데우스는 분명 이처럼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고,
동료들보다 훨씬 앞장서서 적과 싸웠다고 한다. 나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모든
이들 가운데 탁월했다고 한다."

"그는 참으로 한때 미케네에 왔었지. 적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신과 같은 폴리네이케스와 함께 군대를 모으러
왔었다. 그 무렵 그들은 테바이의 신성한 성벽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영광스러운 동맹군을 얻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미케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맹을 맺어 줄 마음이 있었고, 요청받은 대로 승낙하려 했으나, 제우스께서 불길한 징조를 보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그들이 떠나 풀밭에 낮게 깔린 깊은 갈대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카이아인들은 티데우스를 사절로 보냈다."

"그는 길을 떠나, 위대한 에테오클레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카드메이아인의 아들들을 찾아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카드메이아인들 사이에 홀로 있었음에도 기사 티데우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힘겨루기를 제안했고, 모든 경기에서 그들을 아주 쉽게 이겼다. 아테나가 그를 도왔다."

"하지만 말을 몰던 카드메이아인들은 화가 났다. 그들은 티데우스가 돌아가는 길에 쉰 명의 청년들로 강력한 매복을 만들어 배치했는데, 그중 두 명은 지도자였다. 하나는 신들과 맞먹는 하이몬의 아들 마이온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투에 용맹한 아우토포노스의 아들 폴리폰테스였다.

그러나 티데우스는 이들에게조차 수치스러운 운명을 안겨주며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이 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었는데, 신들의 징조에 따라 마이온을 보내 주었다.

아이톨리아의 티데우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낳은 아들은 회의에서는 그보다 나을지 몰라도, 전투에서는 그보다 못했다."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용맹한 디오메데스는 존경하는 왕의 꾸짖음을 받아들이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카파네우스의 아들이 대답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진실하게 말할 줄 알면서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오. 우리는 신들의 징조와 제우스의 도움을 믿고, 우리 둘이 더 적은 군대를 모아 더 강력한 성벽에 맞서 일곱 성문의 테바이를 점령했소. 반면 그들은 자신들의 눈먼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했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와 같은 영예로 대우하지 마시오."

그러자 용맹한 디오메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보내며 그에게 말했다.

"좋은 친구여, 침묵을 지키고 내 말을 들으시오. 백성의
목자인 아가멤논이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전투로 몰아붙이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소.
아카이아인들이 트로이아인들을 죽이고 신성한 일리오스를
점령한다면 그에게 큰 영광이 따를 것이요, 만약
아카이아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에게 역시 큰 슬픔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니 자, 우리 둘 또한 격렬한
용맹을 생각합시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왕자의 가슴에 있는 청동
장식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음이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다.

서풍이 몰아칠 때 소리 내는 해변에 파도가 파도 뒤를 이어
잇달아 몰아치는 것과 같았다. 파도는 깊은 바다에서
처음에는 물결 모양으로 모여들지만, 그 뒤에는 육지에
부딪혀 부서지며 크게 울부짖는다. 또한 곶 주변에서 파도는
부풀어 올라 머리를 치켜들고 소금물을 내뿜는다.

그날 다나오스인들의 부대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대열을 지어 전투를 향해 나아갔다. 각 지휘관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는 침묵 속에 행군했다.

지휘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기에, 그토록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음에도 그들의 가슴 속에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전사의 몸에는 그들이 입은 상감 장식된 갑옷이 번뜩였다.

하지만 트로이아인들은 달랐다. 마치 부유한 자의 마당에 수많은 암양들이 모여 흰 우유를 짜이기 위해 서 있고, 새끼 양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끊임없이 매애 하고 울어대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넓은 군대 전체에서 트로이아인들의 소란스러운 외침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거나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혀는 서로 뒤섞여 있었으니, 그들은 여러 땅에서 소집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아레스였고, 아카이아인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와 공포, 패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아레스의 자매이자 동료인 끊임없이 날뛰는 불화였다.

불화는 처음에는 머리를 작게 들지만, 그 후에는 발로는 땅을 밟으면서도 머리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치켜든다.

군중 사이를 지나가며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커지게 만드는 악한 다툼을 그들 가운데에 던져 넣은 것은 바로 불화였다.

그들이 한데 모여 한 장소에 이르자, 방패와 창이 부딪혔고 청동 갑옷을 입은 전사들의 격렬한 기세가 맞붙었다. 돌출된 방패들이 서로 맞물리며 커다란 소음이 일어났다.

그러자 죽이는 자들의 환호성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신음 소리가 똑같이 들려왔고, 땅에는 피가 흘러넘쳤다.

마치 겨울철 산의 거대한 수원지에서 두 계곡이 만나는 곳으로 흘러내려 온 급류가 깊은 협곡에서 그 거대한 범람을 하나로 합칠 때, 멀리 산속에서 목자가 그 천둥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다. 전투에서 이들이 맞붙었을 때도 그와 같이 함성과 고통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틸로코스가 가장 먼저 완전한 갑옷을 입은 트로이아인 전사를 죽였다. 그는 선봉에서 싸우던 용맹한 자인 탈리시오스의 아들 에케폴로스였다.

안틸로코스는 먼저 말총 장식이 달린 그의 투구 돌기를 찔렀다. 그리고 창을 그의 이마에 박아 넣었는데, 청동 창끝이 뼈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은 어둠에 잠겼고, 그는 거대한 전투 속에서 마치 성벽이 무너지듯 쓰러졌다.

그가 쓰러질 때, 칼코돈의 아들이자 기개가 높은 아반테스인의 대장인 엘레페노르 왕이 그의 발을 붙잡았다.

엘레페노르는 날아오는 무기들로부터 그를 끌어내어 서둘러 그의 갑옷을 벗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아주 짧은 순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가 시신을 끌어당기고 있을 때, 기개가 높은 아게노르가 그를 발견했다. 아게노르는 몸을 굽힌 엘레페노르의 방패가 가리지 못한 옆구리 부분을 청동을 입힌 창으로 찔러 그를 쓰러뜨렸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떠나갔고, 그의 몸 위로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들의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마치 늑대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 듯, 사람들은 서로를 쓰러뜨리며 뒤엉켰다.

그때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안테미온의 아들이자 혈기 왕성한 청년인 시모에이시오스를 쳤다. 시모에이시오스는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부모님을 따라 양 떼를 보러 이다에서 내려오던 길에 시모에이스 강가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시모에이시오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정성껏 키워준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답하지 못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아이아스의 창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그의 삶은 너무나 짧았다.

그가 맨 앞에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을 때, 청동 창이 그의 오른쪽 유두 옆 가슴을 찔렀다. 창은 그의 어깨를 완전히 관통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늪의 저지대에서 자라나 줄기는 매끄럽지만 꼭대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온 포플러 나무처럼 먼지투성이 땅 위로 쓰러졌다.

어떤 수레 제조인이 아름다운 전차의 바퀴 테를 구부리기 위해 번뜩이는 철로 그 나무를 베어 넘겼고, 그 나무는 강가에 놓여 말라가고 있었다.

제우스의 후손 아이아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테미온의 아들 시모에이시오스를 죽였다.

번뜩이는 흉갑을 입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안티포스는 무리 속으로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그는 아이아스를 맞히지 못하고, 시체를 반대편으로 끌고 가던 오디세우스의 훌륭한 동료 레우코스의 사타구니를 찔렀다. 그 바람에 레우코스는 시체 위로 쓰러졌고, 시체는 그의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그의 죽음에 오디세우스는 마음속으로 몹시 분노하여, 불타는 청동 갑옷을 입고 선두의 전사들 사이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는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리를 잡고는, 경계하며 주위를 살피다가 빛나는 창을 던졌다. 그가 창을 던지자 트로이아인들은 그 전사를 피해 뒤로 물러났다.

그가 창을 던진 것은 헛되지 않았으니, 아비도스의 날랜 암말 무리에서 그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프리아모스의 사생아 데모코온을 맞혔다.

오디세우스는 동료를 위해 분노하여, 그의 창으로 데모코온의 관자놀이를 쳤다. 청동 창끝은 반대편 관자놀이를 뚫고 나갔고, 그의 눈은 어둠에 휩싸였으며,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가 입은 갑옷이 챙그랑거렸다.

그러자 선두의 전사들과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뒤로 물러났다. 아르고스인들은 크게 소리 지르며 시신들을 끌어냈고, 훨씬 더 멀리 앞으로 돌격했다.

아폴론은 페르가모스에서 내려다보며 분노하여, 트로이아인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이여, 일어나라!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마라! 그들의 살은 돌도 쇠도 아니어서, 맞으면 살을 가르는 청동을 막아 내지 못한다. 게다가 머리칼이 고운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는 싸우지 않고 배들 사이에서 그의 쓰라린 분노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무서운 신이 도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아카이아인들은 제우스의 딸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트리토게네이아에 의해 북돋워졌다. 그녀는 아카이아인들이 물러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리 사이를 누비며 그들을 독려했다.

그때 아마린케우스의 아들 디오레스가 운명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오른쪽 다리 발목 부근을 들쭉날쭉한 돌에 맞았다. 아이노스에서 온 임브라소스의 아들 페이로스, 즉 트라키아인의 지도자가 돌을 던진 것이었다.

무자비한 돌은 두 힘줄과 뼈를 완전히 으스러뜨렸다.
디오레스는 먼지 속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랑하는 전우들에게 두 손을 뻗었고, 숨을 몰아쉬며 죽어갔다.

그때 그를 맞힌 페이로스가 달려와 창으로 그의 배꼽 옆을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러자 그의 내장이 모두 땅 위로 쏟아져 나왔고,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

그러나 페이로스가 뒤로 물러날 때, 아이톨리아의 토아스가 창을 던져 그의 유두 위 가슴을 맞혔고, 청동 촉이 그의 폐에 박혔다.

토아스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가슴에서 거대한 창을 뽑아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뽑아 그의 배를 내리쳐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토아스는 그의 갑옷을 벗기지는 않았다. 머리 윗부분의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트라키아인 동료들이 긴 창을 손에 쥐고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하며 당당한 자였을지라도, 트라키아인들은 토아스를 밀어냈고, 토아스는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리하여 두 장수는 먼지 속에 서로를 마주한 채 쓰러져 있었다. 한 명은 트라키아인의 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청동 갑옷을 입은 에페이오스인의 대장이었다. 그들 주변에도 수많은 다른 이들이 마찬가지로 죽어 있었다.

그때는 누구도 그 싸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을 것이다. 날아오는 무기에도 날카로운 청동에도 다치지 않은 채, 팔라스 아테나가 손을 잡아 이끌고 쏟아지는 무기를 막아 주는 가운데 싸움터 한복판을 누빈 사람이라 해도 말이다.

그날 수많은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이 얼굴을 먼지에 묻은 채 서로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

제5권

디오메데스의 무훈

이제 팔라스 아테나는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그가 모든 아르고스인 가운데 돋보이고 빛나는 명성을 얻게 했다.

그녀는 그의 투구와 방패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게 했다. 오케아노스의 물결에 몸을 씻고 나와 다른 모든 별보다 밝게 빛나는 늦여름의 별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머리와 어깨에서 그런 불꽃이 타오르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빽빽하게 몰려 있는 한복판으로 그를 보냈다.

그때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다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고 결함이 없는 헤파이스토스의 사제였다. 그에게는 페게우스와 이다이오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으며, 둘 다 모든 종류의 전투에 매우 능숙했다.

이 두 사람은 군대에서 떨어져 나와 디오메데스에게 맞서 나아갔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나아갔고, 디오메데스는 땅 위를 달려 돌격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전진하며 가까워졌을 때, 먼저 페게우스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날렸다. 창끝은 티데우스의 아들의 왼쪽 어깨 위를 지나갔으나 그를 맞히지는 못했다.

그러자 티데우스의 아들이 청동 무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의 손에서 날아간 창대는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적의 가슴 유두 사이를 꿰뚫었으며, 그 적을 전차에서 떨어뜨렸다.

이다이오스는 뛰어내려 물러서며 아름다운 전차를 버리고 떠났으며, 죽은 형의 몸을 넘어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만약 헤파이스토스가 그를 보호하여 어둠 속에 감싸 안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역시 검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늙은 사제 다레스가 슬픔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위대한 티데우스의 아들은 그 말들을 끌어내어 동료들에게 주고 속이 빈 배들로 몰고 가게 했다.

다레스의 두 아들이 하나는 달아나고 하나는 전차 곁에 죽어 쓰러진 것을 보자,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은 모두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사나운 아레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레스여, 아레스여, 인간의 재앙이요 피에 젖은 성벽 파괴자여. 아버지 제우스가 어느 편에 영광을 주든, 이제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끼리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겠소?”

“하지만 우리 둘은 물러나 자리를 내어주고, 제우스의 분노를 피합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분노한 아레스를 이끌고 전투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레스를 스카만드로스의 모래 언덕에 앉혔고, 트로이아인들은 다나오스인들에게 쫓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휘관들은 저마다 적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먼저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할리조네스인의 지도자인 위대한 오디오스를 전차에서 밀어냈다. 오디오스가 가장 먼저 도망치려 몸을 돌렸을 때, 아가멤논은 그의 어깨 사이 등 부분에 창을 꽂아 가슴까지 꿰뚫었다. 오디오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가 입은 갑옷이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도메네우스는 기름진 타르네에서 온 마이오니아인 보로스의 아들 파이스토스를 죽였다. 파이스토스가 전차에 오르려 할 때,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가 긴 창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 꿰뚫었다.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끔찍한 어둠이 그를 덮쳤다.

이도메네우스의 시종들이 그의 갑옷을 벗겼다. 한편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는 사냥에 능한 스트로피오스의 아들 스카만드리오스를 날카로운 창으로 죽였다. 그는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아르테미스가 몸소 그에게 산과 숲이 기르는 온갖 짐승을 쏘아 맞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궁수 아르테미스는 이제 그를 돕지 못했고, 그가 예전에 뛰어났던 그 모든 활쏘기 기술도 소용이 없었다.

창으로 이름난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그를 피해 달아나던 스카만드리오스의 등 뒤 어깨 사이를 창으로 찔러 가슴까지 꿰뚫어 그를 쳤다. 스카만드리오스는 얼굴을 땅으로 향한 채 쓰러졌고, 그 위로 갑옷이 챙그랑거리며 울렸다.

메리오네스는 테크톤의 아들이자 하르몬의 아들인 페레클로스를 죽였다. 페레클로스는 온갖 기묘한 물건을 만드는 데 손재주가 뛰어났는데, 이는 팔라스 아테나가 그를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알렉산드로스를 위해 재앙의 근원이 된 모양이 잘 잡힌 배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신들의 신탁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 배들은 모든 트로이아인과 그 자신에게 파멸이 되었다.

메리오네스가 그를 뒤쫓았다. 메리오네스가 그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렀다. 창끝은 뼈 아래에 있는 방광까지 완전히 꿰뚫었다.

그는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고, 죽음이 그를 덮쳤다.

안테노르의 아들 페다이오스는 메게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사실 사생아였으나, 아름다운 테아노가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친자식들처럼 정성껏 키웠다.

창으로 이름난 필레우스의 아들이 그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창을 던져 목덜미를 맞혔다. 그러자 청동 창끝이 이빨 사이를 곧장 뚫고 지나가며 혀의 뿌리 부분을 잘라버렸다.

그는 먼지 속에 쓰러졌고, 차가운 청동을 이빨로 깨물었다.

에우아이몬의 아들 에우리필로스는 마음 높은 돌로피온의 아들이자 스카만드로스의 사제로 임명되어 백성들에게 신처럼 존경받던 훌륭한 힙세노르를 죽였다.

에우아이몬의 영광스러운 아들 에우리필로스는 그에게서 도망치던 힙세노르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도중에 그의 어깨를 쳐서 무거운 팔을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피투성이가 된 팔이 땅에 떨어졌고, 그의 눈 위로 어두운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덮쳐왔다.

그들은 이처럼 거대한 싸움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티데우스의 아들이 양측의 무리 중 어느 쪽과 함께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트로이아인들과 동료였는지, 아니면 아카이아인들과 함께였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범람하는 겨울의 급류처럼 평원을 가로질러 몰아쳤다. 그 급류는 빠른 물결로 제방을 쓸어버린다. 촘촘히 쌓은 제방도 이를 막지 못하며, 제우스의 비가 몰아칠 때 풍요로운 포도밭의 담장도 그 갑작스러운 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 급류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공적들이 무리 지어 파괴될 뿐이다.

이와 같이 티데우스의 아들 앞에서 트로이아인들의 두터운 대열이 패주하며 쫓겨났다. 트로이아인들은 그 수가 매우 많았음에도 그를 견뎌낼 수 없었다.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평원을 가로질러 날뛰며 대열을 패주시키는 티데우스의 아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즉시 티데우스의 아들을 향해 활을 휘어 당겼다. 그는 돌진하는 티데우스의 아들의 오른쪽 어깨, 갑옷의 판 위를 정확히 겨냥하여 쏘았다.

쓰라린 화살이 갑옷을 뚫고 지나가며 곧게 나아갔고, 갑옷은 피로 튀었다.

그때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일어나라, 용맹한 트로이아인들이여, 말들을 몰아대는 자들이여!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가 맞았다. 만약 내가 리키아에서 출발할 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자는 이 억센 화살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뽐내며 말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빠른 화살에 쓰러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자신의 말과 전차 앞에 자리를 잡고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착한 카파네우스의 아들이여. 전차에서 내려 내 어깨에서 이 고통스러운 화살을 뽑아다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스테넬로스는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그의 곁에 섰고, 어깨를 관통한 빠른 화살을 깨끗이 뽑아냈다. 그러자 유연한 튜닉 위로 피가 솟구쳤다. 그러자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기도를 올렸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따님, 지칠 줄 모르는 분이시여, 제 말을 들으소서! 사나운 싸움터에서 당신께서 제 아버지 곁에 자애로이 서 계셨던 적이 있다면, 아테나여, 지금 제게도 그렇게 자애를 베풀어 주소서.

이자를 죽이게 해 주시고, 제 창이 닿는 곳으로 그가 오게 해 주소서. 그는 제가 알아채기도 전에 저를 쏘아 맞히고는, 제가 밝은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할 것이라며 뽐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로 이렇게 말하자, 팔라스 아테나가 그의 말을 들었다. 아테나는 그의 팔다리를 가볍게 하고 발과 손을 힘차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디오메데스여, 이제 용기를 내어 트로이아인들에 맞서 싸우라. 내가 그대의 가슴에 그대의 아버지의 힘을 넣어 주었으니, 그것은 방패를 휘두르던 기사 티데우스가 지녔던 것과 같은 굴하지 않는 힘이다. 또한 내가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를 걷어내 주었으니, 그대는 신과 인간을 모두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만약 어떤 신이 그대를 시험하려 이곳에 온다 해도,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전투에 뛰어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불멸의 신과도 절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마라. 오직 아프로디테가 나타날 때에만 날카로운 청동으로 찔러 그녀를 치도록 하라.”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자, 티데우스의 아들은 다시 앞장선 전사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전에도 그의 마음은 트로이아인과 싸우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세 배나 더 큰 기세가 그를 사로잡았다.

들판에서 털 많은 양 떼를 지키던 목자가 우리를 뛰어넘는 사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쓰러뜨리지는 못했을 때와 같았다. 목자는 사자의 힘만 돋워 놓고는 더 막지 못하고 농가 건물 사이로 숨어 버린다. 지켜 줄 이 없는 양 떼는 겁에 질려 흩어지고, 양들은 서로 겹겹이 쓰러진다. 그러나 사자는 사납게 높은 우리를 뛰어넘어 나간다.

강력한 디오메데스도 그런 기세로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스티노스와 백성의 목자인 히페이론을 죽였다.

그는 청동을 씌운 창을 던져 한 명의 젖꼭지 위를 찔렀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칼로 어깨 옆 쇄골을 쳐서 목과 등으로부터 어깨를 잘라 버렸다.

그는 이들을 그대로 두고 꿈을 읽는 노인 에우리다마스의 아들들인 아바스와 폴리이도스를 뒤쫓아 갔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이 꿈을 해석해 주도록 돌아오지 못했고,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그들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파이놉스의 두 아들, 둘 다 사랑받던 크산토스와 토온을 뒤쫓았다. 그들의 아버지는 모진 노년에 기력이 다했고, 재산을 물려줄 다른 아들도 낳지 못했다.

디오메데스는 그곳에서 두 사람을 죽여 소중한 목숨을 앗았다. 그 아버지에게는 통곡과 깊은 슬픔만 남았다. 아들들이 살아 돌아와 그가 맞이하는 일은 끝내 없었다. 재산은 먼 친척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르다노스의 아들인 프리아모스의 두 아들, 에케몬과 크로미오스를 잡았는데, 그 둘은 한 전차에 타고 있었다.

사자가 숲속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암송아지나 암소의 목을 부러뜨리며 달려드는 것처럼, 티데우스의 아들은 버둥거리는 두 사람을 전차에서 처참하게 떨어뜨렸다.

그 후 그는 그들의 갑옷을 빼앗았고, 말들은 동료들에게 주어 배들로 몰고 가게 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는 그가 전사들의 대열을 휩쓸고 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신과 같은 판다로스를 어디서든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창들이 날아다니는 전장 사이를 지나 그를 찾아 나섰다.

그는 리카온의 아들인, 용맹하고 잘생긴 판다로스를 찾아내어 그의 앞에 맞서 서서 그에게 말했다.

"판다로스여, 그대의 활과 날개 달린 화살들, 그리고 그대의 명성은 지금 어디에 있소? 활 솜씨로는 이 땅의 누구도 그대와 겨룰 수 없고, 리키아의 누구도 그대보다 낫다고 하지 못하잖소."

"자, 제우스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저자에게 화살을 쏘시오.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날뛰며 트로이아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소. 훌륭한 사내들의 무릎을 숱하게 꺾어 놓았으니 말이오. 제물 때문에 트로이아인에게 노한 어떤 신이 아니라면 말이오. 신의 노여움은 사람에게 무겁게 내려앉는 법이오."

그러자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청동 갑옷을 입은 트로이아인들의 조언자인 아이네이아스여, 나는 그의 방패와 깃 장식 투구를 보고 그의 말들을 바라볼 때면, 그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티데우스의 아들과 같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가 신이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소.

만약 그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티데우스의 아들이라면, 그는 신의 도움 없이는 이토록 격렬하게 날뛰지 못할 것이오. 불멸의 신 중 한 분이 그의 곁에 서서 어깨를 구름으로 감싸고, 나의 날랜 화살이 명중하려는 순간 그를 비껴가게 하고 있소."

"나는 이미 그에게 화살을 쏘았고, 그의 갑옷 판을 뚫고 오른쪽 어깨를 정면으로 맞혔소. 나는 그를 아이도네우스에게 보내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소. 참으로 그는 분노한 어떤 신임이 분명하오.

내 곁에는 말도 없고 올라탈 전차도 없구려. 하지만 리카온의 궁전에는 새로 만들고 새로 꾸며 천을 덮어둔 아름다운 전차 열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아오. 그리고 전차마다 흰 보리와 스펠트 밀을 먹는 말들이 멍에를 차고 서 있겠지."

"그렇소. 내가 이곳으로 출발할 때, 늙은 창잡이 리카온이 우리의 잘 지어진 집에서 나에게 엄히 명령했소. 그는 나에게 말과 전차에 올라타서 트로이아인들을 이끌고 거대한 전투를 치르라고 말했소."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소. 사실 그랬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오! 나는 말들이 평소처럼 배불리 먹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질까 봐 말들을 아꼈소.

그래서 나는 말들을 남겨두고 내 활만을 믿으며 일리오스까지 걸어왔소. 하지만 내 생각에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소.

나는 이미 두 지도자, 즉 티데우스의 아들과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화살을 쏘아 그들을 제대로 맞혔고,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서 피를 흘리게 했소. 하지만 나는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을 뿐이었소.”

“그러므로 헥토르를 기쁘게 하려고 내 트로이아인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일리오스로 향하던 그날, 내가 말뚝에서 굽은 활을 집어 든 것은 불행한 일이었소.

만약 내가 돌아가서 나의 고향과 아내, 그리고 지붕이 높고 거대한 궁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내가 이 활을 내 손으로 부수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버리지 않을 시에는 어떤 이방인이 즉시 내 머리를 베어가도 좋소. 이 활은 바람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말이오.”

그러자 트로이아인의 지도자인 아이네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니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 둘이 말과 전차를 타고 저 자를 마주하여 무기를 들고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오.

자, 어서 내 전차에 올라타시오. 그러면 트로스의 말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대가 직접 볼 수 있을 것이오. 그 말들은 평원에서 추격할 때나 도망칠 때나 이곳저곳을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소. 만약 제우스께서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그 말 두 마리가 우리 둘을 도시까지 무사히 데려다줄 것이오.”

“그러니 자, 이제 그대가 채찍과 빛나는 고삐를 잡으시오. 그러면 내가 내려서 싸우겠소. 아니면 그대가 저 자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말들을 돌보겠소.”

그러자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이네이아스, 그대가 직접 고삐를 잡고 그대의 말들을 모시오. 만약 우리가 티데우스의 아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그 말들이 평소의 마부 아래에서 굽은 전차를 끄는 편이 더 나을 것이오.

말들이 겁을 먹고 날뛰다가, 그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우리를 전장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오. 그래서 마음이 넓은 티데우스의 아들이 우리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죽이고 통굽 말들을 몰아
달아나는 일도 없어야 하오.

그러니 그대가 직접 그대의 전차와 그대의 말들을 모시오.
나는 나의 날카로운 창으로 이 자의 공격을 맞서겠소."

그렇게 말한 뒤 그들은 상감된 전차에 올라타 날랜 말들을
몰아 티데우스의 아들을 향해 힘차게 돌진했다.

카파네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스테넬로스가 그들을 보고는
즉시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디오메데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내 마음의 소중한 이여.
그대에게 맞서 싸우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갖춘
용맹한 전사 둘이 보이는구려. 한 명은 활을 아주 잘 다루는
판다로스이며, 게다가 그는 스스로를 리카온의 아들이라
밝히고 있소. 반면에 아이네이아스는 스스로를 비길 데 없는
앙키세스의 아들이라 밝히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는
아프로디테라오."

“자, 전차를 타고 물러납시다. 제발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분노하지 마시오. 혹시라도 목숨을 잃을까 걱정되오.”

그러자 위대한 디오메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그에게 말했다.

“내게 도망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그대가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소. 비겁하게 싸우거나 움츠러드는 것은 내 혈통에 맞지 않소. 나의 힘은 여전히 확고하오. 나는 전차에 올라탈 마음이 없으며, 지금 모습 그대로 그들을 마주하러 갈 것이오. 내가 기가 죽는 것은 팔라스 아테나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저 둘에 관해서라면, 설령 둘 중 하나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의 날랜 말들이 다시는 우리에게서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에게 한 가지 더 말할 테니, 이를 명심하시오.

만약 지혜가 풍부한 아테나가 저 둘을 모두 죽이는 영광을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대는 여기서 이 날랜 말들을 붙잡고
고삐를 전차 테두리에 팽팽하게 묶어 두시오. 하지만 반드시
아이네이아스의 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트로이아인들로부터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쪽으로 몰아붙여야 하오."

"그 말들은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아들
가니메데스에 대한 보상으로 트로스에게 주신 혈통에서
태어난 것들이오. 그 말들은 새벽과 태양 아래 있는 모든 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말들이었소.

인간들의 왕 앙키세스는 이 혈통에서 말들을 훔쳐냈는데,
라오메돈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암말들을
그들에게 교배시켰소. 그리고 이 말들로부터 그의 궁전에서
여섯 마리의 혈통이 태어났소.

그중 네 마리는 그가 직접 마구간에서 길렀고, 적을
패주시키는 나머지 두 마리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주었소.
우리가 저 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될 것이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고는, 곧바로 날랜 말들을
몰며 저 다른 두 명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위엄 있는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용맹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여. 참으로 나의 날랜 화살, 그 쓰라린 화살이 그대를 굴복시키지는 못했구려. 이제 내가 그대를 맞힐 수 있다면, 나의 창으로 그대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겠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자세를 잡고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던졌고, 티데우스 아들의 방패를 강하게 쳤다. 그러자 청동 창끝이 방패를 곧장 꿰뚫고 갑옷에 닿았다.

그러자 리카온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그대는 배를 관통당했으니, 내 생각에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나에게 커다란 영광을 안겨 주었구려."

그러자 강력한 디오메데스는 두려움 기색 하나 없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빗나갔고 맞히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들 둘은, 어느 한쪽이 쓰러져 가죽 방패를 든 전사 아레스에게 피를 대접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창을 던졌다. 아테나가 창을 인도하여 그의 눈 옆 코를 꿰뚫게 했고, 창은 그의 하얀 치아를 관통했다.

고집스러운 청동 창날이 그의 혀 뿌리를 베어냈고, 창끝은 턱 밑으로 빠져나왔다. 그러자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밝게 빛나며 번쩍이는 그의 갑옷이 챙그랑거리며 그를 덮쳤다. 발빠른 말들은 옆으로 비켜갔으며, 그곳에서 그의 영혼과 힘은 다했다.

하지만 아이네이아스는 방패와 긴 창을 들고 뛰어내렸다. 그는 혹시라도 아카이아인들이 죽은 자를 자신에게서 끌어갈까 두려워하며 서둘렀다.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의 힘을 믿는 사자처럼 그 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시신을 가져가려는 자가 누구든 죽이겠다는 기세로, 사방의 균형이 잘 잡힌 방패와 창을 앞세운 채 무시무시한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티데우스의 아들은 손에 돌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지금의 필멸의 인간 둘이서도 들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으나, 그는 홀로서도 그것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는 그 돌로 아이네이아스의 엉덩이를 내리쳤다.
허벅지뼈가 엉덩이 관절 속에서 도는 곳, 사람들이 잔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돌은 그 잔을 으스러뜨렸고, 게다가 양쪽 힘줄을 모두 끊어 놓았으며, 들쭉날쭉한 돌은 살점을 찢어 놓았다.

그러자 전사는 무릎을 꿇고 그대로 쓰러졌으며, 튼튼한 손으로 땅을 짚고 버텼다.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

그때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재빨리 알아차리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의 왕 아이네이아스는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아프로디테는 소 떼를 돌보던 앙키세스와의 사이에서 그를 낳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하얀 팔을 뻗어 감싸 안았다.

또한 그녀는 아들을 위해 밝은 옷자락을 펼쳐 방패 삼아 막아 주었다. 혹시라도 빠른 말을 탄 다나오스인 중 누군가가 청동 창을 던져 그의 가슴을 꿰뚫고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전장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카파네우스의 아들은 전쟁의 함성 소리에 능한 디오메데스가 자신에게 내린 명령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통굽 말들을 혼란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뒤 고삐를 전차 테두리에 팽팽하게 묶어 두었다. 그러고는 갈기가 아름다운 아이네이아스의 말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 말들을 트로이아인들로부터 몰아내어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쪽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그 말들을 자신의 친한 동료인 데이필로스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데이필로스가 자신과 마음이 잘 맞았기에 젊은 시절의 모든 동료 중에서도 그를 가장 존중했다. 그는 데이필로스에게 그 말들을 속이 빈 배들로 몰고 가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그 전사는 자신의 전차에 올라타 빛나는 고삐를 잡고, 곧바로 튼튼한 발굽을 가진 말들을 몰아 티데우스의 아들을 간절히 찾아 나섰다.

그동안 그는 무자비한 청동 무기를 들고 키프리스를 뒤쫓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전사들의 전투를 지배하는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약한 여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테나도 아니었고, 도시를 파괴하는 에니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거대한 무리 속에서 그녀를 뒤쫓다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을 때, 위대한 영혼을 가진 티데우스의 아들이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어 여린 손의 겉살을 다치게 했다.

그의 창은 은총의 여신들이 그녀를 위해 직접 만든 신성한 옷을 뚫고, 손바닥 위 손목의 살을 찔렀다. 그러자 여신의 불멸의 피인 이코르가 흘러나왔으니, 이는 복된 신들에게 흐르는 것과 같았다. 신들은 빵을 먹지도 않고 붉게 빛나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기에 피가 없으며, 불멸자라 불리는 것이다.

그녀는 큰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떨어뜨렸고,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를 품에 안아 어두운 구름 속으로 데려가 구해주었다. 이는 날랜 말을 탄 다나오스인 중 누군가가 그의 가슴에 청동 창을 던져 목숨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함성에 능한 디오메데스가 그녀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제우스의 딸이여, 전쟁과 싸움에서 물러나라. 연약한 여인들이나 홀리면 그만이지 않으냐? 그래도 싸움판에 끼어든다면, 앞으로는 멀리서 싸움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떠나갔으며 몹시 괴로워했다. 바람처럼 빠른 발을 가진 이리스가 그녀를 데려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를 무리 밖으로 인도하니, 그녀의 아름다운 살결은 검게 변해 있었다.

곧이어 그녀는 전투의 왼편에 머물고 있는 분노한 아레스를 발견했다. 그의 창은 구름 위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날랜 말 두 마리가 가까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타게 빌며, 황금 장식이 달린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말들을 달라고 간청했다.

"사랑하는 오라버니여, 저를 구해주시고 오라버니의 말들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불멸의 존재들이 사는 올림포스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필멸의 인간인 티데우스의 아들이 제게 입힌 상처 때문에 제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제우스와도 싸우려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아레스는 황금 장식이 달린 자신의 말들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 전차에 올라탔고, 이리스가 그녀의 곁에 올라타 손에 고삐를 쥐었다. 그녀가 말들을 출발시키려고 채찍으로 건드리자, 두 마리의 말은 지체 없이 앞으로 달려 나갔다.

곧이어 그들은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에 도착했다.
바람처럼 빠른 이리스가 그곳에서 말들을 멈춰 세워
전차에서 풀어 주고 그들 앞에 신성한 음식을 던져 주었다.
한편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는 어머니 디오네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디오네는 딸을 품에 안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하늘의 신들 가운데 누가 너를 이토록 함부로 대했느냐? 마치 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못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웃음을 사랑하는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자 마음이 드높은 디오메데스가 저를 다치게 했습니다. 제 눈에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제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전투는 더 이상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사이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제 다나오스인들은 불멸의 신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신 디오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내 아이야, 용기를 내고 네 모든 고통을 견뎌내거라. 올림포스에 거처를 둔 우리 중 아주 많은 이들이, 서로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겪었단다.”

“아레스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단다. 알로오스의 아들들인 오토스와 강력한 에피알테스가 그를 잔인한 결박으로 묶었을 때, 그는 청동 항아리 속에 갇힌 채 열세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했지. 만약 알로오스 아들들의 아름다운 계모 에에리보이아가 헤르메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에 굶주린 아레스는 그대로 죽었을 게다. 헤르메스가 달려와서, 고통스러운 결박이 그를 짓눌러 몹시 괴로워하던 아레스를 몰래 빼내 주었단다.

헤라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지. 암피트리온의 강력한 아들이 세 갈래 화살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맞혔을 때, 그녀에게도 도저히 달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단다."

"괴물 같은 하데스도 다른 이들처럼 쓰라린 화살을 맞고 고통을 겪었단다. 바로 이 사람이,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아들이 필로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하데스를 쳐서 고통 속에 빠뜨렸을 때 말이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꿰뚫려 마음속에 슬픔을 안고 제우스의 집과 높은 올림포스로 향했다. 화살이 그의 강력한 어깨에 박혀 영혼을 괴롭혔기 때문이지.

그러나 파이에온이 그곳에 고통을 없애는 약초를 발라 그를 치료해 주었단다. 하데스는 참으로 필멸의 인간과는 달랐으니까."

"무모하고 난폭한 자였지. 제 악행을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을 화살로 괴롭혔으니 말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자를 보낸 것은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 여신이다. 어리석은 녀석! 티데우스의 아들은 마음속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불사신들과 싸우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가 전쟁과 무서운 싸움에서 돌아와도 아이들이 무릎에 매달려 아빠라고 재잘거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러니 이제 티데우스의 아들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너보다 더 강한 이가 그와 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드라스토스의 딸, 사려 깊은 아이기알레이아가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남편을 그리며 밤새 통곡하여 온 집안 사람들을 잠에서 깨우게 될 것이다. 말을 길들이는 디오메데스의 위엄 있는 아내 말이다."

그녀가 말하며 양손으로 팔에 묻은 이코르를 닦아냈다. 팔은 회복되었고 극심한 통증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아테나와 헤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를 조롱하는 말로 화나게 하려 했다.

그들 중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가장 먼저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제가 드릴 말씀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노하시겠습니까?"

"분명 키프리스께서 지금 그녀가 그토록 경이롭게 사랑하는 트로이아인들을 따라가도록 아카이아의 여인 중 누군가를 부추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고운 옷을 입은 아카이아 여인 중 한 명을 쓰다듬으며, 그 여인의 황금 브로치 위에 가냘픈 손으로 손톱자국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황금빛 아프로디테를 부르며 말했다.

“내 아이야, 너에게는 전쟁의 과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니, 너는 아름다운 혼인의 과업을 따르거라. 이 모든 일은 날랜 아레스와 아테나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전쟁의 함성을 잘 내지르는 디오메데스는 아폴론이 몸소 그의 위로 팔을 뻗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이네이아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위대한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아이네이아스를 죽이고 그의 영광스러운 갑옷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네이아스를 죽이고 싶어 맹렬히 세 번이나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아폴론은 세 번 모두 그의 빛나는 방패를 쳐서 막아냈다.

그러나 네 번째로 그가 신처럼 아이네이아스에게 돌진했을 때, 멀리서 일을 이루는 아폴론이 무시무시한 외침과 함께 그에게 말했다.

“생각해 보아라, 티데우스의 아들아. 물러나라. 신들과 맞먹으려 들지 마라. 불사의 신들과 땅 위를 걷는 인간은 결코 같은 족속이 아니다.”

아폴론이 이렇게 말하자 티데우스의 아들은 멀리 쏘는
아폴론의 노여움을 피해 조금 뒤로 물러났다.

아폴론은 아이네이아스를 무리에서 빼내어, 자신의 신전이
서 있는 신성한 페르가모스에 데려다 두었다.

그곳의 거대한 성소에서 레토와 궁수 아르테미스가 그를
치료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었다.

하지만 은빛 활을 든 아폴론은 아이네이아스의 모습과
똑같고 그의 갑옷과 흡사한 갑옷을 입은 환영을 만들어 냈다.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아카이아인들은 그 환영을 향해
서로의 가슴에 황소 가죽 방패와 둥근 방패, 그리고 펄럭이는
표적 방패를 내리쳤다.

그러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분노한 아레스에게 말했다.

“아레스, 아레스여, 인간의 재앙이요 피에 젖은 성벽
파괴자여. 그대는 이제 전투에 개입하여 이 사람, 즉 제우스
아버지를 상대로까지 싸우려는 이 티데우스의 아들을 저
전투에서 끌어내지 않겠소? 그는 먼저 키프리스를
근접전에서 손목 부위로 상처 입혔고, 그 후에는 신처럼 나
자신에게 달려들었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페르가모스의 높은 곳에 스스로 앉았다.

재앙을 부르는 아레스는 트라키아인의 지도자인 날랜 아카마스의 모습으로 변하여 트로이아인들의 진영에 들어가 그들을 독려했다. 그는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은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을 부르며 말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이여,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은 왕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의 군대가 아카이아인들에게 도륙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셈이오? 적들이 우리의 잘 지어진 성문 앞에서 싸울 때까지 기다리겠소? 우리가 훌륭한 헥토르만큼 떠받들던 이, 기개 높은 앙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가 쓰러져 있소."

"아니, 어서 오시오. 전투의 소음 속에서 우리의 고귀한 전우를 구합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기개를 북돋웠다.

사르페돈도 훌륭한 헥토르를 엄하게 꾸짖었다.

"헥토르여, 예전에 그대가 지녔던 힘은 다 어디로 갔소?
그대는 군대도 동맹군도 없이 매부들과 형제들만 데리고
혼자서 도시를 지키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구려. 사자 앞의 개들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오. 싸우는 것은 우리요, 그대들 사이에서
동맹군에 지나지 않는 우리란 말이오."

"동맹군에 지나지 않는 나는 아주 먼 곳에서 왔소.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 강이 흐르는 리키아는 멀리 있소.
나는 그곳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가난한
자라면 누구나 탐낼 많은 재산을 두고 왔소.

그래도 나는 리키아인들을 독려하고, 나 자신도 적과 맞서
싸우려 하오. 이곳에는 아카이아인들이 빼앗아 가거나 몰고
갈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오. 그런데 그대는 그저 서
있을 뿐, 군사들에게 버티고 서서 아내들을 지키라고
독려하지도 않는구려."

"그대와 그들의 군대가 마치 모든 것을 옭아매는 아마 그물에
걸린 것처럼, 적들의 먹잇감과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러면 적들은 곧 그대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오.

밤이나 낮이나 이 모든 일은 그대가 걱정해야 하오. 그대는 그대의 이름 높은 동맹군 대장들에게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라고 간청하여 그대에게 쏟아지는 거센 질책을 피해야 하오."

사르페돈이 그렇게 말하자, 그의 말은 헥토르의 심장을 찔렀다.

헥토르는 즉시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두 자루의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군대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싸우라고 재촉했고, 무시무시한 전투의 소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그렇게 전열을 가다듬고 아카이아인들을 향해 얼굴을 마주하며 자리를 잡았다. 아르고스인들은 빽빽한 무리를 지어 그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며 도망치지 않았다.

전투가 다시 시작되고 전차 몰이꾼들이 방향을 틀자, 전사들 사이에서 말들의 발굽이 쳐올린 먼지 구름이 청동 하늘까지 솟구쳤다.

마치 머리칼이 고운 데메테르가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곡식과 겨를 분리할 때, 키질하는 사람들의 신성한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겨를 사방으로 날려 보내고 겨 더미가
하얗게 변하는 것처럼, 아카이아인들의 머리와 어깨 위로도
먼지가 하얗게 뒤덮였다.

그들은 손의 힘을 곧게 앞으로 내뻗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마다 사나운 아레스가 트로이아인을 돕기 위해 밤의
장막을 드리우며 사방을 누볐다.

그는 황금 검을 든 포이보스 아폴론의 명령을 완수했다.
아폴론은 팔라스 아테나가 떠난 것을 볼 때마다
트로이아인들의 기운을 북돋우라고 아레스에게 명했다.
아테나가 다나오스인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폴론은 풍요로운 성소에서 아이네이아스를 내보냈고,
백성의 목자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전우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전우들은
그가 살아 있는 모습으로, 다치지 않은 채 용맹한 용기를 품고
합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네이아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른 종류의 고된 일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빛 활을 든 자가 일으키는 일과 필멸의 인간들에게 재앙인
아레스, 그리고 끊임없이 날뛰는 불화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 그리고
디오메데스가 다나오스인들을 독려하여 싸우게 했다.

하지만 다나오스인들은 트로이아인들의 폭력과 공격
앞에서도 스스로 겁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그림자 같은 구름을 이리저리 흩뿌리는
다른 사나운 바람들과 북풍의 힘이 잠든 고요한 날씨에,
크로노스의 아들이 산꼭대기에 움직임 없이 내려놓는
안개처럼 자리를 지켰다.

이와 같이 다나오스인들은 트로이아인들에게 꿋꿋이
맞섰으며, 도망치지 않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수많은 명령을 내리며 무리 사이를
누볐다.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용맹한 마음을 품고, 치열한 싸움에서 서로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 가운데에는 죽는 이보다 사는 이가 많으나, 도망치는 자들에게서는 영광도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소."

그는 말을 마치고 창을 빠르게 던져 선두에 선 전사, 즉 용맹한 아이네이아스의 동료이자 페르가소스의 아들인 데이코온을 찔렀다. 트로이아인들은 그가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웠기에 그를 프리아모스의 아들들만큼이나 존경했다.

아가멤논 왕은 그의 방패를 향해 창을 내질렀다. 창은 멈추지 않고 청동을 그대로 관통하여 허리띠를 지나 하복부까지 뚫고 들어갔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가 입은 갑옷이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 나서 아이네이아스는 다나오스인의 용사 둘을 죽였다. 그들은 디오클레스의 아들들인 크레톤과 오르실로코스였다.

그들의 아버지는 잘 지어진 도시 페라이에 살았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필로스인의 땅을 넓은 줄기로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에서 태어난 혈통이었으며, 그 강은 많은 사람의 왕이 될 오르실로코스를 낳았다.

오르실로코스는 용맹한 디오클레스를 낳았고,
디오클레스에게는 모든 종류의 전투에 능숙한 쌍둥이 아들
크레톤과 오르실로코스가 태어났다.

이제 그 쌍둥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를 위해 보답을 얻고자
아르고스인들을 따라 검은 배를 타고 말이 유명한
일리오스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스스로 죽음의 운명을 맞이했다.

산꼭대기에서 어미가 깊은 숲의 덤불 속에 키워낸 두 마리
사자처럼, 그 둘은 소와 훌륭한 양들을 낚아채고 사람들의
농가를 황폐하게 만들다가, 결국 날카로운 청동을 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이 쌍둥이 또한 아이네이아스의 손에 패배하여, 마치 높이
솟은 전나무처럼 쓰러졌다.

하지만 그들이 쓰러질 때,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는 불타는 청동 갑옷을 입고 창을
휘두르며 앞장선 전사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아레스가 그의 기운을 돋운 것은 그가 아이네이아스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마음 넓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는 그를 보고 앞장선 전사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는 백성의 목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들이 공들여 해온 일을 완전히 망쳐버릴까 봐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맞서 싸우고자 날카로운 창을 내밀며 손을 뻗고 있을 때, 안틸로코스가 백성의 목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아이네이아스는 날랜 전사였지만, 두 사람이 나란히 버티고 선 것을 보자 맞서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아카이아인 군대 쪽으로 끌고 간 뒤, 불행한 그 두 사람을 동료들의 품에 뉘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시 돌아가 선두에서 싸웠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아레스와 맞먹는, 마음 넓은 파플라고니아 방패병들의 지도자인 필라이메네스를 죽였다.

그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창으로 이름을 떨친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그의 쇄골을 창으로 찔러 쓰러뜨렸다.

안틸로코스는 그의 종이자 마부이며 아팀니오스의 선량한 아들인 미돈이 통굽 말을 돌리고 있을 때, 그를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은 미돈의 팔꿈치를 정면으로 강타했고, 상아처럼 하얀 고삐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먼지 속 땅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러자 안틸로코스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칼을 미돈의 관자놀이에 박아 넣었다. 미돈은 숨을 헐떡이며 잘 만들어진 전차에서 튕겨 나가 머리와 어깨부터 먼지 속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깊은 모래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으나, 결국 말이 그를 발로 차는 바람에 먼지투성이 땅 위로 쓰러졌다.

안틸로코스는 말들을 채찍질하여 아카이아인들의 군대를 향해 몰아붙였다.

하지만 헥토르는 진열된 대열 너머로 그들을 포착하고는, 크게 소리치며 그들에게 돌진했다. 트로이아인들의 강력한 부대들이 그를 뒤따랐다.

아레스와 여신 에니오가 그들을 이끌었다. 에니오는 무자비한 싸움의 소란을 몰고 왔다. 아레스는 거대한 창을 손에 휘두르며, 때로는 헥토르의 앞에, 때로는 헥토르의 뒤에 서서 누볐다.

그를 보자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몸을 떨었다.

마치 넓은 평원을 지나던 사람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센 강물을 보고는, 거품이 이는 강물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았다. 티데우스의 아들도 그와 같이 뒤로 물러나며 군대에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어찌 훌륭한 헥토르를 보며 그를 창잡이요 용맹한 전사라고 생각하며 늘 경탄해 왔는지 보시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파멸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있었소. 지금 아레스가 필멸의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이오."

"하지만 트로이아인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시오. 신들과 격렬하게 싸우려 들지도 마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트로이아인들이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때 헥토르가 한 전차에 타고 있던 싸움에 능숙한 두 전사, 메네스테스와 안키알로스를 죽였다.

그들이 쓰러지자 위대한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그들을 가엽게 여겨 가까이 다가와 섰다. 그리고 아이아스는 빛나는 창을 던져 파이소스에 살며 재산도 곡식밭도 많던 셀라고스의 아들 암피오스를 쳤다. 하지만 운명은 그가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들을 돕도록 이끌었다.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그를 허리띠 부근에 찔렀고, 멀리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이 아랫배에 박히자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러자 영광스러운 아이아스가 그의 갑옷을 벗기기 위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트로이아인들이 날카롭고 번뜩이는 창들을 그에게 퍼부었고, 그의 방패가 그중 많은 창을 막아냈다.

하지만 아이아스는 시체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청동 창을 뽑아냈다. 그럼에도 그는 쏟아지는 화살들에 심하게 압박을 당했기에, 그의 어깨에 있는 아름다운 갑옷의 나머지 부분을 벗겨내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는 위엄 있는 트로이아인들의 강력한 방어력을 두려워했다. 수많은 용맹한 트로이아인들이 손에 창을 들고 그를 에워쌌다.

그는 매우 키가 크고 강력하며 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밀려났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렸다.

그리하여 이들은 거대한 전투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용맹하고 키가 큰 헤라클레스의 아들 틀레폴레모스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이끌려 신과 같은 사르페돈과 맞서게 되었다.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의 아들과 손자가 서로를 향해 전진하며 가까워졌을 때, 틀레폴레모스가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리키아인의 조언자인 사르페돈이여, 전투에도 서툰 자가 어찌하여 여기서 숨어 있는 것이오?”

“그대가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오. 그대는 옛날 인간들이 살던 시절에 제우스의 혈통에서 태어난 전사들에 비하면 훨씬 못하기 때문이오.

사람들은 내 아버지인 위대한 헤라클레스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하오. 그는 전투에 용맹하고 사자 같은 심장을 지닌 분이었소. 그는 언젠가 라오메돈의 암말들 때문에 단 여섯 척의 배와 그보다 더 적은 군사만을 이끌고 이곳에 왔으나, 일리오스의 도시를 함락시키고 그 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소.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겁쟁이의 것이며, 그대의 백성들은 줄어들고 있구려."

"그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리키아에서 왔다는 사실이 트로이아 사람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오. 그대는 반드시 내 손에 패배하여 하데스의 문을 지나게 될 것이오."

그러자 리키아인의 대장인 사르페돈이 그에게 대답했다.

"틀레폴레모스여, 그대의 아버지는 고귀한 사람인 라오메돈의 어리석음 때문에 신성한 일리오스를 파괴했소. 라오메돈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거친 말로 꾸짖었으며, 그가 멀리서 온 이유였던 암말들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대에게는, 죽음과 검은 운명이 내 손에 의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오. 그대는 내 창 아래 패배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대의 영혼은 훌륭한 말들을 거느린 하데스에게로 가게 될 것이오."

사르페돈이 그렇게 말하자, 틀레폴레모스는 물푸레나무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두 사람의 손에서 긴 창들이 동시에 날아갔다.

사르페돈이 틀레폴레모스의 목을 정면으로 찔렀고,
고통스러운 창끝이 그대로 관통했다. 그러자 밤의 어둠이
그의 눈 위로 내려앉아 그를 감싸 안았다.

틀레폴레모스도 긴 창으로 사르페돈의 왼쪽 허벅지를
찔렀다. 창끝이 맹렬하게 뚫고 들어가 뼈를 스쳤으나, 그의
아버지가 아직 그를 파멸로부터 지켜주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훌륭한 동료들이 신과 같은 사르페돈을 싸움터
밖으로 메고 나갔다. 끌려가는 긴 창이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허벅지에서 물푸레나무
창을 뽑아 줄 생각을 서두르는 통에 아무도 하지 못했다. 그를
돌보느라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
틀레폴레모스를 싸움터 밖으로 메고 나갔다. 인내심 강한
오디세우스는 그 광경을 알아차렸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마음과 영혼으로 고민했다. 천둥을 크게 울리는
제우스의 아들을 계속 뒤쫓아야 할지, 아니면 차라리 더 많은
리키아인의 목숨을 앗아야 할지를 말이다.

하지만 마음이 드높은 오디세우스가 날카로운 청동으로
용맹한 제우스의 아들을 죽이도록 운명 지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테나는 그의 마음을 리키아인 군대를 향하도록
돌려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코이라노스와 알라스토르와 크로미오스와
알칸드로스와 할리오스와 노에몬과 프리타니스를 죽였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리키아인을 더 많이 죽이고 싶었으나,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이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헥토르는 타오르는 청동 갑옷을 입고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들 사이를 성큼성큼 지나가며 다나오스인들에게 공포를
몰고 왔다.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은 그의 등장을 반기며 그에게
애처로운 말을 건넸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여, 내가 다나오스인들의 먹잇감이
되어 여기 쓰러지게 두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오. 그 후에
필요하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기쁘게 하러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바에야, 그대의 도시에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오.”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르고스인들을 재빨리 물리치고 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서둘러 지나갔다.

그러자 그의 훌륭한 동료들이 신과 같은 사르페돈을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아름다운 참나무 아래에 앉혔다. 그의 친한 동료였던 용맹한 펠라곤은 물푸레나무 창을 그의 허벅지에서 뽑아냈다. 사르페돈은 기운을 잃었고 그의 눈 위로 안개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다. 북풍이 그에게 불어오자, 비통한 방식으로 숨을 거두었던 그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

아르고스인들은 아레스와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의 공격 앞에 검은 배를 향해 돌아서 달아나지도, 맞서 버티지도 못했다. 아레스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그저 계속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청동의 아레스에게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누구이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는 누구였는가?

신과 같은 테우트라스였고, 그 뒤를 이어 말들을 모는 오레스테스, 아이톨리아의 창잡이 트레코스, 오이노마오스, 오이노포스의 아들 헬레노스, 그리고 번쩍이는 허리 가리개를 찬 오레스비오스였다.

오레스비오스는 케피소스 호수 접경의 힐레에 살며 자신의 재산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매우 풍요로운 땅을 가진 다른 보이오티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격렬한 전투 속에서 아레스가 아르고스인들을 유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즉시 아테나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이여, 지치지 않는 자여, 이게 무슨 일이냐! 저 해로운 아레스가 이렇게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성벽이 튼튼한 일리오스를 함락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우리가 메넬라오스에게 한 약속은 헛일이 되고 만다. 자, 우리 둘도 사나운 용기를 떠올려 보자."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도 그 말을 듣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자 위엄 있는 여신이자 위대한 크로노스의 딸인 헤라는 오가며 황금 이마 장식을 단 말들에게 마구를 채웠다.

헤베는 철로 된 차축을 중심으로 여덟 개의 바퀴살이 있는 청동제 곡선 바퀴를 전차 양옆에 재빨리 달았다. 이 바퀴의 테는 참으로 불멸하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청동 테가 끼워져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바퀴의 중심부는 은으로 되어 이리저리 회전하였고, 차체는 금과 은으로 된 끈으로 단단히 엮여 있었으며, 그 주위를 둘러싼 두 개의 테가 있었다.

차체에서는 은으로 된 기둥이 솟아 있었고, 헤베는 그 끝에 아름다운 황금 멍에를 묶고 그 위에 아름다운 황금 가슴끈을 채웠다. 헤라는 멍에 아래로 발 빠른 말들을 몰며 싸움과 함성을 갈망했다.

하지만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자신이 직접 만들고 손수 빚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부드러운 옷을 아버지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의 튜닉을 입고, 눈물 어린 전쟁을 위한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아테나는 공포로 가득 찬, 술이 달린 아이기스를 어깨에 걸쳤다. 그 아이기스에는 패주가 왕관처럼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불화의 여신과 용맹, 그리고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습격이 있었다. 또한 그 안에는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징조인, 두렵고 무시무시한 괴물 고르고의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아테나는 머리에 두 개의 뿔과 네 개의 돌기가 달린 황금 투구를 썼으며, 그 투구에는 백 개의 도시에서 온 무사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불타는 전차에 올라타 무겁고 거대하며 강력한 창을 움켜쥐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딸인 아테나는 그 창으로 자신이 분노한 전사들의 대열을 정복한다.

헤라는 채찍으로 말들을 빠르게 몰았다. 그러자 계절의 여신들이 지키고 있는, 거대한 하늘과 올림포스를 맡아 두꺼운 구름을 열거나 닫는 하늘의 문들이 스스로 신음하며 움직였다.

그들은 채찍질을 견뎌내는 말들을 몰아 그 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산등성이가 있는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다른 신들과 떨어져 앉아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을 발견했다.

그러자 흰 팔의 여신 헤라는 말들을 멈추고, 크로노스의 아들인 가장 높은 제우스에게 질문하며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아레스가 이토록 난폭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아카이아인의 이토록 크고 훌륭한 군대를 아무런 예의도 없이 무모하게 파괴하여 저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키프리스와 은빛 활의 아폴론은 법도 모르는 이 미치광이를 부추겨 놓고 느긋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우스여, 만약 제가 아레스를 비참한 모습으로 때려눕히고 전투에서 쫓아낸다면, 저에게 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자, 약탈을 이끄는 아테나를 그에게 보내시오. 아테나는 누구보다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곤 했으니 말이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흰 팔의 헤라 여신도 빠짐없이 그 말을 듣고는 채찍으로 자신의 말들을 건드렸다. 그러자 두 마리의 말은 지체 없이 땅과 별이 빛나는 하늘 사이를 날아갔다.

사람이 높은 곳에 앉아 포도주빛 바다를 바라보며 아스라한 먼 안개 속을 눈으로 보는 만큼이나, 울음소리를 높이는 신들의 말들은 힘차게 도약하며 달려갔다.

하지만 그들이 트로이아의 땅과 시모이스강과 스카만드로스강이 합류하는 두 줄기 흐르는 강에 이르렀을 때, 흰 팔의 헤라 여신은 말들을 멈추고 전차에서 말들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짙은 안개를 뿌렸다.

시모이스 강은 말들이 뜯어 먹도록 암브로시아를 솟아나게 했다. 그러자 두 여신은 아르고스의 전사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마치 겁먹은 비둘기 같은 발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가장 많고 용맹한 자들이 말을 길들이는 자인 위대한 디오메데스 주위에 굶주린 사자나 멧돼지처럼 빽빽하게 몰려서 있었는데, 그들의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곳에 흰 팔의 헤라 여신이 서서, 목소리가 다른 쉰 명의 사람과 맞먹는 청동 목소리를 가진 마음이 드높은 스텐토르처럼 소리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르고스인들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못난 자들아!”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서곤 하던 시절에는,
트로이아인들이 다르다니아의 성문 앞까지조차 감히 나오지
못했었지. 그들은 아킬레우스의 강력한 창을
두려워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속이 빈 배들 근처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는 모든 이의 힘과 기운을 북돋웠다.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티데우스의 아들 곁으로
뛰어갔다. 아테나는 그 왕자가 자신의 말과 전차 옆에서
판다로스가 화살로 입힌 상처를 식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둥근 방패의 넓은 어깨끈 아래로 흐르는 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그 땀 때문에 괴로워하며 팔이
피로해지자, 어깨끈을 들어 올려 검은 피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러자 여신이 그의 말들의 멍에를 붙잡으며 말했다.

"참으로 티데우스가 낳은 아들은 그 아버지와는 아주 딴판이구나. 티데우스는 체구는 작았으나 용맹한 전사였다. 내가 그가 싸우거나 용맹을 떨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던 때조차 있었다. 그가 아카이아인 동료도 없이 홀로 사절이 되어 테바이로 와서 수많은 카드메이아인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가 그들의 궁전에서 평화롭게 연회를 즐기도록 명했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용맹한 정신으로 카드메이아의 젊은이들에게 도전하여 모든 면에서 아주 쉽게 그들을 물리쳤으니, 그때 나 또한 그의 조력자였다."

"하지만 그대에 관해서라면, 나는 참으로 그대 곁에 서서 그대를 지키고 있으며, 기꺼운 마음으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라고 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의 수많은 돌격으로 인한 피로가 그대의 사지에 스며든 것이냐, 아니면 혹시 기운 없는 공포가 그대를 사로잡은 것이냐? 그렇다면 그대는 오이네우스의 지혜로운 아들인 티데우스의 자손이 아니로구나."

그러자 위대한 디오메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따님이시여,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을 숨김없이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 빠진 두려움도 게으름도 저를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당신께서 내리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다른 복된 신들과 맞서 싸우지 말되,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싸움에 끼어들거든 날카로운 청동으로 그녀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스스로 물러나 있고, 다른
아르고스인들에게도 모두 이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레스가 싸움터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야, 내 마음에 드는 자야.
그렇다고 아레스도, 다른 어떤 불사신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를 돕고 있지 않으냐. 자, 먼저 아레스에게
통굽 말들을 몰아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날뛰는 아레스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온통 재앙덩어리이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자다. 방금 나와 헤라에게 트로이아인과 싸우고
아르고스인을 돕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은 트로이아인 편에
서서 그 말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며 여신은 손으로 스테넬로스를 뒤로 끌어당겨 전차에서 땅으로 밀어냈고, 그는 재빨리 뛰어내렸다. 전투를 갈망하는 여신은 훌륭한 디오메데스 곁의 전차 위로 올라탔다.

무거운 짐을 실은 전차의 참나무 축이 크게 삐걱거렸으니, 그 위에는 두려운 여신과 비길 데 없는 전사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팔라스 아테나가 채찍과 고삐를 잡았고, 통굽 말들을 몰아 먼저 아레스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아레스는 아이톨리아인 가운데 단연 으뜸인 오케시오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거구의 페리파스에게서 갑옷을 벗기고 있었다.

피에 젖은 아레스가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있었다. 하지만 아테나는 강력한 아레스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데스의 투구를 썼다.

필멸의 인간들에게 재앙인 아레스가 훌륭한 디오메데스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거구의 페리파스를 자기가 처음 그를 죽여 쓰러뜨린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말을 길들이는 자인 디오메데스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며 가까워졌을 때, 아레스가 먼저 상대의 목숨을 앗으려고 말의 멍에와 고삐 너머로 청동 창을 내질렀다.

그러자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그 창을 손으로 낚아채어, 창이 헛되이 날아가도록 전차 위로 밀어 올렸다.

이어 전쟁의 함성에 능한 디오메데스가 청동 창으로 아레스를 향해 돌진했고, 팔라스 아테나는 그 창을 아레스의 허리띠가 매여 있는 아랫배를 향해 강력하게 날렸다.

디오메데스는 그곳에서 창을 찔러 넣어 아레스의 고운 살점을 찢으며 그를 내리쳤고, 다시 창을 뽑아냈다.

그러자 청동의 아레스가, 마치 구천 명 혹은 만 명의 전사가 전쟁의 신이 벌이는 싸움에 뛰어들어 외치는 것처럼 크게 포효했다.

그 포효에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 모두가 떨었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전쟁에 굶주린 아레스가 그토록 강력하게 포효했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지나고 거센 바람이 일 때 구름 사이로 검은 어둠이 나타나는 것처럼, 청동의 아레스가 넓은 하늘을 향해 구름 사이로 나아갈 때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났다.

그는 신들의 거처인 올림포스로 빠르게 달려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곁에 앉았다. 그는 마음속에 슬픔을 품은 채 상처에서 흐르는 불멸의 피를 보여주며, 울부짖는 날개 돋친 말로 제우스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이 폭력적인 행위들을 보고도 분노가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신들은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마다 서로의 계략 때문에 끊임없이 가장 잔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과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 미치고 해로운 처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불법적인 행위만을 갈구합니다.

올림포스에 있는 다른 모든 신은 당신에게 순종하며 우리 각자는 당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 재앙 같은 처녀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부추기기만 하십니다. 저 재앙 같은 처녀가 당신의 친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티데우스의 아들, 마음 높은 디오메데스가 불멸의 신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는 근접전 중에 키프리스를 먼저 찔러 손목을 상하게 했고, 그 후에는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양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제 빠른 발이 저를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저 끔찍한 시체 더미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거나, 창에 맞은 탓에 기력을 잃은 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말했다.

"배신자여, 내 곁에 앉아 결코 징징거리지 마라. 올림포스를 차지한 모든 신들 중에서 네가 내게 가장 가증스럽구나. 너는 언제나 다툼과 전쟁과 싸움을 즐기는구나.

너는 네 어머니인 헤라의 참을 수 없고 굽히지 않는 정신을 물려받았다. 나는 그녀의 말조차 거의 통제할 수 없단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네가 이토록 고통을 겪는 것은 그녀의 부추김 때문인 것 같구나."

“하지만 네가 고통을 겪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구나. 너는 내 자식이며, 네 어머니가 나에게 너를 낳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다른 신에게서 태어나 지금처럼 해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너는 진작에 하늘의 아들들보다 더 깊은 땅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제우스가 말을 마치고 파이에온에게 그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명령했다. 파이에온은 그 위에 통증을 없애는 약초들을 펴 발라 그를 치료했다. 참으로 그는 필멸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무화과즙이 액체 상태인 흰 우유를 빠르게 걸쭉하게 만들고, 사람이 그것을 저으면 금방 응고되는 것처럼, 사나운 아레스의 상처도 그토록 빠르게 치유되었다.

헤베가 그를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며, 그는 자신의 영광에 도취한 채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곁에 앉았다.

필멸의 인간들에게 재앙인 아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짓을 멈추게 하자, 아르고스의 헤라와 알랄코메네의 아테나는 다시 위대한 제우스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제6권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그리하여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사이의 무서운 다툼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었고, 시모이스 강과 크산토스 강 사이의 평원에서 그들이 서로를 향해 청동 날을 단 창을 겨누며 전투는 이쪽저쪽으로 자주 휘몰아쳤다.

아카이아인의 방벽인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가장 먼저 트로이아인 대열을 무너뜨려 동료들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트라키아인들 중 으뜸가는 자이자 용맹하고 키가 큰 에우소로스의 아들 아카마스를 쳐죽였다.

아이아스는 먼저 말총 장식이 두툼한 아카마스의 투구 돌기를 쳤고, 그의 이마에 창을 박아 넣어 청동 끝이 뼈 속까지 뚫고 들어가게 했다. 그리하여 아카마스의 눈에는 어둠이 드리워졌다.

전투 함성을 잘 내지르는 디오메데스는 잘 지어진
아리스베에 살며 재산이 많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던
테우트라스의 아들 악실로스를 죽였다.

그는 큰길가에 집을 짓고 살며 모든 이에게 대접하기를 즐겨
하던 자였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날은 적의 면전에서 맞서 싸우며
비참한 파멸을 막아내지 못했다.

디오메데스는 악실로스와, 그때 그의 전차를 몰던 시종
칼레시오스,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았다. 그리하여 그 둘은 지하
세계로 떠났다.

그 후 에우리알로스는 드레소스와 오펠티오스를 죽였고,
예전에 샘의 님프 아바르바레아가 비길 데 없는
부콜리온에게 낳아 주었던 아이세포스와 페다소스를 뒤따라
죽였다.

부콜리온은 위엄 있는 라오메돈의 맏아들이었으나, 그를
낳은 어머니는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
부콜리온은 양 떼를 치다가 그 님프와 사랑을 나누었고,
님프는 쌍둥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다.

메키스테우스의 아들은 그 두 쌍둥이의 힘과 빛나는
팔다리를 풀어 버리고 어깨에서 갑옷을 벗겼다.

싸움에 굳센 폴리포이테스는 아스티알로스를 죽였고,
오디세우스는 청동 창으로 페르코테의 피디테스를
쓰러뜨렸으며, 테우크로스는 훌륭한 아레타온을 죽였다.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는 빛나는 창으로 아블레로스를
죽였고,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아름답게 흐르는
사트니오에이스 강가, 가파른 페다소스에 사는 엘라토스를
죽였다.

전사 레이토스는 도망치는 필라코스를 죽였으며,
에우리필로스는 멜란티오스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가 아드라스토스를
생포했다. 아드라스토스의 말 두 마리가 공포에 질려 평원을
질주하다가 타마리스크 나뭇가지에 엉켰기 때문이었다.

말들은 끌채 끝에서 굽은 전차를 부러뜨리고는, 나머지
병사들이 패주하여 도망치던 그 도시를 향해 계속 달려갔다.
그러나 주인인 아드라스토스는 바퀴 옆에서 전차 밖으로
굴러떨어져 먼지 속에 얼굴을 처박았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들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아드라스토스는 메넬라오스의 무릎을 붙잡고
간청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를 사로잡아 가고 걸맞은 몸값을
받으시오. 나의 부유한 아버지는 궁전에 수많은 보물을 쌓아
두셨소. 고된 노동으로 만든 청동과 금과 철이 가득하오. 만약
내가 아카이아인들의 배가 있는 곳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아버지는 그대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주실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 애썼다.

메넬라오스는 아드라스토스를 자신의 종에게 넘겨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때 아가멤논이 그를 맞이하러 달려와 꾸짖는 말을 했다.

"마음 약한 메넬라오스야, 어찌 저런 자들을 그토록
아끼느냐? 트로이아인들이 네 집에서 그렇게 큰 은혜라도
베풀었더냐? 그들 가운데 단 하나도 철저한 파멸과 우리 손을
피하게 하지 마라. 어미 배 속에 든 사내아이조차 살려 두지
마라. 일리오스 사람들은 모두 함께 죽어 없어지게 하라.
슬퍼해 줄 이도 흔적도 남지 않게."

전사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조언이 옳았기에 형제의 마음이
돌려졌다.

메넬라오스는 손으로 아드라스토스를 밀쳐냈고, 아가멤논
왕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가 뒤로 넘어지게 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아드라스토스의 가슴에 발을 올리고
물푸레나무 창을 뽑아냈다.

그러자 네스토르가 크게 소리쳐 아르고스인들을 불렀다.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인 전사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지금은 전리품에 눈이 팔려 남보다 많이 챙겨 배로
가져가려고 뒤처지는 자가 없게 하시오. 먼저 적들을
죽입시다. 그런 다음에 평원에 쓰러진 시신들에게서
느긋하게 갑옷을 벗기시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모든 이의 힘과 기운을 북돋웠다.

만약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자 가장 뛰어난 점술가인 헬레노스가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에게 다가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레스가 아끼는 아카이아인들에 의해 트로이아인들은 약해진 채 패배하여 다시 일리오스까지 쫓겨갔을 것이다.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여, 모든 일에 있어 전쟁과 계책 모두에서 그대들이 가장 뛰어나기에, 트로이아인과 리키아인의 전쟁 노고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대들에게 달려 있음을 보시오. 그러니 그대들이 자리를 지키며 군대 사이사이를 누비고, 적들이 도망치며 여인들의 품으로 뛰어들어 적들의 기쁨이 되기 전에 성문 앞에서 그들을 저지하시오."

"하지만 그대들이 우리의 모든 대열을 북돋운다면, 우리는 비록 몹시 지쳤을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진실로 이곳에 머물며 다나오스인들에 맞서 싸우겠소.

그러니 헥토르, 그대는 도시로 가서 그대의 어머니이자 나의 어머니인 분께 말씀드리시오. 어머니께서 성채에 있는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나이 든 아내들을 모으게 하시오. 그리고 어머니께서 열쇠로 성스러운 집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전당에서 가장 아름답고 넉넉해 보이며 어머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옷을 꺼내어, 그것을 머리칼이 고운 아테나의 무릎 위에 놓게 하시오.

또한 어머니께서 만약 이 도시와 트로이아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가엽게 여겨 주신다면, 아테나의 신전에서 회초리를 맞아 본 적 없는 윤기 나는 어린 암소 열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게 하시오. 이는 사나운 창잡이요 적을 패주시키는 힘센 자, 내가 보기에 진실로 아카이아인들 중 가장 강한 자임이 증명된 티데우스의 아들이 신성한 일리오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오."

"우리는 여신에게서 태어났다고들 말하는 저 영웅, 아킬레우스조차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한 적이 없었소. 아니, 이 자는 도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와 힘을 겨룰 수 없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아우의 말을 조금도 거역하지 않았다.

곧바로 그는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고, 두 자루의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군대 곳곳을 누비며 싸우라고 독려했다. 그리하여 그는 전투의 무시무시한 소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아카이아인을 향해 마주 서서 자리를 잡았고, 아르고스인들은 뒤로 물러나며 살육을 멈추었다. 아르고스인들은 트로이아인들이 이토록 전열을 가다듬은 것을 보고, 불사신 가운데 누군가가 별이 빛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트로이아인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헥토르는 크게 소리치며 트로이아인들을 불렀다.

"기개가 높은 트로이아인들이여, 그리고 명성 높은 동맹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용기를 내어 맹렬한 용맹을 떠올리시오. 그동안 나는 일리오스로 가서, 회의하는 원로들과 우리 아내들에게 신들께 기도하고 백 마리 소의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라고 이르겠소."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볼록한 방패의 가장자리를 두른 검은 가죽 테가 위아래로 그의 목과 발목을 쳤다.

한편 히폴로코스의 아들 글라우코스와 티데우스의 아들이 싸우려고 두 군대 사이의 빈터로 나섰다.

두 사람이 서로 다가와 가까워지자,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먼저 말했다.

"용맹한 자여, 그대는 필멸의 인간 가운데 누구요?"

"영광을 얻는 싸움터에서 오늘까지 그대를 본 적이 없소.
그런데 지금 그대는 대담하게 누구보다 앞으로 나서서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내 창 앞에 버티고 섰구려. 내 힘에
맞서는 자들의 부모는 불행하오. 하지만 그대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사신이라면, 나는 하늘의 신들과는 싸우지 않겠소."

"아니오, 드리아스의 아들이자 강력한 리쿠르고스조차 오래
살지 못했소. 그는 천상의 신들과 싸우려 했기 때문이지. 그는
한때 광기 어린 디오니소스를 돌보던 어머니들을 신성한
닉사 산에서 몰아냈던 자요. 그때 사람을 죽이는
리쿠르고스가 소몰이 막대기로 그들을 내리치자, 어머니들은
모두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렸소.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도망쳐 바다 물결 아래로 뛰어들었고,
테티스가 그를 품에 안았소. 테티스는 두려움에 떨었으니, 그
남자의 위협에 디오니소스가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소."

“그리하여 평온하게 사는 신들이 리쿠르고스에게
분노하였고,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를 눈멀게 했소. 그는 모든
불멸의 신들에게 미움을 샀기에 오래 살지 못했지. 그러니 나
또한 복된 신들을 상대로 싸울 마음이 없소.

하지만 만약 그대가 들판의 열매를 먹는 인간이라면, 가까이
다가오시오. 그래야 그대가 더 빨리 파멸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

그러자 히폴로코스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기개 높은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 혈통을 묻소?
사람의 세대는 나뭇잎의 세대와 같소.

나뭇잎은 바람이 땅에 흩뿌리지만, 봄철이 오면 숲은 다시
무성해져 새잎을 틔우오. 사람도 그러하여 한 세대가 나면 한
세대가 사라지오.

하지만 원한다면 이것도 들어 보시오. 그러면 내 혈통을 잘
알게 될 것이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소.”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 깊숙한 곳에 에피레라는 도시가 있소.
그곳에 사람 가운데 가장 꾀 많은 시시포스, 아이올로스의
아들 시시포스가 살았소.

시시포스는 글라우코스를 낳았고, 글라우코스는 비길 데 없는 벨레로폰을 낳았소."

"신들은 그에게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운 사내다움을 주었소. 그러나 프로이토스가 마음속으로 그에게 해를 꾀하여, 자기보다 훨씬 강한 그를 아르고스인의 땅에서 몰아냈소. 제우스가 아르고스인들을 프로이토스의 홀 아래 두었기 때문이오.

프로이토스의 아내, 아름다운 안테이아는 벨레로폰과 몰래 정을 통하고 싶어 미칠 듯이 그를 탐했소. 하지만 마음이 곧은 지혜로운 벨레로폰을 끝내 꾀어내지 못했소."

"그러자 그녀는 거짓말을 꾸며 프로이토스 왕에게 말했소. '프로이토스여, 당신이 죽든지 벨레로폰을 죽이십시오. 그가 제 뜻을 거슬러 저와 정을 통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왕은 그 말을 듣고 노여움에 휩싸였소.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꺼렸지만, 그를 리키아로 보냈소.

그리고 접는 서판에 치명적인 표시를 잔뜩 새겨 넣은 불길한 징표를 그에게 들려 보냈소."

"그리고 그것을 장인에게 보여 주라고 했소.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벨레로폰은 신들의 흠 없는 인도를 받으며 리키아로 갔소.

그가 리키아의 크산토스 강가에 이르자, 넓은 리키아의 왕은 그를 기꺼이 대접했소. 아흐레 동안 그를 대접하며 소 아홉 마리를 잡았소.

하지만 열흘째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 비로소 그에게 물으며 사위 프로이토스에게서 가져온 징표를 보자고 했소."

"사위가 보낸 불길한 징표를 받아 보고, 왕은 먼저 그에게 사납게 날뛰는 키마이라를 죽이라고 했소. 키마이라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신의 혈통으로, 앞은 사자, 뒤는 뱀, 가운데는 염소였고, 이글거리는 불길을 무섭게 내뿜었소. 벨레로폰은 신들의 징조를 믿고 그것을 죽였소.

다음으로 그는 영광스러운 솔리모이인들과 싸웠는데, 그가 겪은 전사들의 싸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그는 말했소. 세 번째로는 남자와 맞먹는 여인들, 아마조네스를 죽였소."

"그가 돌아오는 길에 왕은 또 다른 교활한 계략을 꾸몄소.
넓은 리키아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을 골라 매복시킨 것이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소. 비길 데 없는
벨레로폰이 그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오."

"그제야 왕은 그가 신의 용맹한 자손임을 알아보고, 그를
그곳에 머물게 하며 자기 딸을 주고 왕의 영예 절반을 나누어
주었소.

리키아인들도 그에게 어느 땅보다 좋은 영지, 과수원과 밭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을 떼어 주어 차지하게 했소.

그 여인은 지혜로운 벨레로폰에게 세 아이를 낳아 주었소.
이산드로스와 히폴로코스와 라오다메이아였소. 지혜로운
제우스가 라오다메이아와 동침하여, 그녀는 청동 갑옷을
입은 신과 같은 사르페돈을 낳았소."

"하지만 벨레로폰마저 모든 신의 미움을 사게 되자, 그는
사람들의 길을 피해 제 마음을 갉아먹으며 홀로 알레이온
평원을 떠돌았소.

그의 아들 이산드로스는 영광스러운 솔리모이인들과
싸우다가 싸움에 굶주린 아레스에게 죽었소.

그리고 그의 딸은 황금 고삐의 아르테미스가 노하여 죽였소."

"히폴로코스가 나를 낳았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 자부하오. 그는 나를 트로이아로 보내며, 언제나 누구보다 용맹하고 뛰어나야 하며 에피레와 넓은 리키아에서 가장 고귀했던 조상들의 혈통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소. 이것이 내가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혈통이요 피요."

그가 이렇게 말하자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는 기뻐했다.

그는 풍요로운 땅에 창을 꽂고, 백성의 목자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넸다.

"참으로 그대는 옛날부터 내 아버지 가문의 친구였구려. 예전에 훌륭한 오이네우스가 그의 궁전에서 비길 데 없는 벨레로폰을 대접하며 스무 날 동안 머물게 했고, 게다가 그들은 서로 우정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받았소.

오이네우스는 진홍빛으로 빛나는 허리띠를 주었고, 벨레로폰은 황금으로 된 이중 잔을 주었소. 나는 이곳으로 오면서 그 잔을 내 궁전에 남겨 두었소. 하지만 티데우스는 기억나지 않는구려. 아카이아인들의 군대가 테바이에서 멸망했을 때 나는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 말이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아르고스 한복판에서 그대의 친애하는 손님이며, 내가 그 백성들의 땅으로 여행할 때면 그대 또한 리키아에서 나의 친애하는 손님이오.

그러니 군중 속에서도 서로의 창을 피합시다. 내게는 신께서 허락하시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베어 넘겨야 할 트로이아인과 이름 높은 동맹군들이 아주 많이 있소. 그대 또한 베어 넘길 수 있는 아카이아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 서로 갑옷을 교환합시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부터 친구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뒤, 두 사람은 전차에서 뛰어내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신의를 맹세했다.

그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는 글라우코스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와 갑옷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그의 지혜를 거두어 갔다. 글라우코스는 황금을 주고 청동을 받았으니, 이는 소 백 마리의 가치와 소 아홉 마리의 가치를 맞바꾼 것이었다.

한편 헥토르가 스카이아이 성문과 참나무 근처에 이르자, 트로이아인들의 아내와 딸들이 달려와 그들의 아들과 형제, 친구와 남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를 에워쌌다.

하지만 헥토르는 그들에게 차례로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헥토르가 윤이 나는 기둥들로 장식된 프리아모스의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렀을 때, 그 궁전 안에는 윤이 나는 돌로 만든 방 오십 개가 서로 다닥다닥 붙어 지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내들과 나란히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안뜰에는 윤이 나는 돌로 만든 지붕 있는 방 열두 개가 서로 다닥다닥 붙어 지어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프리아모스의 사위들이 정숙한 아내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곳에서 그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딸인 라오디케를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그에게 물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그 격렬한 전투를 떠나 이곳으로 왔느냐?”

“분명 악명 높은 아카이아인들이 우리 도시 주변에서 싸우며 너를 몹시 몰아붙이는구나. 그래서 성채에서 제우스께 손을 들어 기도하려는 마음에 이리로 온 것이겠지.

하지만 내가 꿀처럼 단 포도주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라. 먼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 술을 부어 바치고, 마시고 싶거든 너도 마셔서 기운을 차리려무나.

사람이 고된 일로 지쳤을 때 포도주는 기력을 크게 북돋아 준단다. 너처럼 동료들을 지키느라 지쳤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어머니의 말에 대답했다.

"존경하는 어머니, 저에게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자칫 제가 기력을 잃고 저의 힘과 용맹을 잊게 될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씻지 않은 손으로 제우스께 붉게 빛나는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피와 오물로 온통 더러워진 채로, 검은 구름의 주인이신 크로노스의 아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나이 든 부인들을 모아 제물을 들고 전리품을 몰아오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궁전에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넉넉하며
어머니께 가장 소중한 옷을 머리칼이 고운 아테나의 무릎
위에 놓아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테나께서 트로이아와 트로이아인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사나운 창잡이요 적을
패주시키는 힘센 티데우스의 아들을 신성한 일리오스에서
막아 주신다면, 그 신전에서 회초리를 맞아 본 적 없는 윤기
나는 어린 암소 열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십시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전리품을 몰아가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가십시오. 저는 파리스에게 가서 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가
제 말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차라리 땅이 당장 갈라져 그를 삼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포스의 신께서 그를 트로이아인들과 기개 높은
프리아모스, 그리고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큰 재앙거리로 키우셨으니 말입니다.

그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야 제
마음이 슬픔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전당으로 가서 하녀들을 불렀다.
하녀들은 도시 곳곳에서 나이 든 아내들을 불러 모았다.

왕비 헤카베 자신은 그녀의 옷들이 있는 아치형 보물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시돈 여인들이 수놓은 화려한 옷들이 있었다.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고귀한 신분의 헬레네를 데려오기 위해 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그 여정에서 시돈으로부터 직접 데려온 여인들의 솜씨였다.

헤카베는 그중에서 자수가 가장 아름답고 폭이 넓으며, 별처럼 빛나고, 가장 아래에 놓여 있던 옷 하나를 골라 아테나에게 바칠 제물로 들고 갔다.

그러자 그녀는 길을 떠났고, 나이 든 아내들의 무리가 그녀의 뒤를 서둘러 따랐다.

그들이 성채에 있는 아테나의 신전에 도착했을 때, 말을 길들이는 자 안테노르의 아내이자 키세우스의 딸인 뺨이 고운 테아노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 트로이아인들은 그녀를 아테나의 사제로 삼았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신성한 외침과 함께 아테나를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 뺨이 고운 테아노는 그 옷을 받아 머리칼이 고운 아테나의 무릎 위에 올려 놓았고,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서원을 세우며 기도를 올렸다.

"우리 도시를 지키시는 아테나 여신이시여, 여신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분이시여. 이제 디오메데스의 창을 꺾으시고, 그가 스카이아이 성문 앞에서 고꾸라지게 하소서. 트로이아와 트로이아인의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을 가엾게 여겨 주신다면, 저희가 곧 이 신전에서 회초리를 맞아 본 적 없는 윤기 나는 어린 암소 열두 마리를 여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팔라스 아테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들이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헥토르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름다운 집으로 갔다. 그 집은 알렉산드로스가 기름진 트로이아에서 당대 최고의 목수들을 데리고 손수 지은 것이었다. 그들은 성채 안 프리아모스와 헥토르의 집 가까이에 그를 위해 방과 홀과 뜰을 지어 주었다.

제우스가 아끼는 헥토르가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의 손에는 열한 완척이나 되는 창이 들려 있었고, 그 앞쪽에서 황금 고리를 두른 청동 창끝이 번쩍였다.

그는 방 안에서 파리스가 방패와 가슴받이 같은 아름다운 무구를 손질하며 굽은 활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르고스의 헬레네는 시녀들 사이에 앉아 그들에게 훌륭한 수공일을 시키고 있었다.

헥토르는 그를 보자 모욕적인 말로 꾸짖었다.

“이 못난 녀석아, 그렇게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백성이 성읍과 가파른 성벽을 둘러싸고 싸우다 죽어 가고 있다. 이 도시를 둘러싸고 함성과 전쟁이 불타오르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다른 누가 이 끔찍한 싸움을 피해 물러나는 것을 보면 너부터 그를 꾸짖을 게 아니냐. 자, 일어나라. 머지않아 도시가 사나운 불길에 타오르지 않도록.”

그러자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헥토르여, 그대가 나를 마땅히 꾸짖고 있으며 지나치게 꾸짖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내 그대에게 말하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귀를 기울이시오.

내가 내 방에 앉아 있었던 것은 트로이아인들에 대한 분노와 격분 때문만은 아니었소. 나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고 싶었을 뿐이었소.

방금 전에도 내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내 마음을 돌리려 하며 나를 전쟁터로 재촉했소.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오. 승리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가는 법이니 말이오."

"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전쟁 갑옷을 입겠소. 아니면 먼저 가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소.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했으나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헬레네가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말했다.

"아주버님, 개 같은 이 몸, 재앙을 꾸미고 모두가 꺼리는 이 몸의 아주버님. 어머니가 저를 처음 낳으신 날, 사나운 돌풍이 저를 산으로나 크게 울리는 바다의 파도 속으로 휩쓸어 가 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파도가 저를 삼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들께서 이런 재앙을 정해 놓으셨으니, 차라리 남들의 분노와 숱한 비난을 아는 더 나은 사람의 아내라도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마음이 굳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머지않아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버님, 들어오셔서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개 같은 저와 알렉산드로스의 미망 때문에 누구보다 아주버님의 마음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제우스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모진 운명을 내리셨으니, 훗날 태어날 사람들에게 우리는 노래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헬레네여, 그대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앉으라고 하지 마시오. 그대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 나를 간절히 기다리는 트로이아인들을 돕고 싶어 내 마음은 지금도 조급하기만 하오.

아니, 그대는 이 사람을 깨워 스스로 서두르게 하시오. 내가 아직 성 안에 있을 때 그가 나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말이오.”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을 보아야 하오.

내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신들이 아카이아인들의 손을 빌려 나를 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 튼튼하게 지어진 자신의 집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집 안에서 흰 팔의 안드로마케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와 고운 옷을 입은 하녀를 데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

헥토르는 비길 데 없는 아내를 집 안에서 찾지 못하자, 문턱에 서서 하녀들에게 물었다.

"자, 하녀들이여, 내게 사실대로 말해다오. 흰 팔의 안드로마케가 집 안에서 어디로 갔느냐?"

"그녀가 내 누이들의 집이나 내 형제들의 고운 옷을 입은 아내들의 집으로 갔느냐? 아니면 트로이아의 다른 머리 장식한 여인들이 두려운 여신을 달래려 찾아가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갔느냐?"

그러자 분주한 집안 여인이 그에게 말하며 대답했다.

"헥토르 님,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누이분들이나 형제들의 고운 옷을 입은 아내들의 집으로 간 것도 아니며, 다른 머리 장식한 트로이아 여인들이 두려운 여신을 달래려 찾아가는 아테나의 신전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일리오스의 거대한 성벽으로 갔습니다.
트로이아인들이 몹시 고전하고 있으며 아카이아인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서둘러 성벽으로 갔으며, 유모가 아이를 안고 그녀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녀가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집을 나서서 잘 닦인 거리를 따라 왔던 길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가 큰 도시를 지나 평원으로 나가는 스카이아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재물 많은 아내 안드로마케가 달려와 그를 맞았다. 그녀는 마음 넓은 에에티온의 딸이었다. 에에티온은 숲이 우거진 플라코스 산기슭의 테베에 살며 킬리키아인들을 다스렸다.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가 아내로 맞은 이가 바로 그 딸이었다.

그녀가 그를 맞이했고, 그 곁에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하녀가 함께 왔다. 그 아기는 헥토르가 아름다운 별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헥토르는 그 아이를 스카만드리오스라고 부르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아스티아낙스라고 불렀다. 오직 헥토르만이 일리오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헥토르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드로마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에 다가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 여보, 당신의 그 용맹이 당신을 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아들도, 곧 당신의 과부가 될 불쌍한 저도 가엾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카이아인들이 곧 한꺼번에 달려들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을 잃는다면 차라리 땅속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운명을 맞고 나면 제게는 더 이상 위안은 없고 슬픔뿐일 테니 말입니다.”

“제게는 아버지도 존귀한 어머니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죽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사람이 많이 사는 킬리키아인의 도시, 높은 성문의 테베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에에티온을 죽였지만 갑옷은 벗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것만은 꺼렸던 것입니다. 그는 공들여 만든 갑옷을 입힌 채 아버지를 화장하고 그 위에 무덤을 쌓았습니다.

그 둘레에는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딸들, 산의 님프들이 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함께 지내던 일곱 명의 형제도 모두 같은 날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발 빠르고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릿느릿 걷는 소 떼와 흰 털을 가진 양 떼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플라코스 아래에서 여왕이었던 나의 어머니도 다른 전리품들과 함께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받은 뒤에 어머니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집에서 활을 쏘는 아르테미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헥토르여. 당신이 제게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오라버니이며, 또 듬직한 남편입니다."

"이제 제발 자비를 베푸시어 이곳 성벽 위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이를 고아로, 아내를 과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은 도시를 가장 잘 기어오를 수 있고 성벽이 공격에 노출된 저 야생 무화과나무 곁에 머물게 하십시오.

이 지점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이 두 아이아스와 영광스러운 이도메네우스, 아트레우스의 아들들, 그리고 티데우스의 용맹한 아들과 함께 세 번이나 이곳에 와서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점술에 능한 자가 그들에게 말해준 덕분인지, 아니면 혹시 그들 자신의 마음이 그들을 재촉하여 그리하도록 명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말입니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나 또한 이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소. 하지만 내가 겁쟁이처럼 전투에서 비켜나 숨어 있다면, 긴 옷자락을 끌며 걷는 트로이아인들과 그 아내들에게 커다란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오.

또한 내 마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소. 나는 언제나 용맹하게 행동하며 트로이아인들의 선봉에서 싸우는 법을 배웠고, 내 아버지의 위대한 영광과 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기 때문이오."

"나는 마음과 영혼으로 분명히 알고 있소. 신성한 일리오스가,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프리아모스와 그의 백성이 쓰러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러나 훗날 트로이아인들이 겪을 슬픔도, 어머니 헤카베와 프리아모스 왕의 슬픔도, 적의 손에 쓰러져 먼지 속에 누울 수많은 용맹한 내 형제들의 슬픔도 나를 그토록 괴롭히지는 않소.

무엇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슬픔이오. 청동 갑옷을 입은 어떤 아카이아인이 울부짖는 당신을 끌고 가 자유로운 날을 빼앗아 버릴 그때의 슬픔 말이오."

"어쩌면 당신은 아르고스에서 다른 이의 명령에 따라 베를 짜거나, 메세이스 혹은 히페레이아에서 물을 길어야 할지도 모르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한 강요를 받게 될 것이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울고 있는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오."

"'저 여인이 헥토르의 아내다. 일리오스를 두고 싸우던 때,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 가운데 누구보다 뛰어났던 헥토르의 아내 말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종살이를 막아 줄 남편이 없다는 생각에 당신은 새로운 슬픔에 잠길 것이오.

당신이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전에, 차라리 내가 죽어 무덤의 흙에 덮였으면 좋겠소."

그렇게 말하며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아들에게 팔을 뻗었다.
하지만 아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겁을 먹고, 투구
꼭대기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리는 청동과 말총 장식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허리에 고운 띠를 두른 유모의 품속으로
울며 파고들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가 크게 웃었다.
곧이어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머리에서 투구를 벗어 번쩍이는
채로 땅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품에 안아
어루만지며,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기도로 말했다.

"제우스여, 그리고 다른 신들이여. 이 아이도 저처럼
트로이아인 가운데 뛰어나고 힘센 자가 되어 일리오스를
굳건히 다스리게 하소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아이를 보며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적을 죽여
피 묻은 전리품을 들고 와서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안겨
주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자신의 향기로운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모습을 본 남편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손으로 그녀를 어루만지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내여, 부디 마음속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 누구도 나의 운명을 넘어서 나를 하데스로 보내지는 못할 것이오. 겁쟁이든 용맹한 자든, 일단 태어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오."

"자, 당신은 집으로 가서 베틀과 물레 같은 당신의 일을 돌보고, 하녀들에게도 일을 하라고 시키시오. 전쟁은 모든 남자의 몫이며, 특히 일리오스에 사는 자들 중에서는 나의 몫이 될 것이오."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이렇게 말하고 말총 장식이 달린 투구를 집어 들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큰 눈물을 흘리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곧장 집으로 향했다.

곧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잘 지어진 궁전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하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모두 사이에서 통곡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헥토르가 살아 있을 때에도 그의 집에서 통곡했다. 그들은 헥토르가 아카이아인의 힘과 손길을 피해 전투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파리스 또한 그의 높은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청동으로 장식된 영광스러운 갑옷을 입고, 자신의 빠른 발을 믿으며 도시를 가로질러 서둘러 나갔다.

마치 구유에서 배불리 먹은 말이 굴레를 끊고 평원을 발을 구르며 달려가는 것과 같았다. 그 말은 맑게 흐르는 강물에서 몸을 씻는 습성이 있어, 기쁨에 겨워 날뛰며 머리를 높이 쳐들고 갈기에는 어깨를 따라 휘날렸다. 그 말은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며 무리의 거처와 암말들의 목초지를 향해 가볍게 무릎을 움직여 달려갔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도 그와 같았다. 그는 갑옷을 입고 번쩍이는 태양처럼 빛나며, 기쁨에 겨워 웃으며 높은 페르가모스에서 성큼성큼 내려왔고, 그의 빠른 발이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파리스는 형제인 훌륭한 헥토르를 재빨리 따라잡았다. 헥토르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던 곳에서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러자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형님, 내가 너무 꾸물거리는 바람에 서두르는 형님을 붙잡아 두었구려. 형님이 말한 대로 제때 오지 못했소.”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대답했다.

“이 사람아, 생각이 바른 자라면 누구도 네 싸움 솜씨를 깔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용맹하니까. 그런데 너는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고 마음을 쓰지 않는구나. 너 때문에 큰 고생을 하는 트로이아인들의 입에서 너를 욕하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자, 가자. 이 일은 나중에 바로잡자. 우리가 트로이아 땅에서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몰아내고, 제우스께서 허락하시어 우리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신들께 자유를 기념하는 술동이를 바칠 수 있게 된다면 말이다.”

제7권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

그렇게 말하고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성문 밖으로 서둘러 나갔고, 그의 형제 알렉산드로스도 그와 함께 갔다. 두 사람의 마음은 모두 전쟁과 전투를 갈망하고 있었다.

신이, 전나무로 만든 매끄러운 노로 바다를 저으며 지쳐가고 사지가 피로로 늘어진 갈망하는 선원들에게 순풍을 보내 주듯이, 이 두 사람도 갈망하는 트로이아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아르네에 사는 아레이토오스 왕의 아들 메네스티오스를 죽였다. 메네스티오스는 곤봉을 쓰는 아레이토오스와 소 같은 큰 눈의 필로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였다.

헥토르는 날카로운 창으로 잘 만들어진 청동 투구 아래 에이오네오스의 목을 쳐서 그의 사지를 늘어뜨렸다.

그리고 리키아인의 지도자인 히폴로코스의 아들
글라우코스는 격렬한 싸움 속에서, 날랜 암말들이 끄는
전차에 뛰어오르던 덱시오스의 아들 이피노스에게 창을 던져
그의 어깨를 맞혔다. 그리하여 이피노스는 전차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그의 사지는 늘어졌다.

하지만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격렬한 전투 중에
그들이 아르고스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신성한 일리오스로 쏜살같이 내려왔다.

아폴론은 페르가모스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발견하고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어 했기에,
그녀를 맞이하러 급히 달려 나갔다. 그리하여 두 신은 참나무
곁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러자 제우스의 아들인 왕 아폴론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위대한 제우스의 딸이여, 어찌하여 또 이렇게 급히
올림포스에서 내려왔소? 그대의 드높은 기개가 그대를
이리로 보낸 것이오?"

"목숨을 잃어 가는 트로이아인들은 가엾게 여기지 않으니,
다나오스인들에게 승리를 주어 싸움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이오?

하지만 내 말을 들어 준다면, 그편이 훨씬 나을 것이오. 오늘 하루는 전쟁과 싸움을 멈춥시다.

불사의 여신인 그대들이 이 도시를 무너뜨리기를 그토록 바라니, 그들은 나중에 일리오스의 끝을 볼 때까지 다시 싸우게 될 것이오."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멀리서 일을 이루는 신이여, 그렇게 합시다. 나도 그런 생각으로 올림포스에서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한가운데로 왔소. 그런데 어떻게 전사들의 싸움을 멈추려 하오?"

그러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용맹한 기개를 북돋웁시다. 그가 다나오스인 가운데 누군가에게 일대일로 맞서 무서운 결투를 벌이자고 도전하게 하는 것이오."

"그렇게 하면 청동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 분노하여, 훌륭한 헥토르를 상대로 일대일 결투를 벌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도 이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프리아모스의 사랑하는 아들 헬레노스는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된 이 계획을 마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다가와 헥토르의 곁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지혜가 제우스와 맞먹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여, 내 말을 들어 주겠소? 나는 그대의 아우요. 트로이아인들과 모든 아카이아인을 앉게 하고, 아카이아인 중 가장 뛰어난 자를 지목하여 공포스러운 결투를 벌이며 그와 일대일로 맞서 싸우자고 도전하시오."

"그대가 지금 죽어서 운명을 맞이할 운명은 아니오. 영원히 존재하는 신들의 목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었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헥토르는 중앙으로 나아가 창의 중간 부분을 움켜쥐고 트로이아인들의 부대를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아가멤논은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앉게 했다.

아테나와 은빛 활의 아폴론은 독수리 모습을 하고, 아이기스를 지닌 아버지 제우스의 높은 참나무 위에 앉아 전사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방패와 투구와 창이 삐죽삐죽 솟아오른 채, 이들의 대열은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이제 막 일어난 서풍이 깊은 바다의 표면 위로 물결을 일으켜
그 아래의 바다가 검게 변하는 것처럼, 아카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이 평원에 앉아 있었다.

헥토르가 두 군대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이여,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가슴 속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높은 곳에 왕좌를 차지하신
크로노스의 아들이 우리의 맹세를 이루어 주지는 않았소.
대신 그는 두 군대 모두를 위해 불길한 시간을 정해 두었으니,
그대들이 성벽이 튼튼한 트로이아를 함락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들 자신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 곁에서 패배할 때까지
말이오.

아카이아인 전체 군대의 지도자들이 그대들과 함께 있소.
이들 가운데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와 싸우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훌륭한 헥토르에 맞설 그대들의 대표 전사가 되어
지금 모두 가운데서 이리로 나오시오."

"나는 이렇게 선언하오. 제우스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만약 그가 긴 날을 가진 청동 무기로 나를
죽인다면, 나의 갑옷을 벗겨 속이 빈 배들로 가져가게 하시오.
하지만 나의 몸은 내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그래야
트로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마땅히
화장해 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그를 죽이고 아폴론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다면,
나는 그의 갑옷을 벗겨 신성한 일리오스로 가져가 멀리 쏘는
아폴론의 신전에 걸어 두겠소.

그의 시신은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로 돌려보내겠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그를 장사 지내고 넓은
헬레스폰토스 가에 무덤을 쌓을 수 있도록 말이오."

"그리고 훗날 태어날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노 젓는 자리
많은 배를 타고 포도주빛 바다를 건너다가 이렇게 말할
것이오. '이것은 옛날에 죽은 어떤 사람의 무덤이다. 그가
용맹을 떨치던 시절에 위대한 헥토르가 그를 죽였다.'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니, 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그를
거절하기에는 부끄러웠으나, 그를 마주하기에는 두려웠다.

마침내 메넬라오스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꾸짖었다. 그의 마음은 깊이 신음하고 있었다.

“아, 이 허풍쟁이들아, 아카이아의 여자들아, 더 이상 남자도 아니로구나! 만약 지금 다나오스인 중 누구도 헥토르를 맞이하러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 두렵고 끔찍한 치욕이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모두가 흙과 물로 돌아가 버려라.”

“용기도 없이 저마다 앉아 있는 너희는 완전히 명예를 잃었구나. 나 자신이 저 사내를 상대하기 위해 무장을 하겠다. 하지만 승리의 결과는 높은 곳에 계신 불멸의 신들께서 결정하시는 법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아름다운 갑옷을 입었다.

만약 아카이아의 왕들이 일어나 그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메넬라오스는 훨씬 더 강한 헥토르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직접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말하였다.

"제우스가 기른 메넬라오스야, 너는 미쳤구나. 그런 미친
짓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슬픔이 크더라도 참아라.
너보다 뛰어난 자, 너 말고 다른 이들도 두려워하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싸우겠다는 경쟁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아킬레우스조차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전투에서 이 사내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아킬레우스는 너보다 훨씬
강한데도 말이다."

"자, 지금은 물러가서 동료들 사이에 앉아 있거라.
아카이아인들이 그자에 맞설 다른 대표 전사를 세울 것이다.

그자가 아무리 두려움을 모르고 싸움에 굶주렸다 해도,
무서운 싸움과 격전에서 살아 나온다면 기꺼이 무릎을 꺾고
쉬려 할 것이다."

그 용사는 그렇게 말하여 형제의 마음을 돌려놓았으니, 그가
올바른 조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는 그
말에 따랐다.

그러자 기쁜 마음으로 그의 시종들이 그의 어깨에서 갑옷을
벗겨 주었다. 그때 네스토르가 일어나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참으로 아카이아의 땅에 커다란 슬픔이 닥쳤구려. 옛날에 내게 질문을 던지고, 모든 아르고스인의 혈통과 탄생에 대해 물으며 크게 기뻐하셨던 훌륭한 조언자이자 미르미돈인의 웅변가이며 전차를 모는 노인 펠레우스께서도 분명 크게 탄식하셨을 것이오."

"만약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이들이 헥토르 앞에서 움츠러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자신의 영혼이 사지에서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불멸의 신들에게 즉시 손을 들어 기도하셨을 것이오."

"오, 아버지 제우스여, 아테나여, 아폴론이여! 내가 젊다면 얼마나 좋겠소. 물살 빠른 켈라돈 강가에 필로스인과 창을 휘두르는 아르카디아인이 모여, 이아르다노스 강물 곁 페이아 성벽 아래에서 싸우던 그때처럼 말이오.

저들 편에서는 신과 같은 에레우탈리온이 대표 전사로 나섰소. 그는 아레이토오스 왕의 갑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소. 사람들과 허리띠 고운 여인들이 철퇴잡이라 부르던 훌륭한 아레이토오스 말이오. 그는 활이나 긴 창이 아니라 쇠 철퇴로 적의 대열을 부수며 싸웠기 때문이오."

"리쿠르고스가 힘이 아니라 꾀로, 좁은 길목에서 그를 죽였소. 그곳에서는 쇠 철퇴도 그를 파멸에서 구하지 못했소. 철퇴를 휘두르기도 전에 리쿠르고스가 불시에 덤벼들어 창으로 몸통을 꿰뚫었고, 그는 뒤로 나자빠졌소.

리쿠르고스는 청동의 아레스가 그에게 주었던 갑옷을 벗겨 갔소. 그 뒤로 그 갑옷을 입고 아레스의 싸움터를 누볐으나, 궁전에서 늙자 사랑하는 시종 에레우탈리온에게 그것을 입으라고 주었소."

"에레우탈리온은 그 갑옷을 입고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 모두 도전했소. 그러나 그들은 몹시 떨며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와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소.

하지만 나는 나이로는 모두 가운데 가장 어렸는데도, 굳센 마음이 대담하게 나를 그와 싸우라고 부추겼소. 그리하여 내가 그와 싸웠고, 아테나가 내게 영광을 주었소.

그는 내가 죽인 사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자였소. 그 거대한 몸이 이리저리 큰대자로 뻗어 누워 있었소."

"내가 지금도 그렇게 젊고 힘이 굳건하다면,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곧 맞설 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오. 그런데 아카이아인 온 군대의 지도자라는 그대들은 기꺼이 나서서 헥토르와 마주하려 하지 않는구려."

노인이 이렇게 꾸짖자 모두 아홉 사람이 일어섰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 티데우스의 아들인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일어났다.

그다음에는 격렬한 용맹을 갖춘 두 아이아스가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 이도메네우스와 사람을 죽이는 에니알리오스와 맞먹는, 이도메네우스의 동료 메리오네스가 일어났다.

그 뒤로는 에우아이몬의 영광스러운 아들 에우리필로스가 일어났으며,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와 훌륭한 오디세우스도 일어났다. 이들 모두는 훌륭한 헥토르와 싸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다시 말했다.

"누가 뽑힐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비를 던지시오. 만약 그가 전쟁의 분노와 두려운 충돌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는 진실로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각자 제비를 표시하여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투구 안에 던져 넣었다.
군대는 기도를 올리며 신들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

그들은 넓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제우스 아버지여, 제비가 아이아스나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아니면 황금이 풍부한 미케네의 왕 자신에게 떨어지게 해
주소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투구를
흔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제비, 즉 아이아스의
제비가 투구 밖으로 튀어 나왔다.

전령은 그것을 들고 무리 사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아카이아인의 모든 지도자에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모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령이 제비를 표시하여 투구에 던져 넣었던
사람에게, 즉 영광스러운 아이아스에게까지 무리 사이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다가갔을 때, 아이아스가 손을
내밀었다.

전령이 가까이 다가와 그 손 안에 제비를 놓아 주자,
아이아스는 제비에 새겨진 표식을 단번에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아이아스는 제비를 자기 발 옆 땅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내 친구들이여, 제비는 분명히 내 것이오. 내 마음도
기쁘구려. 내가 훌륭한 헥토르를 이길 것이라 믿기 때문이오.

자, 이제 내가 전투 장비를 갖추는 동안, 그대들은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왕께 각자 조용히 기도해 주시오.
트로이아인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말이오. 아니면
그대들이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해도 좋소. 어차피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으니 말이오."

"그 누구도 내 의지에 반하여 억지로 나를 도망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기술로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오. 내가
살라미스에서 태어나 자랄 때 기술이 없는 자로 태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들은 크로노스의 아들인 제우스
왕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넓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이다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여. 아이아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가 영광스러운 명성을 얻게 하소서. 만약 당신께서 헥토르 또한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신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대등한 힘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자, 아이아스는 번쩍이는 청동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그가 온몸에 갑옷을 다 갖추어 입었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아레스가 전투에 나서는 것처럼 달려 나갔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영혼을 집어삼키는 격렬한 다툼 속에서 겨루도록 불러 모은 전사들 사이로 아레스가 들어설 때와 같았다.

아카이아인의 방벽인 거대한 아이아스도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튀어 나갔다. 그는 발을 길게 내디디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휘두르며 나아갔다.

아르고스인들은 그를 바라보며 기뻐했으나, 트로이아인들의 모든 이에게는 사지가 떨리는 공포가 엄습했다. 헥토르의 가슴 속에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헥토르는 이미 싸움을 청했기에, 더 이상 도망치거나 군대의 무리 속으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아이아스는 도시 성벽과도 같은 방패를 들고 다가갔다. 그 방패는 일곱 겹의 황소 가죽을 덧댄 청동 방패였다.

이 방패는 힐레에 살며 가죽을 다루는 솜씨가 가장 뛰어났던 티키오스가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그는 튼튼한 황소의 가죽 일곱 장으로 번쩍이는 방패를 만들고, 그 위에 여덟 번째 층으로 청동을 입혔다.

텔라몬의 아이아스는 이 방패를 가슴 앞에 들고 다가와 헥토르 곁에 가까이 서서 위협하듯 말했다.

"헥토르여, 이제 그대는 사자 같은 용기를 지닌, 인간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다나오스인들 중에도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지 사내 대 사내로 분명히 알게 될 것이오. 비록 그는 백성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부리 모양 이물을 단, 바다를 누비는 배들 사이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 중에는 그대와 맞설 자들이 있으며, 참으로 우리 중에는 아주 많은 이들이 있소. 그러니 그대가 먼저 전쟁과 전투를 시작하시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후예이자 텔라몬의 아들이며 백성의 지도자인 아이아스여, 나를 전쟁의 업을 모르는 보잘것없는 소년이나 여자처럼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나는 전투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소."

"나는 잘 길들여진 가죽으로 만든 내 방패를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잘 휘두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잘 휘두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소. 나는 전투에서 휘두르기에 튼튼한 물건이라 여기는 이 방패를 말이오. 또한 나는 날랜 암말들이 끄는 전차들이 뒤엉킨 난전 속으로 어떻게 돌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소. 그리고 근접전에서 맹렬한 아레스의 보폭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있소.

그렇지만 나는 그대와 같은 자를 기습하여 치려는 마음은 없소. 만약 내가 그대를 맞힐 수 있다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맞서겠소."

그가 말을 마치고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졌다. 창은 일곱 겹의 황소 가죽으로 만든 아이아스의 무시무시한 방패 위, 가장 바깥쪽 청동인 여덟 번째 층을 강타했다.

단단한 청동은 여섯 겹까지 뚫고 들어갔으나, 일곱 번째 가죽에서 멈추었다.

그러자 제우스의 후손 아이아스가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는 창을 던져, 사방이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진 프리아모스의 아들의 방패를 강타했다.

강력한 창이 빛나는 방패를 뚫고 지나갔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흉갑을 뚫고 길을 냈다. 창은 그의 옆구리 바로 옆을 지나 튜닉을 찢으며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몸을 옆으로 비틀어 검은 운명을 피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손으로 긴 창을 뽑아 들고, 약하지 않은 힘을 가진 굶주린 사자나 멧돼지처럼 달려들었다.

그러자 프리아모스의 아들이 창을 찔러 넣어 아이아스의 방패를 정면으로 내리쳤으나, 창끝이 휘어지는 바람에 청동은 뚫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아스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방패를 꿰뚫었고, 창은 그대로 관통하여 그가 돌진하던 중에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창은 그의 목까지 나아가 목을 베었고, 검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럼에도 번쩍이는 투구를 쓴 헥토르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평원에 놓여 있던 검고 들쭉날쭉하며 커다란 돌 하나를 굳센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그 돌로 일곱 겹의 황소 가죽으로 된 아이아스의
무시무시한 방패 중앙을 내리쳤고, 청동이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훨씬 더 커다란 돌을 높이 들어 올려,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실어 휘둘러 던졌다.

맷돌 같은 그 돌을 던지자 방패가 안쪽으로 부서졌고,
헥토르의 무릎이 꺾였다. 헥토르는 방패 아래로 몸을 웅크린
채 뒤로 넘어졌으나, 아폴론이 즉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이 근접전에서 칼로 서로를 내리치려던 그때, 제우스와
사람들의 전령인 탈티비오스와 이다이오스가 나타났다.
트로이아인 쪽에서 한 명,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쪽에서 한 명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신중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은 지팡이를 내밀었다. 신중한 조언에
능숙한 전령 이다이오스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더는 싸우지 마시오. 전투도
멈추시오. 그대들 둘 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둘 다 창을 쓰는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소. 게다가 이제 밤이 찾아왔으니, 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하였다.

"이다이오스여, 헥토르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시오. 스스로 우리 중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결투를 신청한 것은 바로 그였소. 그가 먼저 말하게 하시오. 그러면 나는 그가 말하는 대로 진실로 따르겠소."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아스여, 신께서 그대에게 체구와 힘, 그리고 지혜를 주셨음을 보았소. 또한 그대는 창을 쓰는 데 있어 모든 아카이아인보다 뛰어나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전투와 다툼을 멈춥시다. 신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하시고 어느 한쪽 편에 승리를 주실 때까지, 나중에 다시 싸웁시다."

"하지만 이제 밤이 찾아왔으니 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좋겠소. 그러면 그대는 배 곁에 있는 모든 아카이아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대의 친족과 동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프리아모스 왕의 거대한 도시 전체를 다니며, 끌리는 옷자락을 입은 트로이아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기쁘게 하겠소. 그들은 나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이오."

“자, 이제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선물을 줍시다. 그리하여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오. ‘그 둘은 참으로 영혼을 집어삼키는 격렬한 싸움을 벌였으나, 그 후에는 서로 약속을 맺고 우정 속에 헤어졌다’라고 말이오.”

그렇게 말한 뒤, 헥토르는 은으로 장식된 칼과 칼집, 그리고 잘 만들어진 어깨띠를 가져와 아이아스에게 주었다.
아이아스는 선홍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허리띠를 주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고, 한 명은 아카이아인 진영으로 향했으며 다른 한 명은 트로이아인 무리에게로 돌아갔다.

아이아스의 분노와 무적의 손길로부터 벗어나, 헥토르가 살아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트로이아인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하며 그를 도시로 데려갔다.

한편 아이아스는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찬 채,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에게 이끌려 위엄 있는 아가멤논에게로 갔다.

그들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도착했을 때,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권능이 지고한 크로노스의 아들을 위하여 다섯 살 된 수소 한 마리를 잡아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소의 가죽을 벗기고 손질하여 모든 부위를 잘랐다. 그러고 나서 정교하게 고기를 썰고, 꼬챙이에 꿰어 정성껏 구운 뒤 꼬챙이에서 모두 빼냈다.

일을 마치고 음식을 다 준비하자 그들은 잔치를 벌였으며, 똑같이 나눈 잔치에 누구의 마음도 모자람이 없었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널리 다스리는 전사 아가멤논은 아이아스의 영광을 위하여 긴 등심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를 다 채우고 나자, 무엇보다 먼저 노인이 그들을 위해 지혜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예부터 그의 조언이 언제나 가장 훌륭해 보였던 네스토르가 바로 그였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아카이아 군대의 다른 군주들이여. 보시오, 머리칼이 긴 수많은 아카이아인이 죽었소. 날카로운 아레스가 아름답게 흐르는 스카만드로스 주변에 그들의 검은 피를 뿌렸고, 그들의 영혼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소.

그러므로 그대가 새벽녘에 아카이아인의 전투를 멈추게 한다면 좋겠소. 그러면 우리가 소와 노새를 이용해 수레로 시신들을 이곳으로 실어 오겠소. 그리고 배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신들을 태우겠소. 그리하면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각자가 그들의 유골을 자식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장작더미 둘레에 평원에서 흙을 쌓아 모두를 위한 봉분 하나를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배들과 우리 자신을 지킬 높은 성벽을 빠르게 세웁시다.

또한 그곳에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튼튼히 만들어 세웁시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깊은 해자를 파서 전차와 보병들을 막아내게 합시다. 위엄 있는 트로이아인들의 전투가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든 왕이 그 말에 동의했다.

트로이아인들 역시 일리오스의 성채 안, 프리아모스의 문 곁에서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모임을 가졌다.

그들 가운데 현명한 안테노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 그리고 동맹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가슴 속에서 명령하는 바를 말하겠소.

이제 아르고스의 헬레네와 그녀가 가져온 보물을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어 가져가게 합시다. 지금 우리는 신의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싸우고 있으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이 내게는 없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자, 머리칼이 고운 헬레네의 남편인 훌륭한 알렉산드로스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는 대답하며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안테노르여, 그대가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지 않소. 그대는 분명 이보다 더 나은 말을 꾸며낼 줄도 알면서 말이오. 만약 그대가 진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신들께서 분명 그대의 정신을 앗아가 버린 것이오."

“그렇지만 나는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분명히 말하겠소. 나는 내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오. 다만 내가 아르고스에서 우리 집으로 가져온
보물들은 모두 줄 생각이며, 거기에 내 창고에 있는 것들을
더해서 주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자, 그들 가운데서
다르다노스의 아들이자 신들과 맞먹는 지혜를 가진
프리아모스가 일어났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 그리고 동맹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겠소.”

“오늘 저녁은 예전처럼 도시 곳곳에서 식사를 하시오. 그리고
모두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깨어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오.

새벽이 되면 이다이오스를 속이 빈 배들로 보내어, 이 다툼이
시작된 원인인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에게 전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이 지혜로운 말을 전하게 하시오. 우리가 죽은 자들을 불사르고 나면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멈출 마음이 있는지 말이오. 그 후에 우리는 신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하여 어느 한 편에 승리를 주실 때까지 다시 싸울 것이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러고 나서 군대 곳곳에서 무리 지어 저녁 식사를 했고, 새벽이 되자 이다이오스가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아레스의 종복들인 다나오스인들이 아가멤논의 배 선미 옆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목소리 큰 전령이 그들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아카이아 군대의 다른 왕들이여. 프리아모스와 다른 고귀한 트로이아인들이 내게 명하여 그대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대들의 뜻이자 기쁨이라면, 알렉산드로스의 말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속이 빈 배들에 싣고 트로이아로 가져온 보물은, 차라리 그가 그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내주고 자기 창고에 있는 것까지 더 얹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의 아내를 주지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로이아인들이 그러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내게 이 말도 그대들에게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불사르고 나면, 그대들이 이 비통한
전쟁을 그만둘 마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신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하시고 어느 한 편에 승리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다시 싸울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들 모두는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함성을 지르는 데 능한
디오메데스가 입을 열었다.

"이제 누구도 알렉산드로스의 보물을 받지 마시오. 헬레네도
받지 마시오.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라도 트로이아인들에게
파멸의 밧줄이 묶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오."

말을 길들이는 자 디오메데스가 이와 같이 말하자,
아카이아인의 모든 아들들이 디오메데스의 말을 찬양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자 아가멤논 왕이 이다이오스에게 말했다.

"이다이오스여, 아카이아인들이 그대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대 스스로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오. 나의 뜻
또한 그들과 같소."

"하지만 죽은 자들에 관해서라면, 그대들이 그들을 화장하는
것을 나는 결코 아까워하지 않겠소. 일단 죽고 나면, 죽은
시신에게 불을 통한 빠른 위안을 주는 것을 그 누구도
아까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오. 하지만 헤라의 남편이며
천둥을 크게 울리는 제우스께서 우리의 맹세에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신들 앞에 홀을 들어 올렸고,
이다이오스는 신성한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그때 트로이아인과 다르다니아인들이 모두 한데 모여
이다이오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다.
이다이오스가 도착하여 그들 가운데 서서 전해온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러자 그들은 두 가지 과업을 위해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데려오기로 했고, 다른 이들은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

그 맞은편에 있던 아르고스인들도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들에서 서둘러 나왔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을 데려오고, 다른 이들은 땔감을 구하러 갔다.

부드럽게 흐르고 깊게 흐르는 오케아노스에서 해가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며 들판을 막 비추기 시작할 무렵, 두 군대가 서로 마주쳤다.

그때는 서로를 다시 알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로 엉겨 붙은 피를 씻어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죽은 자들을 수레 위에 실었다.

하지만 위대한 프리아모스는 자기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몹시 아픈 채로 침묵 속에서 시신들을 장작더미 위에 쌓아 올렸고, 불로 시신들을 태운 뒤에 성스러운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그 맞은편에서는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도 마음이 몹시 아픈 채로 시신들을 장작더미 위에 쌓아 올렸고, 불로 시신들을 태운 뒤에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고 밤과 빛 사이의 어둠이 남아 있을 때, 아카이아인의 정예 부대가 장작더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장작더미 둘레에 평원의 흙을 쌓아 모두를 위한 봉분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성벽과 높은 방벽을 쌓아 자신들과 배들을 방어할 요새를 만들었다.

그들은 전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성벽에 튼튼하게 닫히는 문들을 만들었다. 또한 성벽 밖에는 넓고 거대한 깊은 해자를 팠고, 그 안에 말뚝들을 박아 넣었다.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이렇게 노역을 계속했다.

번개를 다스리는 제우스의 곁에 앉아 있던 신들은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거대한 공사를 보고 경탄했다.

그들 가운데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우스여, 저 끝없는 대지 위에서 필멸의 인간 중에 또다시 불멸의 신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선포할 자가 있겠습니까?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배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쌓고 그 주위에 해자를 팠으나, 신들께 영광스러운 백 마리 소의 제물은 바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분명 그 명성은 새벽이 퍼져 나가는 곳까지 닿을 것이나,
사람들은 저와 포이보스 아폴론이 라오메돈 왕을 위해 애써
쌓은 성벽을 잊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크게 근심하며 그에게
말했다.

"아, 대지를 뒤흔드는 자여, 권세가 넓은 그대여,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만약 그대보다 힘과 능력이 훨씬 약한 다른
신이 있었다면 혹시 이런 일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구려.
하지만 그대의 명성은 분명 새벽이 퍼져 나가는 곳까지 닿을
것이오.

자, 이제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그들의 날랜 배들을
타고 그리운 고국으로 떠나고 나면, 그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바다로 쓸어버리시오. 그리고 넓은
해변을 다시 모래로 덮어버려 아카이아인들의 거대한 성벽이
그대에 의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고, 해가 저물자 아카이아인들의
작업이 끝났다. 그들은 막사 곳곳에서 소를 잡아 저녁 식사를
했다.

한편, 이아손의 아들 에우네우스가 보낸, 포도주를 실은
수많은 배가 렘노스에서 와 있었다. 에우네우스는
힙시필레가 백성의 목자 이아손에게 낳아 준 아들이었다.

에우네우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만을 위해 포도주 천 통을 가져오도록 했다.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이 배들로부터 포도주를 샀다.
어떤 이는 청동을 주고, 어떤 이는 빛나는 철을 주고, 어떤
이는 가죽을 주고, 어떤 이는 소 한 마리 전체를 주고, 어떤
이는 노예를 주고 샀다.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차렸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잔치를
벌였고,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동맹군들도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밤새도록 지혜로운 제우스는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천둥을 치며 그들에게 재앙을 꾸몄다. 그러자 창백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잔에서 포도주를 땅에
쏟아버렸다. 그 누구도 권능이 지고한 크로노스의 아들에게
술을 바치는 제사를 올리기 전에는 감히 마시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리에 누워 잠의 선물을 받았다.

제8권

중단된 전투

이제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온 세상의 표면에 퍼져 나가고 있었다.

벼락을 던지는 제우스는 여러 능선이 있는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신들을 모았고, 직접 그들의 모임에서 말을 꺼냈다. 그러자 모든 신이 귀를 기울였다.

“모든 신과 여신들아, 내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바를 말할 테니 들어라. 어떤 여신도 어떤 신도 내 말을 꺾으려 들지 말고,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라. 그래야 내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룰 것이다.”

"신들 가운데 누구든 몰래 빠져나가 트로이아인이나
다나오스인을 도우려는 자가 눈에 띄면, 그자는 볼썽사납게
얻어맞고 올림포스로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를
붙잡아 저 멀고 먼 어두운 타르타로스, 땅 밑 가장 깊은
구렁으로 내던지리라. 그곳의 문은 쇠로, 문턱은 청동으로
되어 있고, 하늘이 땅 위로 높은 만큼 하데스보다 더 아래에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신 가운데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신들아,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 모두 알게
되리라."

"하늘에서 황금 사슬을 늘어뜨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아 그
끝을 붙잡아라.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는 가장 높은 지혜의
제우스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음먹고 당기면, 땅째로, 바다째로 너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슬을 올림포스의 봉우리에
감아 매면 그 모든 것이 허공에 매달리게 되리라. 나는
신들보다도, 인간들보다도 그만큼 위에 있다."

그가 이같이 말하자, 그들은 모두 그의 말에 경탄하며 침묵에
잠겼다. 그가 신들의 모임에서 매우 능수능란하게 연설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들 사이에서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말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아들이시여, 모든 통치자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시여. 당신의 권능이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완수하게 될 다나오스의 창병들을 가엽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진실로 전투를 삼가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분노 때문에 아르고스인들이 모두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익이 될 조언을 건네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기운을 내거라, 트리토게네이아,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내가 결코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뿐이란다."

그렇게 말하고 제우스는 황금 갈기를 휘날리며 날쌔게 달리는 청동 발굽의 말 두 필을 전차에 맸다.

그는 황금 옷을 몸에 걸치고 잘 만든 황금 채찍을 쥐었다.
그러고는 전차에 올라 채찍으로 말들을 쳐서 출발시켰다.

두 말은 땅과 별이 빛나는 하늘 사이를 거침없이 달렸다.
제우스는 샘이 많고 들짐승의 어머니인 이다 산으로, 그의
성역과 향기로운 제단이 있는 가르가로스 봉우리로 갔다.

그곳에서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말들을 멈춰 세우고
전차에서 풀어 준 뒤, 말들 위로 짙은 안개를 드리웠다. 그는
산봉우리 사이에 앉아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며 트로이아인의
도시와 아카이아인의 배들을 내려다보았다.

한편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막사 곳곳에서 서둘러
식사를 마쳤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마찬가지로 트로이아인들도 도시 곳곳에서 무장을 했다.
그들의 수는 더 적었으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전투에 임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만큼이나
뜨거웠다.

모든 성문이 열리고 보병과 전차병들이 무리 지어 서둘러
나아갔으며, 커다란 소음이 일어났다.

그들이 서로 마주하여 한곳에 이르자, 청동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방패와 창을 부딪치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돌출된 방패들이 서로 맞부딪치며 커다란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살육하는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 소리와
승리의 외침이 한데 섞여 들려왔고, 땅에는 피가 흘러넘쳤다.

아침이 밝아오고 신성한 날이 무르익는 동안, 양편이 던지는
무기는 계속해서 과녁을 맞혔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제우스는 황금
저울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그 저울 위에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을 위한 비극적인 죽음과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을 위한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두 운명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울의 중앙을 붙잡아 들어 올렸고,
아카이아인들의 운명의 날이 아래로 기울었다.

그리하여 아카이아인의 운명은 풍요로운 대지 위로
내려앉았고, 트로이아인의 운명은 넓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제우스는 이다 산에서 천둥을 크게 울리며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한가운데로 번뜩이는 번개를 보냈다.

그 광경을 본 아카이아인들은 경악하였고, 창백한 공포가
모두를 사로잡았다.

그러자 이도메네우스도, 아가멤논도, 아레스의 시종인 두
아이아스도 더는 버틸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카이아인의 수호자인 게레니아의 네스토르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었다. 그의 말이 크게 다쳤던
것이다.

머리칼이 고운 헬레네의 남편인 알렉산드로스가 말의
정수리, 앞머리 갈기가 돋아나는 머리뼈 위, 가장 치명적인
곳에 화살을 쏘아 맞혔다.

그리하여 화살이 말의 뇌에 박히자, 고통에 찔린 말이 높이
뛰어올랐고, 말이 청동 위에서 몸부림치자 말들과 전차가
혼란에 빠졌다.

노인이 달려 나가 칼로 곁말의 봇줄을 끊어 내고 있을 때,
헥토르의 날랜 말들이 소란을 뚫고 달려왔다. 용맹한 마부인
헥토르가 그 위에 타고 있었다.

전투 함성을 잘 내지르는 디오메데스가 재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노인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디오메데스는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오디세우스를 재촉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자 제우스의 혈통인 오디세우스여, 꾀가 많은 오디세우스여! 군중 속에서 겁쟁이처럼 등을 돌린 채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냐? 그대가 도망치다가 누군가 그대의 등에 창을 꽂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이 거친 전사를 늙은 네스토르로부터 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카이아인들의 속이 빈 배들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하지만 티데우스의 아들은 비록 혼자였으나 선두에서 싸우는 이들과 합류했다. 그는 넬레우스의 아들인 노인의 말들 앞에 서서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젊은 전사들이 어르신을 몹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힘은 꺾였고 고통스러운 노년이 어르신을 따르고 있으며, 어르신의 시종은 약골이고 말들은 느릿느릿합니다."

"자, 제 전차에 오르십시오. 트로스의 말들이 어떤지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네이아스에게서 빼앗은 말로, 적을 패주시키는 말들인데 쫓을 때나 달아날 때나 평원을 이리저리 날래게 달리는 데 능합니다.

어르신의 말들은 우리 두 시종에게 맡기시고, 어르신과 저는 이 두 말을 몰아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에게 곧장 달려갑시다. 헥토르도 제 손에서 제 창이 날뛰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도 그 말을 따랐다.

네스토르의 암말들은 용맹한 스테넬로스와 친절한 에우리메돈, 이 두 종이 돌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디오메데스의 전차에 올라탔다.

네스토르는 손에 빛나는 고삐를 쥐고 채찍으로 말들을 가볍게 쳤으며, 말들은 빠르게 헥토르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들을 향해 곧장 돌진해 오자, 티데우스의 아들이 창을 던졌다. 헥토르는 맞히지 못했으나, 고삐를 쥐고 전차를 몰던 그의 시종, 기개 높은 테바이오스의 아들 에니오페우스의 젖가슴 옆을 맞혔다.

그리하여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발 빠른 말들은 그 충격에 옆으로 비껴갔다. 그곳에서 그의 영혼과 힘은 다했다.

그러자 헥토르는 자신의 마부가 쓰러진 것을 보고 두려운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동료를 슬퍼하면서도 그를 그곳에 버려둔 채, 용맹한 마부를 찾아 나섰다. 말 두 필이 주인 없이 오래 있지는 않았다. 곧 이피토스의 아들인 용감한 아르케프톨레모스를 찾아내어 발 빠른 말들의 뒤에 태우고 그의 손에 고삐를 맡겼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파멸이 닥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저질러졌을 것이며, 그들은 일리오스에 갇힌 어린 양들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는 무섭게 천둥을 치며 하얀 번개를 쏘아 올렸고, 디오메데스의 말들 앞 땅바닥으로 그것을 내던졌다. 그러자 타오르는 유황의 무서운 불길이 솟구쳤고, 공포에 질린 두 마리의 말은 전차 아래로 몸을 웅크렸다.

그때 네스토르의 손에서 빛나는 고삐가 미끄러졌고, 그는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디오메데스에게 말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자, 통굽 말들을 돌려 달아나시오.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 보이지 않소?"

"이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저 사람에게 오늘 영광을 내려 주시는 것이오. 만약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영광을 내려 주실 것이오. 하지만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우스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는 없소. 참으로 그분은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이오."

전투 함성을 잘 내지르는 디오메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제 마음과 영혼에 끔찍한 슬픔이 밀려옵니다. 헥토르가 언젠가 트로이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 내 앞에서 도망치며 배들로 달아났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언젠가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넓은 대지가 저를 삼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아, 지혜로운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헥토르가 그대를 겁쟁이요 약골이라 불러도, 트로이아인도 다르다니아인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오. 그대가 그 씩씩한 남편들을 먼지 속에 쓰러뜨린, 방패 든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도 믿지 않을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통굽 말들을 돌려 소란 속을 뚫고 달아났다.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는 놀라운 함성을 지르며 신음을 부르는 무기를 그들에게 퍼부었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티데우스의 아들아, 날랜 말을 모는 다나오스인들은 누구보다 너를 높여 상석과 고기와 가득 찬 잔으로 대접했지만, 이제는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보아하니 너는 계집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 겁쟁이 꼭두각시여, 물러가라! 내가 물러서지 않는 한 너는 우리 성벽에 오르지도, 우리 여인들을 배에 태워 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죽음을 안겨 주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티데우스의 아들은 말머리를 돌려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하며 마음이 갈렸다.

그는 마음과 영혼이 세 번이나 흔들렸고, 그때마다 지혜로운 제우스가 이다 산에서 세 번이나 천둥을 쳐서 트로이아인들에게 징표를 내리고 전투의 흐름을 바꿀 승리를 주었다.

헥토르는 크게 소리치며 트로이아인들을 불렀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 그리고 다르다니아인들이여, 내 친구들이여, 용기를 내어 맹렬한 용맹을 떠올리시오!"

"크로노스의 아들이 기꺼이 내게 승리와 큰 영광을, 다나오스인들에게는 재앙을 주었음을 알겠소. 어리석은 자들이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 성벽을 꾀랍시고 쌓다니. 이 성벽들이 우리의 힘을 막지는 못할 것이며, 우리의 말들은 파놓은 해자를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오.

마침내 내가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에 도달할 때, 그 파괴적인 불길을 잊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불로 배들을 태워 버리고, 나아가 연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르고스인들까지 그들의 배 곁에서 죽여 버릴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자기 말들에게 외쳤다.

"크산토스야, 포다르고스야, 아이톤아, 훌륭한 람포스야,
이제 그 보살핌을 갚아라. 기개 높은 에에티온의 딸
안드로마케가 그토록 넉넉하게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녀의 듬직한 남편이라 자부하는 나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꿀처럼 단 밀을 내주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라고 포도주를
섞어 주었다."

"아니, 서둘러 추격하라. 그러면 우리가 네스토르의 방패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패는 전체가 황금이며
막대기까지도 황금이라, 그 명성이 이제 하늘에까지 닿고
있다. 또한 말을 길들이는 디오메데스의 어깨에서
헤파이스토스가 고생하여 만든 화려하게 장식된 흉갑도
빼앗자.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빼앗을 수만 있다면, 오늘
밤 당장 아카이아인들이 그들의 날랜 배들에 올라타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가 이렇게 뽐내자 위엄 있는 헤라가 노했다. 그녀가
왕좌에서 몸을 떨자 높은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헤라는 위대한 신 포세이돈에게 말했다.

"아, 대지를 뒤흔드는 자여, 널리 다스리는 자여. 그대 가슴에는 죽어 가는 다나오스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없소? 그들은 그대를 위해 헬리케와 아이가이로 숱한 정성스러운 제물을 바치고 있소. 그대도 전에는 그들의 승리를 바라지 않았소?"

"만약 우리 다나오스인들을 돕는 자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트로이아인들을 몰아내고,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제우스를 막아내려 한다면, 그는 화가 나서 저 이다 산 위에 홀로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 마음이 몹시 언짢아져 그녀에게 말했다.

"말을 함부로 하는 헤라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우리 모두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와 다투는 것을 내가 원할 것 같소? 그는 참으로 훨씬 더 강력한 분이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이제 성벽의 해자가 배들이 있는 쪽을 둘러싼 모든 공간은 전차와 방패를 든 군사들이 빽빽하게 모여 채워졌다. 제우스가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였기에,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자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헥토르에게 그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만약 위엄 있는 헤라가 아가멤논의 마음속에 그를 움직여 아카이아인들을 신속히 깨우게 하려는 생각을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헥토르는 타오르는 불길로 그 아름다운 배들을 태워버렸을 것이다.

그는 큼직한 자줏빛 망토를 억센 손에 들고 아카이아인들의 막사와 배들을 따라 걸어갔다.

그는 선체가 거대한 오디세우스의 검은 배 곁에 섰다. 그 배는 진영 한가운데에 있어서, 외치면 양 끝까지, 곧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막사와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소리가 닿았다.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용맹과 완력을 믿고 아름다운 배들을 진영 맨 끝에 대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외침을 내질렀다.

"아르고스인들이여, 부끄러운 자들이여!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자들이여! 우리가 가장 용맹하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자랑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대들이 렘노스에 있을 때,
뿔이 곧은 소들의 고기를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가득 담은
사발로 마시며, 각자가 전투에서 트로이아인 백 명, 아니 이백
명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허풍을 떨던 그 자랑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정작 지금은 곧 타오르는 불길로 우리의 배들을
태워버릴 저 헥토르 한 명과도 맞서지 못하는구나!"

"아버지 제우스여, 이전에도 위대한 왕들 중에서 당신께서
이토록 눈을 멀게 하여 큰 영광을 앗아 가신 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불운한 길
위에서, 당신의 아름다운 제단을 지나치며 소의 기름과
넓적다리를 태워 바치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성벽이 튼튼한 트로이아를 파괴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우스여,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도망쳐 탈출하게 하시고, 아카이아인들이 이토록
트로이아인들에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자, 울며 간청하는 그를 보고 아버지
제우스는 가엾게 여겨 그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허락했다.

제우스는 즉시 날개 달린 새들 중 가장 확실한 징조인 독수리 한 마리를 보냈다. 독수리는 발톱에 날랜 암사슴의 새끼인 새끼 사슴을 쥐고 있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아름다운 제단 곁에 새끼 사슴을 떨어뜨렸다. 아카이아인들이 모든 징조를 내리는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던 곳이었다. 그들은 그 새가 제우스로부터 왔음을 보고는 더욱 격렬하게 트로이아인들에게 달려들며 전투를 생각했다.

다나오스인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티데우스의 아들보다 먼저 날랜 말을 몰아 해자를 넘어가 적과 맞붙었다고 뽐낼 수 없었다.

그는 트로이아인 가운데 맨 먼저 투구를 쓴 전사, 프라드몬의 아들 아겔라오스를 죽였다. 아겔라오스가 달아나려고 말을 돌리는 순간, 디오메데스가 그의 두 어깨 사이 등에 창을 꽂아 가슴까지 꿰뚫었다.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그가 입은 갑옷이 챙그랑 울렸다.

그 뒤를 이어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인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왔고, 그 뒤에는 맹렬한 용맹을 갖춘 두 아이아스가 왔다.

그 뒤에는 이도메네우스와, 사람을 죽이는 에니알리오스와 맞먹는 이도메네우스의 동료 메리오네스가 왔으며, 그 뒤에는 에우아이몬의 영광스러운 아들 에우리필로스가 왔다.

테우크로스는 아홉 번째로 나타나 활을 뒤로 젖혀 당기며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방패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아스가 방패를 옆으로 비켜 주면, 테우크로스는 사방을 살피다가 활을 쏘았다. 화살에 맞은 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테우크로스는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숨듯 아이아스에게 돌아가 몸을 숨겼고, 아이아스는 언제나 빛나는 방패로 그를 가려 주었다.

그렇다면 비길 데 없는 테우크로스가 트로이아인 가운데 맨 먼저 죽인 자는 누구였는가? 오르실로코스, 오르메노스, 오펠레스테스, 다이토르, 크로미오스, 신과 같은 리코폰테스, 폴리아이몬의 아들 아모파온, 그리고 멜라니포스였다.

그는 이들 모두를 차례차례 풍요로운 대지로 쓰러뜨렸다.

그가 강력한 활로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초토화하는 것을 보고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기뻐했다.

아가멤논은 테우크로스에게 다가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텔라몬의 아들이자 군대의 대장인 테우크로스여,
그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활을 쏜다면 다나오스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고, 그대를 갓난아기 때 키워 주었으며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소중히 보살펴 준
아버지 텔라몬의 영광이 될 것이오. 비록 아버지가 멀리
계실지라도, 그대가 그분을 명예롭게 해 드리시오."

"또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그대에게 선언하겠소.
만약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와 아테나가 내가 잘 지어진
일리오스의 성채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내 자신
다음으로 그대의 손에 가장 먼저 명예로운 보상을 안겨
주겠소. 그것은 세발솥이거나, 전차를 끄는 말 두
마리이거나, 아니면 그대의 침소로 들어갈 여인이 될
것이오."

그러자 비길 데 없는 테우크로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스스로도
열망하고 있는 나를 어찌하여 자꾸 재촉하시오? 진실로 나는
힘이 닿는 한 멈추지 않고 있소. 우리가 그들을 일리오스로
몰아붙였을 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활을 들고
매복하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소.

나는 이제 미늘 달린 화살 여덟 발을 쏘아 보냈고, 그 화살들은 모두 전투에 능한 젊은이들의 살 속에 박혔소. 오직 이 미친 개만을 나는 칠 수 없구려."

그는 말을 마치고 활시위에서 화살 하나를 더 쏘아 헥토르를 향해 곧장 날렸다. 그는 헥토르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비록 헥토르는 맞히지 못했으나, 그는 비길 데 없는 고르기티온을 화살로 가슴에 맞혔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용맹한 아들이었으며, 아이시메에서 시집온 여인인, 여신과 같이 아름다운 카스티아네이라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투구의 무게로 인해, 마치 봄비에 열매가 무겁게 열린 정원의 양귀비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떨구었다.

테우크로스는 활시위에서 화살 하나를 더 쏘아 헥토르를 향해 곧장 날렸다. 그는 헥토르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아폴론이 그의 화살을 빗나가게 했기에 그는 다시 한번 헥토르를 맞히지 못했다. 대신 그는 헥토르의 용맹한 마부인 아르케프톨레모스를 전투를 향해 서둘러 나아가던 중에 가슴의 젖꼭지 옆을 맞혔다.

그리하여 아르케프톨레모스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발 빠른 말들은 그 충격에 옆으로 비켜났다. 그곳에서 그의 영혼과 힘이 다했다. 그러자 헥토르의 마음은 마부를 잃은 두려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하지만 헥토르는 전우를 위해 슬퍼하면서도 그를 그곳에 그대로 둔 채, 근처에 있던 자신의 형제 케브리오네스에게 말들의 고삐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케브리오네스는 그 말을 듣고 지체 없이 따랐다.

그리고 헥토르 자신은 번쩍이는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며 무시무시한 외침을 내질렀다. 그는 손에 돌을 움켜쥐고 테우크로스를 향해 곧장 겨누었으며, 그의 마음은 그를 내리치라고 재촉했다.

테우크로스는 화살통에서 매서운 화살 하나를 꺼내 시위에 올려 놓았다. 하지만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를 내리친 것은 그가 시위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헥토르는 쇄골이 목과 가슴으로 갈라지는, 가장 치명적인 부위인 어깨 옆을 그에게 내리쳤다. 테우크로스가 그를 향해 간절히 겨누고 있을 때, 헥토르는 울퉁불퉁한 돌로 그를 내리쳐 활시위를 끊어 놓았다.

그러나 테우크로스의 손목은 감각이 없어졌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으며 활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아이아스는 형제의 쓰러짐을 못 본 체하지 않았다. 그는 달려가 형제의 몸 위로 올라서서 방패를 앞세워 가리개로 삼았다.

그러자 에키오스의 아들 메키스테우스와 용맹한 알라스토르, 이 두 충직한 동료가 그의 아래로 몸을 굽혔다. 그들은 무겁게 신음하는 그를 부축하여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러자 올림포스의 신이 다시 한번 트로이아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었다. 트로이아인들은 아카이아인들을 깊은 해자 쪽으로 곧장 몰아붙였고, 헥토르가 자신의 힘을 뽐내며 선두에서 나아갔다.

사냥개가 빠른 발로 멧돼지나 사자를 뒤쫓으며, 짐승이 몸을 돌릴 때 옆구리나 엉덩이를 뒤에서 낚아채려 노리는 것처럼, 헥토르도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을 압박하며 맨 뒤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였다. 아카이아인들은 패주하며 쫓겨났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은 패주하며 말뚝과 해자를 넘어
달아났고, 많은 이들이 트로이아인들의 손에 쓰러졌다.
그제야 그들은 배들 곁에서 멈추어 머물며 서로를 불렀고,
모든 신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헥토르는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이리저리
몰았는데, 그의 눈은 고르고의 눈이나 필멸의 인간들에게
재앙인 아레스의 눈과 같았다.

그들을 본 흰 팔의 여신 헤라는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곧바로
아테나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우리
둘이 멸망해 가는 다나오스인들을 위해, 이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더 마음을 쓰지 않겠느냐? 이제 저들은 악한
운명의 잔을 가득 채우고, 단 한 명의 공격 앞에 쓰러져
멸망하려 하는구나. 지금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도를
넘어 날뛰며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자가 고향 땅에서 아르고스인들의 손에
죽어 힘도 목숨도 잃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 모진 마음으로 노하고 계십니다. 늘 잔인하고
제멋대로이시며 제 뜻을 가로막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에우리스테우스의 과업에 시달리던 그분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제가 몇 번이나 구해 주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때마다 제우스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내 그를 돕게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에우리스테우스가 그를 문을 지키는 하데스의 집으로 보내어 에레보스에서 혐오스러운 하데스의 사냥개를 데려오게 했을 때, 제가 마음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스틱스의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우스는 저를 미워하시며, 테티스의 계략을 실현하셨습니다. 테티스는 제우스의 무릎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턱을 붙잡으며, 도시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에게 예우를 갖추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언젠가 제우스께서 다시 저를 눈빛이 번뜩이는 사랑스러운 딸이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둘을 위해 통굽 말들을 매어 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궁전에 들어가
싸움을 위한 갑옷을 입겠습니다. 우리가 싸움터의 한복판에
나타나면, 투구가 번쩍이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과연 기뻐할지 두고 봅시다.

아니, 틀림없이 트로이아인 가운데 많은 자가
아카이아인들의 배 앞에서 쓰러져 개와 새들에게 기름과
살점을 내줄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흰 팔의 여신 헤라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위엄 있는 여신이자 위대한 크로노스의 딸인 헤라는 황금
장식의 굴레를 쓴 말들에게 마구를 채우며 이리저리
움직였다.

한편,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자신이 직접
수놓고 손수 만든 화려한 자수의 부드러운 옷을 아버지의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의 튜닉을 입고, 눈물겨운
전쟁을 위한 갑옷을 갖추어 입었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불타는 전차에 올라타 무겁고
거대하며 강력한 창을 움켜쥐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딸인
아테나는 그 창으로 자신이 분노한 전사들의 대열을
정복한다.

헤라는 채찍으로 말들을 빠르게 몰았다. 그러자 계절의
여신들이 지키고 있는, 위대한 하늘과 올림포스를 맡은
하늘의 문들이 스스로 신음하며 열렸다. 계절의 여신들은
짙은 구름을 걷어내거나 닫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문을 통해 채찍질을 견뎌내는 말들을 몰고
나아갔다.

하지만 아버지 제우스가 이다 산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몹시 분노하여 황금 날개를 가진 이리스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냈다.

“날랜 이리스야, 어서 가거라.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를 직접
마주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전투를 벌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전차 아래에 있는 그들의 날랜 말들을 다치게 할 것이며, 그들 자신을 전차 밖으로 내던지고 전차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번개가 그들을 내리친 상처는 열 해가 지나도록 낫지 않을 것이니, 번뜩이는 눈을 가진 그녀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헤라에 대해서는 그토록 큰 분노나 화를 품지는 않겠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언제나 나를 방해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뒤, 폭풍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는 그의 전갈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이다 산에서 높은 올림포스로 향했다.

골짜기 많은 올림포스의 바깥 문에서, 이리스는 그들을 만나 가로막고 제우스의 말씀을 전했다.

"그대들 둘은 어디로 그리 서둘러 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그대들의 가슴 속 마음이 미쳐 날뛰는 것이냐?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대들이 아르고스인들을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가 이와 같이 위협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들의 전차 아래에 있는 날랜 말들을 다치게 할 것이며, 그대들 자신을 전차 밖으로 내던지고 전차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번개가 그대들을 내리쳐 입힌 상처는 열 해가 지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니, 번뜩이는 눈을 가진 그대여, 그대가 자신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헤라에 대해서는 그토록 큰 분노나 격분을 품고 있지는 않으니, 그녀는 그가 무엇을 결정하든 언제나 그를 방해하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진정으로 제우스에게 맞서 그 강력한 창을 들어 올릴 용기가 있다면, 너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대담하고 파렴치한 것아."

발 빠른 이리스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다. 헤라가 아테나에게 말했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아, 제발 그만하자! 필멸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 둘이 제우스에게 맞서 전쟁을 벌이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들 중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살게 내버려 두자,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운명인 대로 말이다. 제우스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트로이아인과 다나오스인 사이를 적절히 판결하게 하자."

헤라는 이렇게 말하고 통굽 말들을 돌렸다.

그러자 계절의 여신들이 그들을 위해 갈기가 아름다운 말들의 멍에를 풀어 주었다. 여신들은 말들을 신성한 먹이통에 매어 두고, 전차를 빛나는 입구 벽에 기대어 놓았다.

두 여신은 마음속 깊이 괴로워하며 다른 신들 사이의 황금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아버지 제우스는 이다에서 바퀴가 잘 굴러가는 전차와 말들을 몰아 올림포스로 왔고, 신들의 회의장에 도착했다.

유명한 대지를 뒤흔드는 자는 그를 위해 말들의 멍에를 풀어 주고 전차를 거치대에 세운 뒤 그 위에 천을 덮었다.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제우스는 직접 황금 왕좌에 앉았고, 그의 발아래에서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다.

오직 아테나와 헤라만이 제우스와 떨어져 앉아 있었으며, 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우스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기에 입을 열어 말했다.

“아테나여, 헤라여, 어찌하여 이토록 슬퍼하고 있느냐? 그대들이 트로이아인들을 향해 경이로운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을 보니, 필멸의 인간들이 영광을 얻는 전투에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일에 지쳐버린 것은 아니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이런 힘과 이길 수 없는 손이 있는 한 올림포스의 모든 신이 나서도 나를 돌려세우지 못한다. 너희 둘은 전쟁과 그 끔찍한 일을 보기도 전에 고운 팔다리가 떨렸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랬다면 반드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너희는 번개를 맞고 전차를 탄 채 불사신들이 사는 올림포스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곁에 앉아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을 꾸미고 있던 아테나와 헤라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테나는 제우스에게 화가 나 격렬한 분노가 그녀를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라는 가슴속에 맺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가장 두려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힘이 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다나오스의 창병들이 가련하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명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전투를 삼가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노여움 때문에 아르고스인들이 모두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조언은 건네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소 같은 큰 눈의 위엄 있는 헤라여,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는 새벽에 크로노스의 가장 강력한 아들이 아르고스의 창병 대군에게 더욱 참혹한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왜냐하면 두려운 헥토르는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이 배들 곁에서 일어나는 날까지는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날은 그들이 배의 선미에서 쓰러진 파트로클로스를 두고 가장 처절한 격전을 벌이는 날이 될 것이오. 하늘이 그렇게 정하였소."

“하지만 나는 그대의 분노를 개의치 않소. 설령 그대가 이아페토스와 크로노스가 머무는 땅과 바다의 가장 깊은 끝까지 간다 해도 말이오. 그곳에는 헬리오스 히페리온의 빛줄기도, 그 어떤 산들바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깊은 타르타로스만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소. 그대가 방랑 끝에 그곳까지 간다 해도 나는 그대의 진노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오. 그대보다 더 뻔뻔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오.”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흰 팔의 헤라는 대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곡물을 주는 대지의 얼굴 위로 검은 밤을 불러오는 태양의 밝은 빛이 오케아노스 속으로 떨어졌다.

트로이아인들의 의지에 반하여 낮의 빛은 고통스럽게 저물었으나, 아카이아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그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밤의 어둠이 찾아왔다.

그때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트로이아인들을 불러 모아, 소용돌이치는 강가에 있는 배들로부터 떨어진 탁 트인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곳은 시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땅이 깨끗한 곳이었다.

그들은 제우스가 사랑하는 헥토르가 그들 사이에서 전하는 말을 듣기 위해 전차에서 내려 땅을 밟았다.

그의 손에는 열한 완척이나 되는 창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황금 고리가 둘러진 청동 창끝이 번뜩였다.

그는 창에 몸을 기대고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말을 시작했다.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 그리고 동맹군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들을 파괴하고 모든 아카이아인을 몰살한 뒤, 바람 부는 일리오스로 돌아가려 했소.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이 무엇보다도 지금 아르고스인들과 해변에 있는 그들의 배들을 구했소."

"그러니 지금은 검은 밤에 순응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합시다. 그대들은 전차에서 갈기 아름다운 말들을 풀어 주고 먹이를 던져 주시오. 그리고 도시에서 소와 훌륭한 양들을 재빨리 가져오고, 각자의 집에서 달콤한 포도주와 빵을 가져오시오. 더불어 나무를 넉넉히 모아 두어, 이른 새벽까지 밤새도록 수많은 불을 피워 그 빛이 하늘에 닿게 합시다. 혹시라도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이 밤을 틈타 넓은 바다를 건너 서둘러 도망칠지도 모르니 말이오."

"아니오, 참으로 그들이 배에 올라탈 때 결코 수월하거나 싸움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오. 많은 자가 배에 뛰어오르다 화살이나 날카로운 창에 맞아, 집에 가서도 곱씹을 상처를 안고 가게 하시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이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을 상대로 눈물 어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시다."

"제우스가 아끼는 전령들이 도시 곳곳에 선포하게 하시오. 머리칼이 희끗한 노인들과 어린 소년들이 신들이 세운 도시의 성벽 주위로 모여들게 하시오. 그리고 여인들은 각자의 집 안에서 커다란 불을 피우게 하시오. 군대가 들판에 나가 있는 동안 매복이 도시로 들어오지 않도록 부지런히 경계를 서게 하시오.

마음이 드높은 트로이아인들이여, 내가 선포한 대로 이와 같이 행합시다. 지금으로서는 이 조언이 충분히 훌륭하고 타당할 것이오. 더 많은 것을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새벽이 오면 선포하겠소."

"나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께, 운명이 낳아 검은 배를 타고 온 이 개 같은 자들을 이곳에서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비록 오늘 밤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겠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갑옷을 갖춰 입고 속이 빈 배들 앞에서 격렬한 전투를 일으킵시다.

티데우스의 아들인 강한 디오메데스가 나를 배에서 성벽 쪽으로 밀어낼지, 아니면 내가 청동 무기로 그를 죽이고 그의 피 묻은 전리품을 챙기게 될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내일이면 그는 자신의 용맹을 확인하게 될 것이오. 과연 나의 창이 달려드는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말이오. 아니, 내 생각에는 그는 내 창에 찔려 쓰러져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그의 수많은 동료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오.

오늘 이 날이 아르고스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 또한 영원히 늙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 아테나와 아폴론처럼 존경받기를 원하오."

헥토르가 모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트로이아인들이 크게 소리 높여 환호했다.

그들은 땀 흘리는 말들을 멍에 아래에서 풀어 가죽끈으로 묶어 각자 자신의 전차 옆에 두었다.

또한 그들은 도시에서 황소와 훌륭한 양들을 재빨리
가져왔고, 집에서 달콤한 포도주와 빵을 가져왔으며, 더불어
풍성한 땔감도 모았다.

그리고 불멸의 신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백 마리 소의
제물을 바쳤다.

평원에서 바람이 하늘로 향기로운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였으나, 복된 신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지도 않았고 먹을 마음도 내지 않았다.

신들은 신성한 일리오스와 프리아모스, 그리고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프리아모스의 백성을 철저히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전쟁의 제방을 따라 밤새 머물렀고,
그들의 모닥불은 수없이 많이 타올랐다.

바람이 불지 않아 공기가 고요할 때, 하늘에서 빛나는 달
주위로 별들이 맑게 빛나며 모든 산봉우리와 높은 곶, 그리고
빈터가 눈앞에 나타나고, 무한한 대기가 열려 모든 별이
보이며 목자가 마음속으로 기뻐할 때와 같았다.

트로이아인들이 일리오스 앞에서 피워 올린 불꽃들이 배들과
크산토스 강 사이에서 그와 같이 수없이 많이 빛났다.

평원에는 천 개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타오르는 불빛 아래에서 각 불꽃마다 쉰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흰 보리와 스펠트 밀을 먹는 그들의 말들은 전차 곁에 서서, 화려한 왕좌에 앉은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9권

아킬레우스에게 간 사절

이처럼 트로이아인들은 파수를 섰으나, 아카이아인들은
얼어붙게 하는 공포의 시녀, 신이 보낸 엄청난 공황에
사로잡혔고, 가장 뛰어난 자들은 모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마치 트라키아에서 불어오는 북풍과 서풍, 두 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쳐 물고기 많은 바다를 휘저으면, 검은 파도가 곧바로
물마루를 치켜세우며 바닷가에 해초를 잔뜩 내던지는 것과
같았다. 아카이아인들의 마음도 그렇게 가슴속에서 갈가리
찢겼다.

그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극심한 슬픔에 가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는 목소리가 맑은 전령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집회로 모으되 큰 소리로 외치지는
말라고 일렀다. 그리고 그 자신도 앞장서서 애써 일했다.

그들은 몹시 괴로워하며 집회 자리에 앉았다. 아가멤논이 울면서 일어섰는데, 마치 검은 물의 샘이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어두운 물줄기를 쏟아 내리는 듯했다.

그는 깊이 신음하며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크로노스의 아들 위대한 제우스께서 나를 비통한 눈멂에 단단히 얽어매셨소. 잔인한 신이오!"

"그분은 예전에, 성벽이 튼튼한 일리오스를 함락하기 전에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소. 그런데 이제는 잔인한 속임수를 꾸미시어, 수많은 군사를 잃은 나더러 영광도 없이 아르고스로 돌아가라 하시오.

수많은 도시의 성채를 허물어 왔고 앞으로도 허무실, 권능이 가장 큰 제우스의 뜻이 그러한가 보오. 그분의 힘은 모든 것 위에 있으니 말이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배를 타고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달아납시다. 넓은 길을 가진 트로이아를 함락할 희망은 이제 더는 없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은 슬픔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마침내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의 어리석음에 맞서 내가 먼저 따지겠소. 왕이여, 집회에서는 그것이 마땅한 법도이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일찍이 다나오스인들 앞에서 내 용맹을 헐뜯으며, 내가 전사가 아니라 약골이라고 했소. 아카이아인이라면 젊은이고 노인이고 모두 그 일을 알고 있소.

그런데 그대에게는 꾀가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이 반쪽만 내려 주었소. 홀로써는 모든 이보다 존경받게 해 주었으나, 가장 큰 힘인 용맹은 주지 않았소.

이상한 왕이여, 그대는 정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그대 말처럼 그토록 싸울 줄 모르는 약골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그대 자신의 마음이 돌아가기를 갈망한다면, 그저 떠나가시오. 그대 앞에는 길이 놓여 있고, 미케네에서 그대를 따랐던 그 수많은 배들이 바닷가에 서 있소.

하지만 머리칼 긴 다른 아카이아인들은 우리가 트로이아를 황폐하게 만들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오.

아니, 그들도 배를 타고 그들의 사랑하는 고국으로 도망치게 두시오. 그래도 우리 둘, 스테넬로스와 나는 일리오스의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오.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왔기 때문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말을 길들이는 자 디오메데스의 말을 찬양하며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모두 크게 소리쳤다.

그러자 기사 네스토르가 일어나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전투에서 모든 사람보다 강력하고, 의논할 때에도 그대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오. 아카이아인 중 그 누구도 그대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오. 다만 그대는 할 말을 끝까지 다 하지는 않았소."

"게다가 그대는 참으로 젊으니, 내 막내아들뻘이오. 하지만 그대는 옳은 바에 따라 말하고 있으니, 아르고스의 군주들에게 신중한 조언을 해 주고 있구려.

자, 이제 그대보다 나이가 많다고 자처하는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분명히 밝히겠소. 누구도, 아가멤논 왕조차도 내 말을 업신여기지는 못할 것이오.

자기 동족 사이에서 무서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씨족도 법도 화덕도 없는 자요."

"하지만 지금은 검은 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성벽 밖에 파 놓은 해자를 따라 파수꾼들을 각자 배치하도록 합시다.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이 임무를 맡기겠소. 하지만 그 뒤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가 앞장서시오. 그대는 가장 왕다운 자이기 때문이오.

그대는 원로들을 위한 잔치를 여시오. 그것이 그대에게 마땅하고 품위 있는 일이 될 것이오. 넓은 바다를 건너 트라키아에서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이 매일 그대에게 가져다주는 포도주로 그대의 막사는 가득 차 있소. 그대는 많은 이들의 왕이니, 온갖 종류의 즐길 거리도 곁에 두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많은 이가 모이면, 가장 지혜로운 계책을 내놓는 이를 따르시오. 적들이 배 가까이에서 수많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으니, 모든 아카이아인에게는 훌륭하고 신중한 계책이 절실하오. 이것을 보고 누가 기뻐하겠소? 오늘 밤이 우리 군대를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구하든지 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파수꾼들이 무장을 갖추고 서둘러 나갔다. 그 우두머리는 백성의 목자인 네스토르의 아들 트라시메데스, 아레스의 아들들인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 메리오네스, 아파레우스, 데이피로스, 그리고 크레온의 아들인 훌륭한 리코메데스였다.

파수꾼들의 대장은 일곱 명이었고, 대장 한 명당 긴 창을 손에 든 청년 백 명씩이 함께했다.

그들은 가서 해자와 성벽 사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각자 식사를 준비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아카이아인 원로들을 모두 자기 막사로 데려가, 마음을 흡족하게 할 잔치를 차려 주었다.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좋은 음식에 손을 뻗었다.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을 다 채우자, 노인 네스토르가 맨 먼저 그들을 위해 계책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예부터 그의 조언은 언제나 가장 훌륭해 보였다.

그는 선한 뜻을 품고 모인 이들에게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그대에게서 말을 시작하여 그대에게서 끝을 맺겠소. 그대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고,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홀과 법도를 맡기시어 백성을 위해 계책을 세우게 하셨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대야말로 누구보다도 말도 하고 귀도 기울여야 하며, 다른 이가 마음이 시켜 우리에게 이로운 말을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어야 하오. 누가 무엇을 시작하든 결정은 그대에게 달려 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하겠소.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품어 온 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오. 제우스의 후손인 왕이여, 그대가 노한 아킬레우스의 막사에서 처녀 브리세이스를 우리 뜻과는 전혀 달리 데려가 버린 그날부터 품어 온 생각이오.

나는 그때 그대를 말리려고 무척 애썼소. 하지만 그대는 오만한 마음에 굴복하여, 신들조차 존중하는 가장 강한 사내를 욕보였소. 그의 전리품을 빼앗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오."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친절한 선물과 부드러운 말로 그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인장, 그대가 내 눈먼 어리석음을 말한 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소. 내가 눈이 멀었었음을 나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겠소. 제우스께서 마음으로 아끼시는 사람은 많은 군대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법이오. 지금 제우스께서 이 사람을 높이시려고 아카이아인의 군대를 꺾고 계시듯 말이오.

그러나 내가 눈이 멀어 비참한 마음에 굴복했으니, 이제 보상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상을 하려 하오."

"그대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하나하나 말하겠소. 불에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세발솥 일곱
개와 황금 열 탈란톤, 번쩍이는 가마솥 스무 개, 그리고
경주에서 이겨 그 빠른 발로 상을 타 온 튼튼한 말 열두
마리요.

내 통굽 말들이 상으로 타 온 것만큼의 재산을 가진 자라면,
재물이 없다 할 수도, 귀한 황금이 없다 할 수도 없을 것이오."

"또한 훌륭한 손일에 능한 레스보스 여인 일곱 명을 주겠소.
그가 몸소 잘 지어진 레스보스를 함락하던 날, 내가 전리품
가운데서 골라 둔 여인들로, 아름다움에서는 모든 여인을
능가하오.

이 여인들을 그에게 주겠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때
데려갔던 브리세우스의 딸도 있을 것이오. 그리고 나는
엄숙한 맹세도 하겠소. 그녀의 침상에 오른 적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법도대로 그녀와 몸을 섞은 적도 결코 없다고
말이오."

"이 모든 것은 당장 그의 손에 넘겨주겠소. 만약 나중에
신들께서 우리에게 프리아모스의 큰 도시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전리품을 나누고 있을
때 그가 들어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의 배에 금과 청동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자신은 아르고스의 헬레네 다음으로
아름다운 트로이아 여인 스무 명을 직접 고르게 하시오.

만약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땅인 아카이아의 아르고스로
돌아간다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오. 나는 풍족하게 자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오레스테스를 예우하듯 그를 귀하게
대접할 것이오."

"나의 잘 지어진 궁전에는 크리소테미스, 라오디케,
이피아나사라는 세 딸이 있소. 그는 그중 마음에 드는 딸을
혼인 예물 없이 펠레우스의 집으로 데려가도 좋소.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딸에게 딸려 보낸 적이 없을 만큼
넉넉한 지참금을 주겠소.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일곱 곳을 그에게 주겠소.
카르다밀레와 에노페, 풀이 무성한 히레, 신성한 페라이,
목초지가 깊은 안테이아, 아름다운 아이페이아, 그리고
포도덩굴로 뒤덮인 페다소스 말이오."

“그 도시들은 모두 바다 가까이, 모래가 많은 필로스의 맨 끝 경계에 있소. 그곳에는 양 떼와 소 떼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은 그를 신처럼 선물로 받들고, 그의 홀 아래서 넉넉한 공물을 바칠 것이오.

그가 분노만 거둔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겠소.

그는 굽혀야 하오. 하데스는 달랠 수도 꺾을 수도 없는 신이라, 그래서 모든 신 가운데 필멸의 인간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것이오.”

“그리고 그는 내게 굽혀야 하오. 내가 더 높은 왕이고, 나이도 그보다 많으니 말이오.”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이여, 그대가 아킬레우스 왕에게 제안하는 그 선물들을 이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소. 그러니 자, 이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즉시 찾아갈 사람들을 뽑아 보내도록 합시다.

아니, 차라리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하게 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제우스께서 아끼시는 포이닉스가 앞장서게 하고, 그 뒤를 위대한 아이아스와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따르게 합시다. 그리고 전령 중에서는 오디오스와 에우리바테스가 그들을 수행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손 씻을 물을 가져오고, 모두 경건하게 입을 다물라 이르시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기도를 올려, 그분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지 보도록 말이오."

그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들었다. 전령들이 그들의 손에 물을 부었고, 젊은이들은 섞는 동이에 술을 넘치도록 채워 잔마다 신께 바칠 첫 방울을 먼저 따른 뒤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신께 술을 바치고 마음껏 마신 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를 나섰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듭 눈길을 보내며, 특히 오디세우스에게,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을 설득해 보라고 단단히 일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아이아코스의 아들의 굳센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대지를 떠받치고 뒤흔드는 신에게 수없이 기도하며 크게 울리는 바다의 기슭을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미르미돈인들의 막사와 배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맑은 소리를 내는 리라를 타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리라에는 은으로 된 줄받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가 에에티온의 도시를 무너뜨렸을 때 전리품 가운데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리라로 마음을 달래며 영웅들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노래했다. 오직 파트로클로스만이 그의 맞은편에 말없이 앉아, 아이아코스의 아들이 노래를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갔는데,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앞장섰다. 그들은 아킬레우스의 앞에 섰다.

아킬레우스는 놀라서 리라를 손에 든 채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파트로클로스도 그들을 보고 마찬가지로 일어났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두 사람을 맞으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참으로 반가운 벗들이 왔구려. 몹시 다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오. 내가 이렇게 노여워하는 중에도 그대들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이들이오.”

그렇게 말하며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그들을 안으로 이끌어 자줏빛 깔개를 덮은 의자에 앉혔다.

그러고는 곧바로 곁에 있던 파트로클로스에게 말했다.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여, 더 큰 동이를 내놓고 술을 더 진하게 섞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잔을 마련해 주시오. 내 지붕 아래 와 있는 이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니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소중한 전우의 말을 따랐다.

그는 불빛 속에 고기 써는 커다란 도마를 내려놓고, 그 위에 양의 등살과 살진 염소의 등살, 그리고 기름이 두툼한 큰 돼지의 등심을 올려놓았다. 아우토메돈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고기를 잘랐다.

아킬레우스는 고기를 정성껏 썰어 꼬챙이에 꿰었고, 신과 같은 사내인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은 불길을 높이 피워 올렸다.

하지만 불이 사그라들고 불길이 잦아들자, 그는 잔불을 흩뜨리고 그 위에 꼬챙이들을 놓았다. 그리고 꼬챙이들을 불받침 위에 올려놓은 뒤 고기 조각들에 신성한 소금을 뿌렸다.

고기를 다 구워 쟁반에 담아 놓자, 아킬레우스가 고기를 나누어 주는 동안 파트로클로스는 빵을 가져와 아름다운 바구니에 담아 식탁 위에 나누어 놓았다.

아킬레우스 자신은 맞은편 벽 쪽,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마주 보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전우인 파트로클로스에게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일렀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는 첫 제물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그들은 눈앞에 차려진 좋은 음식에 손을 뻗었다.

먹고 마시고 싶은 마음을 다 채우자, 아이아스가 포이닉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이를 알아채고는 잔에 포도주를 채워 아킬레우스를 향해 들어 올렸다.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건강을 위하여! 고루 나누는 잔치라면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었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에서도, 지금 그대의 막사에서도 마음껏 먹을 것이 넉넉하오.

하지만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지금 우리 마음은
맛있는 잔치에 있지 않소. 우리는 엄청난 파멸을 눈앞에 보고
두려워하고 있소. 그대가 힘을 떨쳐 입지 않는다면, 노 젓는
자리가 있는 배들을 우리가 지켜 낼지, 아니면 배들이 모두
망가질지 알 수 없소."

"배들과 성벽 근처에 기세등등한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이름 높은 동맹군들이 진을 쳤소. 그들은 군대 곳곳에 많은
불을 피웠으며,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우리의 검은 배들을 덮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는 그들의 오른쪽으로 번개를 쳐
길조를 보여 주고 계시오. 그리고 헥토르는 제우스를 믿고
크게 기세등등하여 맹렬히 날뛰고 있소. 그는 거대한 광기에
사로잡혀 인간도 신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소."

"그의 기도는 신성한 새벽이 최대한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는 배 고물의 맨 꼭대기 장식을 베어 내고,
집어삼킬 듯한 불길로 선체 자체를 태워 버리겠다고
선언했소. 또한 연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유린하겠다고 말했소."

"그래서 내 마음은 몹시 두렵소. 신들이 그의 호언장담을 이루어 주어,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트로이아에서 우리가 죽을 운명이 될까 봐 말이오.

그러니 일어나시오. 늦게라도 트로이아인들의 함성에 시달리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구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오. 훗날 그대 자신에게 슬픔이 될 것이고, 한번 저지른 불행은 고칠 길이 없소.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 다나오스인들에게서 재앙의 날을 막아 낼지 생각하시오."

"친구여, 그대의 아버지 펠레우스께서 프티아에서 그대를 아가멤논에게 보내던 날, 분명 이렇게 당부하셨소. '내 아들아, 아테나와 헤라께서 마음이 내키시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슴속의 오만한 마음을 억눌러라. 너그러운 마음이 더 나은 법이다. 그리고 재앙을 꾸미는 다툼에서는 물러나거라. 그래야 아르고스인들이 젊은이고 늙은이고 너를 더욱 존경할 것이다.'

그 노인은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대는 잊어버렸구려. 하지만 지금이라도 멈추고, 쓰라린 분노를 떨쳐 버리시오."

"그대가 분노를 거둔다면, 아가멤논은 그대에게 걸맞은 선물들을 주겠다고 하오. 자,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아가멤논이 자기 막사에서 그대에게 약속한 선물들을 모두 일러 주겠소.

불에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세발솥 일곱 개와 황금 열 탈란톤, 번쩍이는 가마솥 스무 개, 그리고 경주에서 이겨 그 빠른 발로 상을 타 온 튼튼한 말 열두 마리요. 아가멤논의 말들이 빠른 발로 타 온 상만큼의 재산을 가진 자라면, 재물이 없다 할 수도, 귀한 황금이 없다 할 수도 없을 것이오."

"또한 그는 훌륭한 손일에 능한 레스보스 여인 일곱 명을 주겠다고 하오. 그대가 몸소 잘 지어진 레스보스를 함락하던 날, 그가 전리품 가운데서 골라 둔 여인들로, 아름다움에서는 모든 여인을 능가하오.

그는 이 여인들을 그대에게 줄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는 그가 그때 데려갔던 브리세우스의 딸도 있을 것이오. 그리고 왕이여, 그는 엄숙한 맹세도 하겠다고 하오. 그녀의 침상에 오른 적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법도대로 그녀와 몸을 섞은 적도 결코 없다고 말이오."

"이 모든 것들이 즉시 그대의 손에 준비될 것이오. 만약 나중에 신들께서 우리에게 프리아모스의 큰 도시를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다면,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전리품을 나누고 있을 때 그대는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때 그대는 그대의 배에 금과 청동을 가득 채우고, 아르고스의 헬레네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트로이아 여인 스무 명을 직접 고르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땅인 아카이아의 아르고스로 돌아가면, 그대는 그의 아들이 될 것이오. 그는 모든 풍요 속에서 자라난 사랑하는 아들 오레스테스처럼 그대를 예우할 것이오."

"그의 잘 지어진 궁전에는 크리소테미스, 라오디케, 이피아나사라는 세 딸이 있소. 그대는 그중 마음에 드는 딸을 혼인 예물 없이 펠레우스의 집으로 데려가도 좋소. 게다가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딸에게 딸려 보낸 적이 없을 만큼 넉넉한 지참금을 주겠다고 하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일곱 곳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하오. 카르다밀레와 에노페, 풀이 무성한 히레, 신성한 페라이, 목초지가 깊은 안테이아, 아름다운 아이페이아, 그리고 포도덩굴로 뒤덮인 페다소스 말이오."

"그 도시들은 모두 바다 가까이, 모래가 많은 필로스의 맨 끝 경계에 있소. 그곳에는 양 떼와 소 떼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들은 그대를 신처럼 선물로 받들고, 그대의 홀 아래서 넉넉한 공물을 바칠 것이오.

그대가 분노만 거둔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오."

"하지만 만약 그대가 마음속으로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그가 가져온 예물들을 너무도 미워한다면, 적어도 군대 전체에서 큰 곤경에 처한 나머지 아카이아인들에게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들은 그대를 마치 신처럼 공경할 것이며, 그대는 그들 앞에서 참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헥토르를 죽일 수도 있소. 그가 파멸적인 분노 속에서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오. 헥토르는 이곳으로 배들이 실어 온 다나오스인들 중에 자기와 견줄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내 생각대로, 또 실제로 이루어질 그대로, 내 말을 거침없이 해야겠소. 그대들이 내 곁에 이쪽저쪽 앉아 끝없이 졸라 대지 않도록 말이오.

마음속에 한 가지를 숨기고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내게는 하데스의 문만큼이나 가증스럽소. 나는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대로 말하겠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도, 다른 다나오스인들도 나를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오. 쉬지 않고 적과 싸워 봐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모양이니 말이오.

뒤에 처져 있는 자나 힘껏 싸우는 자나 몫은 똑같고, 겁쟁이나
용사나 똑같은 대접을 받소. 빈둥거리는 자나 많은 일을 한
자나 죽기는 매한가지요.

늘 싸움에 목숨을 걸고 마음 졸이며 고생했건만,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소."

"어미 새가 무엇이든 찾아내면 부리에 물어다 아직 깃도 나지
않은 새끼들에게 먹이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고생하듯,
나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새웠고, 그들의 여인들을
위해 전사들과 싸우며 피투성이 나날을 싸움터에서 보냈소."

"나는 배를 타고 가서 사람 사는 도시 열두 곳을 무너뜨렸고,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서는 걸어서 열한 곳을 무너뜨렸소. 그
모든 곳에서 훌륭한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 하나도 빠짐없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가져다주었소.

그런데 그는 날랜 배들 곁에 뒤처져 있다가, 그것을 받아서는
조금만 나누어 주고 대부분은 자기가 차지했소. 일부는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소.

그런데 아카이아인 가운데 오직 나에게서만 그는 마음에
드는 내 아내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소."

"그녀 곁에 누워 실컷 즐기라고 하시오. 그런데
아르고스인들은 왜 트로이아인들과 싸워야 하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왜 군대를 모아 이곳까지 이끌고 왔소?

머리칼 고운 헬레네 때문이 아니었소? 필멸의 인간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들뿐이란 말이오?

제대로 된 사내이고 분별 있는 자라면 누구나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이오. 나 또한 그녀가 비록 창으로 얻은
포로였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했소."

"그런데 이제 그가 내 품에서 내 전리품을 빼앗고 나를
속였으니, 그를 잘 아는 나를 떠보려 하지 말라 하시오. 그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오.

오디세우스여, 그더러 그대와 다른 왕들과 함께 배들에서 집어삼키는 불길을 막을 궁리나 하라고 하시오. 그는 내 도움 없이도 참 많은 일을 해냈소. 보시오, 성벽을 쌓고 그 바로 앞에 넓고 큰 해자를 파서 말뚝까지 박아 두었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힘은 막아 내지 못하고 있소."

"내가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싸우는 동안에는, 헥토르는 성벽에서 멀리 나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카이아이 성문과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만 나오곤 했소. 한번은 거기서 홀로 나를 기다렸다가, 내 공격을 간신히 피해 달아났소."

"그러나 이제 나는 훌륭한 헥토르와 싸울 마음이 없으니, 내일 제우스와 모든 신께 제물을 바치고, 배들에 짐을 가득 실어 바다로 끌어 내리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른 새벽 물고기 많은 헬레스폰토스 위로 내 배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배마다 노를 저으려 안달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오.

대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신께서 순조로운 항해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사흘째 되는 날 흙이 기름진 프티아에 닿을 것이오."

"고향에는 이리로 오는 불운한 길을 나설 때 두고 온 재산이 아주 많소. 여기서도 금과 붉은 청동, 허리띠 고운 여인들과 잿빛 쇠를 더 가져갈 것이오. 모두 제비뽑기로 내게 돌아온 것들이오. 그러나 내 전리품만은, 그것을 준 자가 오만하게 도로 빼앗아 갔소. 바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오.

내가 이르는 대로 그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전하시오. 그가 늘 뻔뻔함을 옷처럼 두르고 다니니, 혹시라도 다른 다나오스인을 또 속이려 든다면 다른 아카이아인들도 분노하도록 말이오."

"하지만 그는 개 같은 낯짝을 하고서도 감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할 것이오."

"나는 그와 어떤 의논도, 어떤 일도 함께하지 않겠소. 그는 나를 철저히 속였고 내게 죄를 지었소.

다시는 그가 말로 나를 속이지 못할 것이오. 한 번이면 족하오.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그의 분별을 다 빼앗아 가셨으니, 제 발로 편히 파멸하러 가라고 하시오.

그의 선물은 내게 가증스러울 뿐이오. 나는 그것을 털끝만큼도 여기지 않소."

"그가 지금 가진 것의 열 배, 스무 배를 준다 해도, 어디서 얻었든 거기에 또 다른 것을 보탠다 해도, 오르코메노스로 들어오는 재물이나, 집집마다 보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이집트의 테바이로 들어오는 재물을 다 준다 해도 소용없소.

테바이는 성문이 백 개나 되는 도시로, 문마다 이백 명의 전사가 말과 전차를 몰고 나온다오. 그가 모래알이나 먼지만큼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내 마음을 찌른 이 모든 모욕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아가멤논은 결코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오."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딸과도 혼인하지 않겠소. 그녀가 아름다움으로는 황금빛 아프로디테와 겨루고, 솜씨로는 눈이 빛나는 아테나와 맞먹는다 해도, 나는 그녀와 혼인하지 않겠소. 그더러 아카이아인 가운데 자기와 격이 맞고 나보다 더 왕다운 자를 고르라고 하시오.

신들께서 나를 지켜 주시어 내가 집에 돌아가면, 펠레우스께서 몸소 내게 아내를 구해 주실 것이오. 헬라스와 프티아에는 도시를 지키는 우두머리들의 딸인 아카이아 처녀들이 많소. 그 가운데 내가 고르는 이를 사랑하는 아내로 삼을 것이오."

"그곳에서 내게 걸맞은 아내를 정식으로 맞아, 늙으신 펠레우스께서 얻어 두신 재산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내 기개 속에 여러 번 일었소.

내게는 목숨만큼 값진 것이 없소.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오기 전 평화롭던 시절에, 사람 많은 성채 일리오스가 지녔다는 그 모든 재산도 목숨에는 견줄 수 없소.

바위투성이 피토에서 활의 신 포이보스 아폴론의 돌 문턱이 둘러싼 그 모든 보물도 마찬가지요."

"소와 살진 양은 빼앗아 올 수 있고, 세발솥과 밤색 말도 얻을 수 있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은 한번 이의 울타리를 넘어가면, 빼앗아 올 수도 얻을 수도 없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소."

"내 어머니, 은빛 발의 여신 테티스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갈래 운명이 나를 죽음의 끝으로 데려간다 하셨소. 내가 여기 머물러 트로이아인의 도시를 두고 싸우면, 귀향은 잃겠지만 내 명성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빛나는 명성은 잃겠지만 목숨은 오래 이어지고, 죽음의 끝도 내게 서둘러 닥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겠소. 가파른 일리오스의 끝장을 볼 희망은 이제 없으니 말이오.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그 도시 위로 힘차게 손을 뻗고 계시고, 그곳 백성은 용기로 가득 차 있소."

"그대들은 가서 아카이아인의 우두머리들에게 내 말을 전하시오. 그것이 원로들의 몫이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이보다 나은 다른 계책을 궁리해, 배들과 속 빈 배 곁의 아카이아인 군대를 구하게 하시오.

내 분노가 이리 사나우니, 그들이 지금 궁리한 계책은 이루어질 수 없소."

"다만 포이닉스는 여기 우리와 함께 남아 잠자리에 들게 하시오. 그가 원한다면 내일 내 배를 타고 함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오.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에 놀라 잠잠해졌다.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늙은 기사 포이닉스가 그들 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는 아카이아인의 배들이 몹시 걱정되었다.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여, 네가 정말 돌아갈 생각을 마음에 품고, 분노가 가슴에 내려앉아 날랜 배들에서 집어삼키는 불길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어찌 너 없이 여기 홀로 남겠느냐?”

“늙은 기사 펠레우스께서 너를 프티아에서 아가멤논에게 보내던 날, 나도 함께 딸려 보내셨다. 그때 너는 아직 어린아이라, 험한 전쟁도, 사람들이 이름을 떨치는 집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말도 잘하고 일도 잘 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 없이 여기 홀로 남고 싶지 않다. 신께서 몸소 내 늙음을 벗겨 내고, 내가 처음 헬라스를 떠나던 날처럼 젊고 튼튼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해도 말이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고장 헬라스를 떠난 것은, 오르메노스의 아들인 내 아버지 아민토르와의 다툼을 피해서였다.
아버지는 머리칼 고운 첩 때문에 내게 몹시 노하셨다. 그 첩을 늘 아끼고, 아내인 내 어머니를 업신여기셨지.”

"그래서 어머니는 내 무릎을 붙잡고, 내가 먼저 그 첩과 정을 통해 달라고 줄곧 애원하셨다. 그러면 첩이 그 노인을 미워하게 될 테니 말이다."

"나는 어머니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곧 알아차리고 나를 무섭게 저주하며,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식이 결코 자기 무릎에 앉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무서운 에리니에스에게 빌었다. 그리고 신들, 곧 지하의 제우스와 두려운 페르세포네께서 그 저주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날카로운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 마음먹었다. 그러나 불멸의 신 가운데 누군가가 내 분노를 가라앉혔다. 사람들의 소문과 숱한 비난을 내 마음에 떠올려 주어, 내가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아비를 죽인 자로 불리지 않게 한 것이다."

"그 뒤로는 노한 아버지의 집에 더 머물러 지낼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를 둘러싸고 거듭 간청하며 집에 붙잡아 두려 했다.

그들은 살진 양과 느릿느릿 걷는 윤기 나는 소를 수없이 잡았고, 기름진 돼지도 많이 헤파이스토스의 불길 위에 펼쳐 놓고 털을 그슬렸다. 그 노인의 항아리에서 포도주도 넉넉히 꺼내 마셨다."

"아흐레 밤 동안 그들은 내 곁에서 밤을 새웠다. 번갈아 파수를 서며 불도 꺼뜨리지 않았는데, 하나는 담장 두른 안뜰의 주랑 아래, 또 하나는 내 방 문 앞 현관에 피워 두었다.

그러나 열 번째 어두운 밤이 찾아오자, 나는 단단히 맞춰진 방문을 부수고 나가, 파수꾼들과 여종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안뜰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 뒤 나는 드넓은 헬라스를 가로질러 멀리 달아나, 양 떼의 어머니인 흙이 기름진 프티아로 펠레우스 왕을 찾아갔다. 그분은 나를 기꺼이 맞아 주셨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버지가 아끼듯 나를 아껴 주셨다.

그분은 나를 부유하게 해 주시고 많은 백성을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프티아의 맨 끝 변방에 살며 돌로피아인들을 다스렸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너를 지금의 너로 키운 것은 나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너는 다른 누구와도 잔치에 가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 밥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무릎에 앉히고, 먼저 고기를 잘라 배불리 먹이고, 포도주 잔을 입에 대 주어야만 했지.

너는 어린 마음에 포도주를 뱉어 내 가슴께 옷을 자주 적시곤 했다."

"그렇게 나는 너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썼다.
신들께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끝내 주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훗날 네가 나를 비참한 파멸에서 구해 주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야, 네 오만한 기개를 다스려라. 무정한 마음을 품는 것은 너답지 않다. 신들조차 마음을 굽히신다. 그분들의 덕과 영예와 힘이 훨씬 더 크신데도 말이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향과 경건한 서원과 신께 바치는 술과 제물 굽는 냄새로 신들께 빌어 그 마음을 돌린다.

기도의 여신들은 위대한 제우스의 딸들인데, 절뚝거리고 주름투성이에 곁눈질을 하며, 늘 미망의 여신 아테의 뒤를 쫓느라 애쓴다.

그러나 아테는 힘이 세고 발이 빨라 그들 모두를 멀찍이 앞질러, 온 땅을 누비며 사람들을 넘어뜨린다. 기도의 여신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상처를 고치려 한다."

"누구든 제우스의 딸들이 다가올 때 공경하면, 그들은 그를 크게 돕고 그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물리치고 완강하게 거절하면, 그들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가서, 아테가 그자를 따라붙어 그가 넘어져 값을 치르게 해 달라고 빈다.

그러니 아킬레우스야, 너도 제우스의 딸들에게 마땅한 공경을 바쳐라. 그 공경은 다른 훌륭한 이들의 마음도 굽히게 하는 것이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선물을 내놓지도 않고 앞으로 줄 것을 말하지도 않은 채 줄곧 사납게 노해 있기만 했다면, 나도 아르고스인들이 아무리 절박해도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너에게 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당장 많은 선물을 주고 앞으로 더 주겠다고 약속하며, 아카이아인 군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아르고스인 가운데 네게 가장 소중한 이들을 골라 너에게 간청하러 보냈다.

그들의 말도, 그들이 이곳에 온 걸음도 업신여기지 마라. 지금까지는 네가 노한 것을 아무도 탓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옛 영웅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들었다. 그들에게 사나운 분노가 닥쳐도, 선물로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말로 달랠 수 있었다고."

"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일이 어떠했는지, 여기 모인 친구들 모두에게 들려주마.

옛날 쿠레테스인들과 싸움에 굳센 아이톨리아인들이 칼리돈 도시를 둘러싸고 싸우며 서로 죽이고 있었다.
아이톨리아인들은 사랑스러운 칼리돈을 지키고,
쿠레테스인들은 전쟁으로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다."

"황금 옥좌의 아르테미스께서 노하시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오이네우스가 기름진 과수원의 첫 수확을 그분께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신들은 백 마리 소의 제물을 즐겼는데,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만 바치지 않았다. 잊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는 크게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러자 제우스의 딸, 활 쏘는 여신께서 노하시어 흰 엄니를 가진 사나운 멧돼지를 보내셨다. 멧돼지는 오이네우스의 과수원을 짓밟으며 큰 해를 끼쳤다. 키 큰 나무들을 숱하게 뿌리째, 사과꽃까지 달린 채로 뽑아 땅에 내던졌다.

그러나 오이네우스의 아들 멜레아그로스가 여러 도시에서 사냥꾼과 사냥개를 모아 그 멧돼지를 죽였다. 워낙 거대해서 적은 수로는 잡을 수 없었고, 그 멧돼지는 이미 많은 사람을 슬픈 화장 장작더미에 올려 보낸 뒤였다."

"그런데 여신께서 그 멧돼지의 머리와 털 많은 가죽을 두고 쿠레테스인들과 기개 높은 아이톨리아인들 사이에 큰 소란과 함성을 일으키셨다. 아레스가 아끼는 멜레아그로스가 싸우는 동안에는 쿠레테스인들의 형편이 나빴고, 그들은 수가 많았는데도 성벽 밖에서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분노가 멜레아그로스에게 스며들었다. 분노는 지혜로운 자들의 가슴속 마음마저 부풀게 하는 법이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알타이아에게 마음으로 노하여, 결혼한 아내인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 곁에 틀어박혀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에우에노스의 딸인 발목 고운 마르페사와,
당시 땅 위의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셌던 이다스의 딸이었다.
이다스는 그 발목 고운 처녀를 두고 포이보스 아폴론 왕에게
맞서 활을 들기까지 했다.”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는 옛날 집에서 그 딸을
할키오네라고 불렀다. 멀리서 활을 쏘는 아폴론에게
낚아채여 갔을 때, 어머니가 슬픔 많은 물총새 같은 신세가
되어 울었기 때문이다.”

“멜레아그로스는 그녀 곁에 누워, 어머니의 저주에 노하여
쓰라린 분노를 삭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오라비를 죽인 것을 슬퍼하며 신들에게 간절히 빌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가슴팍을 적시며, 만물을 기르는
대지를 두 손으로 거듭 내리치고, 하데스와 두려운
페르세포네를 불러 아들에게 죽음을 내려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어둠 속을 걷는 무정한 에리니스가 에레보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얼마 안 가 성문 주위에서 적들의 함성이 일고 성벽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아이톨리아의 원로들은 신들의 사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들을 보내, 멜레아그로스에게 나와서 도와 달라고 빌며 큰 선물을 약속했다.

사랑스러운 칼리돈 들판에서 가장 기름진 곳에 쉰 마지기의 좋은 땅을 골라 갖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절반은 포도밭, 절반은 나무 없는 밭이었다."

"늙은 기사 오이네우스는 지붕 높은 방 문턱에 올라서서, 단단히 짜 맞춘 문짝을 흔들며 아들에게 간절히 빌었다.

누이들과 존귀한 어머니도 간절히 빌었지만, 그는 더욱 완강히 거절했다.

그에게 가장 충직하고 소중한 벗들도 간청했지만, 그의 가슴속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의 방이 거세게 얻어맞고, 쿠레테스인들이 성벽에 올라 큰 도시에 불을 지르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다."

"그제야 허리띠 고운 아내가 울며 멜레아그로스에게 애원하며, 도시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닥치는 온갖 불행을 일러 주었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도시는 불에 타 버리고, 아이들과 허리띠를 낮게 맨 여인들은 남의 손에 끌려간다고.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는 나가서 번쩍이는 갑옷을 몸에 걸쳤다.”

“이렇게 그는 제 마음을 따라 아이톨리아인들에게서 재앙의 날을 막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고 훌륭한 선물을 끝내 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재앙을 막아 준 것이다.

그러나 얘야, 너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라. 신께서 너를 그 길로 이끄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배들이 이미 불타고 있을 때는 구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니 선물을 받을 수 있을 때 나서거라. 아카이아인들이 너를 신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선물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전투에 뛰어든다면, 전투를 막아 낸다 해도 그만한 존경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포이닉스 아버님,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시여, 저는 그런 존경은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우스께서 정해 주신 몫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몫은 제 가슴에 숨이 붙어 있고 무릎이 움직이는 한,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서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 그 전사의 비위를 맞추려고, 울며
슬퍼하여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그를 아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아버님을 아끼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자는 저와 함께 괴롭히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똑같이 왕이 되시어 제 영예를 절반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들이 제 말을 전할 것입니다. 아버님은 여기 머무시며
부드러운 침상에서 주무십시오. 날이 밝으면 고향으로
돌아갈지 여기 남을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파트로클로스에게 말없이 눈썹으로
신호를 보내 포이닉스를 위해 두툼한 잠자리를 펴게 했다.
다른 이들이 어서 막사를 떠날 생각을 하도록 말이다.

그러자 텔라몬의 신과 같은 아들 아이아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이제 갑시다. 이렇게 와 보았자 우리가 맡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쯤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다나오스인들에게 어서 전해야 하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가슴속 오만한 기개를 사납게 만들어 버렸소. 잔인한 사람이오! 우리가 배들 곁에서 누구보다 그를 떠받들었던 전우들의 우정도 아랑곳하지 않는구려. 무정한 사람이오!

보시오, 형제를 죽인 자에게서도, 죽은 아들의 값으로도 사람들은 배상을 받소. 그러면 죽인 자는 큰 값을 치르고 제 나라에 머물 수 있고, 친족도 배상을 받고 마음과 기개를 누그러뜨리는 법이오."

"그런데 그대의 가슴에는 신들께서 고작 처녀 하나 때문에 굽힐 줄 모르는 모진 마음을 심어 놓으셨구려. 우리는 지금 그대에게 가장 뛰어난 여인 일곱을 주고, 다른 선물도 많이 주겠다는데 말이오.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대의 집을 존중하시오. 우리는 다나오스인의 군대를 대표해 그대의 지붕 아래 왔고,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대와 가깝고 소중한 사이이고 싶소."

그러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 텔라몬의 아들, 군대의 우두머리 아이아스여, 그대의 말은 모두 내 마음과 거의 같소.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은 분노로 부풀어 오르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떠돌이인 것처럼 나에게 모욕을 준 일을 생각하면 말이오."

"그대들은 가서 내 말을 전하시오. 지혜로운 프리아모스의 아들, 훌륭한 헥토르가 아르고스인들을 죽이며 미르미돈인의 막사와 배에까지 이르러 배들에 불을 지르기 전에는, 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생각하지 않겠소. 하지만 헥토르가 아무리 싸움에 목말라 있어도, 내 막사와 검은 배 주위에서는 멈추게 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저마다 손잡이 둘 달린 잔을 들어 신께 술을 바친 뒤, 오디세우스를 앞세우고 늘어선 배들을 따라 돌아갔다.

파트로클로스는 동료들과 시녀들에게 포이닉스를 위해 곧바로 두툼한 잠자리를 펴라고 일렀다. 그들은 그 말대로 양털 가죽과 깔개와 고운 아마포를 깔아 잠자리를 마련했다.

노인은 그곳에 누워 밝은 새벽을 기다렸다. 아킬레우스는 잘 지어진 막사의 가장 안쪽에서 잠들었는데, 그의 곁에는 레스보스에서 데려온 여인, 포르바스의 딸인 뺨이 고운 디오메데가 누워 있었다.

파트로클로스는 맞은편에 누웠고, 그의 곁에도 허리띠 고운 이피스가 누워 있었다.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에니에우스의 도시인 험준한 스키로스를 함락했을 때 그에게 준 여인이었다.

다른 이들이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이르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황금 잔을 들어 그들을 맞으며 이것저것 물었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맨 먼저 물었다.

"자, 말해 보시오, 크게 칭송받는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그가 배들에서 집어삼키는 불길을 막아 줄 생각이오, 아니면 거절하고 여전히 오만한 기개에 분노가 가득하오?"

그러자 인내심 강한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그는 분노를 끌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욱
격분해 있으며, 그대도 그대의 선물도 마다하오.

그대더러 아르고스인들과 의논하여 배들과 아카이아인의
군대를 어떻게 구할지 직접 궁리하라고 하오. 그리고 자기는
날이 밝는 대로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굽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겠다고 으르고 있소.”

“또 다른 이들에게도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 권하겠다고
했소. 그대들이 가파른 일리오스의 끝장을 볼 희망은 이제
없다면서 말이오.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제우스께서 그
도시 위로 힘차게 손을 뻗고 계시고, 그곳 백성은 용기로 가득
차 있다고 했소.

그가 그렇게 말했소. 나와 함께 갔던 이들, 아이아스와 분별
있는 두 전령도 여기 있으니, 그들도 그대에게 이것을 말해 줄
것이오.”

“그리고 노인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가 시킨 대로 그곳에
남아 잠자리에 들었소. 원한다면 내일 아킬레우스의 배를
타고 함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떠나게 하려는 것이오. 억지로
데려가지는 않겠다고 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그 말에 놀라 잠잠해졌다. 그가 모인 이들 앞에서 그토록 단호하게 전했기 때문이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그대가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에게 애원하지도,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약속하지도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그러잖아도 오만한데, 그대가 그를 훨씬 더 오만하게 만들어 버렸소.

하지만 이제 그는 내버려 둡시다. 떠나든 머물든 그가 알아서 할 일이오. 그는 나중에 가슴속 마음이 시키고 신이 그를 일으킬 때 싸울 것이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지금은 고기와 포도주로 마음을 채운 뒤 잠자리에 드시오. 거기에 용기와 힘이 있으니 말이오.

그리고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아름다운 새벽이 나타나는 대로, 그대는 곧바로 배들 앞에 군사와 전차를 늘어세우고 그들을 격려하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도 맨 앞에서 싸우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든 왕이 말을 길들이는 자
디오메데스의 말에 감탄하며 찬성했다.

그들은 신께 술을 바치고 저마다 자기 막사로 돌아가, 누워서
잠의 선물을 받았다.

제10권

돌론과 밤의 정탐

아카이아인 군대의 다른 장수들은 모두 배 곁에서 부드러운 잠에 빠져 밤새 자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마음속으로 이것저것 궁리하느라 달콤한 잠에 들지 못했다.

머리칼 고운 헤라의 남편이 말할 수 없이 거센 비나 우박이나 들판에 눈송이를 흩뿌리는 눈을 준비할 때, 또는 쓰라린 전쟁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릴 때 번개를 번쩍이듯, 아가멤논도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신음을 토했고, 그의 심장은 속에서 떨렸다.

그가 트로이아 평원 쪽을 바라볼 때마다, 일리오스 앞에서 타오르는 수많은 모닥불과 피리와 퉁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놀라곤 했다.

그러나 배들과 아카이아인 군대 쪽을 바라볼 때면, 그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제우스에게 호소하며 머리카락을 뿌리째 숱하게 쥐어뜯었고, 고귀한 가슴속으로 크게 신음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를 찾아가, 다나오스인 군대에서 재앙을 막아 낼 훌륭한 계책을 함께 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어나 앉아 가슴에 튜닉을 입고, 빛나는 발에 고운 샌들을 묶었다.

그러고 나서 발까지 내려오는, 불빛처럼 붉고 커다란 황갈색 사자 가죽을 몸에 걸치고 창을 움켜쥐었다.

메넬라오스 역시 떨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역시 눈꺼풀 위로 잠이 내려앉지 않았으니, 이는 그를 위해 넓은 바다를 건너 트로이아까지 와서 마음속으로 격렬한 전쟁을 생각하는 아르고스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얼룩무늬가 있는 표범 가죽으로 넓은 어깨를 덮고, 청동 투구를 들어 머리에 썼으며, 튼튼한 손으로 창을 움켜쥐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아르고스인을 힘 있게 다스리며 백성에게 신처럼 존경받는 형을 깨우러 길을 나섰다.

메넬라오스는 형이 배 고물 곁에서 아름다운 갑옷을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아가멤논은 그가 오자 반가워했다.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형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장을 하고 계시오? 동료 가운데 누군가를 깨워 트로이아인들을 정탐하게 하려는 것이오? 하지만 이 불멸의 밤에 홀로 나가 적들을 정탐하는 이 일을 맡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몹시 두렵소. 그 일을 하려면 참으로 대담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오.”

그러자 아가멤논 왕이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그대와 나에게는 아르고스인들과 배들을 지키고 구해 낼 영리한 계책이 필요하오. 제우스의 마음이 돌아섰으니 말이오.

제우스께서는 우리 제물보다 헥토르의 제물에 마음이 더 기우신 모양이오. 제우스께서 아끼시는 헥토르가, 여신의 아들도 신의 아들도 아니면서 혼자서 하루 만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에게 저지른 것만큼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꾸몄다는 이야기를, 나는 본 적도 남에게서 들은 적도 없소.”

“그가 아카이아인들을 상대로 꾸민 재앙이 너무나 많아서, 그가 저지른 일들은 아르고스인들에게 영원토록 슬픔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하지만 이제 가서 늘어선 배들을 따라 재빨리 달려가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를 이리로 불러오시오. 그러면 내가
훌륭한 네스토르에게 가서, 그가 파수꾼들의 신성한 무리에
가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길 마음이 있다면 일어나라고
말하겠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네스토르의 말을 잘 들을 것이오.
그의 아들과 이도메네우스의 동료인 메리오네스가
파수꾼들의 대장이기 때문이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 임무를 맡겼으니 말이오."

그러자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가 대답했다.

"그대의 명령은 무슨 뜻이오? 내가 그들과 함께 거기 머물며
그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아니면 그들에게 그대의
명령을 제대로 전한 뒤에 다시 그대에게 달려와야 하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거기 머물러 있으시오. 오가다가 서로 엇갈릴지도 모르오.
진영 곳곳에 길이 많으니 말이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소리
높여 사람들을 깨우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며 모두를 높여 주시오. 우쭐대지 말고, 우리가
몸소 수고합시다. 제우스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거운 고난을 지우신 모양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할 일을 단단히 일러 아우를 보냈다.

아가멤논은 백성의 목자 네스토르를 찾아갔다. 네스토르는 자기 막사와 검은 배 곁의 부드러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곁에는 화려하게 꾸민 무구, 곧 방패와 창 두 자루와 빛나는 투구가 놓여 있었다.

번쩍이는 허리띠도 곁에 있었다. 노인은 사람을 죽이는 전투에 나가려고 무장할 때마다 그 허리띠를 매고 백성을 이끌었다. 그는 괴로운 노년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스토르는 팔꿈치를 짚고 머리를 들어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든 이 캄캄한 밤에, 홀로 배들을 따라 진영을 돌아다니는 그대는 누구요? 노새나 동료를 찾고 있소? 말하시오. 말없이 다가오지 마시오. 무슨 일이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대답했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나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오. 내 가슴에 숨이 붙어
있고 무릎이 움직이는 한, 제우스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끝없는 고난 속에 밀어 넣으셨소. 내가 이렇게 헤매는 것은
달콤한 잠이 눈에 내려앉지 않기 때문이오. 전쟁과
아카이아인들의 불행이 나를 괴롭히고 있소."

"나는 다나오스인들이 몹시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고, 영광스러운 내 사지는 떨리고 있소.

그대도 잠이 오지 않으니 무언가 하고 싶다면, 함께
파수꾼들에게 가 봅시다. 그들이 고된 일과 졸음 때문에
잠들어서 경계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오.

적들이 바로 근처에 야영하고 있으니, 그들이 밤중에라도
싸우려 들지 않을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소."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자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이여.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헥토르가 지금 품은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것이오. 아니, 내 생각에는 아킬레우스가 그 고통스러운 분노에서 마음을 돌린다면, 헥토르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속에서 애를 써야 할 것이오.

그럼에도 나는 기꺼이 그대를 따르겠소. 하지만 창으로 이름난 티데우스의 아들과 오디세우스, 그리고 날랜 아이아스와 필레우스의 용맹한 아들도 함께 깨웁시다."

"그리고 누군가 가서 신과 같은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도 불러오기를 바라오. 그들의 배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전혀 가까이 있지 않소. 나는 메넬라오스를 꾸짖겠소. 그가 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일지라도, 그대가 나에게 화를 낼지라도 나는 내 생각을 숨기지 않겠소. 그는 이렇게 잠들어 있고, 그대가 혼자 애쓰도록 내버려 두었소. 지금이야말로 그가 모든 장수를 찾아다니며 간청하고 애써야 할 때요. 더는 견딜 수 없는 위기가 닥쳤으니 말이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노인장, 다른 때라면 내가 오히려 그를 꾸짖으라고 권하겠소. 그는 자주 느슨하고 애쓰려 하지 않으니 말이오. 게으르거나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늘 나만 쳐다보며 내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오.

하지만 지금은 나보다 먼저 깨어 내게 왔고, 내가 그를 보내 그대가 묻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소. 자, 갑시다. 성문 앞 파수꾼들 사이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오. 그곳에 모이라고 일러 두었소."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에게 재촉을 하든, 혹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든, 아르고스인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화를 내거나 거역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가슴에 튜닉을 여몄고, 빛나는 발 아래에는 고운 샌들을 묶었으며, 솜털이 두툼하게 든 넓고 두 겹으로 된 자줏빛 망토를 몸에 둘렀다.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청동이 달린 강력한 창을 움켜쥐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사이로 길을 떠났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먼저 지혜가 제우스와 맞먹는 오디세우스를 소리쳐 잠에서 깨웠다. 그 소리가 곧바로 마음에 울리자, 오디세우스는 막사에서 나와 그들에게 말했다.

"이 불멸의 밤에 어찌하여 그대들만 이렇게 진영의 배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오? 무슨 다급한 일이 생겼소?"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노여워 마시오. 아카이아인들에게 큰 슬픔이 덮쳤소."

"자, 따라오시오. 달아날지 싸울지 의논해야 할 다른 이도 깨웁시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는 막사로 가서 화려하게 꾸민 방패를 어깨에 메고 그들을 따라나섰다.

그들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갔다. 그는 무구를 곁에 둔 채 막사 밖에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방패를 베고 그 주위에 잠들어 있었고, 창은 밑동의 쇠꼬챙이를 땅에 꽂아 똑바로 세워 두었다. 그 청동이 아버지 제우스의 번개처럼 멀리까지 번쩍였다.

용사는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 아래에는 들판에서 기른 황소의 가죽이 깔려 있었고, 머리 밑에는 빛나는 깔개가 펼쳐져 있었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발꿈치로 툭 건드려 깨우고는, 면전에서 꾸짖었다.

"일어나시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어찌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소? 트로이아인들이 평원의 언덕에 배들 바로 곁에 진을 치고 있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좁은 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디오메데스는 잠에서 재빨리 벌떡 일어나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참으로 억척스러우십니다. 쉬지도 않고 애쓰십니다. 군대 곳곳을 다니며 왕들을 하나하나 깨울 수 있는 더 젊은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은 정말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친구여, 그대 말이 다 옳소. 내게는 훌륭한 아들들이 있고, 백성도 많으니 그 누구라도 가서 다른 이들을 부를 수 있소. 하지만 지금 아카이아인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소. 아카이아인들이 비참하게 망하느냐 사느냐가 이제 모두에게 칼날 위에 서 있소.

그러니 가서 날랜 아이아스와 필레우스의 아들을 깨우시오. 그대가 더 젊으니 말이오. 나를 가엾게 여긴다면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디오메데스는 발까지 내려오는, 불빛처럼 붉고 커다란 사자 가죽을 어깨에 걸쳤다.

그는 창을 움켜쥐고 길을 나서, 그 용사들을 있던 자리에서 깨워 데려왔다.

그들이 모여 있는 파수꾼 무리에 이르러 보니, 파수꾼의 우두머리들은 잠들지 않고 모두 무장한 채 깨어 앉아 있었다.

마치 우리 안의 양 떼를 지키는 개들이, 산속 숲을 헤치고 다가오는 사나운 짐승의 소리를 듣고 괴롭게 밤을 새우는 것과 같았다. 짐승을 둘러싸고 사람과 개들의 소란이 크게 일면, 개들에게서 잠이 달아나 버린다.

그처럼 험한 밤을 지키는 그들의 눈꺼풀에서도 달콤한 잠이 달아났다. 그들은 트로이아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릴까 하여 줄곧 평원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을 보자 노인은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날개 돋친 말로 그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지금처럼 계속 잘 지켜라. 아무도 잠에 빠지지 마라. 적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해자를 서둘러 건너갔고, 회의에 불려 온 아르고스인 왕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 메리오네스와 네스토르의 빛나는 아들도 함께 갔다. 왕들이 몸소 그들을 회의에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 놓은 해자를 건너 밖으로 나가, 쓰러진 시신이 보이지 않는 빈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곳은 강력한 헥토르가 아르고스인들을 죽이다가 밤이 덮치자 되돌아갔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가운데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친구들이여, 제 용기를 믿고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 속으로 들어가 볼 사람은 정녕 아무도 없소? 혹시 적의 낙오병을 하나 죽이거나, 트로이아인들 사이에 도는 소문을 엿들을 수 있을지 모르오. 그들이 무슨 계책을 의논하는지, 아카이아인을 이겼으니 여기 배들 곁에 머물려는지, 아니면 도시로 다시 물러가려는지 말이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무사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하늘 아래 모든 사람 사이에서 그의 명성이 드높아지고 훌륭한 선물도 받게 될 것이오.

배들을 거느린 장수들이 저마다 젖먹이 새끼 양이 딸린 검은 암양을 한 마리씩 줄 것이오. 그 어떤 재물도 이에 견줄 수 없소. 그리고 그는 잔치와 술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그때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네스토르 어르신, 제 마음과 기개가 가까이 있는 적진,
트로이아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저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와 함께 간다면 더 든든하고 더 대담해질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가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수를 알아챕니다. 혼자서는 무언가를 알아채더라도 생각이
짧고 꾀도 얕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디오메데스를 따라가겠다는 이가
많았다.

아레스의 시종인 두 아이아스가 따라가겠다고 나섰고,
메리오네스도, 네스토르의 아들도 몹시 가고 싶어 했다.

창으로 이름난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도 나섰고,
굳센 오디세우스도 트로이아인들의 무리 속으로 숨어들고
싶어 했다. 그의 가슴속 기개는 언제나 대담했던 것이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여, 내 마음에 소중한 이여,
나서는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를 그대가 원하는 대로
동료로 고르시오. 가겠다는 이가 많으니 말이오.”

“체면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남겨 두고 더 못한 사람을 데려가지는 마시오. 체면에 밀려 가문을 따지지 말란 말이오. 상대가 더 높은 왕이라 해도 말이오.”

그는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가 걱정되어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자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가 다시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그대들이 정녕 나더러 몸소 동료를 고르라 한다면, 내가 어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를 잊겠소? 그는 온갖 고난에 누구보다 마음과 기개가 앞서고, 팔라스 아테나께서도 그를 아끼시오. 그가 함께 간다면, 우리 둘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살아 돌아올 것이오. 그는 누구보다 생각이 깊으니 말이오.”

그러자 인내심 강한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말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나를 너무 칭찬하지도, 조금도 나무라지도 마시오.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 말이오.

자, 갑시다. 밤이 이울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소. 보시오,
별들은 벌써 많이 기울었소. 밤의 세 토막 가운데 두 토막이
넘게 지나, 이제 마지막 한 토막만 남았소."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무시무시한 무구를 갖춰 입었다.

전투에 굳센 트라시메데스는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양날 칼을
주었다. 디오메데스의 칼은 배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방패도
주었고, 그의 머리에는 뿔도 볏도 없는 황소 가죽 투구를 씌워
주었다. 가죽 모자라고 불리는 그 투구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의 머리를 지켜 준다.

메리오네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활과 화살통, 그리고 검을
주었다.

또한 그의 머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투구를 씌워 주었다. 투구
안쪽은 팽팽하게 당겨진 수많은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번뜩이는 엄니를 가진 멧돼지의
하얀 이빨들이 여기저기에 솜씨 좋고 정교하게 박혀 있었다.
투구 안쪽에는 펠트 안감이 고정되어 있었다.

이 투구는 예전에 아우톨리코스가 엘레온에서 오르메노스의
아들 아민토르의 튼튼한 집을 털고 훔쳐 온 것이었다.

아우톨리코스는 그것을 키테라의 암피다마스에게 주어 스칸데이아로 가져가게 했고, 암피다마스는 몰로스에게 손님 선물로 주었다. 몰로스는 그것을 아들 메리오네스에게 주어 쓰게 했다.

이제 그 투구가 오디세우스의 머리를 덮었다. 두 사람은 무시무시한 무구를 갖춰 입고, 장수들을 모두 그곳에 남겨 둔 채 길을 떠났다.

팔라스 아테나는 그들을 위해 길 바로 옆 오른쪽으로 왜가리 한 마리를 보냈다. 그들은 밤의 어둠 때문에 왜가리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 울음소리는 들었다.

오디세우스는 그 징조에 기뻐하며 아테나에게 기도했다.

"제 말을 들으소서,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따님이시여. 온갖 고난 속에서 언제나 제 곁에 서 계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 지켜보시는 분이시여. 아테나여, 이번에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아껴 주시어, 트로이아인들에게 슬픔이 될 큰일을 해내고 빛나는 명성과 함께 배들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그 뒤를 이어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도 기도했다.

“지칠 줄 모르는 제우스의 따님이시여, 이제 제 기도도 들어 주소서.”

“제 아버지 훌륭한 티데우스가 아카이아인의 사절로 테바이에 갔을 때 그와 함께하셨듯이, 이제 저와 함께하소서. 아버지는 청동 갑옷 입은 아카이아인들을 아소포스 강가에 남겨 두고, 카드메이아인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는, 아름다운 여신이시여, 당신과 함께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들을 꾸몄습니다. 당신께서 기꺼이 그의 곁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기꺼이 곁에 서서 저를 지켜 주소서.”

“그 보답으로 이마가 넓고 아직 아무도 멍에를 메어 본 적 없는 윤기 나는 한 살배기 암소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 뿔에 황금을 입혀 바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팔라스 아테나는 그 기도를 들었다.

위대한 제우스의 딸에게 기도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두 마리 사자처럼 검은 밤을 뚫고, 살육과 시체들 사이로, 무기와 검은 피를 헤치며 나아갔다.

한편 헥토르도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을 잠들게 두지 않았다. 그는 트로이아인의 지도자와 통치자인 가장 뛰어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놓고 교묘한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누가 큰 선물을 받고 이 일을 해내겠다고 내게 약속하겠소?"

"그 보상은 틀림없을 것이오. 누구든 용기를 내어 날랜 배들 가까이 가서, 배들이 예전처럼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손에 꺾인 적들이 자기들끼리 달아날 궁리를 하며 지독한 피로에 지쳐 밤새 파수를 설 마음도 없는지 살펴보고 오는 자에게는, 전차 한 대와 목을 높이 치켜든 말 두 필을 주겠소. 아카이아인의 날랜 배들에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들이오. 그는 스스로 영광도 얻게 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모두 잠잠해졌다.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신과 같은 전령 에우메데스의 아들 돌론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금도 청동도 많은 부자였으나, 생김새는 볼품없고 발만은 빨랐다. 그는 누이 다섯 사이의 외아들이었다.

그가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제 마음과 기개가 저를 재촉합니다. 날랜 배들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자, 부디 홀을 들어 맹세해 주십시오.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을 태우는 그 말들과 청동으로 화려하게 꾸민 전차를 제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헛걸음하는 정찰꾼도, 기대를 저버리는 자도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곧장 진영을 뚫고 아가멤논의 배까지 가겠습니다. 아마 거기서 장수들이 달아날지 싸울지 의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홀을 손에 들고 그에게 맹세했다.

"헤라의 남편, 크게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 몸소 증인이 되시기를. 저 말들에는 다른 어떤 트로이아인도 오르지 못할 것이오. 오직 그대가 그 말들로 길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내가 선언하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헛된 맹세를 하여 돌론을 부추겼다.

돌론은 곧바로 굽은 활을 어깨에 메고, 그 위에 잿빛 늑대 가죽을 걸쳤다. 머리에는 족제비 가죽 모자를 쓰고 날카로운 투창을 움켜쥔 채, 군대를 떠나 배들 쪽으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배들에서 돌아와 헥토르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할 운명이었다.

말과 사람들의 무리를 벗어나자, 그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제우스의 후손 오디세우스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디오메데스에게 말했다.

"디오메데스여, 저기 진영 쪽에서 누가 오고 있소. 우리 배들을 엿보러 오는 것인지, 시체 가운데 누군가의 무구를 벗겨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구려."

"우선 저자가 평원에서 우리 곁을 조금 지나가게 둡시다. 그런 다음 달려들어 재빨리 붙잡읍시다. 만약 저자가 발이 빨라 우리 둘을 앞지르면, 그대가 창을 겨누고 뒤쫓으며 군대에서 떼어 배 쪽으로 몰아붙이시오. 어떻게든 도시 쪽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말이오."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길에서 벗어나 시체들 사이에 엎드렸다. 돌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 곁을 재빨리 지나쳐 달려갔다.

노새가 한 번에 갈아 나가는 밭고랑 길이만큼 그가 멀어지자, 두 사람이 그를 쫓아 달려갔다. 깊은 묵정밭에서 짜 맞춘 쟁기를 끄는 데는 노새가 소보다 나은 법이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 트로이아인들 쪽에서 동료들이 자기를 불러 돌아가게 하려고 오는 줄, 헥토르가 군대를 물리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창 던질 거리만큼, 혹은 그보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그들이 적임을 알아채고 재빨리 다리를 놀려 달아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그를 뒤쫓았다.

마치 사냥에 능한 이빨 날카로운 사냥개 두 마리가 숲속에서 암사슴이나 산토끼를 바짝 몰아붙이면, 그 짐승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만 달아나는 것과 같았다. 티데우스의 아들과 도시를 함락하는 오디세우스도 그렇게 돌론을 군대에서 떼어 놓고 끈질기게 뒤쫓았다.

돌론이 배들 쪽으로 달아나다가 막 파수꾼들 사이로 들어서려 할 때, 아테나가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청동 갑옷 입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그를 맞혔다고 뽐내고, 디오메데스는 한발 늦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창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며 외쳤다.

“멈춰라. 안 그러면 창으로 너를 맞힐 테다. 내 손에 죽는 것을 오래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창을 던졌으나, 일부러 빗맞혔다. 잘 닦인 창끝은 그의 오른쪽 어깨 위로 날아가 땅에 박혔다.

돌론은 겁에 질려 멈춰 섰다. 말을 더듬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입안에서는 이가 딱딱 부딪쳤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두 사람이 그의 두 손을 붙잡자,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를 산 채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집에는 청동과 금과 공들여 벼린 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카이아인들의 배에 살아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들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두 분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안심해라.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자, 이것을 말해 보아라.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이 캄캄한 밤에, 너는 어찌 홀로 군대를 떠나 배들 쪽으로 오느냐? 시체 가운데 누군가의 무구를 벗겨 가려는 것이냐? 헥토르가 속 빈 배들로 보내 모든 것을 살펴보라고 하더냐, 아니면 네 마음이 시키더냐?"

그러자 돌론이 다리를 떨며 대답했다.

"헥토르가 헛된 희망을 잔뜩 불어넣어 제 정신을 홀렸습니다.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통굽 말들과 청동으로
화려하게 꾸민 전차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더러 날래고 어두운 밤을 뚫고 적들 가까이 가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날랜 배들이 예전처럼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손에 꺾인 적들이 자기들끼리 달아날
궁리를 하며 지독한 피로에 지쳐 밤새 파수를 설 마음도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마음이 참으로 큰 상을 바랐구나. 지혜로운 아이아코스의
아들의 말들이라니! 그러나 그 말들은 불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킬레우스가 아니면, 필멸의 인간으로서는
길들이기도 몰기도 어렵다.

자, 이것을 말해 보아라.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이리로
오면서 백성의 목자 헥토르를 어디에 두고 왔느냐? 그의
무구는 어디 있고, 말들은 어디 있느냐? 다른 트로이아인들의
파수와 잠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아카이아인들을 이겼으니, 저 멀리 배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시로 물러날 것인지 말이다."

그러자 에우메데스의 아들 돌론이 대답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헥토르는 의논하는 원로들과 함께 소란에서 떨어진 신과 같은 일로스의 무덤 곁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사님께서 물으신 파수로 말하자면, 군대를 따로 지키거나 망보는 파수는 없습니다.

트로이아인들의 모닥불 곁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자들이 깨어 서로 파수를 서라고 일러 줍니다. 그러나 여러 땅에서 불려 온 동맹군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도 아내도 가까이 있지 않으니, 파수는 트로이아인들에게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과 섞여서 자느냐, 따로 자느냐? 내가 알 수 있게 자세히 말해 보아라.”

그러자 에우메데스의 아들 돌론이 대답했다.

“이것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쪽에는 카리아인들과 굽은 활을 쓰는 파이오니아인들, 렐레게스인과 카우코네스인, 훌륭한 펠라스기아인들이 있습니다.

팀브레 쪽에는 리키아인들과 기개 높은 미시아인들, 전차를 타고 싸우는 프리기아인들과 전차를 다루는 마이오니아인들이 제비를 뽑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캐물으십니까? 트로이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신다면, 보십시오, 여기 새로 온 트라키아인들이 맨 바깥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들 가운데 에이오네우스의 아들인 레소스 왕이 있습니다.

그의 말들은 제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큰 말들로, 눈보다 희고 바람처럼 빠릅니다. 그의 전차는 금과 은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고, 그가 가져온 황금 갑옷은 엄청나게 커서 보기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런 갑옷은 필멸의 인간이 아니라 불멸의 신들이 입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저를 날랜 배들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모진 끈으로 묶어 여기 두고 가셔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자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눈썹 아래로 노려보며 말했다.

"돌론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온 이상 달아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지금 너를 풀어 주거나 놓아 보내면, 너는 나중에 또
아카이아인의 날랜 배들로 와서 우리를 엿보거나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꺾여 목숨을 잃는다면, 다시는
아르고스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돌론은 억센 손으로 그의 턱을
어루만지며 애원하려 했다.

그러나 디오메데스가 칼을 휘둘러 그의 목 한가운데를
내리쳐 힘줄 두 가닥을 끊었다. 그가 아직 말하는 사이에 그의
머리는 먼지 속에 뒹굴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에서 족제비 가죽 모자를 벗기고, 늑대
가죽과 뒤로 휜 활과 긴 창도 빼앗았다.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것들을 손에 높이 들어 전리품을
이끄는 아테나에게 바치며 기도했다.

“여신이시여, 이것을 받고 기뻐하소서. 올림포스의 불멸의
신들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트라키아 전사들의 말과 잠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전리품을 높이 들어 위성류 덤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갈대와 무성한 위성류 가지를 한 아름 꺾어 모아,
날래고 검은 밤을 뚫고 돌아올 때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해 두었다.

두 사람은 무구와 검은 피를 헤치며 나아가, 곧 트라키아
전사들의 무리에 다다랐다.

그들은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훌륭한 무구는
곁의 땅바닥에 세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마다 곁에 한
쌍의 말이 있었다.

레소스는 한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그 곁에는 날랜 말들이
전차 난간 맨 위에 고삐로 매여 있었다.

오디세우스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디오메데스에게 가리켰다.

"보시오, 디오메데스여. 저기 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죽인
돌론이 말한 말들이 여기 있소."

"자, 이제 온 힘을 내시오. 무기를 든 채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대에게 조금도 어울리지 않소. 말들을 푸시오. 아니면
그대가 사람들을 죽이시오. 말들은 내가 맡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디오메데스의 가슴에 힘을 불어넣었다.

디오메데스는 이리저리 돌며 베어 쓰러뜨렸다. 칼에 맞은 자들에게서 끔찍한 신음이 터져 나왔고, 땅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마치 사자가 목자 없는 염소 떼나 양 떼를 찾아와 잔인한 의도를 품고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티데우스의 아들은 트라키아의 전사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며 열두 명을 죽였다.

하지만 티데우스의 아들이 누구에게 다가가 칼로 치면,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 사람의 발을 뒤에서 붙잡아 옆으로 끌어냈다.

그는 갈기가 아름다운 말들이 죽은 자들을 밟고 지나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놀라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게 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 말들은 아직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티데우스의 아들은 마침내 왕에게 이르러,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에게서 열세 번째로 꿀처럼 달콤한 목숨을 빼앗았다. 그날 밤 아테나의 계략으로, 오이네우스의 손자가 악몽처럼 그의 머리맡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굳센 오디세우스는 통굽 말들을 풀어 고삐로 한데 묶고, 활로 치며 무리 밖으로 몰고 나갔다. 화려하게 꾸민 전차에서 빛나는 채찍을 집어 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휘파람을 불어 훌륭한 디오메데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디오메데스는 머뭇거리며, 가장 대담한 일로 무엇을 할지 궁리했다. 화려한 무구가 실린 전차를 끌채를 잡고 끌어낼지, 아니면 번쩍 들어 메고 나갈지, 그도 아니면 트라키아인들을 더 죽일지 말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아테나가 다가와 훌륭한 디오메데스에게 말했다.

“기개 높은 티데우스의 아들아, 이제 속 빈 배들로 돌아갈 생각을 해라. 쫓겨서 달아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다른 신이 트로이아인들을 깨울지도 모른다.”

여신이 이렇게 말하자, 그는 여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재빨리 말에 올라탔다. 오디세우스가 활로 말들을 치자, 말들은 아카이아인의 날랜 배들을 향해 내달렸다.

그러나 은빛 활의 아폴론도 넋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아테나가 티데우스의 아들을 돕는 것을 보자, 그는 그녀에게 노하여 트로이아인들의 큰 무리 속으로 들어가, 레소스의 훌륭한 친척인 트라키아인들의 조언자 히포코온을 깨웠다.

그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다. 날랜 말들이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고, 사람들이 끔찍한 피 웅덩이 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자, 그는 신음하며 사랑하는 동료의 이름을 불렀다.

트로이아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란과 혼란이 일었다. 그들은 두 용사가 저지르고 속 빈 배들로 돌아가 버린 그 끔찍한 일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헥토르의 첩자를 죽인 곳에 이르자, 제우스가 아끼는 오디세우스가 날랜 말들을 멈춰 세웠다. 티데우스의 아들은 땅으로 뛰어내려 피 묻은 전리품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건네고 다시 말에 올랐다.

그가 채찍으로 말들을 건드리자, 두 말은 기꺼이 속 빈 배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네스토르가 맨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내가 잘못 아는 것이오, 아니면 맞는 것이오?"

"그래도 내 마음이 말하라 하오. 발 빠른 말들의 발굽 소리가 내 귀를 울리오. 오디세우스와 용맹한 디오메데스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통굽 말들을 몰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이면 좋겠소. 하지만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용맹한 그들이 트로이아인들의 함성 속에서 무슨 변을 당하지나 않았을까 몹시 두렵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도착했다. 그들이 땅으로 뛰어내리자, 다른 이들은 기뻐하며 손을 맞잡고 다정한 말로 그들을 맞았다.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맨 먼저 물었다.

"자, 말해 보시오, 크게 칭송받는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그대들 둘이 이 말들을 어떻게 얻었소? 트로이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가져온 것이오? 아니면 어떤 신이 그대들을 만나 준 것이오? 놀랍게도 햇살처럼 눈부시구려."

"나는 늘 트로이아인들과 어울려 싸우고, 늙었어도 배 곁에서 꾸물거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이런 말은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소. 아마 어떤 신이 그대들을 만나 이 말들을 준 모양이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와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께서 그대들 둘을 아끼시니 말이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신이 원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말도 쉽게 주실 수 있을 것이오. 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 말이오.

그러나 노인장, 그대가 묻는 이 말들은 트라키아에서 갓 온 것들이오. 그 주인은 용맹한 디오메데스가 죽였고, 곁에 있던 가장 뛰어난 동료 열두 명도 함께 죽였소. 그리고 열세 번째로, 헥토르와 다른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이 우리 진영을 엿보라고 보낸 정찰꾼 하나를 배들 가까이에서 죽였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의기양양하게 통굽 말들을 몰아 해자를 건넜고, 다른 아카이아인들도 기뻐하며 함께 갔다.

티데우스의 아들의 잘 지은 막사에 이르자, 그들은 말들을 잘 다듬은 가죽끈으로 구유에 매어 두었다. 그 구유에서는 디오메데스의 발 빠른 말들이 꿀처럼 달콤한 곡식을 먹고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에게 신성한 제물을 바칠 준비가 될 때까지 돌론의 피 묻은 전리품을 자기 배 고물에 두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 정강이와 목과 허벅지에 흐르는 많은 땀을 씻어 냈다.

바닷물이 살갗에서 많은 땀을 씻어 내고 마음이 상쾌해지자, 그들은 잘 닦은 욕조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두 사람은 목욕을 마치고 기름을 듬뿍 바른 뒤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가득 찬 섞는 동이에서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를 떠서 아테나에게 술을 바쳤다.

제11권

아가멤논의 무훈

이제 새벽이 불멸의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위엄 있는 티토노스의 곁에 있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제우스는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로 불화의 여신을
보냈다. 무시무시한 불화의 여신은 손에 전쟁의 징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검은 배 곁으로 다가갔다. 선체가
거대한 그 배는 진영 한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외치면 양 끝,
곧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막사와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소리가 닿았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용맹과 완력을 믿고
날렵한 배들을 맨 끝에 끌어올려 두었던 것이다.

여신은 그곳에 서서 크고 무시무시한 외침, 날카로운 전쟁의
함성을 내질렀다. 그리고 그녀는 아카이아인들 각자의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커다란
힘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에게 전쟁은 속이 빈 배들을 타고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한 것이 되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크게 소리치며 아르고스인들에게 전투를 위해 대열을 갖추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들 가운데서 번쩍이는 청동 갑옷을 입었다.

그는 먼저 다리에 정강이받이를 찼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은으로 된 발목 장식이 달려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예전에 키니라스가 손님 선물로 주었던 흉갑을 가슴에 입었다.

아카이아인들이 배를 타고 트로이아로 항해하려 한다는 큰 소문이 키프로스에서 멀리 들려왔기에, 키니라스는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에게 흉갑을 주었던 것이다.

그 흉갑에는 검푸른 법랑 띠가 열 줄, 금 띠가 열두 줄, 주석 띠가 스무 줄 둘려 있었다.

검푸른 법랑으로 된 뱀들이 양쪽에 세 마리씩 목을 향해 꿈틀거리며 올라가 있었는데, 크로노스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징조로 구름 속에 세워 둔 무지개 같았다.

그는 어깨에 칼을 멨다. 칼에는 금 징이 번쩍였고, 칼집은 은으로 되어 있었으며 금 사슬이 달려 있었다.

그는 몸 전체를 가려 주는 화려하고 듬직한 방패를 집어 들었다. 아름다운 그 방패의 둘레에는 청동 고리가 열 개 둘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얗게 빛나는 주석 돌기 스무 개가 있었으며, 한가운데에는 검푸른 법랑 돌기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는 무시무시하게 노려보는 험상궂은 고르고가 관처럼 둘려 있었고, 그 둘레에는 공포와 패주가 새겨져 있었다.

방패에는 은으로 된 멜빵이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한 목에서 머리 셋이 돋아나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 검푸른 법랑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 개의 뿔과 네 개의 돌기가 있고 말갈기 장식이 달린 투구를 머리에 썼다. 투구 위의 말총 장식은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거렸다.

그는 청동 촉을 단 강력한 창 두 자루를 집어 들었다. 창끝은 날카로웠으며, 그 청동 빛이 그로부터 멀리 하늘까지 번쩍였다.

그러자 아테나와 헤라가 천둥을 울리며, 황금이 풍부한 미케네의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저마다 자기 마부에게 해자 곁에서 말들을 잘 붙잡아 질서 있게 대기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자신들은 무장한 채 걸어서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다. 새벽녘에 꺼지지 않는 함성이 일었다.

그들은 해자 앞에서 마부들보다 훨씬 앞서 늘어섰고, 마부들은 조금 떨어져 그 뒤를 따랐다.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들 사이에 사악한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수많은 용맹한 머리를 하데스에게 보내려 했기에, 하늘 높은 곳에서 피에 젖은 이슬방울을 내려보냈다.

그들에 맞서 평원의 솟아오른 지대에는 트로이아인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들 곁에는 위대한 헥토르와 비길 데 없는 폴리다마스, 그리고 트로이아 백성들에게 신처럼 존경받는 아이네이아스가 있었다.

또한 안테노르의 세 아들인 폴리보스, 훌륭한 아게노르, 그리고 불멸의 신들 같은 젊은 아카마스도 그곳에 있었다.

헥토르는 맨 앞줄에서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들고 있었다.

마치 구름 사이에서 번뜩이는 불길한 별이 온통 반짝이다가 다시 어두운 구름 뒤로 가라앉는 것처럼, 헥토르도 맨 앞줄에 나타났다가 다시 맨 뒷줄에 나타나 명령을 내렸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 아버지의 번개처럼,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의 모습이 번쩍였다.

마치 부잣집 밀밭이나 보리밭에서 베는 이들이 양쪽에서 마주 보며 베어 나가면 베인 곡식이 줄줄이 쓰러지듯,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도 서로 달려들어 쓰러뜨렸다.

어느 쪽도 파멸을 부르는 도주는 생각하지 않았다. 싸움은 팽팽하게 맞섰고, 그들은 늑대처럼 날뛰었다.

숱한 신음을 부르는 불화의 여신은 그 광경을 보며 기뻐했다. 신들 중에서 오직 그녀만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은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올림포스의 굽이진 곳마다 각자에게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진 자신들의 거처에서 평화롭게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신은 검은 구름의 주인이자 크로노스의 아들이 트로이아인들에게 영광을 주려 한다며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이들과 떨어져 홀로 앉아, 트로이아인들의 도시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번뜩이는 청동과 살육하는 자들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신성한 날이 무르익는 동안, 양쪽에서 날아간 무기가 계속 과녁에 꽂혔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러져 갔다.

산속 빈터에서 나무꾼이 식사를 준비할 때쯤, 즉 높은 나무를 베느라 팔이 지치고 마음에 피로가 찾아오며 달콤한 음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슴을 사로잡을 때쯤, 다나오스인들은 용맹함으로 대열을 돌파하며 전열 사이로 동료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 가운데 아가멤논이 맨 먼저 달려 나가, 백성의 목자인 전사 비에노르를 죽였다. 이어서 그의 동료이자 말을 모는 오일레우스도 죽였다.

오일레우스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맞섰다. 그러나 그가 곧장 덤벼들자, 왕은 날카로운 창으로 그의 이마를 찔렀다. 청동으로 무거운 투구도 창을 막지 못했고, 창은 투구와 뼈를 뚫고 들어가 투구 속에서 골을 온통 흩어 놓았다. 그렇게 그는 덤벼드는 오일레우스를 쓰러뜨렸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그들의 튜닉을 벗겨, 하얀 맨가슴이 드러난 채로 그곳에 버려두었다.

이어 그는 한 전차에 타고 있던 프리아모스의 두 아들 이소스와 안티포스를 죽이러 갔다. 하나는 서자였고 하나는 정실의 아들이었다. 서자가 고삐를 잡았고, 이름난 안티포스는 그 곁에 서서 싸웠다.

이 둘은 예전에 아킬레우스가 이다 산 기슭에서 양을 치던 것을 붙잡아 갓 꺾은 버들가지로 묶었다가, 몸값을 받고 풀어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창을 던져 이소스의 젖꼭지 위 가슴을 맞혔고, 안티포스는 칼로 귀 옆을 내리쳐 전차에서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서둘러 두 사람의 훌륭한 무구를 벗겼다. 그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이다에서 끌고 왔을 때 날랜 배들 곁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날랜 암사슴의 보금자리에 들이닥쳐 어린 새끼들을 강한 이빨로 물어 쉽게 부수고 연한 목숨을 빼앗을 때, 어미가 아주 가까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과 같았다. 어미 자신도 무서운 떨림에 사로잡혀, 사나운 짐승의 습격 앞에서 땀을 흘리며 빽빽한 덤불과 숲을 뚫고 재빨리 달아난다.

그처럼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누구도 이 두 사람에게서 파멸을 막아 주지 못했고, 그들 자신도 아르고스인들 앞에서 달아나기 바빴다.

이어서 그는 싸움에 굳센 페이산드로스와 히폴로코스를 덮쳤다.

그들은 지혜로운 안티마코스의 아들들이었다. 안티마코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서 황금과 훌륭한 선물을 받으리라는 기대로, 누구보다 앞장서 헬레네를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에게 돌려주는 것을 반대했던 자였다.

아가멤논 왕은 한 전차에 타고 있던 그의 두 아들을 덮쳤다. 빛나는 고삐가 손에서 빠져나가 두 말이 날뛰자, 둘이서 함께 날랜 말들을 몰아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사자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자, 두 사람은 전차 위에서 그에게 애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드님이시여, 저희를 산 채로 잡으시고 넉넉한 몸값을 받으십시오. 안티마코스의 집에는 청동과 금과 공들여 벼린 쇠 같은 보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아카이아인들의 배에 살아 있다는 것을 들으면, 아버지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울며 부드러운 말로 왕에게 애원했지만, 그들이 들은 대답은 조금도 부드럽지 않았다.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안티마코스의 아들들이라면, 이제 아비의 추악한 짓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자는 예전에 메넬라오스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와 함께 사절로 왔을 때, 트로이아인들의 집회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카이아인들에게 돌려보내지 말자고 했던 자다."

아가멤논은 이렇게 말하고 페이산드로스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 전차에서 땅으로 떨어뜨렸다. 페이산드로스는 땅 위에 벌렁 나자빠졌다.

히폴로코스는 뛰어내렸으나, 아가멤논은 땅 위에서 그를 죽였다. 칼로 두 팔을 베고 목을 쳐서, 그 몸통을 둥근 돌처럼 무리 사이로 굴려 보냈다.

아가멤논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대열이 가장 많이 무너져 달아나는 곳으로 뛰어들었고,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다른 아카이아인들도 함께 뛰어들었다.

보병은 어쩔 수 없이 달아나는 보병을, 기병은 기병을 줄곧 죽였다. 그들 아래 평원에서는 천둥 같은 말발굽이 일으킨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들은 청동으로 마구 베어 쓰러뜨렸다.

아가멤논 왕은 줄곧 적을 죽이며 아르고스인들을 불러 독려하면서 뒤쫓았다.

마치 집어삼키는 불길이 울창한 숲에 떨어져, 소용돌이치는 바람이 불을 사방으로 실어 나르면, 덤불이 불길의 기세에 밀려 송두리째 쓰러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앞에서 달아나는 트로이아인들의 머리가 쓰러졌다. 목을 높이 치켜든 수많은 말들이 비길 데 없는 마부들을 잃고, 빈 전차를 덜컹거리며 전장의 둑길을 따라 내달렸다. 마부들은 땅 위에 누워, 아내들보다 독수리들에게 훨씬 더 반가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우스는 헥토르를 날아다니는 무기와 먼지, 살육과 피와 소란 속에서 끌어내 주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다나오스인들을 격렬하게 부르며 뒤따라갔다.

그들은 다르다노스의 아들인 옛 일로스의 무덤을 지나 평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야생 무화과나무를 지나 도시로 들어가려고 달아났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뒤쫓았고, 그의 무적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들이 스카이아이 성문과 참나무에 이르렀을 때, 두 군대는 그곳에서 멈추어 서서 서로를 기다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자가 한밤중에 들이닥쳐 흩어놓은 소들처럼 평원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패주하고 있었다. 사자는 소들을 모두 흩어놓지만, 그중 한 마리에게는 완전한 파멸이 닥친다. 사자는 먼저 그 강한 이빨로 소의 목을 잡아 부러뜨린 다음, 피와 내장을 모두 먹어 치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은 트로이아인들을 바짝 뒤쫓으며 맨 뒤에 처진 자들을 계속해서 죽였고, 그들은 패주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손 아래에서 많은 이들이 전차에서 떨어져 얼굴이나 등으로 넘어졌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그들 주변과 앞에서 맹렬히 날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제 도시와 가파른 성벽 아래로 진입하려 할 때, 참으로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 샘이 많은 이다 산봉우리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번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황금 날개를 단 이리스를 보내 전갈을 전하게 했다.

"날랜 이리스야, 가서 헥토르에게 이 말을 전하라.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이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날뛰며 사람들의 대열을 쓰러뜨리는 것이 보이는 동안에는, 그는 뒤로 물러나 있고, 나머지 군사들에게 격렬한 싸움에서 적과 싸우라고 명하게 하라."

"그러나 아가멤논이 창에 찔리거나 화살에 맞아 전차에 뛰어오르면, 그때 나는 헥토르에게 힘을 주어,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에 이를 때까지,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죽이고 또 죽이게 하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람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이다의 산등성이에서 신성한 일리오스로 내려갔다.

이리스는 지혜로운 프리아모스의 아들 훌륭한 헥토르가 튼튼히 짜 맞춘 전차 위에 서 있는 것을 찾아냈다.

발 빠른 이리스는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여, 지혜가 제우스와 맞먹는 이여, 아버지 제우스께서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이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날뛰며 사람들의 대열을 쓰러뜨리는 것이 보이는 동안에는, 너는 싸움에서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에게 격렬한 싸움에서 적과 싸우라고 명하라.”

“그러나 아가멤논이 창에 찔리거나 화살에 맞아 전차에 뛰어오르면, 그때 제우스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어,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에 이를 때까지,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죽이고 또 죽이게 하실 것이다.”

발 빠른 이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헥토르는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두 자루의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군대 곳곳을 누비며 싸우라고 독려했고, 전투의 무시무시한 소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아카이아인을 향해 마주 서서 자리를 잡았고, 그들을 상대하는 아르고스인들도 대열을 강화했다.

전투가 대열을 갖추어 시작되었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며 섰다. 그들 가운데 아가멤논이 가장 먼저 돌진해 나갔으며, 다른 모든 이들보다 훨씬 앞장서서 싸우려 했다.

올림포스에 사시는 뮤사들이여, 이제 내게 말해 주소서.
트로이아인들 가운데서든, 이름난 동맹군 가운데서든,
아가멤논에게 맨 먼저 맞서러 나온 자가 누구였는지 말해 주소서.

그는 안테노르의 아들 이피다마스였다. 그는 용맹하고 키가 큰 사내로, 양 떼의 어머니인 흙이 기름진 트라키아에서 자랐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뺨이 고운 테아노를 낳은 외할아버지 키세우스의 집에서 길러졌다.

키세우스는 그가 빛나는 청년이 되자 곁에 붙잡아 두려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다.

그러나 갓 결혼한 신랑이었던 그는 아카이아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신방을 나서, 뾰족한 이물을 단 배 열두 척을 거느리고 떠났다.

그는 날렵한 배들을 페르코테에 남겨 두고 몸소 걸어서 일리오스에 왔다. 이제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맞서러 나온 자가 바로 그였다.

두 사람이 서로 다가와 가까워지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창은 빗나가 옆으로 비껴갔다.

이피다마스는 흉갑 아래 허리띠를 찌르고, 억센 손을 믿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밀어붙였다.

그러나 번쩍이는 허리띠를 뚫지는 못했다. 창끝이 먼저 은판에 부딪혀 납처럼 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자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그 창을 손으로 움켜쥐고 사자처럼 사납게 끌어당겨 이피다마스의 손에서 빼앗고는, 칼로 그의 목을 쳐서 사지를 풀어 버렸다.

불행한 청년은 그렇게 쓰러져 청동의 잠에 빠졌다. 동족을 도우러 왔다가, 결혼한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서 아무 기쁨도 누리지 못했건만,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치렀다. 먼저 소 백 마리를 주었고, 다음으로 염소와 양을 합쳐 천 마리를 약속했다. 그의 가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은 그의 갑옷을 벗겨 챙기고, 그 훌륭한 무장을 들고 아카이아인들의 무리 사이를 지나갔다.

안테노르의 맏아들로 전사들 가운데 뛰어난 코온은 그 광경을 보자, 형제가 쓰러진 것에 깊은 슬픔이 눈을 덮었다.

그는 훌륭한 아가멤논의 눈에 띄지 않게 창을 들고 옆으로 다가가, 아가멤논의 팔꿈치 아래 팔을 찔렀다. 빛나는 창끝이 팔을 꿰뚫고 나갔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몸서리쳤지만, 그래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코온에게 달려들었다.

코온은 한 아버지에게서 난 친형제 이피다마스의 발을 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기며, 가장 용맹한 자들을 모두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리 속으로 형제를 끌고 갈 때, 아가멤논이 청동 날 창으로 돋을새김 방패 아래를 찔러 그의 사지를 풀어 버렸다. 그리고 다가가 이피다마스의 시신 위에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렇게 안테노르의 아들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인 왕의 손에 운명을 다하고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아가멤논은 상처에서 아직 따뜻한 피가 솟는 동안에는 창과 칼과 커다란 돌을 휘두르며 다른 전사들의 대열을 누볐다.

그러나 상처가 마르고 피가 멎자, 아트레우스의 강력한 아들에게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쓰라린 진통을 맡은 헤라의 딸들,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들이 보내는 날카로운 화살이 꽂히듯, 아트레우스의 강력한 아들에게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러자 그는 전차 위로 뛰어올라 마부에게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몰라고 명령했다.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날카로운 외침을 내지르며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불렀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바다를 건너는 배들에서 참혹한 싸움을 막아
내시오. 지혜로운 제우스께서 내가 하루 종일
트로이아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마부는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채찍질하여 속이 빈 배들을 향해 몰았고, 두 마리의 말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 나갔다.

부상당한 왕을 전투로부터 실어 나르는 동안, 말들의
가슴에는 거품이 얼룩졌고 배 아래쪽은 먼지로 더러워졌다.

하지만 헥토르는 아가멤논이 떠나는 것을 보고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이여!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맹렬한 용맹을
떠올리시오. 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물러갔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내게 큰 영광을 내려 주셨소."

"자, 통굽 말들을 용맹한 다나오스인들에게 곧장
몰아붙이시오. 승리의 영광을 얻도록 말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이의 힘과 기개를 북돋웠다.

사냥꾼이 하얀 이빨의 사냥개들을 멧돼지나 사자에게 풀어놓듯, 아레스와 맞먹는, 인간들의 재앙인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을 아카이아인들에게 풀어놓았다.

그 자신도 당당한 기개로 맨 앞에서 성큼성큼 나아가, 위에서 내리꽂혀 검푸른 바다를 사납게 휘젓는 폭풍처럼 싸움 속으로 뛰어들었다.

제우스가 그에게 영광을 내렸을 때,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의 손에 맨 먼저 죽은 자는 누구이고 맨 나중에 죽은 자는 누구였던가?

맨 먼저 아사이오스, 이어서 아우토노오스와 오피테스, 클리티오스의 아들 돌롭스와 오펠티오스, 아겔라오스와 아이심노스와 오로스, 그리고 싸움에 굳센 히포노오스였다.

헥토르는 다나오스인의 이 지도자들을 죽인 뒤 군사들 무리에 덤벼들었다.

서풍이 거센 돌풍으로 하얀 남풍의 구름을 쳐서 몰아내면, 부풀어 오른 파도가 수없이 굴러가고, 떠도는 바람에 물보라가 높이 흩날린다. 그처럼 수많은 군사의 머리가 헥토르의 손에 쓰러졌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파멸이 닥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아카이아인들은 달아나다가 배들 위로 쓰러졌을 것이다.

"티데우스의 아들이여, 우리가 어찌 되었기에 사나운 용맹을 잊어버렸소? 자, 이리 오시오, 친구여. 내 곁에 서시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배들을 차지한다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

그러자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내가 반드시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겠소. 비록 우리가 얻을 이득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말이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께서 우리보다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주기로 분명히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팀브라이오스의 왼쪽 가슴을 창으로 찔러 전차에서 땅으로 떨어뜨렸다. 오디세우스는 그의 신과 같은 시종 몰리온을 쳤다.

두 사람은 그들을 싸움에서 끝장낸 뒤 내버려 두고, 무리 속을 누비며 마구 쓰러뜨렸다. 마치 기세등등한 멧돼지 두 마리가 사냥개들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그들은 다시 트로이아인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죽였고, 훌륭한 헥토르 앞에서 달아나던 아카이아인들은 반갑게도 숨을 돌렸다.

이어서 그들은 전차 한 대와 거기 탄 두 사람을 덮쳤다.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 둘은 페르코테의 메롭스의 아들들이었다. 메롭스는 누구보다 예언에 뛰어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검은 죽음의 운명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창으로 이름난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그들의 넋과 목숨을 빼앗고 훌륭한 무구를 벗겼다. 오디세우스는 히포다모스와 히페이로코스를 죽였다.

크로노스의 아들은 이다에서 내려다보며 그들의 싸움을 팽팽하게 당겨 놓았고, 그들은 서로 죽이고 또 죽였다.

티데우스의 아들은 파이온의 아들인 용사 아가스트로포스의 엉덩이를 창으로 찔렀다. 그에게는 달아날 말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 그가 마음이 크게 어리석었던 것이다. 시종이 말들을 멀찍이 끌고 가 있었고, 그는 걸어서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날뛰다가 마침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헥토르는 대열을 가로질러 그들을 빠르게 포착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 돌진했다. 트로이아인 부대들이 그를 뒤따랐다.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는 그를 보자 몸서리쳤고, 즉시 곁에 있던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강력한 헥토르가 우리 둘에게 파멸을 몰고 오고 있소. 자, 여기 버티고 서서 그의 공격을 막아 냅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졌다. 겨냥한 곳을 놓치지 않고 헥토르의 머리, 투구 꼭대기를 맞혔다. 그러나 청동이 청동에 튕겨 나가 고운 살갗에는 닿지 않았다.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준 세 겹의 볏 달린 투구가 창을 막아 낸 것이다.

헥토르는 재빨리 멀찍이 물러나 무리 속에 섞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억센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버텼고, 어두운 밤이 그의 눈을 덮었다.

티데우스의 아들이 맨 앞 전사들 사이로 멀리 날아가 땅에 꽂힌 자기 창을 찾아가는 사이, 헥토르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전차로 뛰어올라 무리 속으로 몰고 가 검은 죽음을 피했다.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창을 들고 뒤쫓으며 그에게 외쳤다.

“이 개 같은 놈아, 이번에도 죽음을 피했구나. 파멸이 바로 코앞까지 왔었는데. 또다시 포이보스 아폴론이 너를 구했구나. 너는 창이 빗발치는 곳에 들어설 때마다 틀림없이 그 신에게 기도하겠지.”

“나중에 다시 만나면 반드시 너를 끝장내겠다. 나에게도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말이다. 지금은 다른 자들을 뒤쫓겠다. 누구든 걸리는 대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창으로 이름난 파이온의 아들의 무구를 벗기러 갔다.

한편 머리칼 고운 헬레네의 남편 알렉산드로스는, 옛날 백성의 원로였던 다르다노스의 아들 일로스를 위해 사람들이 쌓아 올린 무덤의 비석에 몸을 기댄 채, 백성의 목자인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화살을 겨누었다.

디오메데스는 용맹한 아가스트로포스의 가슴에서 번쩍이는 흉갑을 벗기고, 어깨에서 방패와 무거운 투구를 벗겨 내고 있었다.

그때 파리스가 활을 당겨 그를 맞혔다. 그의 손을 떠난 화살은 헛되이 날아가지 않았다. 화살은 디오메데스의 오른쪽 발등을 꿰뚫고 땅에 박혔다.

파리스는 아주 즐겁게 웃으며 숨어 있던 곳에서 뛰어나와 뽐내며 말했다.

"맞았구나! 내 화살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았다. 네 아랫배 깊숙이 맞혀 목숨을 빼앗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사자 앞의 매애 우는 염소들처럼 네 앞에서 떨고 있는 트로이아인들이 이 고통에서 한숨 돌렸을 텐데."

그러나 강력한 디오메데스는 조금도 겁내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활잡이 놈, 욕지거리나 하는 놈, 머리 모양이나 뽐내는 놈, 계집애나 훔쳐보는 놈아! 네가 무장을 갖추고 사내 대 사내로 나와 겨룬다면, 네 활도 빗발치는 화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내 발등을 긁어 놓고 헛되이 뽐내는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여자나 철없는 아이가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비겁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화살은 무딘 법이다."

"내 손에서 날아가는 창은 다르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날카로움을 드러내 곧바로 사람을 쓰러뜨린다. 그러면 그의 아내는 통곡하며 두 뺨을 쥐어뜯고, 아이들은 아비를 잃는다. 그는 제 피로 땅을 붉게 물들이며 썩어 가고, 그 곁에는 여자들보다 새들이 더 많이 모여든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창으로 이름난 오디세우스가 다가와 그 앞을 막아섰다. 디오메데스는 그 뒤에 앉아 발에서 날카로운 화살을 뽑았고, 지독한 통증이 살을 꿰뚫었다.

그는 전차에 뛰어올라 마부에게 속 빈 배들로 몰라고 일렀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것이다.

이제 창으로 이름난 오디세우스만 홀로 남았다. 두려움이 모두를 사로잡아, 아르고스인 가운데 누구도 그의 곁에 남지 않았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자신의 위대한 마음에게 말했다. "아, 이 일을 어쩌나! 내게 무슨 일이 닥치려는 것인가?"

"적의 무리가 두려워 달아난다면 큰 치욕이다. 그러나 나 홀로 붙잡히는 것은 더 나쁘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다른 다나오스인들을 모두 흩어 달아나게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런 말을 주고받는가? 싸움에서
물러나는 자는 비겁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싸움에서
으뜸가는 자라면, 맞든지 남을 치든지, 마땅히 굳세게 버텨야
한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방패를 든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이 몰려와 그를 한가운데 에워쌌다.
자기들 한가운데 자신들의 재앙을 들여놓은 셈이었다.

마치 사냥개와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멧돼지를 양쪽에서
몰아붙일 때와 같았다. 멧돼지가 굽은 턱으로 하얀 엄니를
갈며 깊은 덤불에서 뛰쳐나오면, 그들이 양옆에서 달려들고
엄니 가는 소리가 울린다. 그래도 그들은 멧돼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곧바로 맞서 버틴다.

그처럼 트로이아인들이 제우스가 아끼는 오디세우스를
에워싸고 몰아붙였다.

그는 먼저 날카로운 창을 들고 뛰어들어, 비길 데 없는
데이오피테스의 어깨를 위에서 내리찍었다.

이어서 토온과 에우노모스를 죽였고, 케르시다마스가
전차에서 뛰어내릴 때 돋을새김 방패 아래 배꼽을 창으로
찔렀다. 케르시다마스는 먼지 속에 쓰러져 손바닥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히파소스의 아들로
부유한 소코스의 친형제인 카롭스를 창으로 찔렀다.

그리고 신과 같은 사내 소코스가 그를 돕기 위해 왔다. 그는
오디세우스 곁으로 다가와 자리를 잡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꾀에도 노고에도 지칠 줄
모르는 자여, 오늘 그대는 히파소스의 두 아들 같은 용사를
죽이고 무구를 벗겼다고 뽐내게 되든지, 아니면 내 창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소코스는 오디세우스의 둥근 방패를 창으로
쳤다.

억센 창은 빛나는 방패를 뚫고, 화려하게 꾸민 흉갑을 뚫고
들어가 옆구리 살을 온통 찢어 놓았다. 그러나 팔라스
아테나는 창이 용사의 내장까지 닿게 두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창이 치명적인 곳을 맞히지 않았음을 알고,
뒤로 물러나며 소코스에게 말했다.

"아, 가련한 놈, 이제 너에게 끝장이 닥쳤다. 네가 나를 트로이아인들과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오늘 여기서 너에게는 죽음과 검은 운명이 닥칠 것이다. 너는 내 창에 쓰러져 나에게는 영광을, 이름난 말을 가진 하데스에게는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소코스는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서는 순간 오디세우스가 등의 두 어깨 사이에 창을 꽂아 가슴까지 꿰뚫었다.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훌륭한 오디세우스는 그를 내려다보며 뽐냈다.

"아, 말을 길들이는 지혜로운 히파소스의 아들 소코스야, 죽음의 끝이 너무 빨리 너를 덮쳤구나. 너는 피하지 못했다.

가련한 놈, 네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는 죽은 네 눈을 감겨 주지 못할 것이고, 날고기를 먹는 새들이 네 주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너를 찢어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훌륭한 아카이아인들이 장례를 치러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지혜로운 소코스의 억센 창을 제 살과 돋을새김 방패에서 뽑아냈다. 창이 뽑히자 피가 솟구쳐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은 오디세우스의 피를 보자, 무리 속에서 서로 소리쳐 부르며 한꺼번에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동료들을 불렀다. 사람의 목청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세 번 외쳤고,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가 세 번 다 그 외침을 들었다. 메넬라오스는 곧바로 곁에 있던 아이아스에게 말했다.

"아이아스여, 제우스의 후손이자 텔라몬의 아들이며 군대의 대장이여. 마음이 굳센 오디세우스의 외침이 내 귀에 울렸소. 마치 트로이아인들이 격렬한 전투 중에 그를 고립시키고, 홀로 있는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만 같았소.

자, 무리를 헤치고 갑시다. 그를 돕는 것이 더 나은 길일 것이오. 그가 용맹할지라도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홀로 있다가 어떤 불행을 당할까 두렵고, 그러면 다나오스인들이 그를 몹시 그리워하게 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가 앞장섰고, 신과 같은 사내인 아이아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제우스가 아끼는 오디세우스를 찾아냈을 때,
트로이아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마치 산속의 황갈색
자칼들이, 사람이 쏜 화살에 맞은 뿔 달린 사슴을 에워싸는
것과 같았다.

사슴은 피가 따뜻하게 흐르고 무릎에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에게서 빠르게 달아나지만, 마침내 날랜
화살이 사슴을 쓰러뜨리면, 굶주린 자칼들이 산속 그늘진
숲에서 그것을 찢어 먹는다. 그런데 신이 사나운 사자를
보내면 자칼들은 흩어져 달아나고 사자가 먹이를 찢는다.

그처럼 용맹한 트로이아인들이 무리를 지어 지혜롭고 꾀
많은 오디세우스를 에워쌌다. 그러나 용사는 창을 들고
달려들며 무자비한 죽음의 날을 막아 냈다.

그때 아이아스가 도시 성벽과 같은 방패를 들고 다가와 그의
곁에 섰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고 용맹한 메넬라오스가 오디세우스의 손을 잡고 무리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 냈다. 시종이 말과 전차를 몰고 올
때까지 말이다.

그러자 아이아스가 트로이아인들에게 달려들어
프리아모스의 서자 도리클로스를 죽였다. 이어서 판도코스를
찔렀고, 리산드로스와 피라소스와 필라르테스도 쓰러뜨렸다.

제우스가 내린 비에 밀려 산에서 평원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겨울의 급류가, 그 흐름 속에 수많은 마른 참나무와 소나무를
휩쓸고 가며 떠내려온 나무를 잔뜩 바다로 던져 버릴 때와
같았다. 그날 영광스러운 아이아스도 그와 같이 평원을
거칠게 돌진하며 말과 사람들을 죽였다.

헥토르는 아직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전장의
왼쪽, 스카만드로스 강가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용사들이 가장 많이 쓰러지는 곳으로, 위대한
네스토르와 용맹한 이도메네우스 주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함성이 일고 있었다.

헥토르는 이들과 맞서 싸우며 창술과 기마술로 무시무시한
공적을 세웠고, 젊은이들의 부대를 초토화했다.

그래도 머리칼 고운 헬레네의 남편 알렉산드로스가 용맹을
떨치던 백성의 목자 마카온을 멈춰 세우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아카이아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세 갈래 미늘 화살로 마카온의 오른쪽
어깨를 맞혔다.

기세 넘치는 아카이아인들은 싸움의 형세가 뒤바뀌는 사이 적들이 마카온을 죽일까 봐 몹시 걱정했다.

곧바로 이도메네우스가 훌륭한 네스토르에게 말했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여, 아카이아인의 큰 자랑이여, 자, 전차에 오르시오. 마카온도 곁에 태우고, 통굽 말들을 몰아 서둘러 배들로 가시오. 화살을 도려내고 상처를 달래는 약초를 바르는 의원 하나는 다른 많은 사람에 맞먹으니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는 그 말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전차에 올라탔고, 그 곁에는 비길 데 없는 의원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이 올라탔다. 그는 채찍으로 말들을 건드렸고, 두 마리의 말은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달려갔다. 그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한편 케브리오네스는 헥토르의 전차 곁에 서서 트로이아인들이 패하여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우리 둘은 여기 처참한 전쟁의 가장자리에서 다나오스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다른 트로이아인들은 말이고 사람이고 뒤엉켜 쫓기고 있소."

"그들을 몰아붙이는 자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요. 나는 그를 잘 아오. 어깨에 멘 방패가 아주 넓으니 말이오.

자, 우리도 말과 전차를 몰아 저리로 갑시다. 기병과 보병이 가장 치열하게 겨루며 서로 죽이고, 그칠 줄 모르는 함성이 오르는 곳으로 말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채찍으로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내리쳤다. 매를 맞은 말들은 전차를 몰아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를 빠르게 달렸고, 죽은 자들과 방패들을 짓밟았다.

말의 발굽과 전차 바퀴에서 튀어 오른 방울방울의 피가 전차의 축 아래와 바퀴 테두리 주위에 흩뿌려졌다.

헥토르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박살 내고 싶어 했다. 그는 다나오스인들 사이에 전쟁의 끔찍한 소란을 일으켰고, 그의 창은 쉴 새 없이 휘둘러졌다.

그는 창과 칼과 커다란 돌을 휘두르며 다른 전사들의 대열 사이를 누볐다. 다만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와 싸우는 것만은 피했다.

그때 높은 곳에 앉은 아버지 제우스가 아이아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켰다. 아이아스는 넋을 잃고 멈춰 섰다가, 황소 가죽 일곱 겹으로 된 방패를 등에 메었다.

그리고 무리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들짐승처럼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물러났다.

마치 개들과 농부들이 밤새도록 지키며, 황갈색 사자가 소 떼 가운데 가장 살진 놈을 채 가지 못하게 외양간에서 쫓아낼 때와 같았다. 사자는 고기가 먹고 싶어 곧장 덤벼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대담한 손들이 던지는 창과 활활 타는 횃불이 빗발치듯 날아오니,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그 앞에서 움츠러들고, 새벽이 되면 침울한 마음으로 물러간다.

그처럼 아이아스도 침울한 마음으로 트로이아인들 앞에서 마지못해 물러났다. 아카이아인들의 배가 몹시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곡식밭 옆을 지나던 느려 터진 당나귀가 아이들을 이겨 내고 밭에 들어가 무성한 곡식을 뜯어 먹는 것과 같았다. 수많은 몽둥이가 그 옆구리에서 부러지고, 아이들이 몽둥이로 때려도 그 힘이 보잘것없어, 당나귀가 실컷 배를 채운 뒤에야 겨우 몰아낸다.

그처럼 기세등등한 트로이아인들과 여러 땅에서 모여든 동맹군들이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의 방패 한복판을 창으로 찌르며 줄곧 몰아붙였다.

아이아스는 때로는 사나운 용맹을 떠올리고 몸을 돌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막아 세웠고, 때로는 다시 돌아서서 물러났다.

그래도 그는 그들 모두가 날랜 배들로 가는 길을 막아섰고, 몸소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사이에 서서 맹렬히 싸웠다.

대담한 손들이 던진 창 가운데 일부는 날아와 그의 커다란 방패에 박혔고, 많은 창은 그의 흰 살갗에 닿기도 전에, 살을 실컷 맛보고 싶어 하면서도 중간에서 땅에 꽂혔다.

그러나 에우아이몬의 영광스러운 아들 에우리필로스가 아이아스가 빗발치는 창에 시달리는 것을 보자, 그는 다가와 아이아스의 곁에 서서 빛나는 창을 던졌다.

에우리필로스는 백성의 목자인 파우시오스의 아들
아피사온의 횡격막 아래 간을 맞혔고, 아피사온은 즉시
무릎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 에우리필로스는 아피사온에게
달려들어 그의 어깨에서 갑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에우리필로스가
아피사온의 갑옷을 벗기는 것을 보고는, 즉시 활을 당겨
에우리필로스의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쏘았다. 화살의
대는 부러졌으나, 그의 허벅지는 무겁게 짓눌렸다.

그러자 그는 죽음을 피해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나며,
날카로운 소리로 다나오스인들을 불렀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돌아서서 버티시오. 창에 시달리는 아이아스에게서 무자비한
파멸의 날을 막아 주시오. 그가 이 처참한 싸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소. 자,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
곁에 서서 적과 맞서시오."

상처 입은 에우리필로스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들이 다가와
방패를 어깨에 기대고 창을 높이 치켜든 채 그의 곁에 바짝
서서 자리를 잡았다.

아이아스도 그들을 향해 다가왔고, 동료들의 무리에
다다르자 몸을 돌려 섰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싸웠다.

그러나 땀에 흠뻑 젖은 넬레우스의 암말들이 네스토르를 전투에서 이끌어 냈고, 백성의 목자인 마카온 또한 이끌어 냈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것을 보고 눈여겨보았다. 그는 선체가 큰 자기 배의 고물에 서서, 싸움의 처절한 고생과 눈물겨운 패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즉시 배 옆에서 동료 파트로클로스를 부르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파트로클로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레스와 같은 모습으로 막사에서 달려 나왔으나, 이것이 그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킬레우스여, 왜 나를 부르시오? 무슨 일이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메노이티오스의 훌륭한 아들이여, 내 마음에 소중한 이여, 이제 아카이아인들이 내 무릎에 매달려 애원하게 될 것 같소. 더는 견딜 수 없는 곤경이 그들에게 닥쳤으니 말이오."

“그러니 제우스께서 아끼시는 파트로클로스여, 가서
네스토르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싸움터에서 부상당해
데려오는 이가 누구인지 말이오. 뒤에서 보기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 마카온과 꼭 닮았지만, 말들이 나를
지나 내달리는 바람에 그 사람의 눈은 보지 못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사랑하는 전우의 말을
따라 아카이아인들의 막사와 배들을 따라 달려갔다.

한편 다른 두 사람은 넬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이르러
풍요로운 땅에 내려섰다.

시종 에우리메돈이 늙은 네스토르의 말들을 전차에서
풀었고, 두 사람은 바닷가 바람을 맞으며 서서 튜닉에 밴 땀을
말렸다. 그러고 나서 막사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헤카메데가 그들을 위해
음료를 섞어 내왔다.

그녀는 마음이 드높은 아르시노오스의 딸로, 늙은
네스토르가 아킬레우스가 테네도스를 함락시켰을 때
그곳에서 데려온 여인이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그녀를 네스토르를 위해 선발했는데, 이는 그가 의논할 때 언제나 모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먼저 두 사람 앞에 검푸른 법랑 다리가 달린 아름답고 잘 닦인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 탁자 위에 청동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음료에 곁들일 양파와 연한 꿀, 그리고 신성한 보리의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늙은 네스토르가 집에서 가져온, 황금 돌기가 박힌 아름다운 잔을 놓았다.

그 잔에는 손잡이가 네 개 달려 있었고, 각 손잡이마다 비둘기 두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으며, 아래에는 두 개의 받침이 있었다. 잔이 가득 차 있을 때라면 다른 사람은 탁자에서 그 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겠지만, 늙은 네스토르는 아주 쉽게 들어 올렸다.

여신 같은 그 여인은 프람노스 포도주에 그들을 위한 음료를 섞었다. 그리고 청동 강판에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를 갈아 넣고 그 위에 하얀 보리 가루를 뿌렸다. 음료를 다 준비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마시라고 권했다.

두 사람이 음료를 마시고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그때 보라, 신과 같은 사내 파트로클로스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를 보자 늙은 네스토르는 빛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파트로클로스는 마주 선 채 사양하며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어르신, 저는 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부상당해
데려오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 오라고 저를 보낸 이는
존경스럽고도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저기 백성의 목자 마카온이 보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소식을 전하러 아킬레우스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어르신, 그 무서운
사람이 어떤지 어르신도 잘 아십니다. 그는 죄 없는 사람도
쉽게 탓할 사람입니다."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아킬레우스는 화살에 맞은 수많은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이토록 가엽게 여기는 것이오? 그는 진영 전체에
어떤 슬픔이 닥쳤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려. 가장 뛰어난
자들이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려 배들 사이에 누워 있소."

"티데우스의 아들, 용맹한 디오메데스가 화살에 맞았고, 창으로 이름난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도 창에 찔려 부상을 입었소. 또한 에우리필로스도 허벅지에 화살을 맞았으며, 방금 전에도 화살에 맞은 이 한 명을 내가 전쟁터에서 데려왔소.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용맹할지언정 다나오스인들을 돌보지 않으며 가엽게 여기지도 않구려. 아르고스인들이 막아 보려 해도 소용없이, 바닷가의 날랜 배들이 집어삼키는 불길에 타오르고, 우리가 하나하나 죽어 나갈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이오?"

"이제 내 유연한 사지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소. 엘리스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소 떼를 빼앗는 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처럼, 내가 젊고 힘이 넘친다면 좋으련만.

그때 나는 우리가 앙갚음으로 빼앗은 가축을 몰고 오다가, 엘리스에 살던 히페이로코스의 용맹한 아들 이티모네우스를 죽였소. 그는 소 떼를 지키려 싸우다 맨 앞에서 내 창에 맞아 쓰러졌고, 그 곁의 시골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소."

"우리는 평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함께 몰고 왔소. 소 쉰 떼와 그만큼의 양 떼, 그만큼의 돼지 떼, 그만큼의 떠돌이 염소 떼, 그리고 암말만 백쉰 마리의 밤색 말들을 몰고 왔는데, 그중 많은 말은 젖을 먹이는 망아지를 달고 있었지.

우리는 밤중에 이들을 넬레우스의 필로스 성채로 몰고 들어갔고, 내가 소년 시절에 전쟁에 나갔을 때 그토록 많은 전리품이 내게 돌아왔으니 넬레우스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소."

"새벽이 밝자 전령들이 크게 외쳤소. 훌륭한 엘리스에 받을 빚이 있는 사람은 모두 오라고 말이오. 필로스인의 지도자들이 모여 몫을 나누었으니, 에페이오스인들은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오. 필로스에 사는 우리는 수가 적고 괴롭힘을 당했소.

예전에 강력한 헤라클레스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 우리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던 것이오."

"비길 데 없는 넬레우스의 아들은 열둘이었으나, 그들 중 나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소. 그래서 청동 갑옷을 입은 에페이오스인들은 그 사실을 두고 기세등등해져서, 제멋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쳤소."

"늙은 넬레우스는 전리품 가운데 소 한 떼와 큰 양 떼를 골랐는데, 삼백 마리를 목자들과 함께 골랐소. 훌륭한 엘리스에서 그가 받을 큰 빚이 있었기 때문이오.

상을 탄 우리 말 네 필이 전차와 함께 경기에 나갔었소. 세발솥을 걸고 경주하려던 것이었는데, 인간들의 왕 아우게이아스가 말들을 거기 붙잡아 두고, 말을 잃고 슬퍼하는 마부만 돌려보냈소."

"그런 짓과 말 때문에 노인은 화가 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몫으로 골랐소.

나머지는 백성에게 나누도록 내주었소. 그가 하는 한, 누구도 공평한 몫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소.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고 도시 곳곳에서 신들께 제물을 바치고 있었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에페이오스인들이 많은 사람과 통굽 말들을 이끌고 한꺼번에 서둘러 몰려왔소. 그들 가운데에는 몰리오네 형제도 무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사나운 용맹을 모르는 애송이들이었소."

“모래 많은 필로스의 맨 끝, 알페이오스 강가 멀리 가파른 언덕 위에 트리오에사라는 도시가 있소. 그들은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 주위에 진을 쳤소.

그들이 온 평원을 휩쓸고 다니자, 아테나께서 밤에 올림포스에서 서둘러 내려와 우리에게 싸울 채비를 하라고 알려 주셨소. 아테나께서 필로스에서 모으신 백성은 조금도 싸움을 꺼리지 않고 오히려 몹시 싸우고 싶어 했소.

그때 넬레우스께서는 내가 무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 말들을 숨겨 버리셨소. 내가 아직 싸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오.”

“그래도 나는 걸어서 싸웠지만 우리 기병들 사이에서 으뜸이었소. 아테나께서 싸움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오.

아레네 가까이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미니에이오스라는 강이 있는데, 우리 필로스 기병들은 그곳에서 빛나는 새벽을 기다렸고, 보병들도 줄지어 뒤따라 밀려왔소.

거기서 우리는 무장을 갖추고 서둘러 나아가, 한낮에 알페이오스의 신성한 물가에 이르렀소.”

“거기서 우리는 더없이 강한 제우스께 훌륭한 제물을 바치고, 알페이오스와 포세이돈께는 황소를 한 마리씩,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께는 떼에서 고른 암소 한 마리를 바쳤소.

그러고 나서 군대 전체가 무리 지어 저녁을 먹고, 강가에서 저마다 무장한 채 잠자리에 들었소.

한편 기개 높은 에페이오스인들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소. 그러나 그 전에 그들 앞에 큰 싸움이 벌어졌소. 빛나는 해가 땅 위로 솟아오르자, 우리는 제우스와 아테나께 기도하고 싸움을 시작했소.”

“필로스인과 에페이오스인의 싸움이 시작되자, 내가 맨 먼저 적을 죽이고 그의 통굽 말들을 차지했소. 그 적은 창잡이 물리오스였소.

그는 아우게이아스의 사위로, 넓은 땅이 기르는 온갖 약초를 아는 머리칼 고운 맏딸 아가메데를 아내로 맞았소.

그가 내게 덤벼들 때 나는 청동 촉을 단 창으로 그를 쳤고, 그는 먼지 속에 쓰러졌소. 나는 그의 전차에 뛰어올라 맨 앞 전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소.”

"기개 높은 에페이오스인들은 기병들의 우두머리이자
싸움에서 으뜸이던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달아났소.

나는 검은 폭풍처럼 그들에게 덤벼들어 전차 쉰 대를
빼앗았고, 전차마다 두 사람씩 내 창에 쓰러져 흙을 물었소.

그들의 아버지, 널리 다스리는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 그들을
짙은 안개로 감싸 싸움에서 구해 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악토르의 혈통인 몰리오네 형제도 죽였을 것이오."

"그때 제우스께서 필로스 사람들에게 큰 힘을 내려 주셨소.
우리는 넓은 평원을 가로질러 뒤쫓으며 사람들을 죽이고
훌륭한 무구를 거두어들였소. 그렇게 밀이 풍성한
부프라시온과 올레노스 바위, 알레시온 언덕이라 불리는
곳까지 말을 몰고 갔는데, 거기서 아테나께서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셨소.

거기서 나는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고 그를 버려두었소.
아카이아인들은 날랜 말들을 몰고 부프라시온에서 필로스로
돌아갔고, 모두가 신들 가운데서는 제우스께, 인간들
가운데서는 네스토르에게 영광을 돌렸소."

“내가 전사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소.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면 말이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제 용맹을 혼자서만 누리려 하오. 그러나 백성이 죽어 나간 뒤에는 틀림없이 몹시 후회할 것이오.

친구여, 메노이티오스는 그대를 프티아에서 아가멤논에게 보내던 날, 분명 그대에게 이렇게 당부했소. 그때 나와 훌륭한 오디세우스도 안에 있어서, 그가 그대에게 당부하는 말을 집 안에서 다 들었소. 우리는 풍요로운 아카이아 땅 곳곳에서 군대를 모으다가 펠레우스의 잘 지은 집에 왔던 것이오.”

“그 집에서 우리는 용사 메노이티오스와 그대, 그리고 그대들과 함께 있던 아킬레우스를 만났소. 전차를 모는 노인 펠레우스는 안뜰 울타리 안에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께 황소의 기름진 넓적다리를 태우고 있었소. 그는 황금 잔을 손에 들고, 타오르는 제물 위에 불꽃 같은 포도주를 붓고 있었소.”

“그대들 둘이 황소 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쁠 때, 우리가 문간에 섰소.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놀라 벌떡 일어나 우리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어 앉으라고 권하고, 손님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대접을 넉넉히 차려 주었소.”

“우리가 실컷 먹고 마신 뒤, 내가 먼저 말을 꺼내 그대들도 우리와 함께 가자고 권했소. 그대들 둘은 몹시 가고 싶어 했고, 두 아버지는 그대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소.

늙은 펠레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언제나 가장 용감하고 누구보다 뛰어나라고 일렀소. 그리고 악토르의 아들 메노이티오스는 그대에게 이렇게 당부했소.

‘내 아들아, 태생으로는 아킬레우스가 너보다 고귀하지만, 나이는 네가 더 많다. 힘은 그가 훨씬 세지만 말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슬기로운 말을 잘 해 주고, 충고하고 이끌어 주어라. 그러면 그는 따를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이로울 것이다.’ 노인은 그대에게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대는 잊어버렸구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오. 혹시 그가 귀를 기울일지 모르오. 신의 도움으로 그대가 설득하여 그의 마음을 움직일지 누가 알겠소? 친구의 권유는 좋은 것이오.”

"그러나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신탁을 꺼리고 있거나, 존귀한 어머니가 제우스께 들은 무슨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면, 적어도 그대만은 내보내게 하시오. 그리고 미르미돈인의 다른 군사들도 그대를 따르게 하시오. 그대가 다나오스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지도 모르오.

그리고 그더러 그 아름다운 갑옷을 그대에게 주어 싸움터에 입고 나가게 하시오. 그러면 트로이아인들이 그대를 그로 여기고 싸움에서 물러날지도 모르오. 그러면 지친 아카이아인의 용맹한 아들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오. 싸움에서 숨 돌릴 틈은 아주 짧은 법이니 말이오."

"그렇다면 지치지 않은 그대들이 전투로 지친 사람들을 배와 막사로부터 도시 쪽으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의 가슴속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하여 파트로클로스는 아이아코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가기 위해 배들이 늘어선 줄을 따라 달려 나갔다.

파트로클로스가 달려가다가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배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그들의 집회 장소와 재판 자리가 있었고, 신들의 제단도 세워져 있었다.

거기서 에우아이몬의 아들, 제우스의 후손 에우리필로스와 마주쳤다. 그는 허벅지에 화살을 맞은 채 싸움터에서 절뚝이며 나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와 어깨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깊은 상처에서는 검은 피가 솟구쳤으나,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를 본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은 가엾게 여겨 탄식하며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아, 가련한 다나오스인의 지도자들과 군주들이여, 그대들은 결국 친구들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아에서 날랜 개들을 하얀 기름으로 배불리게 될 운명이었구려.

그러나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용사 에우리필로스여, 말해 주시오. 아카이아인들이 아직 강력한 헥토르를 막아 내고 있소, 아니면 이제 그의 창에 쓰러져 죽어 가고 있소?”

상처 입은 에우리필로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후손 파트로클로스여, 아카이아인들에게는 더 이상 막아 낼 힘이 없소. 그들은 이제 검은 배들 위로 쓰러질 것이오.

전에 가장 용맹하던 이들이 모두 트로이아인들의 손에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려 배들 사이에 누워 있소.
트로이아인들의 힘은 갈수록 세지고 있소."

"그러니 나를 도와 내 검은 배로 데려가 주시오. 허벅지에서
화살을 도려내고, 따뜻한 물로 검은 피를 씻어 낸 뒤, 잘 듣는
약초를 뿌려 주시오. 그대가 아킬레우스에게서 그 약초를
배웠다고들 하오. 아킬레우스는 켄타우로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케이론에게 배웠다 하오.

의원인 포달레이리오스와 마카온 가운데,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막사에 누워 그 자신이 훌륭한 의원이 필요한 처지인
듯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원에서 트로이아인들의 거센
공격을 버티고 있소."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그에게 다시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용사 에우리필로스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소? 나는
아카이아인의 수호자인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맡긴 말을
지혜로운 아킬레우스에게 전하러 가는 길이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토록 괴로운 처지의 그대를 내버려 두지는
않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백성의 목자를 가슴께로 부축해 그의 막사로 데려갔다.

시종이 그들을 보고 땅에 소가죽을 깔았다.

파트로클로스는 그곳에 그를 길게 눕혔다.

그리고 칼로 허벅지에서 날카로운 화살을 도려내고, 따뜻한 물로 상처의 검은 피를 씻어 냈다.

이어서 통증을 없애 주는 쓴 뿌리를 손바닥으로 비벼 상처 위에 뿌렸다. 그 뿌리가 통증을 모두 멎게 하자, 상처가 마르고 피가 멎었다.

제12권

방벽을 둘러싼 싸움

막사들 사이에서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부상당한 에우리필로스를 돌보는 동안,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은 무리 지어 계속 싸웠다.

다나오스인들의 해자와 그 위의 넓은 성벽도 오래 그들을 지켜 주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들은 배들을 지키려고 그 성벽을 쌓고 둘레에 해자를 팠다. 날랜 배들과 많은 전리품을 그 안에 품어 지키려던 것이었으나, 신들에게 빛나는 백 마리 소의 제물은 바치지 않았다.

그 성벽은 불멸의 신들의 뜻을 거슬러 쌓은 것이었기에, 오래 버티지 못했다.

헥토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그리고 프리아모스 왕의 도시가 함락되지 않는 동안, 아카이아인들의 거대한 성벽 또한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트로이아인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자들이 모두 죽고,
아르고스인도 많이 죽거나 살아남고, 열째 해에
프리아모스의 도시가 함락되어 아르고스인들이 배를 타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자, 포세이돈과 아폴론은 성벽을
쓸어버리기로 의논했다.

이다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모든 강, 곧 레소스,
헵타포로스, 카레소스, 로디오스, 그라니코스, 아이세포스,
훌륭한 스카만드로스와 시모에이스의 힘을 성벽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시모에이스 강가에서는 수많은 소가죽
방패와 투구, 그리고 반신의 영웅들이 먼지 속에 쓰러졌었다.

포이보스 아폴론은 이 모든 강의 물길을 한데 모아 아흐레
동안 성벽으로 몰아붙였고, 제우스는 성벽을 더 빨리 짠
바다에 잠기게 하려고 쉬지 않고 비를 내렸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는 손에 삼지창을 들고 직접 앞장서서,
아카이아인들이 애써 들보와 돌로 놓은 토대를 모두 파도
속으로 쓸어버렸다.

그는 성벽을 쓸어버린 뒤, 헬레스폰토스의 거센 물줄기를
따라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고 다시 넓은 해변을 모래로
덮었다.

그리고 강물들을 돌려, 예전에 아름다운 물줄기를 쏟아내던 그 물길을 따라 다시 흐르게 했다.

훗날 포세이돈과 아폴론은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잘 지은 성벽 둘레에서 싸움과 함성이 불타올랐고, 망루의 들보들이 얻어맞아 울렸다.

제우스의 채찍에 꺾인 아르고스인들은 속 빈 배들 곁에 갇혀, 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헥토르가 두려워 꼼짝하지 못했다. 헥토르는 예전처럼 회오리바람같이 싸웠다.

마치 사냥개와 사냥꾼들 가운데서 멧돼지나 사자가 힘을 뽐내며 이리저리 몸을 돌릴 때와 같았다. 사람들은 성벽처럼 대열을 지어 맞서서 손에서 투창을 빗발치듯 던진다. 그래도 그 짐승의 용맹한 마음은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 용맹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데도 말이다.

그는 거듭 몸을 돌려 사람들의 대열을 시험하고, 그가 덤벼드는 곳마다 대열이 물러선다. 그처럼 헥토르도 무리 사이를 누비며 동료들에게 해자를 건너라고 재촉하며 애원했다.

그러나 그의 발 빠른 말들은 감히 건너지 못하고, 가파른 가장자리에 멈춰 서서 크게 울었다. 해자가 너무 넓어서 겁을 먹은 것이다. 단숨에 뛰어넘기도, 몰고 건너기도 쉽지 않았다.

해자 둘레에는 이쪽저쪽 모두 가파른 둑이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적을 막으려고 크고 날카로운 말뚝을 촘촘히 박아 두었다.

바퀴 달린 전차를 끄는 말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보병들은 해낼 수 있을지 궁리하며 몹시 건너고 싶어 했다.

그러자 폴리다마스가 헥토르에게 다가가 말했다.

"헥토르여, 그리고 트로이아인과 동맹군의 다른 지도자들이여, 날랜 말들을 몰아 해자를 건너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건너기가 참으로 어렵소. 날카로운 말뚝이 박혀 있고, 바로 그 곁에 아카이아인들의 성벽이 있으니 말이오. 그곳에서는 전차병들이 내려가 싸울 수도 없소. 자리가 좁아서 그랬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오."

“만약 높은 곳에서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 노하시어 적들을 아주 짓부수고 트로이아인들을 도우시려는 것이라면, 나도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오. 아카이아인들이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망하기를 말이오.

그러나 그들이 돌아서서 반격하여 우리가 배들에서 밀려나 파 놓은 해자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아카이아인들이 다시 힘을 모을 때 우리 가운데 소식을 전하러 도시로 돌아갈 자도 하나 남지 않을 것이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말들은 시종들이 해자 곁에 붙잡아 두게 하고, 우리는 무장한 채 걸어서 모두 한 무리가 되어 헥토르를 따릅시다. 파멸의 올가미가 저들에게 단단히 씌워졌다면, 아카이아인들은 우리를 막아 내지 못할 것이오.”

폴리다마스가 이렇게 말하자, 그 신중한 조언이 헥토르의 마음에 들었다. 헥토르는 곧바로 무장한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다른 트로이아인들도 전차 위에 모여 있지 않고, 훌륭한 헥토르가 걸어서 나선 것을 보자 모두 뛰어내렸다.

저마다 자기 마부에게 해자 곁에서 말들을 잘 붙잡아 질서 있게 대기하라고 일렀다. 병사들은 나뉘어 대열을 짓고, 다섯 부대로 편성되어 지휘관들을 따랐다.

어떤 이들은 헥토르와 비길 데 없는 폴리다마스를 따라갔다. 그들은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용맹하며, 성벽을 부수고 속 빈 배들 곁에서 싸우기를 가장 바라는 자들이었다.
케브리오네스가 세 번째 지휘관으로 그들과 함께했다.
헥토르는 케브리오네스보다 못한 다른 사람에게 전차를 맡겨 두었던 것이다.

두 번째 부대는 파리스와 알카토오스와 아게노르가 이끌었고, 세 번째 부대는 프리아모스의 두 아들 헬레노스와 신과 같은 데이포보스가 이끌었다.

세 번째 지휘관으로 용사 아시오스가 함께했다.
히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크고 황갈색인 말들을 타고 셀레에이스 강가의 아리스베에서 온 자였다.

네 번째 부대의 지도자는 용맹한 앙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였으며, 온갖 전투에 능숙한 안테노르의 두 아들 아르켈로코스와 아카마스가 그와 함께했다.

사르페돈은 영광스러운 동맹군을 이끌었다. 그는 글라우코스와 싸움을 즐기는 아스테로파이오스를 동료로 택했다. 사르페돈 자신을 제외하면 이들이 다른 누구보다 용맹해 보였기 때문이지만, 사르페돈은 그들 모두 사이에서도 가장 뛰어났다.

이들은 잘 만들어진 황소 가죽 방패로 서로를 보호하며, 열망에 가득 차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곧장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는 저지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검은 배들 위로 들이닥칠 기세였다.

나머지 트로이아인들과 이름난 동맹군들은 흠잡을 데 없는 폴리다마스의 조언을 따랐다.

그러나 사람들의 지도자인 히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말들과 시종인 마부를 그곳에 남겨 두려 하지 않고, 전차째 날랜 배들로 다가갔다. 어리석은 자였다!

그는 불길한 운명을 피해, 말과 전차를 뽐내며 배들에서 바람 부는 일리오스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 전에 이름도 불길한 운명이 데우칼리온의 훌륭한 아들 이도메네우스의 창으로 그를 덮쳤던 것이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이 말과 전차를 몰고 평원에서 돌아오곤 하는 배들의 왼쪽 날개 쪽으로 향했다.

그는 말과 전차를 몰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의 문은 닫혀 있지도 않았고 긴 가로막대가 걸려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붙들고 있었다. 전투에서 도망쳐 배들을 향해 달려오는 동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일부러 그쪽으로 말들을 몰았고, 부하들이 날카로운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다. 그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 더는 가로막히지 않고 검은 배들을 덮치리라 여겼다.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성문 앞에서 그들은 가장 용맹한 두 용사를 만났다. 창을 든 라피타이족의 기개 높은 아들들로, 하나는 페이리토오스의 아들인 굳센 폴리포이테스였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의 재앙인 아레스와 맞먹는 레온테우스였다.

이 두 용사는 높은 성문 앞에 굳건히 버티고 섰다. 마치 산속에서 우듬지를 높이 치켜든 참나무들이 크고 긴 뿌리를 단단히 박고서 날마다 바람과 비를 견디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두 사람은 제 팔의 힘을 믿고 위대한 아시오스가 덤벼드는 것을 버텨 내며 달아나지 않았다.

적들은 마른 소가죽 방패를 높이 치켜들고 큰 함성을 지르며, 아시오스 왕과 이아메노스, 오레스테스,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 토온과 오이노마오스를 앞세워 잘 쌓은 성벽으로 곧장 몰려왔다.

라피타이족 두 사람은 한동안 성벽 안에서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을 독려하여 배들을 지키게 했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이 성벽으로 몰려들고 다나오스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보자, 두 사람은 성문 앞으로 뛰쳐나가 싸웠다.

그들은 마치 산속에서 몰려드는 사람과 개들의 시끄러운 무리를 기다리는 멧돼지들 같았다. 멧돼지들은 양옆으로 덤벼들며 주위의 나무들을 뿌리째 꺾어 쓰러뜨리고, 누군가 그들을 맞혀 목숨을 빼앗을 때까지 엄니 부딪는 소리가 울린다.

그처럼 적을 마주 보고 얻어맞는 두 사람의 가슴에서 빛나는 청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들은 위에 있는 군사들과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아주 굳세게 싸웠다.

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막사, 그리고 날랜 배들을 지키기 위해 잘 지어진 탑 위에서 계속해서 돌을 던져댔다.

돌들은 마치 눈송이처럼 끊임없이 땅을 향해 떨어졌다. 그것은 거센 바람이 어두운 구름을 몰고 가며 풍요로운 대지 위로 눈송이를 굵고 빠르게 흩뿌리는 것과 같았다.

아카이아인과 트로이아인 모두의 손에서 던진 것들이 이렇게 쏟아졌다. 투구도 돋을새김 방패도 커다란 돌에 맞아 요란하게 울렸다.

그때 히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가 신음하며 두 허벅지를 치고, 몹시 분개하여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참으로 당신께서도 거짓을 몹시 좋아하십니다. 아카이아의 용사들이 우리의 힘과 무적의 손을 막아 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허리가 잘록한 말벌이나, 험한 길가에 집을 지은 벌들처럼, 속 빈 집을 떠나지 않고 버티며 새끼를 지키려 사냥꾼들과 맞섭니다. 저 사내들도 겨우 둘뿐이면서, 죽이든지 죽든지 하기 전에는 성문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나, 그 말로 제우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제우스는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려 했던 것이다.

다른 성문들에서도 다른 이들이 싸우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을 신처럼 다 이야기하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돌로 쌓은 성벽 곳곳에서 엄청난 불길 같은 싸움이 일었다.

아르고스인들은 몹시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배들을 지켰다. 싸움에서 다나오스인들을 돕던 신들은 모두 마음 아파했다.

라피타이족 두 사람은 싸움에 뛰어들어 맞붙었다.

그때 페이리토오스의 아들 강력한 폴리포이테스가 창을 던져, 청동 뺨가리개 달린 투구를 쓴 다마소스를 맞혔다. 청동 투구도 창을 막지 못했고, 청동 창끝은 뼈를 꿰뚫어 투구 속에서 골을 온통 흩어 놓았다. 그렇게 그는 덤벼드는 다마소스를 쓰러뜨렸다.

이어서 그는 필론과 오르메노스를 죽였다.

아레스의 후손 레온테우스는 안티마코스의 아들 히포마코스에게 창을 던져 허리띠를 맞혔다.

그는 다시 칼집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무리를 뚫고 달려들어 먼저 안티파테스를 가까이에서 내리쳤다. 그 바람에 안티파테스는 뒤로 나동그라져 땅에 떨어졌다.

그 후 그는 메논과 이아메노스, 그리고 오레스테스를 차례로 쓰러뜨려 풍요로운 대지 위로 보냈다.

그들이 쓰러진 자들에게서 빛나는 무구를 벗기는 동안, 폴리다마스와 헥토르를 따르던 젊은이들, 수가 가장 많고 가장 용맹하며 성벽을 부수고 배들을 불태우려고 가장 열을 올리던 이들은, 아직 해자 곁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들이 건너가려 열망하고 있을 때,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그들에게 날아왔다. 독수리는 군대의 왼쪽을 돌며 날아왔는데, 발톱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며 몸부림치는 듯한, 피처럼 붉고 거대한 뱀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뱀은 아직 전투를 잊지 않은 듯 몸을 뒤틀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독수리의 목 옆 가슴을 물어뜯었다. 고통을 느낀 독수리는 뱀을 땅으로 내던졌고, 뱀은 무리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리고 독수리는 커다란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트로이아인들은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가 보낸 징조인 그 뱀이 자기들 한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몸서리쳤다.

그러자 폴리다마스가 다가와 대담한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내가 좋은 조언을 해도 그대는 백성의 집회에서 늘 나를 꾸짖는구려. 하기야 평범한 백성이 회의에서나 싸움터에서나 그대에게 맞서는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늘 그대의 힘을 북돋워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겠지만 말이오. 그래도 이번에는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대로 말하겠소.”

“배들을 차지하려고 다나오스인들과 싸우러 나아가지 맙시다.”

“내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소. 우리가 건너가려 할 때 이 새가 트로이아인들에게 나타났으니 말이오. 높이 나는 독수리가 군대 왼쪽을 스치며, 살아 있는 핏빛 거대한 뱀을 발톱에 움켜쥐고 왔소. 그러나 제 둥지에 닿기도 전에 곧바로 뱀을 떨어뜨렸고, 새끼들에게 가져다주려던 길을 끝내 마치지 못했소.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오. 우리가 큰 힘으로 아카이아인들의 성문과 성벽을 부수고 아카이아인들이 물러선다 해도, 우리는 같은 길로 배들에서 뿔뿔이 흩어져 돌아오게 될 것이오. 아카이아인들이 배를 지키려고 청동으로 죽인 수많은 트로이아인을 뒤에 남겨 둔 채 말이오.”

"징조를 마음속으로 환히 꿰뚫어 알고 백성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예언자라면, 바로 이렇게 풀이할 것이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눈썹 아래로 노려보며 그에게 말했다.

"폴리다마스여, 그대의 말은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소. 그대는 이보다 나은 생각을 낼 줄 알지 않소.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신들께서 그대의 분별을 빼앗아 가신 것이 틀림없소. 크게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 몸소 내게 약속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신 그 뜻을 잊으라고 하니 말이오."

"그런데 그대는 날개 긴 새들을 따르라고 하는구려. 나는 새들이 새벽과 해가 있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든, 어두운 서쪽 왼편으로 날아가든 상관하지도 마음 쓰지도 않소.

우리는 모든 필멸의 인간과 불멸의 신들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우스의 뜻을 따릅시다. 가장 좋은 징조는 단 하나,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오. 그대는 어찌하여 전쟁과 싸움을 두려워하오?"

"만약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아르고스인들의 배 앞에서 모두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대가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소. 그대의 마음은 전투에서 굳건하지도 않고 호전적이지도 않으니 말이오.

하지만 만약 그대가 전투를 멀리하거나, 그대의 말로 다른 이를 속여 전쟁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면, 곧바로 나의 창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앞장섰고, 그들은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다.

그러자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가 이다 산에서 돌풍을 일으켜 먼지를 배들 쪽으로 곧장 몰아붙였다. 그리고 아카이아인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는 영광을 주었다.

그리하여 트로이아인들은 제우스의 징조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아카이아인들의 거대한 성벽을 부수려 했다.

그들은 망루의 흉벽을 끌어내리고 성가퀴를 허물었으며, 아카이아인들이 성벽을 받치려고 먼저 땅에 박아 둔 버팀 들보들을 지렛대로 들어냈다. 그것들을 뽑아내어 아카이아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그래도 다나오스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소가죽으로 성가퀴를 막고서 성벽으로 다가오는 적들에게 그 위에서 무기를 던졌다.

두 아이아스는 성벽을 따라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독려하고 아카이아인들의 힘을 북돋웠다.

그들은 싸움에서 아주 물러서는 자를 보면, 어떤 이는 부드러운 말로, 어떤 이는 거친 말로 꾸짖었다.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인 가운데 으뜸가는 자든, 중간인 자든, 못한 자든, 싸움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는 법이지만, 지금은 모두가 할 일이 있소. 그대들도 이것을 잘 알 것이오."

"격려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누구도 배 쪽으로 물러서지 마시오. 앞으로 나아가며 서로 독려하시오. 번개를 다스리시는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우리에게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들을 도시로 몰아내게 해 주실지도 모르오."

두 사람이 이렇게 외치며 아카이아인들의 투지를 북돋웠다.

겨울날에 눈송이가 두껍게 내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제우스가 눈을 내리기로 마음먹어 인간들에게 자신의 화살을 보여줄 때가 있다. 그는 바람을 잠재우고 눈송이를 끊임없이 뿌려, 높은 산봉우리와 높은 곶, 풀이 우거진 평원과 인간들의 풍요로운 경작지를 모두 덮을 때까지 눈을 내린다.

심지어 회색 바다의 항구와 해안 위에도 눈이 흩뿌려지는데,
파도가 해안을 때리며 눈을 밀어내기는 하지만 제우스의
폭풍이 몰아칠 때면 그 외의 모든 것이 눈에 덮인다.

그와 같이 양측에서 돌들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자 어떤 것은 트로이아인들에게, 어떤 것은
트로이아인들이 던진 것이 아카이아인들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성벽 전체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래도 지혜로운 제우스가 자기 아들 사르페돈을 윤기 나는
소 떼에 덤비는 사자처럼 아르고스인들에게 맞서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트로이아인들과 빛나는 헥토르도 성벽의 문과
긴 빗장을 부수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르페돈은 곧바로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앞에 들었다.
대장장이가 두드려 편 아름다운 청동 방패로, 안쪽에는 여러
겹의 소가죽을 대고 가장자리를 빙 둘러 금실로 꿰매어
놓았다.

그는 이것을 앞세우고 두 자루의 창을 휘둘렀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이가 부족했던, 산에서 자란 사자처럼 나아갔다.
그 사자의 오만한 기백은 양 떼를 공격하기 위해 촘촘히
지어진 우리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

사자는 목자들이 개와 창을 들고 양 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번 덤벼 보기도 전에 우리에서 쫓겨날 생각은 없다. 양 떼 속으로 뛰어들어 한 마리를 채 가든지, 아니면 맨 앞에서 날랜 손이 던진 투창에 맞아 쓰러진다.

그처럼 신과 같은 사르페돈의 기개도 그를 재촉하여 성벽으로 돌진해 성가퀴를 허물게 했다.

곧바로 그는 히폴로코스의 아들 글라우코스에게 말했다.

"글라우코스여, 어찌하여 우리 둘은 리키아에서 윗자리와 고기와 가득 찬 술잔으로 누구보다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신처럼 우러러보는 것이오? 게다가 우리는 크산토스 강가에 과수원과 밀밭이 딸린 넓고 좋은 영지도 가지고 있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리키아인들의 맨 앞에 서서 불타는 싸움에 맞서야 하오. 그래야 갑옷 입은 리키아인들이 저마다 이렇게 말할 것이오. '참으로 리키아를 다스리는 우리 왕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다. 살진 양을 먹고 꿀처럼 달콤한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들의 힘 또한 훌륭하다. 리키아인들의 맨 앞에서 싸우니 말이다.'"

"'아, 친구여, 이 싸움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면, 나도 맨 앞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고 그대를 영광을 얻는 싸움터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죽음의 운명이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필멸의 인간은 그것을 피할 수도 비켜 갈 수도 없으니, 자, 나아갑시다. 우리가 남에게 영광을 주든, 남이 우리에게 주든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글라우코스는 길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의 말을 거역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리키아인의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을 보자 페테오스의 아들 메네스테우스는 몸서리쳤다. 그들이 파멸을 몰고 그가 맡은 성벽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에게 닥칠 재앙을 막아줄 지도자 중 한 명이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두려움에 떨며 아카이아인의 성벽을 따라 둘러보았다.

그는 전쟁에 굶주린 두 아이아스가 그곳에 서 있는 것과, 막사에서 막 돌아온 테우크로스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소음이 너무나 컸기에 그가 소리를 질러도 그들에게 들릴 방법이 전혀 없었다. 두드려 맞은 방패와 말총 장식 투구, 그리고 모두 닫혀 있는 성문에서 나는 소음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적들이 그들 앞에 서서 무력으로 성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네스테우스는 곧바로 전령 토오테스를 아이아스에게 보냈다.

"가라, 훌륭한 토오테스여. 달려가서 아이아스를 불러오너라. 아니, 두 아이아스를 모두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곳에 곧 끔찍한 파멸이 닥칠 테니 말이다.

예부터 격렬한 싸움에 사나운 리키아인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도 힘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텔라몬의 아들 용맹한 아이아스만이라도 혼자 오고, 활을 잘 쏘는 테우크로스가 함께 오게 하라."

그가 이렇게 말하자, 전령은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청동 갑옷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성벽을 따라 달려가 두 아이아스 곁에 서서 곧바로 말했다.

“청동 갑옷 입은 아카이아인의 지도자이신 두 아이아스여,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페테오스의 아들께서 잠시라도 저리로 가서 싸움을 맞아 달라고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두 분 모두 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저곳에 곧 끔찍한 파멸이 닥칠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예부터 격렬한 싸움에 사나운 리키아인의 지도자들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면, 적어도 텔라몬의 아들 용맹한 아이아스만이라도 혼자 가시고, 활을 잘 쏘는 테우크로스가 함께 가게 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는 그 말을 어기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오일레우스의 아들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아이아스여, 그대와 굳센 리코메데스는 여기 버티고 서서 다나오스인들이 힘껏 싸우도록 독려하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싸움을 맞겠소. 그들을 충분히 도와준 뒤 곧 돌아오겠소.”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친형제 테우크로스도 함께 갔고, 판디온이 테우크로스의 굽은 활을 들고 따라갔다.

그들은 성벽 안쪽을 따라가다 기개 높은 메네스테우스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몹시 밀리고 있었다. 리키아인의 강력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검은 회오리바람처럼 성가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맞붙어 싸웠고, 함성이 터져 올랐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맨 먼저 적을 죽였다. 사르페돈의 동료인 기개 높은 에피클레스였다. 아이아스는 성벽 안쪽 성가퀴 곁, 돌무더기 맨 위에 놓여 있던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바위로 그를 쳤다.

지금 사람들 같으면 아무리 젊고 힘센 자라도 두 손으로 쉽게 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아스는 그것을 높이 들어 던져, 에피클레스의 네 뿔 달린 투구를 부수고 머리뼈를 모두 으스러뜨렸다.

에피클레스는 자맥질하는 사람처럼 높은 성벽에서 떨어졌고, 그의 목숨은 뼈를 떠났다.

테우크로스는 히폴로코스의 굳센 아들 글라우코스가 덤벼드는 것을 보고, 팔이 드러난 곳을 높은 성벽에서 화살로 맞혀 싸움을 멈추게 했다.

글라우코스는 아카이아인 누구도 그가 맞은 것을 알아채고 뽐내지 못하도록 몰래 성벽에서 뛰어내려 물러났다.

사르페돈은 글라우코스가 물러난 것을 알아채자 슬픔에 잠겼으나, 그래도 싸움을 잊지 않았다. 그는 테스토르의 아들 알크마온을 겨누어 창으로 찔러 맞히고는 다시 창을 뽑았다.

알크마온은 창이 뽑히는 대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청동으로 꾸민 무구가 그의 몸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사르페돈은 억센 손으로 성가퀴를 붙잡고 잡아당겼다. 그러자 성가퀴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 성벽 위가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지나갈 길이 열렸다.

그러나 아이아스와 테우크로스가 동시에 그에게 덤벼들었다. 테우크로스는 그의 가슴에 둘린, 몸을 가려 주는 방패의 빛나는 멜빵을 화살로 맞혔다. 그러나 제우스가 자기 아들이 배들의 고물 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죽음의 운명을 막아 주었다.

아이아스는 뛰어들어 그의 방패를 찔렀으나, 창끝은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덤벼들던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사르페돈은 성가퀴에서 조금 물러났으나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영광을 얻으리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몸을 돌려 신과 같은 리키아인들을 향해 외쳤다.

"리키아인들이여, 어찌하여 이토록 격렬한 용맹을 떨치지 않고 나태하게 구는 것이오? 내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홀로 성벽을 허물고 배들로 가는 길을 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오. 그러니 나와 함께 그들에게 달려드시오. 사람이 많을수록 일이 더 잘되는 법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왕의 꾸짖음에 두려움을 느낀 리키아인들은 그들의 조언자이자 왕인 사르페돈의 주변으로 더욱 몰려들어 전진했다. 그들에 맞선 아르고스인들은 성벽 안에서 대열을 강화했으며, 그들 앞에는 큰일이 놓여 있었다.

강력한 리키아인들은 다나오스인의 성벽을 허물고 배들로 가는 길을 낼 수도 없었고, 다나오스의 창병들 또한 리키아인들이 성벽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성벽으로부터 밀어낼 수도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손에 자를 들고 공동의 들판에 있는 경계석을 두고 다투며, 좁은 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았다.

성벽이 그들을 서로 갈라놓은 채, 그들은 성벽 위에서 서로의 가슴을 향해 소가죽 방패와 둥근 방패, 술 달린 가벼운 방패를 내리쳤다.

싸우다가 몸을 돌려 등이 드러난 자들은 무자비한 청동에 살을 찔렸고, 방패째 꿰뚫려 다친 자들도 많았다.

성벽과 성가퀴 곳곳이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 양쪽 사람들이 흘린 피로 온통 흥건하게 물들었다.

그래도 트로이아인들은 아카이아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아카이아인들은 버텼다.

마치 손으로 실을 잣는 성실한 여인이 아이들을 위해 보잘것없는 품삯이라도 벌려고, 저울을 들고 한쪽 접시에는 추를, 다른 쪽에는 양털을 올려 수평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싸움은 그토록 팽팽했다.

마침내 제우스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에게 승리의 영광을 내렸다. 헥토르는 맨 먼저 아카이아인들의 성벽 안으로 뛰어들며, 트로이아인들에게 날카로운 소리로 크게 외쳤다.

"일어나시오,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성벽을 부수고 배들에 활활 타는 불을
던지시오!"

그가 이렇게 독려하자, 트로이아인들은 모두 그 소리를 듣고
한 덩어리가 되어 성벽으로 곧장 몰려가, 손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흉벽으로 기어올랐다.

헥토르는 성문 앞에 놓여 있던 돌을 움켜쥐고 들었다. 밑동은
두껍고 끝은 뾰족한 돌이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센
두 사람이라도 그 돌을 땅에서 들어 수레에 싣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헥토르는 혼자서도 그것을 가볍게 휘둘렀다. 꾀가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이 그 돌을 가볍게 해 주었던 것이다.

마치 목자가 숫양의 털가죽을 한 손에 들고 거의 무게도
느끼지 않고 가볍게 나르듯, 헥토르도 돌을 들어 올렸다.

그는 단단히 짜 맞춘 성문의 문짝들을 향해 돌을 들고 곧장
나아갔다. 그 문은 높은 두 짝 문으로, 안쪽에서 가로막대 두
개가 붙들고 있었고 빗장 하나가 그것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바로 앞에 다가가 섰다. 던지는 힘이 모자라지 않도록 두
발을 넓게 벌려 버티고는, 문짝 한가운데를 내리쳤다.

돌은 돌쩌귀 두 개를 모두 부수고 제 무게로 안쪽에 떨어졌다. 문짝이 양쪽에서 크게 삐걱거렸고, 가로막대도 버티지 못했다. 돌이 덮치는 기세에 문짝이 이리저리 부서져 나갔다.

빛나는 헥토르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덮치는 밤 같았다. 그는 몸에 두른 무시무시한 청동으로 번쩍였고, 두 손에 창 두 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가 일단 문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신들을 제외하고는 그를 막아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두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무리 속에서 몸을 돌리며 트로이아인들에게 성벽을 넘어오라고 외쳤고, 트로이아인들은 그의 재촉에 귀를 기울였다.

곧바로 어떤 이들은 성벽을 넘어 올라왔고, 다른 이들은 튼튼하게 지어진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다나오스인들은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패주하며 쫓겨났고, 끊이지 않는 소란이 일어났다.

제13권

함선 곁의 싸움

제우스는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를 배들 곁까지 이끌어 온 뒤, 싸우는 자들이 그곳에서 끝없는 고생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빛나는 눈을 돌려 멀리, 말을 모는 트라키아인들의 땅과, 백병전에 능한 미시아인들의 땅, 그리고 암말의 젖을 마시는 고귀한 히페몰고이족과 인간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아비오이족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는 트로이아 쪽으로 빛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불멸의 신들 가운데 누구도 트로이아인이나 다나오스인을 도우러 다가가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대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신은 넋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숲이 우거진 사모트라케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앉아 싸움과 전투를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이다 산 전체가 훤히 보였고, 프리아모스의 도시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도 훤히 보였다.

그는 바다에서 나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이 트로이아인들에게 꺾이는 것을 가엾게 여겼고, 제우스에게 몹시 분노했다.

그러자 그는 험준한 산에서 내려와 빠른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포세이돈이 나아갈 때마다 높은 산들이 떨렸고, 그의 불멸의 발아래에 있는 숲도 떨렸다.

그는 세 번 성큼성큼 걸어갔고, 네 번째 발걸음에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곳은 바로 아이가이였으며, 그곳 바다 깊은 곳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영원히 썩지 않는 그의 유명한 궁전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여, 황금빛 갈기를 휘날리며 날쌔게 달리는 청동 발굽을 가진 두 마리의 말을 전차에 매었다.

그는 몸에 황금을 둘렀고, 잘 만들어진 황금 채찍을 손에 쥐었다.

그러고는 전차에 올라타 파도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다 짐승들이 깊은 곳에서 나와 사방에서 그의 아래로 뛰놀았다. 그들은 제 주인을 알아보았고, 바다는 기뻐하며 그 앞에서 갈라졌다.

말들은 아주 빠르게 내달렸고, 청동 굴대 아래쪽조차 젖지 않았다.

힘차게 뛰는 말들은 주인을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이 있는 곳으로 실어 갔다.

테네도스와 험준한 임브로스 사이, 깊은 바다 밑에 넓은 동굴이 하나 있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은 그곳에서 말들을 멈춰 세우고 전차에서 풀어 준 뒤, 그 앞에 신들의 꼴을 던져 주어 먹게 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기다리도록, 부서지지도 풀리지도 않는 황금 족쇄를 말들의 발에 채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소 아카이아인들의 군대로 갔다.

하지만 트로이아인들은 모두 한 몸이 되어, 마치 불길이나 폭풍우처럼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를 뒤쫓으며 요란하게 함성을 지르며 사납게 따랐다. 그들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을 탈취하고, 그곳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을 모두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편, 대지를 감싸는 자이자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은 깊은 바다에서 올라와, 칼카스와 똑같은 모습과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아르고스인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미 싸울 마음에 불타던 두 아이아스에게 말했다.

"두 아이아스여, 그대들이 제 힘을 잊지 않고 싸늘한 패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대들 둘이 아카이아인의 군대를 구할 것이오.

큰 성벽을 떼 지어 넘어온 트로이아인들의 무적의 손도 다른 곳에서는 두렵지 않소.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이 모두 막아 낼 것이오.

그러나 이곳만은 무슨 변이 닥칠까 몹시 두렵소. 강력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뽐내는 저 미치광이 헥토르가 불길처럼
앞장서고 있는 이곳 말이오."

"어떤 신이 그대들 두 사람의 마음에, 여기서 굳게 버티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라고 독려할 마음을 넣어 주기를
바라오. 그러면 헥토르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설령
올림포스의 신께서 몸소 그를 부추긴다 해도, 그대들은 그를
날랜 배들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대지를 감싸고 뒤흔드는 신은 지팡이로 두 사람을 쳐서 용맹한 힘으로 가득 채우고, 팔다리와 발과 손을 가볍게 해 주었다.

그러고는 날개 빠른 매가 높고 가파른 바위 위에 날개를 펴고 떠 있다가 다른 새를 쫓아 평원 위로 내리꽂히듯,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도 그들에게서 재빨리 떠나갔다.

두 사람 가운데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가 먼저 신을 알아보고, 곧바로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에게 말했다.

"아이아스여,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 둘에게 배들 곁에서 싸우라고 하신 것이오. 저분은 예언자이자 새점쟁이인 칼카스가 아니오.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뒷모습의 발과 다리를 보고 쉽게 알아보았소. 신들은 알아보기 쉬운 법이오.

그래서인지 내 가슴속 마음도 더욱 싸우고 싶어 하고, 아래로는 발이, 위로는 손이 몹시 들썩이오."

그러자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도 그렇소. 나의 무적의 손도 창을 잡고 싶어 근질거리고, 힘이 솟구치며, 두 발도 날래게 들썩이오. 쉬지 않고 날뛰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단둘이 맞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

그들은 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은 전투의 격정 속에서 기뻐하며 서로 이렇게 말했다.

그사이 대지를 감싸는 자가 날랜 배들 곁 후방에 머물며 마음을 달래고 있던 아카이아인들을 일깨웠다.

그들은 고된 노고로 인해 사지가 나른해졌고, 거대한 성벽을 넘어 무리 지어 올라오는 트로이아인들을 보며 마음속에 슬픔이 커졌다.

그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썹 아래로 눈물을 흘렸다.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지를 뒤흔드는 자가 그들 사이를 가볍게 지나가며 강한 부대들을 일깨웠다.

그는 먼저 테우크로스와 레이토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독려하였고, 전사 페넬레오스와 토아스, 데이피로스, 그리고 함성을 잘 지르는 메리오네스와 안틸로코스에게도 다가갔다.

그는 날개 돋친 말로 그들을 재촉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르고스인들아, 이 애송이들아! 나는 너희가 싸워서 우리 배들을 구하리라 믿었다. 그런데 너희가 참혹한 싸움에서 물러선다면, 이제 우리가 트로이아인들에게 꺾일 날이 밝은 것이 틀림없다. 이 무슨 꼴이냐!"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을 내 눈으로 보는구나.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겼던 일이다. 트로이아인들이 우리 배들까지 밀고 들어오다니!

전에는 그들이 숲속에서 자칼과 표범과 늑대의 먹이가 되는, 겁에 질린 암사슴 같았다. 싸울 줄도 모르고 겁에 질려 헛되이 헤매는 암사슴 말이다. 그처럼 전에는 트로이아인들이 아카이아인들의 힘과 손에 잠시도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보라, 이제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속 빈 배들 곁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 지도자의 잘못과 백성의 게으름 때문이다. 백성은 그와 다투느라 날랜 배들을 지킬 마음이 없어, 배들 사이에서 죽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용사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을 욕보였기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정말 그에게 있다 해도, 우리가 싸움에서 게을러서는 결코 안 된다.

자, 어서 잘못을 바로잡자. 훌륭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너희가 사나운 용맹을 늦추는 것은 더는 옳지 않다. 보잘것없는 자가 싸움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나도 그와 다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마음속 깊이 몹시 화가 난다.

약골들아, 이런 게으름으로 너희는 곧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다. 저마다 마음에 부끄러움과 분노를 품어라.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함성을 잘 지르는 헥토르가 제 힘을 믿고 배들 곁에서 싸우고 있다. 성문과 긴 빗장도 부수었다."

대지를 감싸는 신은 이렇게 명령하며 아카이아인들을 일깨웠다.

두 아이아스 둘레에 부대들이 굳세게 자리를 잡았다. 아레스가 들어와도 얕볼 수 없고, 군대를 일으키는 아테나도 그러지 못할 만큼 굳센 대열이었다.

뽑힌 가장 용맹한 자들이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헥토르의 공격을 맞아, 창에 창을 겹치고 방패에 방패를 맞대어 울타리를 쳤다.

방패가 방패에, 투구가 투구에, 사람이 사람에 맞닿았다. 그들이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빛나는 투구 꼭대기의 말총 장식이 서로 스칠 만큼 바짝 붙어 섰고, 억센 손에 들려 휘둘리는 창들은 서로 겹쳤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싸우기를 바랐다.

트로이아인들이 빽빽이 무리 지어 밀고 나왔고, 헥토르가 앞장서서 줄곧 밀어붙였다.

마치 겨울비로 불어난 강물이 엄청난 물살로 무정한 바위의 밑동을 허물어, 벼랑 꼭대기에서 바위를 밀어 떨어뜨릴 때와 같았다. 바위는 높이 튀어 오르며 날아가고, 그 아래 숲이 울린다. 바위는 거침없이 내달려 평평한 들판에 이르러서야 멈추고,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더는 구르지 못한다.

그처럼 헥토르도 한동안은 아카이아인들의 막사와 배들을 지나 바다까지 쉽게 사람을 죽이며 밀고 나갈 듯 으르댔다. 그러나 빽빽이 늘어선 부대에 맞닥뜨리자, 바짝 다가선 채 멈춰 서고 말았다.

그러자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그를 마주하여 칼과 양날 창으로 찔러 대며 그를 밀어냈고, 헥토르는 물러서며 비틀거렸다.

그러고 나서 헥토르는 날카로운 함성을 내지르며
트로이아인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이여, 굳게 버티시오. 아카이아인들이
성벽처럼 늘어섰지만 나를 오래 막지는 못할 것이오. 신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헤라의 남편인 크게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 정말로 나를 부추기셨다면, 그들은 내 창 앞에서
물러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용기를 북돋웠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프리아모스의 아들 데이포보스가
용맹하게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앞세운 채, 발걸음을 가볍게 내디디며 방패의 엄호
아래 전진했다.

메리오네스가 빛나는 창으로 그를 겨누어 던졌다. 빗나가지
않고 사방으로 고른 소가죽 방패를 맞혔으나, 뚫지는 못했다.

그 전에 긴 창자루가 창날 꽂는 자리에서 부러졌던 것이다.
데이포보스는 지혜로운 메리오네스의 창이 두려워 소가죽
방패를 몸에서 멀찍이 들어 올리고 있었다.

메리오네스는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승리를 놓친 데다 창까지 부러져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막사에 두고 온 긴 창을 가져오기 위해 아카이아인들의 막사와 배들을 따라 나섰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싸웠고, 꺼지지 않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텔라몬의 아들 테우크로스가 맨 먼저 적을 죽였다. 말을 많이 가진 멘토르의 아들, 창잡이 임브리오스였다.

그는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오기 전에 페다이온에 살았으며, 프리아모스의 서녀인 메데시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지만 다나오스인들의 굽은 배들이 도착하자 그는 일리오스로 돌아왔고,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집에 머물렀으며, 프리아모스는 그를 자신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존중하며 대우했다.

텔라몬의 아들은 긴 창을 찔러 넣어 그의 귀 아래를 쳤고, 다시 창을 뽑아냈다.

그는 사방에서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청동에 베여 연한 잎사귀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물푸레나무처럼 쓰러졌다.
그렇게 그가 쓰러지자, 청동으로 꾸민 무구가 그의 몸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테우크로스는 그의 갑옷을 벗기려고 서둘러 달려 나갔으나, 헥토르는 달려오는 테우크로스에게 빛나는 창을 던졌다.

하지만 테우크로스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동 창을 아주 조금 비껴 피했다.

그러나 헥토르는 전투에 뛰어들던 악토르의 손자이자
크테아토스의 아들인 암피마코스의 가슴을 창으로 쳤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가 입은 갑옷도
챙그랑거렸다.

그러자 헥토르는 마음이 드높은 암피마코스의 관자놀이에 꼭 맞는 투구를 벗겨내려고 달려들었다.

아이아스는 달려드는 헥토르를 향해 빛나는 창을
내질렀으나, 헥토르가 무시무시한 청동 갑옷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기에 결코 그의 살에 닿지는 못했다.

대신 아이아스의 창은 헥토르의 방패 한가운데 돋을새김을 쳤고, 아이아스는 강력한 힘으로 그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헥토르는 두 시신으로부터 뒤로 물러났고, 아카이아인들이 그들을 끌어냈다.

그러자 아테나이인의 지도자인 스티키오스와 훌륭한 메네스테우스가 암피마코스를 아카이아인 군대로 옮겼다.

두 아이아스는 맹렬한 용기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임브리오스를 메고 떠났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개들에게서 염소를 낚아챈 두 마리의 사자가, 염소를 입에 물고 땅 위로 높이 들어 올린 채 덤불 속을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이, 두 전사 아이아스도 임브리오스를 높이 들어 올린 채 그의 갑옷을 벗겨냈다.

오일레우스의 아들은 암피마코스가 죽은 것에 분노하여, 임브리오스의 연한 목에서 머리를 베어 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둘러 공처럼 무리 사이로 굴려 보냈고, 머리는 헥토르의 발치 앞 먼지 속에 떨어졌다.

그때 포세이돈은 손자가 무서운 싸움에서 쓰러지자 마음속으로 몹시 분노했다. 그는 다나오스인들을 일깨우러 아카이아인들의 막사와 배들을 따라 나아갔고,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재앙을 꾸미고 있었다.

그때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가 그와 마주쳤다.
이도메네우스는 방금 싸움터에서 날카로운 청동에 무릎을
맞고 나온 동료를 살펴보고 오는 길이었다.

동료들이 그 부상자를 메고 갔고, 이도메네우스는
의원들에게 그를 부탁한 뒤 자기 막사로 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싸우러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대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신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토아스는
플레우론과 가파른 칼리돈 온 땅에서 아이톨리아인들을
다스리며 백성에게 신처럼 존경받는 자였다.

"크레타인의 조언자 이도메네우스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트로이아인들에게 늘어놓던 그 위협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갔소?"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토아스여, 내가 아는 한 지금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소.
우리는 모두 싸울 줄 아는 자들이오.

비겁하게 넋을 놓은 자도 없고, 두려워서 처참한 싸움에서 물러서는 자도 없소. 다만 아카이아인들이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망하는 것이, 권능이 가장 큰 크로노스의 아들의 뜻인 모양이오."

"토아스여, 그대는 예전부터 늘 싸움에 굳세었고, 싸움에서 물러서는 자를 보면 누구든 독려해 왔소. 그러니 지금도 멈추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외치시오."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도메네우스여, 오늘 스스로 싸움을 피하는 자는 다시는 트로이아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개들의 놀잇감이 되기를 바라오.

자, 무구를 챙겨 나오시오. 우리 둘뿐이지만 힘을 합쳐 사내답게 싸워야 하오.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오.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도 힘을 합치면 용기가 생기는 법인데, 우리 둘은 용맹한 자들과도 싸울 줄 아오."

신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사람들의 싸움 속으로 돌아갔다.

이도메네우스는 자신의 잘 지어진 막사에 도착하자마자 몸에 아름다운 갑옷을 입고 두 자루의 창을 움켜쥐었다.

그는 크로노스의 아들이 빛나는 올림포스에서 필멸의 인간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 손에 쥐고 휘두르는 번개처럼 나아갔으며, 그 번개의 빛줄기가 밝게 번쩍이는 것과 같이 그가 달릴 때 가슴 주위의 청동 갑옷도 밝게 빛났다.

그가 아직 막사 가까이 있을 때, 그의 용맹한 시종 메리오네스가 그와 마주쳤다. 메리오네스는 청동 창을 가지러 오는 길이었다.

강력한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말했다.

"몰로스의 아들, 발 빠른 메리오네스여, 내가 가장 아끼는 동료여, 어찌하여 싸움터를 떠나 이리로 왔소? 혹시 다쳐서 화살촉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오? 아니면 내게 무슨 전갈을 가지고 왔소? 나는 막사에 머물러 있을 생각이 없소. 싸우고 싶소."

그러자 슬기로운 메리오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청동 갑옷 입은 크레타인들의 조언자 이도메네우스여, 혹시 막사에 남은 창이 있으면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갖고 있던 창은 오만한 데이포보스의 방패에 던졌다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원한다면 창을 하나든 스무 개든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막사 안 빛나는 입구 벽에 트로이아인들의 창이 기대어 세워져 있소. 죽인 적에게서 벗겨 오는 것이 내 습관이니 말이오.

나는 적과 멀찍이 떨어져 싸울 생각이 없소. 그래서 내게는 창과 돋을새김 방패와 번쩍이는 투구와 흉갑이 있소."

그러자 슬기로운 메리오네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 막사와 검은 배에도 트로이아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많지만, 가까이 있지 않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용맹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저는 늘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맨 앞줄에 섭니다. 청동 갑옷 입은 다른 아카이아인들은 제가 싸우는 모습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께서는 몸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어떤 용맹을 지닌 사람인지 나는 잘 알고 있소. 굳이 그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있겠소?"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이 모두 배들 곁에서 매복하러 뽑혀 나간다 해 봅시다. 사람의 용맹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매복이오. 거기서는 겁쟁이와 용사가 가려지오. 겁쟁이는 얼굴빛이 자꾸만 바뀌고, 가슴속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 이 발 저 발로 몸을 옮기며, 죽음을 떠올리며 심장이 쿵쿵 뛰고, 입안에서 이가 딱딱 부딪치오.

그러나 용사는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일단 용사들의 매복 자리에 앉으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어서 처참한 싸움에 뛰어들게 해 달라고 빌 뿐이오. 그런 자리에서라도 그대의 용기와 완력을 얕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오.”

“만약 그대가 전투의 고된 일 속에서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린다 해도, 그 화살은 목이나 등 뒤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대는 선두에서 싸우는 이들의 격렬한 싸움 속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으니, 화살은 그대의 가슴이나 배에 박힐 것이오.

자, 이제 더는 여기서 아이들처럼 머뭇거리며 이야기하지 맙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를 낼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러니 그대는 막사로 가서 튼튼한 창을 가져오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메리오네스는 막사에서 재빨리 청동 창을 가지고 나와, 싸울 생각에 불타 이도메네우스를 따랐다.

인간들의 재앙인 아레스가 싸움터로 나갈 때, 그의 아들인 패주의 신이 함께 따른다. 굳세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 신은 아무리 마음이 굳센 전사라도 달아나게 만든다. 두 신은 무장을 갖추고 트라키아에서 나와 에피로이족이나 기개 높은 플레기아이족에게로 간다. 그러나 두 신은 양쪽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고, 한쪽에만 영광을 준다.

그처럼 백성의 지도자 메리오네스와 이도메네우스도 불꽃같이 번쩍이는 청동을 두르고 싸움터로 나아갔다.

메리오네스가 먼저 이도메네우스에게 말했다.

"데우칼리온의 아드님이시여, 어디로 무리에 뛰어드시렵니까? 온 군대의 오른쪽입니까, 가운데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제가 보기에 머리칼 긴 아카이아인들이 왼쪽만큼 밀리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인 이도메네우스가 그에게 다시 대답했다.

"중앙의 배들 사이에는 방어를 맡은 다른 이들이 있소. 두 아이아스와, 아카이아인 중 활쏘기 실력이 가장 뛰어나며 근접전에서도 용맹한 테우크로스가 그들이오. 이들이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를 몰아붙여 싸움에 진저리가 나게 할 것이오. 헥토르가 아무리 용맹할지라도 말이오.

그가 전쟁에 아무리 맹렬히 임한다 해도, 크로노스의 아들이 직접 날랜 배들 위에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지 않는 한, 그들이 가진 힘과 무적의 손을 이겨내고 배들에 불을 지르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오."

"위대한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는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을 것이오. 데메테르의 곡식을 먹고, 청동에 베이거나 큰 돌에 맞아 으스러질 수 있는 필멸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도 말이오.

사람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에게도, 적어도 맞붙어 싸우는 데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다만 발 빠르기로는 아무도 아킬레우스와 겨룰 수 없소.

그러니 우리 둘은 그대 말대로 군대의 왼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남에게 영광을 줄지, 남이 우리에게 줄지 곧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메리오네스가 앞장서서 이도메네우스가 가라고 한 곳으로 군대를 찾아갔다.

트로이아인들은 불꽃처럼 기세등등한 이도메네우스와 그의 시종이 화려한 무구를 갖춘 것을 보자, 무리 속에서 서로 소리쳐 부르며 모두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리하여 배들의 고물 곁에서 서로 뒤엉킨 싸움이 일었다.

날카로운 바람이 불고 길 위에 먼지가 가장 자욱하게 깔린 날, 돌풍이 빽빽하고 빠르게 몰아치며 바람이 어지럽게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전투도 그와 같이 격돌하였고, 그들은 인파 속에서 날카로운 청동으로 서로를 죽이려고 열을 올렸다.

필멸의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 전투에는 살점을 찢기 위해 든 긴 창들이 빽빽하게 솟아 있었다.

사람들이 어지럽게 몰려들자, 번쩍이는 투구와 새로 닦은 흉갑, 그리고 빛나는 방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동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 지경이었다.

참으로 그러한 전쟁의 고통을 보고도 즐거워하며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강인한 마음을 가진 자였을 것이다.

이처럼 크로노스의 두 강력한 아들은 서로 다른 뜻을 품은 채, 필멸의 인간 전사들에게 쓰라린 고통을 꾸미고 있었다.

제우스는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 승리를 주어 발 빠른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카이아의 군대가 일리오스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았으며, 오직 테티스와 마음이 강인한 그녀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려 할 뿐이었다.

하지만 포세이돈은 회색 바다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르고스인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을 독려했다. 아르고스인들이 트로이아인들에게 꺾이는 것이 괴로웠고, 그는 제우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두 신은 참으로 같은 혈통이자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제우스가 형이었고 더 지혜로웠다.

그 때문에 포세이돈은 공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피하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군대 전체에 있는 아르고스인들을 끊임없이 깨우려 몰래 애를 썼다.

그리하여 이 두 신은 거대한 갈등과 악한 전쟁의 밧줄 끝을 묶어 양쪽 군대 위에 팽팽하게 당겼다. 그 누구도 끊거나 풀 수 없는 그 매듭은 수많은 사람의 무릎을 힘없이 꺾어 놓았다.

이도메네우스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다나오스인들을 불러 독려하며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달아나게 했다.

그는 카베소스 출신으로 트로이아에 머물던 오트리오네우스를 죽였다. 오트리오네우스는 전쟁 소문을 듣고 막 온 자였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카산드라에게 청혼했다.

그는 혼인 예물은 가져오지 않았으나,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트로이아 땅에서 억지로라도 몰아내겠다는 큰일을 약속했다. 노인 프리아모스는 그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트리오네우스는 그 약속을 믿고 싸웠다.

이도메네우스가 빛나는 창으로 그를 겨누어, 으스대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그를 맞혔다. 그가 입은 청동 흉갑도 소용없이, 창은 그의 배 한가운데에 꽂혔다. 그가 쿵 하고 쓰러지자, 이도메네우스가 뽐내며 말했다.

“오트리오네우스야, 다르다니아의 프리아모스에게 약속한 것을 모두 이룬다면, 너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자라고 하겠다. 그는 너에게 제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우리도 그런 약속을 하고 다 지켜 주마. 네가 우리와 힘을 합쳐 사람 많은 도시 일리오스를 함락한다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딸을 아르고스에서 데려와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자, 우리를 따라오너라. 바다를 건너는 배들 곁에서 혼인을 의논하자. 우리는 혼인 예물을 깐깐하게 따지지 않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하며 용사 이도메네우스는 그의 발을 붙잡고 격렬한 싸움 속으로 끌고 갔다.

그때 아시오스가 오트리오네우스를 구하러 말들 앞에서 걸어서 다가왔다. 마부인 시종이 말들을 바짝 몰아, 말들의 숨결이 아시오스의 어깨에 닿았다.

아시오스는 이도메네우스에게 창을 던지려고 몹시 별렀다. 그러나 이도메네우스가 한발 빨랐다. 그는 창을 던져 아시오스의 턱 아래 목을 맞혔고, 청동 창날이 목을 꿰뚫었다.

그는 참나무나 백양나무, 혹은 배의 재목으로 쓰기 위해 산속에서 배 만드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도끼로 쓰러뜨리는 커다란 소나무처럼 쓰러졌다.

이와 같이 아시오스는 자신의 말들과 전차 앞에서 몸을 길게 뻗은 채 누워, 피 묻은 먼지를 움켜쥐며 크게 신음했다.

마부는 겁에 질려 넋이 나간 채, 말을 돌려 적의 손에서 달아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싸움에 굳센 안틸로코스가 그를 겨누어 창으로 몸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그가 입은 청동 흉갑도 소용없이, 창은 그의 배 한가운데에 꽂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잘 만든 전차에서 떨어졌고, 기개 높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는 그 말들을 트로이아인들에게서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쪽으로 몰고 갔다.

그러자 데이포보스는 아시오스를 잃은 슬픔에 잠겨 이도메네우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고, 빛나는 창을 그에게 던졌다.

하지만 이도메네우스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동 창을 피했다. 그는 평소 들고 다니던, 사방으로 고르고, 소가죽과 빛나는 청동으로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손잡이 막대 두 개가 달린 둥근 방패 뒤로 몸을 숨겼다.

그가 방패 아래로 몸을 움츠리자 청동 창이 그 위로 날아갔고, 창이 방패를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러나 데이포보스가 억센 손으로 던진 창은 헛되이 날아가지 않았다. 창은 백성의 목자인 히파소스의 아들 힙세노르의 횡격막 아래 간을 맞혔고, 그는 곧바로 무릎이 풀려 쓰러졌다.

데이포보스는 그를 내려다보며 무섭게 뽐내며 크게 외쳤다.

“하! 아시오스가 원수도 못 갚고 누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문을 굳게 지키는 하데스의 집으로 가면서도 그는 마음이 기쁠 것이다. 길동무를 하나 딸려 보내 주었으니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 뽐내는 소리에 아르고스인들은 슬퍼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안틸로코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나 안틸로코스는 슬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동료를 잊지 않았다. 그는 달려가 그를 감싸고 서서 방패로 덮어 주었다.

그러자 에키오스의 아들 메키스테우스와 훌륭한 알라스토르, 두 믿음직한 동료가 몸을 굽혀, 무겁게 신음하는 힙세노르를 메고 속 빈 배들로 옮겼다.

이도메네우스는 사나운 힘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트로이아인 누군가를 밤의 어둠으로 덮어 버리든지,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에게서 파멸을 막다가 자신이 쓰러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시에테스의 사랑하는 아들, 용사 알카토오스가 있었다. 그는 앙키세스의 사위로, 앙키세스의 맏딸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솜씨와 지혜에서 또래의 모든 처녀보다 뛰어나,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가 집에서 진심으로 아꼈다. 그래서 넓은 트로이아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가 그녀를 아내로 맞았던 것이다.

포세이돈은 이 알카토오스를 이도메네우스의 손에 쓰러뜨렸다. 그의 빛나는 두 눈을 흘리고 빛나는 팔다리를 옭아매어, 뒤로 달아나지도 창을 피하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알카토오스가 기둥이나 잎 무성한 키 큰 나무처럼 꼼짝 못하고 서 있자, 용사 이도메네우스가 창으로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러자 전에는 늘 그의 몸을 죽음에서 지켜 주던 청동 갑옷이 창에 찢기며 거칠게 울렸다.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창은 그의 심장에 박혔다. 아직 뛰는 심장 때문에 창자루 끝이 부르르 떨렸으나, 마침내 강력한 아레스가 그 기세를 멈추게 했다.

이도메네우스는 그를 내려다보며 무섭게 뽐내며 크게 외쳤다.

"데이포보스야, 네가 그렇게 뽐내더니, 하나에 셋을 죽였으니 이제 셈이 맞는다고 해야겠느냐? 이 딱한 자야, 네가 직접 나와 맞서 보아라. 이곳에 온 내가 어떤 제우스의 자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제우스께서 처음에 크레타를 지킬 미노스를 낳으셨고, 미노스는 다시 비길 데 없는 데우칼리온을 아들로 얻었다. 데우칼리온은 넓은 크레타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나를 낳았다. 이제 배들이 나를 이리로 데려왔으니, 너와 네 아비와 다른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데이포보스는 물러나서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 가운데 한 사람을 동료로 삼아야 할지, 아니면 혼자서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일을 생각하다가 아이네이아스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리 가운데 가장 뒤에 서 있는 아이네이아스를 발견했다.

아이네이아스는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프리아모스가 자신을 조금도 예우하지 않았기에, 늘 훌륭한 프리아모스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러자 데이포보스가 다가가 그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트로이아인의 조언자 아이네이아스여, 친족을 잃은 슬픔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대의 매형을 지켜야 하오.

자, 나와 함께 알카토오스를 지키러 갑시다. 그는 매형이었지만, 그대가 어렸을 때 집에서 그대를 길러 주었소. 그런 그가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에게 죽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네이아스의 가슴속 마음이 움직였고, 그는 싸울 생각에 불타 이도메네우스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도메네우스는 응석받이 아이처럼 겁에 질리지 않았다. 그는 산속의 멧돼지처럼 버티고 섰다. 멧돼지는 제 힘을 믿고 외딴곳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큰 무리를 기다린다. 등의 털을 곤두세우고 두 눈에서 불을 뿜으며, 개와 사람을 물리치려고 엄니를 간다.

그처럼 창으로 이름난 이도메네우스도 구하러 달려드는 아이네이아스를 기다리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함성을 잘 지르는 아스칼라포스와 아파레우스, 데이피로스, 메리오네스, 안틸로코스를 바라보며 동료들을 불렀다.

그는 날개 돋친 말로 그들을 독려했다.

"친구들이여, 이리 와서 홀로 있는 나를 도와주시오. 발 빠른 아이네이아스가 내게 덤벼드는 것이 몹시 두렵소. 그는 싸움에서 사람을 죽이는 데 아주 강하고, 힘이 가장 왕성한 젊음의 한창때에 있소."

"우리가 나이도 같고 지금 같은 기세라면, 그가 당장 큰 승리를 거두든지 내가 거두든지 했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는 가슴 속에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어깨에 방패를 기대었다.

아이네이아스는 그들을 마주 보며, 트로이아인의 지도자들인 데이포보스, 파리스, 그리고 훌륭한 아게노르를 바라보며 그의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그 뒤를 이어 군대가 따랐으니, 마치 양 떼가 숫양을 따라 먹던 곳을 떠나 물을 마시러 가고 목자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았다. 아이네이아스 역시 자신을 따르는 군대의 무리를 보았을 때 가슴속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알카토오스의 시신을 두고 긴 창을 휘두르며 맞붙었고, 무리 속에서 서로를 겨눌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서 청동이 무섭게 울렸다.

그 누구보다도 아레스와 맞먹는 두 용사, 아이네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가 무자비한 청동으로 서로의 살을 가르려고 별렀다.

아이네이아스가 먼저 이도메네우스에게 창을 던졌으나, 이도메네우스는 똑바로 지켜보다가 청동 창을 피했다. 아이네이아스의 억센 손에서 헛되이 날아간 창은 땅에 박혀 부르르 떨었다.

이도메네우스는 창을 던져 오이노마오스의 배 한가운데를 맞혔다. 창은 흉갑의 판을 부수고 들어가 창자를 쏟아 냈고, 오이노마오스는 먼지 속에 쓰러져 손바닥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이도메네우스는 시신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뽑아냈으나, 빗발치는 무기에 시달려 어깨에서 나머지 훌륭한 무구를 벗겨 내지는 못했다.

그는 이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굳세지 못해, 제가 던진 창을 쫓아 달려 나가거나 남의 창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근접전 속에서 가혹한 파멸의 날을 막아냈으나, 도망칠 때 그의 발은 더 이상 그를 전쟁터에서 빠르게 데려다주지 못했다.

그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자 데이포보스가 빛나는 창을 던졌다. 그는 진실로 이도메네우스를 향해 끊임없는 증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이도메네우스를 맞히지 못하고, 대신 에니알리오스의 아들 아스칼라포스에게 창을 던져 어깨를 꿰뚫었다. 아스칼라포스는 먼지 속에 쓰러지며 손바닥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목소리 큰 두려운 아레스는 자신의 아들이 거대한 전투에서 쓰러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제우스의 뜻에 묶여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 황금빛 구름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불멸의 신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아스칼라포스의 시신을 두고 맞붙었다. 데이포보스가 아스칼라포스에게서 빛나는 투구를 벗겨 냈다.

그러나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메리오네스가 데이포보스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그의 팔을 찔렀고, 데이포보스의 손에서 볏 달린 투구가 땅에 떨어져 쨍그랑 울렸다.

메리오네스는 다시 독수리처럼 뛰어들어 데이포보스의 위팔에서 억센 창을 뽑아낸 뒤,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데이포보스의 친형제 폴리테스가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처참한 싸움터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싸움터 뒤쪽에서 마부와 화려한 전차와 함께 기다리던 날랜 말들에게 이르렀다. 말들은 몹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를 도시로 실어 갔고, 갓 다친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동안 다른 이들은 계속 싸웠고, 그칠 줄 모르는 함성이 일었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쪽으로 돌아선 칼레토르의 아들 아파레우스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창으로 목을 찔렀다.

아파레우스의 머리가 한쪽으로 꺾였고, 방패와 투구도 그와 함께 쓰러졌다. 목숨을 앗는 죽음이 그를 감쌌다.

안틸로코스는 때를 노리다가, 등을 돌린 토온에게 달려들어 창으로 찔렀다.

그는 등을 따라 목까지 죽 이어진 핏줄을 완전히 끊어 버렸다. 토온은 먼지 속에 벌렁 쓰러지며 사랑하는 동료들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안틸로코스는 그에게 뛰어들어 주위를 경계하며 어깨에서 무구를 벗기기 시작했다.

트로이아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넓고 빛나는 그의 방패를 이쪽저쪽에서 찔러 댔다. 그러나 무자비한 청동으로 방패를 뚫고 안틸로코스의 연한 살을 스치지도 못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빗발치는 창 속에서도 네스토르의 아들을 굳게 지켜 주었던 것이다.

안틸로코스는 적들로부터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들 사이를 누비며 싸웠다.

그의 창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휘둘러지며 흔들렸다.

그는 언제나 적 중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거나, 혹은 적에게 달려들어 근접전을 벌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무리 속에서 겨누고 있을 때,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가 그를 알아보고 가까이에서 덮쳐 날카로운 청동으로 그의 방패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러나 검은 머리의 신 포세이돈이 안틸로코스의 목숨을 아까워하여 창끝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창 반쪽은 불에 그슬린 말뚝처럼 안틸로코스의 방패에 박혔고, 나머지 반쪽은 땅에 떨어졌다. 아다마스는 죽음을 피해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메리오네스가 물러나는 그를 뒤쫓아 창을 던져, 음부와 배꼽 사이를 맞혔다. 아레스가 가련한 인간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구는 곳이다.

메리오네스는 바로 거기에 창을 꽂았다. 아다마스는 자기를 꿰뚫은 창자루에 몸을 숙인 채, 마치 목자들이 산속에서 꼰 밧줄로 묶어 억지로 끌고 가는 황소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창에 맞은 뒤 잠시 꿈틀거렸으나 오래가지 않았다. 용사 메리오네스가 다가와 그의 살에서 창을 뽑아내자,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

그러자 헬레노스가 가까이 다가가 커다란 트라키아 칼로 데이피로스의 관자놀이를 내리쳐 투구를 떨궈 냈다.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투구는 땅에 떨어져 싸우는 이들의 발치 사이로 굴렀고, 아카이아인 하나가 그것을 주워 들었다.

데이피로스의 눈에는 밤의 어둠이 내려와 그를 감쌌다.

그것을 본 아트레우스의 아들,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는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왕자인 용사 헬레노스에게 덤벼들었고, 헬레노스는 활을 당겼다.

두 사람은 동시에 쏘았다. 한 사람은 날카로운 창을 던지고, 한 사람은 시위에서 화살을 쏘았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의 화살은 메넬라오스의 가슴, 흉갑의 판에 맞았으나 쓰라린 화살은 그대로 튕겨 나갔다.

마치 넓은 타작마당에서 넓은 넉가래로 퍼 올리면, 날카로운 바람과 키질하는 사람의 힘에 검은 콩이나 완두가 튀어 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빛나는 메넬라오스의 흉갑에서 쓰라린 화살이 튕겨 나가 멀리 날아갔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창을 던져 헬레노스가 잘 닦은 활을 쥐고 있던 손을 맞혔다. 청동 창은 손을 꿰뚫고 활에까지 박혔다.

헬레노스는 죽음을 피해 손을 옆으로 축 늘어뜨린 채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고, 물푸레나무 창이 그 뒤로 질질 끌렸다.

기개 높은 아게노르가 그의 손에서 창을 뽑아냈고, 백성의 목자인 그를 위해 시종이 들고 다니던 무릿매, 곧 꼰 양털 끈으로 손을 감아 주었다.

그런데 페이산드로스가 빛나는 메넬라오스에게 곧장 덤벼들었다. 그러나 불길한 운명이 그를 죽음의 끝으로 이끌고 있었다. 메넬라오스여, 그는 이 무서운 싸움에서 그대의 손에 죽을 운명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다가와 가까워지자,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창은 빗나가 옆으로 비껴갔다. 페이산드로스는 빛나는 메넬라오스의 방패를 찔렀으나 청동으로 뚫지는 못했다. 넓은 방패가 막아 냈고, 창은 창날 꽂는 자리에서 부러졌다. 그래도 그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승리를 바랐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은으로 장식된 칼을 뽑아 들고 페이산드로스에게 달려들었다.

페이산드로스는 방패 아래에서 올리브 나무 자루에 끼워진, 길고 잘 닦인 훌륭한 청동 도끼를 움켜쥐었다.

그들은 동시에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페이산드로스는 메넬라오스의 말총 장식 투구의 뿔, 말총 장식 바로 아래 맨 꼭대기를 내리쳤다.

그러나 메넬라오스는 덤벼드는 그의 콧등 위 이마를 내리쳤다. 뼈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피투성이가 된 두 눈알이 먼지 속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페이산드로스는 몸을 웅크리며 쓰러졌다.

메넬라오스는 그의 가슴을 발로 밟고 무구를 벗긴 뒤 뽐내며 말했다.

"오만한 트로이아인들아, 싸움의 무서운 소란에 물릴 줄 모르는 너희도 결국 이렇게 날랜 말을 모는 다나오스인들의 배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몹쓸 개들아, 너희는 나를 욕보인 다른 모욕과 수치도 넘치도록 저질렀다. 크게 천둥 치는 제우스, 손님을 지키시는 신의 무서운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분께서 언젠가 너희의 높은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너희는 내 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고도, 결혼한 내 아내와 많은 보물을 제멋대로 바다 건너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다를 건너는 배들에 집어삼키는 불을 던지고 아카이아의 용사들을 죽이려 안달이구나.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싸움을 그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사람들은 당신께서 인간과 신들 가운데 누구보다 지혜로우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서 비롯됩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오만한 자들, 늘 힘만 믿고 날뛰며 처참한 싸움의 소란에 물릴 줄 모르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에는 물림이 있습니다. 잠에도, 사랑에도, 달콤한 노래에도, 흥겨운 춤에도. 사람이라면 전쟁보다는 이런 것으로 실컷 즐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로이아인들은 싸움에 물릴 줄을 모릅니다."

비길 데 없는 메넬라오스는 이렇게 말하고 시신에서 피 묻은 무구를 벗겨 동료들에게 준 뒤, 다시 돌아가 맨 앞 전사들 사이에 섞였다.

그러자 필라이메네스 왕의 아들 하르팔리온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따라 트로이아로 싸우러 왔으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방패를 향해 창을 힘껏 내질렀다. 그러나 청동 창끝이 방패를 완전히 뚫지는 못했다.

그는 죽음을 피해 동료들이 모여 있는 무리 속으로 몸을 움츠리며 물러났다. 누군가 청동 창으로 자신의 살을 찌르지 않을까 사방을 경계하며 살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날 때, 메리오네스가 그를 향해 청동 촉을 단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맞혔고, 뼈 아래에 있는 방광까지 그대로 관통했다.

그는 사랑하는 동료들의 품에 안겨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거두었고, 땅 위에 벌레처럼 길게 뻗어 누웠다. 검은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셨다.

기개 높은 파플라고니아인들이 그를 돌보았다. 그들은 그를 전차에 태워 슬퍼하며 신성한 일리오스로 실어 날랐고, 그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죽은 아들의 피의 값은 받지 못했다.

그의 죽음에 파리스는 마음속으로 몹시 분노했다. 하르팔리온은 많은 파플라고니아인 가운데 그를 손님으로 대접해 준 사람이었다. 파리스는 그를 위해 분노하며 청동 촉 화살을 쏘았다.

그곳에 예언자 폴리이도스의 아들 에우케노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고 용맹했으며 코린토스에 살았다.

그는 앞으로 닥칠 죽음의 운명을 잘 알면서도 배에 올랐다. 훌륭한 노인인 아버지 폴리이도스가 자주 일러 주었던 것이다. 자기 집에서 끔찍한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사이에서 트로이아인들에게 죽든지 하리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는 아카이아인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무는 것도, 끔찍한 병도 함께 피해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파리스가 에우케노르의 턱 아래 귀 밑을 맞히자, 곧바로 그의 목숨이 팔다리를 떠났고 끔찍한 어둠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싸웠다. 그러나 제우스가 아끼는 헥토르는 배들의 왼쪽에서 자기 군사들이 아르고스인들에게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아카이아인들이 곧 영광을 차지할 판이었다. 대지를 감싸고 뒤흔드는 신이 그토록 강하게 아르고스인들을 독려하고, 몸소 힘을 보태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헥토르는 처음 성문과 성벽 안으로 뛰어들어 다나오스 방패병들의 빽빽한 대열을 뚫었던 곳에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곳에는 잿빛 바다 기슭에 아이아스와 프로테실라오스의 배들이 끌어올려져 있었고, 그 너머로 성벽이 가장 낮게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디보다도 사람과 말들이 사납게 싸웠다.

그곳에서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보이오티아인과 이오니아인, 그리고 로크리스인과 프티아인, 그리고 영광스러운 에페이오스인들이 배들을 향해 몰아치는 헥토르의 돌격을 막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아테나이인의 정예병들조차 불꽃과도 같은 훌륭한 헥토르를 그들로부터 밀어내지 못했다.

그들 중에는 페테오스의 아들 메네스테우스가 지도자로 있었고, 페이다스와 스티키오스, 그리고 용맹한 비아스가 그를 따랐다.

에페이오스인은 필레우스의 아들 메게스와 아라피온, 드라키오스가 이끌었으며, 프티아인의 선두에는 전투에 강한 메돈과 포다르케스가 있었다.

그 가운데 메돈은 신과 같은 오일레우스의 서자로 아이아스의 형제였으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필라케에 살고 있었다. 오일레우스의 아내인 계모 에리오피스의 친족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 사람 포다르케스는 필라코스의 아들 이피클로스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무장을 갖추고 기개 높은 프티아인들의 맨 앞에서 보이오티아인들과 함께 배들을 지키며 싸우고 있었다.

오일레우스의 날랜 아들 아이아스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묵정밭에서 포도주빛 황소 두 마리가 한마음으로 짜 맞춘 쟁기를 끄는 것과 같았다. 뿔 밑동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잘 다듬은 멍에 하나만이 그 둘을 갈라놓은 채, 쟁기가 밭 끝에 이를 때까지 고랑을 따라 애써 나아간다.

그처럼 두 아이아스도 서로 바짝 붙어 서서 버텼다.

텔라몬의 아들 뒤에는 용맹한 동료들이 무리 지어 따랐다. 그의 팔다리에 피로와 땀이 몰려올 때마다 그들이 방패를 받아 주었다.

그러나 로크리스인들은 기개 높은 오일레우스의 아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맞붙어 싸우는 데는 마음이 굳세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말총 장식이 풍성한 청동 투구도, 둥근 방패도, 물푸레나무 창도 없었다. 대신 활과 양털을 잘 꼰 무릿매를 믿고 그를 따라 일리오스로 왔던 것이다. 그들은 그것으로 화살과 돌을 빗발치듯 쏘아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리하여 무장을 화려하게 갖춘 한 무리는 앞장서서 트로이아인들, 그리고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와 맞서 싸웠다.

뒤에 있던 다른 이들은 엄폐물 뒤에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 댔다.

트로이아인들은 화살 때문에 혼란에 빠져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폴리다마스가 대담한 헥토르에게 다가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트로이아인들은 배들과 막사에서 바람 부는 일리오스로 처참하게 밀려났을 것이다.

"헥토르여, 그대는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이구려. 신께서 그대에게 누구보다 뛰어난 싸움 솜씨를 주셨다고, 그대는 계책에서도 남보다 지혜롭고자 하오. 그러나 그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소."

"신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싸움 솜씨를, 어떤 이에게는 춤을, 어떤 이에게는 리라와 노래를 주시오. 그리고 멀리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는 어떤 이의 가슴에 슬기로운 마음을 넣어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 덕을 보고 그가 많은 이를 구하오.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법이오. 그러니 나는 내게 가장 좋아 보이는 대로 말하겠소.

보시오, 그대 둘레에 싸움의 불길이 둥글게 타오르고 있소. 성벽을 넘어온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장한 채 멀찍이 물러서 있고, 어떤 이들은 배들 사이에 흩어져 적은 수로 많은 적과 싸우고 있소."

“아니오, 그대는 뒤로 물러나서 가장 용맹한 자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 모으시오. 그러면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들을 습격할지, 아니면 그 후에 배들로부터 상처 하나 없이 돌아갈지 온갖 방책을 논의해 봅시다.

진실로 나는 아카이아인들이 어제의 빚을 갚으려 할까 두렵소. 배들 곁에는 전쟁에 굶주린 자가 머물고 있는데, 내 생각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전투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지 않을 것 같소.”

폴리다마스가 이와 같이 말하니, 그의 신중한 조언이 헥토르의 마음에 매우 흡족하였다. 헥토르는 즉시 갑옷을 입은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는 날개 돋친 말로 폴리다마스에게 말을 건넸다.

“폴리다마스여, 그대는 이곳에서 가장 용맹한 자들을 모두 붙잡아 두시오. 나는 저곳으로 가서 전쟁에 맞서겠소. 그들에게 할 일을 다 일러 준 뒤 곧 돌아오겠소.”

그가 이와 같이 말하고는,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는 큰 함성을 지르며 트로이아인들과 동맹군 사이를 뚫고 달려 나갔다. 헥토르의 목소리를 듣자 트로이아인들과 동맹군 모두가 다정한 판토오스의 아들 폴리다마스를 향해 서둘러 모여들었다.

하지만 헥토르는 혹시라도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데이포보스와 용맹한 왕자 헬레노스, 그리고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와 히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를 찾아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들 사이를 누볐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결코 무사하거나 재앙을 피한 상태로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아르고스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고물 곁에 쓰러져 있었고, 어떤 이들은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려 성벽 안에 있었다.

그러다 그는 눈물겨운 싸움터의 왼쪽에서 머리칼 고운 헬레네의 남편, 훌륭한 알렉산드로스를 찾아냈다. 그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싸우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헥토르는 그에게 다가가 꾸짖었다.

"이 몹쓸 파리스야, 생김새만 번드르르한 계집에 미친 놈, 사기꾼아! 데이포보스와 용맹한 왕자 헬레노스, 아시오스의 아들 아다마스와 히르타코스의 아들 아시오스는 어디 있느냐? 오트리오네우스는 어디 있느냐? 이제 가파른 일리오스는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겼다. 이제 너도 보다시피 끔찍한 파멸이 눈앞에 닥쳤다."

그러자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그에게 다시 말했다.

"헥토르여, 잘못 없는 사람을 탓하려 하는구려.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내가 싸움에서 물러설 때가 아니오. 어머니가 나를 아주 겁쟁이로 낳지는 않으셨소.

그대가 배들 곁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일으킨 그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쉬지 않고 다나오스인들과 싸워 왔소. 그대가 묻는 동료들은 죽었소.

데이포보스와 용맹한 왕자 헬레노스만이 둘 다 긴 창에 팔을 맞고 물러갔는데,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죽음을 막아 주셨소."

"하지만 이제 그대의 마음과 정신이 이끄는 곳 어디로든 그대가 앞장서시오. 우리도 그대를 열렬히 따르겠소. 우리가 가진 힘이 닿는 한, 용맹함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하오. 하지만 아무리 의욕이 넘친다 해도, 인간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이오."

용사가 이렇게 말하여 형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들은 싸움과 함성이 가장 거센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케브리오네스, 비길 데 없는 폴리다마스, 팔케스, 오르타이오스, 신과 같은 폴리페테스, 팔미스, 아스카니오스, 그리고 히포티온의 아들 모리스가 있었다.

아스카니오스와 모리스는 전날 아침 흙이 기름진 아스카니아에서 교대하러 왔는데, 이제 제우스가 그들을 싸움으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 제우스의 천둥소리 아래 대지로 돌진하는 무시무시한 바람처럼 몰려왔다. 그 바람은 크게 울리는 바다와 어우러져 경이로운 소음을 일으켰고, 그 뒤를 따라 높게 굽이치며 거품으로 하얗게 빛나는 크게 울리는 바다의 수많은 파도가 뒤따랐다. 어떤 파도는 앞장서고 다른 파도는 그 뒤를 따랐다.

트로이아인들도 이와 같이 밀집된 대열을 갖추어, 어떤 이들은 앞장서고 다른 이들은 그 뒤를 따르며 청동빛을 번쩍이며 지도자들을 따라 나아갔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그들을 이끌었으니, 그는 아레스와 맞먹는 자, 인간들의 재앙이었다.

그는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앞에 들었다. 가죽을 두껍게 대고 그 위에 청동을 두껍게 덧씌운 방패였다. 그의 관자놀이 위로는 빛나는 투구의 말총 장식이 흔들렸다.

그는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이쪽저쪽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며, 대열들이 자기 앞에서 물러서는지 부대마다 떠보았다. 그러나 아카이아인들의 가슴속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아이아스가 성큼성큼 다가와 맨 먼저 그에게 도전했다.

"이보시오, 가까이 오시오. 어찌하여 그렇게 헛되이 아르고스인들을 겁주려 하오? 우리는 결코 싸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오. 다만 제우스의 모진 채찍에 아카이아인들이 꺾였을 뿐이오.

그대는 마음속으로 우리 배들을 부수려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킬 손이 있소. 그보다 먼저 그대들의 사람 많은 도시가 우리 손에 함락되어 쑥대밭이 될 것이오."

"그리고 그대에게 말하지만, 머지않아 그대가 달아나면서 아버지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에게, 갈기 고운 말들이 매보다 빨라지게 해 달라고 빌 날이 올 것이오. 그 말들이 평원에 먼지를 일으키며 그대를 도시로 실어 갈 때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오른쪽에서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갔다. 아카이아인 군대는 그 징조에 용기를 얻어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나 빛나는 헥토르가 대답했다.

"말도 서툰 허풍쟁이 아이아스여,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평생토록 정말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아들이고, 존귀한 헤라가 내 어머니이며, 아테나와 아폴론처럼 존경받는다면 좋겠소. 오늘이 모든 아르고스인에게 재앙의 날이 되리라는 것도 그만큼 확실하오.

그대도 그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오. 그대가 내 긴 창을 감히 기다린다면 말이오. 내 창이 그대의 백합 같은 살갗을 찢을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아카이아인들의 배 사이에 쓰러져, 트로이아의 개와 새들을 그대의 기름과 살로 배불리게 될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앞장섰다.

그들은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고, 뒤에서 군사들도 함성을 질렀다. 맞은편 아르고스인들도 함성으로 맞받았다. 그들은 용맹을 잊지 않고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이 덤벼드는 것을 버텨 냈다.

두 군대의 함성이 높은 하늘과 제우스의 빛나는 곳까지 닿았다.

제14권

제우스를 속인 헤라

네스토르는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싸움의 함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훌륭한 마카온이여,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오. 배들 곁에서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소. 그대는 여기 앉아 불꽃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으시오. 머리칼 고운 헤카메데가 따뜻한 목욕물을 데워 엉긴 피를 씻어 줄 때까지 말이오. 나는 곧장 망보기 좋은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막사에 놓여 있던 아들, 말을 길들이는 트라시메데스의 잘 만들어진 방패를 집어 들었다. 그 방패는 청동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날카로운 청동 촉이 달린 튼튼한 창을 움켜쥐고 막사 밖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곧바로 수치스러운 광경이 보였다. 아카이아인들은 패주하고 있었고, 기세등등한 트로이아인들이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다.

마치 큰 바다가 소리 없는 너울로 검게 일렁이며 날카로운 바람이 몰아칠 길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도, 제우스에게서 바람이 확실히 불어오기 전까지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파도를 굴리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노인은 마음이 이리저리 갈려 궁리했다. 날랜 말을 모는 다나오스인들의 무리 속으로 서둘러 들어갈지, 아니면 백성의 목자인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찾아갈지.

궁리 끝에 그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찾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사이 계속 싸우며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그들이 칼과 양날 창으로 서로를 찌를 때, 그들의 몸 주위로 완강한 청동이 울려 퍼졌다.

배들에서 올라오던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들이 네스토르와 마주쳤다. 청동에 다친 이들, 곧 티데우스의 아들과 오디세우스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었다.

그들의 배는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잿빛 바닷가에 끌어올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 배들을 맨 먼저 뭍에 끌어올렸고, 성벽은 맨 뒤 배들 가까이에 쌓았던 것이다.

해변이 넓기는 했지만 모든 배를 다 들일 수는 없었고 군대가 비좁았다. 그래서 그들은 배들을 여러 줄로 겹쳐 끌어올려, 두 곶 사이에 갇힌 해안의 넓은 만을 모두 채웠던 것이다.

왕들은 싸움을 보려고 저마다 창에 몸을 기댄 채 한데 모여 걸어오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속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늙은 네스토르가 그들과 마주치자, 아카이아인들의 가슴속 기운이 꺾였다.

그러자 아가멤논 왕이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했다.

"오, 넬레우스의 아들이자 아카이아인의 커다란 영광이신 네스토르여, 어찌하여 사람을 죽이는 싸움터를 떠나 이리로 오셨소? 위대한 헥토르가 예전에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했던 말과 위협을 정말로 실행에 옮길까 두렵소. 그는 배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배들이 있는 곳에서 일리오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이 참으로 일어나고 있구려. 아, 이 무슨 일인가!"

"분명 다른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도
아킬레우스처럼 마음속에 나를 향한 분노를 쌓아두고
있으며, 배들의 고물 곁에서 싸울 마음이 없는 모양이오."

그러자 게레니아의 기사 네스토르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참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눈앞에
닥쳐 있소.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제우스께서도 이 일을
다르게 만드실 수는 없었을 것이오. 보시오, 우리 배들과 우리
자신을 지켜줄 깨지지 않는 방벽이라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소."

"날랜 배들 근처에서는 적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 끝이
나지 않소. 아카이아인들이 어느 쪽에서 패주하고 있는지
그대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 해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혼란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며, 전투의 함성은
하늘까지 치솟고 있소.

하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하오. 다만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라고 권하지는 않겠소. 부상당한 자가
싸울 수는 없는 법이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다시 대답했다.

“네스토르여, 적들이 배들의 고물 곁에서 싸우고 있소.
다나오스인들이 몹시 애써 쌓았고, 배들과 자신들을 지켜 줄
깨지지 않는 방벽이 되리라 마음속으로 믿었던 그 잘 지은
성벽도 해자도 아무 소용이 없었소.

아카이아인들이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이름도
없이 망하는 것이, 권능이 가장 큰 제우스의 뜻인 모양이오.”

“그가 기꺼이 다나오스인들을 도와줄 때도 나는 그것을
알았고, 이제 그가 우리 적들을 복된 신들처럼 높이고 우리의
힘과 손을 묶어 버리는 지금도 나는 알고 있소.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바다 가까이 맨 앞줄에 끌어올려 둔 배들을 끌어내려 모두
빛나는 바다에 띄우고, 불멸의 밤이 올 때까지 닻돌을 내려
묶어 둡시다. 밤이 되면 트로이아인들도 싸움을 멈출지
모르니 말이오. 그러면 그때 나머지 배들도 모두
끌어내립시다.

파멸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오.
밤에 달아난다 해도 말이오. 붙잡히는 것보다는 파멸을 피해
달아나 살아남는 편이 낫소.”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눈썹 아래로 노려보며 그에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어찌 그런 말이 그대의 이의 울타리를 넘어 나온단 말이오! 몹쓸 사람이여, 그대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영광 없는 다른 군대를 다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제우스께서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괴로운 전쟁의 실타래를 감다가 모두 죽도록 정해 두신 자들이오.

그대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며 싸워 온, 넓은 길을 가진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버리고 떠나고 싶소?"

"침묵하시오. 다른 아카이아인이 이 말을 듣지 않도록 말이오. 마음속에 올바른 것을 말할 줄 아는 지혜를 품고, 그대가 다스리는 아르고스인들처럼 수많은 군대를 복종시키는 홀을 든 왕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입 밖으로 그런 말을 내뱉게 두어서는 안 되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대의 생각은 참으로 한심하오. 싸움이 한창인데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리라 하다니 말이오. 그러면 지금도 이기고 있는 트로이아인들은 바라던 것을 더욱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는 끔찍한 파멸이 닥칠 것이오.

배들을 바다로 끌어내리면 아카이아인들은 더는 싸우지 않고, 줄곧 뒤를 돌아보다가 싸움에서 물러날 것이오. 군대를 이끄는 자여, 그때는 그대의 계책이 우리를 망칠 것이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오디세우스여, 그대의 가혹한 질책이 참으로 내 마음을 찔렀소. 하지만 나는 아카이아인들이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을 바다로 내리라고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지금 내 조언보다 더 나은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내게는 참으로 반가울 것이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함성을 잘 지르는 디오메데스도 말했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소. 오래 찾을 것도 없소. 그대들이 내 말을 들으려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대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저마다 언짢아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면 말이오.

나 또한 훌륭한 아버지의 혈통임을 자부하오. 테바이에서 무덤 흙에 덮여 있는 티데우스가 내 아버지요."

“포르테우스에게는 비길 데 없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플레우론과 가파른 칼리돈에 살았소. 아그리오스와 멜라스,
그리고 셋째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인 기사
오이네우스였는데, 그는 그들 가운데 용맹이 가장 뛰어났소.

오이네우스는 그곳에 남았으나, 내 아버지는 떠돌다가
아르고스에 자리를 잡았소. 제우스와 다른 신들의 뜻이
그러했던 모양이오.”

“그는 아드라스토스의 딸 중 한 명과 혼인하여 재물이 풍족한
집에 살았소. 그에게는 밀이 자라는 들판이 많았고, 주변에는
과수원이 아주 많았으며, 양들도 아주 많았소. 또한 그는
창술에 있어서 모든 아르고스인을 능가했소.

내 말이 참말인지 그대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가 혈통 때문에 겁쟁이라거나 약한 자라고 말하며, 내가
옳게 말하는 조언을 무시하지는 마시오.

자, 이제 전투로 내려갑시다. 비록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가야만 하니 말이오.”

“그다음에는 날아오는 무기가 닿지 않는 곳에 머물며
전투에서 물러나 있읍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상처를 거듭
입게 될까 두렵소. 대신 다른 이들을 재촉하여 전투로
내몰아야 하오. 지금까지 분노를 품은 채 멀찍이 떨어져서
싸우지 않고 있는 자들을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들은 길을 떠났고,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름난 대지를 뒤흔드는 신도 넋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노인의 모습을 하고 그들과 함께 갔다.

그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오른손을 잡고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지금쯤 아킬레우스의 몹쓸 마음은
가슴속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오. 아카이아인들이 죽어
가고 달아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이오. 그에게는 분별이
조금도 없으니 말이오. 그러니 그는 그렇게 망하고, 신이 그를
쓰러뜨리기를 바라오.”

“하지만 복된 신들이 그대에게 결코 완전히 분노한 것은 아니오. 아니, 내가 생각건대 트로이아인들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넓은 평원의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그대가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배와 막사로부터 도시로 도망치는 것을 그대 또한 보게 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대지를 뒤흔드는 신은 평원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크게 외쳤다.

전쟁의 신이 벌이는 싸움에 뛰어든 구천 명 혹은 만 명의 전사들이 전투 중에 내지르는 함성만큼이나, 대지를 뒤흔드는 위대한 신은 가슴속에서 그토록 거대한 외침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는 아카이아인들 각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울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불어넣었다.

황금 옥좌의 헤라는 올림포스의 한 봉우리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싸움터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가 자신의 오라비이자 남편의 형제임을 곧바로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또 그녀는 제우스가 샘 많은 이다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몹시 미웠다.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는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마음을 어떻게 속일지 궁리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런 계획이 가장 좋게 느껴졌다.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꾸민 뒤 이다 산으로 가는 것이었다. 만약 제우스가 그녀의 곁에 누워 사랑으로 그녀의 몸을 껴안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그의 눈꺼풀과 꾀 많은 마음 위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그녀를 위해 만들어 준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 방의 문설주에는 다른 신들이 열 수 없도록 비밀스러운 빗장이 달린 튼튼한 문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빛나는 문짝을 닫았다.

그녀는 먼저 암브로시아로 아름다운 몸의 모든 얼룩을 씻어냈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암브로시아 기름을 몸에 듬뿍 발랐다. 만약 이 향기가 청동 문턱이 있는 제우스의 궁전에서 퍼져 나간다면, 그 향취는 땅과 하늘에까지 닿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아름다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빗었으며, 불멸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밝고 아름다우며 암브로시아 향기가 나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땋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테나가 교묘한 기술로 만들어 준 암브로시아 옷을 입었다. 그 옷에는 수많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황금 브로치로 옷을 가슴에 고정했고, 백 개의 술이 달린 허리띠를 둘렀다. 뚫린 귀에는 오디처럼 세 알이 달린 귀걸이를 달았으니, 그 모습에서 풍성한 우아함이 빛났다.

밝은 여신은 그 위에 눈부신 베일을 썼다. 그 베일은 아름답고 반짝였으며 태양처럼 하얬다. 그리고 빛나는 발에는 아름다운 샌들을 묶었다.

그녀는 온갖 장식으로 몸을 꾸민 뒤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는 따로 아프로디테를 불러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주겠느냐? 아니면 내가 다나오스인들을 돕고 네가 트로이아인들을 돕는다고 마음이 상해서 거절하겠느냐?"

그러자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위대한 크로노스의 따님, 존귀한 여신 헤라시여, 마음에 품으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제가 해 드릴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제 마음은 기꺼이 해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존귀한 헤라가 속셈을 품고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모든 불멸의 신과 필멸의 인간을 굴복시킬 때 쓰는 사랑과 욕망을 지금 내게 다오.”

“나는 만물을 기르는 대지의 끝으로, 신들의 근원인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테튀스를 찾아가려 한다. 멀리 천둥치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땅과 쉴 새 없는 바다 밑으로 내쫓았을 때, 그분들이 레아에게서 나를 받아 집에서 사랑으로 기르고 보살펴 주셨다.

그분들을 찾아가 끝없는 다툼을 풀어 드리려 한다. 노여움이 마음에 들어, 오래전부터 서로 잠자리도 사랑도 멀리하고 계시니 말이다.”

“내가 말로 두 분의 마음을 설득해 다시 사랑으로 맺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것이다.”

웃음을 사랑하는 아프로디테가 다시 그녀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께서는 가장 강한 제우스의 품에 안겨 주무시는 분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가슴에서 수놓은 띠를 풀었다. 온갖 유혹이 정교하게 수놓인 띠였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욕망이 있고, 사랑의 속삭임이 있었으니, 지혜로운 자의 분별마저 훔치는 꾐이었다.

그녀는 그 띠를 헤라의 손에 쥐여 주며 말했다.

"자, 온갖 것이 수놓인 이 띠를 받아 가슴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무엇을 바라시든,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는 미소 지었고, 미소를 지으며 그 띠를 자기 가슴에 품었다.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는 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헤라는 급히 내려와 올림포스의 봉우리를 떠났다. 헤라는 피에리아와 아름다운 에마티아에 발을 내디뎠고, 말을 모는 트라키아인들의 눈 덮인 산들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헤라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헤라는 아토스에서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너, 그리하여 신과 같은 토아스의 도시 렘노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헤라는 죽음의 형제인 잠의 신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모든 신과 모든 인간의 주인인 잠이여, 전에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있다면 지금도 따라 주오. 그러면 평생토록 그대에게 고마워하겠소. 내가 제우스 곁에 누워 사랑을 나누거든, 곧바로 그의 눈썹 아래 빛나는 두 눈을 잠재워 주오."

"그러면 그대에게 선물을 주겠소. 영원히 썩지 않는 아름다운 황금 의자를, 두 팔이 억센 내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솜씨 좋게 만들어 줄 것이오. 그 아래에는 발판도 놓아 줄 테니,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빛나는 발을 올려놓고 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달콤한 잠의 신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위대한 크로노스의 따님, 존귀한 여신 헤라시여, 영원한 신들 가운데 다른 신이라면, 아니 모든 신의 근원인 오케아노스 강물이라도 쉽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는, 그분께서 몸소 시키지 않는 한 가까이 가지도, 잠재우지도 않겠습니다."

"전에도 다른 일로 당신의 분부를 따랐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개 높은 제우스의 빛나는 아들이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일리오스에서 배를 타고 떠나던 날 말입니다.

그날 저는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마음을 달콤하게 감싸 잠재웠고, 당신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해치려고, 깊은 바다 위로 모진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족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 많은 코스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께서 깨어나시자 노하시어 궁전 안에서 신들을 이리저리 내던지셨고, 무엇보다 저를 찾으셨습니다. 밤의 여신이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를 하늘에서 바다 깊숙이 던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밤의 여신은 신들도 인간들도 굴복시키는 분입니다.

저는 달아나 밤의 여신에게 매달렸고, 제우스께서는 노여우셨지만 참으셨습니다. 날랜 밤의 여신의 마음을 거스를까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가 그에게 다시 말했다.

“잠이여,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오? 멀리 천둥치는 제우스가 자기 아들 헤라클레스 때문에 노했던 것처럼, 트로이아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하리라 여기는 것이오?

자, 젊은 은총의 여신 가운데 하나를 그대에게 짝지어 주어 아내라 부르게 하겠소. 그대가 날마다 그리워하던 파시테아를 말이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잠의 신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자, 범할 수 없는 스틱스의 물에 걸고 제게 맹세해 주십시오. 한 손으로는 풍요로운 대지를, 다른 손으로는 반짝이는 바다를 짚으십시오. 크로노스와 함께 땅 밑에 있는 신들이 모두 우리 둘의 증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제가 평생 그리워하던 젊은 은총의 여신 파시테아를 제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흰 팔의 여신 헤라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그가 시킨 대로 맹세하며, 타르타로스 아래에 있는 티탄이라 불리는 신들의 이름을 모두 불렀다.

맹세를 마치자, 두 신은 렘노스와 임브로스의 도시를 떠나 안개를 두르고 서둘러 길을 갔다.

그들은 들짐승의 어머니인 샘 많은 이다 산, 렉톤에 이르러
그곳에서 처음 바다를 떠났다. 두 신이 마른 땅 위로
나아가자, 그들의 발아래에서 숲의 우듬지가 흔들렸다.

잠의 신은 제우스의 눈에 띄기 전에 그곳에 멈추었다. 그는
이다 산에서 당시 자라던 것 중 가장 높고, 안개를 뚫고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전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전나무 가지에 몸을 깊이 숨긴 채, 신들이 칼키스라
부르고 인간들이 키민디스라 부르는 맑은 목소리의 산새처럼
그 위에 앉았다.

그 사이 헤라는 높고 험준한 이다 산의 꼭대기인
가르가로스에 빠르게 다가갔고,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를 발견했다.

제우스는 그녀를 보자, 사랑이 그의 지혜로운 마음을 감쌌다.
사랑하는 부모 몰래 처음 함께 잠자리에 들어 사랑을 나누던
그때와 같았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헤라여, 무엇을 바라고 올림포스에서 이리로 내려왔소?
그대가 타고 갈 말도 전차도 곁에 없구려."

그러자 존귀한 헤라가 속셈을 품고 그에게 말했다.

“저는 만물을 기르는 대지의 끝으로, 신들의 근원인
오케아노스와 어머니 테튀스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분들의
집에서 저를 사랑으로 길러 주고 보살펴 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끝없는 다툼을 풀어 드리려 합니다.
노여움이 마음에 들어, 오래전부터 서로 잠자리도 사랑도
멀리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제 말들은 샘 많은 이다 산기슭에 서 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단단한 땅 위로도, 바다 물결 위로도 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포스에서 이리로 내려온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깊이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집으로
떠났다가, 나중에 당신께서 제게 노여워하실까 봐서입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헤라여, 그대는 앞으로도 그곳에 갈 수 있소.”

“그러나 지금은 우리 둘이 함께 누워 사랑을 즐깁시다.
여신이든 인간 여인이든, 이토록 욕망이 내 몸을 휘감고
가슴속 마음을 사로잡은 적은 없었소.

지혜가 신들과 맞먹는 페이리토오스를 낳은 익시온의 아내를 사랑했을 때도, 모든 용사 가운데 뛰어난 페르세우스를 낳은 아크리시오스의 딸, 발목 고운 다나에를 사랑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소. 멀리 이름난 포이닉스의 딸을 사랑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소. 그녀는 내게 미노스와 신과 같은 라다만티스를 낳아 주었지. 세멜레를 사랑했을 때도, 테바이의 알크메네를 사랑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소. 알크메네는 굳센 아들 헤라클레스를 낳았고, 세멜레는 인간들의 기쁨인 디오니소스를 낳았소.

머리칼 고운 존귀한 데메테르를 사랑했을 때도, 빛나는 레토를 사랑했을 때도, 아니 그대 자신을 사랑했을 때도, 지금처럼 그대를 사랑하고 달콤한 욕망에 사로잡힌 적은 없었소."

그러자 존귀한 헤라가 속셈을 품고 그에게 말했다.

"가장 무서우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이다 봉우리에서 사랑을 나누며 눕고 싶으시다면, 영원한 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둘이 자는 것을 보고 다른 신들에게 모두 알리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원하시고 그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당신께는
사랑하는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 문설주에 튼튼한 문을
달아 드린 방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그토록 바라신다면
그리로 가서 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헤라여, 어떤 신이나 인간이 볼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황금 구름으로 그대를 감싸 줄 것이오. 그러면 누구보다 눈이
밝은 헬리오스라도 그 구름을 뚫고 우리 둘을 보지 못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크로노스의 아들은 아내를 품에 안았다. 그들
아래에서는 신성한 대지가 돋아나는 풀과 이슬 맺힌 연꽃,
크로커스, 그리고 두텁고 부드러운 히아신스를 자라나게
하여 땅 위로 그들을 받쳐 올렸다.

그곳에 두 사람이 누웠고, 아름답고 황금빛인 구름이 그들을
감싸 안았는데, 그 구름에서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이
떨어졌다.

이렇게 아버지는 가르가로스 꼭대기에서 잠과 사랑에
사로잡혀 아내를 품에 안은 채 고요히 잠들었다.

한편 달콤한 잠의 신은 대지를 감싸고 뒤흔드는 신에게 소식을 전하러 아르고스인들의 배들로 달려갔다.

그는 포세이돈에게 다가가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포세이돈이시여, 이제 기꺼이 다나오스인들을 도와 그들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잠시라도 좋으니 제우스께서 주무시는 동안 말입니다. 제가 그분께 부드러운 잠을 쏟아부었고, 헤라께서 그분을 꾀어 사랑을 나누며 눕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이름난 인간 종족들에게로 떠나갔고, 포세이돈은 더욱 힘을 내어 다나오스인들을 도왔다.

포세이돈은 곧바로 맨 앞으로 뛰어나가 크게 외쳤다.

"아르고스인들이여, 우리가 또다시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에게 승리를 내주어, 그가 배들을 차지하고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리되리라 뽐내고 있소. 아킬레우스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속 빈 배들 곁에 머물러 있으니 말이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우며 분발한다면, 그가 없어도 그리 아쉽지 않을 것이오."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군대에서 가장 좋고 큰 방패를 갖추고, 머리에는 번쩍이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가장 긴 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앞장서겠소. 내 생각에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해도 더는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오.

전투에 용맹한 사내라면, 어깨에 작은 방패를 멘 자는 그것을 더 못난 자에게 주고, 자신은 큰 방패를 갖추도록 하시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왕들 자신도 비록 부상을 입었으나 군대를 정렬시켰으니, 티데우스의 아들과 오디세우스,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도 그러했다.

그리고 군대 전체를 돌며 그들은 전투 장비를 교환했다. 용맹한 전사는 좋은 갑옷을 갖추어 입었고, 못난 자들에게는 더 못난 것을 주었다.

그들은 번쩍이는 청동으로 몸을 감싸고 나아갔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앞장섰는데, 억센 손에 번개 같은, 날이 긴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었다. 그 칼과는 처참한 싸움에서 맞설 수 없는 법이니, 두려움이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다.

맞은편 트로이아인들 쪽에서는 빛나는 헥토르가 대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검은 머리의 포세이돈과 빛나는 헥토르가 가장 무서운 싸움의 밧줄을 팽팽하게 당겼다. 헥토르는 트로이아인들을, 포세이돈은 아르고스인들을 도왔다.

바다가 아르고스인들의 막사와 배들까지 밀려들었고, 양측은 거대한 굉음과 함께 충돌했다.

북풍의 무서운 돌풍에 밀려 심해에서 해안으로 몰려드는 바다 파도의 포효도, 산골짜기에서 숲을 태우기 위해 치솟는 타오르는 불길의 굉음도, 혹은 분노하여 가장 크게 울부짖는 바람이 참나무의 높은 꼭대기 사이에서 내지르는 비명도, 그때 서로에게 달려들며 무시무시하게 외치던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의 함성만큼 크지는 않았다.

아이아스가 정면으로 돌아서자, 빛나는 헥토르가 맨 먼저 그에게 창을 던졌다.

창은 빗나가지 않고, 방패 멜빵과 은 장식 칼 멜빵, 두 띠가 가슴에서 엇갈리는 곳을 맞혔다. 그 두 띠가 그의 연한 살을 지켜 주었다.

헥토르는 날랜 창이 손에서 헛되이 날아간 것에 화가 나서, 죽음을 피해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자마자,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가 돌로 그를 쳤다.

전투하는 동안 그들의 발치 사이로 굴러다니는, 날랜 배들을 받치던 돌들이 아주 많았다. 아이아스는 그중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려, 헥토르의 목 바로 옆, 방패 테두리 위 가슴을 내리쳤다.

그 일격에 헥토르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았다.

마치 아버지 제우스의 벼락을 맞고 참나무가 뿌리째 쓰러지면, 거기서 무서운 유황 냄새가 피어오르고, 곁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기운이 다 빠져 버리는 것과 같았다. 위대한 제우스의 벼락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강력한 헥토르도 곧바로 먼지 속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창이 떨어졌고, 방패와 투구가 그의 위로 떨어졌으며, 청동으로 꾸민 무구가 그의 둘레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그를 끌어내기를 바라며 큰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창을 빽빽하고 빠르게 내던졌다.

하지만 찌르거나 던져서 백성의 목자를 상처 입히려는 시도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전에 이미 가장 용감한 자들이 그를 지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폴리다마스와 아이네이아스, 훌륭한 아게노르, 리키아인의 지도자 사르페돈, 그리고 비길 데 없는 글라우코스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다른 이들 중에서도 그를 돌보지 않는 자는 없었으며, 그들은 헥토르의 앞에서 둥근 방패를 들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팔로 들어 올려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메고 나갔다.

그들은 전투와 격전의 후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마부와 전차가 화려하게 장식된 날랜 말들이 있는 곳까지 그를 데리고 갔다.

말들은 몹시 신음하는 그를 도시 쪽으로 실어 갔다.

그러나 아름답게 흐르는 강, 불멸의 제우스가 낳은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의 여울에 이르자, 그들은 그를 전차에서 내려 땅에 눕히고 물을 끼얹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검은 피를 토해 냈다. 그러고는 다시 땅에 쓰러졌고, 그의 두 눈은 검은 밤에 덮였다. 그 일격이 아직도 그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르고스인들은 헥토르가 물러나는 것을 보자 더욱 거세게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며 싸울 마음을 되찾았다.

그때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가 맨 먼저 에놉스의 아들 사트니오스에게 달려들어 날카로운 창으로 찔렀다. 사트니오스는 에놉스가 사트니오에이스 강가에서 소 떼를 칠 때, 흠잡을 데 없는 물의 요정 나이아스가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창으로 이름난 오일레우스의 아들이 다가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는 뒤로 쓰러졌고, 그를 둘러싸고 트로이아인들과 다나오스인들이 격렬하게 맞붙었다.

그때 판토오스의 아들인 창을 휘두르는 폴리다마스가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폴리다마스는 아레일리코스의 아들 프로토에노르를 향해 창을 던져 오른쪽 어깨를 쳤고, 강력한 창은 어깨를 뚫고 나아갔다. 프로토에노르는 먼지 속에 쓰러지며 손바닥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폴리다마스는 그를 보며 무시무시한 기세로 기뻐하며 크게 외쳤다.

“하하, 이번에도 기개 높은 판토오스의 아들의 억센 손에서 창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았구나!”

“아르고스인 하나가 그 창을 살에 박은 채, 그것을 지팡이 삼아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겠구나.”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 뽐내는 소리에 아르고스인들은 슬퍼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마음이 흔들렸다. 쓰러진 자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아스는 물러나는 폴리다마스에게 재빨리 빛나는 창을 던졌다.

폴리다마스 자신은 옆으로 껑충 뛰어올라 검은 운명을 피했다. 하지만 안테노르의 아들 아르켈로코스가 그 창을 맞았다. 신들이 그에게 죽음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창은 척추의 맨 윗마디인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을 찔렀고, 양쪽 힘줄을 모두 끊어 놓았다. 그가 쓰러질 때 머리와 입과 코가 다리와 무릎보다 훨씬 먼저 땅에 닿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비길 데 없는 폴리다마스에게 크게 소리쳤다.

"생각해 보시오, 폴리다마스. 그리고 내게 진실을 말해 주시오. 이 자가 프로토에노르의 복수를 위해 죽임을 당할 만한 자가 아니었소? 내 눈에는 이 자가 비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비천한 가문 출신도 아닌 것 같소. 아마도 말을 길들이는 안테노르의 형제이거나, 혹은 그의 아들일 것이오. 체격이 그와 매우 닮았으니 말이오."

그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렇게 말했고, 트로이아인들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때 아카마스가 형의 시신을 감싸고 서 있다가, 시신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던 보이오티아인 프로마코스를 창으로 찔렀다.

아카마스는 그를 내려다보며 무섭게 뽐내며 크게 외쳤다.

"활이나 쏘며 큰소리만 끝없이 치는 아르고스인들아! 고생과 슬픔이 우리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보아라, 너희의 프로마코스가 내 창에 꺾여 잠들었다. 내 형의 피의 값이 오래 치러지지 않은 채로 있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집안에 원수를 갚아 줄 친족을 남겨 두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 뽐내는 소리에 아르고스인들은 슬퍼했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페넬레오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페넬레오스가 아카마스에게 달려들었으나, 아카마스는 왕자 페넬레오스의 공격을 버티지 않고 물러났다.

그래도 페넬레오스는 가축 많은 포르바스의 아들 일리오네우스를 찔렀다. 헤르메스가 트로이아인 가운데 누구보다 포르바스를 아껴 재물을 내려 주었고, 그 어머니가 낳은 외아들이 일리오네우스였다.

페넬레오스는 일리오네우스의 눈썹 아래 눈뿌리를 찔러 눈알을 밀어냈고, 창이 눈을 지나 목덜미까지 꿰뚫었다. 일리오네우스는 두 손을 뻗으며 주저앉았다.

페넬레오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그의 목 한가운데를 내리쳐, 투구 쓴 머리를 땅에 떨어뜨렸다. 억센 창은 여전히 눈에 박혀 있었다.

그는 창에 꿰인 머리를 양귀비 꽃송이처럼 높이 들어
트로이아인들에게 보이며 뽐내며 말했다.

“트로이아인들아, 고귀한 일리오네우스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집에서 곡을 하라고 전해라.
알레게노르의 아들 프로마코스의 아내도, 우리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트로이아 땅에서 돌아갈 때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못할 테니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이의 사지가 떨려
왔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해야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올림포스에 사는 뮤사들이여, 이제 내게 말해 주소서. 명성
높은 대지를 뒤흔드는 자가 전황을 뒤바꾸었을 때,
아카이아인들 중 전사들의 피 묻은 전리품을 가장 먼저 챙긴
자가 누구였는지 말해 주소서.

맨 먼저 그렇게 한 이는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였다.

그는 용맹한 마음을 지닌 미시아인의 지도자, 기르티오스의
아들 히르티오스를 쳤다. 안틸로코스는 팔케스와
메르메로스의 전리품을 빼앗았고, 메리오네스는 모리스와
히포티온을 죽였으며, 테우크로스는 프로토온과
페리페테스를 쓰러뜨렸다.

그 후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백성의 목자인 히페레노르의 옆구리를 찔렀다. 청동이 옆구리를 가르며 지나가자 창자가 쏟아져 나왔고, 그의 영혼은 입은 상처를 통해 급히 빠져나갔으며, 어둠이 그의 눈을 뒤덮었다.

하지만 오일레우스의 날랜 아들 아이아스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다. 제우스가 그들을 도망치게 했을 때, 패주하는 사람들 사이를 빠른 발로 뒤쫓을 수 있는 자는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15권

함선까지 밀린 아카이아인

도망치던 트로이아인들은 말뚝 울타리와 해자를 넘어 달아나며 많은 이가 다나오스인들의 손에 쓰러졌고, 그제야 전차 곁에 멈춰 섰다. 그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했다.

그때 제우스가 이다 봉우리에서 황금 옥좌의 헤라 곁에 누워 있다가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서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을 보았다. 트로이아인들은 쫓겨 달아나고, 아르고스인들이 뒤에서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포세이돈 왕이 있었다.

또 그는 헥토르가 평원에 쓰러져 있고 동료들이 그 둘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헥토르는 괴롭게 숨을 몰아쉬며 정신이 혼미한 채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를 친 자는 아카이아인 가운데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그를 보자 가엾게 여겼다. 그는 눈썹 아래로 무섭게 노려보며 헤라에게 말했다.

“헤라여, 그대는 참으로 다루기 힘든 여인이오. 그대의 몹쓸 꾀가 훌륭한 헥토르를 싸움에서 끌어내고 군대를 달아나게 만들었소.”

“그대가 그 몹쓸 꾀의 열매를 맨 먼저 거두게 될지 모르겠소. 채찍으로 그대를 매질하게 될지도 모르오. 그대는 기억나지 않소? 내가 그대를 높은 곳에 매달고 두 발에 모루 두 개를 달아 늘어뜨리고, 손목에는 끊을 수 없는 황금 사슬을 채웠던 일 말이오. 그대는 구름 사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높은 올림포스의 신들은 분개했지만 가까이 와서 그대를 풀어 주지는 못했소.”

“누구든 내게 붙잡히면, 나는 그를 잡아 문턱에서 내던져 기진맥진한 채 땅에 떨어지게 했소. 그래도 신과 같은 헤라클레스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운 내 마음은 풀리지 않았소. 그대는 북풍과 짜고 그 바람을 꾀어, 몹쓸 꾀로 그를 쉴 새 없는 바다 위로 떠밀었고, 그 뒤 사람 많은 코스로 몰아갔소. 나는 그를 거기서 구해 내어, 그가 숱한 고생을 겪은 뒤에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로 다시 데려왔소.”

“이 일들을 다시 그대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그대가 이제 그만 속임수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오. 그대가 신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나를 속이고 함께 누웠던 그 사랑과 잠자리가 과연 그대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두고 보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는
몸서리치며 날개 돋친 말로 대답했다.

"대지와 위에 펼쳐진 넓은 하늘과, 아래로 흐르는 스틱스의
물을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스틱스의 물은 복된 신들에게
가장 크고 무서운 맹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머리와,
우리 둘의 혼인의 잠자리도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걸고 결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를
해치고 그들의 적을 돕는 것은 결코 제 뜻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마음이 그를 부추기고 시키는 것입니다. 배들
곁에서 아카이아인들이 몹시 시달리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구름의 주인이시여, 저라도 그에게 당신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르라고 권하겠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여, 만약 그대가 불멸의 신들 사이에 앉아 앞으로 나의 생각과 그대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면, 포세이돈은 자신의 뜻이 아무리 반대될지라도 즉시 그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따르도록 마음을 돌릴 것이오.”

“하지만 만약 그대가 정말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신들의 무리로 가서 이리스를 이곳으로 오라고 부르시오. 그리고 활로 유명한 아폴론도 부르시오. 그리하여 이리스가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군대 속으로 들어가, 포세이돈 왕에게 전쟁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게 하시오.

또한 포이보스 아폴론이 헥토르를 불러 일으켜 싸우게 하고, 그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며, 지금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을 잊게 해 달라고 하시오. 그리고 아폴론이 아카이아인들에게 비겁한 공포를 불러일으켜 그들을 다시 한번 몰아내게 하시오.

그리하면 아카이아인들은 도망치다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 젓는 자리가 많은 배들 사이로 쓰러질 것이오. 그러면 아킬레우스는 그의 동료 파트로클로스를 내보내겠지만,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다른 많은 청년들을 죽인 뒤에, 그들 중 내 아들인 용맹한 사르페돈까지 죽이고 나서 일리오스의 눈앞에서 창으로 파트로클로스를 죽일 것이오."

"그리고 용맹한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분노하여 헥토르를 죽일 것이오.

그때부터 나는 아테나의 뜻에 따라 아카이아인들이 가파른 일리오스를 함락할 때까지, 트로이아인들을 배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아낼 것이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나의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며, 펠레우스의 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어떤 불멸의 신들도 이곳에서 다나오스인들을 돕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오.

여신 테티스가 내 무릎을 붙잡고 도시를 함락하는 아킬레우스를 예우해 달라고 간청하던 날, 내가 처음에 약속하며 그 일에 고개를 끄덕였던 것처럼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흰 팔의 여신 헤라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이다의 산들을 떠나 높은 올림포스로 갔다.

마치 먼 땅을 두루 다녀 본 사람이 슬기로운 마음으로 "여기 있었으면, 저기 있었으면" 하고 이것저것 바라면, 그 생각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존귀한 헤라도 서둘러 날아갔다.

헤라는 가파른 올림포스에 이르러, 불멸의 신들이 제우스의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신들은 헤라를 보자 모두 일어나 환영의 잔을 들어 맞이했다.

헤라는 다른 이들은 두고, 뺨이 고운 테미스에게서 잔을 받았다. 테미스가 맨 먼저 달려 나와 맞이했기 때문이다.

테미스는 날개 돋친 말로 그녀에게 말했다.

"헤라시여, 어찌 오셨습니까? 넋이 나간 분 같으십니다. 남편이신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당신을 몹시 놀라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자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테미스 여신이여, 그 일은 자세히 묻지 마오.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고집 센 성미인지 그대도 잘 알지 않소. 그대는 어서 궁전에서 신들의 고루 나누는 잔치를 시작하시오. 그러면 제우스가 어떤 몹쓸 일을 벌이려 하는지, 모든 불멸의 신과 함께 듣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들으면 인간이든 신이든 모두가 기뻐하지는 못할 것이오. 지금 아직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즐기는 이가 있다 해도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존귀한 헤라는 자리에 앉았고, 제우스의 궁전에 모인 신들은 분개했다.

헤라는 입술로는 웃었지만, 검은 눈썹 위 이마는 펴지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모든 신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이들이여, 분별없이 제우스에게 노하다니! 우리는 아직도 그에게 다가가 말로든 힘으로든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따로 앉아 아랑곳하지도 마음 쓰지도 않소. 불멸의 신들 가운데 힘과 기운이 단연 가장 세다고 여기니 말이오."

"그러니 그가 저마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든 견디시오. 벌써 아레스에게도 슬픔이 닥친 것 같소. 인간 가운데 그가 가장 아끼던 아들, 강력한 아레스가 제 아들이라 일컫던 아스칼라포스가 싸움터에서 죽었으니 말이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아레스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튼튼한 허벅지를 내리쳤다. 그리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이여, 내가 아카이아인들의 배로 가서 아들의 죽음을 갚는다 해도 탓하지 마시오. 제우스의 벼락을 맞고 시체들 사이에 피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누울 운명이라 해도 말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공포와 패주에게 말을 전차에 매라고 이른 뒤, 몸소 번쩍이는 무구를 입었다.

그때 아테나가 모든 신을 걱정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앉아 있던 옥좌를 떠나 문간으로 달려가, 아레스의 머리에서 투구를, 어깨에서 방패를 벗기지 않았더라면, 제우스와 불멸의 신들 사이에 더 크고 끔찍한 분노가 일었을 것이다.

아테나는 아레스의 억센 손에서 청동 창을 빼앗아 세워 두고, 날뛰는 아레스를 꾸짖었다.

"이 미치광이야, 정신이 나갔구나! 넋이 빠졌어!"

"귀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분별도 염치도 다 사라졌구나. 방금 올림포스의 제우스에게서 온 흰 팔의 여신 헤라께서 하시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네가 숱한 재앙을 다 겪고 나서, 괴로워도 억지로 올림포스로 돌아오고, 다른 모든 신에게도 큰 재앙의 씨를 뿌리려는 것이냐?"

"그분은 곧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를 모두 혼내러 올림포스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죄가 있든 없든 차례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러니 아들 때문에 품은 분노를 거두어라.

그보다 힘과 완력이 뛰어난 자도 이미 많이 죽었고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모든 인간의 혈통과 자손을 다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테나는 날뛰던 아레스를 옥좌에 앉혔다.

헤라는 아폴론과, 불멸의 신들의 전령인 이리스를 궁전 밖으로 불러내어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제우스께서 너희 둘에게 되도록 빨리 이다로 오라 하신다. 가서 제우스의 얼굴을 뵙거든,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하여라."

존귀한 헤라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왕좌에 앉았다. 그러자 두 신은 벌떡 일어나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야생 동물의 어머니인 샘이 많은 이다 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제우스가 가르가로스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주위에는 향기로운 구름이 감돌고 있었다.

구름을 모으는 자인 제우스 앞에 두 신이 다가갔다. 제우스는 그들을 보고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즉시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먼저 이리스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날랜 이리스야, 어서 가서 포세이돈 왕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되, 틀림없이 전하여라. 싸움과 전투를 그만두고 신들의 무리에게 가든지 빛나는 바다로 들어가라고 일러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내가 덤벼들 때 버틸 배짱이 있는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라고 해라. 나는 힘으로도 그보다 훨씬 세고, 나이도 위라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나와 맞먹는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람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이다의 산등성이에서 신성한 일리오스로 내려갔다.

마치 맑은 하늘에서 태어난 북풍의 돌풍에 밀려 구름에서 눈이나 차가운 우박이 날아가듯, 날랜 이리스도 그렇게 서둘러 날아갔다.

그녀는 이름난 대지를 뒤흔드는 신에게 다가가 말했다.

"대지를 감싸는 검은 머리의 신이시여,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께서 보내신 전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싸움과 전투를 그만두고 신들의 무리에게 가시든지 빛나는 바다로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시면, 그분께서 몸소 이리로 오셔서 당신과 맞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을 피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힘으로도 당신보다 훨씬 세고 나이도 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다른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그분과 맞먹는다고 큰소리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름난 대지를 뒤흔드는 신이 몹시 노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괘씸하구려!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참으로 오만한 말을 했소. 그와 똑같은 명예를 지닌 나를 억지로, 내 뜻을 거슬러 누르겠다니 말이오.

우리는 크로노스와 레아가 낳은 세 형제요. 제우스와 나, 그리고 셋째는 땅 밑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하데스요.

모든 것이 세 몫으로 나뉘어, 저마다 제 영역을 받았소."

"제비를 흔들었을 때 나는 잿빛 바다를 영원한 거처로 얻었고, 하데스는 어스름한 어둠을, 제우스는 대기와 구름 사이의 넓은 하늘을 얻었소. 그러나 땅과 높은 올림포스는 아직 우리 모두의 것이오.

그러니 나는 결코 제우스의 뜻대로 살지 않겠소.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자기 몫인 셋째 몫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 하시오.

나를 겁쟁이처럼 여겨 완력으로 겁주려 하지 말라 하시오."

"그런 허풍스러운 말로는 차라리 자기가 낳은 딸들과 아들들을 꾸짖는 편이 낫겠소. 그들은 무엇을 시키든 따를 수밖에 없으니 말이오."

그러자 바람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대지를 감싸는 검은 머리의 신이시여, 이 완고하고 거친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제우스께 전해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훌륭한 이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에리니에스가 언제나 손위 형제의 편을 든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그녀에게 다시 대답했다.

“이리스 여신이여, 그대 말이 참으로 옳소. 전령이 분별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오. 그러나 운명이 똑같은 몫을 정해 준, 자기와 처지가 같은 이를 성난 말로 꾸짖으려 들 때면, 내 마음과 영혼에 지독한 괴로움이 밀려오오.”

“비록 지금은 내 분노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겠지만, 그대에게 다른 한 가지를 말하며 내 분노를 담아 이렇게 위협하겠소. 만약 그가 나를 무시하고, 전리품을 이끄는 아테나와 헤라, 헤르메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 왕을 무시하며 가파른 일리오스를 보존하고,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으며 아르고스인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둘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것임을 그가 알게 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대지를 뒤흔드는 자는 아카이아인들의 군대를 떠나 바다로 가서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카이아의 전사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아폴론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포이보스야, 이제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에게 가거라. 대지를 감싸고 뒤흔드는 신이 우리의 무서운 분노를 피해 빛나는 바다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크로노스와 함께 땅 밑에 있는 신들까지도 우리의 싸움을 들었을 것이다.

그가 분노를 품고서도 그 전에 내 손에 굴복한 것이 나에게도 그에게도 훨씬 나은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땀깨나 흘린 뒤에야 끝이 났을 테니 말이다."

"너는 술 달린 아이기스를 손에 들고 아카이아의 용사들 위로 사납게 흔들어 그들을 겁주어라. 그리고 멀리 쏘는 신이여, 빛나는 헥토르를 맡아 돌보아라. 아카이아인들이 쫓겨 배들과 헬레스폰토스까지 달아날 때까지, 이번에는 그에게 큰 힘을 북돋워 주어라. 그때부터는 내가 몸소 말과 일을 꾸며, 아카이아인들이 다시 고생에서 한숨 돌리게 하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아폴론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

아폴론은 날개 달린 것들 중 가장 빠른, 비둘기를 잡는 날랜 매처럼 이다 언덕에서 내려갔다.

그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프리아모스의 아들, 훌륭한 헥토르가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누워 있지 않았고, 이제 막 정신을 가다듬는 중이었다. 헥토르는 주변의 동료들을 알아보고 있었으며,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의 뜻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기에 거친 숨과 땀도 멎어 있었다.

멀리 쏘는 아폴론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야, 어찌하여 다른 이들과 떨어져 여기 기진해 앉아 있느냐? 무슨 변이라도 당했느냐?"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기운 없이 그에게 말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시여,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시기에 제게 마주 대고 물으십니까?"

“제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 고물 곁에서 그의 동료들을 쓰러뜨리고 있을 때, 함성을 잘 지르는 아이아스가 돌로 제 가슴을 쳐서 사나운 힘을 꺾어 놓은 것을 모르십니까? 저는 오늘 숨을 거두고 죽은 자들과 하데스의 집을 보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 그에게 다시 말했다.

“이제 기운을 내라.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너를 곁에서 지키고 도우라고 이다에서 이토록 강한 조력자를 보내셨다. 바로 황금 칼을 찬 포이보스 아폴론인 나다. 나는 예전부터 너와 가파른 성채를 늘 지켜 왔다.

자, 많은 마부들에게 날랜 말들을 속 빈 배들 쪽으로 몰라고 명하라. 내가 앞장서서 전차가 지나갈 길을 고르게 닦고, 아카이아의 용사들을 달아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폴론은 백성의 목자에게 거대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치 구유에서 먹이를 배불리 먹은 말이 굴레를 끊고 평원을 발을 구르며 달려 나가는 것과 같았다. 그 말은 맑게 흐르는 강물에 몸을 씻는 습성이 있었는데, 머리를 높이 쳐들고 갈기를 어깨 주위에 휘날리며 기뻐했다. 그 말은 자신의 위용을 뽐내며 암말들이 노니는 풀밭을 향해 가볍게 무릎을 움직이며 달려갔다.

신의 목소리를 들은 헥토르도 그와 같이 마부들을 재촉하며 발과 무릎을 재빨리 움직였다.

마치 개들과 농부들이 뿔 달린 사슴이나 들염소를 뒤쫓을 때, 가파른 바위나 그늘진 덤불이 그 짐승을 감추어 주어 찾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다 그 소란에 갈기 무성한 사자가 길에 나타나면, 아무리 열을 올리던 그들도 곧바로 모두 돌아서 달아난다.

다나오스인들도 한동안은 무리 지어 뒤쫓으며 칼과 양날 창으로 찔러 댔다. 그러나 헥토르가 군사들의 대열 사이를 오가는 것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간이 콩알만 해졌다.

그때 아이톨리아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안드라이몬의 아들 토아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그는 투창에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근접전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젊은이들이 토론하며 다툴 때 회의장에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아카이아인은 거의 없었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보시오, 참으로 놀라운 일을 내 눈으로 보는구려. 헥토르가 죽음을 피하고 다시 일어났으니 말이오."

"우리는 저마다 헥토르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손에 죽었기를 바랐소. 하지만 보시오, 어떤 신께서 헥토르를 다시 구원하고 살려내셨구려. 그는 참으로 많은 다나오스인의 무릎을 꺾어 놓았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오. 크게 천둥 치는 제우스의 뜻 없이는 그가 이토록 용맹한 전사로서 다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니 자,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모두 따릅시다."

"많은 군사들에게는 배로 돌아가라고 합시다. 하지만 우리 군대에서 최고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만약 우리가 그를 먼저 마주할 수 있다면, 창을 내밀어 그를 뒤로 밀어내기 위해 자리를 잡읍시다. 내 생각에 그는 아무리 의욕이 넘친다 해도, 다나오스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 말을 듣고 따랐다.

아이아스와 이도메네우스 왕, 테우크로스와 메리오네스, 그리고 아레스와 맞먹는 메게스를 둘러싼 이들이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에 맞서 싸울 대열을 갖추었고, 그 뒤에서 많은 군사들이 아카이아인들의 배로 물러갔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이 빽빽한 무리를 이루어 앞으로 돌진했고, 헥토르가 그들을 이끌며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의 앞에는 포이보스 아폴론이 구름을 어깨에 두른 채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털술이 둘린 무시무시하고 눈부신 아이기스를 들고 있었다.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에게 주어 사람들을 달아나게 할 때 쓰도록 한 것이었다.

아폴론은 군대를 이끌며 이 아이기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르고스인들은 빽빽이 무리 지어 그들이 덮쳐 오는 것을 버텨 냈다. 양측에서 날카로운 함성이 터져 나왔고, 활시위에서는 화살들이 튀어 올랐다.

용맹한 손들에 의해 던져진 수많은 창 중 일부는 전투에 능한 젊은이들의 살 속에 박혔다.

또 다른 많은 창은 하얀 살에 닿기도 전에, 살을 탐내며 땅 중간에 박혀 버렸다.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의 손에 아이기스를 움직이지 않게 들고 있는 동안에는, 양쪽에서 던진 무기가 모두 과녁에 꽂혔고 사람들이 계속 쓰러져 나갔다.

그러나 그가 빠른 말을 타는 다나오스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이기스를 흔들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는 그들의 마음을 가슴 속에서 약해지게 만들었고 그들은 격렬한 힘을 잊어버렸다.

마치 칠흑 같은 밤에 목자가 없는 틈에 맹수 두 마리가 갑자기 들이닥쳐 소 떼나 큰 양 떼를 마구 흩어 몰아낼 때와 같았다. 그처럼 아카이아인들도 힘을 잃고 쫓겨 달아났다.

아폴론이 그들에게 공포를 보내고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는 영광을 주었기 때문이다. 싸움이 흩어지자
저마다 상대를 하나씩 죽였다.

헥토르는 스티키오스와 아르케실라오스를 쓰러뜨렸다.
스티키오스는 청동 갑옷을 입은 보이오티아인들의
지도자였고, 아르케실라오스는 기개 높은 메네스테우스의
믿음직한 동료였다.

아이네이아스는 메돈과 이아소스를 죽였다. 메돈은 참으로
신과 같은 오일레우스의 서자이자 아이아스의 형제였으나,
필라케에 머물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오일레우스의 아내인 계모 에리오피스의 친족 중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이아소스는 아테나이인들의 대장이었으며, 부콜로스의
아들인 스펠로스의 아들이라 불렸다.

폴리다마스는 메키스테우스를 죽였고, 폴리테스는 맨 앞에서
에키오스를 죽였으며, 클로니오스는 훌륭한 아게노르에게
죽었다.

파리스는 맨 앞 전사들 사이로 달아나던 데이오코스의 어깨
밑동을 뒤에서 찔러, 청동이 그대로 꿰뚫고 나가게 했다.

그들이 쓰러진 자들의 무구를 벗기는 동안, 아카이아인들은 이리저리 달아나다 파 놓은 해자와 말뚝 울타리 쪽으로 몸을 던지듯 하여, 어쩔 수 없이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헥토르는 크게 소리쳐 트로이아인들을 불렀다.

"배들로 돌진하시오! 피 묻은 전리품은 내버려 두시오! 배들에서 떨어져 딴 데 있는 자가 눈에 띄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것이오. 그의 친척들도 죽은 그를 불에 태워 주지 못하고, 개들이 우리 도시 앞에서 그를 뜯어 먹을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헥토르는 팔을 어깨 위로 휘둘러 말들에게 채찍을 내리치고, 대열을 따라 트로이아인들을 불렀다.

그들은 모두 함성을 지르며 그와 함께 엄청난 소리를 내며 전차를 끄는 말들을 몰았다.

그들 앞에서 포이보스 아폴론이 깊은 해자의 둑을 발로 가볍게 허물어 해자 한가운데로 쓸어 넣고, 사람이 힘을 시험하며 창을 던질 때 닿는 거리만큼 길고 넓은 둑길을 놓아 주었다.

그들은 그 길을 통해 대열을 지어 차례로 쏟아져 나갔고, 그들 앞에서는 아폴론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이기스를 들고 나아갔다.

아폴론은 아카이아인들의 성벽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다.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의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장난을 치며 손과 발로 다시 모래를 흩뜨려 놓는 것과 같았다.

활의 신 포이보스여, 그대는 그처럼 가볍게 아카이아인들의 길고 고된 노고를 허물고, 그들을 달아나게 했다.

그리하여 다나오스인들은 배들 옆에서 멈춰 섰고, 서로를 부르며 발길을 멈추었다. 그들은 각자 손을 들어 모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중에서도 아카이아인의 수호자인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가장 간절히 기도했다.

"오, 아버지 제우스여. 만약 밀이 자라는 아르고스의 우리 사람들 중 누군가가 돌아가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며 당신께 황소나 숫양의 기름진 넓적다리를 태워 바친 적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께서 그 기도에 고개를 끄덕여 약속하신 적이 있다면, 이제 그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올림포스의 신이시여, 우리에게서 무자비한 파멸의 날을 막아 주시고, 아카이아인들이 이토록 트로이아인들에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지혜로운 제우스가 넬레우스의 늙은 아들의 기도를 듣고 크게 천둥을 울렸다.

하지만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천둥소리를 들은 트로이아인들은 아르고스인들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고, 싸울 마음을 불태웠다.

마치 바람에 떠밀린 넓은 바다의 큰 파도가 배의 뱃전을 넘어 덮칠 때와 같았다. 바람이야말로 파도를 가장 크게 부풀린다. 그처럼 트로이아인들도 큰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트로이아인들은 전차를 타고 싸웠고, 아카이아인들은 검은 배의 갑판 위로 높이 올라가 싸웠다. 그들은 바다 싸움에 쓰려고 배에 놓아 둔, 끝에 청동을 씌우고 이어 붙인 긴 장창으로 싸웠다.

아카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날랜 배들로부터 떨어진 성벽 근처에서 싸우는 동안, 파트로클로스는 다정한 에우리필로스의 막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화로 에우리필로스를 즐겁게 해주었으며, 그의 고통스러운 상처에는 어두운 통증을 달래줄 약초를 발라 주었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이 성벽으로 몰려들고 다나오스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보자, 그는 신음하며 손바닥으로 두 허벅지를 쳤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에우리필로스여, 그대가 몹시 위중하지만 더는 여기 그대 곁에 머물 수가 없소. 큰 싸움이 벌어졌으니 말이오. 그대는 시종에게 돌봐 달라 하시오. 나는 아킬레우스에게 서둘러 가서 싸우라고 재촉하겠소. 신의 도움으로 내가 설득해 그의 마음을 움직일지 누가 알겠소?”

"전우가 해 주는 권유는 참 좋은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아카이아인들은 몰려오는 트로이아인들을 굳건히 막아냈으나, 수가 더 적었음에도 그들을 배들로부터 밀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트로이아인들 역시 다나오스인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고 막사와 배들이 있는 한복판으로 길을 내지도 못했다.

아테나의 이끎을 받아 온갖 기술에 능숙한 숙련된 목수가 먹줄을 사용하여 배의 목재를 곧게 펴듯, 그들의 전쟁과 전투도 그만큼 균형 있게 맞서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배 저 배를 둘러싸고 계속 싸웠는데, 헥토르는 빛나는 아이아스에게 곧장 덤벼들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배를 두고 고되게 싸웠다. 헥토르는 아이아스를 밀어내고 배에 불을 지를 수 없었고, 아이아스도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신이 헥토르를 그 가까이까지 데려다 놓았기 때문이다.

그때 빛나는 아이아스가 창을 던져, 배에 불을 지르려고 다가오던 클리티오스의 아들 칼레토르의 가슴을 맞혔다. 칼레토르는 쿵 하고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횃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헥토르는 검은 배 앞에서 사촌이 먼지 속에 쓰러진 것을 눈으로 보고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이여, 이 궁지에서 결코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시오! 클리티오스의 아들을 구하시오. 배들이 모인 곳에 쓰러졌으니, 아카이아인들이 그의 무구를 벗겨 가지 못하게 말이오."

그렇게 말하며 헥토르는 빛나는 창을 아이아스에게 던졌다. 창은 그를 비껴갔으나, 마스토르의 아들이자 키테라에서 온 아이아스의 시종인 리코프론이 맞았다. 그는 신성한 키테라에서 사람을 죽였기에 아이아스와 함께 살고 있었다.

헥토르는 아이아스 곁에 서 있던 리코프론의 귀 위쪽 머리를 날카로운 청동으로 내리쳤다. 리코프론은 배의 고물에서 먼지투성이 땅 위로 뒤로 넘어졌고, 그의 사지는 풀려버렸다.

아이아스는 몸서리치며 아우에게 말했다.

"테우크로스여, 우리의 믿음직한 동료가 쓰러졌소. 마스토르의 아들 말이오. 그가 키테라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동안, 우리는 집에서 그를 부모처럼 받들었소. 그런데 기개 높은 헥토르가 그를 죽였소.

날랜 죽음을 부르는 그대의 화살과,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대에게 준 활은 어디 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테우크로스는 그 말을 듣고 달려와 그의 곁에 섰다. 그는 뒤로 휜 활과 화살 든 화살통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재빨리 화살을 쏘아 댔다.

그는 페이세노르의 빛나는 아들 클레이토스를 맞혔다.
클레이토스는 판토오스의 고귀한 아들 폴리다마스의 동료로,
고삐를 손에 쥐고 말들을 모느라 바빴다.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대열이 가장 많이 무너져
달아나는 곳으로 말을 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 애를 써도, 그들 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매우 빠르게 그에게 닥쳤다. 신음 소리를
머금은 화살이 그의 뒷덜미에 박혔고, 그는 전차에서
떨어졌다. 그 바람에 말들이 옆으로 비켜나갔고, 빈 전차는
덜컹거렸다.

왕자 폴리다마스는 이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말들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는 이 말들을 프로티아온의 아들 아스티노오스에게 넘겨주며, 그를 지켜보면서 말들을 가까이 두라고 엄히 명령했다. 그리고 폴리다마스 자신은 뒤로 돌아가 선봉에서 싸우는 전사들 사이로 합류했다.

테우크로스는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를 겨누어 다시 화살을 꺼냈다. 헥토르가 용맹을 떨치고 있을 때 그를 맞혀 목숨을 빼앗았더라면, 아카이아인들의 배 곁에서 그의 싸움을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헥토르를 지키던 제우스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텔라몬의 아들 테우크로스에게서 영광을 빼앗았다.

테우크로스가 헥토르를 겨누어 활을 당기는 순간, 제우스가 훌륭한 활의 잘 꼰 시위를 끊어 버린 것이다. 청동 촉이 무거운 화살은 빗나갔고, 활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러자 테우크로스는 몸을 떨며 그의 형제에게 말했다.

“형님, 보시오, 참으로 신께서 우리의 전투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시오. 신께서 내 손에서 활을 떨어뜨리셨고, 화살들이 빽빽하고 빠르게 쏟아져 나오도록 오늘 아침 내가 단단히 묶어 놓은 새 시위마저 끊어 버리셨으니 말이오.”

그러자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우여, 신이 다나오스인들을 미워하여 망쳐 놓았으니, 활과 많은 화살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대신 긴 창을 손에 들고 방패를 어깨에 메고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며 다른 군사들을 독려하시오.

그들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 해도,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우리 배들을 싸움도 없이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오. 자, 싸울 일만 생각합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테우크로스는 활을 다시 막사 안에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어깨에 네 겹으로 된 방패를 멨고, 말총 장식이 달린 잘 만든 투구를 그의 거대한 머리에 썼다. 그러자 투구 위의 말총이 위에서 무시무시하게 흔들거렸다.

그는 날카로운 청동 촉이 달린 튼튼한 창을 들고 길을 떠났다. 그는 빠르게 달려가 아이아스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헥토르는 테우크로스의 화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을 보고,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용기를 내어 속이 빈 배들 사이에서 맹렬한 용맹을 떨치시오! 제우스께서 한 지도자의 화살들을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드셨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제우스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움은 알아보기 쉽소. 누구에게 승리의 영광을 내리시는지, 누구를 꺾고 돕지 않으시는지 말이오. 지금 그분은 아르고스인들의 힘을 꺾고 우리를 도우시오.

그러니 배들 곁에서 무리 지어 싸우시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날아온 무기나 창에 맞아 죽음과 운명을 맞는다면, 그대로 죽는 것이오.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뒤에 무사히 남고, 집과 땅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오. 아카이아인들이 배를 타고 그리운 고향 땅으로 떠나기만 한다면 말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용기를 북돋웠다.

그러자 아이아스가 다시 그를 마주 보고 동료들을 향해 외쳤다.

"아르고스인들이여,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거나, 아니면 배들로부터 위협을 물리쳐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배들을 차지한다면, 그대들 각자가 자기 고국으로 걸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혹시 생각하는 것이오?

분노에 찬 헥토르가 자신의 군대 전체를 몰아 배들을 불태우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진정 그가 그들을 부르는 것은 춤을 추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러 가자는 것이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방책이나 계책이 없소. 맞붙어 싸우며 우리의 손과 힘을 저들에게 맞대는 것뿐이오.

우리보다 못한 자들의 손에 배들 옆에서 이토록 헛되이 두려운 싸움을 하며 오랫동안 고통받느니, 차라리 단번에 죽거나 살거나 하는 편이 낫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이의 힘과 기개를 북돋웠다.

그때 헥토르는 포키스인의 지도자인 페리메데스의 아들 스케디오스를 죽였고, 아이아스는 보병들의 지도자인 안테노르의 빛나는 아들 라오다마스를 죽였다. 폴리다마스는 기개 높은 에페이오스인의 대장인 필레우스의 아들의 동료, 킬레네의 오토스를 쓰러뜨렸다.

메게스가 그것을 보고 폴리다마스에게 덤벼들었으나,
폴리다마스가 몸을 숙여 피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아폴론이 판토오스의 아들이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쓰러지도록 두지 않았던 것이다. 메게스는 대신
크로이스모스의 가슴 한가운데를 창으로 찔렀다.

크로이스모스는 쿵 하고 쓰러졌고, 메게스가 그의 어깨에서
무구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 사이 창을 잘 쓰는 돌롭스가 그에게 덤벼들었다. 돌롭스는
라오메돈의 아들 람포스가 낳은 가장 용맹한 아들로, 사나운
힘을 잘 다루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필레우스의 아들의
방패 한가운데를 창으로 찔렀다.

그러나 메게스가 늘 입던, 판을 이어 붙여 정교하게 만든
흉갑이 그를 지켜 주었다. 그 흉갑은 필레우스가 셀레에이스
강가의 에피레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손님 친구인 인간들의 왕 에우페테스가
전쟁터에서 적들을 막아낼 방어구로 쓰라고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갑옷이 이제 그의 아들의 몸에서 죽음을
막아주었다.

그러자 메게스가 날카로운 창으로 돌롭스가 쓰고 있던 말총 장식이 달린 청동 투구의 맨 윗부분을 찔렀다. 메게스는 거기서 말총 장식을 잘라 냈고, 갓 물들인 진홍빛으로 빛나던 말총 장식이 통째로 먼지 속으로 떨어졌다.

메게스가 버티고 서서 돌롭스와 싸우며 아직 승리를 바라고 있을 때, 싸움을 즐기는 메넬라오스가 그를 도우러 왔다. 메넬라오스는 돌롭스 몰래 옆으로 다가가 창을 들고 서서, 뒤에서 돌롭스의 어깨를 향해 창을 던져 맞혔다.

창은 기세 사납게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고, 돌롭스는 얼굴을 땅에 박으며 쓰러졌다. 두 사람은 그의 어깨에서 청동 무구를 벗기려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헥토르가 친족들을 모두 불렀다. 그는 먼저 히케타온의 아들, 힘센 멜라니포스를 꾸짖었다.

멜라니포스는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는 페르코테에서 느릿느릿 걷는 소들을 치곤 했으나, 다나오스인들의 굽은 배들이 오자 일리오스로 돌아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집에 살았고, 프리아모스는 그를 자기 자식들처럼 아꼈다.

헥토르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멜라니포스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느냐? 죽은 네 친족을 보고도 네 마음은 아무렇지 않으냐?"

"저들이 돌롭스의 갑옷을 벗기느라 얼마나 분주한지 보이지 않느냐? 어서 오너라. 우리가 저들을 죽이거나, 저들이 일리오스를 완전히 함락하고 그 백성을 죽일 때까지, 더는 아르고스인들과 멀리서 싸울 수만은 없다."

그렇게 말하며 헥토르가 앞장섰고, 신과 같은 사내 멜라니포스가 뒤따랐다.

한편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는 아르고스인들을 독려했다.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마음에 부끄러움을 품으시오. 격렬한 싸움에서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 가운데에는 죽는 자보다 살아남는 자가 더 많소. 그러나 달아나는 자들에게서는 영광도, 아무런 이득도 생기지 않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도 스스로 적을 물리치려는 마음에 불탔고,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청동 울타리처럼 배들을 둘러쌌다. 제우스는 트로이아인들을 부추겨 그들에게 덤비게 했다.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가 안틸로코스를 독려했다.

“안틸로코스여, 아카이아인 가운데 그대보다 젊은 이도, 발이 빠른 이도, 싸움에 용맹한 이도 없소. 그대가 뛰쳐나가 트로이아인 하나를 쓰러뜨렸으면 좋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물러났으나, 안틸로코스의 마음을 북돋웠다. 안틸로코스는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뛰쳐나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고 빛나는 창을 던졌다. 그가 창을 던지자 트로이아인들은 그를 피해 물러섰다.

그의 창은 헛되이 날아가지 않았다. 싸움터로 나오던 기개 높은 히케타온의 아들 멜라니포스의 가슴, 젖꼭지 옆을 맞혔다.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

마치 사냥꾼이 굴에서 뛰쳐나오는 새끼 사슴을 정확히 맞혀 쓰러뜨리면, 사냥개가 그 상처 입은 새끼 사슴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았다.

멜라니포스여, 그처럼 싸움에 굳센 안틸로코스가 그대의 무구를 벗기려고 그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훌륭한 헥토르가 그것을 보고 싸움터를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왔다.

안틸로코스는 날랜 용사였지만 버티지 않고, 소 떼 곁에서 개나 목자를 죽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달아나는 들짐승처럼 달아났다. 네스토르의 아들도 그렇게 달아났다.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는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신음을 부르는 무기들을 그에게 퍼부었다. 그러나 안틸로코스는 동료들의 무리에 이르자 돌아서서 버텼다.

트로이아인들은 사나운 사자처럼 배들로 돌진하며 제우스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 제우스는 줄곧 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고, 아르고스인들의 마음은 녹여 영광을 빼앗으면서 트로이아인들을 부추겼다.

제우스의 마음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는 데 있었다. 헥토르가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에 꺼지지 않는 무서운 불을 던져, 테티스의 지나친 청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려는 것이었다.

지혜로운 제우스가 기다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타오르는 배의 번뜩임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그 시점부터 그는 트로이아인들을 배들로부터 몰아내고 다나오스인들에게 영광을 선사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의도로, 제우스는 스스로도 매우 열망하고 있는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를 속이 빈 배들을 향해 부추기고
있었다.

그는 창을 휘두르는 아레스처럼, 아니면 깊은 숲 덤불 속
산에서 날뛰는 집어삼키는 불길처럼 날뛰었다.

그의 입가에는 거품이 일었고, 무서운 눈썹 아래 두 눈은
이글거렸으며, 싸우는 헥토르의 관자놀이 둘레에서 투구가
무섭게 흔들렸다.

제우스가 몸소 하늘에서 그를 지켜 주며,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홀로 있는 그에게 영예와 영광을 내려 주었던 것이다.

그의 수명은 짧을 것이었다. 팔라스 아테나가 펠레우스의
아들의 힘 아래 그가 파멸할 날을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갖춘 곳을 찾아다니며, 대열을 시험하며
무너뜨리려고 몹시 애썼다.

그러나 그토록 애썼어도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들은 성벽처럼 굳게 버텼다. 마치 잿빛 바닷가에 우뚝 솟은 가파르고 커다란 바위 같았다. 그 바위는 날카로운 바람의 빠른 길도,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큰 파도도 견뎌 낸다. 그처럼 다나오스인들도 트로이아인들에게 굳게 맞서며 달아나지 않았다.

하지만 헥토르는 사방에서 불꽃처럼 빛나며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덮쳤다.

마치 구름 아래에서 바람에 부풀어 오른 거센 파도가 날랜 배를 덮쳐, 배가 거품에 완전히 가려지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돛을 향해 포효하며, 죽음에서 겨우 한 뼘 떨어져 실려 가니 선원들의 가슴이 두려움에 떨 때와 같았다.

아카이아인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가슴 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마치 사나운 사자가 큰 늪지 낮은 풀밭에서 풀을 뜯는 셀 수 없이 많은 소 떼를 덮치는 것과 같았다.

소 떼 사이에는 목자가 있지만, 그는 아직 죽은 살진 암소를 두고 들짐승과 싸울 줄을 모른다. 그는 소 떼의 맨 앞과 맨 뒤를 오가며 따라다닐 뿐이고, 사자는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암소 한 마리를 잡아먹으며, 소 떼는 모두 겁에 질려 달아난다.

그처럼 그때 아카이아인들은 모두 헥토르와 아버지 제우스 앞에서 놀랍게도 무너져 달아났다. 헥토르가 죽인 것은 한 사람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미케네의 페리페테스로, 에우리스테우스 왕의 심부름으로 강력한 헤라클레스에게 오가던 코프레우스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훨씬 못한 그 아버지에게서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는 발이 빠르고 싸움에도 능했으며 정신 또한 미케네 사람들 중 으뜸이었다. 바로 그가 헥토르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그가 뒤로 돌아서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의 가장자리에 발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 방패는 발치까지 내려오는 투창을 막는 방패였다. 그는 그 방패에 걸려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넘어질 때 그의 투구가 관자놀이 부근에서 놀라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헥토르는 그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달려가 그의 바로 곁에 섰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창을 꽂아, 그의 친한 동료들 바로 옆에서 그를 죽였다.

동료들은 그를 위해 슬퍼했으나 그를 도우려 애쓰지는 못했다. 그들 자신도 훌륭한 헥토르를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배들 사이로 물러났고, 맨 앞줄에 배치되었던 가장 바깥쪽 배들이 그들을 에워쌌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아르고스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바깥쪽 배들로부터 물러나, 진영 전체로 흩어지는 대신 막사 옆에 모두 모여 한 덩어리로 머물렀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크게 불러댔다.

무엇보다도 아카이아인의 수호자인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모든 이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낳아 준 부모의 이름으로 애원하며 말했다.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행동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시오. 그리고 그대들 각자는 자식과 아내, 재산과 부모를 생각하시오. 그들이 살아 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말이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간청하오. 굳건히 버티고 서서, 도망치며 뒤로 물러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용기를 북돋웠다.

아테나가 그들의 눈에서 경이로운 안개를 걷어내자, 배들이 있는 쪽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쪽 양쪽에서 강렬한 빛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모든 이가 함성을 잘 지르는 헥토르와 그의 동료들을 보았다. 후방에 서서 싸우지 않는 이들과 날랜 배들 곁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들 모두가 그들을 보았다.

마음이 드높은 아이아스는 다른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곳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더는 원치 않았다.

그는 배의 갑판 위를 긴 보폭으로 오가며 계속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해전용 긴 창이 들려 있었는데, 고리로 이어 붙인 스물두 완척 길이의 창이었다.

마치 말 타기에 능숙한 사람이 많은 말 가운데서 골라낸 네 마리의 말을 한데 묶어, 많은 남녀가 그를 경탄하는 가운데 큰 도시로 향하는 길을 따라 평원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몰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가 말들이 달리는 동안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말에서 말로 뛰어넘는 것처럼, 아이아스도 날랜 배들의 수많은 갑판 위를 긴 보폭으로 누비며 돌아다녔다.

그가 무시무시한 외침으로 다나오스인들에게 그들의 배와 막사를 지키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헥토르도 갑옷 입은 트로이아인들의 무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마치 황갈색 독수리가 강가에서 먹이를 쪼는 날개 달린 새 떼, 곧 들거위나 두루미나 목이 긴 백조 떼에게 쏜살같이 내리꽂히듯, 헥토르도 이물이 검은 배 한 척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제우스가 뒤에서 아주 억센 손으로 그를 떠밀었고, 군대도 함께 몰아붙였다.

그러자 배들 곁에서 다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너무나 맹렬하게 싸웠기에, 마치 지치지도 닳지도 않은 채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대는 생각했을 것이다.

전투를 벌이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카이아인들은 자신들이 결코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여겼다. 반면 트로이아인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배들을 불태우고 아카이아의 전사들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랐다.

각 군대가 서로 맞서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생각은 그러했다.

하지만 헥토르는 바다를 가르는 아름답고 날랜 배의 고물을 붙잡았다. 그 배는 프로테실라오스를 트로이아로 실어 왔으나, 그를 고국으로 다시 데려다주지는 못했다.

그 배 주변에서 아카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은 근접 전투를 벌이며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리를 두며 화살과 투창을 견디고만 있지 않았다. 대신 한마음으로 서로 마주 서서 날카로운 전투 도끼와 작은 도끼, 그리고 커다란 검과 양날 창으로 싸웠다.

전투를 벌이는 전사들의 손이나 어깨에서, 자루에 검은 끈이 묶인 수많은 훌륭한 칼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검은 흙 위로 피가 흘러넘쳤다.

헥토르는 배의 고물을 붙잡고서는 놓지 않고, 고물 장식을 손에 쥔 채 트로이아인들에게 외쳤다.

"불을 가져오시오! 모두 한목소리로 함성을 지르시오! 이제 제우스께서 모든 것을 갚아 줄 날을 우리에게 주셨소. 신들의 뜻을 거슬러 여기 와서 우리에게 숱한 재앙을 안긴 저 배들을 빼앗을 날 말이오. 그동안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은 원로들의 비겁함 때문이었소. 내가 배들의 고물 곁에서 싸우려 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말리고 군대를 붙잡아 두었소."

"멀리 천둥 치는 제우스께서 그때는 우리의 분별을 흐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몸소 우리를 재촉하고 명령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아르고스인들에게 더욱 거세게 덤벼들었다.

아이아스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빗발치는 무기에 몹시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이 닥칠까 두려워하며, 일곱 자 높이의 노 젓는 걸상 쪽으로 조금 물러나, 날렵한 배의 갑판을 떠났다.

그는 망을 보며 서 있었고, 창을 휘둘러 지치지 않는 불을 가져오려는 트로이아인들을 배로부터 끊임없이 막아냈다.

그리고 그는 무시무시한 외침과 함께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소리쳤다.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의 용사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사나운 힘을 떠올리시오! 우리가 혹시 우리 뒤에 다른 조력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아니면 인간들에게 닥칠 파멸을 막아줄 더 튼튼한 성벽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우리가 전투의 흐름을 바꿀 군대를 거느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 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오! 오히려 우리는 갑옷을 입은 트로이아인들이 있는 평원에 놓여 있으며, 바다 말고는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향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소. 그러므로 구원의 빛은 전투에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의 힘에 달려 있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날카로운 창으로 적들을 맹렬히 계속 몰아붙였다.

그리고 헥토르의 명령을 따라 타오르는 불을 들고 속이 빈 배들로 돌진하려는 트로이아인이 있다면, 아이아스가 그를 기다렸다가 긴 창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배들 앞에서 벌어진 근접전 중에 열두 명의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제16권

파트로클로스의 출전과 죽음

그렇게 그들은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다.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백성의 목자 아킬레우스에게 다가갔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마치 검은 물의 샘이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어두운 물줄기를 쏟아 내리는 듯했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파트로클로스여, 어찌하여 그렇게 눈물을 쏟고 있소? 마치 어린 계집아이가 어머니 곁을 따라 달리며 안아 달라 조르고, 옷자락을 붙잡아 가는 길을 막고, 어머니가 안아 줄 때까지 눈물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는 것 같구려."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도 그 아이처럼 굵은 눈물을 떨구고 있구려. 혹시 미르미돈인들이나 나 자신에게 전할 말이 있는 것이오? 아니면 그대만이 들은 프티아의 소식이라도 있는 것이오?

사람들 말로는 악토르의 아들 메노이티오스가 아직 살아 있고,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도 미르미돈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하오. 만약 그 두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몹시 슬퍼했을 것이오.

아니면 아르고스인들이 자신들의 오만한 행동 때문에 속이 빈 배들 옆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오? 말해 보시오. 마음속에 숨기지 말고 우리 둘 다 알 수 있게 말해주시오."

그러자 기사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는 무겁게 신음하며 대답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강한 이여, 노여워 마시오. 그만큼 큰 슬픔이 아카이아인들을 덮쳤소.

전에 가장 용맹하던 이들이 모두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려 배들 사이에 누워 있소. 티데우스의 아들 강력한 디오메데스는 화살에 맞았고, 창으로 이름난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은 창에 찔렸으며, 에우리필로스도 허벅지에 화살을 맞았소."

"온갖 약초를 아는 의원들이 그들을 돌보며 상처를 고치고 있소. 그런데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아무도 어쩔 수가 없구려.

그대가 품은 그런 분노가 내게는 결코 깃들지 않기를! 용맹이 재앙이 되어 버린 사람이여, 그대가 아르고스인들에게서 수치스러운 파멸을 막아 주지 않는다면, 훗날 태어날 사람인들 그대에게서 무슨 덕을 보겠소?

무정한 사람이여, 그대의 아버지는 기사 펠레우스가 아니고 어머니도 테티스가 아닌 모양이오. 잿빛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이 그대를 낳았나 보오. 그대의 마음이 그토록 모질구려."

"하지만 만약 그대가 어떤 신탁을 피하려 하는 것이고, 그대의 존귀한 어머니가 제우스로부터 무언가를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만이라도 신속히 보내 주시오. 내가 다나오스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다면, 미르미돈인 군대의 나머지 병사들도 나와 함께 가게 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의 갑옷을 어깨에 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트로이아인들이 나를 그대로 여기고 싸움을 멈추어, 지쳐 있는 아카이아인의 용맹한 아들들이 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오. 싸움에서 숨 돌릴 틈은 아주 짧은 법이오."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은 우리가, 싸움에 지친 자들을 배와 막사에서 도시 쪽으로 쉽게 몰아낼 수 있을 것이오.”

그는 이렇게 간청했다. 어리석은 자였다. 그가 간청한 것은 바로 자신의 처참한 죽음과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아, 제우스의 후손 파트로클로스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아는 신탁 때문에 꺼리는 것도 아니고, 존귀한 어머니께서 제우스께 들은 말을 전해 주신 것도 없소. 그러나 누군가 힘이 세다는 이유로 자기와 같은 자의 것을 빼앗고 전리품을 도로 가져가려 하면, 내 마음과 영혼에 지독한 괴로움이 밀려오오.”

“이것이 내게는 지독한 괴로움이오. 마음고생을 할 만큼 했으니 말이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내 몫으로 골라 준 처녀, 성벽 튼튼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내 창으로 얻은 그 처녀를,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 왕이 마치 내가 아무 권리도 없는 떠돌이인 양 내 품에서 도로 빼앗아 갔소.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내버려 둡시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끝없이 분노를 품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소. 다만 함성과 싸움이 바로 내 배들에까지 닥쳐오기 전에는 결코 분노를 풀지 않겠다고 나는 생각했었소."

"자, 그대가 내 빛나는 갑옷을 어깨에 걸치고, 싸움을 좋아하는 미르미돈인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가시오. 정말로 트로이아인들의 검은 구름이 배들을 단단히 에워싸고, 아르고스인들은 바닷가에 기대어 좁은 땅만 남은 채 버티고 있으니 말이오.

트로이아인들의 온 도시가 겁 없이 그들에게 덤벼든 것은, 내 투구의 앞면이 가까이서 번쩍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오.

아가멤논 왕이 내게 너그러웠더라면, 그들은 곧 달아나며 물길을 시체로 가득 채웠을 것이오. 그런데 지금은 진영 둘레에서 싸우고 있소."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의 손에서 창이 날뛰며 다나오스인들에게서 파멸을 막아 주는 것도 아니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그 가증스러운 입으로 외치는 소리도 아직 들리지 않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가 트로이아인들을 부르는
소리가 내 둘레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함성이 온 평원을
덮으며 아카이아인들을 싸움에서 이기고 있소.

그래도 파트로클로스여, 배들에서 파멸을 막으려면 힘껏
그들에게 덤벼드시오. 그들이 타오르는 불로 배들을 태워,
아카이아인들이 바라는 귀향을 빼앗지 못하게 말이오."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내 뜻을 낱낱이 일러 주겠소.
그래야 그대가 모든 다나오스인에게서 내게 큰 존경과
영광을 얻어 주고, 그들이 그 아름다운 처녀를 돌려보내며
훌륭한 선물도 함께 줄 것이오.

배들에서 적을 몰아내거든 돌아오시오. 헤라의 남편인 크게
천둥 치는 신께서 그대에게 영광을 주시더라도, 나 없이
싸움을 좋아하는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러면 내 명예가 깎일 것이오."

"또 싸움에 기뻐 날뛰며 트로이아인들을 죽이더라도,
일리오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지는 마시오. 영원한 신들
가운데 누군가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싸움에 끼어들지
모르오. 멀리 쏘는 아폴론은 그들을 몹시 아끼오.

배들 사이에 구원의 빛을 밝히거든 곧 돌아오고, 다른 이들은
평원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오."

"아버지 제우스여, 아테나여, 아폴론이여, 트로이아인이든 아르고스인이든 누구 하나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둘만 파멸을 벗어나 트로이아의 신성한 성관을 우리 손으로 벗겨 낼 수 있다면 좋겠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이아스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빗발치는 무기에 몹시 시달렸던 것이다.

제우스의 뜻과 던지는 무기를 앞세운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이 그를 꺾고 있었다. 관자놀이 둘레의 빛나는 투구는 얻어맞으며 줄곧 무섭게 울렸다. 잘 만든 뺨가리개 위로 줄곧 얻어맞았던 것이다.

번쩍이는 방패를 줄곧 굳게 들고 있느라 그의 왼쪽 어깨는 지쳐 갔다. 그래도 트로이아인들은 무기를 퍼부어 대면서도 그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했고, 사방의 사지에서는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숨을 돌릴 틈조차 얻지 못했으니, 사방에서 재앙이 겹겹이 그를 덮쳐왔다.

올림포스에 사시는 뮤사들이여, 이제 내게 말해 주소서. 아카이아인들의 배에 처음 불이 어떻게 던져졌는지.

헥토르가 아이아스에게 다가가 큰 칼로 그의 물푸레나무 창을 창날 꽂는 자리 바로 아래에서 내리쳐 깨끗이 잘라 버렸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는 날이 없는 창을 헛되이 휘둘렀고, 청동 창날은 멀리 날아가 땅에 떨어져 쨍그랑 울렸다.

아이아스는 고귀한 마음속으로 그것이 신들의 일임을 알아차리고 몸서리쳤다. 높은 곳에서 천둥 치는 제우스가 자기의 싸움 계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날아오는 무기를 피해 물러났고, 트로이아인들은 날랜 배에 꺼지지 않는 불을 던졌다. 곧 꺼지지 않는 불길이 배를 뒤덮었다. 배 고물이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두 허벅지를 치며 파트로클로스에게 말했다. “일어나시오, 제우스의 후손, 말을 잘 모는 파트로클로스여.”

“보시오, 배들 곁에 집어삼키는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이오. 저들이 배들을 차지하여 우리가 더는 달아날 수도 없게 되어서는 안 되오! 어서 내 갑옷을 입으시오. 내가 군사들을 모으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번쩍이는 청동으로 무장했다.

먼저 다리에 정강이받이를 찼다. 은 발목 덮개가 달린 아름다운 정강이받이였다. 이어서 가슴에는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흉갑을 입었다. 정교하게 만들어 별을 박은 듯 빛나는 흉갑이었다.

어깨에는 은 장식 박힌 청동 칼을 메고, 그 위에 크고 튼튼한 방패를 멨다. 억센 머리에는 말총 장식이 달린 잘 만든 투구를 썼는데, 그 장식이 위에서 무섭게 흔들렸다. 그리고 손에 꼭 맞는 튼튼한 창 두 자루를 들었다.

다만 아이아코스의 비길 데 없는 손자의 창만은 들지 않았다. 무겁고 크고 튼튼한 그 창은 다른 아카이아인은 아무도 휘두르지 못하고 오직 아킬레우스만 다룰 줄 알았다. 케이론이 펠리온 꼭대기에서 베어 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준, 용사들을 죽이는 펠리온의 물푸레나무 창이었다.

그는 아우토메돈에게 어서 말들을 매라고 일렀다. 아우토메돈은 사람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그가 가장 존중하는 자였고, 싸움터에서 부름에 가장 믿음직하게 버텨 주는 자였다.

아우토메돈은 그의 명에 따라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날랜 말 크산토스와 발리오스를 멍에에 맸다. 하르피이아 포다르게가 오케아노스의 물줄기 곁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서풍에게서 잉태한 말들이었다.

그는 곁말로 훌륭한 페다소스를 맸다. 예전에 아킬레우스가 에에티온의 도시를 함락했을 때 데려온 말로, 죽게 마련인 말이면서도 불멸의 말들과 나란히 달렸다.

아킬레우스는 막사들을 돌아다니며 모든 미르미돈인을 무장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사나운 굶주린 늑대들처럼 달려 나왔다.

그 늑대들은 산에서 뿔 달린 큰 사슴을 죽여 뜯어 먹고, 모두 입이 피로 붉다. 그러고는 떼를 지어 어두운 샘으로 가서 가는 혀로 검은 물 위를 핥으며 피 섞인 트림을 하는데, 배는 잔뜩 불렀어도 가슴속 마음은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

그처럼 미르미돈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도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용맹한 시종 둘레로 서둘러 나아갔다.

그들 한가운데 싸움을 즐기는 아킬레우스가 서서 말들과 방패 든 사내들을 독려했다.

제우스가 아끼는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로 이끌고 온 날랜 배는 쉰 척이었고, 배마다 노걸이 곁에 쉰 명의 동료가 앉아 있었다.

그는 믿고 지휘를 맡긴 지도자 다섯을 세웠고, 그 자신은 큰 힘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첫째 부대는 번쩍이는 흉갑을 입은 메네스티오스가 이끌었는데, 그는 하늘이 내린 강 스페르케이오스의 아들이었다.

펠레우스의 딸, 아름다운 폴리도라가 지치지 않는 스페르케이오스와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 인간 여인이 신과 동침한 것이다. 그러나 이름으로는 페리에레스의 아들 보로스의 아들이라 했으니, 보로스가 헤아릴 수 없는 혼인 예물을 주고 그녀와 드러내 놓고 혼인했기 때문이다.

둘째 부대는 싸움을 즐기는 에우도로스가 이끌었는데, 그는 혼인하지 않은 처녀의 아들이었다. 필라스의 딸, 춤 솜씨가 아름다운 폴리멜레가 그를 낳았다.

힘센 아르게이폰테스가 그녀에게 반한 것은, 황금 화살을 쏘는 사냥 소리 요란한 아르테미스의 춤마당에서 노래하는 처녀들 사이에 있는 그녀를 보았을 때였다.

도움을 주는 신 헤르메스는 곧바로 그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몰래 그녀와 동침했다. 그녀는 그에게 훌륭한 아들 에우도로스를 낳아 주었으니, 발이 빠르고 싸움에도 뛰어났다.

마침내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가 그를 세상에 내보내 그가 햇빛을 보게 되자, 악토르의 아들 굳센 에케클레스가 헤아릴 수 없는 혼인 예물을 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에우도로스는 늙은 필라스가 친아들처럼 몹시 아끼며 정성껏 길렀다.

세 번째 부대의 대장은 마이말로스의 아들인 싸움을 즐기는 페이산드로스였다. 그는 펠레우스의 아들의 동료 다음으로 미르미돈인들 사이에서 창술로 가장 뛰어난 자였다.

네 번째 부대는 늙은 기사 포이닉스가 이끌었고, 다섯 번째 부대는 라에르케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 알키메돈이 이끌었다.

마침내 아킬레우스가 각 부대를 지휘관들과 함께 정렬시키고 부대별로 차례차례 나누어 배치한 뒤, 그들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렸다.

“미르미돈인들이여, 내가 노여워하는 동안 그대들이 날랜 배들 곁에서 트로이아인들에게 늘어놓던 위협을 아무도 잊지 마시오. 그대들은 저마다 나를 탓하며 이렇게 말했소.

‘펠레우스의 잔인한 아들이여, 그대 어머니는 그대를 쓸개즙으로 길렀나 보오. 무정한 사람이여, 동료들이 싫다는데도 배들 곁에 붙잡아 두다니. 그대의 마음에 이토록 몹쓸 분노가 들었으니,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대들은 자주 모여 이런 말로 나를 헐뜯었소. 그런데 이제 그대들이 그토록 바라던 큰 싸움이 눈앞에 있소.

그러니 저마다 용맹한 마음으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시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기개를 북돋웠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자 대열은 더욱 촘촘히 맞물렸다.

바람의 위력을 피하려고 돌을 촘촘히 쌓아 높은 집의 벽을 만드는 사람처럼, 그들의 투구와 돋을새김 방패도 그토록 밀접하게 배열되었다. 방패는 방패끼리 맞닿았고, 투구는 투구끼리, 사람들은 사람끼리 서로 밀착했다.

그들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빛나는 투구 꼭대기의 말총 장식이 서로 맞닿을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아주 가깝게 세워서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의 맨 앞에는 두 전사가 전쟁을 위해 대열을 갖추었으니, 바로 파트로클로스와 아우토메돈이었다. 두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미르미돈인의 선봉에서 싸우고자 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막사로 들어갔다. 그는 은빛 발을 가진 테티스가 그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의 배에 놓아준,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궤의 뚜껑을 열었다. 테티스는 그 궤를 튜닉과 바람을 막아줄 망토, 그리고 양털 깔개로 가득 채워 두었다.

그 안에는 모양이 아름다운 잔이 하나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잔으로 타오르는 듯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아버지 제우스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그 잔으로 술을 부어 바치지 않았다.

아킬레우스는 궤에서 그 잔을 꺼내어 먼저 유황으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맑은 시냇물로 씻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손을 씻고 타오르는 듯한 포도주를 따랐다.

그러고 나서 아킬레우스는 안뜰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 술을 붓고 기도했다.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우스 왕이시여, 도도나의 신, 펠라스기아의 신이시여, 멀리 계시며 겨울이 매서운 도도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당신 곁에는 당신의 뜻을 풀이하는 셀로이족이 발도 씻지 않고 맨땅에 누워 지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드렸을 때 당신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높여 아카이아인들의 군대를 크게 치셨습니다. 이번에도 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저는 배들이 모인 곳에 머물러 있지만, 제 동료를 미르미돈인 군사들과 함께 싸우러 보냅니다. 멀리 천둥 치는 제우스시여, 그에게 영광을 함께 보내 주시고 가슴에 용기를 북돋워 주소서. 그래서 헥토르도 알게 하소서. 제 시종이 혼자서도 싸울 줄 아는지, 아니면 제가 아레스의 소용돌이에 뛰어들 때만 그의 손이 무적으로 날뛰는지를."

"그리고 그가 배들에서 싸움과 함성을 몰아내거든, 무구를 다 갖추고 맞붙어 싸우는 동료들과 함께 상처 하나 없이 날랜 배들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지혜로운 제우스는 그의 기도를 들었다. 제우스는 그에게 어떤 부분은 들어주고 어떤 부분은 거절했다.

파트로클로스가 배들로부터 전쟁과 전투를 물리치게 하는 것은 들어주었으나, 그가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은 거절했다.

아킬레우스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술을 바치고 기도를 마친 뒤, 다시 막사로 들어가 잔을 궤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그는 막사 앞에 나와 섰다.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의 무시무시한 싸움을 여전히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개 높은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무장한 이들은 행군하여, 마침내 기세 높게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길가의 말벌들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리석은 아이들은 길가 둥지에 사는 말벌을 늘 건드려 화나게 하여, 여러 사람에게 재앙을 만든다.

만약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무심코 그들을 자극한다면, 말벌들은 모두 저마다의 용기를 내어 떼 지어 날아오르고 각자 새끼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미르미돈인들도 그들과 같은 마음과 기개를 품고 배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으며, 멈출 수 없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큰 소리로 동료들을 불렀다.

"미르미돈인들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동료들이여!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사나운 용맹을 떠올리시오. 그래서 배들 곁 아르고스인 가운데 단연 가장 뛰어난 펠레우스의 아들과, 맞붙어 싸우는 그의 시종들에게 영광을 안겨 줍시다. 그리고 널리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은 자신의 눈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모든 이의 힘과 기개를 북돋웠다. 그들은 무리 지어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이아인들의 함성에 둘레의 배들이 크게 울렸다.

트로이아인들은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과 그의 시종이 무구를 입고 번쩍이는 것을 보자, 저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대열이 동요했다.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이 배들 곁에서 분노를 버리고 화해를 택했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끔찍한 파멸을 어떻게 피할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파트로클로스가 맨 먼저 빛나는 창을 던졌다. 기개 높은 프로테실라오스의 배 고물 곁, 사람들이 가장 빽빽이 몰려 있는 한가운데였다.

창은 넓게 흐르는 악시오스 강가의 아미돈에서 전차를 다루는 파이오니아인들을 이끌고 온 피라이크메스를 맞혔다.

파트로클로스가 그의 오른쪽 어깨를 맞히자, 그는 신음하며 먼지 속에 벌렁 쓰러졌다. 싸움에서 으뜸이던 지도자를 파트로클로스가 죽이자, 그의 동료 파이오니아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자 그는 배들로부터 그들을 몰아내고 타오르는 불길을 껐다.

배는 반쯤 탄 채로 그곳에 남겨졌으나, 트로이아인들은 놀라운 소란 속에 패하여 흩어졌다.

다나오스인들이 속이 빈 배들 사이로 밀고 들어오자, 끊이지 않는 소란이 일어났다.

번개를 모으는 제우스가 거대한 산의 높은 꼭대기에서 짙은 구름을 몰아내어, 모든 산봉우리와 높은 곶, 그리고 골짜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하늘의 끝없는 공기가 열리는 것과 같았다.

다나오스인들이 배를 태우던 불길을 밀어낸 뒤에도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가졌으나,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아레스가 아끼는 아카이아인들에 의해 트로이아인들이 검은 배들로부터 완전히 패하여 쫓겨난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여전히 저항하려 애쓰며 어쩔 수 없이 배들로부터 물러나고 있었다.

싸움이 흩어지자 장수들은 저마다 상대를 하나씩 죽였다.

먼저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이 몸을 돌려 달아나려는 아레일리코스의 허벅지를 날카로운 창으로 맞혀 청동이 꿰뚫고 나가게 했다. 창은 뼈를 부러뜨렸고, 그는 땅에 얼굴을 박으며 쓰러졌다.

싸움을 즐기는 메넬라오스는 방패 옆으로 드러난 토아스의 가슴을 찔러 그의 사지를 풀어 버렸다.

필레우스의 아들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암피클로스를 지켜보다가 적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사람의 근육이 가장 두꺼운 넓적다리 밑동을 찔렀다. 창끝 주위로 힘줄이 찢겨 나갔고, 암피클로스의 눈앞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다음 네스토르의 아들들 중 한 명인 안틸로코스가 날카로운 창으로 아팀니오스를 찔러, 청동 창이 그의 옆구리를 관통하게 했다. 아팀니오스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마리스가 바로 곁에서 형제를 위해 분노하며 창을 들고 안틸로코스에게 달려들어 죽은 자 앞에 섰다.

그러나 신과 같은 트라시메데스가 그보다 더 빨랐다. 트라시메데스는 적이 찌르기도 전에 즉시 그의 어깨를 쳤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창끝이 팔 밑동을 근육에서 떼어 내고 뼈를 완전히 부러뜨렸다. 마리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의 눈앞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 두 형제에게 쓰러져 에레보스로 내려갔다. 그들은 사르페돈의 훌륭한 동료들로, 많은 사람에게 재앙이 된 사나운 키마이라를 길렀던 아라이소다로스의 아들들, 창잡이들이었다.

오일레우스의 아들 아이아스는 무리 속에서 허우적대던 클레오불로스에게 덤벼들어 산 채로 붙잡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루 달린 칼로 그의 목을 내리쳐 그의 힘을 꺾어 버렸다.

칼날이 온통 그의 피로 따뜻해졌고, 검은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그의 눈을 덮었다.

그때 페넬레오스와 리콘이 맞붙었다. 서로 창을 던졌으나 빗나가 둘 다 헛되이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칼을 들고 맞붙은 것이다.

리콘이 페넬레오스의 말총 장식 투구의 뿔을 내리쳤으나, 칼은 자루에서 부러져 버렸다.

그때 페넬레오스가 리콘의 귀 아래 목을 내리쳤다. 칼날이 깊이 박혀 살갗만 겨우 붙어 있었고, 머리가 한쪽으로 꺾이며 사지가 풀렸다.

메리오네스가 빠른 걸음으로 아카마스를 따라잡았다. 아카마스가 전차에 올라타려 할 때, 메리오네스는 그의 오른쪽 어깨를 찔렀다. 아카마스는 전차에서 떨어졌고 그의 눈앞에는 안개가 드리워졌다.

그때 이도메네우스가 무자비한 청동 창으로 에리마스의 입을 찔렀다. 청동 창은 뇌 아래를 관통하여 지나갔고 하얀 뼈를 쪼개 버렸다.

에리마스의 이빨은 흔들려 빠져나갔고 양쪽 눈은 피로 가득 찼다. 그가 입을 벌리자 입과 콧구멍을 통해 피가 솟구쳤고, 죽음의 검은 구름이 그를 에워쌌다.

이렇게 다나오스인의 장수들은 저마다 적을 하나씩 죽였다.

목자의 어리석음 탓에 양 떼가 산속에 흩어지면, 사나운 늑대들이 그것을 보고 무리에서 어린양이나 새끼 염소를 골라 곧바로 덮친다. 그 어린 짐승들은 싸울 줄을 모른다.

그처럼 다나오스인들이 트로이아인들을 덮쳤다.
트로이아인들은 흉한 패주만 생각하고 사나운 용맹을 잊어버렸다.

위대한 아이아스는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에게 창을 던지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전쟁에 능한 헥토르는 황소 가죽 방패로 넓은 어깨를 가린 채, 화살이 윙윙거리며 날아오고 창이 돌진해 오는 것을 늘 주시했다.

참으로 그는 승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머물며 신뢰하는 전우들을 구하려 애썼다.

마치 제우스가 폭풍을 펼칠 때, 올림포스에서 맑은 대기를 뚫고 구름이 하늘로 몰려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배들에서 그들의 함성과 패주가 일었고, 그들은 질서 없이 해자를 다시 건넜다.

헥토르는 무장한 채 날랜 말들에 실려 빠져나갔고, 파 놓은 해자에 억지로 가로막힌 트로이아 군사들을 버려두었다.

해자에서는 전차를 끄는 날랜 말들이 수없이 끌채 끝을 부러뜨리고, 주인들의 전차를 버려두었다.

파트로클로스는 다나오스인들을 사납게 부르며 뒤쫓았다.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을 안기려는 것이었다. 대열이 무너진 트로이아인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아나 모든 길을 메웠다.

높이 구름 아래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통굽 말들은 배들과 막사에서 도시 쪽으로 힘껏 내달렸다.

파트로클로스는 무리가 가장 많이 몰려 달아나는 곳을 보면 함성을 지르며 그리로 달려갔다. 그의 전차 굴대 아래로 사람들이 전차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전차들이 뒤집혔다.

불멸의 날랜 말들, 신들이 펠레우스에게 빛나는 선물로 준 말들이 내달리며 해자를 곧장 뛰어넘었다.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를 치고 싶어 마음이 그에게로 치달았다. 그러나 헥토르는 날랜 말들이 늘 싣고 달아났다.

수확기 어느 날, 제우스가 빗줄기를 가장 격렬하게 쏟아부어 온 검은 땅을 짓누를 때와 같았다. 사람들이 집회에서 억지로 굽은 판결을 내리고 신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정의를 내쫓는 인간들에게 분노하여 노할 때와 같았다.

그때는 모든 강물이 범람하고, 급류가 수많은 산비탈을 깊게 파헤치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산에서 검은 바다로 거침없이 쏟아져 내려와 인간들의 경작지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트로이아의 암말들이 질주하며 내는 굉음도 이와 같이 거대했다.

파트로클로스는 맨 앞 부대들을 끊어 낸 뒤, 그들을 다시 배들 쪽으로 몰아넣었다. 적들이 도시로 발을 들이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파트로클로스는 배들과 강, 그리고 높은 성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달려들어 그들 사이에서 적들을 죽였으며, 죽임을 당한 수많은 전우를 위해 복수를 완수했다.

그곳에서 그는 먼저 빛나는 창을 던져 프로노스를 쳤다. 창은 방패 옆에 드러나 있던 그의 가슴을 꿰뚫었고, 프로노스의 사지는 풀려나며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다음으로 그는 에놉스의 아들 테스토르에게 달려들었다.

테스토르는 공포로 정신이 나간 채 매끄러운 전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고삐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있었다.

하지만 파트로클로스가 그에게 다가와 창으로 그의 오른쪽 턱을 쳐서 이빨까지 꿰뚫어 버렸다.

그러고는 창을 움켜쥐고 그를 전차 가장자리 너머로 끌어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돌출된 바위 위에 앉아 낚싯줄과 번쩍이는 청동 낚싯바늘로 바다에서 신성한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았다.

그와 같이 파트로클로스는 빛나는 창으로 그를 입이 벌어진 채 전차 밖으로 끌어내어 얼굴을 땅에 박히도록 내던졌고, 그가 떨어질 때 생명은 그를 떠나갔다.

그때 에릴라오스가 그에게 달려들자, 파트로클로스는 돌로 그의 머리를 정면으로 내리쳤다. 무거운 투구 안에서 그의 머리는 완전히 쪼개졌다. 그는 머리부터 땅 위로 고꾸라졌고, 목숨을 앗는 죽음이 그를 에워쌌다.

그 후로 에리마스, 암포테로스, 에팔테스, 다마스토르의 아들 틀레폴레모스, 에키오스, 피리스, 이피에우스, 에우이포스, 그리고 아르게아스의 아들 폴리멜로스까지, 파트로클로스는 이들 모두를 차례차례 풍요로운 대지 위로 쓰러뜨렸다.

그때 사르페돈은 허리띠를 매지 않은 튜닉을 입은 동료들이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신과 같은 리키아인들을 꾸짖으며 크게 외쳤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리키아인들이여! 어디로 달아나는 것이오? 이제 날래게 싸우시오. 내가 직접 저자와 맞서, 여기서 기세를 떨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소. 그는 이미 트로이아인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무릎을 풀어 버렸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무장한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맞은편의 파트로클로스도 그를 보고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마치 굽은 발톱과 굽은 부리를 가진 독수리들이 높은 바위 위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싸우듯, 두 사람도 고함을 지르며 서로에게 덤벼들었다.

꾀가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들을 보고 가엾게 여겨,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에게 말했다.

"아, 슬프구려! 내게 가장 소중한 인간 사르페돈이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죽을
운명이라니!"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를 낚아채어 눈물겨운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풍요로운 리키아 땅에 데려다 놓을지, 아니면 지금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의 손에 쓰러지게 내버려 둘지,
이리저리 궁리하느라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는구려."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무서우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운명이 정해진 필멸의 인간을 처참한
죽음에서 다시 구해 내시려 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다른 신들이 모두 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사르페돈을 살려서 집으로 보내신다면, 다른 신도 제
사랑하는 아들을 격렬한 싸움에서 빼내려 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프리아모스의 큰 도시 둘레에서 싸우는
이들 가운데에는 불멸의 신들의 아들이 많으니, 당신께서는
신들 사이에 무서운 원한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가 소중하고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가 격렬한 싸움에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쓰러지게
두십시오. 그러나 그의 혼과 목숨이 떠나거든, 죽음과 달콤한
잠을 보내 그를 넓은 리키아 땅까지 데려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형제들과 친족들이 무덤을 쌓고 비석을
세워 장례를 치러 줄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가 받을
몫입니다.”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는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피 같은 빗방울을 땅에 뿌려 사랑하는 아들을
기렸다. 파트로클로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흙이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서 곧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아들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다가와 가까워지자, 파트로클로스는
사르페돈 왕의 용맹한 시종인 이름난 트라시멜로스를
맞혔다. 그의 아랫배를 맞혀 사지를 풀어 버렸다.

하지만 사르페돈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그의 빛나는
창은 그를 빗나갔다. 대신 사르페돈은 그의 창으로 말
페다소스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쳤다.

말은 숨을 몰아쉬며 비명을 질렀고, 신음하며 먼지 속으로
쓰러졌으며 그 영혼은 몸을 떠났다.

그때 다른 두 마리의 말은 이리저리 날뛰었고 멍에는 삐걱거렸으며, 곁말이 먼지 속에 쓰러지자 그들 위로 고삐가 엉켰다.

그러나 창으로 이름난 아우토메돈이 이에 대한 방도를 찾아냈다.

그는 억센 허벅지 곁에서 긴 칼을 뽑아 들고 뛰어나가, 머뭇거림 없이 곁말의 끈을 끊어 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말이 제자리를 잡고 고삐를 당겼고, 두 용사는 다시 목숨을 삼키는 싸움에서 맞붙었다.

사르페돈이 다시 빛나는 창을 던졌으나 빗나갔다. 창끝은 파트로클로스의 왼쪽 어깨 위로 날아갔을 뿐 그를 맞히지 못했다.

이번에는 파트로클로스가 청동 창을 들고 덤벼들었다. 그의 손을 떠난 창은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고동치는 심장을 감싼 횡격막을 맞혔다.

그는 참나무나 백양나무, 아니면 산속에서 배 만드는 이들이 배의 재목으로 쓰려고 날카로운 도끼로 베어 넘기는 키 큰 소나무가 쓰러지듯 쓰러졌다. 그렇게 그는 말들과 전차 앞에 길게 뻗어, 크게 신음하며 피에 젖은 먼지를 움켜쥐었다.

마치 사자가 소 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느릿느릿 걷는 소들 가운데 기세 높은 황갈색 황소를 죽이면, 황소가 사자의 턱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 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리키아 방패병들의 지도자도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죽어 가며 몸부림쳤다.

그는 사랑하는 동료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하는 글라우코스여, 용사들 가운데 용사여, 이제야말로 그대는 창잡이로, 대담한 용사로 나서야 하오. 그대가 정말 날랜 용사라면, 이제 처참한 싸움을 마음으로 반기시오."

"먼저 사방을 다니며 리키아인의 지도자들에게 사르페돈을 위해 싸우라고 독려하시오. 그런 다음 그대도 몸소 청동을 들고 나를 지켜 싸우시오.

내가 배들이 모인 곳에 쓰러졌으니, 아카이아인들이 내 무구를 벗겨 간다면, 나는 앞으로 평생토록 그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오.

그러니 굳세게 버티며 온 군대를 독려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음의 끝이 그의 눈과 콧구멍을 똑같이 덮쳤다.

파트로클로스는 사르페돈의 가슴 위에 발을 얹고 살 속에서 창을 뽑아냈고, 횡격막도 창을 따라 나왔다. 그는 창끝을 뽑아냄과 동시에 사르페돈의 영혼도 함께 뽑아냈다.

미르미돈인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주인들의 전차를 떠나 이제는 도망치고 싶어 하는 말들을 그곳에 붙들어 두었다.

글라우코스는 사르페돈의 목소리를 듣고 지독한 슬픔에 사로잡혔고, 그를 도울 수 없어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는 손으로 자기 팔을 움켜쥐고 눌렀다. 상처가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가 높은 성벽으로 돌진할 때, 동료들에게서 파멸을 막던 테우크로스가 화살로 입힌 상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멀리 쏘는 아폴론에게 기도하며 말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왕이시여. 풍요로운 리키아 땅에 계시든 혹은 트로이아에 계시든, 지금 저에게 닥친 슬픔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어디서든 들어주실 권능이 있으시니 말입니다. 저는 이 참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쪽저쪽 팔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꿰뚫려 피가 멎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져서 창을 꽉 잡을 수도 없고, 적들과 싸우러 나갈 수도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 죽었습니다. 제우스께서는 자기 아들조차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저의 이 참혹한 상처를 고쳐 주시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힘을 주시어, 제 동료인 리키아인들을 불러 모아 싸우라고 재촉하고, 저 또한 죽어서 쓰러진 그의 몸을 지키며 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아폴론은 즉시 그의 통증을 멎게 하고, 참혹한 상처에서 흐르는 검은 피를 멎게 했으며, 그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글라우코스는 위대한 신께서 자신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셨음을 마음속으로 알고 기뻐했다.

그는 먼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리키아인 지도자들에게 사르페돈을 위해 싸우라고 재촉했다.

그 후에는 성큼성큼 걸어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들어가 판토오스의 아들 폴리다마스와 훌륭한 아게노르에게 갔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를 뒤따라갔다.

그는 헥토르에게 다가가 날개 돋친 말로 이렇게 말했다.

“헥토르여, 그대는 참으로 동맹들을 완전히 잊었구려. 그대 때문에 친구들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채 목숨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그대는 그들을 돕는 데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구려.

리키아 방패병들의 지도자이자,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리키아를 지켰던 사르페돈이 쓰러져 누웠소. 청동의 아레스가 파트로클로스의 창 아래 그를 쓰러뜨렸소.”

“자, 친구들이여,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시오. 미르미돈인들이 죽어간 모든 다나오스인들을 위해 분노하여, 저 날랜 배들에서 우리의 창으로 죽인 이들을 위해 그의 갑옷을 벗기고 시신에 수치를 안기지 않도록 말이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트로이아인들은 견딜 수 없고 압도적인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사르페돈은 비록 멀리서 온 이방인이었으나 언제나 그들 도시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거느렸으며, 그들 사이에서도 전투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들은 사르페돈을 위해 분노하며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곧장 열렬히 달려 나갔고, 헥토르가 그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은 억센 마음을 지닌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에 의해 북돋워졌다.

그는 먼저 스스로 매우 열렬했던 두 아이아스에게 말했다.

“두 아이아스여, 예전에 전사들 사이에서 보여주었던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용맹하게 적을 물리치려 하시오.
아카이아인의 성벽 안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사르페돈이 쓰러져 누웠소. 그러니 우리가 그를 붙잡아 그의 몸에 수치를 안기고, 어깨에서 갑옷을 벗겨냅시다. 그리고 그의 몸을 지키려는 수많은 전우를 무자비한 청동으로 죽입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스스로 적을 막아내고자 열렬히 나섰다.

트로이아인과 리키아인, 그리고 미르미돈인과 아카이아인이 양측의 대열을 모두 강화했을 때, 그들은 죽어서 쓰러진 자의 몸을 위해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전투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갑옷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제우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위에서 전쟁의 해로운 노고가 벌어지도록, 이 거대한 싸움 위로 재앙의 밤을 드리웠다.

먼저 트로이아인들이 눈이 반짝이는 아카이아인들을 밀어냈다. 미르미돈인 가운데 결코 못하지 않은 사람, 기개 높은 아가클레스의 아들 훌륭한 에페이게우스가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는 옛날 사람 많은 부데이온의 왕이었다.

그는 훌륭한 친족 한 사람을 죽인 뒤, 펠레우스와 은빛 발의 테티스에게 와서 탄원했다. 그들은 그를 사람들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와 함께, 좋은 말의 고장 일리오스로 보내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했던 것이다.

그가 시신을 붙잡으려 할 때, 빛나는 헥토르가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무거운 투구 안에서 그의 머리가 온통 쪼개졌고, 그는 시신 위로 거꾸러졌으며, 목숨을 앗는 죽음이 그를 감쌌다.

그러자 파트로클로스는 죽은 동료 때문에 슬픔에 사로잡혀, 갈까마귀와 찌르레기 떼를 쫓는 날랜 매처럼 맨 앞 전사들을 뚫고 돌진했다.

말을 잘 모는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는 동료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 그렇게 곧장 리키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이타이메네스의 사랑하는 아들 스테넬라오스의 목을 돌로 내리쳐 힘줄을 끊어 놓았다. 그러자 최전방의 전사들과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뒤로 물러났다.

사람이 힘을 겨루는 경기에서, 혹은 살기등등한 적들이
몰려드는 전쟁터에서 힘을 시험하며 던지는 긴 투창이
날아가는 거리만큼이나, 트로이아인들은 멀리 물러났고
아카이아인들이 그들을 몰아냈다.

그때 리키아 방패병들의 지도자 글라우코스가 맨 먼저 몸을
돌려, 칼콘의 사랑하는 아들인 기개 높은 바티클레스를
죽였다. 그는 헬라스에 살았고, 재물과 살림으로 미르미돈인
가운데 으뜸이었다.

바티클레스가 뒤쫓아 막 따라잡으려 할 때, 글라우코스가
갑자기 돌아서서 창으로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훌륭한 사람이 쓰러지자 아카이아인들은
몹시 슬퍼했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와 그의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아카이아인들은 자신들의 용맹을 잊지 않고 적을 향해 곧장
힘을 쏟아부었다.

그때 메리오네스가 무장을 다 갖춘 트로이아인 용사,
오네토르의 용맹한 아들이자 이다의 제우스의 사제로서
백성들에게 신처럼 존경받던 라오고노스를 죽였다.

메리오네스는 그의 턱 아래 귀 밑을 찔렀고, 즉시 그의 영혼이
사지에서 떠나갔으며 가증스러운 어둠이 그를 사로잡았다.

아이네이아스는 메리오네스가 방패로 몸을 가린 채 전진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찌르기를 바라며 청동 창을 던졌다.

하지만 메리오네스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동 창을 피했다. 메리오네스가 몸을 앞으로 숙였기에 긴 창은 그의 뒤편 땅에 박혔고, 창의 뒷부분이 떨렸다. 그러나 결국 강력한 아레스가 그 창의 맹렬함을 멈추게 했다.

[아이네이아스의 창은 그의 강력한 손에서 허망하게 날아갔기에, 떨리며 땅속으로 박혔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는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메리오네스여, 그대가 아무리 날랜 무용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대를 맞혔더라면 내 창이 그대의 춤을 영원히 멈추게 했을 것이오.”

그러자 창으로 이름난 메리오네스가 대답했다.

“아이네이아스여, 그대가 아무리 용맹해도, 그대에게 맞서 오는 사람마다 그 힘을 다 꺾기는 어려울 것이오. 그대 또한 죽게 마련인 몸이오. 내가 날카로운 창을 던져 그대를 제대로 맞힌다면, 그대가 아무리 강하고 제 손을 믿는다 해도, 곧 내게는 영광을, 이름난 말을 가진 하데스에게는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이 그를 꾸짖었다.

“메리오네스여, 용맹한 그대가 어찌 그런 말을 하오?”

“친구여, 트로이아인들이 욕설 때문에 시신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오. 그 전에 땅이 많은 사람을 덮게 될 것이오.

싸움의 결판은 손에 달려 있고, 말은 회의에서나 쓰는 것이오. 그러니 말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싸워야 하오.”

그렇게 말하며 그가 앞장섰고, 신과 같은 사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칼과 양날 창으로 찌르자, 넓은 대지로부터 챙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산속의 빈터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내는 소란이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과 같았다. 청동과 가죽, 그리고 잘 만들어진 방패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르페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아온 무기와 피와 먼지에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훌륭한 사르페돈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봄철에 우유가 그릇에 넘쳐흐를 때, 농가에서 파리들이 우유가 가득 담긴 통 주위로 몰려드는 것처럼, 시체 주위로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제우스는 그 격렬한 싸움으로부터 빛나는 눈을 돌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고민했다.

신과 같은 사르페돈이 있는 저 격렬한 싸움터에서,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 역시 칼로 죽이고 그의 어깨에서 갑옷을 벗겨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처절한 싸움의 고생을 더 안길 것인지 고민했다.

궁리 끝에 그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용맹한 시종이, 청동 갑옷을 입은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을 다시 도시 쪽으로 몰아붙이고 많은 목숨을 빼앗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다.

그는 먼저 헥토르의 마음에 비겁한 두려움을 불어넣었다. 헥토르는 전차에 뛰어올라 달아나며, 다른 트로이아인들에게도 달아나라고 외쳤다. 제우스의 신성한 저울이 기운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자 용맹한 리키아인들 역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모두 패주했다. 그들의 왕이 죽은 자들의 무리 속에 쓰러져 심장이 꿰뚫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격렬한 전투의 줄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 이미 그의 위로 많은 이가 쓰러져 있었다.

아카이아인들은 사르페돈의 어깨에서 빛나는 청동 갑옷을 벗겨냈고,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은 이것을 동료들에게 주어 속이 빈 배들로 가져가게 했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아폴론에게 말했다.

"자, 일어나라, 사랑하는 포이보스야. 날아오는 무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르페돈을 옮겨 놓은 뒤에, 그의 몸에 묻은 검은 피를 씻어내어라. 그러고 나서 그를 멀리 데려가 강물에 씻기고, 암브로시아를 발라 주며, 불멸의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를 날랜 운반자들에게 맡겨라. 쌍둥이 형제인 잠의 신과 죽음의 신에게 그를 맡겨, 그들이 그를 넓고 풍요로운 리키아 땅에 신속히 안치하게 하라."

"그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무덤과 기둥을 세워 그를 장사 지낼 것이다. 그것이 죽은 자가 받을 몫이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아폴론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이다 언덕에서 내려와 두려운 전투의 소음
속으로 내려갔다.

아폴론은 곧 훌륭한 사르페돈을 날아오는 무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 옮겼다. 그리고 멀리 데려가 강물에 씻기고
암브로시아를 바르고 불멸의 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날랜 운반자인 쌍둥이 형제, 잠과 죽음에게 맡겼고,
그들이 그를 넓고 풍요로운 리키아 땅에 재빨리 데려다
놓았다.

한편 파트로클로스는 말들과 아우토메돈을 부르며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을 뒤쫓았다. 어리석게도 그는
마음이 크게 눈멀어 있었다!

만약 그가 펠레우스의 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검은
죽음이라는 사악한 운명을 진실로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의 의도는 언제나 인간의 의도보다 강하다.
제우스는 용맹한 자조차 패주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승리를
아주 쉽게 빼앗으며, 다시 사람들을 부추겨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파트로클로스의 가슴 속에 광기를
불어넣은 것도 바로 그였다.

파트로클로스여, 신들이 그대를 죽음으로 불렀을 때, 그대는 처음에 누구를 죽였으며 마지막에는 누구를 죽였는가?

그는 먼저 아드라스토스를 죽였고, 이어서 아우토노오스, 에케클로스, 메가스의 아들 페리모스, 에피스토르, 멜라니포스를 죽였다.

그 후에는 엘라소스, 물리오스, 필라르테스를 죽였으니, 이들을 죽이자 다른 이들은 저마다 도망할 생각만 했다.

그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잘 지은 성벽 위에 서서, 파트로클로스에게 재앙을 꾸미고 트로이아인들을 돕지 않았더라면,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파트로클로스의 손으로 성문 높은 트로이아를 함락했을 것이다. 그는 창을 들고 사방에서 날뛰었던 것이다.

파트로클로스는 세 번이나 높은 성벽 모퉁이에 발을 디뎠고, 아폴론은 세 번이나 불멸의 손으로 빛나는 방패를 밀쳐 그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가 신처럼 네 번째로 덤벼들자, 아폴론이 무서운 소리로 날개 돋친 말을 했다.

“물러서라, 제우스의 후손 파트로클로스야.”

“내 말을 들어라. 거만한 트로이아인들의 도시가 네 창에 무너질 운명은 아니다. 너보다 훨씬 뛰어난 아킬레우스의 창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파트로클로스는 멀리 쏘는 아폴론의 분노를 피하며 한참 동안 뒤로 물러났다.

한편 헥토르는 스카이아이 성문에서 통굽 말들을 멈춰 세우고 있었다. 그는 다시 혼란 속으로 달려 들어가 싸워야 할지, 아니면 군대를 불러 성벽 안으로 모아야 할지 마음이 갈팡질팡했기 때문이었다.

헥토르가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젊고 힘센 사내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아시오스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외숙부이자 헤카베의 친오라비로, 프리기아의 상가리오스 강가에 사는 디마스의 아들이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그 모습으로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야, 어찌하여 싸움을 멈추느냐? 너답지 않구나. 내가 너보다 약한 만큼 너보다 강하다면, 네가 싸움에서 물러선 것을 곧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 줄 텐데.”

"자, 억센 발굽의 말들을 파트로클로스에게 몰아라. 혹시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 아폴론께서 너에게 영광을 주신다면 말이다."

신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사람들의 싸움 속으로 돌아갔다.

빛나는 헥토르는 지혜로운 케브리오네스에게 말들을 채찍질해 싸움터로 몰라고 일렀다.

한편 아폴론은 무리 속으로 들어가 아르고스인들에게 끔찍한 공포를 보내고, 트로이아인들과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었다.

하지만 헥토르는 다른 다나오스인들을 내버려 두었고, 그들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강한 발굽을 가진 말들을 몰아 파트로클로스에게 돌진했다.

파트로클로스는 헥토르를 마주하여 왼손에는 창을 든 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에 꽉 쥐어지는, 빛나고 들쭉날쭉한 돌을 움켜쥐었다.

그는 단단히 버티고 서서 돌을 던졌다. 그는 적을 오래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헛되이 던지지도 않았다.

돌은 고삐를 쥐고 있던 헥토르의 마부, 빛나는 프리아모스의 서자 케브리오네스의 이마를 날카롭게 맞혔다.

돌은 두 눈썹을 한데 짓이겼고, 뼈도 버티지 못해, 두 눈알이 그 자리에서 그의 발 앞 먼지 속에 떨어졌다.

그는 자맥질하는 사람처럼 잘 만든 전차에서 떨어졌고, 그의 목숨은 뼈를 떠났다.

그때 기사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는 그를 조롱하며 말했다.

“하하, 보시오, 참 날랜 사람이구려! 저리도 가볍게 자맥질을 하다니! 물고기 많은 바다에 있었다면, 아무리 사나운 바다라도 배에서 뛰어들어 굴을 따서 여러 사람을 배불렸을 것이오. 지금 평원에서 전차에서 저리 가볍게 자맥질하는 걸 보니 말이오. 트로이아인 가운데에도 자맥질꾼이 있구려.”

그렇게 말하며,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는 용사 케브리오네스에게 사납게 덤벼들었다. 마치 외양간을 짓밟다가 가슴에 창을 맞고도, 제 용맹 때문에 죽음으로 치닫는 사자 같았다.

맞은편에서 헥토르도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치 산봉우리에서 죽은 암사슴을 두고 싸우는 두 마리 사자처럼 케브리오네스를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다. 둘 다 굶주려 있었고, 둘 다 기세가 드높았다.

케브리오네스를 차지하기 위해, 함성을 잘 지르는 두 용사,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와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무자비한 청동으로 서로의 살을 베어 넘기려 안달했다.

헥토르는 시신의 머리를 붙잡자 손을 놓지 않았고, 그와 맞선 파트로클로스는 발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트로이아인과 다나오스인들이 격렬한 전투에 가담했다.

마치 동풍과 남풍이 산골짜기에 있는 깊은 숲을 흔들며 서로 맞서는 것과 같았다. 너도밤나무와 물푸레나무, 그리고 껍질이 매끄러운 층층나무로 이루어진 그 숲에서, 나무들이 서로의 긴 가지를 부딪치며 경이로운 소음을 내고 부러진 가지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들도 그와 같이 서로에게 달려들어 아수라장을 만들었으며, 어느 쪽도 패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케브리오네스의 주변에는 수많은 날카로운 창들이 꽂혔고, 활시위에서 튀어 나간 수많은 날개 달린 화살들이 날아들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싸우는 동안 수많은 커다란 돌들이 방패를 강타했다.

그러나 그는 먼지 소용돌이 속에 그 큰 몸을 길게 뻗고 누워, 말 모는 솜씨도 잊어버렸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걸려 있는 동안에는 양쪽이 던진 무기가 과녁에 꽂히고 사람들이 쓰러져 갔다. 그러나 해가 기울어 소의 멍에를 풀 무렵이 되자, 아카이아인들이 운명을 넘어 우세해졌다.

그들은 용사 케브리오네스를 트로이아인들의 함성 속에서 날아오는 무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내어 어깨에서 무구를 벗겼다. 그리고 파트로클로스는 적을 해치려고 트로이아인들에게 덤벼들었다.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그는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세 번 덤벼들었고, 그때마다 아홉 명을 죽였다.

하지만 그가 신처럼 네 번째로 달려들었을 때, 파트로클로스여, 그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포이보스가 격렬한 전투 속에서 무서운 신이 그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파트로클로스는 혼란 속을 지나가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짙은 안개에 휩싸인 채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아폴론은 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그의 등과 넓은 어깨를 내리쳤고, 파트로클로스의 눈은 어지럽게 돌았다.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의 머리에서 투구를 쳐서 떨어뜨렸다. 볏 달린 투구는 말들의 발아래로 구르며 쨍그랑 울렸고, 말총 장식은 피와 먼지로 더럽혀졌다.

그때까지 신들은 그 말총 장식 투구가 먼지로 더럽혀지도록 둔 적이 없었다. 그 투구는 언제나 신과 같은 사람, 아킬레우스의 머리와 아름다운 이마를 지켜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우스가 그 투구를 헥토르에게 주어 머리에 쓰게 했으니, 헥토르에게도 파멸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파트로클로스의 손에 들린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이 산산이 부러졌다. 무겁고 크고 튼튼한, 청동 날을 단 창이었다.

어깨에서는 술 달린 방패가 멜빵째 땅에 떨어졌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그의 흉갑을 풀어 버렸다.

그러자 그는 넋이 나갔고, 빛나는 사지가 풀려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바로 뒤에서 다르다니아인 하나가 날카로운 창을 던져 그의 두 어깨 사이 등을 맞혔다. 판토오스의 아들 에우포르보스였다. 그는 창 던지기와 말 다루기와 달리기에서 또래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는 전차를 몰고 처음 싸움터에 나와 싸움을 배우던 때에 벌써 스무 명을 전차에서 떨어뜨렸던 자였다.

기사 파트로클로스여, 그대에게 맨 먼저 창을 던진 것이 그였으나, 그대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살에서 물푸레나무 창을 뽑아 들고 다시 달려가 무리 속에 섞였다. 맨몸인 파트로클로스에게도 맞서 버티지 못한 것이다.

파트로클로스는 신의 일격과 창에 꺾여, 죽음을 피해 동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헥토르는 날카로운 청동에 맞아 물러나는 기개 높은 파트로클로스를 보았다.

그는 대열을 뚫고 파트로클로스에게 다가가 창으로 그의 아랫배를 찔렀고, 청동 창날이 몸을 완전히 관통하게 했다.

파트로클로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아카이아인 군대는 슬픔에 잠겼다.

사자가 산꼭대기에서 적은 양의 샘물을 두고, 둘 다 마시고 싶어 하는 그 샘을 차지하려 용맹하게 싸우는 지칠 줄 모르는 멧돼지를 제압할 때와 같았다. 멧돼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지만, 사자는 힘으로 그를 이긴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도 많은 이들을 죽인 뒤, 용맹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을 가까이서 창으로 찔러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는 쓰러진 그를 향해 뽐내며 날개 돋친 말을 내뱉었다.

"파트로클로스야, 너는 우리 도시를 무너뜨리고, 트로이아 여인들에게서 자유의 날을 빼앗아 배에 싣고 네 그리운 고향 땅으로 끌고 가리라 생각했겠지. 어리석은 놈!

그 여인들 앞에는 헥토르의 날랜 말들이 싸움터로 내달리고 있고, 나 자신이 싸움을 좋아하는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창으로 으뜸이며 그들에게서 파멸의 날을 막아 주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곳에서 독수리들에게 뜯어 먹힐 것이다."

"아, 가련한 놈, 그 용맹한 아킬레우스도 너를 구해 주지 못했구나. 그는 뒤에 남으면서, 떠나는 너에게 단단히 일렀겠지. '말을 잘 모는 파트로클로스여,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가슴께 튜닉을 피로 붉게 찢어 놓기 전에는 속 빈 배들로 돌아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해서, 분별없는 네 마음을 꾀었겠지."

그러자 기사 파트로클로스여, 그대는 기운이 다한 채 그에게 대답했다.

"헥토르여, 이번만은 마음껏 뽐내시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와 아폴론께서 그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말이오. 그분들이 나를 아주 쉽게 꺾었고, 몸소 내 어깨에서 갑옷을 벗기셨소.

그대 같은 자가 스무 명이 내게 맞섰더라도, 모두 내 창에 쓰러져 여기서 죽었을 것이오. 나를 죽인 것은 몹쓸 운명과 레토의 아들이고, 사람 가운데서는 에우포르보스요. 그대는 나를 죽인 셋째일 뿐이오."

"그리고 그대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할 터이니,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오. 그대는 결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죽음이 이미 그대 곁에 바짝 다가와 있으며, 강력한 운명이 그대를 아이아코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게 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죽음의 끝이 그를 감쌌다. 그의 혼은 팔다리를 떠나 하데스로 날아가며, 사내다움과 젊음을 두고 가는 제 운명을 슬퍼했다.

이미 죽은 그에게 빛나는 헥토르가 말했다.

"파트로클로스야, 어찌하여 나에게 끔찍한 파멸을 예언하느냐? 머리칼 고운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먼저 내 창에 맞아 목숨을 잃을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며 헥토르는 시신을 발로 밟고 상처에서 청동 창을 뽑아낸 뒤, 시신을 밀어 창에서 떼어 냈다.

그러고는 곧바로 창을 들고,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신과 같은 시종 아우토메돈을 뒤쫓았다. 그를 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우토메돈의 날랜 말들이 그를 싣고 달아났다.
신들이 펠레우스에게 빛나는 선물로 준 불멸의 말들이었다.

제17권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둘러싼 싸움

아레스가 아끼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는 파트로클로스가 싸움터에서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은 것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았다.

그는 불꽃처럼 번쩍이는 청동을 두르고 맨 앞 전사들 사이로 나아가 시신을 감싸고 섰다. 마치 처음 새끼를 낳아 어미가 된 것을 아직 모르는 암소가 송아지 곁에서 애처롭게 울며 서 있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도 파트로클로스를 감싸고 섰다. 그는 시신을 가로채러 오는 자는 누구든 죽이려고, 창과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앞에 들고 있었다.

그때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판토오스의 아들도 비길 데 없는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신 바로 곁에 서서 아레스가 아끼는 메넬라오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군대의 지도자 메넬라오스여, 물러서서 시신을 내버려 두고 피 묻은 전리품도 놔두시오. 이 격렬한 싸움에서 트로이아인이나 이름난 동맹군 가운데 나보다 먼저 파트로클로스를 창으로 맞힌 자는 없소.

그러니 내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명성을 얻게 해 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창을 던져 맞혀, 그대의 꿀처럼 달콤한 목숨을 빼앗을 것이오."

그러자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가 몹시 분개하여 그에게 말했다.

"아, 아버지 제우스시여! 지나친 큰소리는 좋을 것이 없소. 표범도, 사자도, 가슴속에 엄청난 기운이 넘쳐 날뛰는 사나운 멧돼지도, 물푸레나무 창을 잘 쓰는 판토오스의 아들들만큼 기세가 높지는 않구려."

"말을 길들이는 강력한 히페레노르도 나를 얕보고 내게 맞서며 다나오스인 가운데 내가 가장 못난 전사라 여겼지만, 그 젊음이 아무 소용이 없었소. 그는 제 발로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와 존귀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오."

"그대가 내게 맞선다면, 나는 그대의 힘도 그렇게 꺾어 놓을 것이오. 그러니 내 말대로 무리 속으로 물러가고, 무슨 변을 당하기 전에 내게 맞서지 마시오. 일이 벌어진 뒤에야 어리석은 자도 깨닫는 법이오."

그가 이렇게 말했으나 상대를 설득하지 못했다.
에우포르보스가 대답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이제 그대는 그대가 죽이고 뽐내는 내 형제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오. 그대는 그의 아내를 새로 지은 신방에서 과부로 만들었고, 그의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을 안겼소.

내가 그대의 머리와 무구를 가져가 판토오스와 존귀한 프론티스의 손에 건네준다면, 비참한 그분들의 슬픔을 달래 드릴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이기든 달아나든, 이 싸움은 이제 더 미뤄지지 않고 곧 겨루어 결판이 날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메넬라오스의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찔렀다. 그러나 청동은 뚫지 못했고, 창끝이 튼튼한 방패에 막혀 휘어 버렸다.

이번에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아버지 제우스께 기도하며 창을 들고 덤벼들었다.

에우포르보스가 물러서는 순간, 메넬라오스는 묵직한 손을 믿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그의 목 밑동을 찔렀다. 창끝은 연한 목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쿵 하고 쓰러졌고, 무구가 그의 몸 위에서 요란하게 울렸다.

은총의 여신들의 머리카락과 같고 금과 은으로 땋아 올린 그의 머리카락이 피에 흠뻑 젖었다.

마치 사람이 물이 풍부하게 솟아오르는 외딴곳에서, 잘 자라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의 튼튼한 묘목을 기르는 것과 같았다. 모든 바람이 그 나무를 떨게 하고 흰 꽃이 피어나게 하지만,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와 나무를 구덩이에서 뽑아내어 땅 위에 쓰러뜨리는 것과 같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판토오스의 아들이자 훌륭한 물푸레나무 창을 가진 에우포르보스를 이와 같이 죽였고, 그의 무구를 벗기기 시작했다.

마치 산에서 자란 사자가 자신의 힘을 믿고, 풀을 뜯는 무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암소를 낚아채는 것과 같았다. 사자는 먼저 강한 턱으로 암소의 목을 잡아 부러뜨린 다음, 분노에 휩싸여 피와 내장을 모두 먹어 치운다.

사자 주변에서 사냥개들과 목동들이 멀리서 크게 소리치지만, 창백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감히 그에게 맞서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트로이아의 그 어떤 자도 가슴 속의 용기가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에게 맞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판토오스의 아들의 빛나는 무구를 손쉽게 가져갔을 것이다. 그러나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것을 시샘했다.

아폴론은 키코네스족의 지도자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헥토르를 부추겨 그에게 맞서게 했다.

아폴론은 날개 돋친 말로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그대는 지금 얻을 수 없는 것을 헛되이 쫓고 있소. 지혜로운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말들 말이오. 그 말들은 불멸의 어머니가 낳은 아킬레우스가 아니면, 필멸의 인간이 길들이기도 몰기도 어렵소.

그사이 싸움을 즐기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파트로클로스를 감싸고 서서, 트로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판토오스의 아들 에우포르보스를 죽여 그의 사나운 용맹을 꺾어 버렸소."

신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사람들의 싸움 속으로 돌아갔다.

헥토르의 마음은 지독한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그가 대열을 따라 둘러보니, 곧바로 한 사람은 빛나는 무구를 벗기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땅에 쓰러져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헥토르는 불꽃처럼 번쩍이는 청동을 두르고, 아무도 끌 수 없는 헤파이스토스의 불길 같은 날카로운 함성을 지르며 맨 앞 전사들 사이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의 날카로운 함성은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도 들렸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자신의 위대한 마음에게 말했다.

"아, 어쩌나! 이 훌륭한 무구와, 나를 위해 원수를 갚으려다 여기 쓰러진 파트로클로스를 버려두고 떠난다면, 이를 보는 다나오스인마다 나를 탓할까 두렵다. 그렇다고 부끄러워서 나 홀로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과 싸운다면, 여럿이 하나를 에워쌀까 두렵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트로이아인을 모두 이리로 이끌고 오니 말이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런 말을 주고받는가? 사람이 신의 뜻을 거슬러 신이 아끼는 자와 싸우려 들면, 곧바로 큰 재앙이 그를 덮치는 법이다.

그러니 다나오스인 누구도, 내가 헥토르 앞에서 물러서는 것을 보고 나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신의 도움을 받아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함성을 잘 지르는 아이아스를 어디서든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둘이 신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다시 돌아가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시신만이라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불행 가운데 그나마 그것이 가장 낫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 트로이아인들의 대열이 헥토르를 앞세워 몰려왔다.

메넬라오스는 시신을 두고 뒤로 물러났다. 마치 개들과 사람들이 창과 함성으로 외양간에서 쫓아내는 갈기 무성한 사자처럼, 그는 줄곧 뒤를 돌아보며 물러났다. 사자는 가슴속 용맹한 마음이 얼어붙어 몹시 내키지 않은 채 농가를 떠난다. 그처럼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도 파트로클로스 곁을 떠났다.

그러나 동료들의 무리에 이르자 그는 돌아서서 멈추고,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메넬라오스는 전투 전체의 왼쪽에서 동료들을 격려하며
싸우라고 재촉하고 있는 아이아스를 아주 빠르게 발견했다.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메넬라오스는 아이아스를 향해 달려가 곧바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아스여, 이리 오시오, 친구여.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지키기 위해 서두릅시다. 적어도 그의 벌거벗은
시신만이라도 아킬레우스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면 좋겠소.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의 갑옷을 가져갔지만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다. 아이아스는 선두에서 싸우는 전사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고,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도
그와 함께 나아갔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로부터 영광스러운 갑옷을 벗겨낸 뒤, 날카로운 청동으로 그의 어깨에서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끌고 가 트로이아의 개들에게 던져주려고 그를 멀리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아이아스가 도시 성벽과 같은 방패를 들고 다가왔다.

그러자 헥토르는 전우들이 모여 있는 무리 속으로 뒤로 물러나더니 전차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훌륭한 갑옷을 트로이아인들이 도시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아이아스는 넓은 방패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을 감싸고 버티고 섰다. 마치 사냥꾼들이 숲에서 새끼들을 데리고 가는 사자와 마주쳤을 때, 사자가 새끼들을 감싸고 서서 힘을 뽐내며 눈썹을 잔뜩 내리깔아 두 눈을 덮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이아스는 용사 파트로클로스를 감싸고 섰고, 그 곁에는 아레스가 아끼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가슴속에 큰 슬픔을 품은 채 서 있었다.

리키아인의 지도자 히폴로코스의 아들 글라우코스는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헥토르를 모진 말로 꾸짖었다.

“헥토르여, 그대는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우나 전투에서는 몹시 부족하구려. 도망치기나 하는 그대에게 그 훌륭한 명성은 참으로 헛된 것이오.”

“이제 그대 스스로 일리오스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그대의 도시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오. 적어도 리키아인들 중에는 도시를 위해 다나오스인들과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오. 쉬지 않고 적들과 싸워봤자 아무런 보답도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오.”

“무정한 자여, 그대가 어찌 싸움의 혼란 속에서 그보다 못한 자를 구하겠소? 그대의 손님이었고 전우였던 사르페돈을 아르고스인들의 먹잇감과 전리품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는 살아 있는 동안 그대와 그대의 도시,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자주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소. 그런데 이제 그대는 그를 개들로부터 지켜줄 용기조차 없었구려.

그러므로 이제 리키아의 사람들 중 누구라도 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오. 그리하여 트로이아에는 멸망이 분명하게 닥칠 것이오.”

"아, 만약 지금 트로이아인들에게 두려움을 모르는 불굴의 용기가 있다면 좋으련만. 조국을 위해 적들과 싸우며 애쓰고 분투하는 이들에게 깃드는 그런 용기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파트로클로스를 일리오스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이오."

"이 사람이 시신이 되어 프리아모스 왕의 큰 도시로 오고, 우리가 그를 싸움터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아르고스인들은 곧 사르페돈의 훌륭한 무구를 돌려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시신을 일리오스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오.

죽은 자는 배들 곁 아르고스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의 시종이고,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우는 그의 시종들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대는 적들의 함성 속에서 마음이 드높은 아이아스와 눈을 맞추며 맞설 용기도 없었고, 그와 싸울 용기도 없었소. 그는 그대보다 나은 사람이니 말이오."

그러고 나서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말했다.

"글라우코스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만한 자이면서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오? 좋은 친구여, 진실로 나는 그대가 흙이 기름진 리키아에 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위대한 아이아스와 맞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제 나는 그대의 지혜를 완전히 경멸하게 되었소."

"나는 싸움도 전차 소리도 두렵지 않소. 그러나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뜻은 언제나 가장 강하오. 그분은 용사도 쉽게 달아나게 하고 승리를 빼앗으며, 또 몸소 사람들을 싸움으로 몰아붙이시오."

"아니오, 이리 오시오, 좋은 친구여. 내 곁에 서서 나의 솜씨를 지켜보시오. 그대가 떠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겁쟁이로 판명될지, 아니면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다나오스인들을 그가 아무리 용맹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막아낼 수 있을지 말이오."

그렇게 말하며 그는 크게 소리쳐 트로이아인들을 불렀다.

"백병전에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과 리키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인들이여! 친구들이여, 사내답게 사나운 용맹을 떠올리시오. 내가 강력한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벗긴, 비길 데 없는 아킬레우스의 훌륭한 갑옷을 입고 올 때까지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달려갔다. 그는 날랜 걸음으로 서둘러, 펠레우스의 아들의 빛나는 갑옷을 도시로 가져가던 동료들을 아직 멀리 가기 전에 따라잡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눈물로 가득한 전투에서 떨어져 나와 멈춰 서서 갑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전쟁을 사랑하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주어 신성한 일리오스로 가져가게 했고, 자신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불멸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은 하늘의 신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것이며, 아버지가 스스로 늙었을 때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갑옷을 입고 노년까지 살지는 못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는 그가 신과 같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무구를 갖추는 것을 멀리서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 가련한 놈, 죽음이 바로 곁에 다가왔는데도 너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는구나. 너는 다른 이들도 벌벌 떠는 뛰어난 사내의 불멸의 갑옷을 입고 있다. 너는 그의 다정하고 굳센 동료를 죽이고, 그 머리와 어깨에서 무구를 함부로 벗겨 냈다."

"그래도 지금은 네게 큰 힘을 주겠다. 네가 싸움터에서 돌아가 안드로마케가 네게서 펠레우스의 아들의 빛나는 갑옷을 받아 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그 대가로 말이다."

크로노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검은 눈썹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옷이 헥토르의 몸에 꼭 맞게 했다.

그러자 무서운 에니알리오스, 아레스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그의 팔다리는 안으로부터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찼다.

헥토르는 큰 함성을 지르며 이름난 동맹군들에게로 가서,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갑옷을 입고 번쩍이며 모두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헥토르는 이리저리 다니며 메스틀레스와 글라우코스, 메돈과 테르실로코스, 아스테로파이오스와 데이세노르, 히포토오스와 포르키스, 크로미오스, 그리고 점술가 엔노모스에게 말을 건네며 그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들에게 날개 돋친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주변에 머무는 셀 수 없이 많은 동맹군 무리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대들을 각자의 도시에서 불러 모은 것은 수적인 우위를 원하거나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오. 전쟁을 좋아하는 아카이아인들로부터 트로이아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그대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구해내게 하려는 것이오.

그대들이 선물과 음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백성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며, 이를 통해 그대들 각자의 힘이 커지게 하려는 것이오.

그러니 모두 적을 향해 곧장 돌아서서 죽든지 살든지 하시오. 그것이 싸움이 주고받는 것이오.”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아이아스가 굴복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든 그에게 전리품의 절반을 주겠소.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가질 것이며, 그의 영광 또한 나의 영광과 같아질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창을 높이 치켜들고 온 힘을 다해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곧장 돌격했다. 그들의 마음은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 밑에서 시신을 끌어내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아이아스는 그 시신 곁에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자 아이아스가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훌륭한 메넬라오스여, 우리 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살아 돌아갈 희망이 더는 없소. 곧 트로이아의 개와 새들을 배불리게 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보다, 나는 내 목숨과 그대의 목숨이 더 걱정이오. 무슨 변이 닥칠지 모르니 말이오. 헥토르라는 전쟁의 구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 우리에게는 끔찍한 파멸이 뻔히 보이오."

"자, 다나오스인의 장수들을 불러 보시오. 누가 들을지도 모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날카로운 소리로 다나오스인들을 불렀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여!
아트레우스의 아들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의 식탁에서
나랏돈으로 술을 마시며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는
이들이여, 제우스에게서 명예와 영광을 받는 이들이여!
싸움이 이렇게 불타오르니, 장수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기가
어렵소."

"그러니 누구든 부르지 않아도 나서시오.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아 개들의 놀잇감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가 그
말을 똑똑히 듣고 맨 먼저 싸움터를 가로질러 그를 맞으러
달려왔다. 그 뒤로 이도메네우스와, 그의 동료로 사람을
죽이는 에니알리오스와 맞먹는 메리오네스가 왔다.

그 뒤를 따라와 아카이아인들의 싸움을 일으킨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다 기억해 댈 수 있겠는가? 그때
트로이아인들이 빽빽이 무리 지어 밀고 나왔고, 헥토르가
그들을 이끌었다.

마치 하늘이 내린 어느 강 어귀에서 거대한 파도가 강물을
향해 포효하며, 짠 바다가 밖에서 울부짖을 때 양옆의 해안
절벽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았다. 트로이아인들이
몰려올 때의 함성도 이와 같았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은 청동 방패로 둘러싸인 채,
한마음으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곁에 굳건히 버티고 섰다.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들의 빛나는 투구 위에 짙은 어둠을
드리웠다.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살아서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시종으로 있을 때에도 제우스는 그를 결코 미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제우스는 그가 적인 트로이아의 개들에게 놀잇감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을 일깨워 그를
지키게 했다.

먼저 트로이아인들이 눈이 반짝이는 아카이아인들을
밀어냈고, 아카이아인들은 시신을 두고 물러섰다.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은 몹시 원했으나 창으로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시신만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아카이아인들은 오래 물러나 있지 않았다.
아이아스가 곧바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았던 것이다.
아이아스는 생김새와 싸움 솜씨에서 비길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 다음으로 다른 모든 다나오스인보다
뛰어났다.

그는 맨 앞 전사들 사이를 곧장 가로질러 나아갔다. 마치 산속 골짜기에서 사냥개들과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가볍게 흩어 버리는 멧돼지 같은 힘이었다.

그처럼 고귀한 텔라몬의 아들 빛나는 아이아스도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의 부대를 가볍게 흩뜨렸다. 그들은 파트로클로스를 둘러싸고 서서, 그를 자기들 도시로 끌고 가 영광을 얻으려고 몹시 애쓰던 자들이었다.

한편 펠라스기아인 레토스의 영광스러운 아들 히포토오스는 격렬한 전투 속에서 시신의 발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었으며,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양쪽 발목 힘줄에 자기 방패 멜빵을 묶어 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했더라도 그들 중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불행이 그에게 매우 빠르게 닥쳐왔다.

텔라몬의 아들이 인파를 뚫고 그에게 달려들어, 청동 뺨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근거리에서 내리쳤다.

거대한 창과 강한 손에 맞은 탓에, 말총 장식이 달린 투구는 창끝에 의해 쪼개졌다.

그리고 창 자루를 따라 상처에서 뇌가 피와 뒤섞여 뿜어져 나왔다.

그 자리에서 그의 힘이 풀렸고, 그는 기개 높은 파트로클로스의 발을 손에서 놓아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바로 곁, 시신 위로 거꾸러졌다. 흙이 기름진 라리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부모에게 길러 준 은혜를 갚지 못했고, 기개 높은 아이아스의 창에 쓰러져 짧은 생을 마쳤다.

이번에는 헥토르가 그의 빛나는 창을 아이아스에게 던졌다. 하지만 아이아스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비록 아주 조금이었으나 청동 창을 피했다.

헥토르는 기개 높은 이피토스의 아들이자 포키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스케디오스를 쳤다. 그는 유명한 파노페우스의 집에 살며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헥토르는 스케디오스의 쇄골 아래를 찔렀고, 청동 창끝이 꿰뚫고 나가 어깨 밑동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그가 입은 갑옷이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히포토오스를 감싸고 선, 파이놉스의 아들 지혜로운 포르키스의 배 한가운데를 찔렀다. 창은 흉갑의 판을 부수고, 청동이 창자를 쏟아 냈다.

포르키스는 먼지 속에 쓰러지며 손바닥으로 땅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맨 앞 전사들과 빛나는 헥토르가 물러섰고, 아르고스인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죽은 포르키스와 히포토오스를 끌어내어 어깨에서 무구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 아폴론이 몸소 아이네이아스를 일깨우지 않았더라면, 트로이아인들은 비겁함에 꺾여 아레스가 아끼는 아카이아인들에게 다시 일리오스까지 쫓겨 갔을 것이고, 아르고스인들은 제 힘과 기운으로 제우스가 정한 몫을 넘어 영광을 얻었을 것이다.

아폴론은 에피토스의 아들인 전령 페리파스의 모습을 했다. 페리파스는 늙은 아버지 곁에서 전령 일을 하며 늙어 온 사람으로, 아이네이아스에게 마음씨가 다정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그 모습으로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아스여, 그대들이 어찌 신을 거스르며 가파른 일리오스를 지켜낼 수 있겠소? 참으로 나는 다른 이들이 자신의 힘과 권능, 용맹과 군대를 믿고 제우스마저 거스르며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것을 보았소. 하지만 제우스께서는 다나오스인들보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대들은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우지 않고 있구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네이아스는 그의 얼굴을 보고 멀리 쏘는 아폴론임을 알아차렸다. 아이네이아스는 크게 외치며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그리고 트로이아인들과 동맹군들의 다른 지도자들이여. 만약 우리가 아레스가 아끼는 아카이아인들에게 밀려 겁쟁이처럼 패배한 채 일리오스로 쫓겨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 하지만 내 곁에 서 계신 신들 중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높은 지혜의 제우스께서 우리의 전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하셨소. 그러니 우리가 다나오스인들을 향해 곧장 돌격합시다.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저들이 손쉽게 배로 가져가게 두지 맙시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는,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전사들 중에서도 저 멀리 맨 앞으로 뛰어 나가 그곳에 섰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아카이아인들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가 창을 찔러 아리스바스의 아들이자 리코메데스의 용맹한 동료인 레오크리토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가 쓰러지자 아레스가 아끼는 리코메데스가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와 곁에 섰다. 리코메데스는 자신의 빛나는 창을 던져 백성의 목자인 히파소스의 아들 아피사온의 횡격막 아래 간을 맞혔고, 아피사온은 즉시 무릎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 아피사온은 흙이 기름진 파이오니아에서 온 자로, 전투에서는 아스테로파이오스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자였다.

하지만 그가 쓰러지자 용맹한 아스테로파이오스가 그를 가엾게 여겨, 그 역시 다나오스인들과 싸우고자 앞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다. 파트로클로스의 주변에 선 아카이아인들이 사방을 방패로 막아내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아스가 그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며 모든 이에게 엄하게 일렀던 것이다. 그는 시신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한 다른 아카이아인들보다 앞서서 홀로 뛰어나게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대신 시신 바로 옆에 굳건히 서서 손에 손을 맞대고 싸우라고 명령했다.

이처럼 강력한 아이아스가 그들에게 명령하자, 땅은 검붉은 피로 젖어 들었다.

트로이아인과 그들의 강력한 동맹군, 그리고 다나오스인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다나오스인들 역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싸우지 않았으나, 쓰러지는 이는 그들 쪽이 훨씬 적었다.

그들은 난전 속에서 서로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 늘 애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싸웠다. 죽은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둘레에 선 장수들이 모두 어둠에 덮여 싸우고 있었으니, 해나 달이 아직 떠 있으리라고는 그대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트로이아인들과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은 맑은 하늘 아래서 느긋하게 싸웠다. 그들 위에는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고, 온 땅과 산 위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서서, 신음을 부르는 화살을 피하며 이따금 쉬어 가며 싸웠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지도자들은 어둠과 전쟁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며, 무자비한 청동 무기에 심하게 괴로워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전사였던 두 사람, 트라시메데스와 안틸로코스는 비길 데 없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은 파트로클로스가 여전히 살아 있으며 대열의 맨 앞에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두 사람은 동료들이 죽거나 패주하는 것을 경계하며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네스토르가 검은 배들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어 전투로 이끌 때,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종일 잔혹한 싸움의 거대한 격전이 몰아쳤다.

발 빠른 아킬레우스의 훌륭한 시종의 시신을 두고 두 군대가 싸우는 동안, 각 사람의 무릎과 다리와 발, 그리고 팔과 눈은 끊임없이 고된 노동의 땀방울로 젖어 들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기름을 흠뻑 먹인 큰 황소 가죽을 사람들에게 주어 늘이게 하면, 그들이 받아서 둥글게 둘러서서 잡아당기고, 많은 손이 당기는 사이 곧 물기가 빠지고 기름이 스며들어 가죽이 한껏 펴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양쪽은 좁은 자리에서 시신을 이리저리 잡아당겼다. 트로이아인들은 그를 일리오스로, 아카이아인들은 속 빈 배들로 끌고 가리라는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했다.

그를 둘러싸고 싸움은 사나워졌으니, 군대를 일으키는 아레스도 아테나도, 아무리 성이 났다 해도 그 싸움을 보고 얕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날 제우스는 파트로클로스를 두고 사람과 말들의 처참한 고생을 그렇게 팽팽히 당겨 놓았다.

아직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아래에서 날랜 배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킬레우스는 마음속으로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가 성문까지 도달한 뒤에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파트로클로스가 자신 없이 도시를 함락시킬
것이라거나,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함락시킬 것이라는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아킬레우스는 어머니가 위대한
제우스의 뜻에 관한 소식을 전해 줄 때마다, 따로
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자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의 가장 소중한 동료가
살해당했다는, 얼마나 큰 재앙이 닥쳤는지에 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신 주변의 다른 이들은 손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서로를 죽였다.

그때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속이 빈 배들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은 남기지 못할 것이오. 차라리 여기서 검은
대지가 우리 모두를 삼켜 버리게 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을 말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도시로 끌고 가게 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어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오."

마찬가지로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 가운데 누군가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친구들이여, 비록 우리 모두가 이 사람 곁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지라도, 그 누구도 싸움에서 물러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각자의 용맹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웠고, 철이 부딪히는 굉음이 쉼 없이 움직이는 공기를 뚫고 청동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말들은 전투에서 떨어져 나와 울고 있었다. 그들의 마부가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손에 쓰러져 먼지 속에 누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디오레스의 용맹한 아들 아우토메돈은 그 말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자주 매질을 하기도 했고,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도 했으며,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두 마리의 말은 넓은 헬레스폰토스에 있는 배들 쪽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아카이아인들이 있는 전투 속으로 들어갈 마음도 없었다.

마치 죽은 남성이나 여성의 무덤 위에 서 있는 기둥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 말들은 아름다운 전차 곁에 머물며 머리를 땅으로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말들은 마부를 그리워하며 울었고,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줄곧 땅으로 흘러내렸다. 그들의 풍성한 갈기는 멍에 받침 아래로 멍에 양옆에 흘러내려 더럽혀졌다.

크로노스의 아들은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 불쌍한 것들, 늙지도 죽지도 않는 너희를 어찌하여 죽게 마련인 펠레우스 왕에게 주었던가? 비참한 인간들 사이에서 너희도 슬픔을 겪게 하려던 것이냐?"

"땅 위에서 숨 쉬며 움직이는 모든 것 가운데 인간보다 비참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너희와 화려한 전차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가 갑옷을 차지하고 헛되이 뽐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냐?"

"나는 너희의 무릎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아우토메돈을 싸움터에서 속 빈 배들까지 무사히 실어 가게 하겠다. 트로이아인들에게는 아직 영광을 주어,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에 이르고 해가 지고 신성한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죽이고 또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말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다. 두 말은 갈기의 먼지를 땅에 털어 내고, 날랜 전차를 몰아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로 재빨리 내달렸다.

그 뒤에서 아우토메돈이 싸웠다. 그는 동료 때문에 슬퍼하면서도, 독수리가 거위 떼를 덮치듯 전차를 몰아 덮쳤다. 트로이아인들의 함성 속에서 가볍게 빠져나왔다가, 다시 가볍게 큰 무리를 뚫고 덤벼들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들을 뒤쫓아 서둘러 나아갈 때, 그는 아무도 죽일 수 없었다. 신성한 전차에 홀로 타고 있는 상태로는, 창으로 그들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날랜 말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의 동료인 하이몬의 손자, 라에르케스의 아들 알키메돈이 그를 발견했다. 알키메돈은 전차 뒤에서 멈춰 서서 아우토메돈에게 말했다.

“아우토메돈이여, 어떤 신이 그대의 가슴에 쓸모없는 꾀를 집어넣고 이해심 있는 마음을 가져가 버렸기에, 그대는 이토록 앞장선 무리 속에서 홀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오?”

“그대의 동료는 죽임을 당했고, 헥토르가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갑옷을 자신의 어깨에 걸친 채 그 갑옷을 입고 뽐내고 있기 때문이오.”

그러자 디오레스의 아들 아우토메돈이 그에게 대답했다.

“알키메돈이여, 살아 있을 때의 파트로클로스, 신들과 맞먹는 지혜를 지닌 그를 빼고,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불멸의 말들을 다스려 몰 만하겠소? 그러나 이제 죽음과 운명이 그를 덮쳤소. 그러니 그대가 채찍과 빛나는 고삐를 잡으시오. 나는 전차에서 내려 싸우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알키메돈은 싸움터를 내달리는 전차에 뛰어올라 재빨리 채찍과 고삐를 손에 쥐었고, 아우토메돈은 뛰어내렸다.

빛나는 헥토르가 그들을 보고, 곧바로 곁에 있던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다.

“청동 갑옷 입은 트로이아인들의 조언자 아이네이아스여,
저기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두 말이 시원찮은
마부들을 태우고 싸움터에 나타난 것이 보이오. 그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저 말들을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둘이 덤벼들면 저들은 맞서 버티지 못할 것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앙키세스의 용맹한 아들은 그 말을
어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르고 질긴 소가죽에 청동을 두껍게 덧씌운
방패로 어깨를 가리고 곧장 나아갔다. 크로미오스와 신과
같은 아레토스도 함께 갔다.

그들은 저 사람들을 죽이고 목을 높이 치켜든 말들을 몰고
가리라는 희망으로 마음이 가득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아우토메돈에게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검은 가슴속이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찼다. 곧이어 그는 믿음직한 동료인
알키메돈에게 말했다.

"알키메돈이여, 그대는 내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말들을 몰아 주시오. 말들의 숨결이 내 등에 닿을 정도여야 하오.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그 분노를 멈추지 않고,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아킬레우스의 말 뒤에 올라타 우리
둘을 죽이고 아르고스 전사들의 대열을 패퇴시키거나, 혹은
그 자신이 맨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나는 참으로 믿고 있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두 아이아스와 메넬라오스를 불렀다.

"아르고스인들의 지도자인 두 아이아스여, 그리고
메넬라오스여. 보시오, 시신은 그 곁을 굳건히 지키고
사람들의 대열을 막아낼 가장 용맹한 자들에게 맡겨 두시오.
하지만 아직 살아 있는 우리 둘로부터는 무자비한 파멸의
날을 막아 주시오. 여기 트로이아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인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가 눈물 어린 전쟁 속에서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소. 그러나 이 일은 신들의 무릎에 놓여 있소.
나도 창을 던지겠소. 결과는 제우스께 달려 있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져,
아레토스의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맞혔다. 방패는 창을
막지 못했고, 청동은 방패를 꿰뚫고 허리띠를 지나 아랫배에
박혔다.

마치 힘센 사내가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외양간 황소의 뿔
뒤를 내리쳐 힘줄을 끊으면, 황소가 앞으로 뛰어오르다
쓰러지는 것과 같았다. 아레토스도 그렇게 앞으로
뛰어오르다 벌렁 쓰러졌고, 창자에 박혀 부르르 떠는
날카로운 창이 그의 사지를 풀어 버렸다.

하지만 헥토르는 빛나는 창을 아우토메돈에게 던졌다.
아우토메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몸을 앞으로 숙여 청동
창을 피했으나, 긴 창은 그의 뒤편 땅에 박혔고 창의 뒷부분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마침내 강력한 아레스가 그 창의
맹렬함을 멈추게 했다.

두 아이아스가 동료의 부름을 듣고 무리를 뚫고 와서 사납게
날뛰는 그들을 떼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칼을 들고
맞붙었을 것이다.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와 신과 같은
크로미오스는 두 아이아스가 두려워 다시 물러났고,
치명상을 입은 아레토스를 그곳에 버려두었다.

날랜 아레스와 맞먹는 아우토메돈은 아레토스의 무구를
벗기며 뽐내며 말했다.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이 죽은 슬픔이 조금은 풀렸구나.
그보다 못한 자를 죽였을 뿐이지만.”

그렇게 말한 뒤, 그는 피 묻은 전리품을 집어 들어 전차에 실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먹은 사자처럼 손과 발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전차에 올라탔다.

그러고 나서 파트로클로스를 둘러싸고 다시금 거대하고 두려우며 눈물로 가득한 격전이 벌어졌다.

아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싸움을 부추겼다. 멀리 천둥치는 제우스가 다나오스인들을 독려하라고 그녀를 보냈던 것이다. 제우스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다.

마치 제우스가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검붉은 무지개를 펼쳐, 전쟁이나, 사람들이 땅 위의 일을 멈추게 하고 가축을 괴롭히는 차가운 폭풍의 징조로 삼듯이,

아테나도 검붉은 구름을 두르고 다나오스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저마다를 독려했다.

아테나는 맨 먼저 곁에 있던 아트레우스의 아들, 용맹한 메넬라오스를 격려했다. 그녀는 포이닉스의 모습과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를 하고 말했다.

"메넬라오스여, 고귀한 아킬레우스의 믿음직한 동료가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아래에서 날랜 개들에게 찢긴다면,
그대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될 것이오. 그러니 굳세게 버티며
온 군대를 독려하시오."

그러자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포이닉스여, 옛 시절의 나의 아버지이신 노인이시여.
아테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날아오는 무기를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기꺼이 파트로클로스의
곁에 서서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의 죽음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헥토르는 불과 같은 무시무시한 분노를 품고 있으며,
청동 무기로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우스께서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는
기뻐했다. 그가 모든 신 가운데 자기에게 맨 먼저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신은 그의 어깨와 무릎에 힘을 불어넣고, 가슴에는 파리의
대담함을 심어 주었다. 파리는 사람의 살갗에서 아무리
쫓겨나도 줄곧 달려들어 문다. 사람의 피가 달콤하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그런 대담함으로 그의 검은 가슴속을 채워 주었다. 메넬라오스는 파트로클로스를 감싸고 서서 빛나는 창을 던졌다.

한편 트로이아인들 중에는 에에티온의 아들 포데스가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용맹한 자였으며, 헥토르는 그가 자신의 전우이자 연회에서 반가운 동료였기에 모든 백성 중에서 그를 가장 존중했다.

그가 도망치려 할 때,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가 창을 던져 그의 허리띠를 쳤고, 청동 창은 그를 그대로 꿰뚫었다. 포데스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러자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는 죽은 몸을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동료들이 모여 있는 무리 속으로 가져갔다.

그때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추겼다. 아폴론은 아시오스의 아들 파이놉스의 모습을 했다. 파이놉스는 아비도스에 살며 헥토르의 손님 친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멀리 쏘는 아폴론이 그 모습으로 헥토르에게 말했다.

“헥토르여, 예전에는 약골이던 메넬라오스 앞에서 이렇게 움츠러들었으니, 이제 아카이아인 가운데 누가 그대를 두려워하겠소?”

“그는 이제 혼자서 트로이아인들 가운데서 시신을 끌고 가 버렸소. 그대의 믿음직한 동료, 맨 앞 전사들 가운데 훌륭한 에에티온의 아들 포데스를 죽이고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슬픔의 검은 구름이 헥토르를 덮었다. 헥토르는 불꽃처럼 번쩍이는 청동을 두르고 맨 앞 전사들 사이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러자 크로노스의 아들은 눈부신 술 달린 아이기스를 들고 이다를 구름으로 덮은 뒤, 번개를 치고 크게 천둥을 울리며 아이기스를 흔들어,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주고 아카이아인들을 달아나게 했다.

가장 먼저 패하여 흩어지기 시작한 자는 보이오티아인 페넬레오스였다.

그는 항상 적을 마주 보고 서 있었기에, 창에 어깨 겉면을 스치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창을 던진 폴리다마스의 창끝은 뼈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기개 높은 알렉트리온의 아들 레이토스 또한
헥토르에게 근접전에서 손목 부위를 상처 입어 싸움을
멈추어야 했다.

레이토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뒤로 물러났다.
손에 창을 들고 트로이아인들과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이 더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헥토르가 레이토스를 뒤쫓을 때, 이도메네우스가 헥토르의
흉갑 위, 젖꼭지 옆 가슴을 쳤다. 그러나 긴 창자루가 창날
꽂는 자리에서 부러졌고, 트로이아인들은 크게 소리쳤다.

헥토르는 전차 위에 서 있는 데우칼리온의 아들
이도메네우스를 향해 창을 던졌으나 간발의 차로 빗나갔다.

하지만 헥토르의 창은 잘 지어진 리크토스에서 그를
뒤따라온 메리오네스의 동료이자 마부인 코이라노스를
맞혔다.

이도메네우스는 처음에 굽은 배들로부터 걸어서 왔기에,
만약 코이라노스가 발 빠른 말들을 재빨리 몰아주지
않았더라면 트로이아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코이라노스는 이도메네우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그에게 닥칠 무자비한 파멸의 날을 막아주었으나, 정작 자신은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헥토르는 코이라노스의 턱 아래 귀 밑부분을 찔렀고, 창은 그의 이빨을 뿌리째 뽑아버렸으며 혀를 한가운데로 쪼개버렸다. 코이라노스는 전차에서 떨어지며 고삐를 땅 위로 떨어뜨렸다.

메리오네스가 몸을 굽혀 땅에 떨어진 고삐를 직접 손으로 거두어들인 뒤 이도메네우스에게 말했다.

"이제 채찍을 휘두르십시오. 날랜 배들에 닿을 때까지 몰아가십시오."

"보십시오, 승리가 더는 아카이아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어르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이도메네우스는 아름다운 갈기의 말들을 채찍질해 속 빈 배들로 돌아갔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들이닥쳤던 것이다.

기개 높은 아이아스와 메넬라오스도 제우스가 트로이아인들에게 승리를 주어 싸움의 흐름을 뒤바꾸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 가운데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가 먼저 말했다.

“아, 이제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아버지 제우스께서 몸소 트로이아인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소. 그들이 던지는 무기는 용사의 것이든 겁쟁이의 것이든 모두 과녁에 꽂히오. 제우스께서 하나하나 바로 이끄시는 것이오. 그런데 우리 쪽 무기는 하나같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구려.”

“자, 우리 스스로 가장 좋은 방책을 짜내 봅시다. 시신을 끌고 가면서 우리 자신도 무사히 돌아가 사랑하는 동료들을 기쁘게 할 방책 말이오. 그들은 이쪽을 바라보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오.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사나운 기세와 무적의 손이 멈추지 않고 검은 배들을 덮치리라 여기면서 말이오.

누군가 동료가 있어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서둘러 소식을 전해 주면 좋겠소. 그는 사랑하는 동료가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아직 듣지도 못했을 것이오.”

“그런데 아카이아인 가운데 그럴 사람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소. 사람도 말도 모두 어둠에 덮여 있으니 말이오.

아버지 제우스시여,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시고, 하늘을 맑게 하시어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밝은 빛 속에서
우리를 죽이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눈물 흘리는 그를 가엾게 여겨
곧바로 어둠을 흩고 안개를 걷어 냈다. 해가 그들 위로 비치자
싸움터 전체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자 아이아스가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잘 살펴보시오. 기개
높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이
보이면, 그를 재촉해 지혜로운 아킬레우스에게 서둘러 가서,
그가 가장 아끼는 동료가 죽었다고 전하게 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는 그 말을
어기지 않고 떠났다.

마치 사자가 외양간에서 물러갈 때와 같았다. 가장 살진 소를 채 가지 못하게 밤새 지키는 개들과 사람들에게 시달려 지친 사자는, 고기가 먹고 싶어 곧장 덤벼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대담한 손들이 던지는 창과 활활 타는 횃불이 빗발치니, 아무리 열을 올려도 그 앞에서 움츠러들고, 새벽이 되면 침울한 마음으로 물러간다.

그처럼 함성을 잘 지르는 메넬라오스도 몹시 내키지 않은 채 파트로클로스 곁을 떠났다. 아카이아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며 시신을 적의 먹이로 버려둘까 몹시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메리오네스와 두 아이아스에게 거듭 당부하며 말했다.

"아르고스인의 지도자인 두 아이아스여, 그리고 메리오네스여. 이제 각자 불행한 파트로클로스의 친절함을 기억하시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모두에게 언제나 다정했으나, 이제 죽음과 운명이 그에게 닥쳤소."

그렇게 말한 뒤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는 떠났다. 그는 독수리처럼 사방을 경계하며 살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독수리는 하늘 아래 날개 달린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시력을 가졌다고 한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잎이 무성한 덤불 아래 웅크리고 있는 발 빠른 산토끼를 놓치지 않고, 독수리는 산토끼를 향해 급강하하여 즉시 낚아채 생명을 앗아간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은 메넬라오스여, 그대의 빛나는 눈은 수많은 전우의 무리를 사방으로 훑었다. 혹시 살아 있는 네스토르의 아들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는 전투의 왼쪽에서 전우들을 격려하며 싸우라고 재촉하는 그를 아주 빠르게 찾아냈다.

머리칼이 고운 메넬라오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안틸로코스여, 이리 오시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끔찍한 소식을 들려주겠소.
그대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알 것이오. 신이
다나오스인들에게 재앙을 굴려 보내고, 승리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있소.

아카이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소.
다나오스인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하게 되었소.”

“하지만 그대는 서둘러 아카이아인들의 배들로 달려가 아킬레우스에게 소식을 전하시오. 그가 즉시 시신을 자신의 배로 무사히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오. 그 시신은 벌거벗은 상태요.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의 갑옷을 가지고 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안틸로코스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으며, 목소리가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메넬라오스의 당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곁에서 통굽 말들을 돌리고 있던 비길 데 없는 동료 라오도코스에게 무구를 맡기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울면서 발이 이끄는 대로 싸움터를 빠져나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하러 갔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메넬라오스여, 그대는 안틸로코스가 떠나 곤경에 빠진 필로스 사람들 곁에 남아 그들을 도울 마음이 없었다. 필로스 사람들은 안틸로코스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래도 메넬라오스는 훌륭한 트라시메데스를 보내 그들을 돕게 하고, 자신은 다시 용사 파트로클로스를 감싸러 갔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아스 곁에 서서 곧바로 말했다. “저 사람을 날랜 배들로 보내, 발 빠른 아킬레우스에게 가게 했소.”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훌륭한 헥토르에게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지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소. 무장도 없이 트로이아인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 말이오.

그러니 우리 스스로 가장 좋은 방책을 짜냅시다. 시신을 끌고 가면서, 트로이아인들의 함성 속에서 우리 자신도 죽음과 운명을 피할 방책 말이오.”

그러자 텔라몬의 아들 위대한 아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여,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옳게 말하였소. 하지만 그대와 메리오네스는 지체 없이 시신 아래로 몸을 굽혀 그를 들어 올리고, 전쟁의 고난으로부터 그를 메고 나가시오.

그 뒤는 우리 둘이 맡아 트로이아인들과 훌륭한 헥토르에 맞서 싸우겠소.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이며, 예전부터 격렬한 전투 속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곤 했던 자들이 아니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다른 이들이 땅에서 죽은 이를 품에 안고 그들의 거대한 힘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때 뒤에 있던 트로이아인 군대가 아카이아인들이 시신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그들은 마치 사냥하는 청년들 앞에서 상처 입은 멧돼지에게 달려드는 사냥개들처럼 그들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사냥개들은 잠시 동안 멧돼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달려들지만, 멧돼지가 자신의 힘을 믿고 그들 사이를 휘저으며 돌진하면, 사냥개들은 여기저기로 겁에 질려 물러나며 움츠러든다.

트로이아인들도 한동안은 무리를 지어 뒤쫓으며 칼과 양날 창으로 찔러댔다. 하지만 두 아이아스가 몸을 돌려 그들에게 맞서려 할 때마다, 트로이아인들의 안색은 변했고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달려 나가 죽은 이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시신을 싸움터에서 속 빈 배들로 옮기고 있었다.

그들을 향해 불길처럼 사나운 싸움이 몰아쳤다. 마치 불이 갑자기 사람 사는 도시를 덮쳐 불태우면, 거센 불빛 속에 집들이 무너지고 바람이 그 불을 으르렁거리며 몰아가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그들이 가는 길에는 전차와 창잡이들의 그칠 줄 모르는 소란이 줄곧 뒤따랐다.

하지만 마치 노새들이 양옆으로 큰 힘을 쏟아부으며, 험한 산길을 따라 통나무나 커다란 배의 목재를 끌고 내려올 때, 애쓰는 와중에 고통과 땀으로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이들도 시신을 메고 서둘러 나아갔다.

그 뒤에서 두 아이아스는 마치 산등성이가 홍수를 막아내는 것처럼 적들을 저지했다. 평원을 가로질러 놓여 거대한 강들의 무시무시한 물줄기마저 막아내고, 그 물길을 즉시 평원 위로 흩어지게 돌려버리며, 홍수의 위력으로도 그 산등성이를 뚫지 못하게 하는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두 아이아스는 트로이아인들의 전투를 끊임없이 막아냈다. 하지만 트로이아인들은 계속해서 뒤쫓아왔으며, 그들 중에서도 특히 앙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와 영광스러운 헥토르 두 사람이 가장 앞장섰다.

마치 작은 새들에게 죽음을 몰고 오는 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파멸의 비명을 지르며 날아오르는 찌르레기나 갈까마귀 떼처럼, 아카이아인 청년들도 파멸의 비명을 지르며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 앞에서 도망쳤고 모든 싸움을 잊어버렸다.

다나오스인들이 도망칠 때, 훌륭한 무기들이 해자 주변과 그 근처로 많이 떨어졌으나,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제18권

아킬레우스의 방패

그들은 타오르는 불길처럼 싸웠다. 그때 발 빠른 안틸로코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는 뿔처럼 이물이 치솟은 배들 앞에서 아킬레우스를 찾았다. 아킬레우스는 이미 벌어진 그 일을 마음속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위대한 마음에게 말했다. "아, 어쩌나! 머리칼 긴 아카이아인들이 어찌하여 또 평원에서 쫓겨 배들 쪽으로 몰려오는가?"

"신들이 내 마음에 끔찍한 슬픔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기를. 예전에 어머니께서 일러 주셨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미르미돈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트로이아인들의 손에 햇빛을 떠나리라고.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이 이제 정말 죽었구나, 무모한 사람! 집어삼키는 불을 물리치거든 배들로 돌아오고 헥토르와 힘껏 싸우지는 말라고 그토록 일렀건만."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궁리하고 있을 때, 고귀한 네스토르의 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아, 지혜로운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가 들어야 할 소식이 너무나 끔찍하구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오.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소. 사람들이 그의 벌거벗은 시신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고, 그의 갑옷은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차지했소."

그가 이처럼 말하자 슬픔의 검은 구름이 아킬레우스를 에워쌌다. 그는 두 손으로 검은 먼지를 집어 머리 위에 뿌려 아름다운 얼굴을 더럽혔고, 향기로운 튜닉 위로 검은 재가 떨어졌다.

아킬레우스는 그 큰 몸을 먼지 속에 길게 뻗고 누워,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망가뜨렸다.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전리품으로 얻었던 여종들은 마음의 고통으로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지혜로운 아킬레우스 둘레로 달려 나와 모두 손으로 가슴을 쳤고, 여종들은 저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들 맞은편에서 안틸로코스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고귀한 마음으로 격렬하게 신음하는 아킬레우스의 손을 붙잡았다. 아킬레우스가 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무섭게 크게 신음했고, 바다 깊은 곳에서 노인인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있던 그의 존귀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어머니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바다 깊은 곳에 있던 네레우스의 모든 딸인 여신들이 그녀의 둘레로 몰려들었다.

그곳에는 글라우케와 탈레이아와 키모도케, 네사이에와 스페이오와 토에와 소 같은 큰 눈의 할리에, 그리고 키모토에와 악타이아와 림노레이아, 멜리테와 이아이라와 암피토에와 아가베, 도토와 프로토와 페루사와 디나메네, 덱사메네와 암피노네와 칼리아네이라, 도리스와 파노페와 영광스러운 갈라테아, 네메르테스와 압세우데스와 칼리아나사, 그리고 클리메네와 이아네이라와 이아나사, 마이라와 오리티이아와 머릿결이 아름다운 아마테이아,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다른 네레이데스가 있었다.

이들로 빛나는 동굴이 가득 찼고, 그들은 모두 함께 가슴을 쳤다. 테티스가 곡을 이끌었다.

"자매 네레이데스여, 모두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속 슬픔을 알아 주시오."

"아, 불행한 나, 가장 뛰어난 사람을 낳고 슬픔만 얻은 가엾은 나! 나는 흠잡을 데 없이 굳센 아들, 영웅들 가운데 으뜸인 아들을 낳았고, 그는 어린나무처럼 쑥쑥 자랐다.

기름진 과수원의 나무처럼 그를 길러 뾰족한 이물을 단 배에 태워 일리오스로 보내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펠레우스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시는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살아서 햇빛을 보는 동안에도 슬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가 보아도 그를 조금도 도울 수가 없구나.

그래도 가 봐야겠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보고, 싸움에서 물러나 있는 그에게 무슨 슬픔이 닥쳤는지 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동굴을 떠났고, 님프들도 울며 그녀와 함께 갔다. 그들 주변으로 바다의 파도가 갈라졌다.

그들이 흙이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해변으로 차례차례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는 미르미돈인들의 배들이 날랜 아킬레우스 주변에 빽빽하게 줄지어 있었다.

아킬레우스가 무겁게 신음하고 있을 때, 그의 존귀한 어머니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머리를 껴안았고, 통곡하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내 아이야, 어찌하여 우느냐? 네 마음에 어떤 슬픔이 닥쳤느냐?"

"말해 보아라, 숨기지 말고. 네가 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대로, 제우스께서 네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모두 배들의 고물 곁에 몰려 너를 간절히 찾으며 끔찍한 일을 겪게 해 달라던 기도 말이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무겁게 신음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올림포스의 신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료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는데 그것이 제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동료들 가운데 누구보다, 제 몸처럼 아끼던 이였습니다."

"저는 그를 잃었습니다. 그를 죽인 헥토르가 그의 갑옷을 벗겨 갔습니다. 크고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놀라운 그 갑옷은, 신들께서 어머니를 필멸의 인간의 잠자리에 들게 하던 날 펠레우스께 빛나는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께서 바다의 불멸의 여신들 곁에 그대로 계시고, 펠레우스께서는 필멸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께서도 죽은 아들 때문에 끝없는 슬픔을 마음에 품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는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실 테니 말입니다. 제 마음도 더는 살아서 사람들 사이에 머물라 하지 않습니다. 헥토르가 먼저 제 창에 맞아 목숨을 잃고,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를 죽여 무구를 벗긴 값을 치르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자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에게 말했다.

"그런 말을 하니, 아들아, 너는 일찍 죽을 운명이구나. 헥토르가 죽고 나면 곧바로 너의 죽음이 닥쳐 있으니."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제 동료가 죽을 때 도와주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죽고 싶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쓰러졌고, 파멸을 막아 줄 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파트로클로스에게도, 훌륭한 헥토르에게 쓰러진 수많은 다른 동료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지 못한 채, 이렇게 배들 곁에 앉아 있습니다."

"땅 위의 쓸모없는 짐이 되어 말입니다. 회의에서는 저보다 나은 이들이 있지만, 싸움에서는 청동 갑옷 입은 아카이아인 가운데 저만 한 자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다툼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사라지기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화나게 만드는 분노, 흘러내리는 꿀보다 훨씬 달콤하게 사람의 가슴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분노도 사라지기를! 바로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저를 그렇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괴롭더라도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가슴속 마음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나가서, 제가 사랑하던 이를 죽인 헥토르를 찾겠습니다. 제 죽음은 제우스와 다른 불멸의 신들께서 이루려 하실 때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력한 헤라클레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왕께서 가장 아끼셨는데도, 운명과 헤라의 무서운 노여움이 그를 꺾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죽어서 누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나는 명성을 얻겠습니다. 가슴 깊은 트로이아 여인들과 다르다니아 여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두 손으로 고운 뺨의 눈물을 훔치며 쉴 새 없이 흐느끼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도록 싸움을 떠나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겠습니다.

저를 아무리 아끼셔도 싸움에서 붙잡지 마십시오. 저를 설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은빛 발의 여신 테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래, 아들아, 네 말이 옳다. 곤경에 빠진 동료들에게서 끔찍한 파멸을 막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네 훌륭한 무구, 번쩍이는 청동 갑옷은 트로이아인들 손에 있다.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뽐내고 있지.

그러나 그가 오래 뽐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죽음도 가까이 와 있으니. 그러니 내가 다시 이리로 오는 것을 네 눈으로 볼 때까지 아레스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지 마라."

“나는 해가 뜰 때 아침에 돌아오겠다. 헤파이스토스 왕에게서 아름다운 갑옷을 가져오마.”

그렇게 말한 여신은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몸을 돌린 테티스는 바다의 자매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넓은 바다 품속으로 내려가 바다의 노인, 우리 아버지의 궁전을 찾아가 모든 것을 전하시오. 나는 이름난 장인 헤파이스토스를 찾아 높은 올림포스로 가겠소. 혹시 그가 내 아들에게 빛나는 훌륭한 무구를 만들어 줄지 모르니 말이오.”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바다의 여신들은 즉시 바다의 파도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동안 은빛 발을 가진 여신 테티스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갑옷을 가져오고자 올림포스로 향했다.

그녀가 올림포스로 가는 동안, 아카이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 앞에서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배들과 헬레스폰토스까지 쫓겨 왔다.

그러나 정강이받이를 잘 갖춘 아카이아인들은 아킬레우스의 시종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빗발치는 무기 속에서 끌어내지 못했다. 트로이아의 군사와 전차들, 그리고 불꽃같은 기세의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다시 그를 따라잡았던 것이다.

빛나는 헥토르는 뒤에서 세 번이나 시신의 발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하며 트로이아인들을 크게 불렀고, 사나운 용맹을 두른 두 아이아스가 세 번이나 그를 시신에서 밀쳐 냈다.

그러나 헥토르는 제 힘을 믿고 때로는 싸움 속으로 덤벼들고, 때로는 버티고 서서 크게 외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굶주림이 심한 황갈색 사자를 시체로부터 몰아내려는
목자들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는 것처럼, 두 전사
아이아스도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를 시체로부터 겁주어
쫓아내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만약 바람처럼 빠른 이리스가 올림포스에서 전장에 나갈
채비를 하라는 전갈을 가지고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시신을 끌고 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을 것이다. 헤라가 이리스를 보냈기에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리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무서운 펠레우스의
아들아. 파트로클로스를 지켜라. 그를 두고 배들 앞에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다. 아카이아인들은 죽은 그의
시신을 지키려 하고, 트로이아인들은 그를 바람 부는
일리오스로 끌고 가려고 덤벼들고 있다. 누구보다 빛나는
헥토르가 그를 끌고 가려 한다.

그의 마음은 연한 목에서 머리를 베어 성벽 말뚝에 꽂으라고
시킨다. 자, 일어나라, 더는 여기 누워 있지 마라!"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아 개들의 놀잇감이 된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의 시신이 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자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리스 여신이시여, 신들 가운데 어느 분이 당신을 제게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바람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빛나는 아내 헤라께서 나를 보내셨다. 높은 옥좌에
앉은 크로노스의 아들도, 눈 덮인 올림포스에 사는 다른
불멸의 신들도 이 일을 모른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싸움터에 들어가겠습니까?”

“제 무구는 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다시 이리로 오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볼 때까지 무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헤파이스토스께 훌륭한 무구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방패라면 몰라도, 제가 걸칠 만한 빛나는 무구를 가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도 지금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창을 휘두르며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네 빛나는 무구를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 그래도 그대로 해자로 가서 트로이아인들에게 모습을 보여라. 혹시 너를 두려워하여 트로이아인들이 싸움을 멈추면, 지친 아카이아인의 용맹한 아들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숨 돌릴 틈은 아주 짧은 법이다.”

발 빠른 이리스가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제우스가 아끼는 아킬레우스는 몸을 일으켰다. 아테나는 그의 거대한 어깨에 술이 달린 아이기스를 둘러 주었고, 아름다운 여신은 그의 머리 주위에 황금빛 구름을 짙게 드리웠다. 그러자 그에게서 번쩍이는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적에게 포위된 바다 섬의 도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멀리 하늘까지 닿는 것과 같았다.

그곳 사람들은 온종일 자기 도시의 성벽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다가, 해가 지면 봉화를 잇달아 피워 올린다. 그 불빛이 높이 치솟는 것은 둘레에 사는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와 재앙을 막아 주기를 바라서이다.

그처럼 아킬레우스의 머리에서 눈부신 불빛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그는 성벽에서 해자까지 성큼성큼 걸어가 그곳에 섰다. 그러나 어머니의 슬기로운 당부를 지켜 아카이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크게 외쳤고, 멀리서 팔라스 아테나도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었다.

도시를 에워싼 살기등등한 적들 앞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듯,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목소리는 그렇게 또렷이 울렸다.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청동 같은 목소리를 듣자 모두의 마음이 떨렸다. 갈기 고운 말들은 재앙을 예감하고 전차를 뒤로 돌렸다.

마부들은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머리 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무섭게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 불을 피워 올렸던 것이다.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해자 너머로 세 번 크게 외치자, 트로이아인들과 이름난 동맹군들은 세 번 혼란에 빠졌다. 그때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열두 명이 자기들의 전차와 창 사이에서 죽었다.

아카이아인들은 기뻐하며 파트로클로스를 날아오는 무기 사이에서 끌어내 들것에 눕혔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울며 그 둘레에 모여들었다.

그들 사이에서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다. 믿음직한 동료가 날카로운 청동에 찢긴 채 들것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과 전차와 함께 그를 싸움터로 보냈건만, 돌아오는 그를 다시는 맞이하지 못했다.

그때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가 지칠 줄 모르는 해를, 몹시 내키지 않아 하는데도 오케아노스의 물줄기로 내려가게 했다.

해가 지자, 훌륭한 아카이아인들은 격렬한 싸움과 처참한 전쟁을 멈추었다.

한편 트로이아인들은 격렬한 싸움에서 물러나 전차에서 날랜 말들을 풀고, 저녁 먹을 생각도 하기 전에 집회를 열었다.

집회 내내 그들은 모두 선 채로 있었고, 아무도 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랫동안 처참한 싸움을 멀리하던 아킬레우스가 나타났기에,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때 판토오스의 아들, 슬기로운 폴리다마스가 맨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홀로 앞일과 지난 일을 함께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헥토르의 동료였으며, 두 사람은 같은 날 밤에 태어났다. 비록 말솜씨는 한 사람이 훨씬 뛰어났으나, 창술은 다른 한 사람이 훨씬 뛰어났다.

그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의에서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친구들이여, 양쪽 상황을 잘 생각해보시오. 나는 그대들이 지금 당장 도시로 돌아가기를 권하오. 밝은 새벽이 올 때까지 배 옆의 평원에 머물며 기다리지 마시오. 성벽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소.”

“이 사람이 훌륭한 아가멤논에게 계속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아카이아인들을 상대하기가 더 쉬웠소. 나 또한 날랜 배들 근처에서 밤을 지새우며 우리가 굽은 배들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 기뻤소.

하지만 이제 나는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이 몹시 두렵소. 그의 기세가 너무나 대단하여, 트로이아인과 아카이아인이 아레스의 광기 속에서 서로 맞붙는 평원에 머물려 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오직 우리 도시와 우리 아내들을 위해 싸울 것이오.”

“자, 도시로 갑시다. 내 말을 들으시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오. 지금은 불멸의 밤이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을 붙들고 있지만, 만약 내일 그가 갑옷을 입고 나와 우리가 여전히 여기 머물고 있을 때 우리를 덮친다면, 많은 이들이 그를 아주 잘 알게 될 것이오.

살아남은 자는 기쁨 속에 신성한 일리오스로 돌아가겠지만, 수많은 트로이아인은 개와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오.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내 말을 듣는다면, 오늘 밤에는 집회 자리에 군대를 모아 두고, 성벽과 높은 성문, 그리고 그곳에 굳게 걸어 잠긴 높고 잘 닦인 문들로 도시를 지킵시다.

그러나 아침에 새벽이 오면 우리는 갑옷을 갖춰 입고 성벽 위에 서서 맞설 것이오. 만약 그가 배에서 나와 성벽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려 한다면, 그에게는 더욱 나쁜 일이 될 것이오."

"그는 도시 아래에서 헛되이 말을 몰며, 목이 높게 굽은 말들에게 앞뒤로 마음껏 달리게 한 뒤에야 다시 자신의 배들로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안으로 억지로 길을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도시를 파괴하지도 못할 것이오. 그전에 날랜 개들이 그를 집어삼킬 것이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눈썹 아래로 분노 섞인 눈길을 보내며 그에게 말했다.

“폴리다마스여, 그대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지 않소. 우리더러 물러가 성안에 갇혀 있으라 하니 말이오. 진실로 그대는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에 아직도 질리지도 않았단 말이오?

옛날에 모든 필멸의 인간들은 프리아모스의 도시가 가진 금의 풍요와 청동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소.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운 보물들은 집안에서 사라졌고, 위대한 제우스께서 노하신 이래로 수많은 재산이 프리기아와 아름다운 마이오니아로 팔려 나갔소.”

“이제 꾀가 음흉한 크로노스의 아들께서 나에게 배들 곁에서 영광을 얻고 아카이아인들을 바닷가에 몰아넣게 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이제 백성 앞에서 그런 생각을 내놓지 마시오.

트로이아인 가운데 누구도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소.

자, 내가 말하는 대로 모두 따릅시다. 지금은 군대 전체가 부대별로 저녁을 먹고, 파수를 잘 서며 모두 깨어 있도록 하시오.”

"자신의 재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트로이아인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내놓도록 하시오. 아카이아인들보다 그들이 그것으로 이득을 얻는 편이 더 나을 것이오.

하지만 아침에 새벽이 오면, 우리는 갑옷을 갖춰 입고 속이 빈 배들 곁에서 격렬한 전투를 일으킵시다. 만약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정말로 배들 곁에 나타난다면, 그가 원한다면 그만큼 그에게 더 나쁠 것이오."

"나는 고통스러운 전쟁으로부터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오. 그가 큰 승리를 거두든 내가 거두든,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오. 전쟁의 신은 모두에게 공평하며, 보시오, 그는 죽이려는 자를 죽이는 법이오."

이렇게 헥토르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자, 어리석은 트로이아인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다! 팔라스 아테나가 그들에게서 이성을 거두어 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헥토르의 잘못된 조언에 대해 모두 그를 찬양했으나, 폴리다마스는 좋은 계책을 내놓았음에도 아무도 그를 찬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대 전체가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아카이아인들은 밤새도록 파트로클로스를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그들 사이에서 펠레우스의 아들이 격렬한 애도를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손을 동료의 가슴 위에 얹고 수많은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그 모습은 마치 사슴 사냥꾼이 빽빽한 숲에서 새끼들을 앗아 간 갈기 무성한 사자 같았다. 사자는 그 뒤에 돌아와서 몹시 슬퍼하며, 만약 그 사냥꾼을 어디서든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발자취를 따라 수많은 골짜기를 울부짖으며 뒤쫓는다. 사자가 너무나도 지독한 분노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도 미르미돈인들 사이에서 무거운 신음을 내뱉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아, 그날 우리 집에서 용사 메노이티오스를 격려하며 내가 한 말은 참으로 헛된 말이었소. 내가 일리오스를 함락하면, 그의 빛나는 아들에게 제 몫으로 돌아갈 전리품을 얹어 오포에이스로 무사히 데려다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이오."

"그러나 제우스께서는 사람들의 뜻을 다 이루어 주지 않으시오. 우리 둘은 이곳 트로이아 땅에서 같은 흙을 피로 붉게 물들일 운명이오.

나도 집으로 돌아가 늙은 기사 펠레우스께도, 어머니 테티스께도 맞이를 받지 못하고, 바로 이곳 땅이 나를 붙잡을 것이오."

"그러나 파트로클로스여, 내가 그대 뒤를 따라 땅 밑으로 가게 될 것이니, 그대를 죽인 기개 높은 헥토르의 무구와 머리를 이리로 가져오기 전에는 그대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소.

그리고 그대가 죽은 데 대한 분노로, 그대의 화장 장작더미 앞에서 트로이아인의 빛나는 아들 열둘의 목을 베겠소."

"그때까지 그대는 이대로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 누워 있으시오. 가슴 깊은 트로이아와 다르다니아의 여인들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대 둘레에서 곡을 할 것이오. 우리 둘이 사람들의 부유한 도시들을 무너뜨릴 때 힘과 긴 창으로 애써 얻은 여인들이오."

이렇게 말하고,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동료들에게 큰 가마솥을 불에 올리라고 일렀다. 파트로클로스의 몸에서 엉긴 피를 어서 씻어 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목욕물을 채울 솥을 타오르는 불 위에 올리고 물을 부은 뒤, 나무 장작을 가져다 그 아래에서 불을 붙였다.

그러자 불길이 솥의 밑바닥을 휘감았고 물이 따뜻해졌다.
빛나는 청동 솥 안에서 물이 끓어오르자, 그들은
파트로클로스를 씻기고 기름을 듬뿍 발라주었으며, 아홉 해
된 연고로 그의 상처를 채워 주었다.

그리고 그를 침상에 눕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드러운
아마포로 덮은 뒤, 그 위에 흰 천을 덮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의 주변에서
미르미돈인들이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슬피 울며 통곡했다.

하지만 제우스가 그의 누이이자 아내인 헤라에게 말했다.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여, 그대가 결국 뜻을
이루었구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를 깨우고 말았소. 참으로
머리칼이 긴 아카이아인들은 그대의 자식들이 분명하구려."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무서우신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죽게 마련이고 저만큼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려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여신들 가운데 가장 높다고
자부합니다. 맏이로 태어났고, 모든 불멸의 신을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내라 불리니 말입니다. 그런 제가
트로이아인들에게 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꾸미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

한편 은빛 발의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집에 이르렀다.
썩지 않고 별처럼 빛나며 불멸의 신들의 집 가운데 으뜸인 그
집은, 다리가 굽은 신이 몸소 온통 청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녀가 가 보니, 헤파이스토스는 땀을 흘리며 풀무 곁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는 잘 지은 큰 방의 벽을 따라 둘러
세울 세발솥 스무 개를 만들고 있었다.

솥마다 밑에는 황금 바퀴를 달았는데, 그가 원하면 저절로
신들의 모임에 갔다가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물건이었다.

솥들은 거의 다 되었으나 정교한 손잡이는 아직 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마련하며 못을 벼리고 있었다.

헤파이스토스가 정교한 기술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은빛 발을 가진 여신 테티스가 그에게 다가왔다.

빛나는 베일을 쓴 카리스가 앞으로 나아와 테티스를 알아보았다. 그 아름다운 카리스는 두 팔이 억센 이름난 신의 아내였다.

카리스는 테티스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긴 옷의 테티스시여,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귀하고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전에는 좀처럼 오시지 않으셨는데.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대접할 것을 차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빛나는 여신은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러고는 은 장식을 박은 아름답고 정교한 의자에 앉히고, 발 아래에 발판을 놓아 주었다.

그리고 이름난 장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말했다.

"헤파이스토스여, 이리 나와 보시오. 테티스께서 당신을 찾으시오."

그러자 두 팔이 억센 이름난 신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몹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여신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구려. 내가 절름발이라고 숨기려 했던 뻔뻔한 어머니 때문에 멀리 떨어졌을 때, 괴로움에 빠진 나를 구해 준 분이시오.

에우리노메와 테티스가 나를 품에 받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몹시 고생했을 것이오. 에우리노메는 돌아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딸이오."

"나는 그들과 함께 속 깊은 동굴에서 아홉 해 동안 브로치와 나선 팔찌, 꽃 모양 장식과 목걸이 같은 정교한 물건을 많이 만들었소. 내 둘레로는 말할 수 없이 큰 물결, 오케아노스의 흐름이 거품을 일으키며 웅얼거리며 흘렀소.

신들도 인간들도 아무도 그것을 몰랐고, 나를 구해 준 테티스와 에우리노메만 알았소. 이제 테티스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 머리칼 고운 테티스께 목숨을 구해 준 값을 모두 갚아 드려야 하오."

"당신은 그분께 좋은 대접을 해 드리시오. 나는 풀무와 연장을 모두 치우겠소."

그가 그렇게 말하고 모루에서 일어났다. 거대한 몸집이 숨을 헐떡이며 절뚝거렸으나, 그 아래의 가느다란 다리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풀무를 불에서 멀리 치워 놓았고, 자신이 작업할 때 쓰던 모든 도구를 은 상자에 모아 담았다. 그리고 해면으로 얼굴과 두 손, 그리고 거대한 목과 털이 무성한 가슴을 닦아냈다.

그는 튜닉을 입고 튼튼한 지팡이를 쥐고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살아있는 처녀의 형상을 한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이 그들의 주인을 부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그 시녀들은 가슴속에 슬기를 품었고, 말도 하고 힘도 있었으며, 불멸의 신들에게서 솜씨를 받아 정교한 일을 할 줄 알았다. 그들은 주인을 부축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그는 절뚝거리며 테티스가 있는 곳 가까이 가서 빛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긴 옷의 테티스여, 어찌하여 우리 집에 오셨소? 귀하고 반가운 손님이시오. 전에는 좀처럼 오시지 않았는데."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시오. 내 마음은 그것을 이루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소. 만약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말이오."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대답했다.

“헤파이스토스여, 올림포스의 여신들 가운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나에게 남달리 안긴 것만큼 많은 슬픔을
마음에 견딘 여신이 또 있겠소?

바다의 딸들 가운데 오직 나만 인간에게,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에게 굴복시켰고, 나는 몹시 싫었지만 인간의
잠자리를 견뎠소.

그는 이제 괴로운 노년에 지쳐 궁전에 누워 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슬픔이 내게 닥쳤소.”

“그는 내게 아들을 낳아 기르게 했으니, 영웅들 가운데
으뜸인 그 아들은 어린나무처럼 쑥쑥 자랐소. 기름진
과수원의 나무처럼 그를 길러 뾰족한 이물을 단 배에 태워
일리오스로 보내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했소.

그러나 이제 그가 펠레우스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시는
맞이하지 못할 것이오. 그는 살아서 햇빛을 보는 동안에도
슬픔을 겪고 있고, 내가 가 보아도 그를 도울 수가 없소.”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그의 몫으로 골라 준 처녀를
아가멤논 왕이 그의 품에서 도로 빼앗아 갔소. 그는 그 처녀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을 끓였소.

그런데 트로이아인들이 아카이아인들을 배들의 고물 곁에 몰아넣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소.

아르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간청하며 훌륭한 선물을 많이 내놓았소. 그는 몸소 그들에게서 파멸을 막아 주기는 거절했으나, 파트로클로스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 싸움터로 보내고 많은 군사를 딸려 보냈소."

"그들은 온종일 스카이아이 성문 둘레에서 싸웠소.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이 큰 피해를 입힌 뒤 아폴론이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그를 죽여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날 도시를 함락했을 것이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대의 무릎에 매달리러 왔소. 곧 죽을 운명인 내 아들에게 방패와 투구, 발목 덮개가 달린 훌륭한 정강이받이와 흉갑을 만들어 줄 마음이 있다면 말이오."

"그가 전에 입던 무구는 그의 믿음직한 동료가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을 때 잃어버렸소. 그래서 내 아들은 마음이 괴로워 땅에 누워 있소."

그러자 두 팔이 억센 이름난 신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기운을 내시오. 그런 일로 마음 졸이지 마시오. 끔찍한 운명이 그를 덮칠 때 그를 처참한 죽음에서 멀리 숨겨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훌륭한 무구만은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소. 훗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보는 이마다 감탄할 무구를 말이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녀를 두고 풀무 있는 곳으로 가서, 풀무를 불 쪽으로 돌려 일하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모두 스무 개에 달하는 풀무가 도가니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온 힘을 다해 거센 바람을 내뿜었다. 이 바람은 헤파이스토스가 열심히 일할 때 그를 도왔고, 또한 헤파이스토스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업이 계속되도록 했다.

그는 불 속에 단단한 청동과 주석, 그리고 귀한 금과 은을 넣었다. 그러고 나서 모루 받침 위에 커다란 모루를 놓았고, 한 손에는 거대한 망치를, 다른 한 손에는 집게를 들었다.

그는 먼저 크고 견고한 방패를 만들었다. 방패의 모든 부분을 정교하게 장식하고, 그 둘레에는 세 겹으로 빛나고 번쩍이는 테두리를 둘렀으며, 그곳에 은 멜빵을 단단히 달았다.

방패 자체는 다섯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방패 위에 교묘한 기술로 수많은 기이한 문양들을 새겨 넣었다.

그 방패 위에 그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를 새겼다.

또한 지치지 않는 태양과 보름달을 새겼으며, 하늘을 장식하는 모든 별자리도 새겨 넣었다.

그 별자리에는 플레이아데스, 히아데스, 그리고 강력한 오리온이 있었고, 사람들이 수레라고도 부르는 곰자리도 있었다. 곰자리는 언제나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지만, 홀로 오케아노스의 물에 몸을 담그지 않는다.

그 방패 위에 그는 또한 필멸의 인간들이 사는 매우 아름다운 두 도시를 새겼다.

한 도시에는 결혼식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타오르는 횃불의 빛을 받으며 사람들은 신부들을 신방에서 이끌어 도시를 지나갔고, 결혼 축가가 크게 울려 퍼졌다.

젊은이들은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았고, 그들 사이에서는 피리와 리라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회 장소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두 남자가 죽은 사람의 피의 대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한 남자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밝히며 모든 것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남자는 무엇도 받기를 거부했다. 두 사람 모두 중재자의 말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쪽저쪽 모두에게 호의를 보이며 두 사람 모두를 응원했다. 전령들이 사람들을 저지하고 있었고, 원로들은 목소리 큰 전령들의 홀을 손에 든 채 신성한 원형 구역의 매끄러운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 홀을 들고 일어나 차례로 판결을 내렸다. 그 한가운데에는 황금 두 탈란톤이 놓여 있었는데, 가장 바른 판결을 내리는 이에게 줄 것이었다.

다른 도시 둘레에는 번쩍이는 무장을 한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두 가지 계책을 두고 의논했다.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 아름다운 도시가 품은 재물을 모두 반으로 나누어 받을지.

그러나 포위된 사람들은 결코 따르지 않고, 몰래 매복하려고 무장하고 있었다.

성벽 위에는 사랑하는 아내들과 어린 자식들, 그리고 늙은 남자들이 서서 지키고 있었다.

나머지는 아레스와 팔라스 아테나를 앞세워 나아갔다. 두 신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입은 옷도 황금이었다.

무장한 두 신은 신답게 아름답고 커서 다른 이들 사이에서 또렷이 보였고, 그 발치의 사람들은 작았다.

하지만 그들이 매복하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모든 가축이 함께 물을 마시는 강바닥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불타는 듯한 청동 갑옷을 입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군대에서 두 명의 정찰병을 따로 뽑아, 양 떼와 매끄러운 소 떼가 보이는지 기다리게 했다.

곧이어 양 떼가 나타났고, 두 명의 목자가 피리를 불며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매복해 있던 자들은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들은 소 떼와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양 떼를 재빨리 가로챘고, 목동들도 함께 죽였다.

한편, 회의 자리 앞에 앉아 있던 포위군은 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소란을 듣고는 즉시 발걸음이 가벼운 말들에 올라탔다. 그들은 그곳을 향해 곧장 달려가 그들에게 빠르게 접근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고 강가에서 싸웠으며, 청동 촉이 달린 창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내리쳤다.

그들 사이에서 불화와 소란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죽음의 운명도 함께했다. 운명은 갓 상처 입은 자를 산 채로, 상처 없는 자를 붙잡고, 죽은 자는 발을 잡아 난전 속으로 끌고 다녔다. 그녀가 어깨에 두른 옷은 사람들의 피로 붉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사람처럼 뒤섞여 싸웠고, 서로 상대편의 시신을 끌어당겼다.

그는 또 세 번이나 갈아엎은 넓고 기름진 부드러운 묵정밭을 새겼다. 그곳에서는 많은 쟁기꾼이 멍에를 돌리며 이리저리 소를 몰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서서 밭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 각 사람의 손에 꿀처럼 달콤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건네주었다. 쟁기질꾼들은 깊이 갈아엎은 밭의 끝자락에 닿기를 갈망하며 고랑 속에서 쟁기를 돌렸다.

밭은 뒤로 갈수록 검게 변하여 마치 정말로 갈아엎은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그 밭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작업의 위대한 경이였다.

그곳에는 또한 왕의 직영지도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일꾼들이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베고 있었다.

어떤 곡식들은 베어낸 줄을 따라 땅 위로 줄지어 떨어졌고, 다른 곡식들은 단을 묶는 이들에 의해 꼬인 짚줄로 묶였다.

그 곁에 단 묶는 이 셋이 서 있었고, 그 뒤에서 소년들이 곡식 줌을 모아 품에 안고 부지런히 단 묶는 이들에게 날라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왕이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베어낸 줄 곁에 침묵 속에 서서,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령들은 참나무 아래에 따로 모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인 커다란 황소를 손질하고 있었다.

여인들은 일꾼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그 고기 위에 흰 보리를 듬뿍 뿌렸다.

그곳에는 포도 송이가 무겁게 매달린 포도밭도 있었는데, 아름답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포도밭이었다. 포도는 검은색이었고, 포도 덩굴은 온통 은 기둥에 받쳐져 있었다.

그는 포도밭 주위에 검푸른 법랑으로 도랑을 둘렀고, 그 주위에는 주석 울타리를 둘렀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길만이 그곳으로 이어져 있어서, 포도 수확꾼들은 포도를 딸 때마다 그 길을 통해 오갔다.

소녀들과 청년들은 어린아이 같은 기쁨에 차서 꿀처럼 달콤한 열매를 고리버들 바구니에 담아 나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맑은 소리가 나는 리라로 즐거운 음악을 연주했고, 섬세한 목소리로 그에 맞춰 리노스의 노래를 달콤하게 불렀다. 그의 동료들은 그 음악에 맞춰 땅을 일제히 두드리며,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활기차게 발을 놀리며 뒤따랐다.

또한 그곳에는 뿔이 곧은 소 떼도 있었다. 소들은 황금과 주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외양간에서 나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가와 흔들리는 갈대밭 옆의 초원으로 서둘러 나아갔다.

소 떼 곁을 걷는 목자들은 네 명이었으며 모두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발이 빠른 아홉 마리의 개가 그들을 뒤따랐다.

하지만 무리 중 가장 앞선 소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사자 두 마리가 크게 울부짖는 황소를 붙들고 있었고, 황소는 힘차게 울부짖으며 사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으며, 개들과 젊은이들이 그 뒤를 쫓았다.

두 사자는 커다란 황소의 가죽을 찢어 놓았고, 황소의 내장과 검은 피를 먹어 치우고 있었다. 목자들은 빠른 사냥개들을 몰아 사자들을 겁주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사냥개들은 사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주저하며, 그 곁에 서서 짖어대거나 옆으로 뛰어오르기만 했다.

그곳에서 또한 두 팔이 강한 유명한 신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목장을 만들었다. 흰 털 양들의 넓은 목장에 양 우리와 지붕 덮인 오두막과 울타리가 있었다.

두 팔이 억센 이름난 신은 또 춤마당을 정교하게 새겼다. 옛날 다이달로스가 넓은 크노소스에서 머리칼 고운 아리아드네를 위해 만든 것과 같은 춤마당이었다.

그곳에서는 젊은이들과, 소를 많이 받을 만한 처녀들이 서로 손목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었다.

처녀들은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고, 젊은이들은 기름으로 은은히 빛나는 잘 짠 튜닉을 입었다. 처녀들은 아름다운 화관을 썼고, 젊은이들은 은 멜빵에 황금 단검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도공이 물레를 양손 사이에 두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 시험하듯, 아주 가볍고 교묘한 발놀림으로 빙글빙글 돌며 달렸다. 그러다가 다시 줄을 지어 서로를 향해 달려가기도 했다.

아름다운 춤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가 서서 그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두 명의 곡예사가 춤의 인도자로서 그들 사이를 위아래로 휘저으며 돌았다.

그는 또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패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오케아노스 강의 거대한 힘을 새겨 넣었다.

하지만 그가 크고 견고한 방패를 다 만든 뒤에는, 불꽃의 타오름보다 더 밝게 빛나는 흉갑을 그를 위해 만들었다.

또한 그는 그의 관자놀이에 꼭 맞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무거운 투구를 만들고, 그 위에 황금 볏을 달았다. 그리고 유연한 주석으로 된 정강이받이도 만들었다.

두 팔이 강한 그 영광스러운 신이 모든 갑옷을 다 만든
뒤에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녀는 헤파이스토스로부터 번쩍이는 갑옷을 가지고 눈 덮인
올림포스에서 매처럼 날아 내려왔다.

제19권

분노를 거두는 아킬레우스

이제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불멸의 신들과 필멸의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기 위해 오케아노스의 물줄기에서 떠올랐고, 테티스는 신에게 받은 선물을 들고 배들로 왔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이 파트로클로스를 껴안고 누워 크게 통곡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동료들이 무리 지어 울고 있었다.

그때 빛나는 여신이 그들 한가운데로 다가와 아킬레우스의 곁에 섰다. 그녀는 아킬레우스의 손을 잡고 말을 건네며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우리가 아무리 슬프더라도 이 사람은 이대로 두어야 한단다. 신들의 뜻에 따라 단번에 목숨을 잃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로부터 그 어떤 인간도 어깨에 메어 본 적 없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갑옷을 받아라."

여신은 이렇게 말하며 아킬레우스 앞에 무구를 내려놓았고, 무구는 모두 찬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모든 미르미돈인이 떨기 시작했고, 누구도 감히 그것을 쳐다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그 무구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은 마치 불꽃처럼 눈꺼풀 아래에서 무시무시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는 신이 준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품에 안으며 기뻐했다.

그는 그 빛나는 무구를 마음껏 바라보며 기뻐한 뒤, 곧바로 어머니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어머니, 신께서 주신 이 무구는 과연 불멸의 신의 솜씨답습니다. 필멸의 인간은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싸우러 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청동이 메노이티오스의 용맹한 아들의 시신에 낸 상처로 파리들이 들어가 구더기를 까고 시신을 욕되게 할까 몹시 두렵습니다. 이미 목숨이 떠났으니 살이 모두 썩어 버릴까 봐서입니다."

그러자 은빛 발의 여신 테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아들아, 그런 일로 마음 졸이지 마라. 싸움에서 죽은 사람을 뜯어 먹는 사나운 무리, 파리 떼를 내가 그에게서 막아 보겠다."

"그가 한 해 내내 누워 있다 해도 그의 살은 줄곧 온전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너는 아카이아의 용사들을 집회로 불러 모으고,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에게 품은 분노를 버려라. 그런 다음 서둘러 싸우러 무장하고 온몸에 용맹을 둘러라."

그렇게 말하며 테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꺾이지 않는 용기를 채워 주고, 파트로클로스에게는 살이 줄곧 온전하도록 콧구멍으로 암브로시아와 붉은 넥타르를 흘려 넣었다.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무섭게 외치며 바닷가를 따라 성큼성큼 걸어가 아카이아의 용사들을 일깨웠다.

전에는 늘 배들 곁에 머물던 이들, 배의 키를 잡던 키잡이들이나 양식을 나누어 주던 관리들까지 그때는 모두 집회로 모여들었다. 오랫동안 처참한 싸움을 멀리하던 아킬레우스가 나섰기 때문이다.

아레스의 시종인 두 사람, 싸움에 굳센 티데우스의 아들과 훌륭한 오디세우스도 절뚝이며 왔다. 그들은 상처가 아직 심해 저마다 창에 몸을 기대고 와서 집회 맨 앞에 앉았다.

맨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상처를 안고 왔다.
그도 격렬한 싸움에서 안테노르의 아들 코온의 청동 창에
찔렸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아카이아인이 모였을 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한 소녀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슬픔을 품고 영혼을 갉아먹는 다툼 속에서 분노했던 것이
그대와 나, 우리 둘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었단 말이오?

내가 리르네소스를 황폐하게 만든 뒤 전리품 중에서 그녀를
취했던 그날, 아르테미스가 배들 사이에서 화살로 그녀를
죽여 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랬다면 내가 사납게 분노한 탓에 그 많은 아카이아인이
적들의 손에 쓰러져 넓은 대지를 이로 깨무는 일도 없었을
것이오. 이 일은 헥토르와 트로이아인들에게나 좋았소.
아카이아인들은 나와 그대의 다툼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나 아무리 괴롭더라도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 둡시다.
어쩔 수 없으니 가슴속 마음을 억누릅시다."

"이제 나는 정말로 분노를 그치겠소. 언제까지나 끈질기게 노여워하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소. 자, 어서 머리칼 긴 아카이아인들을 싸움터로 일으키시오. 내가 다시 트로이아인들에게 맞서 나가, 그들이 아직도 배들 곁에서 밤을 지낼 마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겠소.

전쟁의 광기와 내 창을 피해 살아남는 자라면,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무릎을 굽혀 쉬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은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이 분노를 거두었기에 기뻐했다.

그들 가운데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한가운데로 나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말했다.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인 전사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서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고,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소. 아무리 말에 능한 사람이라도 힘든 일이오.

많은 사람이 떠드는 가운데서 누가 듣거나 말할 수 있겠소? 목소리 맑은 연설가도 막히고 마오.

나는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내 뜻을 밝히겠소. 다른 아르고스인들도 귀를 기울여 저마다 내 말을 잘 새겨 두시오."

"아카이아인들은 자주 내게 이 말을 하며 나를 탓하곤 했소. 그러나 잘못은 내게 있지 않소. 제우스와 운명, 그리고 어둠 속을 다니는 에리니스에게 있소.

그날 내가 오만하게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을 빼앗을 때, 그들이 집회 한가운데서 내 마음에 사나운 눈멂을 던졌던 것이오.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소? 모든 일은 신께서 끝맺으시는 법이오."

"모든 이를 눈멀게 하는 아테는 제우스의 맏딸로, 재앙을 부르는 여신이오. 그녀의 발은 부드러워 땅을 밟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옭아매오.

그녀는 한때 제우스조차 눈멀게 했소. 사람들은 그분이 신과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하지만 말이오. 여자의 몸인 헤라가 꾀를 써서 그분을 속였던 것이오. 알크메네가 성벽이 아름다운 테바이에서 강력한 헤라클레스를 낳으려던 날이었소."

"제우스께서는 모든 신들 앞에서 뽐내며 말씀하셨소. '모든 남신과 여신들아, 내 가슴속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할 테니 들어라. 오늘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이아가, 내 피를 이은 사람들 가운데서 둘레에 사는 모든 이를 다스릴 사내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러자 존귀한 헤라가 속셈을 품고 그에게 말했소.
'당신께서는 속이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끝내 이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올림포스의 신이시여, 지금 엄숙히 맹세해 주십시오. 오늘 한 여인의 발 사이로 떨어져 태어나는 자, 당신의 혈통을 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둘레에 사는 모든 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헤라가 이렇게 말했는데, 제우스께서는 그녀의 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큰 맹세를 하셨고, 그 일로 크게 눈멀고 마셨소."

"그러자 헤라는 올림포스 봉우리를 떠나 서둘러 내려가 아카이아의 아르고스로 갔소. 그곳에 페르세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의 고귀한 아내가 아들을 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오. 벌써 일곱 달째였소.

헤라는 달이 다 차기도 전에 그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고, 알크메네의 해산은 막아 에일레이티이아들을 붙잡아 두었소.

그러고는 몸소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 가서 알렸소. '아버지 제우스시여, 번쩍이는 번개의 주인이시여, 한 말씀 드리겠으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방금 아르고스인들을 다스릴 훌륭한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로, 당신의 혈통입니다. 그가 아르고스인들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날카로운 고통이 제우스의 깊은 가슴을 찔렀소. 그분은 몹시 노하여 곧바로 아테의 빛나는 머리채를 움켜잡고, 모든 이를 눈멀게 하는 아테가 다시는 올림포스와 별 총총한 하늘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엄숙히 맹세하셨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녀를 손에 쥐고 빙빙 돌려 별 총총한 하늘에서 내던지셨고, 그녀는 곧 사람들의 밭에 떨어졌소. 그 뒤로 제우스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에우리스테우스가 시키는 일로 부끄러운 고생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며 탄식하시곤 했소.

나도 그랬소.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배들의 고물 곁에서 아르고스인들을 쓰러뜨리고 있을 때, 애초에 나를 눈멀게 한 아테를 잊을 수가 없었소."

"그러나 내가 눈이 멀었고 제우스께서 내 분별을 빼앗으셨으니, 기꺼이 보상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배상을 하겠소.

자, 싸우러 일어나고, 그대의 다른 군사들도 일으키시오. 어젯밤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그대의 막사에 가서 약속한 선물들을 모두 여기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소.

아니면 그대가 원한다면, 싸우고 싶겠지만 잠시 기다리시오. 시종들이 내 배에서 선물을 가져다줄 것이니, 내가 그대 마음에 흡족할 만큼 준다는 것을 직접 보시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선물을 마땅한 대로 줄지, 아니면 주지 않을지는 그대에게 달렸소. 그러나 지금은 어서 싸움을 생각합시다. 여기서 말로 시간을 끌 때가 아니오."

"지체해서도 안 되오. 아직 큰일이 남아 있소. 많은 이들이 다시 아킬레우스가 맨 앞에서 청동 창으로 트로이아인들의 부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해야 하오. 그러니 그대들도 저마다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이를 명심하시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을 굶은 채로 일리오스로 몰아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게 하지는 마시오. 일단 군대의 대열이 맞붙고 신이 양쪽 군대에 힘을 불어넣으면, 싸움은 잠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아카이아인들에게 날랜 배들 곁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들라고 하시오. 거기에 용기와 힘이 있으니 말이오."

"음식도 먹지 않은 채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오. 마음속으로는 전투를 갈망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다리는 무거워지고 갈증과 허기가 찾아오며, 걸을 때마다 무릎은 기력을 잃기 마련이오.

하지만 포도주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온종일 적과 싸우는 자는 마음속에 기운이 넘치고 모든 이가 전투에서 물러날 때까지 팔다리도 지치지 않을 것이오."

“자, 군대를 해산시키고 그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시오. 그리고 선물에 관해서는,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것들을 집회 한가운데로 가져오게 하여 모든 아카이아인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대 또한 마음속으로 기뻐하게 하시오.”

“그리고 그가 아르고스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그 여인의 침상에 오른 적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법도대로 몸을 섞은 적도 없다고 그대에게 맹세하게 하시오. 왕이여, 그대도 가슴속 마음을 누그러뜨리시오.

그런 다음 그가 자기 막사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그대에게 보상하게 하여, 그대가 받을 몫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앞으로는 다른 이들에게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오. 만약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냈다면, 다른 이에게 보상하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오.”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그에게 다시 말했다.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그대의 말을 들으니 기쁘구려. 그대는 모든 사정을 적절하게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다 전했소. 나는 이 맹세를 할 준비가 되었고 내 마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신 앞에서 맹세를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전쟁을 갈망하더라도 잠시 이곳에 머물게 하고, 그대들 다른 이들도 모두 함께 기다려 주시오. 내 막사에서 선물을 가져오고 우리가 제물을 바치며 신의를 맹세할 때까지 말이오."

"그리고 그대에게는 이렇게 당부하고 명하오. 아카이아인 군대에서 으뜸가는 젊은이들을 골라, 어젯밤 우리가 아킬레우스에게 주기로 약속한 선물을 모두 내 배에서 가져오고 여인들도 데려오시오.

그리고 탈티비오스에게 일러, 아카이아인들의 넓은 진영 한가운데서 제우스와 태양께 바칠 멧돼지를 곧바로 마련하게 하시오."

하지만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가장 영광스러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그런 일은 다른 때에 힘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오. 싸움이 잠시 멎고 내 가슴속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 말이오.

지금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가 죽인 이들이 찢긴 채
누워 있소. 제우스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오.
그런데 그대들 두 사람은 우리더러 음식을 들라 하는구려!"

"진정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에게 굶주린 채 싸우라고 명령하고
싶소. 그러다 해가 질 무렵, 우리가 수치를 갚아준 뒤에야
그들을 위해 성대한 식사를 준비하겠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내 목구멍으로 음식도 술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내 동료가 죽었기 때문이오. 날카로운
청동에 맞아 처참하게 죽은 그가 내 막사에서 발을 문 쪽으로
향한 채 누워 있고, 그 주변에서는 우리 동료들이 슬퍼하고
있소.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은 결코 이런 일들에 가 있지 않소.
오직 적을 죽이는 것과 피,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가 있을 뿐이오."

그러자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아카이아인 가운데 단연 가장 강한 이여, 그대는 창으로는 나보다 낫고 훨씬 강하오. 그러나 지혜로는 내가 그대보다 훨씬 앞설 것이오. 내가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 말이오. 그러니 그대 마음이 참고 내 말을 들어 주시오.

사람들은 싸움에 금세 질리는 법이오. 싸움에서는 청동이 땅에 짚을 가장 많이 베어 눕히지만 거두는 낟알은 가장 적소. 인간의 싸움을 주관하시는 제우스께서 저울을 기울이실 때 말이오.”

“그러나 아카이아인들이 배를 곯는 것으로 죽은 자를 애도할 수는 결코 없소.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잇달아 쓰러지는데, 그러면 언제 수고를 쉴 수 있겠소?

죽은 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단 하루만 울고 나서 묻어 주어야 하오. 끔찍한 싸움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모두 먹고 마실 것을 챙겨야 하오. 그래야 굳센 청동을 몸에 두르고 적과 쉬지 않고 더욱 끈질기게 싸울 수 있소.”

“군대의 그 누구도 다른 부름을 기다리며 머뭇거리지 마시오. 부름은 바로 이것이오. 아르고스인들의 배 곁에 남겨진 자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오.

자, 한 무리가 되어 나아가 말들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을 상대로 격렬한 전투를 일으킵시다."

그가 말을 마치자, 영광스러운 네스토르의 아들들과 필레우스의 아들 메게스, 토아스, 메리오네스, 크레온의 아들 리코메데스, 그리고 멜라니포스가 그를 따랐다. 그들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로 향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가 약속한 대로 막사에서 세발솥 일곱 개를 가져왔고, 빛나는 솥 스무 개와 말 열두 마리를 가져왔다.

또한 그들은 솜씨 좋은 여인들을 신속하게 데리고 나왔다. 여인은 일곱 명이었고, 여덟 번째 여인은 뺨이 아름다운 브리세이스였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황금 열 탈란톤을 모두 달아 앞장섰고, 다른 아카이아 젊은이들이 그와 함께 선물을 날랐다.

그들은 선물을 집회 한가운데에 놓았다. 아가멤논이 일어섰고, 목소리가 신과 같은 탈티비오스가 손에 멧돼지를 든 채 백성의 목자 곁에 섰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큰 칼집 옆에 늘 매달려 있던 단검을 손으로 뽑아 멧돼지의 첫 털을 잘라 내고, 두 손을 들어 제우스에게 기도했다. 아르고스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마땅히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넓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신들 가운데 가장 높고 훌륭하신 제우스께서 먼저 증인이 되소서. 그리고 대지와 태양, 거짓 맹세한 자를 땅 밑에서 벌하시는 에리니에스께서도 증인이 되소서. 저는 처녀 브리세이스에게 잠자리를 핑계로든 다른 무엇으로든 손을 댄 적이 없고, 그녀는 제 막사에서 줄곧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이 맹세에 거짓이 있다면, 신들께서 거짓 맹세로 죄짓는 자에게 내리시는 숱한 재앙을 모두 제게 내리소서."

그는 말을 마치고 무자비한 청동 칼로 멧돼지의 목을 베었다.

탈티비오스는 그 사체를 빙빙 돌려 회색 바다의 거대한 심연 속으로 던져버렸고, 사체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을 사랑하는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당신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눈멂은 참으로 큽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제 가슴속 분노를 그토록 일으키지도, 제 뜻을 거슬러 처녀를 무정하게 끌고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아카이아인에게 죽음이 닥치기를 제우스께서 바라셨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대들은 식사하러 가시오. 그래야 싸움에 나설 수 있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회를 해산했다. 다른 이들은 저마다 제 배로 흩어졌으나, 기개 높은 미르미돈인들은 선물을 챙겨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의 배로 날랐다.

그들은 선물을 막사에 들여놓고 여인들을 그곳에 앉혔으며, 늠름한 시종들은 말들을 몰아 말 떼에 넣었다.

그때 황금빛 아프로디테 같은 브리세이스가 날카로운 청동에 찢긴 파트로클로스를 보고는 그를 끌어안고 크게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제 가슴과 부드러운 목과 아름다운 얼굴을 쥐어뜯었다.

여신 같은 그 여인이 울며 말했다.

"파트로클로스여, 가련한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이여,
막사를 떠날 때 살아 있던 그대를, 군대의 지도자여, 돌아와
보니 죽어 있구려. 이렇게 내게는 불행 위에 불행이 줄곧
닥치는구려.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 우리 도시
앞에서 날카로운 청동에 찢긴 것을 보았고, 한 어머니에게서
난 사랑하는 세 오라비도 모두 죽음의 날을 맞았소."

"그런데 그대는, 날랜 아킬레우스가 내 남편을 죽이고 신과
같은 미네스의 도시를 무너뜨렸을 때, 울지 말라 하며, 나를
아킬레우스의 정식 아내로 삼아 주겠다고, 그가 나를 배에
태워 프티아로 데려가 미르미돈인들 사이에서 혼례 잔치를
열어 줄 것이라고 했소. 그러니 언제나 다정했던 그대의
죽음을 끝없이 슬퍼하오."

그녀가 이렇게 울며 말하자, 여인들도 따라 곡을 했다.
겉으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지만, 저마다 제 슬픔
때문에 울었다.

하지만 아카이아인의 원로들이 아킬레우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신음하며 그들을 거절했다.

"내 사랑하는 전우들 중 누구라도 내 말을 들어준다면
간청하겠소. 내게 무서운 슬픔이 닥쳤으니, 때가 되기도 전에
음식이나 술로 내 마음을 채우라고 하지 마시오. 해가 질
때까지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머물며 견디겠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지도자들은 물러갔으나,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과 훌륭한 오디세우스, 네스토르와
이도메네우스, 그리고 전차를 모는 노인 포이닉스는 그의
극심한 슬픔을 달래 주려 남았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뛰어들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조금도 위로받지 못했다.

그는 그 생각을 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 가련한 그대, 나의 가장 소중한 동료여, 예전에는
아카이아인들이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에게 눈물겨운
싸움을 걸러 서두를 때면, 그대가 우리 막사에서 손수 재빨리
맛있는 식사를 차려 주곤 했소.

그런데 이제 그대는 찢긴 채 여기 누워 있고, 나는 그대가
그리워 음식과 술이 곁에 있어도 입에 대고 싶지 않소."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내게 없을 것이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해도 말이오. 아버지는 지금쯤 프티아에서 나 같은 아들을 곁에 두지 못해 굵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이오. 나는 남의 땅에서 끔찍한 헬레네 때문에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고 있으니 말이오.

스키로스에서 나를 위해 길러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신과 같은 네오프톨레모스가 아직 살아 있다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해도 이보다 더 괴롭지는 않을 것이오.”

“나는 지금껏 말을 기르는 아르고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트로이아 땅에서 나 혼자 죽고, 그대는 프티아로 돌아가리라 마음속으로 바랐소. 그대가 날랜 검은 배로 스키로스에서 내 아이를 데려가, 내 재산과 종들과 지붕 높은 큰 집을 모두 보여 주리라 여겼소.

펠레우스께서는 벌써 돌아가셨거나, 아직 살아 계신다 해도 힘없이 괴로운 노년에 시달리며, 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언제 올까 줄곧 기다리고 계실 것이오.”

그가 울며 이렇게 말하자, 원로들도 저마다 집에 두고 온 것들을 떠올리며 따라 울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크로노스의 아들이 보고 가엾게 여겨, 곧바로 아테나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내 딸아, 너는 네 용사를 아주 저버렸구나. 이제 네 마음에는 아킬레우스를 위한 자리가 없느냐? 저기 그가 뿔처럼 이물이 치솟은 배들 앞에 앉아 사랑하는 동료를 애도하고 있다. 다른 이들은 식사하러 갔는데, 그는 굶으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자, 가서 그의 가슴에 넥타르와 달콤한 암브로시아를 흘려 넣어, 허기가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이미 열의에 찬 아테나를 재촉했다. 아테나는 날개가 넓고 목소리가 날카로운 매처럼, 하늘에서 공중을 가로질러 그에게 내려앉았다.

아카이아인들이 진영 곳곳에서 전투를 위해 서둘러 무장을 갖추고 있을 때, 아테나는 아킬레우스의 사지에 고통스러운 허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그의 가슴에 넥타르와 달콤한 암브로시아를 부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는 위대한 아버지의 튼튼하게 지어진 집으로 돌아갔고, 아카이아인들은 날랜 배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마치 맑은 하늘에서 태어난 북풍이 몰아칠 때, 제우스가 내리는 차가운 눈송이가 빽빽하게 쉴 새 없이 흩날리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배들에서 빛나게 번쩍이는 투구와 돋을새김 방패, 두꺼운 판을 댄 흉갑, 물푸레나무 창들이 빽빽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 광채가 하늘까지 치솟았고, 번쩍이는 청동 빛에 온 땅이 웃는 듯했다. 사람들의 발밑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일었고, 그들 한가운데서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싸우러 무장했다.

그는 이를 갈았고, 두 눈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으며,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트로이아인들을 향한 격렬한 분노 속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수고를 들여 그를 위해 만든 신의 선물들로 무장을 했다.

그는 먼저 다리에 정강이받이를 찼다. 그것들은 아름다웠고 은으로 된 발목받이가 달려 있었다. 그다음에는 가슴에 흉갑을 입었다.

그는 은 장식 박힌 청동 칼을 어깨에 메고, 크고 튼튼한 방패를 들었다. 그 방패에서는 달빛 같은 광채가 멀리까지 뻗어 나갔다.

마치 바다 위의 뱃사람들에게 활활 타는 불빛이 보일 때와 같았다. 그 불은 산 위 외딴 목장에서 높이 타오르는데, 폭풍이 그들을 원치 않게 친구들에게서 멀리 물고기 많은 바다로 떠밀어 간다.

그처럼 아킬레우스의 아름답고 화려한 방패에서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는 거대한 투구를 들어 머리에 썼다. 말총 장식이 달린 그 투구는 마치 별처럼 빛났고, 헤파이스토스가 투구 장식 주위에 빽빽하게 박아 놓은 황금 술이 그 주위에서 물결쳤다.

아킬레우스는 갑옷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며 몸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갑옷은 마치 날개처럼 그에게 붙어, 백성의 목자인 그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받침대에서 아버지의 창을 뽑아 들었다. 무겁고 크고 튼튼한 그 창은 다른 아카이아인은 아무도 휘두르지 못하고 오직 아킬레우스만 다룰 줄 알았다. 케이론이 펠리온 꼭대기에서 베어 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준, 용사들을 죽이는 펠리온의 물푸레나무 창이었다.

아우토메돈과 알키모스는 부지런히 말들에게 멍에를 메웠다. 말들에게 아름다운 가슴띠를 두르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고삐를 뒤로 당겨 짜 맞춘 전차에 매었다.

아우토메돈은 손에 꼭 맞는 빛나는 채찍을 쥐었다. 그는 전차 위로 뛰어올랐다.

그 뒤를 이어 전투를 위해 무장한 아킬레우스가 뒤따라 올라탔다. 그는 갑옷을 입고 밝게 빛나는 히페리온처럼 번쩍였다.

그러고 나서 아킬레우스는 아버지의 말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크산토스야, 발리오스야, 포다르게의 이름난 자식들아, 싸움을 실컷 치른 뒤에는 마부를 다나오스인들의 군대로 무사히 데려올 궁리를 달리 해라. 파트로클로스처럼 그를 그곳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자 발이 날랜 말 크산토스가 멍에 아래에서 그에게 말했다. 크산토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자, 갈기가 멍에 받침 아래로 멍에 옆에 흘러내려 땅에 닿았다.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그에게 말할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아킬레우스시여, 이번에는 저희가 당신을 무사히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을 날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탓이 아니라 위대한 신과 거센 운명 때문입니다.

트로이아인들이 파트로클로스의 어깨에서 무구를 벗겨 간 것도 저희가 굼뜨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 머리칼 고운 레토가 낳은 분이 맨 앞 전사들 사이에서 그를 죽이고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둘은 사람들이 모든 바람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하는 서풍처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신과 인간의 손에 싸움터에서 쓰러질 운명입니다."

크산토스가 이렇게 말하자 에리니에스가 그의 목소리를 막았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크산토스야, 어찌 내 죽음을 예언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내 운명임을 나도 잘 안다. 그래도 트로이아인들이 싸움에 질리게 만들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함성을 지르며 통굽 말들을 맨 앞으로 몰았다.

제20권

신들의 싸움

이렇게 싸움에 물리지 않는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서 아카이아인들은 그대를 둘러싸고 싸우러 무장했고, 맞은편 트로이아인들도 평원의 둔덕 위에서 그렇게 했다.

한편 제우스는 골짜기 많은 올림포스 꼭대기에서 테미스에게 신들을 집회로 불러 모으라고 일렀다. 테미스는 사방으로 다니며 신들에게 제우스의 집으로 오라고 전했다.

오케아노스 말고는 오지 않은 강이 하나도 없었고, 아름다운 숲과 강의 샘과 풀이 우거진 초원에 사는 님프들도 빠짐없이 왔다.

제우스의 집에 이른 신들은 헤파이스토스가 아버지 제우스를 위해 솜씨 좋게 지은 매끈한 주랑에 앉았다. 이렇게 신들이 제우스의 집에 모였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도 여신의 부름을 흘려듣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와 그들에게 왔다. 그는 한가운데 앉아
제우스의 뜻을 물었다.

"번쩍이는 번개의 주인이여, 어찌하여 신들을 집회로
불렀소?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에 대해 무슨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오?"

"지금 그들의 싸움과 전투가 바로 눈앞에서 불붙고 있으니
말이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여,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들을 이리로
불러 모았는지, 내 가슴속 뜻을 그대는 알고 있소. 그들이
죽어 가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소.

그러나 나는 여기 올림포스의 골짜기에 앉아 머물며,
내려다보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겠소. 그대들 다른 신들은
모두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아인들 사이로 가서, 저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이편이든 저편이든 도우시오."

"아킬레우스가 홀로 트로이아인들과 싸운다면, 그들은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을 잠시도 막아 내지 못할 것이오.
전에도 그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떨곤 했소. 그런데 이제 그가
친구 때문에 무섭게 분노하고 있으니, 정해진 운명을
넘어서까지 성벽을 허물어뜨릴까 두렵소."

크로노스의 아들이 이와 같이 말하여 멈추지 않는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신들은 마음이 두 편으로 갈린 채 싸움터로 나아갔다. 헤라는
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고, 팔라스 아테나와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 그리고 마음의 꾀가 누구보다 뛰어난
조력자 헤르메스도 그녀와 함께 갔다.

자신의 힘을 뽐내며 헤파이스토스도 이들과 함께 갔는데,
그는 절뚝거렸으나 그 아래의 가느다란 다리는 민첩하게
움직였다.

트로이아인들 쪽으로는 투구가 번쩍이는 아레스가 갔고,
그와 함께 머리를 깎지 않은 포이보스, 활 쏘는 아르테미스,
레토와 크산토스, 웃음을 사랑하는 아프로디테가 갔다.

신들이 필멸의 인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아카이아인들이 크게 기세를 올렸다. 오랫동안 처참한
싸움을 멀리하던 아킬레우스가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은 갑옷을 입고 불꽃처럼 번쩍이는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 인간을 파멸시키는 아레스와 맞먹는
그를 보자, 저마다 겁에 질려 사지가 무섭게 떨렸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사람들의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군대를 부추기는 사나운 불화의 여신이 벌떡 일어섰다.

아테나는 크게 외쳤다. 어떤 때는 성벽 밖에 판 해자 곁에
서서, 어떤 때는 소리 높이 울리는 바닷가에서 큰 함성을
질렀다.

맞은편에서는 아레스가 검은 회오리바람처럼 무섭게 외쳤다.
어떤 때는 도성 꼭대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트로이아인들을 부르고, 어떤 때는 칼리콜로네 위
시모에이스 강가를 내달리며 외쳤다.

이처럼 복된 신들은 두 군대가 전투에서 충돌하도록
부추겼고, 그들 사이에서 참혹한 불화가 터져 나오게 했다.

그러자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무섭게 천둥을
쳤다. 포세이돈은 아래에서 거대한 대지와 가파른
산봉우리들을 뒤흔들었다.

샘이 많은 이다 산의 모든 뿌리와 모든 봉우리,
트로이아인들의 도시와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이 모두
흔들렸다.

땅 밑에서는 망자들의 왕 아이도네우스가 겁에 질렸다. 그는
겁에 질려 왕좌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머리 위의 땅을 갈라, 신들조차 몸서리치는 그
무섭고 곰팡내 나는 거처가 인간과 불사신들의 눈앞에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신들이 맞붙어 싸울 때 일어난 소리가 그토록 컸다.

포세이돈 왕에게는 날개 달린 화살을 든 포이보스 아폴론이
맞섰고, 에니알리오스에게는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맞섰다.

헤라에게는 황금 화살을 지니고 왁자한 사냥을 즐기는 활의
여신, 멀리 쏘는 신의 누이 아르테미스가 맞섰다.

레토에게는 힘센 조력자 헤르메스가 맞섰고,
헤파이스토스에게는 깊이 소용돌이치는 큰 강이 맞섰다.
신들은 그 강을 크산토스라 부르고, 인간들은
스카만드로스라 부른다. 이렇게 신들이 신들에게 맞서
나아갔다.

아킬레우스는 무리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와 맞붙기를 바랐다. 다른 누구보다도 헥토르의 피로, 질긴 소가죽 방패를 든 전사 아레스를 배불리라고 그의 마음이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를 부추기는 아폴론은 아이네이아스를 부추겨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맞서 나가게 하고, 그에게 큰 힘을 불어넣었다. 아폴론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카온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은 리카온의 모습으로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다.

“트로이아인들의 조언자 아이네이아스여, 그대가 트로이아의 왕들과 포도주를 마시며,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와 일대일로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치던 그 위협은 지금 어디로 갔소?”

그러자 아이네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여, 내가 내키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오? 내가 발 빠른 아킬레우스에게 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전에도 그가 우리 소 떼를 치러 와서 리르네소스와 페다소스를 함락했을 때, 창으로 나를 이다 산에서 몰아낸 적이 있소. 그때 제우스께서 내 힘을 북돋우고 무릎을 날래게 하시어 나를 구해 주셨소."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아킬레우스와 아테나의 손에 죽었을 것이오. 아테나는 늘 그보다 앞서 가며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청동 창으로 렐레게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을 죽이라고 그를 부추겼소.

그러니 어떤 사람도 아킬레우스와 맞서 싸울 수는 없소. 그의 곁에는 언제나 파멸을 막아 주는 신이 함께 있기 때문이오. 게다가 그의 창은 저절로 곧게 날아가, 사람의 살을 꿰뚫기 전에는 멈추지 않소."

"그러나 신께서 싸움의 결판을 공평하게 해 주신다면, 그가 온몸이 청동으로 되어 있다고 뽐낸다 해도 나를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그에게 대답했다.

"용사여, 자, 그대도 영원한 신들께 기도하시오. 사람들은
그대가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는 그보다 낮은 여신에게서 났다고 하오. 그대의 어머니는
제우스의 딸이고, 그의 어머니는 바다 노인의 딸이니
말이오."

"자, 그대의 굳센 청동 창을 곧장 그에게 겨누시오. 그가
경멸하는 말과 위협으로 그대를 결코 돌려세우지 못하게
하시오."

그렇게 말하며 아폴론은 백성의 목자에게 커다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불타는 청동 갑옷을 입고 선두의
전사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앙키세스의 아들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펠레우스의 아들을
마주하러 나아갈 때, 흰 팔의 헤라도 그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는 신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여, 그대들 둘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오. 보시오, 아이네이아스가
번쩍이는 청동을 두르고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맞서러
나섰소.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를 부추긴 것이오."

"자, 당장 그를 되돌려 보냅시다. 아니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아킬레우스 곁에 서서 그에게 큰 힘을 주고, 그의
가슴속 마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게 합시다. 그래야 그는
자기를 아끼는 이들이 불사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지금껏 트로이아인들에게서 전쟁과 싸움을 막아 준 자들은
바람처럼 헛된 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오."

"우리가 모두 올림포스에서 내려와 이 싸움에 끼어든 것은,
오늘만큼은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오. 그 뒤에는 어머니가 그를 낳던 날
운명의 여신이 실로 자아 준 운명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신의 목소리로 이것을 듣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신이 싸움터에서 그에게 맞설 때 겁을 먹을
것이오. 신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면 마주 보기가 어려운
법이오."

그러자 대지를 뒤흔드는 자 포세이돈이 그녀에게 대답했다.

"헤라여,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시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소.
나 역시 신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차라리 길에서 벗어나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가서
앉아 있읍시다. 전쟁은 인간들이 하게 둡시다."

"하지만 만약 아레스나 포이보스 아폴론이 싸움을 시작하거나, 아킬레우스를 저지하여 그가 전투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 즉시 우리에게서도 전쟁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오.

그리되면 머지않아 그들이 전투에서 물러나 올림포스로 달려가 다른 신들의 모임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오. 우리 손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검푸른 머리의 신은 신과 같은 헤라클레스의 높은 흙벽으로 앞장서 갔다. 그것은 트로이아인들과 팔라스 아테나가 헤라클레스를 위해 쌓아 준 높은 성벽으로, 바다 괴물이 그를 바닷가에서 평원으로 몰아붙일 때 그곳으로 피해 괴물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포세이돈과 다른 신들은 그곳에 앉아 찢을 수 없는 구름으로 어깨를 감쌌다.

다른 편 신들은 맞은편 칼리콜로네의 산마루에 앉았다. 활 쏘는 포이보스여, 그대와 도시를 무너뜨리는 아레스를 둘러싸고.

그들은 양편에 앉아 계책을 구상했으나,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제우스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참혹한 전쟁을 시작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평원 전체는 사람들과 말들로 가득 찼고 청동 빛으로 타올랐으며, 그들이 함께 돌진할 때 발밑에서 땅이 울렸다.

그때 모든 이들 중 단연 뛰어난 두 전사가 전투를 치르기 위해 두 군대 사이의 공간으로 서로를 향해 달려왔으니, 바로 앙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와 훌륭한 아킬레우스였다.

아이네이아스가 먼저 무거운 투구를 끄덕이며 위협하듯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사나운 방패를 가슴 앞에 들고 청동 창을 휘둘렀다.

맞은편에서는 펠레우스의 아들이 사자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사나운 사자를 죽이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자는 처음에는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길을 간다. 그러나 싸움에 날랜 젊은이 하나가 창을 던져 맞히면, 사자는 입을 벌리고 몸을 웅크린다. 이빨 사이로 거품이 흐르고, 가슴속에서는 용맹한 마음이 신음한다.

사자는 꼬리로 양쪽 갈비와 옆구리를 후려치며 싸우려고 스스로를 북돋운다. 그러고는 눈을 번득이며 노여움에 차서 곧장 덤벼든다. 사람을 하나 죽이든, 아니면 무리 맨 앞에서 제가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처럼 아킬레우스도 분노와 늠름한 기개에 떠밀려 기개 높은 아이네이아스에게 맞서 나아갔다.

그들이 서로 다가가 가까워지자,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먼저 아이네이아스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아스여, 어찌하여 무리에서 이토록 멀리 나와 내게
맞서 섰소? 말을 길들이는 트로이아인들 사이에서
프리아모스의 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로, 그대 마음이
나와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나를 죽인다 해도 프리아모스가 그 때문에
그대 손에 왕권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그 자신도 정신이 멀쩡하여 결코 경솔하지
않기 때문이오."

"아니면 그대가 나를 죽이면 차지하라고, 트로이아인들이
과수원과 밭이 딸린 좋은 땅을 남보다 뛰어난 몫으로 떼어
주기라도 했소? 그 일은 쉽지 않을 것이오. 내 기억으로는
전에도 내가 그대를 창으로 쫓아낸 적이 있소.

그대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대를 소 떼에게서 쫓아 이다의
산비탈을 정신없이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게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오? 그날 그대는 달아나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소."

"그대는 거기서 리르네소스로 달아났으나, 나는 아테나와
아버지 제우스의 도움을 받아 그곳을 쳐서 함락하고,
여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 자유의 날을 빼앗았소. 그대 자신은
제우스와 다른 신들 덕에 살아났지만 말이오.

그러나 오늘은 그대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대를 구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니 내가
충고하건대, 무슨 화를 당하기 전에 무리 속으로 물러나고
내게 맞서지 마시오. 일이 벌어진 뒤에는 바보라도 깨닫는
법이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말로 겁주려
하지 마시오. 나도 남을 조롱하는 말이나 점잖은 말씀은
얼마든지 할 줄 아오.

우리는 서로의 혈통과 부모를 알고 있소. 필멸의 인간들이
옛날에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오.
하지만 그대는 내 부모를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나 또한
그대의 부모를 본 적이 없소.

사람들은 그대가 비길 데 없는 펠레우스의 아들이며, 그대의 어머니는 바다의 딸인 머리채 고운 테티스라고 말하오. 하지만 나는 내가 기개 높은 앙키세스의 아들이며, 나의 어머니는 아프로디테라고 선언하오."

"오늘 이 두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게 될 것이오. 우리 둘이 어린아이 같은 말만 주고받다가 이대로 헤어져 싸움터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나 그대가 원한다면 이것도 들으시오. 그러면 내 혈통을 잘 알게 될 것이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소. 맨 처음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께서 다르다노스를 낳으셨고, 그가 다르다니아를 세웠소. 그때는 아직 필멸의 인간들이 사는 도시로서 신성한 일리오스가 평원에 세워지기 전이라, 사람들은 샘이 많은 이다 산기슭에 살고 있었소."

"다르다노스는 아들 에리크토니오스 왕을 낳았는데, 그는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소. 그에게는 늪지에서 풀을 뜯는 말이 삼천 마리나 있었소. 모두 암말로, 연한 망아지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했소."

"그 암말들이 풀을 뜯을 때 북풍이 반하여, 검은 갈기의 수말로 모습을 바꾸어 그들과 짝을 지었소. 암말들은 새끼를 배어 암망아지 열두 마리를 낳았소.

이 망아지들은 곡식을 내는 대지 위를 뛰어다닐 때면 잘 익은 이삭 끝을 밟고 달려도 이삭을 꺾지 않았고, 바다의 넓은 등을 뛰어다닐 때면 잿빛 바다의 부서지는 물결 꼭대기 위를 달렸소."

"그리고 에리크토니오스는 트로이아인들의 왕이 될 트로스를 낳았고, 트로스로부터 다시 세 명의 비길 데 없는 아들들이 태어났소. 일로스, 아사라코스, 그리고 필멸의 인간 중 가장 아름답게 태어난 신과 같은 가니메데스가 바로 그들이오.

가니메데스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신들이 그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제우스의 잔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였고, 불멸의 신들과 함께 살게 하였소.

일로스는 다시 비길 데 없는 아들 라오메돈을 낳았고, 라오메돈은 티토노스와 프리아모스, 클리티오스, 그리고 아레스의 후손인 히케타온을 낳았소. 아사라코스는 카피스를 낳았고, 카피스는 앙키세스를 낳았소. 앙키세스는 나를 낳았고, 프리아모스는 훌륭한 헥토르를 낳았소."

"이것이 내가 그 피를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혈통이오."

“하지만 용맹에 관해서라면, 모든 것 중 가장 강하신
제우스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용맹을 키워
주시거나 줄여 주시는 법이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둘이 전투의 한복판에 서서 더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맙시다. 우리 둘 모두가
서로에게 퍼부을 비난이 너무나 많소. 그 비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노 젓는 자리가 백 개인 배라도 그 짐을 견디지 못할
것이오.

필멸의 인간의 혀는 가볍고,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고,
말의 범위는 이쪽저쪽으로 끝없이 넓은 법이라오.”

“그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 또한 똑같이 듣게 될 것이오.

하지만 우리 둘이 여자들처럼 서로 다투고 언쟁을 벌일
필요가 무엇이겠소? 여자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싸움에 화가
치밀면 거리 한복판으로 나가 참과 거짓이 섞인 말로 서로
헐뜯곤 하오. 분노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키기
때문이오.

나는 전투를 갈망하고 있으니, 그대는 말로 나를 돌려세우려
하지 마시오. 우리가 청동 무기를 들고 대면하여 싸울 때까지
말이오. 자, 이제 당장 청동 촉을 단 창으로 서로를 시험해
봅시다.”

그가 말을 마치고 강력한 창을 던져 상대의 두렵고도 경이로운 방패를 겨냥하자, 창끝이 방패에 부딪히며 커다란 소리를 냈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튼튼한 손으로 방패를 앞세워 막아냈다. 그는 기개 높은 아이네이아스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이 방패를 쉽게 뚫어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리석게도 그는 신들이 내린 영광스러운 선물은 필멸의 인간이 다루기 쉽지 않으며,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과 정신으로 알지 못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네이아스의 강력한 창도 그때는 방패를 뚫지 못했다. 신이 내린 선물인 황금이 창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창을 두 겹의 층까지 밀어 넣었으나, 여전히 세 겹이 남아 있었다. 다리가 굽은 신이 다섯 겹을 두드려 붙여 놓았기 때문인데, 청동 두 겹과 그 안쪽의 주석 두 겹, 그리고 물푸레나무 창이 멈춰 선 황금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아킬레우스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던져, 아이네이아스의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맞혔다. 청동이 가장 얇게 둘러지고 소가죽도 가장 얇게 덧댄 맨 바깥 테두리 아래였다.

펠리온의 물푸레나무 창이 곧장 꿰뚫고 나가자 방패가 울렸다. 아이네이아스는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며 방패를 몸에서 멀찍이 내밀었다.

창은 그의 등 위로 날아가 그 기세로 땅에 꽂혔다. 그러나 몸을 감싸는 방패의 두 겹 테를 찢어 놓았다.

긴 창을 피한 아이네이아스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 위로 한없는 괴로움이 쏟아졌고, 창이 너무나 가까이 박힌 탓에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분노에 차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네이아스는 손에 돌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지금의 필멸의 인간 둘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돌이었으나, 그는 홀로서도 가볍게 그것을 휘둘렀다.

그때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재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아이네이아스는 달려드는 아킬레우스를 돌로
내리쳐 투구나, 처참한 파멸을 막아 준 그 방패를 맞혔을
것이고, 펠레우스의 아들은 바짝 다가가 칼로
아이네이아스의 목숨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곧바로 불사신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 기개 높은 아이네이아스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오.
그는 곧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죽어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갈
것이오. 멀리 쏘는 아폴론의 말을 따랐으니 참으로
어리석었소! 그 신은 그를 처참한 파멸에서 지켜 주지도 않을
것이오.

그러나 죄 없는 그가 어찌하여 남의 슬픔 때문에 헛되이
고난을 겪어야 한단 말이오? 그는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에게
늘 흡족한 선물을 바쳐 왔는데 말이오."

"자, 우리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 냅시다. 아킬레우스가 그를
죽이면 크로노스의 아들이 노할지도 모르오. 그는 살아남을
운명이오. 그래야 다르다노스의 혈통이 씨가 말라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크로노스의 아들은 필멸의
여인들에게서 얻은 모든 자식 가운데 다르다노스를 가장
사랑했소.

크로노스의 아들은 마침내 프리아모스의 혈통을 미워하게 되었소. 이제 힘센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아인들을 다스릴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그의 아들의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오."

그러자 소 같은 큰 눈의 존귀한 헤라가 그에게 대답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여, 아이네이아스의 일은 그대가 마음속으로 알아서 정하시오. 그를 구할지, 아니면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죽게 내버려 둘지 말이오.

팔라스 아테나와 나, 우리 둘은 불사신들 앞에서 여러 번 맹세했소. 트로이아인들에게서 재앙의 날을 결코 막아 주지 않겠다고 말이오. 트로이아 전체가 활활 타는 불길에 휩싸여 불타고, 싸움을 좋아하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불을 지를 때에도 말이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은 이 말을 듣고 싸움터와 날아다니는 창들 사이를 지나, 아이네이아스와 이름난 아킬레우스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곧바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눈에 안개를 쏟아붓고, 청동 날을 잘 단 물푸레나무 창을 기개 높은 아이네이아스의 방패에서 뽑아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고는 아이네이아스를 땅에서 번쩍 들어 높이 휘둘러 던졌다.

아이네이아스는 신의 손에서 날아올라 수많은 전사의 대열과 전차들 위를 넘어, 카우코네스인들이 싸우려고 무장하던 격전의 맨 끝자락에 내려섰다.

그때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그의 곁에 바짝 다가와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아이네이아스야, 대체 어느 신이 너를 이렇게 눈멀게 하여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과 맞붙어 싸우라고 시키더냐? 그는 너보다 강하고 불사신들에게도 더 사랑받는데 말이다."

"그러니 그와 마주칠 때마다 물러나거라. 그러지 않으면 운명을 넘어서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죽음과 운명을 맞고 나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맨 앞에서 싸워라. 다른 아카이아인은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포세이돈은 모든 것을 일러 준 뒤 그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킬레우스의 눈에서 신비한 안개를 걷어 냈다. 아킬레우스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니, 몹시 언짢아하며 자신의 기개 높은 마음에게 말했다.

"아, 참으로 놀라운 일을 내 눈으로 보는구나. 내 창은 여기 땅에 놓여 있는데,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그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네이아스도 정말 불사신들의 사랑을 받는 모양이다. 나는 그의 큰소리가 헛되고 부질없다고 여겼는데. 그냥 가라지!"

"그는 지금 죽음을 피한 것을 기뻐하고 있으니, 다시는 나를 시험해 볼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 자, 싸움을 좋아하는 다나오스인들을 불러 다른 트로이아인들에게 맞서 나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열을 따라 뛰어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쳤다.

"훌륭한 아카이아인들이여, 이제 더는 트로이아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지 마시오. 자, 사람마다 적에게 맞서 나아가 싸움에 힘을 쏟으시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모두와 싸우기는 힘든 일이오. 불사신인 아레스도, 아테나도
이런 싸움의 아가리를 애써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나 손과 발과 힘이 닿는 데까지는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소. 나는 저들의 대열을 곧장 뚫고
나가겠소. 트로이아인 가운데 내 창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북돋웠다. 한편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트로이아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이
아킬레우스에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이여, 펠레우스의 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도 말로라면 불사신들과도 싸울 수
있겠지만, 창으로는 어려울 것이오. 그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오.

아킬레우스도 자기 말을 다 이루지는 못할 것이오. 어떤 것은
이루겠지만 어떤 것은 중도에 꺾일 것이오. 그의 손이 불 같다
해도, 그의 손이 불 같고 그의 기세가 번쩍이는 쇠 같다 해도,
나는 그에게 맞서 나가겠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을 독려했다.

그러자 트로이아인들은 적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양측의 분노가 뒤섞여 격렬하게 충돌했고, 전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헥토르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헥토르야, 더는 아킬레우스에게 맞서 맨 앞에 나서지 마라. 대신 무리 속에 머물며 전투의 소란 속에서 그를 기다려라. 그가 창을 던지거나 근접전에서 칼로 너를 칠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헥토르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났다.

아킬레우스는 마음에 용맹을 두르고 무시무시하게 외치며 트로이아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는 맨 먼저 오트린테우스의 용맹한 아들로 많은 군사를 이끌던 이피티온을 죽였다. 그는 물의 요정 나이아스가 도시를 무너뜨리는 오트린테우스에게 낳아 준 아들로, 눈 덮인 트몰로스 산 아래 기름진 히데 땅에서 났다.

그가 곧장 달려들자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져 머리 한가운데를 맞혔고, 그의 머리는 둘로 완전히 쪼개졌다.

그가 쿵 하고 쓰러지자,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를 내려다보며 뽐냈다.

"오트린테우스의 아들아, 누구보다 무섭던 자야, 너는 이렇게 쓰러져 누웠구나. 너는 기가이아 호숫가, 네 조상의 땅에서 태어났다. 물고기 많은 힐로스 강과 소용돌이치는 헤르모스 강 가까이에서 말이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가 이렇게 뽐내는 동안 상대의 눈은 어둠에 덮였다. 그 시신을 아카이아인들의 전차가 싸움의 맨 앞에서 바퀴 테로 짓이겨 찢었다.

그다음 아킬레우스는 안테노르의 아들로 싸움을 굳게 막아내던 용맹한 데몰레온의 관자놀이를, 청동 뺨가리개를 단 투구째로 찔렀다.

청동 투구도 창을 막지 못했다. 창끝은 투구를 뚫고 들어가 뼈를 부수었고, 머릿속 뇌가 온통 흩어졌다. 그렇게 아킬레우스는 덤벼들던 그를 쓰러뜨렸다.

그다음 히포다마스가 전차에서 뛰어내려 앞에서 달아나자, 아킬레우스는 창으로 그의 등을 찔렀다.

히포다마스가 숨을 거두며 울부짖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헬리케의 왕의 제단 주위로 끌고 갈 때 울부짖는 황소의 소리와 같았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는 바로 그런 소리를 즐기기 때문이다. 그처럼 히포다마스도 늠름한 혼이 뼈를 떠날 때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창을 들고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의 아들, 폴리도로스를 뒤쫓았다.

그의 아버지는 폴리도로스가 싸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식들 중 막내였고 아버지의 눈에 가장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발이 매우 빨라 누구보다도 앞서 나갔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게도 발 빠름을 뽐내며 맨 앞 전사들 사이를 내달리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옆을 스쳐 달려가는 그에게 창을 던져 등 한가운데를 맞혔다. 허리띠의 황금 고리가 채워지고 흉갑이 겹쳐지는 곳이었다.

창끝은 그대로 뚫고 나가 배꼽 옆으로 나왔다. 폴리도로스는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고, 검은 구름이 그를 감쌌다. 그는 쓰러지면서 두 손으로 창자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헥토르가 자신의 형제 폴리도로스가 손으로 창자를 움켜쥔 채 땅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 위로 안개가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떨어져서 지켜볼 수 없었기에,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며 불꽃처럼 아킬레우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보자 벌떡 뛰어오르며 뽐내어 말했다.

"저기 내 가슴을 누구보다 깊이 찌른 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아끼던 동료를 죽인 자다. 이제 우리는 싸움터의 둑길에서 더는 오래 서로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눈썹 아래로 노려보며 훌륭한 헥토르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그래야 더 빨리 파멸의 올가미에 걸려들 테니."

그러나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말로 겁주려 하지 마시오. 나도 남을 조롱하는 말이나 점잖은 말씀은 얼마든지 할 줄 아오. 그대가 용맹하다는 것도, 내가 그대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일은 신들의 무릎 위에 놓여 있소. 비록 내가 더 약하다 해도 창을 던져 그대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오. 내 창끝도 전부터 날카로웠으니 말이오."

그가 말을 마치고 창을 겨누어 던졌으나, 아테나가 아주 가볍게 숨을 내쉬어 그 창을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로부터 돌려놓았다. 창은 훌륭한 헥토르에게 되돌아와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폴론이 신이 그러하듯 헥토르를 아주 쉽게 낚아채어 짙은 안개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러자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청동 창을 들고 세 번이나 덤벼들었으나, 세 번 다 짙은 안개만 찔렀다.

하지만 그가 신처럼 네 번째로 그에게 달려들었을 때, 아킬레우스는 무시무시한 함성을 지르며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이 개 같은 놈아, 네 파멸이 네게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네가 다시 한번 죽음을 피했구나. 하지만 포이보스 아폴론이 너를 다시 한번 구해주었으니, 네가 창들이 휘몰아치는 전장으로 갈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신이라도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만날 때 반드시 너를 끝장내고 말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마주치는 다른 자들을 쫓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킬레우스는 창을 찔러 드리오프스의 목을 쳤고, 드리오프스는 그의 발 앞에 쓰러졌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를 그곳에 버려둔 채, 용맹하고 키가 큰 필레토르의 아들 데무코스를 향해 창을 던져 그의 무릎을 쳤고 전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아킬레우스는 커다란 칼로 데무코스를 쳐서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다음 아킬레우스는 비아스의 두 아들인 라오고노스와 다르다노스를 공격하여, 한 명은 창을 던져 치고 다른 한 명은 근접전에서 칼로 쳐서 그들 둘 모두를 전차에서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때 알라스토르의 아들 트로스가 그의 무릎을 붙잡으러 다가왔다. 혹시 아킬레우스가 같은 나이인 자신을 가엾게 여겨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산 채로 놓아주지 않을까 해서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그는 아킬레우스가 애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그 사내는 결코 마음이 무르거나 온순하지 않고 몹시 사나웠다. 트로스가 애원하려고 두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으려 하자, 아킬레우스는 칼로 그의 간을 찔렀다. 간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거기서 솟구친 검은 피가 그의 가슴을 적셨다. 그는 정신을 잃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덮었다.

이어서 아킬레우스는 물리오스에게 다가가 창으로 그의 귀를 찔렀고, 청동 창끝은 반대쪽 귀로 곧장 빠져나갔다.

그다음 아킬레우스는 아게노르의 아들 에케클로스의 머리 한가운데를 자루 달린 칼로 내리쳤다. 칼날 전체가 피로 뜨거워졌고, 검은 죽음과 거센 운명이 그의 눈을 덮쳤다.

그다음 데우칼리온의 팔꿈치 힘줄이 이어지는 곳을 청동 창끝으로 꿰뚫었다. 데우칼리온은 팔이 축 늘어진 채 눈앞에 닥친 죽음을 보며 그를 기다렸다.

아킬레우스는 칼로 그의 목을 내리쳐 머리를 투구째 멀리 날려 버렸다. 척추에서 골수가 솟구쳤고, 시신은 땅 위에 길게 뻗었다.

그다음 그는 흙이 기름진 트라키아에서 온, 페이레오스의 훌륭한 아들 리그모스를 쫓아갔다. 창을 던져 몸 한가운데를 맞히자 청동이 배에 박혔고, 그는 전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의 시종 아레이토오스가 말을 돌려세우는 사이, 아킬레우스는 날카로운 창으로 그의 등을 찔러 전차에서 떨어뜨렸다. 말들은 놀라 날뛰었다.

마치 바짝 마른 산비탈의 깊은 골짜기를 타고 놀라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며 깊은 숲을 태우고, 바람이 그 불을 몰아붙여 사방으로 불꽃을 휘날리는 것과 같이, 아킬레우스는 마치 신처럼 창을 휘두르며 사방에서 맹렬히 날뛰었고, 그가 죽이는 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검은 땅은 피로 물들었다.

마치 사람이 이마 넓은 황소들을 멍에에 메워 잘 다진 타작마당에서 흰 보리를 밟게 하면, 크게 우는 황소들의 발굽 아래서 낟알이 금세 털려 나오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기개 높은 아킬레우스의 통굽 말들은 시신과 방패를 가리지 않고 짓밟았다.

말발굽과 바퀴 테에서 튄 핏방울이 전차 아래 굴대와 전차를 두른 난간을 온통 피로 적셨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의 무적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제21권

강가의 싸움

그들이 불사신 제우스가 낳은, 아름답게 흐르며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 강의 여울에 이르자,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한 무리는 평원을 가로질러 도시 쪽으로 몰았다. 바로 전날
영광스러운 헥토르가 날뛸 때 아카이아인들이 쫓겨 달아나던
곳이었다. 그쪽으로 한 무리가 허둥지둥 쏟아져 달아났고,
헤라는 그들을 가로막으려고 앞에 짙은 안개를 펼쳤다.

나머지 절반은 은빛 소용돌이가 치는 깊은 강물 속으로 몰려
들어갔다.

그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강물로 뛰어들었다. 가파른
물줄기가 울리고 사방의 강둑이 크게 울렸다. 그들은
소리치며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리저리 헤엄쳤다.

마치 불길이 덮쳐 오면 메뚜기 떼가 강으로 달아나려고
날아오르는데, 지칠 줄 모르는 불길이 갑자기 들이닥쳐
태우자 메뚜기들이 물속으로 움츠러드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킬레우스에게 쫓겨, 깊이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의
요란한 물줄기는 전차와 사람들로 뒤엉켜 가득 찼다.

제우스의 후손은 창을 강둑의 위성류 덤불에 기대어 두고, 칼
한 자루만 든 채 신처럼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음속에 끔찍한 일을 품고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칼에 맞은 자들에게서 소름 끼치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마치 입이 거대한 돌고래가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탐욕스럽게 잡아먹기에, 다른 물고기들이 겁에 질려
아름다운 정박지가 있는 어느 항구의 구석진 곳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트로이아인들도 가파른 강둑 아래 무시무시한
강의 흐름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데 손이 지쳤을 때, 죽은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피의 대가로 강물 속에서 살아있는
청년 열둘을 골라냈다.

그는 이들을 새끼 사슴처럼 넋이 나간 채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들이 부드러운 튜닉에 매고 있던 잘 꼰 가죽끈으로 손을 등 뒤로 묶어, 동료들에게 넘겨 속이 빈 배들로 끌고 가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죽이려고 몹시 서두르며 뛰어들었다.

거기서 그는 강에서 빠져나와 달아나던 다르다노스의 후손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카온과 마주쳤다.

전에 아킬레우스는 밤중에 아버지의 과수원에 나와 있던 리카온을 몸소 붙잡아, 그의 뜻을 거슬러 끌고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리카온은 전차 난간을 만들려고 날카로운 청동으로 야생 무화과나무의 어린 가지를 베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재앙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닥쳤던 것이다.

그때 아킬레우스는 그를 배에 실어 잘 지어진 렘노스로 데려가 팔았고, 이아손의 아들이 값을 치르고 그를 샀다. 그곳에서 임브로스의 에에티온이 큰 몸값을 치르고 그를 되사서 훌륭한 아리스베로 보냈다. 에에티온은 그와 손님으로 사귄 벗이었다. 리카온은 그곳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리카온은 렘노스에서 나와 친구들 사이에서 열하루 동안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열두째 날에 신이 그를 다시 아킬레우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킬레우스는 가기 싫어하는 그를 하데스의 집으로 보낼 참이었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투구도 방패도 없이 맨몸이었고 창도 없었다. 강에서 빠져나오려 애쓰느라 땀이 나서 괴로웠고 무릎은 지쳐 풀려 버렸기에, 그것들을 모두 땅에 내던졌던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몹시 언짢아하며 자신의 기개 높은 마음에게 말했다.

"아, 참으로 놀라운 일을 내 눈으로 보는구나!"

"내가 죽인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이 정말로 어두운 암흑 밑에서 다시 일어나겠구나. 이자가 신성한 렘노스로 팔려 갔는데도 무자비한 죽음의 날을 피해 이렇게 돌아왔으니 말이다. 수많은 사람을 그들의 뜻을 거슬러 붙잡아 두는 잿빛 바다의 깊은 물도 그를 막지 못했구나."

"자, 이번에는 내 창끝 맛도 보게 하자. 그래야 그가 땅 밑에서도 이렇게 돌아올지, 아니면 힘센 자도 붙잡아 두는 생명을 주는 대지가 그를 꽉 붙들어 둘지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러자 리카온이 넋이 나간 채 다가왔다. 그는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으려 했고, 끔찍한 죽음과 검은 운명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를 찌르려고 긴 창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리카온은 몸을 숙여 창 밑으로 달려 들어가 그의 무릎을 붙잡았다.

창은 그의 등 위로 지나가 땅에 꽂혔다. 사람의 살을 실컷 먹고 싶어 하면서도.

그러자 리카온은 한 손으로는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날카로운 창을 움켜쥐고 놓지 않은 채 날개 돋친 말로 애원했다.

"아킬레우스여, 무릎을 붙잡고 비오니 저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저는 당신에게 신성한 탄원자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잘 가꾼 과수원에서 저를 사로잡던 날, 저는 당신 곁에서 처음으로 데메테르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저를 아버지와 친구들에게서 멀리 끌고 가 신성한 렘노스에 팔았고, 저는 당신에게 소 백 마리 값을 벌어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세 배나 되는 값을 치르고 풀려났고, 숱한 고생 끝에 일리오스로 돌아온 지 오늘이 열두 번째 아침입니다. 그런데 몹쓸 운명이 다시 저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아버지 제우스께서 저를 다시 당신에게 넘겨주셨으니, 저는 그분께 미움을 받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머니 라오토에는 저를 짧은 목숨으로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노인 알테스의 딸입니다. 알테스는 사트니오에이스 강가의 가파른 페다소스를 차지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렐레게스인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프리아모스께서는 그분의 딸을 아내로 맞으셨고, 다른 아내도 많이 두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저희 둘이 태어났는데, 당신은 저희 둘 다 베어 죽이려 하십니다. 당신은 맨 앞 보병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폴리도로스를 날카로운 창을 던져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게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신이 저를 당신 가까이 데려왔으니, 당신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테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다정하고 용맹한 동료를 죽인 헥토르와 한 배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프리아모스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간청하는 말로 그에게 그렇게 말했으나, 그가 들은 목소리는 매우 거칠었다.

"어리석은 자여, 내게 몸값을 내밀지도 말고 말을 늘어놓지도 마라. 파트로클로스가 운명의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나도 트로이아인들을 살려 주는 것이 더 즐거웠고, 아주 많은 이들을 살려서 바다 건너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께서 일리오스의 성벽 앞에서 내 손에 넘겨주는 자라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트로이아인 모두 중에서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할 것이며, 프리아모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여, 너도 죽어라.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너보다 훨씬 뛰어났던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너는 내가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큰지 보이지 않느냐?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은 어머니는 여신이다.
그런 내게도 죽음과 거센 운명이 드리워져 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낮이든, 누군가 싸움터에서 내
목숨마저 빼앗을 날이 올 것이다. 창을 던져 맞히든, 시위에서
화살을 날려 맞히든 말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리카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창을 놓아버리고 두 손을 뻗은 채 웅크렸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그의 목 옆 쇄골을
내리쳤고, 양날 검이 깊숙이 박혔다. 그는 땅 위에 대자로
엎드러졌고, 검은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셨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발을 잡아 강물에 던져 떠내려가게 하고,
그를 비웃으며 날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이제 거기 물고기들 틈에 누워 있어라. 물고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네 상처의 피를 핥을 것이다. 네 어머니도
너를 상여에 눕히고 곡하지 못할 것이다. 소용돌이치는
스카만드로스가 너를 넓은 바다의 품으로 실어 갈 것이다.

많은 물고기가 물결 사이로 뛰어오르다 검은 잔물결 밑으로 달려들어 리카온의 흰 기름을 뜯어 먹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어 가라. 우리가 신성한 일리오스의 도시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달아나고 나는 뒤에서 너희를 쳐 죽일 것이다. 은빛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아름답게 흐르는 강도 너희를 지켜 주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그 강에 숱한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통굽 말들을 산 채로 소용돌이에 던져 넣었다 해도 말이다.

그래도 너희는 끔찍한 운명을 맞아 죽을 것이다. 내가 멀리 있는 동안 너희가 날랜 배들 곁에서 죽인 파트로클로스와 아카이아인들의 죽음의 값을 모두 치를 때까지 말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강은 마음속으로 더욱 노하여,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킬레우스의 손을 멈추게 하고 트로이아인들에게서 파멸을 막아 낼까 궁리했다.

그사이 펠레우스의 아들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들고, 죽이려고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 달려들었다.

아스테로파이오스는 펠레곤의 아들이었고, 펠레곤은 넓게 흐르는 악시오스 강과 아케사메노스의 맏딸 페리보이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깊이 소용돌이치는 강이 그녀와 동침했던 것이다.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아스테로파이오스는 두 자루의 창을 들고 그와 맞서기 위해 강에서 걸어 나왔다. 전투에서 죽은 젊은이들 때문에 분노한 크산토스가 아스테로파이오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킬레우스가 강가를 따라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며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며 가까워졌을 때,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먼저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 말을 건넸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왔기에 감히 내게 맞서 나오는 것이오? 자식이 내 힘에 맞서는 부모들은 불행한 법이오."

그러자 펠레곤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기개 높은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내 혈통을 묻소? 나는 멀리 떨어진 흙이 기름진 파이오니아에서 긴 창을 든 파이오니아인들을 이끌고 왔소. 일리오스에 온 지 오늘로 열하루째 아침이오.

내 혈통은 넓게 흐르는 악시오스에서 비롯되었소. 악시오스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오. 그가 창으로 이름난 펠레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내 아버지라고 하오."

“이제 싸움을 시작합시다,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여.”

그는 그렇게 위협하며 말했으나,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펠리온산 물푸레나무로 만든 창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하지만 전사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하는
자였기에,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내던졌다.

그는 한 자루의 창으로 방패를 쳤으나 방패가 뚫리지는
않았다. 신의 선물인 황금이 창을 막아 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창으로 아킬레우스의 오른쪽 팔뚝을 스치듯 쳤고, 검은
피가 솟구쳐 나왔다. 그러나 창끝은 아킬레우스의 위를
지나쳐 살을 실컷 먹고 싶어 하며 땅에 박혔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도 차례로 아스테로파이오스를 향해 곧게
날아가는 물푸레나무 창을 던졌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창은 그를 비껴가 높은 둑을 쳤고,
물푸레나무 창의 절반가량이 둑에 박혔다.

하지만 펠레우스의 아들은 허벅지 옆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고 분노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스테로파이오스는 튼튼한 손으로 아킬레우스의
물푸레나무 창을 둑에서 뽑아내려 했으나 뽑아내지 못했다.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창을 뽑아내려는 열망에 세 번이나 창을 흔들었으나, 세 번 모두 시도를 포기했다. 그러나 네 번째에는 그의 마음이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물푸레나무 창을 구부려 부러뜨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가까이 다가와 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배꼽 옆 복부를 찔렀고, 그의 내장이 모두 땅 위로 쏟아져 나왔다.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는 동안 어둠이 그의 눈을 뒤덮었다.

아킬레우스는 그의 가슴 위로 뛰어올라 무구를 벗기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로 누워 있거라!”

“강의 자손이라 해도 크로노스의 힘센 아들의 자손과 맞서 싸우기는 어려운 법이다. 너는 넓게 흐르는 강의 핏줄이라고 했지만, 나는 위대한 제우스의 혈통임을 자랑한다. 나를 낳은 아버지는 수많은 미르미돈인을 다스리는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이고, 아이아코스는 제우스에게서 났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들보다 제우스가 더 강하듯, 제우스의 핏줄도 강의 핏줄보다 더 강하다.”

"보라, 네 곁에 큰 강이 있다. 그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와 싸울 수는 없다. 아켈로오스 왕도 그와 겨루지 못하고, 모든 강과 모든 바다와 모든 샘과 깊은 우물이 흘러나오는 깊이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큰 힘도 그러지 못한다. 그런 오케아노스조차 위대한 제우스의 번개와, 하늘에서 터지는 무서운 천둥을 두려워한다."

그는 말을 마치고 강둑에서 청동 창을 뽑아 들었다. 그는 아스테로파이오스의 목숨을 앗아간 뒤, 그를 모래 위에 그대로 둔 채 떠났다. 검은 물결이 그를 적셨다.

그러자 장어와 물고기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콩팥 둘레의 기름을 뜯어 먹었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전차를 모는 파이오니아인들을 뒤쫓아 갔다. 파이오니아인들은 펠레우스의 아들의 손과 칼 아래서 자신들의 가장 뛰어난 전사가 격렬한 싸움 중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 소용돌이치는 강을 따라 패주하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거기서 그는 테르실로코스와 미돈, 아스티필로스, 므네소스, 트라시오스, 아이니오스, 오펠레스테스를 죽였다.

깊이 소용돌이치는 강이 노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소리를 내어 부르지 않았다면, 날랜 아킬레우스는 파이오니아인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다.

"아킬레우스야, 너는 힘으로도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끔찍한 짓도 누구보다 많이 저지르는구나. 신들이 몸소 언제나 너를 돕기 때문이다."

"크로노스의 아들이 네게 트로이아인들을 모두 죽이도록 허락했다 해도, 적어도 내 물줄기에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평원에서 그 끔찍한 짓을 해라. 보아라, 내 아름다운 물줄기가 시체로 가득 찼다. 네가 쉬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이는 탓에, 시체가 막혀 내 물을 반짝이는 바다로 흘려보낼 수도 없다. 자, 그만두어라. 군대의 지도자여, 나는 기가 막히는구나."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스카만드로스여,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트로이아인들을 그들의 도시에 몰아넣고, 헥토르와 맞붙어 그가 저를 죽일지 제가 그를 죽일지 겨루어 보기 전에는 죽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신처럼 트로이아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깊이 소용돌이치는 강이 아폴론에게 말했다.

“아, 은빛 활의 주인이여, 제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크로노스의 아들의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그는 저녁 늦게
뜨는 별이 나와 흙이 기름진 대지를 어둡게 할 때까지
트로이아인들 곁에 서서 그들을 도우라고 그대에게 단단히
일렀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창으로 이름난 아킬레우스가 강둑에서
강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강이 물결을 부풀려
그에게 덮쳐 왔다. 강은 모든 물줄기를 요란하게 뒤흔들어,
아킬레우스에게 죽어 강바닥에 수북이 누워 있던 수많은
시신을 휩쓸었다.

강은 황소처럼 울부짖으며 시신들을 뭍으로 내던지고, 살아
있는 자들은 깊고 넓은 소용돌이 속에 숨겨 아름다운 물줄기
아래에서 지켜 주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소용돌이치는 파도가 아킬레우스를
에워쌌고, 물줄기가 그의 방패를 내리치자 그는 뒤로 밀려나
발을 굳게 디딜 수도 없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모양이 좋고 키가 큰 느릅나무를 붙잡았으나, 나무는 뿌리째 뽑히며 강둑 전체를 휩쓸고 내려와 아름다운 물줄기 위로 굵은 가지들을 뻗으며 강물 속으로 쓰러져 강 자체를 막아버렸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소용돌이 속에서 튀어 올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빠른 발로 평원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그럼에도 위대한 신은 멈추지 않았다. 신은 검은 볏을 세운 파도를 몰아 아킬레우스를 몰아붙였다. 아킬레우스가 하는 일을 막아 세우고, 트로이아인들에게 닥칠 파멸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날개 달린 것들 중 가장 강하고 빠른 검은 독수리가 급강하하듯, 창 한 번 던질 거리만큼이나 멀리 되돌아 달아났다. 그는 독수리처럼 돌진했고, 그가 몸을 틀어 홍수 아래를 빠져나와 계속해서 도망칠 때 그의 가슴에서는 청동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강은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며 흐르며 그를 뒤쫓았다.

마치 물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어둑한 샘에서 물줄기를 끌어와, 손에 곡괭이를 들고 자기 나무들과 밭 사이로 흐르게 하며 수로의 둑을 치워내는 것과 같았다. 물이 흐를 때 그 아래의 모든 자갈이 함께 휩쓸려 내려가고, 물줄기가 속삭이는 소리를 내며 경사진 곳을 따라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며 인도하는 사람조차 앞질러 버리는 것과 같았다.

아킬레우스가 발이 아무리 빨랐어도 강물은 번번이 그를 따라잡았다. 신들은 인간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강을 막아 세우려 애쓰며,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신들이 자신을 패퇴시키려 몰아붙이는 것인지 알아내려 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린 물로 불어난 강의 거센 물결이 위에서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발을 구르며 높이 뛰어올랐으나, 강은 아래에서 격렬한 물결로 끊임없이 그의 무릎을 지치게 했고, 그의 발밑에서 땅을 앗아갔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통한 울부짖음을 내뱉었다.

“아버지 제우스여, 어찌하여 신들 중 그 누구도 이 가련한 처지에 놓인 저를 강물에서 구해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그 후에 제게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른 하늘의 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속인 사랑하는 어머니만을 원망할 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갑옷을 입은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아래에서 제가 아폴론의 빠른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라 거짓된 말로 저를 현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사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헥토르가 저를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용감한 자가 죽이고 용감한 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겨울에 개울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가는 돼지치기 소년처럼, 큰 강에 갇혀 비참하게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곧바로 포세이돈과 팔라스 아테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가와 그의 곁에 섰다.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말로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 가운데 대지를 뒤흔드는 포세이돈이 먼저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아, 너무 떨지도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팔라스 아테나, 우리 두 신이 너를 도우러 왔고, 제우스도 이를 허락했다. 그러니 네가 강에게 꺾일 운명은 아니다. 강은 곧 물러설 것이고, 너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따르겠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 주겠다. 달아나 살아남은 트로이아 군대를 이름난 일리오스 성벽 안에 몰아넣기 전에는 처참한 싸움에서 손을 떼지 마라."

"그리고 너는 헥토르의 목숨을 빼앗고 나면 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보아라, 우리가 네게 영광을 얻게 해 주겠다."

두 신이 이와 같이 말하고는 불사신들에게로 떠나갔다.

하지만 그는 평원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신들의 명령이 그를 강력하게 고무했기 때문이었다. 평원 전체는 물이 넘쳐흘러 가득 찼고, 그곳에는 많은 훌륭한 무기들과 전투에서 죽은 청년들의 시신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범람하는 물을 향해 곧장 돌진하며 무릎을 높이 치켜들었다. 넓게 흐르는 강물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아테나가 그에게 커다란 힘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스카만드로스도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더욱 노했다. 그는 몸을 높이 일으켜 물결을 높은 마루로 세우고 시모에이스에게 소리쳐 불렀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사내의 기세를 꺾읍시다. 이자가 곧 프리아모스 왕의 큰 도시를 무너뜨릴 것이오. 트로이아인들은 싸움에서 그를 버텨 내지 못할 것이오."

"자, 어서 도와주시오. 샘에서 물을 끌어와 물줄기를 채우고, 모든 개울을 일으키시오. 큰 물결을 일으키고, 통나무와 돌이 부딪는 요란한 소리를 일으키시오. 그래서 지금 기세를 떨치며 신들과도 겨루려 드는 이 사나운 사내를 우리가 막아 냅시다."

"그의 힘도, 잘생긴 모습도, 그 훌륭한 무구도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오. 그 무구는 깊은 물 밑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묻혀 있을 것이오. 그 자신은 내가 모래로 감싸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갈을 그 위에 쏟아부을 것이오. 내가 그를 그렇게 두꺼운 진흙으로 덮어 버리면, 아카이아인들은 그의 뼈를 어디서 거두어야 할지 모를 것이오.

바로 여기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니, 아카이아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따로 봉분을 쌓을 필요도 없을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킬레우스에게 거세게 덮쳐 왔다. 높이 솟구쳐 노하며 거품과 피와 시신으로 들끓었다. 하늘에서 내린 물로 불어난 강의 검붉은 물결이 높이 솟아올라 펠레우스의 아들을 덮치려 했다.

헤라는 깊이 소용돌이치는 큰 강이 아킬레우스를 휩쓸어 갈까 두려워 크게 소리쳤다. 그러고는 곧바로 사랑하는 아들 헤파이스토스에게 말했다.

"일어나거라, 다리가 굽은 내 아들아!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와 맞붙을 상대는 바로 너라고 우리가 생각했다. 자,
어서 돕고, 불길을 아낌없이 내뿜어라."

"나는 서둘러 바다에서 서풍과 맑게 하는 남풍의 사나운
돌풍을 일으키겠다. 그 바람이 끔찍한 불길을 몰아붙여
트로이아인들의 시신과 무구를 모조리 태워 버릴 것이다.
너는 크산토스의 강둑을 따라 나무들을 태우고 그를 불길로
에워싸라. 그가 부드러운 말이나 위협으로 너를 되돌려
세우지 못하게 해라. 내가 소리쳐 부르기 전에는 기세를
늦추지 말고, 내가 부르면 그때 지칠 줄 모르는 불을
멈추어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헤파이스토스는 무섭게 타오르는 불을
일으켰다.

먼저 평원에 불이 붙었다. 그 불은 아킬레우스에게 죽임을
당해 그곳에 빽빽하게 누워 있던 수많은 죽은 이들을 태웠다.
평원 전체가 메말라 버렸고, 맑은 물도 멈추었다.

수확기에 북풍이 갓 물을 준 과수원을 빠르게 다시 메마르게
하여, 그 과수원을 일구는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평원
전체가 메말랐고 죽은 이들은 완전히 타버렸다. 그러고 나서
헤파이스토스는 번뜩이는 불꽃을 강을 향해 돌렸다.

강의 아름다운 흐름 주위에 무성하게 자라나던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와 위성류가 타올랐다. 연꽃과 골풀과 방동사니도 타올랐다.

소용돌이 속의 뱀장어와 물고기들이 고통받았고, 그들은 꾀 많은 헤파이스토스의 불길에 심하게 괴로워하며 아름다운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큰 강도 불에 타며 신에게 말했다.

"헤파이스토스여, 그대와 겨룰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소. 그대가 불꽃에 휩싸여 있으니, 나 또한 그대와 싸우지 않겠소."

"그대는 다툼을 멈추시오. 트로이아인들에 관해서라면,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즉시 그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게 두시오. 내가 다툼이나 도움을 주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는 불에 타면서 이렇게 말했고, 그의 아름다운 물줄기는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마치 살진 돼지의 비계를 녹이는 가마솥이 아래에 마른 장작을 받치고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면, 안에서 사방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그의 아름다운 물줄기가 불에 타고 물이 끓어올랐다.

그는 더 흘러갈 마음도 없이 멈춰 섰다. 지혜로운 헤파이스토스의 거센 불길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간절히 빌며 헤라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헤라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아드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제 물줄기를 괴롭히려고 달려듭니까? 트로이아인들을 돕는 다른 신들에 비하면, 저는 당신께 그리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께서 명하신다면 저는 물러서겠습니다. 그도 물러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트로이아 전체가 활활 타는 불길에 휩싸여 불타고, 싸움을 좋아하는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이 불을 지를 때에도, 저는 결코 트로이아인들에게서 재앙의 날을 막아 주지 않겠습니다."

흰 팔의 여신 헤라는 이 간청을 듣고 곧바로 사랑하는 아들 헤파이스토스에게 말했다.

“헤파이스토스야, 그만두어라, 내 영광스러운 아들아. 인간들 때문에 불사신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헤파이스토스는 무섭게 타오르던 불을 껐고, 물결은 다시 아름다운 강바닥을 따라 흘러내렸다.

크산토스의 기세가 꺾이자 두 신은 싸움을 멈추었다. 헤라가 노여워하면서도 그들을 말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신들 사이에는 무겁고 괴로운 다툼이 일어났고, 그들의 가슴속 마음은 두 갈래로 갈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대한 소음을 내며 서로 충돌했고, 넓은 대지는 울려 퍼졌으며, 거대한 하늘 주위로는 나팔 소리 같은 울림이 울려 퍼졌다.

제우스는 올림포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신들이 다툼에 가담하는 것을 지켜보며 제우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신들은 더 이상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았다. 방패를 꿰뚫는 아레스가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청동 창을 들고 맨 먼저 아테나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개파리야, 너는 어찌하여 또 그 끝없는 뻔뻔함으로, 오만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신들끼리 싸움을 붙이느냐? 네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부추겨 나를 찌르게 하고, 너 자신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창을 잡고 곧장 나를 찔러 내 고운 살을 찢어 놓았던 일을 잊었느냐?”

“그러니 이제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그녀의 술이 달린 아이기스를 내리쳤다. 제우스의 번개조차 이겨낼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아이기스를, 피로 물든 아레스가 자신의 긴 창으로 내리쳤다.

그러나 아테나는 뒤로 물러나며, 평원에 놓여 있던 검고 들쭉날쭉하며 커다란 돌 하나를 튼튼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들판의 경계석으로 세워둔 것이었다.

아테나는 그 돌로 분노한 아레스의 목을 내리쳤고, 그의 사지를 풀어 놓았다. 아레스는 쓰러지며 일곱 이랑 길이만큼 몸을 뻗었고, 머리카락은 먼지로 더러워졌으며, 그의 몸에서 무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팔라스 아테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를 비웃으며 날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보다 얼마나 강한지 아직도 모르고 감히 나와 힘을 겨루느냐? 이렇게 해서 너는 네 어머니의 에리니에스에게 진 빚을 고스란히 갚는 것이다. 어머니는 네가 아카이아인들을 버리고 오만한 트로이아인들을 돕는다고 노하여 네게 재앙을 꾸미고 있다."

아테나가 이와 같이 말하고는 빛나는 눈을 돌려 아레스를 외면했다.

그러자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의 손을 잡고 그를 데려가려 했다. 아레스는 신음 소리를 내뱉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하지만 흰 팔의 여신 헤라가 아프로디테를 알아차리자, 즉시 아테나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아이기스를 든 제우스의 딸이여, 지치지 않는 자여, 이게 무슨 일이냐! 저 개파리가 또 인간을 파멸시키는 아레스를 끔찍한 싸움터에서 무리 사이로 데리고 나가는구나. 어서 뒤쫓아라."

헤라가 이렇게 말하자 아테나는 기뻐하며 뒤쫓아 갔다. 그녀는 아프로디테에게 달려들어 튼튼한 손으로 가슴을 내리쳤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두 신은 풍요로운 대지 위에 쓰러졌고, 아테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뽐내듯 날개 돋친 말을 내뱉었다.

"갑옷을 입은 아르고스인들에 맞서 싸우는 트로이아인들의 조력자들도 모두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기를! 아프로디테가 아레스를 돕기 위해 왔다가 나의 힘에 맞섰던 것처럼, 저들도 이토록 용감하고 꿋꿋하기를 바란다. 그랬다면 우리가 저 인구 많은 도시 일리오스를 함락시키고, 훨씬 오래전에 전쟁을 끝냈을 것 아니냐."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흰 팔의 여신 헤라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 포세이돈 왕이 아폴론에게 말했다.

"포이보스여, 왜 우리 둘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 것이오? 다른 이들이 이미 시작했으니, 이는 적절치 않소. 아니, 싸우지도 않고 청동 문턱이 있는 제우스의 집, 올림포스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 그대가 더 젊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나는 먼저 태어났고 아는 것도 더 많으니,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소. 어리석은 자여, 그대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무지하단 말이오!"

"그대 또한 우리 둘만이 모든 신들 중에서 일리오스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오? 제우스의
명령을 받고 가서, 정해진 임금을 받으며 위엄 있는
라오메돈을 일 년 동안 섬겼을 때의 일을 말이오. 그가 우리의
감독관이 되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소.

나는 트로이아인들의 도시가 결코 함락되지 않도록, 그 도시
주위에 넓고 매우 아름다운 성벽을 쌓았소. 그리고
포이보스여, 그대는 골짜기 많고 숲 우거진 이다 산의
기슭에서 걸음걸이가 느릿한 매끄러운 소 떼를 몰았소."

"하지만 마침내 즐거운 계절이 지나가며 우리의 임금 기간이
끝나갈 무렵, 무시무시한 라오메돈은 우리 둘에게 줄 모든
임금을 가로챘고, 위협적인 말과 함께 우리를 쫓아냈소.

그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 멀리 떨어진 섬들로
팔아넘기겠다고 위협했소. 게다가 마치 청동으로 우리 둘의
귀를 잘라버릴 것처럼 굴었소.

그리하여 우리 둘은 그가 약속하고도 주지 않은 임금 때문에
분노하며, 화가 난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이오."

"그대는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구려. 오만한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존경받는 아내들이 비참한 파멸 속에서 처참하게 멸망하도록 우리와 함께 애쓰지도 않는구려."

그러자 멀리 쏘는 아폴론 왕이 그에게 말했다.

"대지를 뒤흔드는 자여, 만약 내가 잎사귀처럼 지금은 불타는 생명으로 가득 차 들판의 열매를 먹다가도, 곧 시들어 죽어가는 가련한 존재들인 필멸의 인간들을 위해 그대와 싸운다면, 그대는 나를 결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어서 다툼을 그만둡시다. 그들이 스스로 싸우게 둡시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물러났다. 아버지의 형제와 싸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누이, 야생 짐승들의 여왕이자 거친 숲의 아르테미스가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며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다.

"멀리 쏘는 신이여, 그대는 달아나는구려! 포세이돈에게 승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다니!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바람처럼 쓸모없는 활을 들고 있는 것이오?"

"우리 아버지의 전당에서, 그대가 예전처럼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포세이돈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뽐내는 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구려."

그녀가 이렇게 말했으나, 멀리 쏘는 아폴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우스의 존엄한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올라, 활 쏘는 여신을 모욕하는 말로 꾸짖었다.

"이 대담하고 뻔뻔한 것아, 어찌 감히 내게 맞서려 드느냐? 네가 활을 지녔다 해도 나는 네가 힘을 겨루기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제우스가 너를 여인들에게 사자가 되게 하여, 마음대로 여인들을 죽이게 해 주었을 뿐이다. 산에서 짐승과 사슴이나 잡는 편이 너보다 강한 자들과 억지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정 원한다면 전쟁을 배워 보아라. 그대가 나의 힘에 맞서려 하니, 내가 얼마나 훨씬 더 강한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헤라는 왼손으로 상대의 양 손목을 붙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상대의 어깨에서 활과 그 장비들을 낚아챘다.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 무기들로 상대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귀 주변을 때렸다. 그러자 화살통에서 날랜 화살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여신은 울면서 헤라 앞에서 달아났다. 마치 매에게 쫓긴 비둘기가 우묵한 바위 틈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비둘기는 잡힐 운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처럼 아르테미스도 울면서 달아나며 활과 화살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다.

한편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레토에게 말했다.

“레토시여, 저는 결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의 아내들과 주먹을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불사신들 사이에서 큰 힘으로 저를 이겼다고 자랑하십시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레토는 먼지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굽은 활과 화살들을 거두어들였다.

딸의 활과 화살을 챙긴 그녀는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처녀는 올림포스로 가서 청동 문턱이 있는 제우스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향기로운 옷자락을 떨며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울었다. 크로노스의 아들인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품에 안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하늘의 신들 가운데 누가 지금 모든 이들 앞에서 네가 무슨 악행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이토록 함부로 대했느냐?"

그러자 아름다운 관을 쓰고 왁자한 사냥을 즐기는 여신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를 때린 것은 아버지의 아내, 흰 팔의 헤라입니다. 불사신들 사이의 싸움과 다툼은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포이보스 아폴론은 신성한 일리오스로 들어갔다. 잘 지어진 도시의 성벽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나오스인들이 정해진 운명을 넘어 바로 그날 성벽을 무너뜨릴까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다른 신들은 올림포스로 올라갔다. 어떤 신들은 분노에 차서, 어떤 신들은 크게 기뻐하며 올라가 검은 구름의 주인인 아버지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한편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아인들과 그들의 통굽 말들을 똑같이 죽이고 있었다.

불타는 도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넓은 하늘에 닿고, 신들의 분노가 그 연기를 몰아붙여 모든 이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이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아킬레우스도 트로이아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 주었다.

늙은 프리아모스는 하늘이 세운 성벽 위에 서서, 괴물 같은 아킬레우스와 그 앞에서 트로이아인들이 허둥지둥 쫓겨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신음하며 성벽에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성벽을 따라 있는 영광스러운 문지기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대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올 때까지 손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 두시오! 보시오, 아킬레우스가 저들을 몰아붙이며 바로 여기까지 다가왔소. 이제 참으로 비참한 일이 벌어질 것 같구려."

"하지만 저들이 성벽 안으로 모여들어 숨을 돌리게 되면, 그때는 빈틈없이 맞물리는 이중문을 다시 닫으시오. 저 불길한 자가 성벽 안으로 뛰어 들어올까 두렵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빗장을
밀어젖혔다. 성문이 활짝 열리자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폴론은 트로이아인들에게 닥칠 파멸을 막으려고
아킬레우스에 맞서 앞으로 뛰어 나갔다.

그동안 트로이아인들은 갈증에 목이 타고 평원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성과 높은 성벽을 향해 곧장 도망치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창을 휘두르며 그들을 맹렬히 몰아붙였다.
그의 마음에는 늘 격렬한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영광을
얻기를 갈망했다.

만약 포이보스 아폴론이 안테노르의 아들이자 비길 데 없는
용맹하고 굳건한 전사인 아게노르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아카이아인의 아들들은 높은 성문이 있는 트로이아를
함락시켰을 것이다.

아폴론은 아게노르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고 그 곁에
서서, 죽음의 무거운 손길이 그를 덮치지 않도록 막아 주었다.

아게노르는 참나무에 몸을 기댔고, 그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아게노르는 도시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를 알아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그렇게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어둡게 궁리했다. 그러고는 몹시 언짢아하며
자신의 기개 높은 마음에게 말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까. 다른 이들이 쫓겨 달아나는 저쪽으로
내가 힘센 아킬레우스를 피해 달아난다면, 그는 그래도 나를
따라잡아 겁쟁이인 나를 베어 죽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들을 아킬레우스 앞에 내버려 두고, 내
발로 성벽을 벗어나 일리오스의 평원 쪽으로 도망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다 산의 골짜기와 산기슭에 다다를 때까지
달아나 덤불 속에 숨는다면 말이다. 그러면 저녁에 강물에
몸을 씻고 땀을 식힌 뒤에 다시 일리오스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내게 이토록 말을 거는 것인가?"

"내가 도시를 등지고 평원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그가
알아채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가 빠른 발로 나를 쫓아와
붙잡는 일도 없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는 모든
필멸의 인간들보다 훨씬 강력하기에 죽음과 운명을 피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도시 앞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간다면 어떠하겠는가? 내 생각에 그의 육신 또한 날카로운 청동에 뚫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시 단 하나의 생명을 가졌으며, 사람들은 그를 필멸의 존재로 여긴다. 비록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말이다."

그렇게 말한 그는 아킬레우스가 다가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그의 용맹한 마음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고 싶어 했다.

마치 표범이 사냥꾼의 눈앞에서 깊은 덤불 속을 헤치고 나아갈 때,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사냥개의 짖는 소리를 듣고도 도망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냥꾼이 표범보다 앞서 나가 찌르거나 화살을 쏘아 표범을 맞힌다 해도, 표범은 창에 찔린 채로도 사냥꾼과 맞붙거나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분노를 멈추지 않는다.

위엄 있는 안테노르의 아들, 용맹한 아게노르도 아킬레우스와 겨루기 전까지는 도망치기를 거부했다. 그는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앞세우고 아킬레우스를 향해 창을 겨누며 크게 외쳤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오늘 위엄 있는 트로이아인들의 도시를 무너뜨리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겠구려.”

“어리석은 자여! 그 도시 때문에 앞으로도 숱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오. 그 안에는 용맹한 사내들이 많아서,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아들들을 앞에 두고 일리오스를 지키고 있소. 오히려 그대가 여기서 최후를 맞을 것이오. 그대가 아무리 무섭고 대담한 전사라 해도 말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묵직한 손으로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 창은 빗나가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무릎 아래 정강이를 맞혔고, 새로 만든 주석 정강이받이가 무섭게 울렸다.

그러나 청동 창은 맞고 튕겨 나왔을 뿐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신의 선물이 막아 냈던 것이다.

이번에는 펠레우스의 아들이 신과 같은 아게노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아폴론은 그가 영광을 얻도록 두지 않았다. 아폴론은 아게노르를 낚아채 짙은 안개로 감싸고, 싸움터에서 내보내 조용히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아폴론은 꾀를 써서 펠레우스의 아들을 트로이아 군사들에게서 떼어 놓았다. 멀리 쏘는 신이 모든 면에서 아게노르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아킬레우스의 발 앞에 섰기 때문이었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뒤쫓으려고 빠르게 달려들었다.

아킬레우스는 밀이 자라는 평원을 가로질러 그를 뒤쫓으며, 깊이 소용돌이치는 스카만드로스 강 쪽으로 그를 몰았다. 아폴론은 늘 조금만 앞서 달렸다. 아폴론이 꾀를 써서, 아킬레우스가 달리면서 언제라도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사이 쫓겨 달아나던 나머지 트로이아인들은 기뻐하며 무리 지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성은 그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도시와 성벽 밖에서 서로를 기다리며, 누가 혹시 탈출했는지 혹은 누가 싸움 중에 죽었는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발과 무릎 덕에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허겁지겁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제22권

헥토르의 죽음

이렇게 트로이아인들은 새끼 사슴처럼 쫓겨 도시 안으로 몰려 들어가, 아름다운 흉벽에 기대어 땀을 식히고 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달랬다. 그사이 아카이아인들은 방패를 어깨에 기울여 메고 성벽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헥토르는 끔찍한 운명에 옭아매여 일리오스와 스카이아이 문 앞,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아, 너는 필멸의 인간이면서 어찌하여 불사신인 나를 빠른 발로 쫓느냐? 너는 아직도 내가 신인 줄 모르고 쉬지 않고 날뛰는구나!"

"네가 쫓아 보낸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는 일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느냐? 그들은 벌써 도시 안으로 모여들었는데, 너는 이쪽으로 빗나가 있구나. 너는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니니까."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몹시 노하여 그에게 말했다.

"멀리 쏘는 신이여,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잔인한 자여, 너는 나를 속였다. 지금 나를 성벽에서 이쪽으로 돌려놓았으니 말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많은 자들이 일리오스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물어뜯으며 쓰러졌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게서 큰 영광을 빼앗고, 뒷날의 앙갚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손쉽게 구해 주었다. 내게 그럴 힘만 있다면 반드시 너에게 앙갚음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의기양양하게 도시 쪽으로 달려갔다. 마치 경주에서 상을 타는 말이 전차를 끌고 평원을 가볍게 힘껏 내달리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발과 무릎을 재게 놀렸다.

노인 프리아모스가 맨 먼저 평원을 가로질러 온몸을 번쩍이며 달려오는 그를 보았다. 그는 늦여름에 떠오르는 별과 같았다. 그 별은 한밤의 어둠 속 숱한 별들 사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데, 사람들은 그 별을 오리온의 개라고 부른다.

그 별은 가장 밝지만 불길한 징조여서, 가련한 인간들에게 숱한 열병을 가져온다. 그처럼 달려오는 아킬레우스의 가슴에서 청동이 번쩍였다.

노인은 신음하며 두 손을 높이 쳐들어 머리를 쳤다. 그러고는 신음하며 큰 소리로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며 애원했다. 아들은 아킬레우스와 싸우려고 기를 쓰며 성문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두 팔을 뻗으며 아들에게 애처롭게 말했다.

"헥토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저 남자를 홀로 상대하며 머물지 마라. 도와줄 이도 없이 있다가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 곧장 파멸을 맞이할까 두렵구나. 그는 참으로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자다.

그가 나만큼이나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다면 그가 매장되지 못한 채 누워 있을 때 개들과 독수리들이 재빨리 그를 뜯어먹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영혼에서 무서운 슬픔도 떠나갔을 것이다. 그는 용맹한 내 아들들을 여럿 죽이고 멀리 떨어진 섬들로 팔아넘겨 나를 아들 없는 처지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지금도 내 두 아들 리카온과 폴리도로스가 도시 안으로 모여든 트로이아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구나. 여인들 가운데 으뜸인 라오토에가 내게 낳아 준 아이들이다.

그 애들이 아직 적진에 살아 있다면 청동과 황금으로 몸값을 치러 되찾아 오마. 집에 그만한 재물은 있다. 이름 높은 노인 알테스가 딸에게 많은 선물을 딸려 보냈으니까."

"그러나 그 애들이 벌써 죽어 하데스의 집에 있다면, 그 애들을 낳은 나와 그 어미에게는 슬픔이 될 것이다. 그래도 다른 백성들의 슬픔은 짧을 것이다. 너마저 아킬레우스에게 죽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성벽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야 트로이아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할 수 있고,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큰 영광을 안겨 주지도, 너 자신이 소중한 목숨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이 가련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아버지 크로노스의 아들은 늙음의 문턱에서 나를 끔찍한 운명으로 죽게 할 것이다. 그 전에 나는 숱한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아들들은 죽어 가고, 딸들은 끌려가고, 보물 창고는 약탈당하고, 어린것들은 끔찍한 싸움 속에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며느리들은 아카이아인들의 잔혹한 손에 끌려가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군가 날카로운 청동으로 찌르거나 던져 내 사지에서 목숨을 빼앗으면, 굶주린 개들이 내 집 문간에서 나를 찢어발길 것이다. 내가 집에서 식탁 곁에 두고 길러 문을 지키게 한 그 개들이, 미쳐서 내 피를 핥고는 문간에 드러누울 것이다.

젊은이는 싸움터에서 죽어 날카로운 청동에 찢긴 채 누워 있어도 모든 것이 어울린다. 죽었다 해도 드러난 것은 무엇이든 아름답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늙은이의 흰 머리와 흰 수염과 부끄러운 곳을 개들이 욕보인다면, 그야말로 가련한 인간들에게 닥치는 가장 비참한 일이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머리의 백발을 뽑고 뜯어냈다. 그러나 그는 헥토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의 맞은편에서 어머니 또한 차례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슴을 드러내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에게 날개 돋친 말을 건넸다.

"헥토르, 내 아이야, 이 젖가슴을 보아 어미를 공경하고 불쌍히 여겨 다오. 내가 너를 달래려고 이 젖을 물린 적이 있다면 말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생각하여 성벽 안에서 저 적을 막아라. 그와 맞서러 앞에 나서지 마라. 그는 잔인한 자다. 그가 너를 죽이면, 내 몸에서 난 사랑스러운 새싹 같은 너를 나는 상여에 눕혀 곡하지도 못할 것이고, 많은 예물을 받고 시집온 네 아내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아르고스인들의 배 곁에서 날랜 개들이 너를 뜯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울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히 애원했으나 헥토르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아킬레우스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마치 산의 뱀이 독초를 먹고 무서운 노여움에 차서, 굴속에서 똬리를 틀고 무섭게 노려보며 굴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헥토르는 꺼지지 않는 용기로 물러서지 않고, 빛나는 방패를 튀어나온 성탑에 기대어 세워 두었다.

그러자 헥토르는 몹시 언짢아하며 자신의 기개 높은 마음에게 말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까. 내가 성문과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폴리다마스가 맨 먼저 나를 나무랄 것이다.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다시 일어선 이 끔찍한 밤에, 그는 트로이아인들을 도시로 이끌고 들어가라고 내게 권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따랐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나의 눈먼 어리석음으로 군대를 파멸로 몰아넣었음을 보았으니, 나는 트로이아인들이 부끄럽고, 긴 옷자락을 끌며 걷는 트로이아인 여인들도 부끄럽구나. 혹시라도 다른 비천한 자가 '헥토르가 제 힘을 믿고 군대를 파멸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니, 차라리 내가 아킬레우스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그를 죽인 뒤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도시 앞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편이 내게는 훨씬 나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돋을새김 방패와 무거운 투구를 내려놓고, 창을 성벽에 기대어 둔 채, 비길 데 없는 아킬레우스를 직접 맞이하러 가면 어떻겠는가? 그에게 헬레네를 주겠다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속이 빈 배들에 실어 트로이아로 가져온 모든 보물, 즉 이 분쟁의 시작이 된 그 모든 보물을 아트레우스의 아들들이 가져가도록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도시가 가진 모든 것을 아카이아인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시의 것들을 따로 떼어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말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트로이아인들에게 원로들의 맹세를 받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이 아름다운 도시가 안에 간직한 모든 보물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내가 그에게 다가가도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내가 무구를 벗어 놓으면 여자처럼 맨몸인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지금은 참나무나 바위 이야기를 늘어놓듯 그와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다. 총각과 처녀가, 총각과 처녀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듯 말이다.

차라리 어서 맞붙어 싸우는 편이 낫다. 올림포스의 신이 우리 둘 가운데 누구에게 영광을 줄지 알아보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리는 동안, 투구를 흔드는 전사 에니알리오스와 맞먹는 아킬레우스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오른 어깨 위로 무시무시한 펠리온의 물푸레나무 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몸을 두른 청동은 타오르는 불이나 떠오르는 해처럼 사방으로 번쩍였다.

헥토르는 그를 보자 떨림에 사로잡혀 더는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성문을 뒤로한 채 겁에 질려 달아났다. 펠레우스의 아들은 날랜 발을 믿고 그 뒤를 쫓았다.

마치 날개 달린 것들 가운데 가장 빠른 산속의 매가 떨고 있는 비둘기를 가볍게 덮치듯, 비둘기는 매를 피해 달아나고 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바로 뒤에서 끊임없이 덮치려 하며 마음은 비둘기를 낚아채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았다.

아킬레우스도 분노에 찬 채 곧장 달려갔고, 헥토르는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아래로 도망치며 다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망루를 지나 바람에 흔들리는 야생 무화과나무를 지나, 성벽 아래 수레길을 따라 계속해서 달아나다가 소용돌이치는 스카만드로스 강에 물을 대는 두 샘물이 솟아나오는 아름답게 흐르는 두 샘에 이르렀다.

한 샘물은 따뜻한 물이 흐르고 그곳에서는 마치 타오르는 불길에서처럼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다른 샘물은 여름철에도 우박이나 차가운 눈 또는 물이 얼어붙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다.

그 샘물 바로 옆에는 돌로 잘 다듬어 만든 넓고 아름다운 빨래터가 있었는데,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오기 전 평화로운 시절에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과 아름다운 딸들이 그곳에서 빛나는 옷을 빨곤 했다.

그곳에서 한 명은 도망치고 한 명은 뒤쫓으며 그들은 달려갔다.

앞에서는 훌륭한 사내가 달아나고, 그보다 훨씬 강한 자가 재빨리 뒤쫓았다. 그들은 달리기 시합에서 사람들이 상으로 내거는 제물 짐승이나 소가죽을 놓고 겨루는 것이 아니었다.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목숨을 놓고 달리고 있었다.

마치 상을 타는 통굽 말들이 반환점을 돌며 날쌔게 달리는 것과 같았다. 죽은 전사를 기리는 경기에 세발솥이나 여인 같은 큰 상이 걸려 있을 때처럼. 그처럼 두 사람은 날랜 발로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세 바퀴 돌았고, 모든 신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아라, 내가 아끼는 사람이 성벽 둘레로 쫓기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헥토르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는 골짜기 많은 이다의 봉우리에서, 또 어떤 때는 도성 꼭대기에서 나를 위해 소의 넓적다리를 숱하게 태워 바쳤다. 그런데 지금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날랜 발로 프리아모스의 도시 둘레를 돌며 그를 쫓고 있구나."

"자, 신들아, 잘 생각하고 의논해 보아라. 우리가 그를 죽음에서 구해 줄 것인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나 이제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손에 쓰러지게 할 것인지."

그러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말했다.

"오, 아버지, 밝은 번개와 어두운 구름의 주인이시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운명에 의해 오래전에 죽을 운명이 정해진 필멸의 인간을, 당신께서는 다시금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구해내려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만 우리 다른 신들은 모두 그 뜻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자 제우스가 그녀의 말에 대답했다.

“트리토게네이아, 사랑하는 내 딸아, 기운을 내거라. 내가 결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뿐이란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더는 망설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며 제우스는 이미 간절히 원하고 있던 아테나를 재촉했고,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내려갔다.

한편 헥토르는 쉼 없이 추격해 오는 발 빠른 아킬레우스에게 쫓기고 있었다.

마치 산에서 사냥개가 은신처에 있던 새끼 사슴을 깨워 골짜기와 숲 사이로 쫓아가는 것과 같았다. 사슴이 잠시 동안 덤불 아래로 몸을 웅크려 피한다 해도, 사냥개는 끝내 그 흔적을 찾아내어 사슴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과 같았다. 헥토르 역시 펠레우스의 아들, 발 빠른 아킬레우스를 피할 수 없었다.

헥토르가 잘 지어진 성벽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르다니아의 성문으로 곧장 달려가려 할 때마다, 위에서 동료들이 화살을 쏘아 그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킬레우스는 그보다 앞서 움직여 헥토르를 다시 평원으로 돌려보냈고, 아킬레우스 자신은 도시의 성벽을 따라 속도를 내며 쫓아갔다.

마치 꿈속에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려 애써도 소용없고, 쫓는 자는 쫓으려 애써도 소용없는 것처럼, 아킬레우스도 헥토르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헥토르 역시 도망칠 수 없었다.

아폴론이 비록 마지막이자 가장 늦은 순간이었으나, 헥토르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힘을 북돋우고 무릎을 빠르게 만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헥토르가 어찌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그는 동료들이 헥토르에게 독한 화살을 퍼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이가 헥토르를 쳐서 영광을 차지하고 자신은 너무 늦게 도착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네 번째로 샘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버지 제우스가 황금 저울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그 저울 위에 아킬레우스와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를 위한, 비통한 죽음이라는 두 운명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저울의 중앙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러자 헥토르의 파멸의 날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하데스로 떠나갔고, 포이보스 아폴론도 그를 떠났다.

그때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다가와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제우스가 아끼는 영광스러운 아킬레우스야, 이제야말로 우리 둘이 싸움에 물리지 않는 헥토르를 죽여 아카이아인들을 위해 큰 영광을 배들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멀리 쏘는 아폴론이 아이기스를 든 아버지 제우스 앞에 엎드려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말이다."

"너는 이제 멈춰 서서 숨을 돌려라. 내가 가서 저 사내가 너와 맞붙어 싸우도록 설득하겠다."

아테나가 이렇게 말하자 아킬레우스는 기뻐하며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청동 촉을 단 물푸레나무 창에 몸을 기대고 섰다.

아테나는 그를 떠나, 모습도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도 데이포보스와 똑같이 하고 훌륭한 헥토르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형님, 아킬레우스가 분명 그대를 괴롭히고 있구려. 그가 빠른 발로 프리아모스의 도시 주위를 돌며 그대를 뒤쫓고 있소. 자, 우리 여기 버티고 서서 그의 공격을 막아 냅시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그녀에게 말했다.

"데이포보스여, 진실로 예전에 그대는 헤카베와 프리아모스 사이에서 태어난 내 형제들 중 단연 가장 소중한 이였소. 하지만 이제 나는 그대를 마음속으로 더욱 존경하게 될 것 같구려. 다른 이들은 성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대는 나를 보고서 나를 위해 성벽 밖으로 나오는 용기를 내었으니 말이오."

그러자 눈빛이 번뜩이는 여신 아테나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형님,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께서, 그리고 둘레의 동료들까지 번갈아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게 간절히 빌었소. 그들 모두 그토록 아킬레우스를 두려워한다오. 그러나 내 마음은 쓰라린 슬픔으로 몹시 괴로웠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에게 곧장 달려들어 싸웁시다. 창을 아끼지 말고 휘둘러서, 아킬레우스가 우리 둘을 죽이고 우리의 피 묻은 전리품을 속이 빈 배들로 가져갈지, 아니면 혹시 그대의 창에 그가 패배할지 확인해 봅시다."

아테나는 이런 말과 꾀로 그를 이끌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전진하며 가까워졌을 때, 투구가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먼저 아킬레우스에게 말했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전에는 프리아모스의 거대한 도시 주위를 세 번이나 돌며 그대에게서 도망쳤고, 그대의 공격을 견뎌낼 마음도 없었으나, 이제 더는 그대에게서 도망치지 않겠소. 내가 그대를 죽이든 내가 죽임을 당하든, 이제 내 영혼이 내게 서서 그대를 마주하라고 명령하고 있소."

"하지만 이리로 오시오. 신들을 증인으로 부릅시다. 신들이야말로 우리의 약속을 지켜볼 가장 훌륭한 증인이자 수호자가 될 것이오. 만약 제우스께서 내게 힘을 주어 내가 그대를 이기고 그대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나는 그대에게 어떠한 비열한 모욕도 주지 않겠소. 아킬레우스여, 나는 그대의 영광스러운 무구를 벗겨 낸 뒤 시신은 아카이아인들에게 돌려주겠소. 그대 또한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눈썹 아래로 노려보며 그에게 말했다.

"헥토르야, 이 미친 자야, 내게 약속 따위는 말하지 마라. 사자와 사람 사이에 믿음의 맹세가 없고, 늑대와 새끼 양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서로 해칠 생각만 하듯, 너와 나도 친구가 될 수 없다. 우리 둘 중 하나가 쓰러져 질긴 소가죽 방패를 든 전사 아레스를 그 피로 배불리기 전에는, 우리 사이에 맹세란 없다."

"온갖 용맹을 다 떠올려라. 이제야말로 너는 창잡이답게, 겁 없는 전사답게 싸워야 한다. 너는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다. 이제 곧 팔라스 아테나가 내 창으로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네가 창을 휘두르며 미쳐 날뛰다 죽인 내 동료들 때문에 내가 겪은 모든 슬픔의 값을 이제 한꺼번에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졌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헥토르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창을 피했다. 그는 제때에 알아차리고 몸을 웅크렸기에, 청동 창은 그의 위로 날아가 땅에 박혔다.

하지만 팔라스 아테나가 그 창을 집어 들어, 백성의 목자인 헥토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아킬레우스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헥토르가 펠레우스의 비길 데 없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빗나갔소. 신과 같은 그대가
제우스로부터 나의 운명을 전해 듣지 못한 모양이구려.
그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오.”

“그대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교활한 자였을 뿐이오. 내가
그대를 두려워하여 내 힘과 용기를 잊게 하려던 것이오. 내가
달아날 때 그대가 내 등에 창을 꽂지는 못할 것이오. 신이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면, 내가 덤벼들 때 내 가슴을 곧장
꿰뚫어 보시오.

이번에는 그대가 내 청동 창을 피해 보시오. 이 창이 그대
몸에 통째로 박히면 좋겠소! 그대만 죽는다면
트로이아인들에게 이 전쟁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오.
그대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재앙이니 말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을 겨누어
던졌다. 창은 빗나가지 않고 펠레우스의 아들의 방패
한가운데를 맞혔으나, 방패에서 멀리 튕겨 나갔다.

헥토르는 날랜 창이 손에서 헛되이 날아가 버리자 노했고,
다른 물푸레나무 창이 없어 낙담하여 서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흰 방패의 데이포보스를 불러 긴 창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데이포보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헥토르는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말했다.

"아, 신들이 정말로 나를 죽음으로 불렀구나. 나는 용사 데이포보스가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성벽 안에 있고 아테나가 나를 속였다. 이제 끔찍한 죽음이 더는 멀지 않고 바로 곁에 와 있다. 피할 길도 없다."

"제우스와 멀리 쏘는 그의 아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전에는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곤 했지만, 이제는 끝내 내 운명이 나를 덮쳤다. 그러나 나는 싸우지도 않고, 아무 영광도 없이 죽지는 않겠다. 뒷날 태어날 사람들까지 전해 들을 큰일을 해내고 나서 죽겠다."

그렇게 말하며 헥토르는 옆구리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을 뽑았다. 그것은 크고 강력한 칼이었다.

헥토르는 몸을 가다듬고, 마치 검은 구름을 뚫고 평원으로 내려와 연약한 어린 양이나 움츠린 토끼를 낚아채려는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급강하했다.

아킬레우스는 사나운 분노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방패로 가슴 앞을 가리고, 빛나는 네 뿔 달린 투구를 흔들었다.
헤파이스토스가 투구의 볏 주위에 두껍게 장식해 놓은 황금 술이 투구 주위에서 아름답게 휘날렸다.

밤의 어둠 속에서 별들 사이에 나타나는 별처럼,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리 잡은 저녁별처럼, 아킬레우스의 오른손에 들린 날카로운 창에서 번뜩이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아킬레우스는 훌륭한 헥토르에게 재앙을 내릴 궁리를 하며, 그의 고운 살결 가운데 어디가 가장 찌르기 쉬운지 살폈다.

그의 나머지 살결은 모두 청동 갑옷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강력한 파트로클로스를 죽였을 때 그에게서 벗겨낸 훌륭한 갑옷이었다.

하지만 쇄골이 목과 어깨를 나누는 곳, 즉 생명이 가장 빠르게 끊어지는 곳인 목구멍 부위에는 틈이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그곳을 향해 돌진하며 창을 내질렀고, 창끝은 부드러운 목을 그대로 관통했다.

하지만 청동이 무겁게 달린 물푸레나무 창은 기도까지는 뚫지 못했기에, 헥토르는 여전히 적에게 대답하고 말을 할 수 있었다.

헥토르가 먼지 속에 쓰러지자,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를 내려다보며 뽐냈다.

"헥토르야, 너는 파트로클로스의 무구를 벗길 때 무사할 줄 알았을 것이다. 멀리 있던 나는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어리석은 자야! 그에게는 그보다 훨씬 강한 복수자가 속이 빈 배들 곁에 남아 있었다. 바로 네 무릎을 꺾은 나다.

개들과 새들이 너를 흉하게 찢어발길 것이고, 그는 아카이아인들이 장사 지내 줄 것이다."

그러자 기력을 다한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생명과 무릎과 부모를 걸고 간청하오.
아카이아인들의 배가 있는 곳에서 개들에게 내가 잡아먹히게 두지 마시오. 대신 내 아버지와 존귀한 어머니께서 그대에게 줄 청동과 황금의 보물들을 가져가시오. 다만 내 몸만은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그래야 트로이아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의 아내들이 죽은 나를 불에 태워 마땅한 예를 갖추어 줄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말했다.

"개 같은 놈아, 무릎이나 부모를 걸고 내게 간청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분노와 격정이 시키는 대로 네 살을 저며 날로 먹어 버리고 싶을 지경이다. 그만큼 분명히, 네 머리에서 개들을 쫓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열 배, 스무 배의 몸값을 이리로 가져와 달아 내놓고 그보다 더 많이 약속한다 해도, 다르다노스의 후손 프리아모스가 네 몸무게만큼 황금을 달아 주겠다고 한다 해도 소용없다.

그래도 너를 낳은 존귀한 어머니는 너를 상여에 눕히고 곡하지 못할 것이다. 개들과 새들이 너를 남김없이 뜯어 먹을 것이다."

그러자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죽어 가며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를 잘 알기에 이렇게 될 줄 알았소. 그대를 설득할 수는 없었던 것이오. 참으로 그대 가슴속 마음은 쇠로 되어 있구려. 그러나 조심하시오. 그대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파리스와 포이보스 아폴론이 스카이아이 문에서 그대를 죽이는 날, 내가 그대에게 신들의 노여움을 불러올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죽음의 끝이 그를 덮었다. 그의 혼은 사지를 떠나 제 운명을 슬퍼하며 사내다움과 젊음을 뒤로하고 하데스로 날아갔다.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이미 숨진 그에게 말했다.

"죽어 누워 있어라. 내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이 이루고자 할 때 언제든 받아들이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시신에서 청동 창을 뽑아 옆에 내려놓은 뒤, 헥토르의 어깨에서 피 묻은 무구를 벗기기 시작했다.

아카이아인의 다른 아들들도 둘레로 달려와 헥토르의 큰 키와 놀라운 생김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가온 자는 누구나 그를 한 번씩 찔렀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곁의 동료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 보시오, 헥토르가 활활 타는 불로 배들을 태울 때보다 지금은 훨씬 만지기 부드럽구려."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하고는,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입혔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그의 무구를 벗긴 뒤 아카이아인들 사이에 서서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도자이자 통치자들이여,
신들께서 다른 모든 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친
이자를 우리 손으로 죽이게 해 주셨으니, 자, 무장한 채 도시
둘레를 돌며 시험해 봅시다. 그래서 트로이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알아봅시다. 이자가 쓰러졌으니 높은
도시를 버리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헥토르가 없어도
버티려고 하는지 말이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배들 곁에는
아무도 곡해 주지 않고 장사 지내 주지도 않은 시신,
파트로클로스가 누워 있다. 내가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내 무릎이 움직이는 한, 나는 그를 잊지 않겠다.
하데스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동료를 기억할 것이다.

자, 아카이아의 젊은이들이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속이 빈
배들로 돌아갑시다. 이 시신도 끌고 갑시다."

"우리는 큰 영광을 얻었소. 트로이아인들이 온 도시에서
신처럼 떠받들며 빌던 훌륭한 헥토르를 우리가 죽였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훌륭한 헥토르에게 끔찍한 짓을 꾸몄다.
두 발 뒤꿈치에서 복사뼈까지 힘줄을 뚫고, 그 사이로 소가죽
끈을 꿰어 전차에 묶었다. 머리는 땅에 끌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고는 전차에 올라 영광스러운 무구를 싣고 채찍으로 말들을 몰았다. 두 말은 기꺼이 내달렸다.

끌려가는 헥토르로부터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양옆으로 흩날렸다.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던 머리가 이제는 먼지 속에 처박혀 있었다.

이제 제우스는 그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자기 고향 땅에서 욕을 보게 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는 온통 먼지로 더러워졌다.

그의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빛나는 베일을 멀리 내던졌고, 아들을 보고 크게 울부짖었다.

그의 아버지는 애처로운 신음 소리를 내뱉었으며,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도시 전체에서 통곡과 신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 광경은 마치 험준한 일리오스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다르다니아 문 밖으로 나가려는 노인을 붙잡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는 오물 속을 뒹굴며 모든 이에게 애원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

"친구들이여, 나를 말리지 마시오. 아무리 나를 아끼더라도 나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아카이아인들의 배로 가게 해 주시오. 저 무자비하고 난폭한 자에게 애원해 보겠소. 혹시 그가 또래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내 늙음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에게도 나 같은 아버지가 있소. 그를 낳아 트로이아인들의 재앙이 되도록 기른 펠레우스 말이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내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소. 한창때인 내 아들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말이오.

그러나 아무리 슬퍼도 그 모두를 위해서보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더 슬퍼하오. 그 아들 때문에 사무치는 슬픔이 나를 하데스의 집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오. 바로 헥토르 말이오.

아, 그가 내 품에서 죽었더라면! 그랬다면 그를 낳은 불행한 어미와 나, 우리가 실컷 울고 곡이라도 했을 것을."

그는 울며 이렇게 말했고, 도성 사람들도 따라 곡을 했다. 트로이아의 여인들 가운데서는 헤카베가 앞장서 격렬하게 곡을 했다.

“내 아이야, 아, 가련한 나여! 네가 죽었는데 이 모진 고통을 겪으며 내가 어찌 살아가겠느냐? 너는 밤이나 낮이나 이 도성에서 내 자랑이었고, 너를 신처럼 맞이하던 온 도성의 트로이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복이었다. 살아 있는 동안 너는 그들에게 더없이 큰 영광이었는데, 이제 죽음과 운명이 너를 덮쳤구나.”

그녀는 울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지만 헥토르의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남편이 성문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줄 참된 전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높은 저택의 가장 안쪽에서 두 겹으로 된 자줏빛 베를 짜고 있었으며, 그 위에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안의 머리채 고운 시녀들을 불러, 헥토르가 싸움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도록 큰 세발솥을 불에 올려놓으라고 일렀다. 가엾게도 그녀는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가 목욕물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킬레우스의 손을 빌려 그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때 성벽 쪽에서 비명과 곡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온몸이 떨려 손에 쥐고 있던 북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머리채 고운 시녀들에게 다시 말했다.

"너희 중 둘은 이리로 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보아야겠다. 방금 들린 것은 존경하는 시어머님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치고 무릎에는 힘이 풀리는구나. 진실로 프리아모스의 자식들에게 닥친 불행이 머지않은 모양이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용맹한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 의해 홀로 이 도시에서 쫓겨나 평원으로 내몰렸을까 봐 몹시 두렵구나. 또한 그가 이제는 그를 사로잡았던 파멸적인 용맹을 멈추었을까 봐 두렵다. 그는 결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힘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늘 맨 앞장서서 돌격하곤 했으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집 안을 가로질러 서둘러 나갔고, 그녀의 시녀들도 함께 갔다.

그녀가 성벽과 사람들의 무리에 이르렀을 때, 성벽 위에서 멈춰 서서 살펴보니 그가 도시 앞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날랜 말들이 그를 아카이아인들의 속이 빈 배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끌고 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뒤로 쓰러지며 숨이 끊어질 듯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머리에 쓴 밝은 장식들을 벗어 던졌다. 그것은 이마띠와 머리그물과 머리수건과 땋은 띠, 그리고 황금빛 아프로디테가 준 베일이었다.

그 베일은 투구가 번쩍이는 헥토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부를 위한 예물을 가져온 뒤, 에에티온의 집에서 그녀를 신부로 맞이하여 데려가던 날에 받은 것이었다.

시누이들과 동서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죽을 듯이 넋을 잃은 그녀를 가운데서 붙들어 주었다.

이윽고 그녀가 숨을 돌리고 정신이 가슴속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목 놓아 울며 트로이아의 여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 헥토르! 가련한 이 몸!"

"우리 둘은 같은 운명을 타고난 모양입니다. 당신은 트로이아의 프리아모스 집에서, 저는 숲이 우거진 플라코스 산 아래 테베의 에에티온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어린 저를 길러 주셨습니다. 불운한 딸을 둔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차라리 저를 낳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당신은 땅속 깊은 하데스의 집으로 떠나고, 저는 쓰라린 슬픔 속에 집에 과부로 남았습니다. 불행한 당신과 제게서 난 아들은 아직 어린 젖먹이입니다. 헥토르, 당신은 죽었으니 그 아이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 아이도 당신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카이아인들과의 비참한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앞날에는 고생과 슬픔만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그 아이의 땅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를 잃은 날,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뺨은 눈물에 젖습니다. 아쉬운 일이 있으면 아이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가 이 사람의 망토, 저 사람의 튜닉 자락을 붙잡습니다. 그중 불쌍히 여기는 이가 잠시 잔을 내밀어 주지만, 아이의 입술만 적실 뿐 입천장까지는 적셔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는 손으로 때리며 그 아이를 잔치에서 쫓아내고 욕을 퍼붓습니다. '썩 꺼져라! 네 아비는 우리와 함께 잔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과부가 된 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그 아이 아스티아낙스는 전에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골수와 기름진 양고기만 먹었습니다. 잠이 와서 아이다운 놀이를 그치면, 유모의 품에 안겨 부드러운 침상에서 좋은 것들로 마음이 흡족한 채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으니 숱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의 아스티아낙스, 트로이아인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부릅니다. 오직 당신 혼자 그들의 성문과 높은 성벽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서 개들이 실컷 뜯어 먹고 난 뒤 꿈틀거리는 구더기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벌거벗은 시신으로 누워서 말입니다. 집에는 여인들의 손으로 곱게 짠 아름다운 옷들이 쌓여 있는데도."

“그러나 저는 이 옷들을 모두 활활 타는 불에 태우겠습니다.
당신이 그 옷을 입고 누울 일이 없으니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트로이아의 남자들과 여자들 앞에서
당신의 명예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울며 이와 같이 말했고, 여인들도 그 말에 덧붙여 슬피 울었다.

제23권

파트로클로스의 장례 경기

이렇게 트로이아인들은 온 도성에서 곡을 했다. 한편 아카이아인들은 배들과 헬레스폰토스에 이르자 저마다 제 배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미르미돈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싸움을 좋아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말했다.

"날랜 말을 모는 미르미돈인들이여, 나의 믿음직한 동료들이여, 아직은 통굽 말들을 전차에서 풀지 맙시다. 말과 전차를 탄 채 가까이 가서 파트로클로스를 애도합시다. 그것이 죽은 이가 받아야 할 몫이오. 처절한 애도를 실컷 하고 나서 말을 풀고 여기서 다 함께 저녁을 듭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통곡 소리를 높였고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시신 주위를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몰아 세 번 돌며 애도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테티스가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눈물로 모래가 젖고 전사들의 갑옷이 젖었다. 그들이 애도하는 이는 적을 그토록 무섭게 패주시키던 용사였다.

그들 가운데서 펠레우스의 아들이 격렬한 곡을 이끌었다. 그는 사람을 죽이던 두 손을 동료의 가슴에 얹고 말했다.

"파트로클로스여, 하데스의 집에서도 편히 쉬시오. 전에 그대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모두 이루고 있소. 헥토르를 이리로 끌고 와 개들에게 날것으로 던져 주고, 그대가 죽은 데 대한 분노로 그대의 장작더미 앞에서 트로이아인들의 이름난 아들 열둘의 목을 베겠다고 했던 약속 말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훌륭한 헥토르에게 끔찍한 짓을 꾸며,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의 상여 앞 먼지 속에 그를 엎어 놓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번쩍이는 청동 무구를 벗고, 크게 우는 말들을 풀었다. 그러고는 발 빠른 아이아코스의 손자의 배 곁에 셀 수 없이 많이 둘러앉았다. 아킬레우스는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장례 잔치를 베풀었다.

도살당하는 수많은 윤기 나는 황소들이 칼날 앞에서 울부짖었고, 수많은 양과 매애 하고 우는 염소들도 울었다. 지방이 풍부한 흰 엄니를 가진 수많은 돼지들도 헤파이스토스의 불꽃 위에서 털을 그슬리려고 펼쳐졌다.

시신 주변 곳곳에는 피가 흘러서, 사람들이 그 피에 잔을 담글 수 있을 정도였다.

아카이아인의 지도자들은 펠레우스의 발 빠른 아들 아킬레우스 왕을 훌륭한 아가멤논에게로 데려갔다. 그는 동료 때문에 마음속으로 몹시 노해 있었기에, 그들은 겨우겨우 그를 설득했다.

그들은 아가멤논의 막사에 이르자 곧바로 목소리가 맑은 전령들에게 큰 솥을 불에 올리라고 일렀다. 혹시 펠레우스의 아들을 설득해 몸에 엉긴 피를 씻게 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그들에게 맹세했다.

"아니오, 참으로 가장 높고 위대한 신이신 제우스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파트로클로스를 불 위에 눕히고 그에게 봉분을 쌓아 주고 내 머리를 깎기 전까지는 물이 내 머리에 가까이 닿지 못할 것이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내 마음에 닥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지만 지금은 내키지 않더라도 잔치에 응합시다. 하지만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여, 내일 아침에는 사람들을 깨워 땔감을 가져오게 하고, 죽은 자가 어두운 암흑 속으로 떠날 때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오. 지치지 않는 불길이 그를 빠르게 태워 없애 버리고, 남은 이들이 각자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사람들은 각자 재빨리 식사를 준비하여 저녁을 먹었으며, 고루 나눈 잔치에 마음이 모자람 없이 흡족했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러 막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펠레우스의 아들은 크게 울리는 바다의 해변,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탁 트인 공간에서 미르미돈인들의 무리 사이에 누워 괴롭게 신음했다.

이윽고 마음의 근심을 풀어 주는 달콤한 잠이 그를 사로잡아 감쌌다. 바람 부는 일리오스까지 헥토르를 쫓아 달리느라 그의 영광스러운 사지는 몹시 지쳐 있었던 것이다.

그때 가련한 파트로클로스의 혼이 그에게 찾아왔다. 키도, 고운 눈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살아 있을 때 그대로였고, 입은 옷도 같았다.

혼은 아킬레우스의 머리맡에 서서 말했다.

"아킬레우스여, 그대는 잠들어 나를 잊었구려.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나를 소홀히 하지 않더니, 죽으니 잊는구려!"

"나를 서둘러 묻어 주시오. 그래야 내가 하데스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소. 고생을 마친 인간들의 그림자인 혼들이 나를 멀찍이 밀어내고 있소. 그들은 내가 강 너머에서 그들과 합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그저 넓은 문이 있는 하데스의 집을 헛되이 떠돌 뿐이오.

그러니 내 손을 잡아 주시오. 내가 가련하게 간청하오. 그대들이 나를 불에 태워 주고 나면, 나는 다시는 하데스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살아생전 사랑하는 전우들과 떨어져 앉아 함께 의논하지 못할 것이오. 나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끔찍한 운명이 그 입을 벌렸소.

그렇소,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 그대 또한 부유한
트로이아인들의 성벽 아래에서 쓰러질 운명이오. 만약
그대가 내 말을 귀담아듣는다면, 내가 한 가지를 더 말하며
그대에게 당부하겠소."

"아킬레우스여, 내 뼈를 그대의 뼈와 따로 두지 말고 함께
두어 주시오. 우리가 그대의 집에서 함께 자랐듯이 말이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메노이티오스가 나를
오포에이스에서 그대의 나라로 데려왔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소. 그날 나는 주사위 놀이를 하다 화가
나서, 그럴 생각도 없이 어리석게 암피다모스의 아들을
죽였소.

그때 기사 펠레우스께서 나를 집에 받아들여 정성껏 길러
주시고 그대의 시종으로 삼아 주셨소. 그러니 우리 뼈도 한
항아리에 담아 주시오. 그대의 존귀한 어머니께서 주신,
손잡이 둘 달린 황금 항아리에 말이오."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하는 벗이여,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내게 이것저것
당부하는 것이오? 그대가 말한 것은 모두 그대로 이루고,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자, 더 가까이 오시오. 잠시라도
서로 끌어안고 처절한 곡을 실컷 합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두 손을 뻗었으나 그를 붙잡지 못했다. 혼은 연기처럼 가냘프게 찍찍거리며 땅 밑으로 사라져 버렸다.

경악한 아킬레우스는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통곡하며 말했다.

"보시오, 하데스의 집에도 영혼과 환영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나 보오. 비록 정신은 전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말이오. 불행한 파트로클로스의 영혼이 밤새도록 내 곁에 서서 울며 통곡하며 내게 이것저것을 당부하였으니, 그 모습이 정말 그 자신과 똑같았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났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밝아 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가련한 시신 곁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가멤논 왕은 땔감을 가져오기 위해 사방의 막사에서 노새들과 사람들을 보냈고, 다정한 이도메네우스의 시종인 메리오네스가 그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손에 나무를 베기 위한 도끼와 잘 짜인 밧줄을 들고 나갔으며, 노새들이 그들 앞장서서 갔다. 그들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리고 비스듬히 사방으로 분주히 움직였다.

그들이 샘이 많은 이다 산의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곧바로 긴 날의 청동 도끼를 사용하여 높이 솟은 참나무들을 바쁘게 베어 넘기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쓰러졌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은 나무줄기를 쪼개어 노새들의 뒤에 묶었다. 노새들은 덤불을 헤치고 평원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며 발로 땅을 파헤쳤다.

다정한 이도메네우스의 시종인 메리오네스가 명령했기에, 모든 나무꾼은 통나무를 짊어졌다.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와 자신을 위해 큰 봉분을 쌓으려고 정해 둔 바닷가로 한 사람씩 나무를 가져다 놓았다. 사방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를 다 내려놓은 뒤에, 그들은 모두 한데 모여 그곳에 앉아 머물렀다.

아킬레우스는 즉시 전쟁을 좋아하는 미르미돈인들에게 청동 갑옷을 갖춰 입으라고 명령했고, 각자 자신의 말들을 전차에 매게 했다.

그러자 전사들과 마부들이 모두 일어나 갑옷을 입고 전차에 올라탔다.

전차를 탄 사람들이 앞장서 나아갔고, 그 뒤를 이어 셀 수 없이 많은 보병의 구름이 뒤따랐다. 그 무리의 한가운데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파트로클로스를 메고 가고 있었다.

그들은 잘라낸 머리카락을 시신 위에 덮어 마치 옷처럼 온몸을 감쌌다.

그 뒤에서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슬퍼하며 파트로클로스의 머리를 감싸 안고 나아갔다. 그가 하데스의 집으로 서둘러 옮기고 있는 이 동료는 비길 데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킬레우스가 정해 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죽은 이를 내려놓고 그를 위해 서둘러 많은 양의 나무를 쌓아 올렸다.

그때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는 장작더미에서 떨어져 서서, 스페르케이오스 강에 바치려고 길러 온 탐스러운 금발 머리채를 잘랐다. 그러고는 몹시 언짢아하며 포도주빛 바다를 바라보고 말했다.

"스페르케이오스여, 제 아버지 펠레우스께서 당신께 한 서원은 헛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당신께 머리를 잘라 바치고 거룩한 백 마리 소의 제물을 올리며, 당신의 땅과 향기로운 제단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흠 없는 숫양 쉰 마리를 당신의 물에 바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서원했지만 당신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이 머리채를 용사 파트로클로스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사랑하는 동료의 손에 머리채를 쥐여 주었다. 그러자 모두의 마음에 곡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의 곁으로 다가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울음소리 위로 태양의 빛이 이미 저물었을 것이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아카이아인의 군대는 그대의 말을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귀담아들을 것이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마음껏 하게 두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장작더미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하시오. 죽은 자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우리들이 모든 일을 마땅히 돌볼 것이니, 지도자들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시오.”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이 말을 듣자 곧바로 군사들을 균형 잘 잡힌 배들로 흩어 보냈다. 죽은 이와 가장 가깝고 친한 이들만 남아 나무를 쌓았다.

그들은 가로세로 백 자나 되는 장작더미를 만들고, 슬픔에 잠긴 채 그 꼭대기에 죽은 이를 올려놓았다.

그들은 장작더미 앞에서 살진 양 떼와 뿔이 굽고 걸음이 느린 윤기 나는 소 떼를 많이 잡아 가죽을 벗기고 손질했다. 기개 높은 아킬레우스는 그 모든 짐승에게서 기름을 떼어 내 죽은 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가죽 벗긴 몸통들을 그 둘레에 쌓았다.

그는 꿀과 기름이 든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들을 상여에 기대어 놓았다. 그리고 목을 높이 쳐든 말 네 마리를 크게 신음하며 재빨리 장작더미에 던져 넣었다.

죽은 주인은 식탁 곁에서 먹이던 개를 아홉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아킬레우스는 그중 두 마리의 목을 베어 장작더미에 던졌다.

그리고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의 용맹한 아들 열둘을 청동으로 죽였다. 그는 마음속에 끔찍한 일을 품고 있었다. 그러고는 무쇠 같은 불의 힘을 일으켜 사방으로 번지게 했다.

그러고는 신음하며 사랑하는 동료의 이름을 불렀다.

"파트로클로스여, 하데스의 집에서도 편히 쉬시오. 전에 그대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모두 이루고 있소. 기개 높은 트로이아인들의 용맹한 아들 열둘을 불길이 그대와 함께 모두 삼키고 있소. 그러나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불에 넘겨 태우지 않고 개들에게 먹이겠소."

그는 위협하며 그렇게 말했으나, 개들은 헥토르를 건드리지 못했다.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가 낮이나 밤이나 그에게서 개들을 떼어 놓았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끌고 갈 때 살점을 뜯어내지 못하도록, 그녀는 장미처럼 달콤하고 신성한 기름으로 그를 발라 주었다.

그리고 포이보스 아폴론은 하늘에서 검은 구름을 평원으로 내려보내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을 모두 덮었다. 이는 때가 되기 전에 태양의 위력이 그의 힘줄과 사지 주변의 살점을 말려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죽은 파트로클로스의 장작더미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그러자 발이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다시 다른 방도를 찾아냈다. 그는 장작더미에서 떨어진 곳에 서서 북풍과 서풍, 두 바람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는 황금 잔으로 제물을 부으며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제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고, 시신들이 신속히 불길에 타오르고 장작이 빨리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들이 와 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그러자 이리스가 즉시 그의 기도를 듣고 바람들에게 전할 소식을 가지고 서둘러 달려갔다.

사납게 부는 서풍의 집에서 그들은 모두 함께 연회에서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이리스는 달리던 것을 멈추고 돌 문턱에 섰다.

그들이 이리스를 보자마자 모두 일어서서 저마다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앉기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앉을 수 없소. 오케아노스의 물줄기, 에티오피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들이 불사신들에게 백 마리 소의
제물을 바치고 있으니, 나도 그 거룩한 잔치에 함께하려 하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북풍과 요란한 서풍에게 와 달라고
빌며 훌륭한 제물을 약속하고 있소. 그대들이
파트로클로스가 누운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달라는 것이오.
모든 아카이아인이 그를 위해 크게 탄식하고 있소."

이리스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자, 바람들은 구름을 요란하게
앞으로 몰며 놀라운 소리를 내고 일어났다.

바람들은 바다로 빠르게 달려가 그 위를 불어댔고, 날카로운
돌풍 아래 파도가 일렁였다. 바람들은 흙이 기름진 트로이아
땅에 이르러 장작더미 위로 내려앉았고, 경이로운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밤새도록 바람들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불어대며, 마치
하나의 돌풍인 것처럼 장작더미의 불꽃을 내리쳤다.

밤새도록 아킬레우스는 두 손잡이가 달린 잔을 손에 들고
황금 섞는 동이에서 포도주를 따라 땅에 부으며 땅을 적셨고,
불행한 파트로클로스의 영혼을 끊임없이 불렀다.

마치 갓 장가든 아들이 죽어 불쌍한 부모에게 슬픔을 안기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뼈를 태우며 통곡하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동료의 뼈를 태우며 통곡했고,
끊임없이 신음하며 장작더미 둘레를 무거운 걸음으로
돌았다.

하지만 새벽별이 나타나 대지 위로 빛을 전하러 올 때, 즉 그
별을 따라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뒤따라오며 바다 위로
퍼져 나갈 때,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불꽃도 꺼져 갔다.

바람은 다시 트라키아의 바다 너머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바다는 거센 파도로 포효했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타오르는 장작더미에서 물러나
몹시 지친 몸으로 누웠고, 달콤한 잠이 그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함께 있던 이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고, 그들이 다가오는 소란과 소음이 그를 깨웠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그들에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아카이아 군대의 다른 지도자들이여. 먼저 반짝이는 포도주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꺼 주시오. 불길이 닿은 곳은 모두 꺼 주시오. 그러고 나서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뼈를 모읍시다. 다른 것들 사이에서 잘 골라내어 모읍시다. 파트로클로스는 장작더미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고, 다른 것들은 말과 사람이 뒤섞인 채 장작더미 가장자리에 따로 타 있었으니, 골라내기가 쉬울 것이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데스에 묻힐 때까지, 그 뼈를 두 겹의 기름으로 감싼 황금 항아리에 담아 둡시다. 하지만 그를 위해 수고스럽게 큰 봉분을 쌓으라고 명하지는 않겠소. 그저 그에게 어울리는 정도면 족하오. 다만 내가 떠난 뒤에 노 젓는 자리가 잘 갖춰진 배들 곁에 남을 아카이아인들이여, 나중에 그 봉분을 넓고 높게 세워 주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먼저 그들은 불길이 닿은 곳과 재가 깊이 가라앉은 곳까지 반짝이는 포도주로 장작더미를 적셨다.

그들은 울면서 상냥했던 동료의 하얀 뼈를 모아 황금 항아리에 담고, 그것을 두 겹의 기름으로 감쌌다. 그리고 항아리를 막사에 두고 부드러운 아마포로 덮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봉분의 둘레를 정하고 장작더미 주위로 기초를 닦은 뒤, 곧바로 흙을 높이 쌓아 올렸다. 봉분을 다 쌓은 뒤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넓게 둘러앉게 했다. 그러고는 배들에서 상품들을 내왔다. 솥과 세발솥, 말과 노새, 힘센 소들, 허리띠 고운 여인들, 그리고 잿빛 쇠였다.

그는 먼저 날랜 마부들을 위해 훌륭한 상품을 내놓았다. 일등에게는 데려갈 여인 하나, 솜씨 좋게 일하는 여인과 스물두 되들이 귀 달린 세발솥을 주기로 했다. 이등에게는 아직 길들지 않은 여섯 살 암말로, 배 속에 노새 새끼를 밴 것을 주기로 했다.

삼등에게는 아직 불에 올린 적 없는 아름다운 솥을 내놓았는데, 네 되들이로 새것 그대로 하얗게 빛났다. 사등에게는 황금 두 탈란톤을, 오등에게는 아직 불에 올린 적 없는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를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킬레우스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다른 아카이아인들이여. 마부들을 위한 이 상품들이 경기장에 놓여 기다리고 있소. 만약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지금 경기를 치르는 것이라면, 분명 내가 일등 상품을 차지하여 내 막사로 가져갔을 것이오.

내 두 마리의 말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대들도 알지 않소? 이 말들은 죽지 않는 말들이며, 포세이돈께서 내 아버지 펠레우스에게 주셨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나 나와 내 통굽 말들은 경주에 나가지 않겠소. 말들은 그토록 용맹하고 이름난, 그토록 다정한 마부를 잃었기 때문이오. 그는 맑은 물로 말들을 씻긴 뒤 갈기에 부드러운 기름을 자주 발라 주곤 했소.

말들은 그를 그리며 서서 슬퍼하고 있소. 갈기를 땅에 늘어뜨린 채, 두 마리 모두 마음 아파하며 서 있소. 그대들 가운데 자기 말과 짝 맞춘 전차를 믿는 아카이아인은 누구든 진영에서 채비를 하시오."

펠레우스의 아들이 이와 같이 말하자, 날랜 마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인간들의 왕이자 아드메토스의 사랑하는 아들인 에우멜로스가 일어났다. 그는 말 타기에 능숙한 자였다. 그 뒤를 이어 티데우스의 아들인 강력한 디오메데스가 일어나, 언젠가 아이네이아스로부터 빼앗았던 트로스의 말들을 멍에 아래로 이끌었다. 비록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 자신을 낚아채 갔을지라도 말이다.

그 뒤를 이어 제우스의 후손, 머리칼 고운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일어나, 날랜 말들을 멍에 아래로 이끌었다. 아가멤논의 암말인 아이테와 그의 말인 포다르고스가 그 말들이었다.

그 암말은 앙키세스의 아들 에케폴로스가 아가멤논에게 선물로 바친 것이었다. 바람 부는 일리오스까지 그를 따라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즐겁게 지내려는 것이었다. 제우스가 그에게 큰 재산을 주어 그는 넓은 시키온에 살고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그 암말을 멍에 아래 매었는데, 암말은 몹시 달리고 싶어 했다.

네 번째로는 안틸로코스가 갈기 고운 말들을 채비했다. 그는 넬레우스의 아들인 기개 높은 왕 네스토르의 훌륭한 아들이었다. 그의 전차를 끄는 발 빠른 말들은 필로스에서 기른 말들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아들의 이익을 위해 조언을 해주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스스로도 잘 아는 아들에게 일러 준 것이다.

"안틸로코스야, 네가 비록 젊으나 제우스와 포세이돈께서 너를 사랑하시어 온갖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므로 네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 너는 반환점을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네 말들은 경주에서 가장 느리구나. 그러니 나는 네게 힘든 일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이들의 말은 더 빠르지만, 그 사람들은 너만큼 교묘한 계책을 짜낼 줄은 모른단다."

"자, 사랑하는 아들아, 상품을 놓치지 않도록 온갖 종류의 교묘한 계책을 마음속에 새겨 두거라. 너도 알다시피, 나무꾼은 힘보다 교묘함으로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해낸단다. 또한 조타수도 포도주빛 검은 바다 위에서 바람에 휘둘리는 날랜 배를 교묘함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며, 마부 역시 교묘함으로 다른 마부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단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말과 전차만을 믿고 부주의하게 이리저리 넓게 회전하며, 말들은 경주로 위를 헤매고 그 또한 말들을 제어하지 못한다. 반면에 교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더 형편없는 말을 몰지라도, 눈을 항상 반환점에 두고 그 곁을 바짝 돌아 나간다. 또한 처음에는 소가죽 고삐로 말을 몰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도 말들을 항상 제어하며, 앞서 달리는 사람을 지켜본다. 이제 네가 놓치지 않을 명백한 징조를 말해 주겠다."

"경주로의 접합부에는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모를 마른 그루터기가 땅 위로 한 길 정도 높이 솟아 있다. 그것은 빗물에도 썩지 않으며, 그 양옆에는 두 개의 흰 돌이 그루터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그 주변은 말을 몰기 좋게 평평하다.

혹은 그것이 오래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기념비일 수도 있고, 혹은 옛날 사람들의 시대에 경주의 반환점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것을 반환점으로 정했다."

"너는 그곳에 바짝 붙여 전차와 말을 몰아라. 잘 엮은 전차 안에서 몸을 두 말의 왼쪽으로 조금 기울이고, 오른쪽 바깥 말에게는 소리쳐 부르며 막대기로 몰고 고삐를 늦춰 주어라.

그러나 왼쪽 안쪽 말은 반환점에 바짝 붙게 하여, 잘 만든 바퀴의 통이 기둥 끝을 스칠 듯이 돌게 해라. 다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다간 말을 다치게 하고 전차를 부수기 십상이다. 그러면 다른 이들은 기뻐하겠지만 너에게는 망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라. 반환점에서 남들을 앞질러 버리면, 누구도 뒤에서 힘껏 달려 너를 따라잡거나 앞지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신의 혈통을 이은 아드라스토스의 날랜 말 아리온을 몰거나, 이 땅에서 난 라오메돈의 훌륭한 말들을 몰고 뒤쫓는다 해도 말이다."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는 아들에게 모든 일의 요점을 일러 준 뒤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다섯 번째로 메리오네스가 아름다운 갈기를 가진 말들을 준비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전차에 올라타 제비뽑기를 했다.

아킬레우스가 제비들을 흔들자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의 제비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 뒤를 이어
에우멜로스 왕이 자리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창으로 이름난
아트레우스의 아들 메넬라오스가 차지했다. 메리오네스가
그다음 자리를 뽑았고, 마지막으로 단연 가장 뛰어난
티데우스의 아들이 전차를 세울 자리를 뽑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한 줄로 자리를 잡았다.

아킬레우스는 평탄한 평원 저 멀리에 있는 반환점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종이던 신과 같은
포이닉스를 심판으로 세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말 위로 채찍을 쳐들고 고삐로
말을 내리치며 힘차게 소리쳐 불렀다. 말들은 곧바로
배들에서 멀어지며 평원을 날쌔게 내달렸다. 말들의 가슴
밑에서는 먼지가 구름이나 회오리바람처럼 피어올라 떠
있었고, 갈기는 바람결에 휘날렸다.

전차들은 풍요로운 대지 위를 질주하다가도, 다시 높이
솟구쳐 올랐다. 몰이꾼들은 전차에 서 있었고,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각자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들은 평원 위 먼지 속을 날아가는 말들을 향해 저마다 소리 높여 불렀다.

날랜 말들이 잿빛 바다를 향해 돌아가는 마지막 구간을 달릴 때가 되자, 마침내 각자의 실력이 드러났고 말들의 속도는 극한까지 몰아붙여졌다.

그러자 곧 페레스의 손자 에우멜로스의 발 빠른 암말들이 앞서 나갔고, 그 뒤를 트로스 혈통인 디오메데스의 수말들이 따랐다.

그들은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뒤에서 바짝 뒤쫓았는데, 마치 에우멜로스의 전차 위로 뛰어오를 듯 보였다. 말들이 날아오듯 달릴 때 에우멜로스의 등과 넓은 어깨 위로 말들의 숨결이 닿아 뜨겁게 달아올랐다.

만약 포이보스 아폴론이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노하여 그의 손에서 빛나는 채찍을 쳐서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티데우스의 아들은 그를 앞질렀거나 승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자 디오메데스의 눈에서 분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암말들은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는데, 그의 말들은 채찍 없이 달리느라 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테나는 아폴론이 티데우스의 아들을 속인 것을 알고 있었다. 아테나는 백성의 목자를 향해 매우 빠르게 달려가 그에게 채찍을 돌려주었고, 그의 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분노하여 아드메토스의 아들을 뒤쫓아갔다. 여신이 그의 말들의 멍에를 부수자, 암말들은 길 양쪽으로 갈라져 내달렸고 끌채는 땅으로 휘어 박혔다.

에우멜로스 자신도 바퀴 옆으로 전차에서 튕겨 나갔다. 그의 팔꿈치와 입, 코에서는 살갗이 벗겨졌고, 눈썹 위 이마는 멍이 들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티데우스의 아들은 통굽 말들을 옆으로 돌려 몰아, 다른 이들보다 훨씬 앞서 튀어 나갔다. 아테나가 그의 말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에게 영광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아트레우스의 아들,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가 몰았다. 그때 안틸로코스가 아버지의 말들에게 외쳤다.

"너희 둘도 이제 힘껏 달려라! 저 말들과 겨루라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티데우스의 아들의 말들 말이다. 아테나가 지금 그 말들을 빠르게 해 주고 그 몰이꾼에게 영광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의 말들은 빠른 속도로 앞질러라. 암말에 불과한 아이테에게 뒤처져서 수치를 당하지 마라. 훌륭한 말들아, 어찌하여 뒤처지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니,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너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가 못한 상을 얻게 된다면, 백성의 목자인 네스토르가 너희 둘을 돌보지 않고 즉시 날카로운 청동으로 너희를 죽여 버릴 것이다."

"아니, 가능한 한 모든 속도로 그들의 뒤를 쫓아라. 내가 직접 좁은 길에서 그들을 앞지를 수 있도록 방책을 세우고 계획을 짜겠다. 결코 놓치지 않겠다."

안틸로코스가 이렇게 말했다. 주인의 꾸짖음에 겁을 먹은 말들은 잠시 동안 더 빠르게 달렸다.

그러다 전투에 능한 안틸로코스는 곧 움푹 팬 길에서 좁은 곳을 발견했다. 겨울비에 불어난 물이 길의 일부를 깎아내어 그곳을 모두 파헤쳐 놓은 틈이 땅에 있었다.

메넬라오스는 다른 누구도 자신과 나란히 달리지 못하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안틸로코스는 자기 통굽 말들을 옆으로 돌려 길 밖으로 몰아붙였고, 한쪽 옆에서 그를 뒤쫓았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겁에 질려 안틸로코스에게 소리쳤다.

"안틸로코스, 그대는 무모하게 달리고 있소! 어서 말들을 제어하시오! 여기는 길이 좁아졌으나 곧 지나가기 좋게 넓어질 것이오. 그대가 내 전차에 부딪쳐 우리 둘 모두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소."

그는 그렇게 말했으나, 안틸로코스는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더욱 격렬하게 몰아붙이며 채찍질을 계속했다.

젊은이가 자신의 힘을 시험하며 어깨로 던지는 원반이 날아가는 거리만큼이나 그들은 멀리 달려 나갔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탄 암말들은 뒤로 물러났다. 그가 스스로 말들을 채찍질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인데, 이는 통굽 말들이 길 위에서 서로 충돌하여 잘 엮은 전차들을 뒤엎고, 승리를 향한 간절한 서두름 속에서 말들과 그들 자신을 먼지 속으로 내동댕이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머리칼 고운 메넬라오스가 안틸로코스를 꾸짖었다.

"안틸로코스여, 인간들 가운데 그대보다 고약한 자는 없소. 가 버리시오, 망해 버리시오! 우리 아카이아인들이 그대를 지혜롭다고 여긴 것은 잘못이었소. 그러나 그래도 맹세 없이는 상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말들에게 소리쳤다.

“처지지 마라. 마음 아파하며 멈춰 서지도 마라. 저 말들은 둘 다 늙어서 너희보다 먼저 발과 무릎이 지칠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말들은 주인의 꾸지람에 겁을 먹고 더 빨리 달려 곧 앞선 말들에게 바짝 다가갔다. 한편 집회 자리에 앉은 아르고스인들은 평원 위 먼지 속을 날아오는 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크레타인의 지도자 이도메네우스였다. 그는 집회 자리 바깥, 가장 높이 내다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기에,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 소리를 듣고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앞서 달려오는 말 한 마리를 눈여겨보았다. 그 말은 다른 데는 온통 적갈색이었으나 이마에는 달처럼 둥글고 하얀 점이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도자이자 통치자들이여, 저 말들이 나에게만 보이오, 아니면 그대들에게도 보이오? 내 보기에는 지금 앞선 말들이 아까와 다르고, 보이는 몰이꾼도 다른 사람 같소. 나갈 때 앞서던 암말들이 저 평원 어딘가에서 탈이 난 모양이오. 나는 분명 그 암말들이 맨 먼저 반환점을 도는 것을 보았는데, 트로이아 평원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소."

"혹시 마부의 손에서 고삐가 미끄러져, 그가 반환점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회전에 실패한 것이오? 내 생각에는 그가 그곳에서 땅으로 내동댕이쳐져 전차를 부수었을 것이고, 암말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경로를 이탈했을 것이오.

그렇지만 그대들도 일어나서 보시오. 나는 분명히 알아보지 못하겠으나, 저 남자는 혈통으로 보아 아이톨리아인 같고 아르고스인들 사이의 왕인 듯하오. 바로 말을 길들이는 티데우스의 아들, 강력한 디오메데스 말이오."

그러자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가 그를 수치스럽게 꾸짖었다.

"이도메네우스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전부터 허풍쟁이로 구는 것이오? 발굽 높이 드는 암말들은 아직 저 멀리 넓은 평원을 달려오고 있을 뿐이오. 그대가 아르고스인들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도 아니며, 그대의 눈이 머리에서 뻗어 나와 가장 날카롭게 앞을 내다보는 것도 아님에도 그대는 늘 큰소리를 치는구려.

그대는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소. 여기 그대보다 나은 이들이 있으니 말이오. 예전에 앞서갔던 바로 그 암말들, 즉 에우멜로스의 말들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자신도 전차에 굳건히 서서 고삐를 쥐고 있소."

그러자 크레타인의 지도자는 화가 치밀어 올라 대답하며 말했다.

"아이아스여, 그대는 비난하기를 잘하고 조언에는 어리석구려. 그대는 마음이 완고하여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 아르고스인들보다 뒤처지오.

자, 이제 우리 사이에 세발솥이나 솥을 걸고 내기를 합시다. 어떤 암말들이 앞서가는지에 대해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을 우리 둘 사이의 심판으로 정합시다. 그대가 대가를 치르며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가 즉시 분노하여 일어나 화난 말로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직접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아이아스여, 이도메네우스여. 이제 더는 서로에게 화난 말과 악한 말로 대답하지 마시오. 그것은 품위 없는 일이오. 다른 누가 이렇게 굴었다면 그대들도 그를 나무랐을 것이오."

"아니오, 집회 자리에 앉아서 말들을 지켜보시오. 승리를 향한 열망으로 서두르는 말들이 머지않아 이곳으로 달려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대들 각자는 아르고스인의 말들 중 어느 말이 뒤처져 있고 어느 말이 앞서가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티데우스의 아들이 말을 몰며 바짝 다가왔다. 그는 어깨 위로 채찍을 휘둘러 연거푸 내리쳤고, 말들은 빠르게 달려가며 높이 뛰어올랐다.

흙먼지가 끊임없이 몰이꾼에게 튀었고, 황금과 주석으로 꾸민 그의 전차는 발 빠른 말들을 뒤따라 굴렀다. 두 말이 날듯이 내달리는 동안 고운 먼지 위에는 바퀴 테 자국조차 거의 남지 않았다.

이윽고 그는 집회 자리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말들의 목과 가슴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 땅에 떨어졌다. 디오메데스는 번쩍이는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려, 몰이 막대를 멍에에 기대어 세웠다.

강인한 스테넬로스 또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상을 챙겼다.

그는 기개 높은 동료들에게 여인과 귀 달린 세발솥을 건네주었고, 자신은 멍에 아래에서 말들을 풀어 주었다.

그다음으로 넬레우스의 후손인 안틸로코스가 말들을 몰았다. 그는 속도가 아니라 꾀를 써서 메넬라오스를 앞질렀다. 하지만 메넬라오스 또한 그의 날랜 말들을 몰며 바로 뒤를 바짝 쫓았다.

마치 주인을 태우고 평원을 달리며 전차를 힘껏 끄는 말과 바퀴 사이의 거리만큼이었다. 넓은 평원을 달리는 동안 말꼬리 끝 털이 바퀴 테에 닿을 만큼 바퀴가 바짝 뒤따르고, 그 사이에는 틈이 거의 없다. 메넬라오스는 꼭 그만큼 훌륭한 안틸로코스 뒤에 처져 있었다.

처음에는 원반 던지는 거리만큼 뒤처졌으나, 그는 금세 안틸로코스를 따라잡고 있었다. 아가멤논의 암말, 갈기 고운 아이테의 힘이 점점 더 솟아났기 때문이다.

만약 두 사람의 경주가 더 길었다면, 메넬라오스가 그를 앞질러 승부를 확실히 결정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메네우스의 용맹한 시종인 메리오네스는 영광스러운 메넬라오스보다 창 한 번 던질 거리만큼 뒤처져 있었다. 메리오네스의 갈기 아름다운 말들이 가장 느렸고, 그 자신도 경주에서 전차를 모는 기술이 가장 서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드메토스의 아들이 나머지 모두의 뒤를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름다운 전차를 손으로 끌며 말들을 앞세워 몰고 왔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르고스인들 가운데 일어서서 날개 돋친 말을 했다.

"보시오, 가장 뛰어난 자가 통굽 말들을 몰며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소. 자, 그에게 마땅히 이등 상을 줍시다. 일등 상은 티데우스의 아들이 가져가게 합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그가 명한 대로 동의했다.

아카이아인들이 그에 동의했으므로 이제 그는 그에게 암말을 주려 했다. 하지만 기개 높은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일어나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대답했다.

"아킬레우스여, 그대가 이 말을 실행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몹시 화를 낼 것이오. 그대는 저 자의 전차와 날랜 말들이, 그리고 저 선한 사람이 입었을 피해를 생각하며 내 상을 빼앗으려 하고 있구려. 아니, 저 자가 불멸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더라면 경주에서 결코 마지막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오."

"하지만 만약 그대가 저 자를 가엽게 여기고 저 자가 그대의 마음에 든다면, 보시오. 그대의 막사에는 많은 양의 금과 청동, 양떼, 그리고 하녀들과 통굽 말들이 있소. 앞으로 그중에서 골라 저 자에게 훨씬 더 좋은 상을 주시오. 아니면 아카이아인들이 그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오. 하지만 암말은 내줄 수 없소. 저 암말을 원한다면 누구든 힘으로 나와 싸워 보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그의 친한 동료인 안틸로코스가 기특하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하며 날개 돋친 말로 그에게 말했다.

“안틸로코스여, 만약 그대가 사람들이 내 막사에서 다른 것을 꺼내 에우멜로스에게 덧붙인 상으로 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소. 내가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흉갑을 그에게 주겠소.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밝은 주석을 원형으로 박아 놓았으니, 그에게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것이오.”

그가 말하며 그의 친한 동료인 아우토메돈에게 막사에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아우토메돈이 가서 그것을 가져와 에우멜로스의 손에 놓아주자, 에우멜로스는 기쁘게 그것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메넬라오스도 일어났다. 그는 마음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안틸로코스에게 격분해 있었다.

전령이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여 주며 아르고스인들에게 침묵할 것을 선포하자, 그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사내가 말을 시작했다.

“안틸로코스여, 전에는 지혜롭던 그대가 이게 무슨 짓이오! 그대는 내 솜씨를 욕보이고, 훨씬 못한 그대의 말들을 앞으로 밀어 넣어 내 말들을 가로막았소.

자, 아르고스인들의 지도자이자 통치자들이여, 우리 둘 사이를 공정하게 판가름해 주시오. 어느 쪽 편도 들지 마시오. 그래야 뒷날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오. '메넬라오스가 거짓말로 안틸로코스를 누르고 암말을 가져갔다. 그의 말은 훨씬 못했지만 그 자신의 지위와 힘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아니오, 내가 직접 무엇이 옳은지 선언하겠소. 나의 판결은 공정할 것이기에 다른 어떤 다나오스인도 나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안틸로코스여, 이리로 나오시오. 정해진 방식대로 그대의 말들과 전차 앞에 서서, 예전에 그대가 몰던 가느다란 채찍을 손에 잡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손을 말 위에 얹고, 땅을 붙들고 흔드는 분을 두고 맹세하시오. 그대가 속임수를 써서 내 전차를 가로막은 것이 결코 그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말이오."

그러자 현명한 안틸로코스가 차례로 그에게 대답했다.

"메넬라오스 왕이여, 지금은 저를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저는 왕보다 훨씬 젊고, 왕께서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젊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왕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이는 결단이 성급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제가 얻은 그 암말은 제 스스로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제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셔도 곧바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이시여, 평생 왕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신들 앞에 죄인이 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개 높은 네스토르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암말을 끌고 와서 메넬라오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의 마음은 기쁨으로 녹아내렸다. 마치 들판에 곡식이 빽빽이 자랄 때, 이삭에 이슬이 맺혀 곡식이 무르익는 것과 같았다.

메넬라오스여, 그대의 마음도 가슴속에서 그처럼 기쁨으로 녹아내렸다. 그는 안틸로코스에게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안틸로코스여, 이제 내가 먼저 그대에게 품은 노여움을 거두겠소. 그대는 전에는 결코 경솔하거나 생각이 가볍지 않았소. 이번에는 젊음이 분별을 이겼을 뿐이오. 다음부터는 그대보다 나은 사람을 속이려 들지 마시오."

“다른 아카이아인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나를 달래지 못했을 것이오. 그러나 그대와 그대의 훌륭한 아버지와 형제는 나 때문에 숱한 고생을 하고 애를 썼소. 그러니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이 암말은 내 것이지만 그대에게 주겠소. 그래야 여기 있는 이들도 내 마음이 결코 오만하거나 고집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암말을 안틸로코스의 동료 노에몬에게 넘겨 끌고 가게 했다. 그러고는 자신은 번쩍이는 솥을 가졌다.

메리오네스는 들어온 순서대로 넷째 상인 황금 두 탈란톤을 가졌다. 다섯째 상인 손잡이 둘 달린 항아리는 주인 없이 남았다. 아킬레우스는 그것을 들고 아르고스인들의 집회를 가로질러 네스토르에게 가서, 그 곁에 서서 말했다.

“어르신, 이것을 받으시고 파트로클로스의 장례를 기억하는 보물로 간직하십시오. 이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상은 겨루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권투도 씨름도 하지 않으시고, 창던지기에도 달리기에도 나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괴로운 늙음이 이제 어르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하며 항아리를 네스토르의 손에 쥐여 주었다. 네스토르는 기쁘게 받고 날개 돋친 말로 말했다.

"그렇소, 아들이여, 그대 말이 모두 옳소. 친구여, 내 팔다리는, 내 두 발은 이제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고, 두 팔도 예전처럼 어깨에서 가볍게 뻗어 나가지 않소.

아, 내가 다시 젊어 힘이 굳건하다면 좋겠소.
에페이오스인들이 부프라시온에서 아마링케우스 왕을 장사 지내고, 그 아들들이 왕을 기려 상을 내걸었던 그날처럼 말이오."

"그때는 에페이오스인들 가운데서도, 필로스인들이나 기개 높은 아이톨리아인들 가운데서도 나와 맞먹는 자가 없었소.
권투에서는 에놉스의 아들 클리토메데스를 이겼고,
씨름에서는 내게 맞선 플레우론의 앙카이오스를 이겼소.
달리기에서는 훌륭한 이피클로스를 앞질렀고,
창던지기에서는 필레우스와 폴리도로스보다 멀리 던졌소.

오직 전차 경주에서만 악토르의 두 아들에게 졌소. 그들은 둘이라는 수를 믿고 말을 앞으로 밀어붙였소. 가장 좋은 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승리를 몹시 탐냈던 것이오."

"그들은 쌍둥이였소. 하나는 고삐를 단단히 잡고 줄곧 몰았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로 말을 몰았소.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소. 이제는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나서야 하오. 나는 괴로운 늙음에 굴복해야 하지만, 그때는 영웅들 가운데서도 뛰어났소.

자, 그대는 동료를 위해 경기를 열어 장례를 마저 치르시오. 이 선물은 기꺼이 받겠소. 그대가 친구인 나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아카이아인들 사이에서 내가 받아야 할 예우를 갖추어 주니 내 마음이 기쁘오."

"그 보답으로 신들께서 그대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

그가 그렇게 말하고 펠레우스의 아들은 아카이아인들의 거대한 무리를 뚫고 길을 떠났다. 넬레우스의 아들이 건넨 모든 찬사를 다 들은 뒤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된 권투 경기의 상을 정했다. 그는 길들이지 않은 여섯 살 된 튼튼한 노새 한 마리를 가져와 집회 자리에 묶어 두었는데, 그런 노새는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 그리고 패배하는 자에게는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주기로 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다른 아카이아인들이여. 이 상을 걸고 가장 뛰어난 두 전사를 초대하니, 그들이 손을 들어 힘껏 권투를 하게 하시오. 아폴론께서 견뎌낼 힘을 주시는 자는, 모든 아카이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튼튼한 노새를 끌고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러나 패배하는 자는 상으로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가져가게 될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권투에 능숙하고 용맹하며 키가 큰 사내인 파노페우스의 아들 에페이오스가 즉시 일어났다.

그는 튼튼한 노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손잡이가 두 개 달린 잔을 상으로 가져갈 자는 누구든 이리로 가까이 오시오. 나는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하기에, 아카이아인 중 그 누구도 주먹으로 나를 이겨서 이 노새를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오. 싸움터에서 내가 남만 못한 것이면 됐지 않소? 내 생각에 사람이 모든 일에 능숙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법이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며, 진실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오. 나는 그의 살점을 갈기갈기 찢고 뼈를 으스러뜨릴 것이오. 그러니 그의 친족들은 무리를 지어 여기 머물러 있다가, 그가 내 손에 패했을 때 그를 메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오직 신과 같은 사내 에우리알로스만이 그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는 탈라오스의 아들인 메키스테우스 왕의 아들이었다. 메키스테우스는 일찍이 오이디푸스가 쓰러졌을 때 그 장례에 테바이로 와서, 그곳에서 카드모스의 후손들을 모두 이긴 적이 있었다.

창으로 이름난 티데우스의 아들이 에우리알로스의 채비를 도우며 말로 그를 격려하며 그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먼저 에우리알로스의 허리에 띠를 둘러준 다음, 들에서 기른 소의 가죽을 잘 잘라 만든 끈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몸을 단단히 묶고 집회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거대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달려들어, 묵직한 타격음과 함께 손을 맞부딪치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를 가는 소리는 무시무시했고, 사방에서
사지로부터 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용맹한 에페이오스가 빈틈을 살피며 달려들어 그의
뺨을 내리쳤다. 내 생각에 그는 그 후로 오래도록 똑바로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영광스러운 사지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북풍의 물결 아래 얕은 모래톱에 널브러진 해초 위로
물고기가 튀어 올랐다가 검은 파도에 다시 가려지는 것처럼,
에우리알로스도 주먹을 맞고 그렇게 튀어 올랐다.

하지만 기개 높은 에페이오스가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친한 동료들이 그를 에워싸고, 발을 질질 끌며 집회
자리를 가로질러 그를 이끌었다. 그는 엉겨 붙은 피를
내뱉으며 머리를 한쪽으로 떨구고 있었다.

동료들은 정신을 잃고 헤매는 그를 데려와 자기들 무리
가운데에 앉혔고, 자신들은 가서 두 손잡이가 달린 잔을
가져왔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곧바로 셋째 경기인 고된 씨름의 상품을 다나오스인들 앞에 내놓았다. 이긴 자에게는 불에 올릴 큰 세발솥을 주기로 했는데, 아카이아인들은 그것을 소 열두 마리 값으로 쳤다. 진 자를 위해서는 온갖 솜씨를 지닌 여인을 가운데 세웠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소 네 마리 값으로 쳤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자, 이 경기에도 겨루어 볼 두 사람은 일어나시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위대한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일어났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꾀 많은 오디세우스도 일어섰다.

두 사람이 허리띠를 묶은 뒤, 집회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치 어떤 유명한 장인이 바람의 위력으로부터 피난처를 얻기 위해 높은 집의 서까래를 서로 맞물려 결합하듯, 두 사람은 강력한 손으로 서로를 꽉 움켜쥐었다.

용맹한 손들이 격렬하게 잡아당기자 그들의 등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땀은 줄기처럼 흘러내렸다.

그들의 갈비뼈와 어깨를 따라 피로 붉게 물든 수많은 멍 자국이 솟아올랐다. 두 사람은 잘 만든 세발솥을 차지하기 위해 승리를 향해 끊임없이 힘껏 맞붙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스를 걸어 넘어뜨려 땅에 내동댕이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아이아스 역시 오디세우스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오디세우스의 강력한 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을 지치게 할 정도에 이르자, 위대한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오디세우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 꾀 많은 오디세우스여, 그대가 나를 들어 올리든지, 내가 그대를 들어 올리게 하든지 합시다. 결과는 제우스의 뜻에 맡깁시다."

그가 말하고 나서 그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꾀를 잊지 않았다.

오디세우스는 뒤에서 아이아스의 무릎 오목한 곳을 확실한 타격으로 내리쳤고, 그의 팔다리를 풀리게 하여 아이아스가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스의 가슴 위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경탄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내심 강하고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들어 올리려고 시도했다. 오디세우스는 아이아스를 땅에서 조금 움직였을 뿐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이아스의 무릎 안쪽에 제 무릎을 걸어, 두 사람은 나란히 땅에 쓰러져 먼지를 뒤집어썼다.

이제 그들이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 씨름을 하려던 참이었으나, 아킬레우스가 직접 일어나 그들을 저지했다.

"이제 더는 힘을 쓰지 말고 고통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승리는 그대들 둘 모두에게 있소. 그러니 똑같은 상을 받아 각자의 길을 가시오. 그래야 다른 아카이아인들도 겨룰 수 있을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따랐다. 그들은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튜닉을 다시 입었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곧바로 달리기의 상품을 내놓았다.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섞는 동이였다. 여섯 되들이로, 아름답기로는 온 세상에서 단연 으뜸이었다. 손재주가 뛰어난 시돈인들이 솜씨를 다해 만들었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안개 낀 바다를 건너 실어 와 항구에 내리고 토아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이아손의 아들 에우네오스가 프리아모스의 아들 리카온의 몸값으로 그것을 용사 파트로클로스에게 주었던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동료를 기려 그 동이를 달리기에서 가장 날랜 자에게 줄 상으로 내걸었다. 이등에게는 크고 기름진 소를, 꼴찌에게는 황금 반 탈란톤을 내놓았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자, 이 경기에도 겨루어 볼 사람은 일어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곧바로 오일레우스의 아들 날랜 아이아스와 꾀 많은 오디세우스가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일어났다. 그는 발 빠르기로 모든 젊은이를 앞섰다.

그러자 그들은 한 줄로 늘어서서 자리를 잡았고, 아킬레우스는 그들에게 결승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출발 기둥에서부터 그들이 달릴 경로를 표시해 주었다.

그러자 오일레우스의 아들이 재빨리 맨 앞으로 치고 나갔고,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속도를 냈다.

허리띠 고운 여인이 손에 북을 쥐고 씨실 너머로 실타래를 당기며 북을 가슴 가까이 대고 능숙하게 놀릴 때, 북이 여인의 가슴에 밀착되는 것만큼이나 오디세우스는 바짝 뒤쫓았다.

오디세우스의 발은 아이아스가 남긴 발자국에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그 자리를 밟았고, 오디세우스가 계속해서 빠르게 달려 나갈 때마다 그의 숨결이 아이아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오디세우스가 승리를 위해 분투하자 모든 아카이아인이 그를 북돋우기 위해 환호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달릴 때 그를 향해 소리 높여 불렀다.

하지만 그들이 경주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을 때, 오디세우스는 즉시 마음속으로 눈빛이 번뜩이는 아테나에게 기도를 올렸다.

“여신이여, 제 말을 들으시고 제 발치에 훌륭한 조력자로 와 주소서.”

그가 기도로 이렇게 말하자, 팔라스 아테나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팔다리와 발, 그리고 손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을 차지하려고 막 달려 나가려 할 때,
아이아스가 달리다가 미끄러졌다. 아테나가 그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기리기 위해 잡은, 울부짖는 황소들을 도살하며 나온
오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이아스의 입과 콧구멍은 황소의
오물로 가득 찼다.

그리하여 인내심 강한 훌륭한 오디세우스가 일등으로 들어와
동이를 가졌고, 이름난 아이아스는 소를 가졌다. 아이아스는
들소의 뿔을 손에 쥐고 서서 오물을 뱉어 내며
아르고스인들에게 말했다.

"아, 이런! 여신께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셨소. 늘
어머니처럼 오디세우스 곁에 서서 그를 돕는 그 여신
말이오."

그가 그렇게 말했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보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자 안틸로코스는 미소를 지으며 꼴찌 상을 가지고
물러나 아르고스인들에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이 사실을 잘 아는 그대들 모두에게 내가
선언하겠소. 불사신들은 오늘날까지도 나이 든 이들에게
예우를 갖춘다는 것을 말이오.

아이아스는 나보다 겨우 조금 더 나이가 많을 뿐이지만,
오디세우스는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오. 사람들
말로는 정정한 늙은이라 하오. 하지만 아킬레우스를
제외하면, 그 어떤 아카이아인도 달리기에서 그와 겨루기
어려울 것이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발이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다.

"안틸로코스여, 그대의 칭찬이 헛되지 않을 것이오. 그대의
상에 황금 반 탈란톤을 더해 주겠소."

그렇게 말하며 아킬레우스가 그것을 그의 손에 쥐여 주자,
안틸로코스는 기쁘게 그것을 받았다.

이어서 펠레우스의 아들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과
방패와 투구를 가져와 집회 자리에 내려놓았다.
파트로클로스가 사르페돈에게서 벗겨 낸 무구였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이 상품을 걸고 가장 뛰어난 두 용사를 부르겠소. 무구를
갖춰 입고 살을 베는 청동을 들고 군사들 앞에서 서로 겨루어
보시오."

"둘 가운데 먼저 상대의 고운 살에 닿아, 무구와 검은 피를 뚫고 속살까지 찌르는 자에게는 이 은 장식 박힌 칼을 주겠소. 내가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훌륭한 트라키아 칼이오. 이 무구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 가지시오. 그리고 우리 막사에서 두 사람에게 푸짐한 잔치를 베풀겠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위대한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가 일어났고, 티데우스의 아들 굳센 디오메데스도 일어났다.

그들이 군중의 양옆에서 무장을 마치자, 전투를 갈망하며 무시무시한 눈빛을 번뜩이는 두 사람이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모든 아카이아인이 경악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향해 전진하며 가까워졌을 때, 세 번이나 서로를 공격했고 세 번이나 서로 충돌했다.

그때 아이아스가 사방으로 고른 둥근 방패를 찔렀으나, 안에 입은 흉갑이 창을 막아 살에는 닿지 않았다. 하지만 티데우스의 아들은 빛나는 창끝으로 그 거대한 방패 너머의 목을 찌르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러자 아카이아인들은 아이아스가 걱정되어 싸움을 멈추고 상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그 큰 칼을 칼집과 잘 만든 멜빵째로 티데우스의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펠레우스의 아들은 주조한 그대로의 쇳덩이를 내놓았다. 전에 힘센 에에티온이 던지던 것이었다.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에에티온을 죽이고 다른 재물과 함께 그것을 배에 싣고 왔던 것이다.

그는 일어서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말했다.

"자, 이 경기에도 겨루어 볼 사람은 일어나시오. 이긴 자는 기름진 밭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섯 해가 돌아오는 동안 이것을 넉넉히 쓸 것이오. 쇠가 모자라서 그의 목자나 농부가 도시로 갈 일은 없을 것이오. 이것으로 충분할 테니 말이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싸움에 강한 폴리포이테스와 신과 같은 힘센 레온테우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 그리고 훌륭한 에페이오스가 일어났다.

그들은 차례대로 자리를 잡았다. 훌륭한 에페이오스가 철덩어리를 움켜쥐고 휘둘러 던지자, 모든 아카이아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다.

다음으로 아레스의 후손인 레온테우스가 차례를 이어 던졌다. 세 번째로 위대한 텔라몬의 아이아스가 강한 손으로 그것을 내던졌고,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이 던져 놓은 표지를 넘어 날아갔다.

하지만 싸움에 강한 폴리포이테스가 그 덩어리를 움켜쥐고, 마치 목동이 소 떼 위로 회전하며 날아가는 지팡이를 던지듯 던지자, 그것은 모여 있는 모든 이들을 훨씬 넘어 멀리 날아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환호했다.

강한 폴리포이테스의 동료들이 일어나 왕이 받은 상을 속이 빈 배들로 옮겼다.

이어서 그는 궁수들을 위해 검은 쇠를 상으로 내놓았다. 양날 도끼 열 자루와 외날 도끼 열 자루였다. 그리고 이물이 검은 배의 돛대를 멀리 모래밭에 세우고, 가는 줄로 겁 많은 비둘기의 발을 돛대에 묶은 뒤 그것을 쏘라고 했다.

"겁 많은 비둘기를 맞히는 자는 양날 도끼를 모두 집으로 가져가시오. 새는 못 맞히고 줄을 맞히는 자는 솜씨가 그보다 못하니, 외날 도끼를 상으로 가져가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힘센 테우크로스 왕이 일어났고, 이도메네우스의 용맹한 시종 메리오네스도 일어났다. 그들은 청동 투구에 제비를 넣고 흔들었고, 테우크로스가 첫 번째 차례를 뽑았다.

그는 곧바로 힘껏 화살을 쏘았으나, 아폴론 왕에게 맏배 새끼 양으로 영광스러운 백 마리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폴론이 그를 시샘하여 새는 맞히지 못했다. 그러나 새의 발 곁, 새를 묶어 둔 줄을 맞혀, 쓰라린 화살이 줄을 깨끗이 끊어 버렸다.

그러자 비둘기는 하늘로 솟구쳐 날아갔고, 줄은 땅을 향해 느슨하게 매달렸다. 아카이아인들은 크게 환호했다.

하지만 메리오네스는 테우크로스의 손에서 재빨리 활을 낚아챘다. 테우크로스가 조준하는 동안 메리오네스는 오랫동안 화살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멀리 쏘는 아폴론에게 맏배 새끼 양으로 영광스러운 백 마리 제물을 바치겠다고 즉시 맹세했다.

그는 구름 아래 높은 곳에서 겁에 질린 비둘기를 발견했다. 비둘기가 그곳에서 원을 그리며 돌 때, 그는 비둘기의 날개 아래 한가운데를 쏘았다. 화살은 그대로 관통하여 다시 떨어졌고, 메리오네스의 발 앞 땅에 박혔다.

하지만 비둘기는 이물이 검은 배의 돛대에 내려앉아 머리를 떨구었고, 두툼한 깃털은 축 늘어졌다. 비둘기의 사지에서 생명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비둘기는 돛대에서 멀리 떨어져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경탄에 사로잡혔다.

메리오네스는 양날 도끼 열 자루를 모두 집어 들었고,
테우크로스는 외날 도끼를 들고 속이 빈 배들로 향했다.

이어서 펠레우스의 아들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창과, 아직 불에 올린 적 없는 꽃무늬 돋을새김 솥을 가져와 집회 자리에 내려놓았다. 솥은 소 한 마리 값이었다. 그러자 창던지기에 능한 사람들이 일어났다. 아트레우스의 아들, 널리 다스리는 아가멤논이 일어났고, 이도메네우스의 용맹한 시종 메리오네스도 일어났다.

그때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대가 다른 모든 이들보다 얼마나 뛰어나며, 힘과 투창 실력에 있어 얼마나 최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이 상을 가져가서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오. 하지만 만약 그대의 마음이 허락한다면, 이 창은 전사 메리오네스에게 주었으면 하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도 그 말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킬레우스는 메리오네스에게 청동 창을 주었고, 아가멤논 왕은 그 아름다운 상을 전령 탈티비오스에게 넘겨주었다.

제24권

헥토르의 몸값

이윽고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은 저마다 제 배로 흩어졌다.
다른 이들은 저녁을 먹고 달콤한 잠을 실컷 누릴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사랑하는 동료를 줄곧 떠올리며
울었다. 모든 것을 길들이는 잠도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의 사내다움과 굳센 용기를 그리워하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그와 함께 해낸 모든 일과, 사람들의
싸움과 거센 파도를 헤치며 함께 겪은 숱한 고생을 생각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옆으로
누웠다가, 다시 등으로 누웠다가, 다시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웠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망연자실한 채 바닷가를
배회했다.

바다가 빛나고 해변이 빛날 때, 그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날랜 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헥토르를 전차 뒤에 묶어 끌고 다녔다. 그가 메노이티오스의 죽은 아들의 봉분 둘레를 세 번 돌고 나서야 그는 다시 막사에서 쉬었으나, 헥토르는 먼지 속에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뻗어 있었다.

하지만 아폴론은 죽은 전사를 가엽게 여겨 그의 몸에 어떤 훼손도 생기지 않게 지켜주었다. 아폴론은 황금 아이기스로 그를 온전히 덮어 주어, 아킬레우스가 그를 끌고 갈 때 그의 몸을 찢어 놓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휩싸여 훌륭한 헥토르를 모욕했다. 하지만 복된 신들은 그를 지켜보며 가엽게 여겼고, 눈 밝은 아르게이폰테스를 움직여 시신을 몰래 빼돌리게 했다.

이 일은 다른 모든 신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으나, 헤라나 포세이돈, 혹은 눈빛이 번뜩이는 처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처럼 여전히 일리오스와 프리아모스 및 그의 백성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다.

그것은 알렉산드로스의 죄 때문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여신들이 자신의 거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었고, 자신의 치명적인 욕정을 부추긴 여신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열두 번째 아침이 밝자, 포이보스 아폴론이
불사신들 사이에서 말했다.

"신들이여, 그대들은 잔인하고 해로운 이들이오. 헥토르가
그대들에게 흠 없는 소와 염소의 넓적다리를 태워 바친 적이
없었단 말이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시신이 된 그를 구해 줄
마음도 없구려. 그의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
프리아모스와 백성들이 그를 보고 곧바로 불에 태워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도록 말이오."

"그대들은 오히려 저 잔인한 아킬레우스를 돕고 싶어
하는구려. 그는 마음이 바르지 않고, 가슴속 뜻도 꺾일 줄
모르오. 그는 잔인한 생각만 품고 있소. 마치 사자가 큰 힘과
사나운 기세를 좇아 잔치를 벌이려고 사람들의 양 떼를
덮치는 것과 같소.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동정심을 모두
잃었고, 사람에게 큰 해를 주기도 하고 득을 주기도 하는
부끄러움도 그에게는 없소."

"보시오,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소중한 이를 잃었을지도
모르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나, 혹은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가 그를 위해 울며 통곡한
뒤에는 비로소 그만두는 법이오. 운명의 여신들이 인간에게
견디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오.

하나 이 사람은 훌륭한 헥토르의 생명을 앗아간 뒤, 그를 전차 뒤에 묶어 사랑하는 동료의 봉분 둘레로 끌고 다니고 있소. 참으로 그 행위로는 명예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이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그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그가 조심해야 할 것이오. 보시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아무런 감각도 없는 흙덩이에게까지 모욕을 주고 있지 않소."

그러자 흰 팔의 헤라가 노하여 그에게 말했다.

"은빛 활의 주인아, 너희 신들이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를 똑같이 존중한다면 네 말도 옳을 것이다. 그러나 헥토르는 필멸의 인간으로 여자의 젖을 먹고 자랐고, 아킬레우스는 여신의 아들이다. 그 여신은 내가 몸소 보살펴 기르고, 불사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용사 펠레우스에게 아내로 주었다."

"신들아, 너희도 모두 그 혼례에 왔고, 너도 리라를 손에 들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악한 자들의 벗,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자야."

그러자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헤라여, 신들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오. 이 두 사람의 명예가 같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헥토르 또한 일리오스에 사는 모든 필멸의 인간 중 신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였소.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했소.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한 제물을 거른 적이 없었기 때문이오.

그의 제물로 인해 나의 제단에 고루 나눈 잔치와 헌주와 제물 굽는 냄새, 즉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숭배가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소."

"그러나 용감한 헥토르의 시신을 몰래 빼내 오는 일은 그만둡시다. 아킬레우스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의 어머니가 밤이나 낮이나 늘 그의 곁에 와 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신들 가운데 누가 테티스를 내게 불러와 주면 좋겠소. 내가 그녀에게 슬기로운 말을 일러,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에게서 선물을 받고 헥토르를 돌려주게 하겠소."

그가 그렇게 말하자, 폭풍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가 그의 전갈을 전하기 위해 서둘렀다.

그녀는 사모스와 험준한 임브로스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검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녀의 위로 물결이 크게 소리쳤다.

그녀는 들판의 황소 뿔에 매달아 굶주린 물고기들에게
죽음을 몰고 내려가는 납추처럼, 심해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다.

이리스는 움푹 팬 동굴 속에서 테티스를 찾아냈다. 그녀의
주변에는 다른 바다의 여신들이 무리 지어 앉아 있었고,
테티스는 그들 가운데서 비탄에 잠겨 울고 있었다.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아들이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흙이 기름진
트로이아에서 죽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발 빠른 이리스가 다가가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테티스시여.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는
제우스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은빛 발을 가진 여신 테티스가 대답하며 말했다.

"그 위대한 신께서 무슨 일로 나를 부르시오? 나는 가슴에
끝없는 슬픔을 안고 있어 불사신들 사이에 섞이기가
부끄럽소. 그래도 가겠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헛되이
하지는 않겠소."

그렇게 말한 뒤, 아름다운 여신은 그 무엇보다도 검은 빛을 띠는 어두운 색의 베일을 쓰고 길을 떠났다. 발 빠른 이리스가 그녀의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 그들 주변으로 바다의 파도가 갈라졌다.

그들이 해변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크로노스의 아들을 만났고, 그 주변에는 영원히 복된 다른 모든 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테티스는 제우스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아테나가 자리를 내어주었다.

헤라는 그녀의 손에 아름다운 황금 잔을 쥐여 주며 다정하게 위로했다. 테티스는 잔을 마시고 돌려주었다. 그러자 인간과 신들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테티스 여신이여, 그대는 가슴에 달랠 길 없는 슬픔을 안고서도 올림포스에 왔구나. 나도 그것을 잘 안다. 그래도 내가 그대를 왜 불렀는지 말해 주겠다. 아흐레 동안 헥토르의 시신과 도시를 무너뜨리는 아킬레우스를 두고 불사신들 사이에 다툼이 일었다.”

“신들은 눈 밝은 아르게이폰테스를 시켜 시신을 몰래 빼내 오게 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일에서 아킬레우스에게 영광을 주려 한다. 앞으로도 그대의 존경과 우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서 진영으로 가서 아들에게 내 분부를 전하라. 신들이 그에게 노했고, 그중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노여워한다고 말해라. 그가 미친 듯이 성이 나서 헥토르를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 붙잡아 두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가 혹시 나를 두려워하여 헥토르를 돌려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리스를 기개 높은 프리아모스에게 보내, 아카이아인들의 배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값을 치르고,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가져가라고 이르겠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은빛 발을 가진 여신 테티스는 그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올림포스의 봉우리에서 번개처럼 내려와 아들의 막사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들이 끊임없이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곁에서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분주히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막사 안에는 그들을 위해 도살된 크고 털이 많은 숫양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의 존귀한 어머니는 아들의 곁에 앉아 손으로 그를 쓰다듬으며 이름을 불러 말했다.

"내 아이야, 언제까지 울음과 슬픔으로 네 마음을 갉아먹으며 음식도 침상도 돌보지 않을 셈이냐? 차라리 여인의 품에 안겨 즐거움을 찾는 편이 네게는 나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음과 거센 운명이 벌써 네 곁에 와 있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네게 왔다."

"그분 말씀이, 신들이 네게 노했고 그중에서도 그분이 불사신 누구보다 노여워하신다는구나. 네가 미친 듯이 성이 나서 헥토르를 뾰족한 이물을 단 배들 곁에 붙잡아 두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를 내어 주고 시신의 몸값을 받아라."

그러자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포스의 신께서 진정 그렇게 명하신다면, 몸값을 가져오는 자가 시신을 데려가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배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많은 날개 돋친 말을 나누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아들은 이리스를 신성한 일리오스로 보냈다.

"일어나라, 가거라, 날랜 이리스야. 올림포스의 거처를 떠나 일리오스 안으로 들어가 기개 높은 프리아모스에게 소식을 전하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아카이아인들의 배들로 가야 한다고 전하라. 또한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전하라. 오직 그 혼자만 가게 하고, 다른 트로이아인은 아무도 그와 함께 가게 하지 마라."

"나이 든 전령 하나는 그를 따라가 노새와 잘 굴러가는 수레를 몰고, 아킬레우스가 죽인 시신을 도시로 실어 오게 해도 좋다. 그는 죽음도 두려움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해라. 우리가 아르게이폰테스를 길잡이로 붙여 주어, 아킬레우스 곁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끌게 하겠다."

"그가 그를 막사 안으로 인도하면, 아킬레우스 자신도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도 그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지혜가 없는 자도 아니고, 앞뒤를 모르는 자도 아니며, 죄악에 굳어진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탄원하러 온 사람을 정성껏 아껴 살려 줄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폭풍처럼 발이 빠른 이리스가 그의 전갈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이리스는 프리아모스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소란과 통곡 소리를 들었다.

프리아모스의 아들들은 안뜰에서 아버지 주위에 앉아 눈물로 옷을 적시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늙은 왕이 망토를 몸에 단단히 두른 채 있었다.

늙은 왕의 머리와 목에는 오물이 가득 묻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땅바닥을 뒹굴며 두 손으로 끌어모은 것이었다.

그의 딸들과 며느리들은 아르고스인들의 손에 죽어 누운 숱한 용사들을 떠올리며 온 집 안에서 곡하고 있었다.

제우스의 전령이 프리아모스 곁에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지만 그의 사지는 떨렸다.

"다르다노스의 후손 프리아모스야,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게 불행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왔다."

"나는 제우스의 전령으로 왔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만 너를 몹시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올림포스의 신께서 훌륭한 헥토르의 몸값을 치르고,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가져가라고 하신다. 너 혼자 가고, 다른 트로이아인은 아무도 함께 가지 마라. 다만 나이 든 전령 하나는 따라가 노새와 잘 굴러가는 수레를 몰고, 아킬레우스가 죽인 시신을 도시로 실어 오게 해도 좋다."

"죽음도 두려움도 마음에 두지 마라. 아르게이폰테스가 길잡이로 함께 가서, 너를 아킬레우스 곁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그가 너를 막사 안으로 이끌고 나면, 아킬레우스는 너를 죽이지도 않고 다른 누가 죽이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어리석지도, 앞뒤를 모르지도, 죄에 굳어 있지도 않다. 그는 탄원하러 온 사람을 정성껏 아껴 살려 줄 것이다."

발 빠른 이리스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왕은 아들들에게 잘 굴러가는 노새 수레를 채비하고 그 위에 고리짝을 묶으라고 일렀다.

그는 직접 향기로운 삼나무로 만들어져 천장이 높은 둥근 보물 창고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 헤카베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부인, 제우스로부터 올림포스의 전령이 나에게 왔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몸값을 치르러 아카이아인들의 배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가져가라고 말이오. 그런데 이보시오, 이것이 그대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 주시오."

"나로 말하자면, 내 마음은 그곳, 아카이아인들의 넓은 진영 배들 곁으로 가라고 무섭게 나를 재촉하고 있소."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대답했다.

"아, 이 일을 어찌할까! 예전에 당신이 낯선 나라 사람들과 당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름 높던 그 지혜는 어디로 갔소? 어찌하여 그 많은 용감한 아들들을 죽인 자의 눈앞에 홀로 아카이아인들의 배로 가려 하오? 당신 마음은 정말 쇠로 되어 있구려.

그가 당신을 붙잡아 눈앞에 두게 되면, 그토록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자이니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도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이 집에 앉아 멀리서 아들을 위해 곡이나 합시다."

"그 애가 태어날 때 내가 그 애를 낳던 날, 거센 운명의 여신이 실을 자으며 이렇게 정해 두었나 보오.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난폭한 사내 곁에서 날랜 개들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그 사내의 간을 물어뜯어 먹을 수만 있다면! 그래야 내 아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오. 그 애는 겁쟁이처럼 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을 생각도 달아날 생각도 없이 트로이아의 남자들과 가슴 깊은 여인들을 지키려고 맞서 싸우다 죽었으니 말이오."

그러자 노인,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가고자 하는 나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오. 내 궁전에서 불길한 징조를 전하는 새가 되지도 마시오. 그대는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오.

만약 지상에 있는 다른 사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면, 제물을 통해 점을 치는 예언자든 사제든 간에, 우리는 거짓이라 여기고 더욱 멀리했을 것이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직접 여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가겠소. 여신의 말은 헛되지 않을 것이오."

"만약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아인들의 배 곁에서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 내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아킬레우스가 곧바로 나를 죽여도 좋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궤짝들의 아름다운 뚜껑을 열었다.
거기서 그는 아름다운 겉옷 열두 벌과 홑겹 외투 열두 벌,
그만큼의 깔개와 흰 망토, 그리고 그만큼의 튜닉을 꺼냈다.

또 황금을 달아 모두 열 탈란톤을 내오고, 번쩍이는 세발솥 두 개와 솥 네 개, 그리고 더없이 아름다운 잔 하나를 내왔다. 그 잔은 그가 사절로 트라키아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준 귀한 보물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사랑하는 아들의 몸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그것조차 집에 아껴 두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트로이아인을 주랑 밖으로 몰아내며 그들을 욕설로 꾸짖었다.

"비참한 자들아,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자들아, 여기서 물러가라! 집에서도 슬퍼할 일이 없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께서 가장 뛰어난 내 아들을 잃게 하는 이 슬픔을 내게 가져다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냐? 아니다, 너희 자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죽었으니 이제 아카이아인들이 너희를 죽이기가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도시가 함락되어 짓밟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가고 싶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고, 사람들은 서둘러 노인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헬레노스와 파리스, 훌륭한 아가톤과 팜몬, 안티포노스, 함성을 잘 지르는 폴리테스, 데이포보스와 히포토오스, 그리고 고귀한 디오스를 꾸짖으며 불렀다.

노인은 이 아홉 명을 큰 소리로 부르며 명령했다.

"서둘러라, 나의 수치가 된 비열한 자식들아. 헥토르 대신 너희가 모두 함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 나는 참으로 불행하구나. 넓은 트로이아 땅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들을 낳았건만, 그중 하나도 남지 않았다. 신과 같은 메스토르도, 전차를 타고 싸우던 트로일로스도, 사람들 가운데 신과 같던 헥토르도. 헥토르는 필멸의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아레스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이 부끄러운 것들만 내게 남겼구나. 거짓말쟁이에, 춤추며 발 구르는 데나 날래고 뛰어난 자들, 제 백성의 새끼 양과 새끼 염소나 훔치는 자들 말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수레를 준비해 주지 않는 것이냐? 그것도 서둘러서 말이다. 이 모든 물건을 수레에 실어라. 그래야 우리가 길을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이 두려워 노새가 끄는 잘 굴러가는 수레를 끌어냈다. 아름답고 새로 만든 수레였다. 그들은 그 위에 고리짝을 묶고, 못에 걸린 노새 멍에를 내렸다. 꼭지가 달리고 고삐 고리가 잘 갖춰진 회양목 멍에였다. 또 아홉 완척 길이의 멍에 끈도 멍에와 함께 내왔다.

그들은 멍에를 수레 끝이 위로 솟은 부분의 매끄러운 축 위에 정성스럽게 얹고, 고리를 가로막대에 걸었다.

그들은 멍에를 돌기와 좌우로 세 번씩 돌려 단단히 묶은 다음, 그것을 말뚝에 고정하고 그 아래로 갈고리를 구부려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보물 창고에서 헥토르를 되찾을 헤아릴 수 없는 몸값을 가져와 매끄러운 수레 위에 쌓아 올렸다.

그들은 멍에를 메고 일하는 발굽이 튼튼한 노새들에게 멍에를 씌웠는데, 이 노새들은 예전에 미시아인들이 프리아모스에게 준 화려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프리아모스를 위해서는 늙은 왕이 자신의 소유로 간직하며 매끄러운 마구간에서 길러 온 말들을 끌어내 멍에를 메웠다.

이처럼 전령과 프리아모스는 마음속에 지혜를 품은 채, 높은 궁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수레의 멍에를 씌우고 있었다.

그때 마음이 몹시 상한 헤카베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헌주할 수 있도록 오른손에 황금 잔에 담긴 달콤한 포도주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자, 이것을 받아 아버지 제우스께 헌주하고, 적들 사이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비시오. 나는 당신이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 마음이 당신을 배들로 보내고 있으니 말이오.

그다음에는 검은 구름의 주인, 트로이아 온 땅을 굽어보시는 이다의 신 크로노스의 아드님께 비시오. 그분이 가장 아끼시고 힘도 가장 센 새, 날랜 전령을 징조로 보내 달라고 청하시오. 그 새가 당신의 오른편에 나타나, 당신이 그 징조를 제 눈으로 보고 믿음을 얻어 날랜 말을 모는 다나오스인들의 배로 갈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러나 멀리 울리는 목소리의 제우스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전령을 보내 주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아무리 가고 싶어 해도 나는 결코 아르고스인들의 배로 가라고 권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부인, 나는 그대의 이 요청을 무시하지 않겠소. 제우스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분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곁에서 시중을 들던 집안 여인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와 자신의 손에 부으라고 일렀다.

그러자 시녀가 대야와 물병을 양손에 들고 가까이 다가왔다.

손을 씻은 뒤, 그는 아내에게서 잔을 받아 들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기도를 올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두며 포도주를 따르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우스여, 이다에서 다스리시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분이시여. 제가 아킬레우스의 막사에 환영받고 가련히 여김을 받는 자로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징조를 알리는 새를 보내 주소서.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고 힘도 가장 센 새, 날랜 전령을 보내 주십시오. 그 새가 내 오른편에 나타나게 하여, 내 눈으로 직접 그 징조를 확인하고 확신을 얻어, 날랜 말을 모는 다나오스인들의 배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를 올리자, 지혜로운 제우스가 그의 말을 들었다.

제우스는 즉시 날개 달린 새들 중 징조가 가장 확실한 독수리를 보냈다. 사냥하는 거무스름한 독수리로,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독수리라고도 부른다.

그 독수리는 마치 빗장이 잘 맞물린 어느 부유한 자의 지붕 높은 보물창고 문처럼, 날개를 이쪽저쪽으로 넓게 펼쳤다. 독수리는 도시를 가로질러 날아오며 그들의 오른편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였고, 모든 이들의 가슴 속 마음은 고무되었다.

그러자 노인은 서둘러 자기 전차에 올라, 성문과 울림이 있는 주랑을 지나 나아갔다.

앞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다이오스가 모는 노새들이 바퀴 네 개 달린 수레를 끌었고, 뒤에서는 노인이 채찍질을 계속하며 도시를 통해 빠르게 몰아가는 말들이 뒤따랐다.

그의 친족들은 모두 마치 죽으러 떠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크게 통곡하며 뒤따랐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를 내려와 평원에 이르렀을 때, 아들들과 사위들은 일리오스로 돌아갔다.

그들이 평원으로 나아갈 때, 목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제우스의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노인을 보고 연민을 느꼈고, 즉시 사랑하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헤르메스야, 네가 무엇보다도 인간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마음이 이끄는 누구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니,
가서 프리아모스를 아카이아인들의 속이 빈 배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라. 그가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이를 때까지
다나오스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보거나 알아채지 못하게
해라.”

제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전령 아르게이폰테스는 그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발에 아름답고 불멸의 황금 샌들을 맸다. 그 샌들은
바람의 돌풍처럼 빠르게 바다 위와 끝없는 대지 위를
가로질러 그를 데려다주곤 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이의 눈을 잠들게 하거나, 반대로 잠든
이를 깨우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힘센
아르게이폰테스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날아갔으며,
빠르게 트로이아 땅과 헬레스폰토스에 도착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입술에 솜털이 막 돋아나 청춘의 매력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왕자 같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길을
떠났다.

다른 이들이 일로스의 거대한 고분을 지나쳤을 때, 그들은 강가에서 노새와 말들을 멈춰 세워 물을 마시게 했다. 이제 대지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전령이 주위를 살피다 바로 곁에 있는 헤르메스를 알아보고 프리아모스에게 말했다.

"다르다노스의 후손이시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가 보입니다. 곧 우리가 갈기갈기 찢길 것만 같습니다. 어서 전차를 타고 달아납시다. 아니면 적어도 저 자의 무릎을 붙잡고, 만약 그가 자비를 베풀 의사가 있다면 간청이라도 해봅시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몹시 두려워졌다. 유연한 사지에는 소름이 돋았고,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조력자인 헤르메스가 스스로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고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르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이 불멸의 밤에 어찌하여 말과 노새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숨을 사납게 내쉬는 아카이아인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바로 가까이에 적의를 품은 무자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날랜 검은 밤에 이토록 많은 보물을 싣고 가시는 어르신을 본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르신도 젊지 않으시고 함께 가는 이도 늙었으니, 누가 까닭 없이 덤벼든다면 막아 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어르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자들에게서 지켜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는 어르신이 사랑하는 제 아버지와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노인,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대 말이 모두 옳소. 그러나 어떤 신이 아직 내 위에도 손을 뻗어 지켜 주시는 모양이오. 그대처럼 복을 가져다주는 길동무를 내게 보내 주셨으니 말이오. 그대는 생김새도 놀랍게 훌륭하고 마음도 지혜롭소. 그대를 낳은 부모는 복 받은 이들이오."

그러자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것이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많은 훌륭한 보물을 안전하게 맡아 줄 낯선 나라 사람들에게 가져가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장 뛰어난 용사였던 아드님이 죽었으니, 이제 모두 겁에 질려 신성한 일리오스를 버리고 떠나시는 길입니까? 아드님은 아카이아인들과 싸우는 일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훌륭한 젊은이여, 그대는 누구이며 어떤 부모에게서 났기에, 불행한 내 아들의 최후를 이토록 알맞게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훌륭한 헥토르에 대해 물으시며 저를 떠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싸움터에서 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아르고스인들을 배들까지 몰아붙이고 날카로운 청동으로 마구 쓰러뜨릴 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노하여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시종으로, 잘 만든 같은 배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미르미돈인이고, 아버지는 폴릭토르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넉넉하고, 어르신처럼 연세가 많습니다. 아들이 여섯 있고 제가 일곱째입니다. 제비를 뽑아 형제들 가운데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배들에서 평원으로 나온 길입니다. 새벽이 되면 눈이 빛나는 아카이아인들이 도시 둘레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아카이아인의 왕들도 싸우고 싶어 안달하는 그들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정말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시종이라면, 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내 아들이 아직 배들 곁에 있소? 아니면 아킬레우스가 벌써 그를 토막 내어 개들에게 던져 주었소?"

그러자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개들이나 새들이 아직 그를 먹어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막사들 사이 아킬레우스의 배 곁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누워 있는 것이 이제 열이틀째가 되었으나, 그의 살은 전혀 썩지 않았고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을 먹어 치우는 벌레들도 그를 갉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킬레우스는 신성한 새벽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사랑하는 동료의 봉분 둘레로 그를 무자비하게 끌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와서 보신다면, 그가 얼마나 이슬을 맞은 듯 싱싱하게 누워 있는지, 피가 깨끗이 씻겨 나갔으며 어디에도 부정함이 없는지를 보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의 살에 청동을 박아 넣은 자가 많았으나, 그가 입은 모든 상처는 이제 다 아물었습니다. 신들께서 비록 시신일지라도 어르신의 아드님을 이토록 돌보시는 것은, 그가 신들의 마음에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아들이여, 불사신들께 마땅한 선물을 바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오. 내 아들은, 정말 그런 아들이 있었던가 싶지만, 집에서 올림포스에 사시는 신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소. 그래서 신들께서 죽음의 운명을 맞은 그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 것이오.

자, 이 아름다운 잔을 받고, 나를 지켜 주시오. 신들의 도움을 받아 펠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오."

그러자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다시 그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젊은 저를 떠보시는 것이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킬레우스 모르게 선물을 받으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두렵고 마음으로 우러르기에, 그분 것을 가로챘다가 나중에 화를 입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나 어르신의 길잡이로서라면 이름난 아르고스까지라도 날랜 배로든 걸어서든 정성껏 모시고 가겠습니다. 길잡이가 저라면 누구도 어르신을 얕보고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조력자가 그렇게 말하고는 전차에 뛰어올라 말들 뒤에서 채찍과 고삐를 재빨리 움켜쥐었다. 그리고 말과 노새들에게 커다란 힘을 불어넣었다.

파수꾼들이 막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무렵, 그들이 배들을 지키는 성벽과 해자에 다다랐을 때, 전령 아르게이폰테스가 이들 모두에게 잠을 쏟아부었다.

그는 즉시 성문을 열고 빗장을 밀어젖힌 뒤, 프리아모스와 수레에 실린 화려한 선물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이 펠레우스의 아들의 막사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미르미돈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위해 전나무 들보를 깎아 만든 높다란 막사였다. 그들은 들판에서 모은 부드러운 짚으로 지붕을 덮었고, 그들의 왕을 위해 두꺼운 말뚝을 세워 커다란 마당을 둘러 만들었다. 막사의 문은 단 하나의 전나무 빗장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보통 아카이아인 세 명이서 그 빗장을 밀어 넣고 다른 세 명이서 문에 달린 커다란 걸쇠를 뽑아내곤 했다. 아킬레우스는 그 혼자서도 직접 빗장을 밀어 넣을 수 있었지만 말이다.

그때 조력자인 헤르메스가 노인을 위해 문을 열어 주었고, 발 빠른 펠레우스의 아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안으로 들여왔다. 그리고 그는 전차에서 땅으로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여, 너에게 온 나는 불사신 헤르메스다. 아버지께서 너를 이끌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나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아킬레우스의 눈앞에 나서지는 않겠다. 불사신이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필멸의 인간들에게 대접을 받는다면 노여움을 살 일이다.

너는 들어가서 펠레우스의 아들의 무릎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와 머리채 고운 어머니와 아들의 이름을 걸고 애원해 그의 마음을 움직여라."

헤르메스는 그렇게 말하고 높은 올림포스로 떠나갔다.

프리아모스는 전차에서 땅으로 뛰어내렸고, 말과 노새를 돌보며 머물게 한 이다이오스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그러나 노인은 제우스가 아끼는 아킬레우스가 앉아 있곤 하는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아킬레우스를 발견했으나, 그의 동료들은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오직 전사인 아우토메돈과 아레스의 후손인 알키모스 두 사람만이 그를 정성껏 모시고 있었다. 아킬레우스는 막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친 참이었으며, 그의 곁에는 아직 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들 중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위대한 프리아모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킬레우스에게 다가가 그의 무릎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많은 아들을 죽인 그 무시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손에 입을 맞추었다.

마치 사나운 눈멂에 사로잡혀 제 나라에서 사람을 죽인 자가 낯선 나라 부잣집으로 피해 들어오면,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놀라는 것과 같았다. 그처럼 아킬레우스는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를 보고 놀랐고, 다른 이들도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프리아모스는 간청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오. 그분은 나처럼 노년의 비통한 문턱에 서 계신 분이오. 주변에 사는 이들이 그분을 몹시 괴롭히고 있을 것이나, 그분에게 닥칠 파멸과 재앙을 막아줄 이는 아무도 없소.

그래도 그분은 그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쁠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트로이아 땅에서 돌아올 날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그러나 나는, 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오. 트로이아의 넓은 땅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들을 낳았으나, 그들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오.

아카이아인들의 아들들이 오기 전에는 내게 쉰 명의 아들이 있었소. 그중 열아홉 명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궁전의 여인들이 낳았소.

그 많은 아들 중 다수는 분노한 아레스가 그들의 무릎을 꺾어 버렸고, 내게 유일하게 남아서 홀로 도시와 사람들을 지키던 아들, 바로 헥토르를 그대가 죽였소.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우던 중이었소."

"그를 위해 나는 지금 그를 그대에게서 되찾아 오려고 아카이아인들의 배들로 왔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가지고 왔소.

아킬레우스여,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를 가엽게 여기시오.

보시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련한 처지요. 내 아들들을 죽인 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기 위해, 이 땅 위의 그 어떤 필멸의 인간도 아직 겪지 못한 일을 나는 견뎌냈소."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아킬레우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울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아킬레우스는 노인의 손을 잡고 그를 조심스럽게 떼어 놓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울었다. 한 사람은 아킬레우스의 발치에 엎드린 채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를 위해 슬프게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다시 울었다. 그들의 신음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려 퍼졌다.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슬픔을 다 쏟아내고, 그로 인한 갈망이 그의 마음과 사지에서 떠나갔을 때,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하얗게 센 머리와 수염을 가엽게 여기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날개 돋친 말로 노인에게 말을 건넸다.

"아, 불행한 사람이여, 그대의 영혼이 겪은 고난은 참으로 많구려. 그대의 아들들을 여럿 죽인 나의 눈을 마주하려, 어찌 홀로 아카이아인의 배들이 있는 곳까지 올 용기가 있었소?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쇠로 되어 있구려."

"자, 이리 와서 자리에 앉으시오.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슬픔은 마음속에 고요히 묻어두기로 합시다. 차가운 통곡은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하오.

신들께서는 필멸의 인간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정작 자신들은 슬픔을 모른 채 인간들의 운명의 실을 이와 같이 짜 놓으셨소. 제우스의 집 바닥에는 그가 나누어 주는 것들을 담은 항아리 두 개가 놓여 있소. 하나에는 재앙이, 다른 하나에는 복이 담겨 있소."

"벼락을 던지는 제우스가 두 항아리에서 섞어서 주는 사람은 때로는 궂은일을,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나오. 그러나 궂은 것만 주는 사람은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하고, 끔찍한 광기에 쫓겨 신성한 대지 위를 떠돌게 하니, 그는 신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헤매오.

펠레우스에게도 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었소. 그는 복과 재산으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고 미르미돈인들의 왕이었으며, 필멸의 인간인 그에게 신들은 여신을 아내로 주었소."

"그러나 그에게도 신들은 불행을 내렸소. 그의 집에는 왕위를 이을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일찍 죽을 운명인 외아들 하나만 낳았소. 그런데 그 아들인 나는 늙어 가는 그를 돌보지도 못하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트로이아 땅에 앉아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말이오."

"노인장, 그대도 예전에는 복을 누렸다고 들었소. 바다 쪽으로는 마카르가 다스리던 레스보스, 위로는 프리기아, 그리고 끝없는 헬레스폰토스에 이르기까지, 그 안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대가 재산과 아들들로 으뜸이었다고 하오. 그러나 하늘의 신들이 그대에게 이 재앙을 내린 뒤로는, 그대의 도시 둘레에 늘 싸움과 살육이 그치지 않았소."

"참으시오. 마음속으로 끝없이 슬퍼하지 마시오. 아들을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를 되살리지도 못하오. 그러기 전에 그대가 먼저 다른 불행을 또 겪을 것이오."

그러자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 노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헥토르가 막사 사이에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누워 있는 동안에는 나를 어떤 식으로든 의자에 앉히지 마시오. 아니, 내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를 속히 돌려보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온 이 거대한 몸값을 받아 주시오. 그대가 처음부터 나를 살려 주었으니, 그로 인해 기쁨을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

그러자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눈썹 아래로 분노 어린 시선을 던지며 그에게 말했다.

"노인장,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마시오. 나 스스로도 헥토르를 그대에게 돌려줄 마음이 있소. 제우스께서 나에게 전령을 보내셨는데, 바로 바다 노인의 딸인 나의 어머니였소.

프리아모스여, 나는 마음속으로 그대에 대해 알고 있소. 어떤 신이 그대를 아카이아인들의 날랜 배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지 않소.

필멸의 인간이라면 아무리 젊고 강하다 한들 감히 군대 한가운데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오. 또한 경계하는 이들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며, 우리의 문빗장을 쉽게 밀어젖힐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니 노인장, 슬픔에 잠긴 내 마음을 더는 들쑤시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가 탄원하러 온 사람이라 해도, 내가 막사 안에서 그대를 살려 두지 못하고 제우스의 분부를 어기게 될지도 모르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말을 귀담아들었다.

그러나 펠레우스의 아들은 사자처럼 막사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죽은 파트로클로스 다음으로 아킬레우스가 모든 전우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두 시종, 전사 아우토메돈과 알키모스가 그와 함께 나갔다.

그들은 멍에 아래에 있던 말과 노새들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늙은 왕의 전령이자 외치는 자를 안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튼튼한 바퀴가 달린 수레에서 헥토르를 되찾으려고 가져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몸값을 내렸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죽은 이를 그 옷들로 감싸서 집으로 실어 갈 수 있도록, 그곳에 옷 두 벌과 잘 짜인 튜닉 하나를 남겨 두었다.

그러고는 아킬레우스가 시녀들을 불러 시신을 씻기고 기름을 바르라고 일렀다. 프리아모스가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시신을 따로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였다. 프리아모스가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노여움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아킬레우스도 성이 나서 그를 죽여 제우스의 분부를 어기게 될까 염려했던 것이다.

시녀들이 시신을 씻기고 기름을 바른 뒤에 아름다운 겉옷과 튜닉을 입히자, 아킬레우스가 직접 시신을 들어 올려 상여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함께 시신을 들어 매끄럽게 닦인 수레 위에 올렸다.

그러고 나서 아킬레우스는 신음하며 자신의 친한 동료의 이름을 불렀다.

"파트로클로스여, 만약 그대가 하데스의 집에서조차 내가 훌륭한 헥토르를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나에게 화를 내지 마오. 그가 내게 준 몸값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오."

"그리고 그대에게도 그대의 몫을 모두 돌려주겠소."

훌륭한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막사 안으로 돌아가,
아까 일어섰던 정교하게 꾸민 의자에 맞은편 벽을 등지고
앉았다. 그리고 프리아모스에게 말했다.

"노인장, 그대 아들은 바라던 대로 돌려보내졌고 지금 상여에
누워 있소. 날이 밝으면 그대가 직접 보고 데려가시오. 지금은
우선 저녁을 듭시다. 머리채 고운 니오베도 제 집에서 자식
열둘, 딸 여섯과 한창때의 아들 여섯이 죽었는데도 먹을 것을
생각했다오."

"아폴론은 니오베에게 노하여 은빛 활로 아들들을 쏘아
죽였고, 활 쏘는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죽였소. 니오베가 뺨
고운 레토와 자신을 견주며, 여신은 둘밖에 낳지 못했지만
자신은 많은 자식을 낳았다고 뽐냈기 때문이오. 그래서
둘뿐인 그 신들이 그 자식들을 모두 죽여 버렸소."

"그들은 아흐레 동안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으나 묻어 줄
사람이 없었소. 크로노스의 아들이 사람들을 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오. 열흘째 되는 날에야 하늘의 신들이 그들을
묻어 주었고, 니오베는 울다 지쳐 음식을 생각했소.

이제 니오베는 바위들 사이, 외딴 산 시필로스 어딘가에서 돌이 된 채 신들이 내린 슬픔을 곱씹고 있소. 사람들 말로는 그곳에 아켈로오스 강가에서 날렵하게 춤추는 님프들, 곧 여신들의 잠자리가 있다고 하오."

"자, 존귀한 노인장, 우리 둘도 음식을 생각합시다. 그대는 사랑하는 아들을 일리오스로 데려간 뒤에 그를 위해 곡하시오. 그는 그대의 눈물을 많이 받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날랜 아킬레우스는 벌떡 일어나 흰 양 한 마리를 잡았다. 동료들이 가죽을 벗기고 법도대로 잘 손질하여, 솜씨 좋게 고기를 썰어 꼬챙이에 꿰고 정성껏 구운 뒤 모두 꼬챙이에서 뺐다. 아우토메돈은 빵을 가져와 고운 바구니에 담아 식탁에 나누어 놓았고, 아킬레우스는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음식과 술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자, 다르다노스의 후손 프리아모스는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보고 진심으로 경탄했다. 아킬레우스는 마치 신과 같은 모습이었다.

아킬레우스 또한 다르다노스의 후손 프리아모스의 훌륭한 풍채를 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탄했다.

그들이 서로를 실컷 바라본 뒤에,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어 말했다.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이여, 이제 내 침상을 속히 보여주시오. 달콤한 잠에 마침내 달래져 우리가 휴식을 취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오. 그대의 손에 내 아들이 목숨을 잃은 뒤로, 내 눈은 한 번도 눈꺼풀 아래로 감긴 적이 없었소. 나는 그저 닫힌 안뜰의 오물 속을 뒹굴며, 수많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고 곱씹을 뿐이었소. 하지만 이제 나는 고기를 맛보았고, 반짝이는 포도주를 목구멍으로 넘겼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맛보지 못했었소."

그가 말을 마치자, 아킬레우스는 그의 동료들과 시녀들에게 주랑 아래에 침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자줏빛 담요를 깔며, 그 위에 덮개를 펴고, 옷으로 삼을 양털 망토를 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시녀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방에서 나가 분주히 서둘러 두 개의 침상을 폈다.

그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에게 짐짓 놀리듯 말했다.

"사랑하는 노인장, 그대는 바깥에 누우시오. 늘 내 곁에 앉아 마땅히 의논을 하는 아카이아인의 장수들 가운데 누가 이리로 올지도 모르오. 그들 가운데 누가 날랜 검은 밤에 그대를 보면, 곧바로 백성의 목자 아가멤논에게 알릴지도 모르오. 그러면 시신을 돌려주는 일이 늦어질 것이오."

"자, 이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훌륭한 헥토르를 위해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를 생각인지 말이오. 그래야 나도 그 기간만큼 머물며 군대를 붙잡아 둘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신과 같은 프리아모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만약 그대가 진정으로 내가 훌륭한 헥토르의 장례를 치러 주기를 원한다면, 아킬레우스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을 이루는 길이오.

우리가 도시 안에 어떻게 갇혀 있는지 그대도 알 것이고, 산에서 땔감을 가져오는 것도 멀며, 트로이아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소.

아흐레 동안 우리는 궁전에서 그를 위해 슬퍼할 것이고, 열흘째 되는 날에 장례를 치르며 백성들은 잔치를 벌일 것이오. 그리고 열하루째 되는 날에는 그 위에 봉분을 쌓을 것이며,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열이틀째 되는 날에는 전투를 치를 것이오."

그러자 발 빠른, 훌륭한 아킬레우스가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노인 프리아모스여,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소. 그대가 말한 기간만큼은 전투를 늦추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인의 마음이 혹시라도 두려워지지 않도록 그의 오른손 손목을 꽉 잡았다.

그리하여 전령과 프리아모스는 가슴에 지혜를 품은 채 막사 앞쪽 주랑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잘 지어진 막사의 가장 안쪽에서 잠들었으며, 그의 곁에는 뺨이 고운 브리세이스가 누워 있었다.

이제 다른 모든 신들과 전차를 모는 영웅들은 부드러운 잠에 취해 밤새도록 잠들었다.

하지만 조력자인 헤르메스에게는 잠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문을 지키는 강한 파수꾼들에게 들키지 않고 프리아모스 왕을 배들로부터 인도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프리아모스의 머리맡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노인이여, 아킬레우스가 살려 주었다고 적들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고 있다니, 너는 어떤 화도 걱정하지 않는구나. 이제 너는 큰 값을 치르고 아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나 아카이아인 군대가 너를 알아채면, 뒤에 남은 네 아들들은 네 목숨값으로 그 세 배나 되는 몸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헤르메스가 이렇게 말하자 노인은 두려워 전령을 깨웠다. 헤르메스는 그들을 위해 말과 노새에 멍에를 메우고, 몸소 가볍게 몰아 진영을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름답게 흐르는 강이자 불멸의 제우스가 낳은 소용돌이치는 크산토스의 여울에 이르렀을 때, 헤르메스는 높은 올림포스로 떠났다. 그때 사프란색 옷을 입은 새벽이 온 땅의 표면 위로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말들을 도시로 몰았고, 노새들은 죽은 이를 실어 날랐다.

그들 중 누구도, 남자든 허리에 아름다운 띠를 두른 여인이든,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황금빛 아프로디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카산드라는 페르가모스 위로 올라가, 전차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았다. 도성에 소식을 외쳐 알리는 전령도 보았다.

또한 그녀는 노새들이 끄는 수레 위, 상여에 누워 있는 그 사람도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날카롭게 외치며 온 도성에 소리쳤다.

"트로이아의 남자들이여, 여인들이여, 와서 헥토르를 보시오. 그가 살아 있을 때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다면 말이오. 그는 이 도시와 온 백성의 큰 기쁨이었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도성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 남지 않았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모두에게 닥쳤던 것이다. 그들은 성문 가까이에서 시신을 싣고 돌아오는 프리아모스를 맞았다.

헥토르의 사랑하는 아내와 존귀한 어머니가 맨 먼저 잘 굴러가는 수레로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람들은 그 둘레에 몰려들어 울었다.

노인이 수레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성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헥토르를 위해 곡했을 것이다.

"노새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 주시오. 내가 그를 집에 데려다 놓은 뒤에 마음껏 곡하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물러서서 수레에 길을 내주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영광스러운 집으로 데려가 밧줄로 엮은 침상 위에 눕혔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장송곡을 이끄는 가수들을 세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했다. 가수들이 장송곡을 부르자 여인들이 통곡했다.

이때 흰 팔의 안드로마케가 사람을 죽이는 헥토르의 머리를 품에 안은 채 통곡을 이끌었다.

"여보, 당신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저를 집에 과부로 남겨 두셨습니다. 불행한 당신과 제게서 난 아들은 아직 어린 젖먹이인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이 도시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이 도시를 지켜보며 막아 내고, 고귀한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지켜 주던 당신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곧 속이 빈 배에 실려 끌려갈 것이고, 저도 그들 틈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너는 나를 따라가 어느 잔인한 주인 밑에서 험한 일을 하며 고생하게 되겠구나. 아니면 어느 아카이아인이 네 팔을 잡아 성벽에서 내던져 비참하게 죽일지도 모른다. 헥토르가 그의 형제나 아버지나 아들을 죽였다고 노하여 말이다. 수많은 아카이아인이 헥토르의 손에 쓰러져 넓은 대지를 이로 깨물었으니까. 네 아버지는 끔찍한 싸움터에서 결코 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온 도성 사람들이 그를 위해 곡하고 있습니다. 헥토르, 당신은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비탄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제게 쓰라린 고통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 침상에서 제게 손을 뻗어 주지도 않았고, 제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되새길 슬기로운 말 한마디 남겨 주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이와 같이 말했고, 그러자 여인들이 슬피 울었다.

이어서 헤카베가 여인들 가운데서 격렬한 곡을 이끌었다.

"헥토르, 내 모든 자식 중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때 너는 신들에게 사랑받았으니, 신들께서 네가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너를 돌보아 주셨구나."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내 다른 아들들을 사로잡으면 쉼 없는 바다 너머 사모스와 임브로스와 안개 자욱한 렘노스로 팔아넘기곤 했다. 그러나 너는 날이 긴 청동으로 목숨을 빼앗은 뒤, 네가 죽인 그의 동료 파트로클로스의 봉분 둘레로 거듭 끌고 다녔다. 그래도 그를 되살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지금 너는 갓 죽은 사람처럼 이슬 머금은 듯 싱싱하게 내 집에 누워 있구나. 마치 은빛 활의 아폴론이 부드러운 화살로 찾아와 죽인 사람처럼."

그녀가 울며 이렇게 말하자 그칠 줄 모르는 곡이 일었다. 그 뒤로 헬레네가 세 번째로 곡을 이끌었다.

“아주버님, 남편의 형제들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소중하던 분이여! 제 남편은 저를 트로이아 땅으로 데려온 신과 같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차라리 그 전에 죽었더라면!”

“제가 그곳을 떠나 고향을 등진 지 벌써 스무 해가 되었지만, 아주버님께는 나쁜 말이나 업신여기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의 형제나 누이, 고운 옷을 입은 동서나 시어머님이 집에서 저를 나무랄 때면, 아주버님은 말로 타이르고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말려 주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늘 친아버지처럼 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과 불행한 제 자신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웁니다. 이제 넓은 트로이아에는 제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저를 보고 몸서리칠 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말했고, 그러자 수많은 군중이 탄식했다.

그러자 노인 프리아모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했다.

“트로이아의 사람들이여, 이제 도시로 땔감을 가져오시오.
아르고스인들의 교활한 매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아킬레우스가 검은 배들로부터 나를 보내며, 열두 번째
새벽이 올 때까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내게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소와 노새를 수레에 매고
곧이어 도시 앞에 모여들었다.

아흐레 동안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땔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필멸의 인간들에게 빛을 비추는 열 번째 새벽이
밝았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맹한 헥토르를 메고
나왔다. 그리고 장작더미 맨 꼭대기에 죽은 이를 뉘어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였다.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이른 새벽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헥토르의 장작더미 주위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은 먼저 반짝이는 포도주를
부어 불길이 닿는 곳까지 장작더미를 적셨다.

그 후 그의 형제들과 전우들이 슬퍼하며 하얀 뼈들을
모았는데, 그들의 뺨에는 큰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뼈를 가져다가 황금 항아리에 담고 부드러운 자줏빛 옷으로 덮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항아리를 우묵한 구덩이에 내려놓은 뒤, 촘촘하게 박힌 커다란 돌들로 그 위를 덮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봉분을 쌓아 올렸고,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찬 아카이아인들이 때가 되기 전에 그들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감시자들을 배치했다.

봉분을 다 쌓은 뒤에 그들은 돌아갔다. 그리고 제우스의 보살핌을 받는 왕, 프리아모스의 궁전에서 모여들어 영광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길들이는 헥토르의 장례를 치렀다.

번역과 검수 안내

직접 번역 대상은 A. T. Murray의 1924년 영어 산문 번역입니다. 그리스어 직접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전자 텍스트의 명백한 오식 몇 곳은 그리스어 원문을 참고해 바로잡았습니다.

초안은 로컬 Gemma로 만들고, 대화의 주 AI(Claude)가 수록된 모든 원문·번역 구간을 대조했습니다. 주체와 화자, 부정·조건, 인물 관계, 고유명사, 수량, 내용 누락과 인물 사이의 말투를 검토하고 발견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AI 검수는 전문가 교열이나 의미 정확성의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단과 권별 설명 제목은 새로 편집했습니다. 영어판의 편집자 주석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

Homer, The Iliad with an English Translation, A. T. Murray, 1924, Vols. 1–2.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liam Heinemann. Loeb Classical Library.

전자 텍스트: Perseus Digital Library / Trustees of Tufts University.
영어 번역본 · 그리스어 원전

Perseus 저장소 이용 안내에 따라 자료와 이 번역·편집물에는 CC BY-SA 4.0 조건을 적용합니다. 한국어 번역, 문장 편집, 문단·제목, 조판이 추가됐습니다. Perseus의 공식 번역·승인판이 아닙니다.